

한중인문학연구

72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제72집 목차

■ 기획 논문

기획 주제-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중 인문학의 과제와 전망

노채환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어교육	1
송징양 · 모옌 문체의 한국어 번역 방법 연구	25
자양관 · 중한 시나리오 대화문 번역 연구	61
추육영 · 한-중 번역수업 교육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85
허련화 · 중국에서의 한국 근대초기문학 연구	113

■ 일반 논문

김순금 · 蕭紅 문학의 새로운 이해	139
류 창 ·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 연구	163
嚴美鏡(明俊) · 『朝鮮王朝實錄』의 ‘百尺竿頭’ 의미 고찰	187
이선이 · 한용운의 시기별 발표 매체와 매체별 인적 교류	217
이세진 · 1945-1950년 속초 · 양양지역의 공산체제형성	243
주수민 · 광무제 시대 배경의 한국 고소설 〈옥환기봉〉의 서사적 의의	277
쭈즈웨이 · 김기석 · 한국어 대과거 시제 ‘-었었-’과 중국어 완전상 ‘了’, ‘過’의 대응 관계 고찰	309
탄샤오루 · 권문화 · 이정희 · ‘나다:나오다’와 ‘出:出來’의 대조 분석 연구	339
郭沂滨 · 从认知的视角看‘V起来’的语义扩展隐喻机制	367
李億琦 · 韓容洙 · 臺灣禁忌文化概析	397
丁 一 · 『国标』 『指南』颁布背景下的中国大学韩国语教育现状与建设方向	415
赵玉霞 · 李沛婕 · 『明镜公案』真实性与法律性研究	44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어교육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부 유학생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노 채 환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COVID-19가 야기한 교육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온라인 수업의 구성과 상호작용의 유형과 특징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학습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한국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은 유학생들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은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그에 반해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학습동기와 몰입에서 집중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수업에서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교육에서는 단순히 대면 수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논의하며 온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학습이 익숙한 현 세대는 온라인 도구의 활용이나 온라인을 통한 소통에 매우 친숙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대변되는 학습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사용과 접근이 용이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코로나 19, 온라인 수업, 학습자 인식, 상호작용, 에듀테크

* 이 연구는 2021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며 이 논문은 2020년 8월 제47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 조교수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4.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증진 방안
5. 결론

1. 서론

2020년 12월 COVID-19 사태의 발발은 인류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대면 교육이 급작스럽게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교사와 학생을 비롯하여 일선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COVID-19는 고등교육 기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는 교실을 중심으로 한 면대면 강의는 줄어들고 교육 수요자이자 대상자인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변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¹⁾ 나아가 앞으로 미래사회의 학교는 점진적 변화에서 점진적 파괴와 파괴적 혁신의 과정을 겪으며 진화할 것이며 코로나 상황은 이러한 진화를 빨리 앞당길 것이다.²⁾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사실 낯선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서 학습 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을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정보 제공과 더불어 수업과 관련하여 교수자 및 학습자 지원을 진행한 지는 오래되었다.³⁾ 또한 이러한 학습 관리 시스템과 더불어 다양한 온라인 도구

1) Rose, S. M., "Medical student education in the time of COVID-19", *JAMA*, published online on March 31, 2020.

2) 이선희, 「온라인 중국어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이러닝환경에서의 거꾸로학습 실현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99호, 중국어문연구회, 2020, p.304.

3) Ross, S. M., "Slack it to me: Complementing LMS with student-centric communications for the millennial/post-millennial student",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41-2, 2019, p.91.

를 사용하여 대학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⁴⁾ COVID-19는 이러한 학습 관리 시스템의 적용을 고등교육에서 초중등교육에까지 적용시켜 활용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교육은 이러한 LMS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온라인 기술 도구를 활용하여 진행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습 방법을 선호할 수도 있지만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의 출현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⁵⁾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 공간에서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 학습 강화가 필요하며 더불어 다른 학습자들과 정보 공유를 통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능력을 키우는 데 미래 교육의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⁶⁾

이는 한국어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COVID-19 이전의 한국어 교실은 대면 수업을 기본으로 교실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대화와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해 대면 교육을 기본으로 했던 방식들이 급작스럽게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었고 온라인 교육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급작스런 교육 형태의 전환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수업 참여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⁷⁾이었다. 먼대면 수업과 달리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수자와 학생 모두 가상적 존재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실재감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데 이는 교육의 진행과 학습에 있어 커다란 방해요소가 된다.⁸⁾ 온라인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과 교수법이 도입되었으나 그럼에도 불

4) Lowe, B., & Laffey, D., "Is Twitter for the birds? Using Twitter to enhance student learning in a marketing course",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33-2, 2011, p.184.

5) Buzzard, C., Crittenden, V. L., Crittenden, W. F., & McCarty, P.,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in the classroom: A teaching and learning perspective,"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33-2, 2011, p.134.

6) 이동주·김미숙,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 온라인 원격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제23권 3호,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2020, p.360.

7) 노정은·임수진·안윤숙,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 환경에서의 교수자 및 학습자 인식에 대한 사례 연구 -H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1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0, p.36.

구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대면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방식을 비대면 수업에서 그대로 적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대면 수업에서는 언어·비언어적 전달 방식과 상황에 맞는 학습 활동으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는 한편 온라인 수업에서는 화상, 음성, 채팅, 화면 공유, 소그룹 회의 등의 소통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의 형태의 따라 상호작용의 방식과 유형이 다르다⁹⁾

COVID-19 상황에서 그리고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교육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의 한국어교육은 온라인 한국어교육의 환경 및 특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온라인 교육에서의 상호작용 유형 및 활동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¹⁰⁾ 본 연구에서는 그 일환으로 COVID-19 시대에 한국 대학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유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교육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육이라 하는 것은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닝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기반 환경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학습 콘텐츠를 학습자의 인지구조로 재구조화하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

8) 안정민·한혜민, 「한국어 교사의 교수실재감 인식 연구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1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0, p.140.

9) 한혜민,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서 매체를 활용한 상호작용 활성화 방안 -홍콩이공대학 <미디어 한국어> 과목 사례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82호, 이중언어학회, 2021, p.198.

10) 민경아·박서옥, 「실시간 원격 화상 한국어 강의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7권 3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p.36.

습목표를 성취하는 모든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닝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학습 체제로, 기존의 네트워크 학습, 인터넷 기반 학습, 웹 기반 학습, 온라인 학습, 사이버 교육, 가상 학습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¹¹⁾ 이러닝은 인터넷의 실체적 특성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자료의 활용이 용이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학습자 개별로 접근 및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져 외국어교육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온라인 교육의 활용 방식과 형태에 따라 세분화되며 각각의 교육 형태는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¹²⁾

〈표 1〉 온라인 교육의 형태(노채환, 2020)

온라인 교육의 형태	방식	특징
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	온라인 학습과 면대면 학습의 혼합	두 가지 이상의 학습방법이 지니는 장점을 결합하여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습형태
플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	수업 내용을 온라인으로 먼저 학습한 뒤 면대면 수업 진행	온라인을 통해 선행학습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토론 등을 진행하거나 심화학습을 진행
실시간 화상 강의 (video conferencing)	Zoom, Google meeting 등 온라인 화상 강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	실시간 면대면 수업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비실시간 온라인 강의 (online courses)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LMS 상에서 모든 과정이 진행	학습자들은 비실시간으로 LMS에 접속해 온라인 강의를 수강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드 러닝은 면대면 수업의 방식에 온라인 수업을 접목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면대면 수업에서 일부 온라인 수업을 활용(블렌디드 러닝)하여 면대면 수업을 지원하거나 미리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플립드 러닝) 면대면 수업에서는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실시간 화상 강의는

11) 박종선, 『사이버학습의 이해: 지식기반사회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전략』, 교육과학사, 2009, p.98.

12) 노채환, 「비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56집, 반교어문학회, 2020, p.112.

‘Zoom, Google meeting’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현재 비대면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¹³⁾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의는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지만 대면 수업과 같은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으며 또 온라인 도구가 불안정한 경우 화상 강의 흐름이 끊길 수 있고¹⁴⁾ 실시간 화상 강의에서 대면수업과 동일한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¹⁵⁾ 비실시간 온라인 강의는 LMS에서 학습자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별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2)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생각할 때 보통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에서의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의 주체에 따라 ‘학습자(student)-내용(contents)’, ‘학습자(student)-학습자(student)’, ‘학습자(student)-교수자(teacher)’로 유형화된다.¹⁶⁾

먼저 학습자와 내용 간의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이 온라인 콘텐츠 수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들인 기본적으로 수업 내용(콘텐츠)을 자기 주도 학습을 기반으로 수강하여 이와 함께 퀴즈, 과제, 설문, 토론을 통해 수업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며 수업 내용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

13) 노채환, 앞의 논문, p.111-112.

14) 조인옥,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운영 사례와 개선 방향 : 한국어 교육기관의 전면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58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p.258.

15) 최은지·한하림·서정민, 「실시간 화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사이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1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8, p.182.

16) Moore, M. G. & Kearsley, G., Distance education: a systems view of online learning,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012, pp.140-141.

음으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실시간, 비실시간 활동으로 온라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협력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실시간 수업의 경우 화상 강의 시스템을 활용한 회의실 또는 그룹 회의실에서 실시간 토의 및 토론, 실시간 협력 과제 활동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비실시간 수업에서는 온라인 소규모 게시판 활동이나 시차를 두고 개별 작업이 그룹 완성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패들렛(padlet)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은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수업 참여자인 학습자와 교사가 온라인 공간에서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학습 관리 시스템(LMS)을 바탕으로 실시간 수업,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비실시간으로 공지, 이메일, 게시판 활동 등을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에서의 상호작용의 유형은 교육적 경험을 실현시키는 실재감(presece)과 연결할 수 있는데 학습자와 학습 내용의 상호작용은 인지적 실재감(cognitive presence)으로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으로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은 교수 실재감(teaching presence)¹⁷⁾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실재감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의 유형과 활동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 Swan(2004)의 상호작용의 유형과 활동¹⁸⁾

실재감	분류	활동
인지적 실재감	학습자- 학습내용 (S-C)	· 학습내용의 명시적 제시 ·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분량의 내용 구성 → 퀴즈, 숙제, 설문조사, 토론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숙지했는지 확인
사회적	학습자-	· 학습자들이 온라인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활동 마련

17) 인지적 실재감(cognitive presence)은 학습자가 지속적인 성찰과 담론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은 학습자가 자신을 투영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의사소통하며 대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교수 실재감(teaching presence)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사회적 실재감을 활성화하고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Szeto, 2015, p.192. 한혜민, 2021, p.200. 재인용)

18) 한혜민, 앞의 논문, p.202.

실재감	학습자 (S-S)	· 협력학습 기회 마련 → 소회의실에서 그룹별로 토의 기회제공, 그룹 과제, 동료 평가
교수 실재감	학습자- 교수자 (S-T)	· 학습 관리 · 학습내용 설명 → LMS 공지사항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내용 알림, 한 주의 학습 목표 알림, 이메일, 수업 중 문제 해결을 위한 게시판 마련, 신속하고 유의미한 피드백 제공

3.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1) 설문 대상 및 방법

2020년 COVIDI-19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학 강의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 유학생들이 체감하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본 인식과, 기술적 편리성, 몰입도, 만족도, 상호작용에 대해 2020년 12월 14일부터 2주간 Google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서울 소재 H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며 학습자 대상 설문 문항¹⁹⁾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본 인식, 동기화와 몰입도, 수업 참여자 간 상호작용, 전반적인 만족도 및 자유 의견으로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설문 문항

유형	문항
1. 온라인 수업 인식	1-1. 나는 보통 적극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다.
	1-2. 나는 온라인 수업에서 게시판을 통한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즐겁다.
	1-3. 나는 온라인 수업에서 게시판을 통한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즐겁다.
	1-4. 나는 현재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고 있다.
2. 수강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2-1. 나는 전반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에 만족한다.
	2-2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로부터 온라인 수업에 대해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19) 설문 문항은 온라인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 평가하는 채민정(2016)의 문항과 비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조사한 노채환(2020)의 문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3 이번 학기 온라인 수업에서 장비(컴퓨터, 인터넷 환경 등) 문제로 장애를 겪은 적이 있었다.
	2-4 온라인 수업의 학습 부담이 크다.
	2-5 온라인 수업에서 적절한 학습자료가 제공되었다.
	2-6 온라인 수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2-7 다음 중 본인이 선호하는 온라인 수업 형태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고르십시오.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 (예. Zoom, Skype, Webex, Video conferencing)]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예. Cyber class, Internet class, Youtube)]
	[혼합된 형태 (실시간 + 비실시간)]
3. 학습 동기, 몰입	3-1 온라인 수업은 나의 학습동기를 자극시킨다. 3-2 온라인 수업에 집중이 잘 된다. 3-3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쉽게 산만해진다. 3-4 온라인 수업에 게시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5 온라인 수업에 흥미를 느낀다. 3-6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낀다.
4. 상호작용	4-1 온라인 수업에서 나는 다른 학생들과 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4-2 온라인 수업에서 나는 교수자와 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4-3 나는 온라인 수업에서 제공된 상호작용 형태에 만족한다.
자유 의견	온라인 수업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 주세요.

설문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매체, 선호하는 온라인 수업 형태, 그리고 응답자들의 자유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한국어 중급 이상의 숙달도를 가진 학생이라면 충분히 응답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설문 링크 공유를 통해 응답자들이 자율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총 응답자 수는 44명이었다.

2) 인식 조사 결과 및 논의

먼저 학습자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먼저 온라인 수업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평균 4.16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에서 게시판을 통한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는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평균 3.54,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은 평균 3.11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도 3.29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의 적극성에 비해 수업에서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기대만큼은 원활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수업 방식을 개선하여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함을 말해 준다.

〈표 4〉 온라인 수업 인식

항목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보통 적극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다.	4.16	1.16
2. 나는 온라인 수업에서 게시판을 통한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즐겁다.	3.54	1.24
3. 나는 온라인 수업에서 게시판을 통한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즐겁다.	3.11	1.33
4. 나는 현재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고 있다.	3.29	1.34
온라인 수업 평가 전체	3.53	1.27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직접 수강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수강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59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대해 학기 전에 충분한 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평균 3.64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학기 시작 전 수업 방식과 운영, 평가에 대해 충분히 공지가 되어야 한다. 대면 수업에서는 교수자에게 바로 해당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을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가 이루어져야 학습자들이 수업에 대한 정보를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장비 문제에 대해 장애를 겪은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평균 3.48로 보통 수준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문제나 장비 문제를 경험했음을 말해준다. 주관식 문항에서도 ‘녹화 강의에 소음이 심한데 설비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습니다.’와 같이 수업을 하는 교수자의 장비로 인해 수업이 원활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할 때 인터넷이 자주 안되고 매우 불편합니다.’, ‘인터넷 장애가 없으면 좋

습니다'와 같이 인터넷 장애로 LMS나 화상 강의의 접속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온라인 수업은 안정적인 온라인 환경의 구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서버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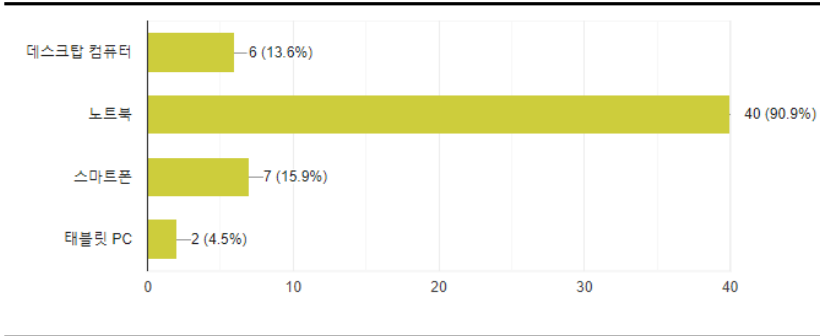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학습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평균 3.25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실제 느끼는 학습 부담은 적절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적절함 학습자료가 제공되었는지 대한 질문에는 평균 4.07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실시간으로 강의가 진행되더라도 대면 수업과 같은 판서를 통한 강의 진행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강의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강의 진행에 필요한 적절한 학습자료 및 강의와 관련된 추가 강의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지원을 꾀할 필요가 있다.

〈표 5〉 수강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항목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전반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에 만족한다.	3.59	1.19
2.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로부터 온라인 수업에 대해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3.64	1.1
3. 이번 학기 온라인 수업에서 장비(컴퓨터, 인터넷 환경 등) 문제로 장애를 겪은 적이 있었다.	3.48	1.3
4. 온라인 수업의 학습 부담이 크다.	3.25	1.12
5. 온라인 수업에서 적절한 학습자료가 제공되었다.	4.07	0.99
수강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평가 전체	3.49	1.18

온라인 수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노트북이라는 응답이 9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스마트 폰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7%,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6%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2% 있었다. 앞으로 COVID-19가 종료되더라도 온라인 수업의 확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매체 활용에 따라 수업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1〉 온라인 수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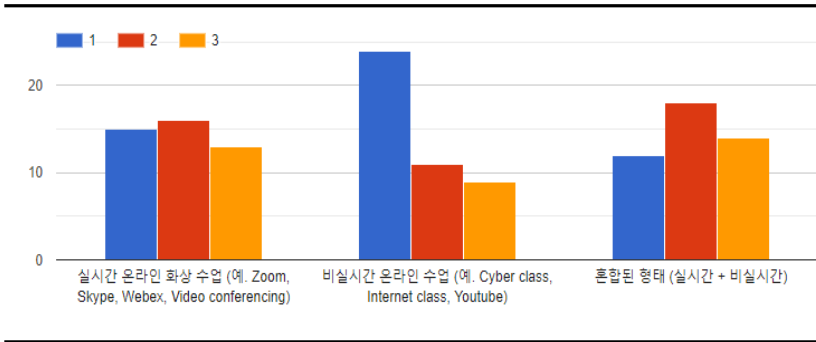


다음으로 선호하는 온라인 학습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 수업의 형태로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호하는 온라인 수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혼합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한 학습자들이 수강한 수업의 전체 진행과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학습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볼 때 학습자들은 실시간으로만 계속되는 온라인 강의에 부담²⁰⁾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식 문항의 응답 중에서도 ‘수업 들을 때 자주 왔다 갔다가 아예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등의 응답들이 있었는데 실시간 화상 강의에서 학습자들의 집중 시간을 고려한 시간 배분과 집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업 방식등에 대해 고민한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 Jena Lee(2020)에서는 줌 피로감(Zoom Fatigue)이라는 것을 통해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학습자들이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화상강의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강의 자료를 보고 카메라를 응시해야 하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작을 함께 수행하는 멀티태스킹의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력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호 응시를 위해 시선이 카메라를 향해야 하고 시선 구분 처리가 어려운 점 또한 화상 강의 시간에 집중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림 2〉 선호하는 온라인 수업 형태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학습 동기와 몰입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수강한 수업들이 학습동기를 자극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균 3.36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집중이 잘 되는지에 대한 것은 평균 3.36으로 나타나 온라인 수업의 집중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쉽게 산만해지는지에 대한 결과는 평균 3.43으로 나타나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집중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의 게시판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대한 결과는 평균 3.7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의 게시판 활동은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게시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지에 대한 것과 온라인 수업에 들을 때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결과는 모두 평균 3.25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은 온라인 수업이 집중도와 몰입도의 측면에서 볼 때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은 공간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고 학습자들의 주의가 쉽게 산만해질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하거나 다른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어 학습에 장애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화면을 응시해야 해서 피

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집중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면 수업과 달리 온라인 수업을 작은 모듈로 쪼개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본 수업을 20분 이내의 작은 단위로 나누어 구성하고 학습자들 스스로 과제 수행 등을 할 수 있는 수업 구성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6〉 학습 동기와 몰입

항목	평균	표준편차
1. 온라인 수업은 나의 학습동기를 자극시킨다.	3.36	1.22
2. 온라인 수업에 집중이 잘 된다.	3.36	1.28
3.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쉽게 산만해진다.	3.43	1.21
4. 온라인 수업에 게시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70	1.09
5. 온라인 수업에 흥미를 느낀다.	3.25	1.14
6.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낀다.	3.25	1.01
학습 동기와 몰입에 대한 평가 전체	3.46	1.20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온라인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과 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평균 2.84로 보통 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수자와 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3.11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에 비해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했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제공된 상호작용 형태에 대한 질문에 평균 3.11로 나타나 상호작용 만족도는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주관식 응답들에서도 ‘교수님께서 키톡방 같은 상담실 열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얘기 하면 더 좋다’ 등과 같은 의견이 있었는데 교수자가 실시간으로 학습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고 학생들 간의 소통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대면 수업과 동일한 상호작용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오디

오나 카메라의 문제 등으로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 상호작용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표 7〉 상호작용

항목	평균	표준편차
1. 온라인 수업에서 나는 다른 학생들과 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2.84	1.21
2. 온라인 수업에서 나는 교수자와 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3.11	1.17
3. 나는 온라인 수업에서 제공된 상호작용 형태에 만족한다.	3.11	1.15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전체	3.02	1.18

4.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증진 방안

3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분석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3장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한국어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의 특징과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이해가 필요하다. 2장에서 다룬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유형별로 증진 방안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온라인 외국어교육에서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활동 증진 방안

실재감	분류	활동
인지적 실재감	학습자- 학습내용 (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친화적인 강의 콘텐츠 설계 · 마이크로러닝에 입각한 콘텐츠 구성 ·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한 학습 활동(퀴즈, 온라인 토론, 게시판)
사회적 실재감	학습자- 학습자 (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MS 상의 학습 공동체 구성 지원 ·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한 협력학습 기회 마련
교수 실재감	학습자- 교수자 (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MS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학습 관리 ·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한 학습자와의 소통 강화

1) 학습자-학습내용 간 상호작용 증진

온라인 교육에 있어 학습 내용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설계된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자는 면대면 수업과는 다른 비대면 수업에 적합한 강의 내용 구성을 해야 한다. 특히 비실시간으로 진행되는 VOD형 강의에서는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고 집중도를 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 구성을 해야 한다. 또한 개별학습의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소분화한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기법에 입각한 콘텐츠 구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강의 콘텐츠가 단순히 콘텐츠 내용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퀴즈, 의견 게시와 더불어 에듀테크(EduTech)²¹⁾를 활용한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를 지원하는 LMS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단순히 수업을 진행하고 공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VOD 수업, 실시간 화상 강의 수업을 적절히 혼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차세대 LMS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강의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수업 자료 및 온라인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구현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LMS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강의 콘텐츠 추가 구성 메뉴 사례



21)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을 활용한 교육 기술을 의미한다. 홍정민(2017, p.21.)에서는 학습, 기억, 공유, 활용 등 학습 프로세스 전반에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에듀테크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R·VR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형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에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하였다.

〈그림 3〉은 LMS 플랫폼인 ‘캔버스(CANVAS)’²²⁾에서의 강의 구성 예이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캔버스 플랫폼에서는 VOD 강의 탑재 외에도 다양한 추가 활동을 교수자가 수업에 구성할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이 추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4교시에 웹링크를 추가한 예를 보여준다. 그리고 하단에 보는 바와 같이 웹링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일 형식의 수업 활동 자료를 추가할 수 있어 학습자들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학습 및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 증진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에서도 상호작용의 공간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LMS 상의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학습과 관련된 게시판뿐만 아니라 소그룹 별로 방을 구성하여 의견을 나누고 온라인 상에서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열람하고 댓글을 달거나 그룹 토론을 통해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도모하여 사회적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1)에서 논의한 다양한 온라인 도구의 활용이 협력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진행할 수 있는 퀴즈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 게시 작업 및 댓글로 서로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패들렛(Padlet) 활동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 예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22) 캔버스 LMS는 미국에서 개발된 교수학습관리 시스템으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학습 활동을 웹과 모바일에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국내에 여러 사이버대학에서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4〉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상호작용 예(퀴즈앤, 패들렛)



〈그림 4〉는 온라인 수업 도구인 퀴즈앤과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 예시이다. 퀴즈는 학습자들 간의 경쟁 심리를 이용하여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 집중력과 순발력을 발휘하여 신나게 학습할 수 있게 한다.²³⁾ 그리고 패들렛과 같이 포스팅을 추가하여 학습자 간의 협업을 돕는 온라인 도구들은 많은 학습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도와줄 수 있다.²⁴⁾ 이 외에도 이미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한 에듀테크 기반의 온라인 도구들은 많이 나와 있으며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업을 함께 듣는 학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습자-교수자 간 상호작용 증진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수업 시간과 수업 외 시간의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업 시간은 학생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수업의 경우 전체 화상 강의, 소그룹 별 토론 진행 등으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업 외적으로 교수자와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LMS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학습 관리가 필요하다. LMS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 교수자는 공지 및 문의 게시판,

23) 박찬 외, 『에듀테크 FOR 클래스룸』, 다빈치books, 2020, p.24.

24) 박찬 외, 위의 책, p.70.

열린 게시판 및 다양한 온라인 게시판 및 도구를 통해 학습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3장에서 분석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에게 수업에 대한 정보와 학습자료가 공지와 강의자료실과 같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학습자들에 충분히 전해지도록 교수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의게시판을 활성화하여 학습자들이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들을 묻고 답할 수 있도록 게시판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2)에서 보인 에듀테크 기반의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수업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교수자이기 때문에 교수자는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온라인 도구의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업에서 학습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COVID-19가 야기한 교육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어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점에 온라인 수업이 단순히 대면 수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유형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학습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해 보았다.

조사 결과 학습자들은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현재 듣고 있는 수업에 대한 인식에서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수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온라인 수업 환경의 구축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수업 형태에서는

학습자들이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 혼합 형태 수업 >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비실시간 수업의 강화 및 확대와 더불어 효과적인 블렌디드 수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 동기와 몰입에서는 학습자들의 집중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 수업에서 집중도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 모듈을 작게 나누고 자기 주도 학습의 강화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유형별로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대면 수업이 중심이 되었던 교육 환경에서는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어 수업이 진행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와 학습 내용의 상호작용이 수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교육에서는 대면 수업의 수업 방식들을 대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수업 방식과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증진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학습이 익숙한 현 세대는 온라인 도구의 활용이나 온라인을 통한 소통에 매우 친숙하다. 따라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대변되는 학습자들의 학습 성향을 파악하고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사용과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시대의 학습자 인식 조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한국어교육에서 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호작용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지만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아 본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 담당자들에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종선, 『사이버학습의 이해: 지식기반사회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전략』, 교육과학사, 2009.
- 박찬·김병석·전은경·전수연·진성임·정선재·강윤진·변문경, 『에듀테크 FOR 클래스룸』, 다빈치books, 2020.
- 홍정민, 『에듀테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 책밥, 2017.
- Moore, M. G. & Kearsley, G.(2012), *Distance education: a systems view of online learning*,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 논문

- 노정은·임수진·안윤숙,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 환경에서의 교수자 및 학습자 인식에 대한 사례 연구 -H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1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0, pp.21-53.
- 노채환, 「비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56집, 반교어문학회, 2020, pp.107-129.
- 민경아·박서숙, 「실시간 원격 화상 한국어 강의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7권 3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pp.1-36.
- 안정민·한혜민, 「한국어 교사의 교수실재감 인식 연구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1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0, pp. 139-159.
- 이동주·김미숙,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 온라인 원격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제23권 3호,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2020, pp.359-377.
- 이선희, 「온라인 중국어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이러닝환경에서의 거꾸로학습 실현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99호, 중국어문연구회, 2020, pp.303-336.
- 조인옥,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운영 사례와 개선 방향: 한국어 교육기관의 전면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58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 pp.241-265.
- 채민정, 「대학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의 질, 학습정서, 학습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 최은지·한하림·서정민, 「실시간 화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사이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1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8, pp.181-208.
- 한혜민,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서 매체를 활용한 상호작용 활성화 방안 -홍콩이공대학 <미디어 한국어> 과목 사례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82호, 이중

언어학회, 2021, pp.194-226.

Buzzard, C., Crittenden, V. L., Crittenden, W. F., & McCarty, P.,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in the classroom: A teaching and learning perspective,"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33-2, 2011, pp.131-139.

Lowe, B., & Laffey, D., "Is Twitter for the birds? Using Twitter to enhance student learning in a marketing course",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33-2, 2011, pp.183-192.

Rose, S. M., "Medical student education in the time of COVID-19". *JAMA*, published online on March 31, 2020, pp.2131-2132.

Ross, S. M., "Slack it to me: Complementing LMS with student-centric communications for the millennial/post-millennial student",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41-2, 2019, pp.91-108.

Szeto, E., "Community of Inquiry as an instructional approach: What effects of teaching, social and cognitive presences are there in blended synchronous learning and teaching?", *Computers & Education*, 81, 2015, pp.191-201.

Swan, K., "Relationships between interactions and learning in online environments". The Sloan Consortium, 2004, 1-6.

Jena, Lee., "A Neuropsychological Exploration of Zoom Fatigue", *Psychiatric Times article*, November 18, 2020, (<https://www.psychiatrictimes.com/view/psychological-exploration-zoom-fatigue>)

논문접수일	2021년 08월 09일
심사완료일	2021년 08월 18일
게재확정일	2021년 09월 23일

Abstract

Korean Education in the Post-COVID-19 Era

—Based on the perception of undergraduate international students about
online classes

Roh, Chaehwan

In this study, it was discussed that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 19 era amid the rapid change in the educational paradigm caused by COVID-19, better education can be provided to learners when we correctly understand the organizationn of online classes and characteristics by type of interactions in online classe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erception of online classe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who took online classes at universities. Learners actively participated in online classes, but on the other hand,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moderat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oncentration was not high in the learning motivation and immersion of the online class, and it was recognized that the online class lacked interaction. Based on this learner's perception, this study proposes a way to enhance the interaction in online classes by discussing the ne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classes rather than simply trying to replace the face-to-face class methods in Korean education online. The current generation, accustomed to learning through online, is very familiar with the use of online tools and communication through online. Therefor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learning tendencies of learners represented by the digital native generation and conduct classes using Edtech that are easy to use and access for both learners and instructors.

Keyword COVID-19, Online Classes, Perception of Learners, Interaction, Edtech

모옌 문체의 한국어 번역 방법 연구

—〈붉은 수수밭〉의 감각적 묘사를 중심으로

송 징 양*

국문요약

문학작품에 있어 문체는 작가의 개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체 장치를 간과하면 좋은 문학작품 번역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모옌(莫言) 문체의 특징인 ‘감각적 묘사’의 한국어 번역 방법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모옌의 감각적 묘사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의 영향과 일본의 신감각파 작가들, 그리고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붉은 수수밭〉에서 ‘환상적인 색채 표현의 사용’과 ‘낮선 감각적 표현의 사용’을 통해 전달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색채 어휘’, ‘규범을 일탈한 표현’, ‘맥락을 일탈한 표현’ 그리고 개성적인 ‘비유법’, ‘의인법’, ‘공감각’ 등의 문체 장치를 통해서 표현되었다.

3가지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문체 장치의 경우 직역(literal translation), 변안(adaptation), 변조(modulation), 삭제(omission)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번역 방법들의 문체 효과 재현 양상을 구체적인 번역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첫 번째는 모옌 문체인 감각적 묘사를 번역하는 데에 있어 문체 효과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번역 방법인 직역이었고 그 다음 번역 방법은 변조이다. 문체가 가진 특성을 보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조를 통해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보존하고 난 후에 해당 번역문 옆에 원문 문체 효과를 나타내는 문장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만약 직역이나 변조로 번역된 문장이 목표언어 텍스트 맥락에서 어색하여 한국인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변안을 통해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서술 상황을 만들어 문장의 유창성과 가독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문체는 문학 작품의 생명이기 때문에 번역과정에서 문체 장치 번역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제어 문체 번역, 감각적 묘사, 〈붉은 수수밭〉, 모옌, 번역 방법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 박사수료

〈목차〉

1. 서론
2. 〈붉은 수수밭〉 문체의 형성 원인 및 문체 장치
3. 문체 번역방법의 사용 양상
4. 번역 사례 분석
5. 결론

1. 서론

문체¹⁾는 텍스트의 개성을 나타내고 작가 개인과 텍스트를 이어주는 역할²⁾을 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체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형식 차원의 문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가’라는 내용 차원의 문제로까지 나아감으로써 형식과 내용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문학 작품에 대한 유용한 해석과 평가의 틀이라 할 수 있다.³⁾ 그러므로 문체에 대한 이해는 문학 작품 번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학작품을 성공적으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번역자의 이중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번역자의 문체적 감수성, 즉 문체에 대한 이해는 문학 번역의 전제조건이 되며 번역자는 저자의 문체를 최대한 충실하게 재현하려는 의

1) 황도경(2015)은 문체를 소설의 몸이라 간주하고“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의 시선과 서술방식 등에 의해 조정되고 중개된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를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궁극적으로는 소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어떻게’를 통과하지 않고 ‘무엇’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문체는 ‘어떻게’가 텍스트에서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양상을 일컫는다.”고 하면서 문체의 정의와 중요성을 역설했다. (황도경, 『문체, 소설의 몸』, 소명출판, 2015, p22.)

2) E. Nida & C. Taber 1, *The theory and prctice of translation*, Leiden Boston, MA:Brill, PP: 1969:209.

3) 강혜숙, 「세 가지 어법과 감각의 서사 : 김훈의 「화장」에 나타난 문체적 특성」, 『동암어문학』, 제21집, 돈암어문학회, 2008, p.249-288.

지가 필수적이다.⁴⁾ 그 이유는 의미전달을 위주로 하는 실용번역과 달리 문학번역의 본질은 ‘특별함’, 혹은 ‘다름’의 미학에 바탕을 두는데 이러한 ‘특별함’과 ‘다름’은 문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1920년대부터 중국 소설이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 양이 본격적으로 늘어났다.⁵⁾ 1992년 한중 양국 수교 이후,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중국 소설 번역도 점점 증가해 한국어 번역 출판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질이 좋은 번역 작품이 많이 나왔으나 金旻南(2012)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번역자의 번역 수준과 문체 표현 문제로 인하여 독자가 한국어로 번역된 중국소설을 끝까지 읽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즉 원작자의 문체가 충실하게 전달되지 못해 중한 소설작품 번역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 문제가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 문학 작품의 문체를 충실히 한국어로 재현하는 것이야말로 중한 문학 번역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게 되었다.

〈붉은 수수밭(红高粱)〉은 모옌(莫言)의 가장 돋보이는 문체적 특징인 감각적 묘사⁶⁾가 두드러진 작품이라 평가된다.⁷⁾ 이 소설은 1986년 〈인민문학(人民文学)〉에 발표된 소설로, 중국 산둥성(山东省) 가오미 동북 지방⁸⁾에서 벌어진 항일활동을 그린 소설이다. 특히 1988년 이 작품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红高粱〉이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이후 이 작품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번역 출판되었다.⁹⁾ 또한 작가 모옌은 2012년 스웨덴

4) 조의연, 『번역문체론』, 한국문화사, 2014, p.17-36.

5) 金旻南, 「中国现当代小说在韩国的情况与展望」, 『韩中语言文化研究』, 제39집,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12, p.105-119.

6) 모옌, 『붉은 수수밭(红高粱)』, 홍희 역, 동문선, 1991, p.258.

7) 潘海軍, 「莫言小说中抗战叙事的边缘化与陌生化策略」, 『长春大学学报』, 第19卷, 第3期, 2009, pp.48-50.

8) 가오미 동북 지방(高密东北乡)은 작가 모옌의 고향이며 모옌의 소설 작품들은 모두 이 지역을 배경으로 서술되었다.

9) 모옌 〈붉은 수수밭(红高粱)〉의 한국어 번역본은 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1991년에 출판된 홍희 번역본 『붉은 수수밭(红高粱)』, 두 번째는 2007년에 출판된 박명애 번역본 『홍까오량 가족』,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14년 출판된 심혜영 번역본인 『붉은 수수밭』

한림원에서 수여하는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었는데¹⁰⁾ 이때부터 모옌 문체에 대한 연구와 모옌 작품에 대한 외국어 번역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로써 본고는 중국 소설 〈붉은 수수밭(红高粱)〉 문체의 한국어 번역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중국 신감각파¹¹⁾ 작가 모옌의 〈붉은 수수밭(红高粱)〉 중국어 원문과 세 가지 한국어 번역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먼저 〈붉은 수수밭〉의 문체적 특징, 문체 형성원인 및 문체 장치를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연구 편의상 문체학자 리이치와 쇼트(Geoffrey N. Leech, Michael H. Short)의 소설문체 이론에 따라 감각적 묘사를 나타내주는 문체 장치들을 언어층위별로 분류한다. 3장에서는 각 한국어 번역본에서 언어 범주별 문체 번역 방법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 검토한다. 번역본마다 문체 장치를 번역하는 데에 있어서 번역 방법 사용의 경향성을 보여준다. 4장에서는 구체적인 번역사례를 통해서 각 언어 범주별의 문체 장치를 재현하는 대표적인 번역 방법을 대조 분석하고, 문체 효과를 재현하는 데에 있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문체 번역 방법을 찾는다. 5장에서는 분석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며 결론을 맺는다.

2. 〈붉은 수수밭〉 문체의 형성 원인 및 문체 장치

모옌 소설 작품에서 가장 돋보이는 문체적 특징은 독창적인 감각적 묘사이다. 이는 작가 자신의 고향인 산둥성 가오미 동북 지방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여주며 1980년대 문단의 보편적인 경향 중 하나인 '인간'에 대한 새로운 탐색도 훌륭

이다.

10) 모옌, 『붉은 수수밭』, 심혜영 역, 문학과 지성사, 2014, p.618.

11) 신감각파는 1920년대 일본 문단에서 시작하여 1930년대 중국에 유입된 문학학파이다. '신감각'이란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적인 사물에 이입하여, 이를 통해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화함으로써 '신현실(新现实)'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신감각파 작가들은 사물에 대한 독특한 느낌이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의 작품에서 항상 독특한 기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상징, 공감각 등이다. 중국 신감각파 대표 작가들은 1930년대의 스저쑤(施蛰存), 무스잉(穆时英)과 1980년대의 모옌(莫言), 위화(余华) 등이 있다.

히 펼친다. 이런 이유로 〈붉은 수수밭〉이 중국 당대(当代) 문학사에서 ‘신(新)시기 향토문학’이나 ‘뿌리 찾기(寻根) 문학¹²⁾’, ‘신감각과 문학¹³⁾’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각적 묘사는 〈붉은 수수밭〉에서 ‘환상적인 색채 표현의 사용’과 ‘낮선 감각적 표현의 사용’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감각 묘사는 작가 자신의 성장 경험 이외에도 외국 작가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따라서 문체 번역 방법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붉은 수수밭〉 중 작가의 독창적인 감각 묘사의 형성 원인과 문체 장치를 분석하고, 이어서 Geoffrey N. Leech와 Michael H. Short의 소설문체이론에 따라 언어 범주별로 문체 장치를 분류하고자 한다.

1) 〈붉은 수수밭(红高粱)〉 문체의 형성 원인 및 문체 장치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다양한 서양 문학 사상들이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30여 년 동안은 중국 문학과 세계문학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시기이며 중국문학의 자체적인 재인식 과정으로 중국 소설 창작의 큰 원동력이 된 시기이기도 하다.¹⁴⁾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중국 문학은 획기적인 변화와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붉은 수수밭〉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일본의 신감각과 작가들과 라틴 아메리카의 마술적 리얼리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 그리고 미국 작가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12) 1980년대 중반에의 중국 문단은 ‘문화적인 뿌리 찾기’ 열풍이 불었다. 그 당시의 작가들은 전력을 다해 전통의식과 민족문화심리의 발굴에 힘 쏟았는데 그들의 작품을 ‘뿌리 찾기 문학’이라고 한다. (20世纪八十年代中期,文坛上兴起了一股‘文化寻根’的热潮,作家们开始致力于对传统意识和民族文化心理的挖掘,他们的创作被称为‘寻根文学’) <https://baike.baidu.com/item/%E5%AF%BB%E6%A0%B9%E6%96%87%E5%AD%A6/10969142?fr=aladdin> (2021년 2월8일 검색)

13) 모옌, 『붉은 수수밭』, 심혜영 역, 문학과 지성사, 2014, p.621.

14) 庞守英, 《新时期小说文体论》, 山东大学出版社, 2004, p.36-42.

(1) 환상적인 색채표현 사용의 형성 원인 및 문체 장치

모옌은 <붉은 수수밭>에서 관례나 상식에 어긋난 강렬하고 괴이한 색채표현을 통해 추억의 신비성과 환상적인 느낌을 창의적으로 재현하고 작중인물의 심리상태를 부각시킨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마술적 리얼리즘 작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967년 과테말라 작가인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는 <대통령 각하>라는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 이어서 1982년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백년 동안의 고독>으로 다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를 계기로 라틴 아메리카의 마술적 리얼리즘은 서양 문단을 뒤흔들고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함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의 마술적 리얼리즘 열풍이 중국을 휩쓸면서 새로운 제재나 서술 방식을 갈망하고 있던 신(新)시기 중국 ‘뿌리 찾기 문학’ 소설 작가들의 시야에 마술적 리얼리즘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모방 대상이 되었다.¹⁵⁾ 마술적 리얼리즘 기법이 사용된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현실이 꿈처럼 묘사되거나 꿈과 환상이 현실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작품에서는 환상과 꿈의 경계가 모호한 몽환적이고 이상야릇한 이야기 구조와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정취가 어우러진다.¹⁶⁾ <붉은 수수밭>의 감각적 표현에 바로 이러한 마술적 리얼리즘의 특징이 담겨 있다. <붉은 수수밭>의 서술 중심은 ‘추억의 세계’에 있으며, 모옌은 이 추억의 세계를 환상의 세계로 만들어냈다. 추억의 세계를 묘사할 때 작가는 신비하고 강렬한 색채 어휘 그리고 상식에 완전히 벗어난 색채 어휘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여 모호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로써 작중 인물의 감각과 느낌을 부각시키고 독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가져다주면서 작품의 미학성과 문학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2) 낯선 감각 표현 사용의 형성 원인 및 문체 장치

그 이외에도 <붉은 수수밭>의 감각적 묘사에서는 낯선 감각 표현을 많이 사

15) 陈黎明, 《魔幻现实主义与新时期中国小说》, 河北大学出版社, 2008, p.37.

16) <https://blog.daum.net/poetlsh/6941690> (2021년 3월10일 검색)

용하는데, 이는 일본 신감각과 작가의 간접적 영향과 미국 작가 윌리엄 포크너의 영향이 있다. 1920년대 일본 문단에서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에서 탈피해 감각 효과를 통해서 감성을 자극하고 메시지를 담”는 신감각파가 탄생하였다.¹⁷⁾ 대표적인 인물로는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등이 있다. 1930년대 일본의 영향으로 중국의 신감각학과 역시 탄생하였으며,¹⁸⁾ 당시 중국의 신감각파 작가들은 “외부 현실의 단순한 재현이나 작중인물 심리활동의 자세한 묘사를 추구하지 않고 감각 표현을 통해 인물이나 사물에 강렬한 주관적인 감정을 부여”한데다 의식의 흐름, 몽타주 등 여러 창작 기법을 잘 사용했다.¹⁹⁾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국 신감각파 소설에서는 감각 표현을 ‘낯설게’ 하려는 예술적 경향성이 생겨났다.²⁰⁾ 모연의 작품들이 바로 탁월한 감각적 묘사 즉 ‘낯설게’ 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1980년대 문단의 보편적인 경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추구하였으며²¹⁾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붉은 수수밭〉이었다. 이 소설에서는 ‘할아버지’가 부대를 인솔해, 일본군의 화물차를 폭발시키는데 이는 단지 작품 전체의 틀일뿐이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버린 과거의 삶을 ‘냄새와 색채와 온도와 형상 언어로 담아내어’, ‘살아 있는 감각의 세계’로 되살려내는 것이야말로 작품의 미학적인 핵심이자 백미인 것이다. ‘나’가 회상하는 어린 시절의 무수한 추억 속의 아름다움은 시각, 후각, 촉각의 ‘낯설게 함’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며, 이처럼 낯설고 창의적인 감각 표현의 사용은 모연의 가장 돋보이는 문체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로써 모연은 ‘신감각파 작가’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붉은 수수밭〉에서 이러한 ‘낯설게’ 한 감각은 주로 공감각, 은유법, 의인법 그리고 맥락과 규범을 일탈한 감각표현 등의 문체 장치를 통해서 풍부하고 섬세하게 구사해냈다.

17) <https://blog.naver.com/sanhan0821/220848668128> (2021년 3월10일 검색)

18) 庞守英, 『新时期小说文体论』, 山东大学出版社, 2004, p.216.

19) <https://baike.baidu.com/item/%E6%96%B0%E6%84%9F%E8%A7%89%E6%B4%BE/1284381?fr=aladdin> (2020년 12월20일 검색)

20) <https://baike.baidu.com/item/%E6%96%B0%E6%84%9F%E8%A7%89%E6%B4%BE/1284381?fr=aladdin> (2020년 12월20일 검색)

21) 모연, 『붉은 수수밭』, 심해영 역, 문학과 지성사, 2014, p.621.

한편 <붉은 수수밭>의 감각 표현에서 사용한 언어 규범과 맥락을 일탈한 표현은 미국 작가 윌리엄 포크너의 영향도 받았다고 모옌은 인터뷰를 통해 거듭 언급하기도 하였다. 포크너의 저서인 <음향과 분노>에는 “I couldn't feel the gate at all, but I could smell the bright cold.”²²⁾라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는 추움에 냄새와 빛을 부여하여 시각 형용사와 촉각 형용사로 미각 대상을 묘사하였다. 윌리엄 포크너의 이러한 규범에 일탈한 수식 관계가 모옌에게 큰 감동과 영향을 가져다주어²³⁾ 그의 이후의 작품에서 흔히 사용하게 된 것이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이러한 기법에서 큰 공을 얻었다고 판단된다.²⁴⁾ <붉은 수수밭>에서 많이 나타나는 낯설고 규범에 일탈한 감각 표현이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이것이 곧 모옌 문체 특징 중의 하나라고 평가되었다.

지금까지 모옌 문체인 감각적 묘사가 나타나는 시대적인 배경과 문체 장치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Geoffrey N. Leech와 Michael H. Short의 소설 문체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체 장치들을 언어 범주별로 분류하고 각 언어 범주 별 문체 장치의 사용 횟수를 분석한다.

2) <붉은 수수밭(红高粱)>의 문체 장치 분류

Geoffrey N. Leech와 Michael H. Short는 문학 문체에 있어 언어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들의 저서인 <소설문체론>을 통해 언어학적 분석과 문학적 해석의 상호보완적인 소설 문체의 연구 방법론을 제시했다.²⁵⁾ 그들은 소설 문체를 언어 범주에 따라 어휘 층위²⁶⁾, 문장 층위²⁷⁾, 수사 층위²⁸⁾, 맥락과 응집

22) William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Vintage Books, 1954, p.4., 威廉·福克纳, 『喧嚣与骚动』, 李文俊 역, 上海译文出版社, 1984. 위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번역문에서는 “我已经一点也不觉得铁门冷了, 不过我还能闻到耀眼的冷的气味(나는 전연 문간이 어떤 줄은 몰랐어도, 빛나는 냉기를 맡을 수 있었다)”로 번역되었다.

23) 인터뷰 자료: https://www.sohu.com/a/218511224_369033 饥饿与孤独是我创作的源泉. (2021년 1월9일 검색)

24) 모옌, 『붉은 수수밭』, 홍희 역, 동문선, 1991, p258.

25) Geoffrey N. Leech & Micheal H. Short, *Style in Fic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1, pp.74-75.

성²⁹⁾으로 총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각 범주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언어적 특징을 문체 장치로 간주해 Conrad, Lawrence, James의 소설 문체를 분석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붉은 수수밭>의 문체적 특징은 모옌의 창의적인 감각적 묘사로 이는 ‘환상적인 색채 어휘’와 ‘규범에 일탈한 표현’, ‘맥락에 일탈한 표현’ 그리고 개성적인 ‘비유법’, ‘의인법’, ‘공감각’ 등 문체 장치를 통해서 표현된다. 이러한 문체 장치들은 Geoffrey N. Leech와 Michael H. Short(1981)에서 제시한 4가지 언어 범주 중 어휘 범주, 문장 범주 그리고 수사 범주에 해당된다. <붉은 수수밭>에서 나타나는 감각적 묘사에 관한 문체 장치들의 사용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26) 위의 책, p.75. 어휘가 단순한가 혹은 복잡한가, 형식성이 있는가 아니면 구체적인가, 기술적인가 평가적인가, 일반적인가 구체적인가 등과 같은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다. (조의연, 『번역문체론』, 한국문화사, 2014, p.235. 참고).
- 27) 위의 책, p.76. 문장의 유형, 예를 들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등과 같은 요소, 문장의 복잡성, 예를 들어 단문인지, 복합문인지의 여부, 문장 내의 단어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문장의 평균적 길이, 독립절과 종속절의 비율 등을 살핀다. 또한 절의 유형, 절의 구조, 명사구, 동사구, 그 외의 다른 절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조의연, 『번역문체론』, 한국문화사, 2014, p.235. 참고).
- 28) 위의 책, p.78. 문법 및 어휘적인 측면에서 특정 형식이나 구조가 반복적으로 쓰이는지, 음운적 장치가 있는지, 비유적 표현이 쓰이고 있는지 등과 같은 부분을 살펴본다. (조의연, 『번역문체론』, 한국문화사, 2014, p.235. 참고).
- 29) 위의 책, p.79. 문장 사이에 접속사나 연결부사와 같은 논리적 혹은 기타 연결어가 있는지 여부와 지시표현에 대한 대명사 사용, 생략 대체 등과 같은 결속 장치 사용, 저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관계를 드러내는 언어적 실마리, 주인공에 대한 저자의 관점, 등장인물의 말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 등을 분석 항목으로 제시한다. (조의연, 『번역문체론』, 한국문화사, 2014, p.235. 참고).

〈표1〉 언어 범주에 따른 〈붉은 수수밭〉의 문체 장치 사용 양상

언어 범주	문체 장치 사용 횟수
어휘 범주	색채 어휘(70)
문장 범주	규범을 일탈한 표현(69)
	맥락을 일탈한 표현(55)
수사 범주	공감각(33)
	비유법(171)
	의인법(68)

감각적 묘사를 나타내주는 문체장치를 언어 범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휘 범주에서 풍부하면서도 상식에 일탈한 색채 어휘가 70번 등장한다. 이는 신비로운 화면을 조성하고 작중인물의 심리상태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장 범주에는 ‘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과 ‘맥락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이 각각 69번과 55번 나타났다. 그리고 수사 층위의 ‘공감각’, ‘비유법’, ‘의인법’도 각각 33번, 171번, 68번이나 나타났다. 이들은 작품의 문학적성과 예술성을 나타내어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3. 문체 번역방법의 사용 양상

1) 번역본 소개

〈붉은 수수밭(红高粱)〉은 한국에서 세 가지 번역본으로 출판되었다. 〈붉은 수수밭(红高粱)〉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는 이 작품이 한국에서의 보다 지명도가 높다는 것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 첫째, 〈붉은 수수밭〉은 모옌의 문체 특징인 감각적 묘사가 가장 돋보이는 작품으로 감각 묘사를 나타내는 문체 장치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³⁰⁾ 둘째, 세 가지 번역본이 서로 다른 시대에 출판되어³¹⁾ 번역 방법의 사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경향성을 띠고 있으므로

30) 庞守英, 《新时期小说文体论》, 山东大学出版社, 2004, p.215.

31) 方金花, 「〈붉은 수수밭〉 번역 전략 비교 연구 - 3종의 한국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한국중어중문학』, 한국중어중문학회, 2018.

번역 방법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면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연도순으로 <붉은 수수밭>의 세 가지 한국어 번역본이 수록된 작품집의 서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2〉 <붉은 수수밭> 세 가지 한국어 번역본의 서지 사항

	제목	번역자	출판사	발행 연도
TT1	『붉은 수수밭(红高粱)』	홍희	동문선	1991
TT2	『홍까오랑 가족』	박명애	문학과지성사	2007
TT3	『붉은 수수밭』	심혜영	문학과지성사	2014

2) 문체 장치의 번역 기법 사용 양상

<붉은 수수밭> 중 문체 장치들의 한국어 번역방법³²⁾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붉은 수수밭> 원문과 세 가지 번역문의 문체 장치 부분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감각적 묘사의 문체 장치를 번역하는 데에 있어 세 가지 번역본은 모두 직역³³⁾, 변안³⁴⁾, 치환³⁵⁾ 변조³⁶⁾ 그리고 삭제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

32) J.P.Vinay · J.Darblnet, 『불어와 영어의 비교문체론』, 전성기 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03. p.24. J.P.Vinay · J.Darblnet은 문체 번역에 있어서 번역자의 접근 방식을 소개하였다. 그들은 직접 번역(direct translation)과 간접 번역(oblique translation) 두 가지 번역 방식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7 가지 방법(procedures)을 제시하였다. 난이도 순서대로 열거하면 차용(borrowing), 모사(calque), 직역/축자역(literal translation), 치환(transposition), 변조(modulation), 등가(equivalence), 변안(adaptation)이다. 그 중에서 차용, 모사와 직역은 직접 번역에 속하고 나머지 기법들은 간접 번역에 속한다.

33) 위의 책, p.28. 직역/축자역(literal)은 '단어 대 단어' 번역에 해당하며 Vinay and Darbelent는 동일 어족(語族) 또는 동일 문화의 언어 간의 번역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책'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중국어로 전환할 때 '书'로 번역하는데 이는 직역에 해당된다.

34) 위의 책, p.32. 변안(adaptation)은 원천문화의 특정한 상황이 목표문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문화적 지시물(cultural reference)을 바꾸는 것을 일컫는다. 즉 변안은 전언이 나타내는 상황이 도착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에 적용되며, 등가적이라고 판단되는 다른 상황과 관련지어 창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Vinay and Darbelent는 영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크리켓'을 불어로 번역할 경우에는 'Tour de France(프랑스의 연례 전국 일주 사이클링 대회)로 옮기는 것이 ST가 문화적으로 내포하는 바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었다. 그리고 세 가지 번역본은 문체 장치를 번역할 때 모두 직역을 주로 취했지만 번역본마다 직역 이외의 번역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서로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각 번역본에서 감각적 묘사의 문체 장치를 재현하는 번역방법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3〉 TT1에서 〈붉은 수수밭〉 문체 장치에 대한 각 번역 방법의 사용 횟수

언어 범주	문체 장치	직역	변조	변안	치환	삭제
어휘 범주	색채 어휘(70개)	17	11	16	2	24
문장 범주	규범에 맞지 않는 어휘(69개)	5	13	21	5	25
	맥락에 맞지 않는 어휘(55)	9	6	17	4	19
수사 범주	공감각(33)	7	4	12	4	9
	비유법(171)	109	27	8	32	15
	의인법(68)	28	15	9	3	13

35) 위의 책, p.30. 치환(transposition)은 의미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의 품사(part of speech)를 다른 품사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커피 한잔 연하게 마셨다.’라는 문장은 중국어로 ‘今天早晨我喝了一杯淡咖啡’로 번역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사어 ‘연하게’를 형용사 ‘淡(연한)’으로 번역하는 것은 바로 치환의 전형적인 예시이다. Vinay and Darbelent는 치환은 “아마도 번역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전환(structural change)일 것”이라고 말하고 10가지 다른 종류를 열거하였다. 예를 들면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것, 부사를 동사로 바꾸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치환 어법은 일반적으로 보다 문학적인 특징이 있다.

36) 위의 책, p.30. 변조(modulation)는 관점(point of view), 조명(semantics)의 전환에 의해 얻은 전언에서의 변이이다. 변조는 직역이나 치환이 문법적으로는 정확하거나 도착어의 정서와 어긋난다고 느껴질 때 사용된다. 변조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구체를 추상적으로’, ‘원인을 효과로’, ‘부분을 전체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용어 역의 전환’, ‘반대의 부정’, ‘능동을 수동으로’, ‘시간을 공간으로’, ‘시공간적 간격 또는 한계의 조정’, ‘신·구 은유를 포함한 상징의 변화’ 등이 있다. 예를 몇 개 들어보자면 ‘차릴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는 문장을 중국어로 직역하면 ‘虽然没准备什么,但请多多享用’인데 중국 사람은 듣기에는 많이 어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조에서의 ‘반대의 부정을 취해서’ ‘略备薄宴, 尽情享用’으로 번역하면 중국 사람의 정서 상 더 맞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또한 ‘이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는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항상 변조 방법 중의 ‘능동을 수동으로 번역하기’를 통해 ‘受邀参加此次晚宴,我感到无比荣幸.’으로 번역한 것은 더 자연스럽고 격식에 맞는다. (위 예시는 손지봉, 안희연, 김란(2016)를 참고하였다.)

〈표4〉 TT2에서 〈붉은 수수밭〉 문체 장치에 해한 각 번역 방법의 사용 횟수

언어 범주	문체 장치	직역	변조	번안	치환	삭제
어휘 범주	색채 표현(70개)	30	21	6	10	3
문장 범주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69개)	30	29	1	5	4
	맥락에 맞지 않는 표현(55)	21	24	1	5	4
수사 범주	공감각(33)	10	16	2	2	3
	비유법(171)	98	34	12	18	9
	의인법(68)	24	31	5	2	5

〈표5〉 TT3에서 〈붉은 수수밭〉 문체 장치에 대한 각 번역 방법의 사용 횟수

언어 범주	문체 장치	직역	변조	번안	치환	삭제
어휘 범주	색채 표현(70개)	29	16	19	12	4
문장 범주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69개)	24	20	15	4	6
	맥락에 맞지 않는 표현(55)	24	5	16	3	2
수사 범주	공감각(33)	14	5	7	3	4
	비유법(171)	140	13	6	3	9
	의인법(68)	49	9	4	2	4

TT1은 〈붉은 수수밭〉의 문체 장치를 번역할 때 직역을 많이 사용했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삭제와 번안이다. 이를 통해 문체 형식을 나타낸 낯선 표현들이 많이 없어져 한국어 문장이 더 간단해지고 깔끔해지는데 만약 내용 전달만 고려할 경우 바람직한 번역본이다. TT2는 직역과 변조는 모두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문체 장치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특히 번역자가 문체 장치들의 의미와 형식을 동시에 재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TT3은 감각적 묘사의 문체장치를 번역하는 데에 있어 직역 이외에도 변조, 번안을 두루 많이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번역자가 원문의 문체 효과를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한국인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번역하려고 노력한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세 가지 번역문에서 사용한 문체 장치 번역 방법들이 원문 문체 효과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인 예

를 통해서 어휘 범주, 문장 범주, 그리고 수사 범주에 가장 많이 사용된 번역 방법을 분석할 것이다.

4. 번역 사례 분석

1) 어휘 범주

〈붉은 수수밭〉 어휘 범주의 문체 장치는 주로 상식에 어긋난 색채어의 사용에서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는 소리, 바람, 빛 등 색깔이 없는 사물들을 모두 신비로운 색깔로 수식하고 이를 통해 작가의 개인적인 주관 의식을 사물에 강하게 반영한다. 세 가지 한국어 번역본은 직역, 변안, 변조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색채 표현을 재현하였다. 그 중 직역이 가장 많았는데 원문에서 전경화(foregrounding)된 색채 표현들을 목표언어인 한국어에서도 똑같이 변이된 색채 표현으로 번역해 원문 문체의 특징을 그대로 살렸다. 두 번째로는 변조를 통해서 상식에 맞지 않는 색채어를 상식에 맞는 색채어로 바꿔서 번역했으며 마지막으로 변안이나 치환을 통해 원래의 문장구조와 의미를 바꾸어 번역해서 상황적인 등가를 이루어냈다.

〈예시 1〉

ST: 夜色灰葡萄, 金风串河道, 宝蓝色的天空深邃无边, 绿色的星辰格外明亮。

TT1: 땅거미가 어슴푸레하게 깔리고 맑은 바람이 강가에 불어올 때, 가없는 파아란 하늘에는 초록빛을 띤 별자리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TT2: 빛바랜 포도 색깔처럼 어두워진 밤에 가을바람이 강줄기를 따라 불어왔고, 초록빛 별들은 끝없이 펼쳐진 드높은 쪽빛 하늘 위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TT3: 가짓빛으로 물든 저녁의 금빛바람이 강줄기를 따라 불었고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높다란 남빛 하늘 위에서 초록빛 별들은 유난히도 밝게 빛났었다.

〈붉은 수수밭〉에서 작가는 자신의 주관성이 강하게 들어간 색채 표현, 즉 변이된 색채 표현을 통해 평범한 사물들을 신비롭게 표현해 작품에 생동감과 생명

력을 힘 있게 불어넣었다. 위의 예문을 보면 비록 짧은 문장이라도 ‘회색’, ‘금색’, ‘파란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채 어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바람은 금색일 수 없고 별은 초록색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낯선 색채 표현을 통해 주인공의 다채로운 어린 시절 추억을 신비롭게 그려 내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느낌을 주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파란색’과 ‘초록색’은 밝음과 긍정을 상징하는 색이므로 작중 인물의 기쁘고 편한 마음을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유년기를 이러한 색채 어휘로 표현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예문은 직역, 변조, 번안 등의 번역 전략을 사용했다. 먼저 ‘夜色灰葡萄(여기서 ‘灰’는 사역 동사로 쓰여 ‘~를 어둡게 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땅거미가 포도를 어둡게 한다는 뜻이다.)’에 대해서 TT3과 TT2는 치환을 통해 원문의 사동구문을 명사로 바꾸어 더 한국어 표현 습관에 맞게 번역하였다. 번역문에서는 원문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다소 전달하면서 작가가 색채 표현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나’의 기쁘고 편한 심정 등의 문체 효과를 번역문에서 재현하였으므로 동태적인 등가가 이루어졌다. TT1은 ‘땅거미가 어슴푸레하게 깔리고’로 원문 중 ‘포도’의 이미지를 삭제하여 문체의 특성을 약화시켰다. 이로써 원문 색채 표현의 낯섦과 신비로움을 일반화시켰지만 상식에 맞고 목표언어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친숙한 방식으로 번역하였다. 또한 ‘金风(금빛 바람)’의 경우 TT3에서는 직역을 사용하여 원래 바람에는 색깔이 없음에도 원문 문체를 살리기 위해 ‘금빛 바람’으로 원문과 똑같이 번역하였다. 그러나 TT1과 TT2는 원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번안을 사용하여 ‘맑은 바람’과 ‘가을바람’으로 번역하여 문체 장치의 특징과 상식에서 벗어난 특별한 느낌을 일반화시켰다.

〈예시 2〉

ST: 吃排饼的人眼里跳出绿火花, 一行雪白的清明汗珠从他的脸上惊惶地流出来。

TT1: 강도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으며, 한줄기 백설같이 영롱한 땀방울이 그의 얼굴에 두려운 듯 흘러내렸다.

TT2: 차뽕을 먹는 자의 눈에 파란 불꽃이 튀어나왔고, 얼굴에서 하얗고 청명한 땀이 한 방울 한 방울 다급히 흘러내렸다.

TT3: 차빙 먹는 자의 눈 속에서 푸른 불꽃이 일었고, 눈처럼 맑고 투명한 땀방울이 그의 볼에서 연달아 흘러내렸다.

색채 어휘는 아무 감정도 내포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색채 어휘로 인해 자연스럽게 당사자의 정서나 당시의 분위기로 이끌려간다. 이로 인해 색채 어휘는 문학 작품에서 사람의 다양한 내면세계를 상징하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붉은 수수밭〉에서도 마찬가지다. 모옌은 이 작품에서 변이된 색채 어휘, 즉 전경화(foregrounding)된 색채 어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추상적인 사물을 구체화시켜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색채 어휘에 포함된 감정적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2〉가 바로 이러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이 문장에는 ‘绿火花(파란 불꽃)’와 ‘雪白的清明汗珠(하얗고 청명한 땀방울)’은 전경화된 표현이다. 상식적으로 눈에는 파란색 빛이 나올 수 없고 땀방울은 투명한 액체로서 하얀색일 수 없다. 그러나 모옌은 오히려 ‘파란색’으로 눈빛을 수식하고 ‘하얗다’로 땀방울을 수식하였다. 이처럼 상식에서 벗어나는 과감한 색채어를 사용해 ‘차뽕을 먹는 사람’이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TT1과 TT2는 직역을 통해 ‘백설같이’, ‘하얗고’로 번역하여 번역문에서도 원문과 똑같이 ‘白’의 이미지를 나타냄으로써 원문의 문체 효과를 살렸고 ‘차뽕³⁷⁾을 먹는 사람’의 당황한 모습을 생동감 있게 재현해냈다. 반면에 TT3은 원문에서 강조된 ‘하얀색’의 의미를 삭제했고 대신에 번역문에서 ‘눈처럼 맑고 투명한’이라는 비유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원문의 의미는 어느 정도 전달되었지만 상식에서 벗어나는 과감한

37) 굽거나 지지거나 찌서 만든 둥글넓직한 밀가루 전을 ‘다빙(大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손에 들고 먹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잡는다는 의미의 ‘차(拈)’를 써서 ‘차빙’이라고 부른다. 이는 중국 산둥성의 대표 음식이다. ‘차뽕을 먹는 사람’은 가오미 동북 지방 방언이며 길에서 강도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丁小芝, 武宁, 〈前景化视角下《红高粱家族》方言变异及英译策略探析〉, 《重庆广播电视大学学报》, 제29권, 2017, p.75-80; 모옌, 『붉은 수수밭』, 심혜영 역, 문학과 지성사, 2014, p.29. 참고) 그리고 ‘拈饼’의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 TT1은 ‘차뽕’으로 번역하고 TT2는 ‘차빙’으로 번역했으나 두 단어의 의미는 같다. 그리고 TT1에 나온 강도와 TT2, TT3에서 제시한 ‘차뽕을 먹는자’와 같은 의미이다.

색채어 사용이라는 작가의 문체 특성이 번역문에서 사라져 ‘차뺑을 먹는 사람’의 당황함과 불안함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문체 형식의 전달함에 있어서 TT2보다 생생함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을 주었다.

2) 문장 범주

〈붉은 수수밭〉에서 문장 범주의 문체 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통사 문법적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고 다른 하나는 앞뒤 맥락상 분위기와 맞지 않는 표현들이다. 이 부분의 문체 장치를 살펴보면 세 가지 번역본 중 TT2가 직역과 변조를 동등하게 많이 사용했다. TT3은 직역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 변조와 번안을 많이 사용했다. 이에 비해 TT1은 이러한 문체 장치들을 대부분 삭제하였고 나머지는 변조를 통해 규범이나 상식에 맞는 표현으로 전환하여 문체의 특징을 약화시켜 번역하였다.

(1) 규범을 이탈한 표현

〈예시 3〉

ST: 轿夫们肥大的黑裤子紧贴在肉上, 人们都变得苗条流畅。余占鳌的头皮被冲刷得光洁白媚, 像奶奶眼中的一颗圆月。

TT1: 가마꾼들의 커다란 검은 바지가 비에 젖어 살 위에 아주 뽀뽀하고 매끄럽게 찹 달라붙어 있었다. 여점오의 머리는 비에 젖어 마치 할머니 마음속의 둥근 달처럼 빛났다.

TT2: 가마꾼들의 널찍하고 검은 바짓가랑이가 몸에 착 달라붙자 사람들은 모두 날씬해 보였다. 위잔아오의 두피가 매끄럽고 아름답게 씻겨져 있어서 할머니 눈에 그 모습은 흡사 둥근 달 같았다.

TT3: 가마꾼들의 시커먼 바지가 다리에 찹 달라붙어 호리호리하고 부들부들하게 변했다. 말끔하게 씻겨 아름답게 빛나는 위잔아오의 머리가 할머니의 눈 속에 둥근 달처럼 비쳐졌다.

‘할머니’는 나귀 한 마리 값에 양조장 주인의 문둥병 아들에게 신부로 팔려간 빈농의 딸이다.³⁸⁾ 시집가는 길에 나타난 슬프고 절망적인 할머니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길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계기로 할머니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처럼, 비록 길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지만 가마꾼 위잔아오(余占鳌)가 할머니를 구해주어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위잔아오를 연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과 사랑의 희망을 되찾게 된다. 특히 ‘余占鳌的头皮被冲刷得光洁明媚, 像奶奶眼中的一颗圆月’ 부분은 강도를 죽인 영웅과 같은 위잔아오를 연모하는 할머니의 마음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할머니의 심정을 묘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니라 할머니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감각적 표현들이다.³⁹⁾ 작가는 감각 기관을 통해 포착한 소리, 빛, 색깔 혹은 냄새들을 할머니의 심리적인 움직임과 연결하여 시각에 따라 할머니 심리활동의 변화와 정서의 변화를 반영해 표현했다. 처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갈망했다가 나중에 신랑이 문둥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할머니의 심정은 고통스러움으로 바뀐다. 그러나 시집가는 길에 발생한 강도 사건을 겪으며 위잔아오 덕분에 살아남은 할머니의 마음은 고통 속에서 마침내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변화되었다. 이러한 할머니의 심리상태를 감각 표현으로 살려낸 것이다. 그 ‘아름답게 빛나는 달’은 바로 할머니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할머니가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추구할 수 있게 격려해주는 힘이다.⁴⁰⁾ 규범에 이탈한 문체 장치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할머니의 심리 변화와 사랑과 희망을 되찾은 기쁜 마음이 더 생생하고 직관적으로 재현되었고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흥미를 유발하였다.

〈예시 3〉의 ‘人变得苗条流畅’과 ‘头皮被冲刷得光洁明媚’ 부분은 중국어 통사 규범에 맞지 않는 수식 관계로 이루어진 문체 장치이다. ‘苗条’는 몸매가 날씬하다는 뜻으로 여자에게만 쓰고,⁴¹⁾ ‘流畅’은 어떤 일에 막힘이 없거나 문장이나 글이 유창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이 두 단어는 원문에서 남자 가마꾼의

38) <https://www.etoday.co.kr/news/view/640801> ‘붉은 수수밭’ 모옌, 중국 최고 노벨문학상 수상 (2021년 4월17일 검색)

39) 庞守英, 《新时期小说文体论》, 山东大学出版社, 2004, p.216.

40) 위의 책, p.216.

41) 现代汉语词典: <https://www.zdic.net/hans/%E8%8B%97%E6%9D%A1> 现多形容于女孩子身材纤细,身材好. (2021년 5월 12일 검색)

신체를 수식할 때 어울리지 않는 낯선 표현으로 통사적인 규범에서 벗어난다. 42) ‘明媚’는 맑고 따사로운 햇빛이나 아름다운 여성을 수식하는 단어이지만, 43) 여기에서는 오히려 남자 주인공의 머리를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번역자들은 작가의 이러한 의도를 살려 번역을 했으나 그들이 취한 번역 방법은 각각 다르다.

TT3에서는 번안을 사용하였다. ‘苗条流畅’을 ‘호리호리하고 부들부들하게 번했다’로 번역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작가 모옌의 독특한 서술 방식을 한국어에서 흔히 쓰이는 의태어로 번역하였다. 그 결과 원문의 문체의 특징인 ‘규범을 일탈한 느낌’은 약화되었지만 의태어로 번역해 보다 생동감 있게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반면, ‘明媚’는 ‘아름답게 빛나’로 직역하였다. ‘아름답게 빛나다’는 말은 남자의 머리를 수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규범을 일탈한 표현을 형성하여 원문 문체와 같은 효과를 재현하였다. TT2에서는 직역을 사용하였다. 번역문에서 ‘苗条’가 여자를 묘사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묘사함에 있어 그대로 ‘날씬하다’로 직역하여 동일하게 문체 장치를 재현하였다. TT1는 삭제제를 택하였다. 즉 원문의 ‘光洁明媚’ 부분을 삭제하여 한국인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쉬워졌다. 다만 이러한 번역은 의미 전달의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문학번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문체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예시 4〉

ST: 父亲眉毛短促,嘴唇单薄,他觉得自己很丑.

TT1: 아버지는 눈썹이 달라붙고 입술이 얇팍한 자기 얼굴이 몹시도 못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TT2: 아버지는 눈썹이 짧고 입술이 얇았는데, 그런 자신이 추하게 느껴졌어요.

TT3: 아버지는 눈썹이 짧고 입술이 얇은 자신의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했다.

42) 现代汉语词典: <https://www.zdic.net/hans/%E6%B5%81%E7%95%85> 指流利顺畅或者通畅,常指文笔流畅。(2021년 5월 12일 검색)

43) 现代汉语词典: <https://www.zdic.net/hans/%E6%98%8E%E5%AA%9A> ‘明媚’一词有两个意思,一是鲜明可爱,形容女子长得好看,二是明亮美好,形容阳光明媚。(2021년 5월 12일 검색)

〈예시 4〉 또한 통사 규범을 벗어난 문체 장치의 예시이다. ‘短促’라는 단어는 보통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⁴⁴⁾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나’의 짧은 눈썹을 묘사할 때 쓰인다. 그리고 ‘单薄’은 원래 날씨가 추울 때 옷을 적게 입거나 얇게 입을 때, 혹은 신체가 허약하거나 힘, 병력 따위가 부족하거나 약할 때 쓰는 말이다.⁴⁵⁾ 그러나 이 단어로 입술을 묘사함으로써 규범을 이탈한 표현이 되었다. 원문에서는 작가가 ‘短促’와 ‘单薄’로 눈썹과 입술을 묘사하여 해학적인 느낌과 현장감 있는 시각화를 이루어내면서 ‘나’의 자조적인 감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TT3과 TT2는 변조를 통해 규범에 맞는 표현으로 원문의 뜻을 전달했지만 작가가 문체 장치를 통해 독자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나’의 자조적인 감정과 해학적인 느낌을 약화시키면서 문체의 특징이 중화되었다. TT1에서는 번안을 통해서 ‘眉毛短促’를 ‘눈썹이 달라붙다’로 번역되었지만 원문의 의미와는 거리가 생겼다. 즉 원문 부분의 눈썹이 ‘짧다’는 의미와 통사 규범을 이탈한다는 문체 장치 형식은 번역문에서 재현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번역문을 통해 원문의 자조적이고 해학적인 문체 효과를 전달하려는 번역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규범을 이탈한 표현을 번역할 때에는 목표언어에서도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최대한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컨대 ‘眉毛短促, 嘴唇单薄’를 ‘촉박한 눈썹과 허약한 입술’로 번역하면 원래 상식에서 벗어난 모옌의 특징을 반영한 원문의 의미와 의도를 한국인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다. 단, 번역 작품을 읽는 독자층은 중국 문학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국 문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두루 포함된다. 따라서 모든 독자층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문체 형식을 살리지 않더라도 원문과 같은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번역자가 문체의 효과를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눈썹이 짧막하고 입술이 얇팍하여 마치 메주처럼 보인다.’라고 원문 의미를 반영하는 번

44) 现代汉语词典: <https://www.zdic.net/hans/%E7%9F%AD%E4%BF%83> ‘短促’一词原本形容时间短暂且急迫。(2021년 5월 12일 검색)

45) 现代汉语词典: <https://www.zdic.net/hans/%E5%8D%95%E8%96%84> ‘单薄’一词原本指的是天冷时穿的衣服少而薄,或指身体瘦弱不强壮,或指力量单薄不充实人口少。(2021년 5월 12일 검색)

역문 옆에 자조적인 문체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 한마디를 덧붙여 번역하면 한국인 독자가 보다 더 쉽게 받아드릴 수 있고 원문의 의미와 문체 효과도 전달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맥락을 이탈한 표현

〈예시 5〉

ST: 日本人的三顶歪把子机枪架在汽车顶上, 枪声沉闷, 像夜雨中沉闷的狗。叫父亲眼见我奶奶胸膛上的衣服啪啪裂开两个洞。奶奶欢快地叫了一声, 就一头栽倒, 扁担落地, 压在她的背上。

TT1: 기관총이 자동차위에 설치되어 있었다. 총소리가 비 오는 날 밤에 음침하게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처럼 침울했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옷이 팍팍 찢겨져 나가면서 가슴에 두 개의 구멍이 뚫리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처참하게 소리를 지르며 꼬꾸라졌고 짐이 땅에 떨어지면서 등을 눌렀다.

TT2: 일본 놈들의 세 개의 기관총이 자동차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총소리는 무겁게 들렸으며, 마치 비 오는 밤에 울리는 음침한 개의 울부짖음과도 같았어요. 아버지는 내 할머니의 가슴에 두개의 구멍이 뚫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환희의 소리를 한 번 지르고는 땅에 꼬꾸라졌죠. 멜테가 땅에 떨어져서 할머니 잔등을 눌렀어요.

TT3: 자루가 빼막한 일본인들의 기관총 세 자루가 자동차 앞 쪽에 설치되어 있었다. 총 소리는 마치 비 오는 밤에 들려오는 음침한 개의 울음처럼 무겁고 답답했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가슴팍에 팡팡하고 두 개의 구멍이 터지는 걸 보았다. 할머니는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단숨에 넘어졌고 멜테는 땅으로 떨어지며 할머니의 등을 눌렀다.

모옌의 소설에서는 감각적 묘사의 주관적 성향이 상당히 짙다. 위의 예문은 모옌 작품에서 죽음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예시이다. 비록 작가는 죽음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으나 다른 작품에서 대체로 죽음에 대해서는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게 묘사된다. 그러나 모옌 작품에서는 할머니의 죽음이 오히려 자유로움과 경쾌한 느낌으로 묘사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옌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 “저는 어린 아이의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사고방식은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난 경우가 많아 할머니가 총에 맞아

죽을 때 지르는 소리와 흥분하고 즐거워할 때 지르는 소리가 아이의 귀에는 똑같이 들립니다.”⁴⁶⁾ 따라서 작가는 할머니가 일본 침략자의 총을 맞아 땅에 고꾸라져 인생이 끝나는 순간을 아이의 시각으로 ‘欢快’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사실상 이 표현은 즐겁고 유쾌하고 경쾌하다라는 뜻⁴⁷⁾을 가지고 있어 죽은 장면을 묘사하는데 맞지 않는 표현으로 문체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TT1은 번안을 통해 원문의 맥락을 이탈한 표현인 ‘欢快地叫了一声’을 ‘처참하게 소리를 지르며’로 맥락에 부합한 표현으로 번역했으나 원문 표현과 반대된 의미로 전달하였다. 이는 담론이 매끄럽게 전개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원문 문체 효과를 살려내지 못했다. TT2는 직역을 통해 예문의 상식에서 벗어난 느낌을 번역문에서 그대로 살려 ‘환희의 소리를 한 번 지르고’로 번역해 원문 문체와 가장 가깝게 재현하였다. 이로써 독자들의 주의를 끌고 상상력을 유발시켰다. TT3은 변조로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를 통해 TT1보다는 원문에 더 가까우나 ‘欢快’에 드러나는 기쁜 느낌은 놓쳤다.

〈예시 6〉

ST: 孙五又割掉罗汉大爷另一只耳朵放进瓷盘。父亲看到罗汉大爷那两只耳朵在瓷盘里活泼地跳动, 打得瓷盘叮叮咚咚响。日本兵托着瓷盘, 从民夫面前, 从男女老幼面前慢慢走过。父亲看到罗汉大爷的耳朵苍白美丽。

TT1: 손오가 다른 한 쪽 귀를 또 잘랐다. 대야의 귀가 접시 위에서 팔딱팔딱 뛰면서 통통 소리를 냈다. 그 일본군은 접시를 받쳐 들고 부역자들과 동네사람들이 모여 있는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아버지의 눈에는 대야의 귀가 더욱 창백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접시 위에서 귀가 뛰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듯했다.

TT2: 순우는 루어한 큰할아버지의 다른 한쪽 귀도 쟁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루어한 큰할아버지의 두 귀가 쟁반 위에서 날뛰면서 소리 내는 것을 목격했지요. 이본 병사는 쟁반을 들고서 민부와 남녀노소를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아

46) 인터뷰 자료: <http://ent.sina.com.cn/x/2009-12-09/05562803560.shtml> ‘我觉得应该用欢快的语调来读,因为我是从一个孩子的角度写的故事,孩子的思维很多时候违反常规,从孩子的眼睛望去,奶奶临死前的叫声和高兴时的叫声没什么两样.’ (2021년 4월 19일 검색)

47) 现代汉语词典: <https://www.zdic.net/hans/%E6%AC%A2%E5%BF%AB>: 欢快一词指欢乐痛快,欢乐轻快. (2021년 5월 25일 검색)

버지는 루어한 큰할아버지의 창백하고 아름다운 귀를 목격해야 했는데, 쟁반에서 들리는 소리는 더욱더 격렬해졌죠.

TT3: 순씨네 다섯째는 다시 뒤편 큰할아버지의 다른 한 쪽 귀를 잘라 쟁반 위에 담았다. 아버지는 그 두 개의 귀가 쟁반 위에서 쟁반을 탕탕 치며 필필 뛰는 소리를 들었다. 일본 병사는 쟁반을 받쳐 들고 끌려 나온 일꾼들과 남녀노소 앞을 지나서 천천히 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아버지는 뒤편 할아버지의 창백하고 아름다운 귀를 보았다. 쟁반을 치는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붉은 수수밭〉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이 작품에는 가지각색의 죽음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뒤편(罗汉) 큰할아버지⁴⁸⁾의 죽음에 많은 편폭을 할애하여⁴⁹⁾ 정성스럽게 그려내고 있다. 이 부분은 모골이 송연하고 처참하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라 독자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비참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뒤편 큰할아버지의 잘린 귀를 ‘活泼地跳动’으로 묘사하였다. ‘活泼(활발하다)’는 원래 사람의 행위나 행동이 무뚝뚝하지 않거나 자연스러울 때 쓰는 표현으로 아이나 젊은이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인다.⁵⁰⁾ 즉 작가가 선택한 단어가 이 글의 잔인한 분위기와 정반대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맥락을 이탈하는 언어 관계가 형성된다.

〈예시 6〉에 대해서 세 가지 번역문 모두 변조를 사용하여 원문의 의미를 재현하였고 이러한 맥락에 맞지 않는 전경화 표현에서 작가가 전달하려는 충격과 자극을 어느 정도 재현해냈다. TT1는 ‘팔딱팔딱 뛰다’로 번역하였다. ‘팔딱팔딱’은 ‘탄력 있고 작게 자꾸 뛰는 모양’, ‘맥이나 심장이 작게 자꾸 뛰는 모양’, ‘성이나서 참지 못하고 팔팔 뛰는 모양’, ‘몸집이 작은 사람이 자꾸 문을 여닫으며 드나드는 모양’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活泼’의 느낌과는 거리가 있다. TT2는 ‘날뛰다’⁵¹⁾를 사용하였는데 이 또한 변조로 번역된 전경화 표현

48) ‘罗汉大叔’에 대해 TT1는 ‘나한 내야’, TT2는 ‘루어한 큰할아버지’ 그리고 TT3은 ‘뒤편 할아버지’로 번역했는데 세 가지 표현은 다 같은 의미이다.

49) 모언, 『붉은 수수밭(红高粱)』, 홍희 역, 동문선, 1991, p.266.

50) 现代汉语词典: <https://www.zdic.net/hans/%E6%B4%BB%E6%B3%BC> ‘活泼’一词指行动自然不呆板,形容小孩子和年轻人很可爱,讨人喜欢。(2021년 5월 21일 검색)

5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이다. ‘날뛰다’에는 네 가지 의미⁵²⁾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날듯이 경충경충 뛰다’가 원문의 ‘活泼’와 느낌이 비슷하나 한국어에서도 ‘날뛰다’라는 단어가 ‘잘려진 귀’를 수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맥락을 일탈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독자들에게 잔인한 장면을 연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준다. TT3의 ‘떨떨 뛰는’이라는 표현은 ‘活泼’의 느낌과 거리가 있어 문체 효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표현이다.⁵³⁾

3) 수사 범주

(1) 공감각

공감각은 감각영역의 자극으로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붉은 수수밭〉에서 공감각은 촉각 형용사 + 후각 대상, 시각 형용사 + 후각 대상, 시각 형용사 + 미(味)각 대상 등의 형식들이 있으며 작가는 이러한 공감각을 통해서 마음속의 정서들을 외재화하여 독자에게 이러한 정서들을 더욱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전달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TT1은 변안, TT2는 변조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TT3은 직역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예시 7〉

ST: 父亲没吱声, 他看着奶奶高大的身躯, 嗅着奶奶夹袄里散发出来的热烘烘的香味, 突然感觉到凉气逼人。

TT1: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할머니의 큰 체구를 바라봤다. 할머니의 체취

(2021년 5월 20일 검색)

5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4가지 의미를 제시하였다. 첫째, 날듯이 경충경충 뛰다. 둘째, 함부로 덤비거나 거칠게 행동하다. 셋째, 어떤 일에 골몰하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니다. 넷째, 그런 상태가 되어 어쩔 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다는 의미이다. (2021년 5월 20일 검색)

5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첫째, 많은 양의 물이나 기름 따위가 계속해서 몹시 끓는 모양. 둘째, 몸이나 온돌방이 높은 열로 몹시 뜨거운 모양. 셋째, 크고 힘차게 날거나 뛰는 모양. 넷째, 먼지나 눈, 가루 따위가 바람에 세차게 날리는 모양. 다섯째, 불길이나 세게 일어나는 모양. (2021년 5월 21일 검색)

새삼 확연히 전해졌다. 아버지는 갑자기 한기가 느껴져 진저리를 쳤다

TT2: 할머니의 장대한 체구를 바라보면서, 할머니의 겹저고리에서 풍겨 나오는 후끈후끈한 냄새를 맡은 아버지는 갑자기 냉기가 전신을 엄습해오는 것을 느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TT3: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할머니의 커다란 몸체를 바라보고, 할머니의 겹저고리에서 품겨 뿜어져 나오는 후끈후끈한 향기를 맡았다. 아버지는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엄습해오는 걸 느끼며 몸서리를 쳤다.

〈예시 7〉는 소설 도입부에 나오는 장면으로 할머니와 아버지가 작별했을 때 아버지가 할머니를 안으면서 느꼈던 느낌에 대한 묘사이다. ‘热烘烘的香味(후끈후끈한 향기)’라는 표현을 통해 할머니 몸에서 나는 냄새를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촉각 형용사인 ‘热烘烘(따뜻한)’으로 후각 대상인 ‘香味(향기)’를 수식하여 촉각 형용사로 후각을 묘사하는 공감각 표현이 형성된다. 작가는 촉각과 후각의 충동을 통해 할머니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버지에게 독특하고 직관적이며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별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할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아쉬움과 미련, 그리고 사랑도 생생하게 그려냈다. 이러한 공감각 표현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신선함을 주고자 하였다.

TT3은 직역을 사용하여 ‘후끈후끈한 향기’로 원문의 공감각 표현을 그대로 살려냈고, TT2는 변조를 통해 ‘후끈후끈한 냄새’로 번역해 원문 의미에 가깝지만 원문 중 ‘香气(향기)’에 남은 할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미련을 재현하지 못하여 원문의 뉘앙스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TT1은 번안을 통해 ‘체취 새삼 확연히 전해졌다’로 원문의 의미와 반대로 번역하였다. 이는 원문 작가가 공감각 표현을 통해 이별이라는 시점에서 할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미련과 사랑, 원문의 분위기와 정서, 문체 효과를 번역자가 살려내지 못했다. 따라서 독자의 주의를 끌고자 했던 작가의 목표를 번역문에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예시 8〉

ST: 在这次雾中行军里, 我父亲闻到了那种新奇的, 黄白相间的腥甜气息。

TT1: 그러나 이 안개 속의 행군 가운데, 아버지는 비릿하고 들뜬한 새로운 냄새를 맡았다.

TT2: 그런데 안개 속의 이번 행군에서 아버지는 새롭고도 기이한 냄새를 맡았는데, 그것은 뭐라고 꼬집어서 표현하기 어려운 비릿한 단내였답니다.

TT3: 그러나 이번 안개 속의 행군에서 아버지는 어떤 신기하고, 딱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도 없는 들척지근한 비린내를 맡았다.

〈예시 8〉은 시각 형용사인 ‘黃白相间(흰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색깔)’으로 후각적인 대상인 ‘腥甜氣息(들척지근한 비린내)’를 수식하여 이루어진 공감각 표현의 예시이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 고된 행군을 하는 ‘아버지’에게 ‘들척지근한 비린내’는 그의 기억을 “아버지의 영혼 깊숙한 곳에 놓여 있던, 마주 먼 시절”로 데려간다.⁵⁴⁾ 여기서 ‘黃白相间(흰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색깔)’은 가을 수수의 색깔이고 ‘腥甜氣息(들척지근한 비린내)’는 수수의 냄새이자 이 수수밭에서 침략을 당해 죽은 농민들의 피 냄새이기도 하다. 〈붉은 수수밭〉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작가가 늘 수수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일본 침략자의 화물차를 폭발시키러 가는 길에 수수밭을 지나갈 때 번역자가 ‘들척지근한 비린내를 맡았다’라고 서술한 것은 침략을 당해서 죽은 농민들을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감정을 보여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예시 8〉에서 시각 형용사로 후각 대상을 수식하는 공감각 표현에 대해서 세 가지 한국어 번역문은 모두 ‘腥甜氣息(들척지근한 비린내)’인 후각 대상을 잘 살려냈으나 ‘黃白相间(흰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색깔)’이라는 시각 형용사를 전달하지 못하여 목표언어에서 원문의 공감각을 이루지 못하였고 공감각을 통해 수수 냄새로 죽은 사람의 피 냄새를 연상시키는 문체적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 TT1은 ‘비릿하고 들큰한 새로운 냄새’로 ‘黃白相间(흰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색깔)’ 부분을 삭제했는데, 이는 적절한 번역 방법이 아니다. 원문은 시각적인 형용사와 후각 대상의 조합을 통해 독자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어 이 수수밭에서 침략을 당해 죽은 농민들의 피 냄새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생략이 불가하다. TT2와 TT3은 모두 목표어 독자가 받아들이기 쉽게

54) 모연, 『붉은 수수밭』, 심혜영 역, 문학과 지성사, 2014, p.626.

번안을 사용하였다. 번역문에서 목표어에 없는 문화 표현을 다른 의미로 바뀌서 번역한 것이다. 즉 ‘黃白相间(붉은 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색깔)’이라는 부분은 ‘딱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도 없는’으로 번역한 것은 담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번역자가 자신이 이해한 대로 해석한 것에 더 가깝게 되었다.

(2) 비유법⁵⁵⁾

〈붉은 수수밭〉에 나온 비유 표현은 비유의 본체(本体)는 육체화(肉体化), 자연화(自然化), 환상화(魔幻化), 유령화(有靈化)의 경향이 나타나며 유체(喻体)는 낯설음화(陌生化), 유희화(遊戲化), 동물화(動物化), 저속화(粗鄙化) 등의 특징을 가져 하나의 문체적 특징이 된다.(叶艳:2018) 세 가지 한국어 번역본 모두 직역과 변조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각 번역 방법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다.

〈예시 9〉

ST: 还是我的父亲最先发现我的奶奶, 父亲靠着某种神秘力量的启示, 在大家都目不转睛地盯着缓缓逼近的汽车时, 他往西一歪头, 看到奶奶像鲜红的大蝴蝶一样款款地飞过来。

TT1: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할머니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어떤 신비한 역량의 계시라도 받은 듯 모든 사람들이 눈동자도 돌리지 않고 천천히 접근해 오는 자동차를 노려보고 있을 때, 그가 서쪽으로 고개를 들자, 선흥색 호접 나비가 천천히 날아 오는 듯 한 할머니를 모았다.

TT2: 아버지가 내 할머니를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신비스러운 힘의 계시를 받아, 여러 사람들이 죄다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 자동차를 주시하고 있을 때 서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할머니가 붉은 나비처럼 대범하게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TT3: 제일 먼저 할머니를 발견한 건 아무래도 아버지였다. 아무도 눈 돌리지 않고 모두가 천천히 다가오는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아버지는 마치 어떤 신비한 힘이라도 받은 것처럼 서쪽으로 고개를 돌려 선흥색 나비처럼 나폴나폴 날아오는

55) 汉语修辞学大辞典 北京, 中国国际广播出版社, 1989. “비유는 사전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사물의 비슷한 점을 통하여 ‘을’ 사물로 ‘갑’ 사물을 비교한다. 즉 ‘을’ 사물을 이용하여 본질이 다르고 비슷한 점이 있는 ‘갑’ 사물로 표시하는 것이다.”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예시 9〉은 어린 아이의 시각으로 부대에 차뽕(抹餅)을 보내러 가고 있는 할머니가 일본 적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이다. 할머니의 죽음은 마치 짧지만 찬란하고 미련 없는 그녀의 인생처럼 아름답게 그려져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준다. 여기서 할머니를 선흥색 나비로 비유하는 것은 모옌이 사망이라는 슬픈 사건에 시적이고 낭만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할머니의 영웅적인 죽음을 통해 독자에게 살아 숨 쉬는 생명의 강렬함과 열정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TT1과 TT3은 원문의 ‘鲜红의’를 모두 한자 어휘 ‘선흥색(鲜红色)’으로 직역하였다. 한자 어휘를 통해 문장의 문학성을 가미시키고 할머니의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생명과 불같은 성격을 독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였다. 또한 ‘款款地飞过来’를 TT3과 TT1에서 모두 변조를 사용하여 각각 ‘나풀나풀 날아오다’와 ‘천천히 날아오다’로 번역했는데 할머니의 호리호리하고 맵시 있는 자태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TT2에서는 ‘鲜红的大蝴蝶’를 ‘붉은 나비’로 번역함으로써 다른 두 번역문에 비해 할머니 생명의 열렬함과 강렬함이 약하게 전달되었으며 TT2에서는 번안 통해 ‘款款地飞过来’를 ‘대범하게 걸어왔다’로 번역하였으나 원문의 의미와 동떨어져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3) 의인법

〈예시 10〉

ST: 不知不觉, 连成一体的雾海中竟有些空洞出现, 一穗一穗被露水打的精湿的高粱在雾洞里忧悒地看着我父亲, 父亲也虔诚地望着他们。父亲恍然大悟, 明白了他们都是活生生的灵物。它们扎根黑土, 受日精月华, 得雨露滋润, 上知天文下知地理。

TT1: 언제부터인지 안개의 바다 속에 공동(空洞)이 생겨나, 이슬에 흠뻑 젖은 수수의 이삭들이 우울하게, 그 공동 안에서 아버지를 주시하고 있었다. 아버지 역시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확실하게 살아 숨 쉬는 영물(灵物)이었다. 그들은 흑토에 뿌리를 박고, 해와 달의 정기와 비와 이슬의 자양분을 얻으며, 위로는 천문(天文)을 알고 아래로는 지리

(地理)에 통해 있다.

TT2: 이슬에 젖은 수수 이삭들이 그 둥근 구멍 안에서 처연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우두커니 바라보았고, 아버지도 엄숙한 자태로 그 수수 이삭들을 바라보았대요. 아버지는 불현듯 수수들이 영혼을 가진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들은 흑토에 뿌리를 박은 채, 해와 달의 정기를 받으면서, 비와 이슬이 내려주는 물을 마시면서 자라났으니,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알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알고 있었답니다.

TT3: 무더기를 이루고 있던 안개의 바다 한 가운데 언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동굴이 하나 뚫려 있었다. 이슬에 젖은 수수 이삭들이 그 안개 동굴 속에서 우울하게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버지도 경건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불현듯 그것들이 모두 생생하게 살아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검은 흙 속에 뿌리를 박고 해와 달의 정기를 받고 비와 이슬이 내려주는 물기를 받아 자라면서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깨달았다.

〈예시 10〉은 〈붉은 수수밭〉에서 수수를 의인화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시이며 모연의 작품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독자에게 널리 알려진 문구이기도 하다. 작품 〈붉은 수수밭〉에서 수수는 현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식물일 뿐만 아니라 대대로 현지 사람들을 지켜주는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며 생생하게 살아 있는 영혼이기도 하다. 즉 붉은 수수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고 검은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해와 달의 정기를 받아” 살아가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인간사의 모든 고초와 슬픔, 환희와 고뇌가 함께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순수한 정기와 생명의 상징이다.⁵⁶⁾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수수는 하나의 사물로서 색깔, 맛, 형태 등이 상대적으로 고정돼 있지만 〈붉은 수수밭〉에서는 작중인물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에 따라 수수가 매우 다양하게 묘사된다.⁵⁷⁾ 그래서 수수밭에서 일본 군대의 대학살로 300여명 농민들의

56) 모연, 『붉은 수수밭』, 심혜영 역, 문학과 지성사, 2014, p.628.

57) 庞守英, 《新时期小说文论》, 山东大学出版社, 2004, p.218. “在《红高粱》中, 反复出现的一个景物就是红高粱, 作为一个客体, 高粱的色, 味, 形是相对固定的, 但是, 当莫言以不同的情绪, 不同的心态去拥抱他们的时候, 它们便因主观色彩的不同而呈现出千姿百态。”此处因鬼子报复性的大屠杀, 三百多个相亲陈尸于高粱地, 以悲痛哀悼的目光望去, 遍地高粱蓦然肃立。”由于主观情绪和心理的不同, 感官捕获的印象也随之发生变异, 因而

비참한 죽음을 목격했던 수수의 마음이 비통했고 일본군의 차를 폭발시키려 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수수의 표정 역시 우울했던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억울함과 슬픔을 수수의 우울한 표정으로 의인화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예시 10〉에서 수수를 의인화 하는 표현은 총 두 가지이다. 하나는 ‘它们扎根黑土, 受日精月华, 得雨露滋润, 上知天文下知地理’로 세 가지 번역본은 이 부분을 모두 직역을 통해서 원문의 의인법 장치와 문체 효과를 그대로 살려냈다. 나머지 하나는 ‘忧悒地看着’라는 표현으로 수수를 수식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세 가지 번역문 중 TT1과 TT3은 모두 직역을 통해서 ‘우울하게 주시하고 있다’와 ‘우울하게 쳐다보고 있다’로 번역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반면, TT2에서는 ‘넋이 나간 듯이 가만히 한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양’의 뜻인 ‘우두커니’로 번역하여 원문의 억울함과 슬픈 감정을 살려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원문 의미화 표현의 의미와 다소 차이가 있다.

〈예시 11〉

ST: 那时大石桥尚未修建, 小木桥被千万只脚步, 被千万次骡马蹄铁踩得疲惫不堪, 敲得伤痕累累.

TT1: 아직 큰 돌다리는 완공되지 않았었다. 작은 나무다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발을 짚을 박은 수천수만의 노새와 말들이 밟고 지나가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다.

TT2: 그때는 커다란 돌다리가 아직 건설되지 않았을 때였으므로, 작은 나무다리는 수천만 개의 발걸음과 노새와 말발굽에 수천만 번 밟혀 단단해지고 마모된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TT3: 그때 돌다리가 아직 완공되기 전이라 작은 나무다리가 수많은 인파와 노새와 말발굽에 짓밟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예시 11〉에서 ‘踩得疲惫不堪, 敲得伤痕累累’는 돌다리가 완공되기 전에 사람과 노새 등에 의해서 밟힘을 당한 나무다리의 지치고 가여운 모습을 의인화한 것이다. TT1은 삭제 방법을 통해 번역자가 원문의 ‘踩得疲惫不堪, 敲得伤痕累累

感觉到的物象,就不再是纯客观的物象,而是客观与主观的统一体.作家的主观情绪靠着不同的感觉来宣泄,感觉也因为被赋予了主观色彩才具有了艺术的生命力。”

累’ 부분에서 ‘蹶得疲惫不堪’ 부분을 없애고 ‘敲得伤痕累累’ 부분만 살려 ‘여기 저기 상처가 나 있다’로 번역하였다. 반면, TT2는 번안을 통해 ‘단단해지고 마모된 자국이 가득했습니다.’로 번역하였으나 아쉽게도 원문에서 작가가 의도했던 의인화 기법을 통해 살려내고 싶은 농민군들의 지친 마음을 번역문에 드러내지 못했고 원문의 뜻과 거리가 멀어졌다. TT3에서는 직역과 변조를 같이 사용하였다. 먼저 직역을 살펴보면 ‘疲惫不堪⁵⁸⁾’을 번역자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로 번역하였다. 작가의 의인법 의도를 파악해 원문의 느낌을 잘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변조를 통해서 비록 ‘敲得伤痕累累’ 부분의 뜻은 나와 있지 않지만 ‘疲惫不堪’ 앞에 있는 동사 ‘蹶’를 ‘짓밟히다’로 번역해 나무다리에 ‘상처나 있는’ 상태가 연상되도록 하였다.

3. 결론

문학번역의 본질은 ‘특별함’ 혹은 ‘다름’의 미학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문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문학 작품 번역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중국 신감각과 작가 모옌의 〈붉은 수수밭〉 원문과 세 가지 한국어 번역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모옌의 문체적 특징인 감각적 묘사의 한국어 번역 방법을 연구하였다.

먼저, 〈붉은 수수밭〉에서 모옌의 감각적 묘사는 ‘환상적인 색채 표현의 사용’과 ‘낮선 감각적 표현의 사용’을 통해 입체적으로 전달되었다. 전자는 라틴 아메리카의 마술적 리얼리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의 영향을 받았고 후자는 일본의 신감각과 작가들과 미국 작가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붉은 수수밭〉 문체 장치에 대한 분석 결과는 언어 범주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어휘 범주에서는 ‘환상적인 색채 어휘’, 문장 범주에서는 ‘규범을 일탈한 표현’과 ‘맥락을

58) <https://www.zdic.net/hans/%E7%96%B2%E6%83%AB%E4%B8%8D%E5%A0%AA> 现代汉语词典: 疲惫:极度疲乏;不堪:不能忍受,形容非常疲乏。(2021년 5월 29일 검색)

일탈한 표현' 그리고 수사 범주에서는 개성적인 '비유법', '의인법', '공감각' 등의 문체 장치를 통해서 표현되었다.

그 다음은 감각적 묘사의 문체 장치를 번역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세 가지 번역본 중 TT1은 직역과 삭제에 위주로 번역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정서와 한국 문화를 고려하여 번안을 통해 한국식 표현으로 바꾼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TT1은 세 가지 번역본 중 가장 간결하고 맥락이 깔끔하며 한국인 독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다.

TT2는 직역과 변조가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번역자가 최대한 원문 문체 효과를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번역자가 원문 문체에 집중하다 보니 한국인 독자 입장에서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번역문학작품의 중심은 원문 문체의 충실한 재현에 있기 때문에 TT2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본으로 볼 수 있으며 모연 문체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TT3은 감각적 묘사의 문체장치를 번역하는 데에 있어 직역, 변조와 번안을 모두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문체 장치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한국 특유의 의성어 의태어를 적절히 활용해 독자가 글을 읽었을 때 해당 장면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번역본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직역, 변조, 번안 그리고 삭제 등 번역방법들의 문체 재현 효과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모연 문체를 번역하는 데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번역방법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모연 문체인 감각적 묘사를 번역하는 데에 있어 문체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재현하는 번역 방법은 직역이다.

둘째, 원문의 의미를 바탕으로 변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문체의 형식을 보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조를 통해 원문의 의미를 보존하고 난 후에 〈예시 4〉에서 언급한 제안처럼 옆에 원문 문체 효과를 나타내는 문장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로써 원문 문체 효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목표언어 독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직역이나 변조로 번역하면 목표 언어 텍스트 전체 맥락에서 어색하여

한국인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번안을 사용한다. 번안으로 한국 독자들이 더 익숙한 서술 상황을 만들고 문장의 유창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자료

汉语词典, <https://www.zdic.net>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汉语修辞学大辞典 北京, 中国国际广播出版社 1989
인터뷰 자료: <http://ent.sina.com.cn/x/2009-12-09/05562803560.shtml>

2. 단행본

모옌, 『붉은 수수밭(红高粱)』, 홍희 역, 동문선, 1991.
모옌, 『홍까오량 가족』, 박명애 역, 문학과 지성사, 2007.
모옌, 『붉은 수수밭』, 심혜영 역, 문학과 지성사, 2014.
손지봉, 안희연, 김란, 『고품격비즈니스중국어통역』, 2016.
조의연, 『번역문제론』, 한국문화사, 2014
황도경, 『문체, 소설의 몸』 소명출판, 2015.
管笑笑, 『莫言小说文体研究』, 北京师范大学出版社, 2016.
莫言, 『红高粱家族』, 作家出版社, 2015.
庞守英, 『新时期小说文体论』, 山东大学出版社, 2004.
威廉·福克纳, 『喧嚣与骚动』, 李文俊 역, 上海译文出版社, 1984.
J.P. Vinay · J. Darblnet, 전성기 역, 『불어와 영어의 비교문제론』, 고려대학교출판부, 2003.
Leech, Geoffrey N. & Short, Micheal H. *Style in Fic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1.
Munday, J. 정연일·남원준 역, 『번역학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6.
Nida, E. & Taber, C. *The theory and prctice of translation*, Leiden Boston, MA: Brill, 1969,
William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Vintage Books, 1954.

3. 논문

강혜숙, 「세 가지 어법과 감각의 서사 : 김훈의 〈화장〉에 나타난 문체적 특성」, 『돈암어

- 문학』 제21집, 돈암어문학회, 2008, pp.249-288.
- 김명숙, 「모옌 문학 한국어 역본에 나타난 문화정보의 유실과 오독」, 『한중인문학연구』 제53집, 한중인문학회, 2016, pp.91-116.
- 김윤신, 「모옌의 〈红高粱〉·〈高粱酒〉의 번역과 문화오독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류현주, 「문학번역 비평-『오만과 편견』」, 『통번역학연구』 제13권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09, pp.53-68.
- 방금화, 「〈붉은 수수밭〉 번역 전략 비교 연구-3종의 한국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한국중어중문학』, 한국중어중문학회, 2018, pp.207-228.
- 심혜영, 「〈붉은 수수 가족(红高粱家族)〉을 통해 본 모옌(莫言)의 문학세계」, 『中國現代文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제68집, 2014, pp.35-71.
- 유한내, 「베르만의 번역비평 방법론과 그 적」,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경애, 「김광균 시의 ‘낮설게 하기’ 기법과 시적 의미-〈秋日抒情〉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5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pp.391-413.
- 이옥연, 「모옌의 이야기 서사와 그 의미-〈인생은 고달파〉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75집, 한국중국학회, 2016, pp.355-376.
- 丁小芝, 武宁, 「前景化视角下《红高粱家族》方言变异及英译策略探析」, 『重庆广播电视大学学报』 제29권, 2017, pp.75-80.
- 何宁, 「论莫言小说的“乡村”主题与民间审美特色」, 『长春教育学院报』 第30卷 第9期, 2014, pp.27-28.
- 金旻南, 「中国现当代小说在韩国的情况与展望」, 『韩中语言文化研究』 제39집, 한국중국어언어문화연구회, 2012, pp.105-119.
- 李靖民, 徐淑华, 「前景化与翻译批评」, 『西安外国语学院学报』 第1期, 2003, pp.1-2.
- 李彦文, 「作为文学新人的莫言与20世纪80年代初文坛」, 『中国政法大学学报』 第6期, 第3期, 2020, pp.195-209.
- 刘丽, 「莫言小说的感觉叙事研究」, 河南科技大学, 硕士学位论文, 中国语言文学系, 2019.
- 潘海军, 「莫言小说中抗战叙事的边缘化与陌生化策略」, 『长春大学学报』, 第19卷, 第3期, 2009, pp.48-50.
- 任志华, 「魔幻现实主义视角下莫言小说创作探析」, 『延安职业技术学院院报』 第28卷 第4期, 2014, pp.120-121.
- 沈文凡, 闫雪莹, 「日本新感觉派及其对中国的影响」, 『日本学论坛』, 第13卷, 第12期, 2009, pp.24-31.
- 叶艳, 「莫言小说修辞英译研究」, 华东师范大学, 国际汉语文化学院, 语言学及应用语言学专业, 博士论文, 2018.

张 娟, 「川端康成与莫言的自然审美比较」, 『淮北师范大学学报』, 第41卷, 第4期, 2020, pp.93-97.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8월 09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8월 25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9월 23일

Abstract

A Study on Korean Translation Methods of Moyan Style —Focusing on the Narrative of Feelings in 〈Red Sorghum Field〉

Song, Jingyang

In a literary work, styl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represent the personality of an author. O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Korean translation methods of Narrative of Feelings in Moyan's works. Moyan's Narrative of Feelings wa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Gabriel García Márquez, Japanese New Sense writers, and William Faulkner. In 〈Red Sorghum Field〉, Narrative of Feelings is presented through the 'color vocabulary', 'expression out of norm', 'expression out of context', and the analogy, the anthropomorphism, and the synesthesia.

Among the three Korean translations, translation methods such as literal translation, adaptation, modulation, and deletion were used to reflect stylistic elements. By analyzing the reproduction of stylistic effects by using various translation methods through specific translation cas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direct translation method is the most ideal translation strategy because it faithfully reproduces the stylistic effect from translating the perceptual description of Moyan's style. The next recommended translation method is adaptation. If a form of a work, which is the specificity of the style, cannot be preserved by direct translation, an adoption strategy can be used to preserve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If sentences translated by direct translation and adaptation methods are awkward in the context of the entire work in the target language, and difficult for Korean readers to understand, modulation strategy may be adopted to preserve the fluency of the sentences. Since style is the lifeblood of a literary work, it is not advisable to delete the stylistic element, at least in literary translations.

Keyword

Stylistic translation, Narrative of Feelings, 〈Red Sorghum Field〉,
Mo Yan, Translation Methods

중한 시나리오 대화문 번역 연구

—체면 손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자 양 판*

국문요약

본 논문은 중국어로 된 시나리오 대화문과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 번역본 두 편을 선정하여 체면 손상 효과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화용론적 관점에서 이들의 체면 손상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여러 연구들을 살펴면서 공손 이론 중 체면 손상 효과가 번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체면 손상 효과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을 구체적으로 계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체면 손상 효과 측정의 공식을 적용하여 중국어 대화문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 대화문의 체면 손상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경어 표현 적용 여부는 체면 손상 효과의 크고 작음과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공손 이론을 바탕으로 체면 손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번역 분석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본고의 의의이며 본 연구를 통해 번역자의 역할 또한 더욱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었다.

주제어 시나리오 번역, 공손 이론, 체면 손상 효과, 번역 분석, 번역자의 역할, 번역방법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체면 손상 효과 크기 측정 방법
4. 체면 손상 효과에 따른 번역 분석
5. 결론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번역을 두 문화 간 의사소통의 중간 다리로 보는 광의의 개념이 인정받으면서 번역사를 보는 시각도 점점 달라져서 이제는 번역사를 두 문화 간 의사소통의 중개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즉 번역사는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 간 의사소통의 능력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번역사는 같은 텍스트에 대한 여러 번역 결과물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때 번역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이해는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특히 공손에 대한 표현은 한 나라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시나리오라는 용어는 신(scene)이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다. 신은 연극에서 한 장면 혹은 한 막을 일컫는 용어인데, 영화에서는 한 단위의 시간 혹은 한 단위의 공간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시나리오 번역은 공간적·시간적 제약과 가독성에 대한 강조로 특징지을 수 있는 대본 번역의 성격을 가진다. 시나리오는 영화 제작을 위한 일환으로서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소개하는 동시에 영화의 시청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 TT 문화와 사회통념에 맞는 표현으로 전환해야 하고 TT의 ‘표현력’ 보다 줄거리의 전개와 분위기에 맞는 ‘맛깔스러운 대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시나리오 번역을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면서 탐구인데 특히 이전의 연구에서 밝혀져 있지 않은 부분을 조명함으로써 다른 문학작품 번역 분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중·한 문화권의 공손 표현에 입각하여, 번역문에서 나타나는 공손 표현의 정도, 즉 체면 손상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어로 된 문학작품 중의 시나리오 대화문과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 번역본 두 편을 선정하였다. 체면 손상 효과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을 수치로 계량화하여 체면 손상 효과의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원작의 대화체 문장의 번역물을 화용론적 차원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1) 체면 손상 효과와 번역

공손의 개념은 1973년 레이코프(Lakoff)는 먼저 논의하여 언어학계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다양한 공손 이론이 나왔으며 현재까지 그 연구가 활발하다.¹⁾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은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공손 이론을 많이 논의하였다. 브라운과 레빈슨(1987)의 공손 이론은 고프만(Goffman, 1967)의 ‘체면(face)’ 주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그들은 체면과 관련된 주장을 더 구체화 시켜서 적극적 체면²⁾과 소극적 체면³⁾으로 구분하였다.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체면 손상 행위(FTA: Face Threatening Acts)라고 부른다. 브라운과 레빈슨(1987)은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완화하기 위해 공손 표현을 적용한다. FTA의 크기를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 청자가 화자에 대해 가지는 상대적 힘의 크기 및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담의 절대적 크기 등 세 가지 변수의 합으로 보았다.

$$Wx = Dx(S, H) + Px(H, S) + Rx$$

D: Social distance between S and H

P: Relative power of addressee(H) over Speaker

R: ranking of the imposition involved in doing the FTA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의 크기는 대화 참여자들의 친소 정도, 상대적인 사회관계, 그 문화권에서 허용되는 상대에 대한 부담감의 정도를 합한 것이다. 이들 세 가지 변수의 요소 합이 클수록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공손

1) 허상희(2010), 「한국어 공손표현의 화용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 적극적 체면은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거나, 상대를 강화하거나, 상대의 체면을 보호해주는 것을 말한다.

3) 소극적 체면은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자신을 낮추거나 화제를 인물이 아닌 어떤 대상으로 삼으면서 상대의 체면을 보호해준데 마찬가지로 소극적 체면이 보호된다.

한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하며, 반대로 W가 작을수록 공손한 표현은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는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위의 이론을 바탕으로 허상희(2010)에서 밝힌 거리, 힘, 상황 요인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참고하여 각 요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거리, 힘, 상황 요인의 분류

힘 요인	타고난 것	나이, 성별, 가족 지위, 친척 지위
	이루어낸 것	직장지위, 사회적 지위
거리 요인	물리적 거리	시공간
	심리적 거리	긍정적 심리, 중립적 심리, 부정적 심리
상황 요인	공적 상황, 사적 상황	부담감 크기

〈표 1〉에 나타난 힘 요인은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타고난 것(ascribed)’과 사회로부터 성취된 ‘이루어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거리 요인은 크게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로 나뉜다. 물리적 거리는 시공간적 거리를 말하고 심리적 거리는 화자가 청자에게 느끼는 감정적 거리인데 화자가 청자에게 느끼는 감정의 양상에 따라 긍정적 심리, 부정적 심리, 중립적 심리 등으로 나뉜다. 같은 장면에서 같은 인물끼리 이루어진 대화라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간의 거리는 줄거리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녀 사이는 친족 관계에 속하지만, 서로에 대해 정서적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친족 관계라도 정서적 거리감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본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서적 거리이다. 상황 요인은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는 대화 공간의 분위기에 따라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으로 분류된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화자가 청자로부터 느끼는 부담감이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언급된 세 가지 요인은 3장에서 논의하

고자 하는 측정 방법과 4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에 많은 영향을 준다.

브라운과 레빈슨(1987)은 위의 공식을 제시하면서 ‘특정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특정 FTA’가 체면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그만큼 위의 값이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정 FTA가 체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언어문화권별로 다를 수 있으며, 때에 따라 FTA 값이 작더라도 공손 표현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는 때에 따라 FTA 값이 크더라도 공손 표현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손 표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고 특히 공손 효과를 측정하는 체면 손상 효과(FTA)를 중심으로 번역 텍스트를 논의한 연구는 더 드물다. 2000년 이후로 이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조상은(2001), 허상희(2010), 이숙자(2014) 등을 들 수 있다. 체면 손상 효과와 번역은 어떤 관계인지, 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자. 조상은(2001)은 일본 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각 장면에서 사용하는 경어표현을 유형화하여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의 일본어 경어표현을 관찰하면서 한국어 텍스트와의 비교를 통해서 일본어 경어법의 번역 전략을 고찰하였다. 각 장면에서 사용하는 경어표현을 유형화하는 결과와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본고에서 체면 손상 효과를 측정하는 요인의 계량화에 도움이 되었다. 허상희(2010)는 공손 표현에 영향을 주는 거리, 힘, 상황 요인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다. 이숙자(2014)는 영어로 된 문학 작품과 그의 한국어 번역본을 택하여 화용론적 차원의 관점에서 호칭어 번역을 분석하였다. 공손 이론을 바탕으로 화용론적 차원에서 호칭어의 번역을 연구한 것은 번역 연구의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지만 단어 단위를 중심으로 하였고 문장 단위를 분석하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공손 이론에 입각하여 번역물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연구할 점이 많다.

2) 분석 자료 선정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가족의 언어공동체로 한정하고자 한다. 언어공동체⁴⁾를 한정해야 하는 까닭은 연구대상 집단을 지정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면 연구 대상자의 다양성 때문에 사회적 요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족 언어공동체로 조사대상을 한정하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인접한 공손 표현을 가장 잘 엿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비극 〈뇌우〉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뇌우〉는 4막으로 구성된 비극으로 1934년 7월에 〈문학계간〉에 발표되었고, 1935년 4월 일본 도쿄에서 공연되었다. 1925년 전후의 봉건지주 저우푸위안(周朴園)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세 가지 갈등 속 대가족제도의 죄상을 그리고 있다. 전체 4막의 〈뇌우〉는 하루 동안 저우 씨와 루 씨 두 집의 거실과 안방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만을 다루고 있지만, 두 가정이 약 30년을 두고 벌인 갈등과 투쟁 속에 실재했던 죄악을 축소 극화한 것이다.

총 8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각각의 인물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막을 기준으로 각 막에서 전개된 줄거리 중 복잡한 관계에 놓여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선정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위와 혈연관계에서 서로 얽히고설킨 관계를 위주로 하였다. 또한 줄거리에서 비교적 많이 상충되는 장면을 골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살피고, 화자가 청자와 대화를 할 때 체면 손상 효과가 잘 드러내는 장면을 선택하였다.

상기한 장면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인물 간의 대화 장면을 정하였다.⁵⁾ 첫째, 딸 쓰펑(四萍)⁶⁾과 아버지 루구이(魯貴)의 대화 장면⁷⁾, 둘째, 루다

4) 언어공동체는 사회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집단 내에서 서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개별적 언어집단을 부르는 말이다. 즉, 같은 언어 환경을 가지고 있는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5) 각 인물들 간의 관계는 부록에서 표를 통해 제시하였다.

6) 본고에서 나타난 사람의 이름은 번역본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었는데 본고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즉 四凤은 쓰펑, 魯貴은 루구이, 魯大海는 루다하이, 周朴園은 저우푸위안, 周繁漪은 저우판이, 周萍은 저우팡이다.

7) 쓰펑은 아버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하는 말에 경멸하는 감정이 섞여 있다. 하

하이(魯大海)와 저우푸위안(周浦園)의 대화 장면⁸⁾, 셋째, 저우판이(周繁漪)와 저우펑(周萍)의 대화 장면⁹⁾이다. 4장에서는 각 장면에서 이루어진 사례 네 개를 논의하고 그의 번역을 분석한다.

3. 체면 손상 효과 크기 측정 방법

2장에서 제시한 분류에 따라 각 요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량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수치의 구간으로 거리, 힘, 상황의 크기 추세를 표현하겠다.

거리 요인은 10점부터 0점까지 부여하는데, 10점은 거리가 제일 먼 것이고 0점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이다. 즉,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점수가 높지만,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수가 낮다. 부정적 심리적 거리에 속하는 인물관계는 10점부터 5점까지 부여되고, 중립적 심리적 거리는 5점이 부여되며, 긍정적 심리적 거리에 속하는 인물관계는 5부터 0점까지 부여된다. 어느 장면에서나 등장 인물 간에는 심리적 거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심리적 거리는 줄거리의 전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거리 변화는 ‘10-5점’, ‘5점’, ‘5-0점’의 세 구간으로 파악할 것이다.

4장의 분석 부분에서는 거리 요인에 화자가 청자에게 가지는 맥락에 따른 심리적 거리를 관찰한 뒤 화자와 청자 사이 서로가 가진 거리를 파악할 것이다. 이를 분석에서는 ‘서로의 감정적 거리’로 표시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해당 맥락을 분석하고 대화에 나타나는 인물의 감정을 파악한 후 ‘서로의 감정적 거리’의

-
- 지만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증오하는 감정을 억누르고 아버지를 존중하려고 애쓴다.
- 8) 루다하이와 저우푸위안은 혈연관계 상 부자관계이지만, 루다하이는 처음에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 게다가 루다하이는 저우푸위안의 공장에서 고용한 노동자였는데, 그는 자기의 신세를 알고 나서도 저우푸위안이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면서 자본가로서 잘난 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 9) 저우판이는 저우펑의 계모이지만, 두 사람은 연인 사이이며 서로 간의 불륜관계가 존재한다. 저우펑은 쓰펑을 좋아하게 됨으로써 계모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 한다. 따라서 계모는 상심하여 저우펑에 대한 원한을 품는다.

크기를 도출할 것이다.

힘의 크기는 지위와 나이 요인을 같이 고려한다. 우선 지위이다. 청자가 높은 지위이며, 화자가 낮은 지위에 처하면 ‘상-하’로 관계를 표기한다. 분석할 대화에서 청자와 화자가 이런 관계에 있다면 여기에서 나타난 지위에 대한 요소를 계량화하여 ‘5-10점’의 구간에서 점수가 부여할 것이다. 즉, 청자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한편 청자와 화자가 같은 지위에 있으면 이를 ‘동-동’의 관계로 표기한다. 분석할 대화에서 청자와 화자가 이런 관계에 있다면 여기에서 나타난 지위 요소에 5점을 부여할 것이다. 청자가 낮은 지위에 있고 화자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청자와 화자의 관계는 ‘하-상’으로 표기되며 ‘0-5점’의 구간에서 점수가 부여될 것이다.

다음으로 나이 요인이다. 청자가 나이가 많고 화자가 어릴 경우, 이를 ‘상-하’로 표기한다. 즉, 청자가 나이 요소에 의한 힘이 반대의 경우보다 더 강한 것이다. 따라서 대화 상황을 분석하여 청자와 화자가 이런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치화하여 ‘10-5점’의 구간으로 부여한다. 청자와 화자가 같은 나이이며 다른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서로의 나이 요소에 의한 관계를 ‘동-동’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청자가 화자 사이의 힘이 같게 된다. 따라서 대화 상황을 분석하여 청자와 화자가 이런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치화하여 5점을 부여한다. 청자가 어리고 화자가 나이가 많을 경우 ‘하-상’으로 표기한다. 즉, 청자가 나이 요소에 의한 힘이 반대의 경우보다 더 약한 것이다. 따라서 대화 상황을 분석하여 청자와 화자가 이런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치화하여 ‘5-0점’의 구간으로 부여한다.

4장의 힘 요인 분석 부분에서 청자가 화자에게 가지는 해당 맥락에 따른 힘을 파악할 것이다. 분석에서 ‘청자의 힘’으로 표기할 것이며, 분석 절차에 먼저 해당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와 지위를 파악한 뒤 청자의 힘 크기를 도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황 요인이다.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서 화자에게 발생하는 부담의 절대적 크기를 파악한다. 대화에서 벌어지는 공적인 상황인지 사적인 상황인지를 고려하는 것과 청자의 말이 화자에게 주는 부담감을 함께 고려한다. 5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5점 아래로 내려가면 비공식적 상황으로, 5점 위로 올라가면 공식적 상황으로 파악된다. 화자가 청자에게 가지는 부담감은 ‘화자의 부담감’으로 표기할 것이다. 분석 절차에서는 먼저 비공식적 상황인지 공식적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대화 맥락을 파악하여 화자의 부담감 크기를 도출할 것이다.

세 가지 요인의 크기를 도출한 뒤, 각 상황에 해당되는 체면 손상 효과의 크기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느 하나가 변동하면 다른 요소도 그에 따라 연동된다. 따라서 각 요인을 계량화하여 얻은 체면 손상 효과의 크기는 상대적인 것이다. 4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

4. 체면 손상 효과에 따른 번역 분석

공손 표현은 FTA와 상대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특히 구체적인 대화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 또한 상대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화 주체인 화자와 청자의 역할도 고정적이지 않으며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대화 맥락을 고려해서 일정한 시각에서 청자와 화자가 누구인지를 정하고 논의하겠다. 한편 예문을 선정하는 데에 앞서 언급한 기준을 바탕으로 중국어 문맥에 따른 청자에게 미치는 체면 손상 효과가 큰 예문을 한국어 번역문과 함께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방법을 통해 두 번역 간의 차이를 관찰하고 비교·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며 두 번역의 품질 평가에는 중점을 두지 않겠다. 그리고 번역문 분석에서의 체면 손상 효과가 크고 작다는 판단은 경어표현의 적용 여부와 대화 전체 맥락에 따라 판단되는데, 두 번역물의 상대적인 차이에 따라 판단된다.

사례 1: 딸 쓰평과 아버지 루구이의 대화

아래 대화는 아버지 루구이가 주인의 구두를 닦으며, 딸 쓰평에게 엄마는 나쁘며 엄마를 따라 사는 것보다 자신과 함께 사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아버지 루구이는 딸 쓰평에게 저우 씨의 집에서 받은 좋은 옷과

신발을 엄마에게 보여주라고 시켰고 쓰핑에게 엄마를 험담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물었으며 이에 쓰핑은 귀찮은 듯 대답한다.

ST:

鲁贵: (将正在擦着的鞋仍在地上) 四凤, 你听着, 我再跟你说一遍. 回头见着你妈, 别忘了把新衣服都拿给她看

四凤: (不耐烦地) 听见了.

鲁贵: (自傲地) 叫她想想, 还是你爸爸混事有眼力, 还是她有眼力.

四凤: (轻蔑地笑) 自然是你有眼力啊.

〈표 2〉 사례 1의 원문 분석

체면 손상 효과 측정 과정	화자: 딸 / 청자: 아버지 사회적 거리감(D): (부정적인 감정) 화자와 청자는 혈연관계가 있는 데 줄거리가 전개됨에 따라 감정적 거리가 있음. 청자의 힘(P): 화자보다 비교적 큼. 상황(R)-화자의 부담: 매우 강함
체면 손상 효과 크기 판정	지문과 맥락을 통해서 공손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공식에 따라 ⇒ W의 크기: 사회적 거리감(D): 5-10점 청자의 힘(P): 5-10점 상황(R)-화자의 부담: 5-10점 = 큰 것으로 확인됨
인물 파악	원래 성격이 좋은 딸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고 아버지가 엄마에게 나쁜 말을 했으니까 딸은 아버지에게 심리상 부정적 감정을 가짐.

〈표 3〉 사례 1의 번역본 분석

	번역1(2013, 하경심·신진호 역)	번역2(2016, 오수경 역)
화자와 청자	화자: 딸 / 청자: 아버지 사회적 관계: 부녀 힘 관계: 청자가 훨씬 더 큼 맥락: 위와 같음	
번역 양상	(아버지) 鲁贵: (将正在擦着的鞋仍在地上) 四风, 你听着, 我再跟你讲一遍. 回头见着你妈, 别忘了把新衣服都拿给她看 (딸) 四风: (不耐烦地) 听见了.	
	노귀: (신발을 바닥에 던지며) 사 붕아. 잘 들어라. 내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 나중에 엄마를 보면 잊지 말고 새 옷 다 꺼내 보여 드러라. 노사봉: (못 참고) 알았대니까요.	루구이: (땀고 있는 신발을 바닥에 던져 버 린다). 쓰평, 잘 들어, 다시 말하는 데, 네 엄마 오거든 잊지 말고 새 옷들 다 꺼내서 보여줘 루쓰평: (못 참겠다는 듯) 알았어요.
체면 손상 효과 반영 여부	화자인 딸 쓰평의 말에 번역1과 번역2: 경어표현 적용 (원문에 비해) 번역1의 체면 손상 효과가 크게 반영됨. 번역2의 체면 손상 효과가 작게 반영됨.	

〈표 2〉에 공식에 따라 계량화된 체면 손상 효과가 제시되었다. 우선 거리 요인이다. 딸은 아버지에게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심리적 거리는 5-10점 구간에서 나타난다. 힘의 요인은 청자인 아버지는 나이나 지위 면에서 화자인 딸에게 ‘상-하’라는 관계를 갖기 때문에 5-10점 구간으로 부여된다. 상황 요인은 사적인 상황이지만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는 마음이 강하기에 5-10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장면은 체면 손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체면 손상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경어 표현의 적용 여부와 문맥에 따른 체면 손상 효과가 원문에 비해 크게 반영하는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대화 중 딸의 말인“(不耐烦地) 听见了”에 대한 번역본을 분석하겠다. 〈표 3〉 번역 1은 “-알았대니까요”로 번역하여 화자의 못 참는다는 정서가 표현되었다. 따라서 체면 손상 효과가 크다는 맥락을 크게 반영하면서 화자의 심리적 정서를 노

출시켰다. 번역 2는 "알았어요"로 번역하여 경어법을 적용했지만 체면 손상 효과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체면 손상 효과의 크기를 판정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이 두 가지 번역을 관찰하여 같은 중국어 원문에 대한 번역이어도 그 효과의 효과를 반영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어느 번역이 좋고 나쁘다는 판정을 내리게 된다면 주관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겠지만, 체면 손상 효과의 크기를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번역 1이 번역 2보다 더 나은 것이 된다.

사례 2: 딸 쓰평이 아버지 루구이에게 하는 말

이 장면은 아버지 루구이가 딸 쓰평에 대한 큰 도련님의 연정을 알아채고, 또 도련님이 쓰평에게 사준 옷과 반지를 발견하고서는, 딸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캐묻는 장면이다. 쓰평은 평소에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노름하러 가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에게 자신이 번 돈을 주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러나 쓰평과 도련님 사이의 일을 아버지에게 들키기 싫어서 아버지 루구이와의 대화를 서둘러 끝내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

ST:

鲁贵: 别走, 我问你一句, 前天, 我看见大少爷买衣料——

四风: (沉下脸) 怎么样? (冷冷地看着鲁贵)

鲁贵: (打量四风周身) 嗯—— (慢慢地拿起四风的手) 你这手上的戒指, (笑着) 不也是他送给你的么?

四风: (厌恶地) 你说话的口气, 真叫我心里想吐。好吧, 那么你说吧, 究竟要多少钱用?

〈표 4〉 사례 2의 원문 분석

체면 손상 효과 측정 과정	<p>화자: 딸 / 청자: 아버지</p> <p>사회적 거리감(D): 딸과 아버지는 서로 혈연 관계를 갖는데 즐거리가 전 개됨에 따라 부정적 심리적 거리가 있음.</p> <p>청자의 힘(P): 화자보다 비교적 강함</p> <p>상황(R)-화자의 부담: 매우 강함(사적인 상황이지만 딸은 아버지가 말하는 모습을 혐오스러워 해서 말을 심하게 하고 있음)</p>
체면 손상 효과 크기 판정	<p>지문과 맥락을 통해서 공손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p> <p>위의 공식에 따라</p> <p>⇒ W의 크기:</p> <p>사회적 거리감(D): 5-10점</p> <p>청자의 힘(P): 5-10점</p> <p>상황(R)-화자의 부담: 5-10점</p> <p>= 큰 것으로 확인됨</p>
인물 파악	<p>원래 성격이 좋은 딸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하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고 아버지가 엄마에게 나쁜 말을 했으니까 딸은 아버지에게 심리상 부정적 감정을 가짐.</p>

〈표 5〉 사례 2 번역문 분석

	번역1(2013, 하경심·신진호 역)	번역2(2016, 오수경 역)
화자와 청자	<p>화자: 딸 / 청자: 아버지</p> <p>사회적 관계: 부녀</p> <p>힘 관계: 청자가 비교적 더 큼</p> <p>맥락: 위와 같음</p>	
번역 양상	<p>(아버지)鲁贵:(打量四风周身) 嗯——(慢慢地拿起四风的手) 你这手上的戒指(笑着) 不也是他送给你的么?</p> <p>(딸)四风:(厌恶地) 你说话的神气, 真叫我心里想吐。</p>	<p>루구이:(루쓰펑의 몸을 가늠하며) 음... (천천히 루쓰펑의 손을 잡아 올리며) 이 반지도 (웃으며) 큰 도련님이 주신 거 아니냐?</p> <p>루쓰펑:(혐오스러워하며) 그 말하는 투랑 정말 토할 것 같아</p>
체면 손상 효과 반영 여부	<p>화자 딸의 말에</p> <p>번역1: 경어표현 적용</p> <p>번역2: 비존대</p> <p>(원문에 비해)</p> <p>번역1의 체면손상 효과가 작게 반영됨.</p> <p>번역2의 체면손상 효과가 크게 반영됨.</p>	

〈표 4〉에 공식에 따라 계량화된 체면 손상 효과가 제시되었다. 우선 거리 요인이다. 딸은 아버지에게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심리적 거리는 5-10점 구간으로 나타났다. 힘의 요인은 청자인 아버지는 나이나 지위 면에서 화자인 딸에게 '상-하'라는 관계를 갖기 때문에 5-10점 구간으로 부여된다. 상황 요인은 사적인 상황이지만 딸은 아버지가 말하는 모습을 혐오스러워해서 말을 심하게 하고 있고 마음의 부담이 강하기 때문에 5-10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장면은 체면 손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체면 손상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경어 표현 적용 여부와 문맥에 따른 체면 손상 효과가 원문에 비해 크게 반영하는지 아닌지를 대화 중 딸의 말인 “(厌恶地) 你说话的神经, 真叫我心里想吐”에 대한 번역본을 분석하겠다. 〈표 5〉 번역 1은 “(혐오스러운 듯) 아버지 말하는 투가 정말 구역질 날 것 같아요.”로 번역하여 해요체 경어법을 적용하여 공손을 표현하고 있으며, 원문에 충실하게 화자의 혐오스러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번역 2는 “(혐오스러워하며) 그 말하는 투랑 정말 토할 것 같아”로 번역하여 비존대로 정서를 나타내므로 내용과 형식에 체면 손상 행위 효과가 더 크게 반영되었다.

사례 3: 저우판이와 저우핑의 대화

저우판이는 저우핑의 계모이지만, 이 둘은 연인 사이에 있다. 즉 서로 간의 불륜관계가 존재한다. 저우핑은 쓰핑을 좋아하게 되고 계모와의 일을 아버지에게 들킬까 두려워해서 계모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 한다. 이에 계모 저우판이는 상심하며 저우핑에 대해 원한을 품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ST:

周萍：那么，我是个最糊涂，最不明白的人。我后悔，我认为我说你生平做错一件大事。我对不起我自己，对不起弟弟，更对不起父亲。

周繁漪：(低沉地)但是你对不起的人只有一个，你反而轻轻地忘了

周萍：我对不起的人自然有，但是我不必同你说

周繁漪：(冷笑)不是她，你最对不起的是我，是你曾经引诱过的后母。

周萍：(有些怕她)你疯了。

〈표 6〉 사례 3의 원문 분석

체면 손상 효과 측정 과정	화자: 청자와 혈연관계가 없는 아들 / 청자: 계모 사회적 거리감(D): 양아들과 계모는 혈연관계가 없고 줄거리가 전개됨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 거리가 있음. 청자의 힘(P): (나이와 지위) 비교적 큼 상황(R)-화자의 부담 : 매우 강함
체면 손상 효과 크기 판정	원문 맥락을 통해서 체면 손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위의 공식에 따라 ⇒ W의 크기: 사회적 거리감(D): 5-10점 청자의 힘(P): 5-10점 상황(R)-화자의 부담: 5-10점 = 큰 것으로 확인됨
인물 파악	예의나 예법과 같은 교육을 잘 받은 대가족의 아들로서 혈연관계가 없어도 자기의 계모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가져야 함. 하지만 현재 저우핑은 계모와의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음. 저우판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저우핑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함.

〈표 7〉 사례 3의 번역문 분석

	번역1(2013, 하경실·신진호 역)	번역2(2016, 오수경 역)
화자와 청자	화자: 양아들 / 청자: 계모 사회적 관계: 양아들과 계모이자 연인관계 힘 관계: 청자가 훨씬 더 큼 맥락: 위와 같음	
번역 양상	(양아들) 周萍: 我对不起的人自然有, 但是我不必同你说 (계모) 周繁漪: (冷笑) 不是她, 你最对不起的是我, 是你曾经引诱过的后母. 주평: 내가 제일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물론 있지만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주번의: (냉소하며) 그건 그 애가 아니야! 네가 가장 미안해할 사람은 바로 나, 네가 유혹했었던 계모라구!	조우핑: 물론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만, 그걸 당신에게 말할 필요는 없죠. 조우판이: (차갑게 웃는다) 그 애가 아니야! 네가 가장 미안해 해야 할 사람은 나라고. 네가 예전에 유혹했던 이 새 엄마!
체면 손상 효과 반영 여부	화자 양아들의 말에 번역1과 번역2: 경어표현 적용. (원문에 비해) 번역1의 체면손상 효과가 크게 반영됨. 번역2의 체면손상 효과가 크게 반영됨.	

〈표 6〉에 공식에 따라 계량화된 체면 손상 효과가 제시되었다. 우선 거리 요인이다. 화자 저우핑은 양아들로 계모인 청자 저우판이와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지만 계모와의 불륜관계를 아버지에게 들킬까 봐 걱정되어서 이런 관계를 끊고 싶어 한다. 맥락상 청자 저우판이는 저우핑에 대한 미련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화자 저우핑은 이로 인해 청자 저우판이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다. 하지만 저우핑은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 청자 저우판이는 화자 저우핑이 자기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화가 난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는 복잡한 감정으로 심리적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대화에서 거리 요인은 5-10점 구간으로 나타나고, 힘의 요인은 청자인 계모는 나이나 지위 면에서 화자에게 ‘상-하’라는 힘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5-10점 구간으로 나타난다. 상황 요인은 사적인 상황이지만, 화자 저우핑은 청자 저우판이와의 혈연관계가 없어도 중국 봉건사회의 대가족에서 양아들로서 계모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예의를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화자는 앞서 묘사한 것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상 부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부담 요인은 5-10점 구간이 부여된다. 거리, 힘, 상황 요인은 모두 5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장면의 체면 손상 효과는 크다고 판정된다.

체면 손상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경어 표현의 적용 여부와 문맥에 따른 체면 손상 효과가 원문에 비해 크게 반영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我对不起的人自然有，但是我不必同你说”，“(冷笑) 不是她，你最对不起的是我，是你曾经引诱过的后母”에 대한 번역본을 분석하겠다. 〈표 7〉 번역 1과 번역 2는 “내가 제일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물론 있지만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와 “물론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만, 그걸 당신에게 말할 필요는 없죠”로 번역되어 내용 면에서 양아들로서 자기와 불륜관계를 가진 계모에게 “당신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해서 청자의 체면을 손상하고 있다. 즉 화자의 말은 체면 손상 효과가 크다. 체면을 크게 손상하는 경우에는 공손을 더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의 화자의 말은 공손을 표현하지 않아서 청자인 계모의 체면을 손상시켰지만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지요”, 비격식체 두루높임(해요체)이 첨가되었다. 원문의 내용은 체면을 크게 손상하는 정서를 반영할 뿐이지만,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공손이 표현되었다. 이는 중국어에 없는 공손 표현을 한국어 독자를 위해 공손의 상황을 첨가해서 번역하는 것이다.

사례 4: 루다하이와 저우푸위안의 대화

루다하이는 노동자 대표로 저우푸위안에게 임금을 받으려고 한다. 저우푸위안은 루스핑과 대화하고 있고, 루다하이는 문밖에서 저우푸위안을 만나자고 강력히 요구한다. 저우푸위안은 하인을 시켜 루다하이를 데려오게 한다. 이때 저우푸위안은 루다하이가 자신과 루스핑 사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루다하이는 자신이 저우푸위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루다하이는 저우푸위안의 자본가 행세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ST:

周朴园：(打量鲁大海) 你叫什么名字？

鲁大海：你不要同我摆架子，你难道不知道我是谁吗？

周朴园：我只知道你是罢工闹得最凶的工人代表。

〈표 8〉 사례 4의 원문 분석

체면 손상 효과 측정 과정	화자: 청자와 혈연관계가 있는 아들 / 청자: 아버지 사회적 거리감(D): 혈연관계에 서로 부자이지만 줄거리가 전개됨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 거리가 있음. 청자의 힘(P): (나이와 지위) 비교적 큼 상황(R)-화자의 부담: 매우 강함
체면 손상 효과 크기 판정	원문 맥락을 통해서 체면 손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위의 공식에 따라 ⇒ W의 크기: 사회적 거리감(D): 5-10점 청자의 힘(P): 5-10점 상황(R)-화자의 부담: 5-10점 = 큰 것으로 확인됨
인물 파악	봉건사회에서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부자 사이에는 정상적 성장 관계 하에 이런 대화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 하지만 루다하이는 자기가 저우푸위안이 아버지인 것을 모르고 저우푸위안의 자본가 행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 저우푸위안도 루다하이를 아들로 대하는 감정이 없고 심지어 소란을 피우러 온 루다하이가 미움.

〈표 9〉 사례 4의 번역문 분석

	번역1(2013, 하경심·신진호 역)	번역2(2016, 오수경 역)
화자와 청자	화자: 아들 / 청자: 아버지 사회적 관계: 고용 관계 힘 관계: 비교적 큼 맥락: 위와 같음	
번역 양상	(아버지이자 고용자) 周朴园: (打量鲁大海) 你叫什么名字? (아들이자 피고용자) 鲁大海: 你不要同我摆架子, 你难道不知道我是谁吗? 周朴园: 我只知道你是罢工闹得最凶的工人代表.	
	주박원: (노대해를 훑어보도는) 자네 이름이 뭐가? 노대해: (크게 웃는다) 사장님, 거드름 피우지 마십시오. 설마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요? 주박원: 자네? 자네가 파업을 가장 극렬하게 주장하는 광주 대표라는 건 알고 있네.	저우푸위안: (루다하이로 훑어보고는) 자넨 이름이 뭐지? 루다하이: (크게 웃으며) 사장님, 제 앞에서 그렇게 힘주실 것 없어요. 설마 제가 누군지도 모른단 겁니까? 저우푸위안: 자네? 자네가 파업을 일컫는 가장 과격한 노동자 대표라는 건 알지.
체면 손상 효과 반영 여부	화자 아들의 말에 번역1: 경어표현 적용 번역2: 경어표현 적용 (원문에 비해) 번역1의 체면손상 효과가 크게 반영됨. 번역2의 체면손상 효과가 작게 반영됨.	

〈표 8〉에 공식에 따라 계량화된 체면 손상 효과가 제시되었다. 우선 거리 요인이다. 화자 루다하이는 아들이자 노동자 대표로서 아버지인 청자 저우푸위안과 혈연관계에 있지만 저우푸위안의 자본가 행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게다가 청자 저우푸위안은 노동자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화자 루다하이는 노동자의 권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화자와 청자는 서로 싫어하는 부정적 감정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대화에 거리 요인은 5-10점 구간으로 나타난다. 힘의 요인은 청자인 아버지는 나이나 지위 면에서 화자에게 ‘상-하’라는 힘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5-10점 구간으로 부여된다. 상황 요인은 사적인 상황이면서 화자가 청자와 혈연관계에 있다. 하지만 화자 루다하이는 아버지의 자본가 행세를 싫어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싶어 해서 싫어하는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는 의도가 있다. 즉 부담감이

큰 상태이다. 따라서 화자의 부담 요인에 5-10점 구간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거리, 힘, 상황 세 가지 요인은 모두 5점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체면 손상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체면 손상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경어 표현 적용 여부와 문맥에 따른 체면 손상 효과가 원문에 비해 크게 반영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你不要同我摆架子，你难道不知道我是谁吗”에 대한 번역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9> 번역 1에는 “... 거드름 피우지 마십시오.”로 번역되었는데 더욱 강제적이고 명령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반면에 번역 2에서는 “... 그렇게 힘주실 것 없어요.”로 번역되었다. “힘을 한곳으로 쓰다” 혹은 “말에 강조하는 뜻을 갖게 하다”라는 이중적이고 여러 해석이 가능한 단어 “힘주다”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완곡하고 간접적이다. 맥락 상 번역 1은 형식상 경어 표현인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면서 공손 표현을 적용하기는 했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가진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명령하는 문법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체면을 손상시켜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므로 번역 2보다 체면 손상 효과가 크게 반영되고 있다.

5. 결론

공손 이론은 사회언어학을 비롯한 언어학 연구 영역에서 중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역할하고 있다. 특히 번역학 분야에서 번역물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아짐에 따라 여러 분석 대상을 이 이론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다른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지 못한 시나리오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시나리오는 문학번역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문학작품 번역 연구에서 시나리오 번역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짧은 대화로 이루어진 시나리오는 장면마다 전개되는 내용이 다르며, 같은 장면에도 내용에 따라 청자와 화자 간의 거리, 힘, 그리고 서로에게 주어진 상황 등의 요인은 여러 배제할 수 없는 요소로 인해 계속 변한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체면 손상 효과의 크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대화에 사용된 언어 장치만으로 파

악하는 것이 아니고 화용론적 차원에서 청자와 화자의 관계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적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중국어 시나리오 작품 〈너우〉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 두 편을 선정하여, 중국어 원문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분석 사례 4개에 드러난 체면 손상 효과가 다 큰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물을 분석하여 번역 상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이로써 경어 표현 적용 여부는 체면 손상 효과의 크고 작음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서로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판정할 수가 없다. 즉, 경어 표현의 사용 유무만 가지고 번역본의 체면 손상 효과가 크고 작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공손 이론을 바탕으로 체면 손상 효과를 분석하고 번역물과 비교하는 것은 번역 분석의 새로운 방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어의 공손 표현체계는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주로 어휘와 일부 문법을 통해 표현되는 반면 한국어는 공손을 표현하는 문법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하여 공손 표현이 발달되지 않은 중국어를 공손 표현이 발달된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양한 번역 결과가 관찰되는 것이다. 이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번역물을 공손 표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를 통해 번역 방법의 세밀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중개자로서의 번역자의 역할이 이러한 분석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강조되었는데,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한 경우 원문과 비슷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원문과는 달리 인물을 파악하거나 인물들 간의 관계 파악에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번역자는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화용론적 차원의 관점에서 텍스트 전체 맥락을 고려해서 번역하고 새로운 번역 작품을 창조해야 한다.

본고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해석상의 주관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었으며, 사례가 많이 없어서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번역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가치가 있다. 추후 중국어를 한국어로 옮긴 번역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긴 작품도 분석하는 등 공손 표현과 관련된 다양한 번역 텍스트를 비교·분석하고 번

역의 기준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자료

曹禺(1984), 『曹禺戏剧集-雷雨』, 四川人民出版社出版.
 신경호·하경심 역(2013), 조우, 『조우(曹禺) 희곡선』, 중국현대희극총서.
 오수경 역(2016), 차오위, 『너우』.

2. 단행본

국립국어연구원 엮음,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라데군디스 슈돌체, 『번역이론 입문: 번역학 꿰뚫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1.
 르데레르 M, 이향·편혜원·김도훈 역, 『통번역과 등가』, 한국문화사, 2004.
 르데레르 M, 전성기 역, 『번역의 오늘』,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성기철, 『현대 국어 대우법 연구』, 개문사, 1985.
 송경숙, 『담화분석-대화 및 토론 분석의 실제』, 한국문화사, 2004.
 송경숙, 『담화 화용론』, 한국문화사, 2005.
 신기철·신용철, 『새우리말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91.
 윌리엄 J, & 체스터만 A, 『번역학 연구의 길잡이』, 이지북스, 2004.
 이은정, 『고운 말 바른 표현』, 백산출판사, 1995.
 이정복, 『한국어 경어법의 기능과 사용 원리』, 소통, 2012.
 姜望琪, 『当代语用学』, 北京大学出版社, 2005.
 何自然, 『语用学概论』, 湖南教育出版社, 2001.

3. 논문

김재희, 「아랍어 번역에 있어서의 Politeness전략」, 『통번역학연구』 5, 2001, pp.23-28.
 김중환, 「영어 서법 동사와 부사 결합의 의미·화용적 분석」,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2.
 김혜연, 「대화분석과 문학작품 대화문의 분석」, 담화인지언어학회 제31회 정기 학술대회, 2009, pp.7-24.
 박미실, 「FTA 완화전략에 따른 영어의 공손표현과 불공손표현」, 『영어학연구』 26, 2008, pp.53-70.
 박옥수, 「文學 翻譯의 文化的 問題: 韓國語의 尊待語 表現과 翻譯」, 『동아인문학』,

- 2008, pp.419-440.
- 이상철, 「중간언어 화용론에서의 화용론적 전이」, 『신영어영문학』 47, 2010, pp.269-292.
- 이숙자, 「공손 표현에 대한 번역 전략—호칭어를 사용한 대화체 문장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5, 2014, pp.131-155.
- 이원국, 「영어 공손의 거리: 근접과 격원」, 『새한영어영문학』 47-2, 2005, pp.149-79.
- 이혜승, 「Politeness Theory에 기초한 노-한 번역의 실례 분석」, 『통번역학연구』 5, 2001, pp.113-128.
- 정금미, 「영어 대화 시 공손전략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정호정, 「공손어법의 언어문화특수성과 번역」, 『통번역학연구』 5, 2001, pp.169-192.
- 조상은, 「문학작품에 나타난 일본어 경어표현의 번역 전략 -경어 출현의 요인(factor)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5, 2001, pp.193-214.
- 최현희, 「공손표현 번역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4, pp.13-16.
- 한지원, 「대화 종결 시 공손법에 관하여」, 『한국어 의미학』 31-4, 2010, pp.317-341.
- 허상희, 「한국어 공손법에 관련된 제문제들」, 『한민족어문학』 54, 2009, pp.197-221.
- 허상희, 「한국어 공손표현의 화용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梁显雁, 「礼貌语言的语用探究」, 云南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6.
- 宋淑敏, 「礼貌语言分析」, 黑龙江大学, 硕士学位论文, 2004.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8월 05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9월 02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9월 23일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Sino-Korean Scenario Dialogue —Focused on the Analysis of Face Threatening Effect

JIAYANGFAN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ize of the face damage effect from a pragmatic point of view, focusing on the three factors affecting the face damage effect by selecting the scenario dialogue in Chinese and the corresponding Korean translation, do. To this end, Chapter 2 examines several studies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e-damaging effect of politeness theory and translation. Chapter 3 presents a method to specifically quantify the three factors that affect the face-damaging effect. In Chapter 4, the face damage effect measurement formula is applied to measure and analyze the face damage effect of the Chinese dialogue text and the corresponding Korean translation dialogu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whether or not the expression of honorific words was applied was not necessarily related to the large or small size of the face damage effect.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it presented a new method of translation analysis by analyzing the effect of face damage based on politeness theory, and the role of the translator could also be presented more clearly through this study.

Keyword scenario translation, politeness theory, face loss effect, translation analysis, role of translator, translation method

부록1

주인공	사회적 지위 및 인물관계
저우푸위안[周樸園]	봉건사회의 지주이자 자본가, 55세.
저우판이[周蘊漪]	저우푸위안의 후처이다. 35세.
루스핑[魯侍萍]	저우씨 집안의 하녀, 저우푸위안의 전처이다. 47세.
저우핑[周萍]	저우푸위안과 루스핑의 첫째 아들, 계모 저우판이와 이복 여동생 루스핑과 간통한다. 28세.
저우충[周冲]	저우푸위안과 저우판이의 아들이다. 17세.
루다하이[魯大海]	저우푸위안과 루스핑의 차남이다. 27세.
루쓰핑[魯四鳳]	루스핑의 무남독녀이자 저우핑의 이복 여동생. 오빠 저우핑과 불륜에 빠진다. 18세.
루구이[魯貴]	루쓰핑의 아버지이다. 48세.

한-중 번역수업 교육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중국 산둥성 소재 대학교를 중심으로*

추 육 영 (邹毓莹)**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내 한국어번역 수업 교육 현황을 정리·조사하여 이후 중국의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이 더 실용적이고 전문화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에서 한국어학과가 제일 많이 개설된 산둥성(山東省)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10개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교과과정, 교수진, 교재 사용 등 교육현황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분석한 다음에, 학생들이 번역 수업에 대한 기대 및 요구 사항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보다 더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수자, 사회 수요도와 관련하여 2차 설문조사도 진행하였다. 이어서 현황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학생 요구를 정리하여 종합한 후에 중국 대학교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7가지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중국대학교, 한국어 번역 수업, 교육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3. 한-중 번역수업 현황 조사 및 분석
4. 한-중 번역수업 개선 방안
5. 결론

* 이 논문은 中国青岛农业大学高层次人才启动基金项目 지원 받음.

项目编号: 663/1116705

项目名称: 作为第二外语的韩国语近义词研究

** 중국 청도농업대학교 외국어대학 조교수(中国青岛农业大学 外国语学院 讲师)

1. 서론

1992년 한-중 양국의 수교 이후 양국은 경제, 정치, 외교, 문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교류의 확대 및 활성화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일 것이며, 이 소통의 매개는 언어, 즉 ‘한국어’와 ‘중국어’일 것이다.¹⁾ 이에 각 분야에서 한-중 전문 번역 인재의 수요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번역 관련 인재가 특히 모자라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번역인재 육성 체계를 보완하고 번역 인재 육성 모델을 혁신하며, 번역 인재 육성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과 시장 수요에 부응하며, 응용형(应用型), 전문성을 가진 한중 번역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역시 시급한 문제다.

개혁개방 발전에 따라 중국의 국력도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고, 중국과 세계 각국의 정치 및 경제 관계도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와 중국에서 번역 및 언어 서비스 인재에 대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 문화를 잘 알고 중국과 국제사회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통번역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²⁾

중국 교육부에서는 외국어 전공 창의적 인재 육성, 전공 핵심 강화 및 수업 혁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2018년 4월에 새로운 「高等学校外语类专业本科教学质量国家标准」와 「朝鲜语专业本科教学质量国家标准(草案)」을 공포했고³⁾, 이어서 새로운 국가표준을 바탕으로 2020년 4월에 「普通高等本科外国语言文学类专业教学指南」을 반포하였다.⁴⁾

1) 김선아, 「학부 중국어 통역 교육에 관한 제언」, 『아시아문화연구』 Vol.49,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p39

2) 王甜, 「중국 내 한중통역 교육과정 개선 연구」,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21년 연례국제학술대회논문집, p373

3) 이하 「新国标」라고 칭한다.

4) 「指南」은 러시아어, 독어, 프랑스어, 아랍어, 일본어, 비통용어 등 6가지 외국어 교육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는 비통용어에 속한다.

「新国标」는 중국 외국어전공 교육 및 평가의 기본 원칙과 총체적인 요구를 제시하였으며, 「指南」은 각 외국어전공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및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新国标」 및 「指南」을 검토해 보면 다문화 교제능력(跨文化交际能力)을 전공 인재 육성의 핵심 능력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학생들이 다문화 교류의 의식 강화, 다문화지식 습득, 다문화 교제 능력 육성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다.

이는 외국어 전공 학과들은 대상국의 언어, 문화를 물론 그 나라의 정치, 사회, 종교 전통문화 등 지역학을 잘 알고 이해하는 인재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非通用语指南」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세대 중국에서의 한국어 인재 육성에 있어서도 특색화 발전, 타 전공과의 융합, 다원화 교육 방법, 새로운 이념의 창신을 핵심으로 하고, 지역 및 나라 발전에 있어 필요한 인재의 육성은 향후 발전 방향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정세와 중국 교육부 정책은 중국에서 한국어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에서의 한국어번역 수업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21년 8월 현재 중국 교육부에 등록된 총 2,631개 대학교 중에서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본과 대학교는 123개인데, 그 중에서 산둥성은 28개로 제일 많고, 중국내에서 1위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산둥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번역 수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에 그 목적이다. 특히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번역 수업에서 실제 요구 사항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의 설정 및 발전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기대한다.

2. 선행연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한·중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번역 활동도 이에 발맞추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구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

강수정(2013)에서는 학부 중국어번역수업을 예를 들어, 이론학습과 실습과정의 기본바탕으로 일반통번역이론을 적용하여 교육내용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번역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몇 가지 교수법을 채택한 교과과정을 제안하였다. 김혜림(2020)은 학생 중심의 시점에서 출발하여 학부 전공수업 ‘중국어통번역’ 수강생 21명을 대상으로 북경언어대학 데이터 및 언어교육연구소 코퍼스를 활용하여 한중번역 교육사례를 연구하였다.

번역 교재에 있어서 김국화(2014)는 현재 중국대학의 한국어통역 교재를 분석하고 중국대학 교재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짚어보며 구체적인 교재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은숙(2018)은 중국내 111개 대학 한국어과 번역 관련 교과목과 기존 한국어 번역 교재들에 대한 자료 수집과 통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중국내 번역교육 및 교재 개발에 대해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김월휘(2019)는 중국 대학에 있는 한국어 관련 학과의 통·번역의 교육과정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통번역 교육과정의 체계화, 통번역 교재의 다양화, 통번역교수법의 질적 수준 향상 등 3가지 방향으로 중국 대학교 한국어 관련학과의 통번역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번역 수업에 현황 연구는 중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김종택(2006), 刘博杰(2014), 刘丽泽(2019), 崔建强, 季娇阳(2021)등이 대표적이다. 김종택(2006)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어 번역 수업의 위치를 검토한 후에, 학생들의 번역 실천 시수, 교사들의 강의 방법, 번역 교과서 등에 나타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8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다. 刘博杰(2014)는 한국어 본과 교육의 특징 및 사회에서 한국어학과 졸업생의 요구를 기반으로 번역 수업의 교육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도,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등 4가지 측면에서 제안했다.

刘丽泽(2019)는 안휘외국어대학교의 수업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한국어번역 수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시간·교재·교육 수준·중국어 및 한국어 수준 등 4가지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과과정·번역 교재·번역 교육 개혁·학생 한국어 수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崔建强, 季娇阳(2021)는 중국 국내 10개 MTI 대학원 수업을 개설된 대

학교를 중심으로 영어 번역 교과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국가의 요구에 따른 특성화 번역 교과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지금까지 한중번역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번역 교육·번역 교재·번역 교과과정·번역 수업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수준이 높은 한국어번역 수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과가 적지 않았고,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학생 중심으로 교육방식 전환에 따라 실제 학생들의 요구 사항분석도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하겠다.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중국인 학습자 상황에 기초한 번역 수업 개선 방안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3. 한-중 번역수업 현황 조사 및 분석

중국내 한국어 번역 수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내 한국어 번역 수업의 교육과정, 교수진, 교재 사용 및 학생 요구 사항 등에 대해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하였다.

1) 교육과정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번역능력을 제고하고 전문적인 예비번역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무엇을 가르칠지가 매우 중요하다.⁵⁾ 이 절에서는 산동성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한국어학과의 개설기간이 긴 10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교의 번역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분포 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5) 신지선, 「번역교육 관련 연구동향 및 연구과제 고찰-교육내용, 수업방법, 평가방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5집, 한국통역번역학회, 2013, p133

[표1 중국 산둥성 10대 대학교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⁶⁾

대학명	과목유형	과목명	학점
산둥대학교	필수	중한필역1 (2-2) 중한필역2 (3-1) 중한매체통번역 (3-1) 중한통역 (4-1)	5
	선택	중한과학기술통번역 (3-1) 중한 통번역 이론과 실천 (3-1) 중한외사통번역 (3-2) 중한 시사통번역 (4-1) 중한 동시통역 (4-1)	17(중한통역 1학점)
중국해양대학교	필수	한국어 통번역 이론과 실천1 (3-2) 한국어 통번역 이론과 실천2 (4-1)	4
산둥사범대학교	전공선택	한중통번역 (3-2) 중한통번역 (4-1)	4
국부사범대학교	선택	한중통번역 (3-2) 중한통번역 (4-1)	4
산둥이공대학교		한중번역 (3-1) 중한번역 (3-2) 한국어통역 (4-1)	6
연태대학교	필수	한중통번역 (3-2) 중한통번역 (4-1) 통역이론 및 실천 (4-1)	8
	선택	상무통역 (3-2))	
산둥과학기술대학교	필수	한중통번역 (3-1) 중한통번역 (3-2) 경제무역통번역 (4-1) 통역이론 및 실천 (4-1)	14
	선택	영화작품통번역 (3-1) 과학기술 한국어통번역 (3-2) 문학통번역감상 (4-1)	
청도대학교	선택	통번역 (상) (3-2) 통번역 (하) (4-1) 동시통역 (4-1)	4
청도과학기술대학교	선택	한중쌍방향통번역 (3-2) , 고급통역 (4-1)	8
청도농업대학교	필수	중한쌍방향통번역1 (3-1) 중한쌍방향통번역2 (3-2)	4

[표1]을 보면 지금 중국내 한국어 번역 수업은 주로 필수과목, 선택 과목 및 필수, 선택 공동 개설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필수와 선택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목명으로 볼 때 한중번역, 한중쌍방향통번역 그리고 한중번역 이론 및 실천 등이 대부분이고, 개별대학에서는 통역과 번역을 나눠서 교

6) 김월휘, 위의 논문, p190 참조

육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교육부의 외국어인재 양성 목표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한중양국 관계의 발전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족한 점도 있다.

가) 교과목 종류가 단조롭고, 타 전공과의 융합이 부족하다

지금 다양한 취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넓은 통역 응용 인력과 복합적인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의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은 언어과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합적 특징을 부각하고, 번역 능력을 갖추면서도 자신의 뛰어난 분야를 육성해 취업분야 선택에 있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기업과 사회는 전공과 학과를 초월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인재를 원하고 있다. 또한 이는 국가가 제창하는 것으로, 각 대학교는 인재 육성에 있어도 시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학교의 특색 전공과 학과들을 번역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끊임없이 인재 양성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나) 교과과정에서 인공 번역기술과 관련된 과목이 거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번역 기술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번역도구, 번역소프트, 번역플랫폼 등은 번역의 질과 속도를 높이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번역 수업의 교과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어야 한다. 하지만 [표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현재 대부분 대학교의 번역 교과과정에서 번역기술과 관련 과목이 거의 없다.

다) 지역 및 대학 특성화 교육이 미흡하다

최근 중국 대학생들이 취업현황을 보면 대부분 졸업생들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나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번역 수업의 교과과정은 대학과 현지 특성을 미리 분석하고 본 지역의 특색 경제 구조, 상업 등 관련된 번역 인재에 대한 수용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이를 관련 교과과정에 나타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의 한국어 번역 인재는 국가, 사회의 필요한 인재가 된다. 인재육성의 방향은 지역발전의 실제적인 요구와 부합될 때, 지역과 국가의 발전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2) 교수진

교수진은 교육활동의 주도자로서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수자 자신의 자질은 인재 육성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중국내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진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및 각 대학교 공식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어학과 교수진의 최종학위·학위취득국가·전공 및 번역 수업 담당 교수자의 상황을 [표2], [표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2 산동성 10대 대학교 한국어 교수자 학위 현황]

학교명	학위 취득국가(명)		학위 소지 내역(명)				비 고 (문학/어학 비전공)
	한국	중국	박사	박사 수료	석사	기타	
산동대	8	2	8		2		철학 1명, 정치학 1명
중국해양대	9	0	9				
산동사범대	5	1	4		2		
곡부사범대	9	2	6		5		공상관리학 1명.
산둥이공대	8	0	5	1	2		민속학 1명
연태대학교	9	4	9		4		사학 1명, 무역학 1명, 역사학 1명
산동과기대	6	1	7				
청도대	13	2	13	1		1	
청도과기대	4	2	3	1	2		북한 학위취득 1명
청도농업대	5	4	9				

[표3 산동성 10대 대학교 번역수업 담당 현황]

학교명	한국어학과 교수자 수	번역수업 담당 교수자 수	번역수업 담당 내역
산동대학교	10	3	중한 필역, 중한 매체 통번역, 중한 통역, 중한 과학기술통번역, 중한 통번역 이론과 실천, 중한외사 통번역, 중한 시사통번역, 중한 도시통역
중국해양대	9	3	한국어 통번역 이론과 실천
산동사범대	6	4	한중통번역, 중한통번역
곡부사범대	11	7	한중통번역, 중한통번역
산둥이공대	8	4	한국어통역, 한중번역, 중한번역

연태대	13	4	한중통번역, 중한통번역, 통역이론 및 실천, 상무통역
산동과기대	7	4	한중통번역, 중한통번역, 경제무역통번역, 통역이론 및 실천, 영화작품통번역, 과학기술 한국어통번역, 문학통번역감상
청도대	15	11	통번역(상), 통번역(하), 동시통역
청도과기대	6	2	한중쌍방향통번역, 고급통역
청도농업대	9	2	중한쌍방향통번역, 한중쌍방향통번역

교수진의 졸업대학 및 학위로 볼 때 최소 50%이상 교수자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산동지역 대학교 중 상당수가 석사학위소지자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⁷⁾ 그리고 학위 취득은 대부분 한국에서 했는데, 이들의 전공은 한국문학이나 한국문화에 관한 것이다. 이는 각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전문적인 번역 및 통역을 담당하는 교수자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드러낸다.

한국어 번역과 관련 수업의 담당상황으로 볼 때, 문학·언어·교육 등을 전공하는 교원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나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교수자가 번역수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중국에서의 번역교육은 대부분 문학전공 또는 어학전공 교수자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번역에는 원문에 대한 이해나 두 언어 간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번역 고유의 특성이 있다. 교사들이 오랜 경험과 모국어로 타고난 직관에 의존하여 번역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학생들이 제기하는 질문이나 번역 오류를 설명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번역을 가르치는 교수자라면 필수적으로 체계적인 번역교육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 번역교육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요인들에 주목하여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3) 교재사용

김국화(2014)는 중국대학교에서 사용되는 번역 교재는 중국대학의 교육과정,

7) 위 학교의 교원 중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가 많다. 그 이유는 최근에 들어서야 교수임용 자격 및 요건이 박사학위 취득자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교육환경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여기에서는 본과 번역수업에서 사용된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출판된 번역 교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4 중국한국어번역 수업 주요 사용 교재]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시기
朝汉翻译教程	韩东吾	延边大学出版社	1994
汉朝翻译理论与技巧	太平武	中央民族学院出版社	1999 2016 修订
中韩翻译教程	李龙海	中国海洋大学出版社	2000
韩中翻译教程	张敏, 朴光海, 金宣希	北京大学出版社	2005 第一版 2006 第二版 2012 第三版
韩汉翻译技巧	全香兰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05
汉朝朝汉翻译基础	金永寿, 全华民	延边大学出版社	2005
中韩翻译教程	张敏, 金宣希	北京大学出版社	2005 第一版 2013 第二版
韩汉翻译实践	金海月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05
中韩翻译教程	尹敬爱, 权赫哲, 吴昭娅	大连理工大学出版社	2007
韩汉翻译基础	柳英禄	延边大学出版社	2008
中韩翻译教程	孙义源, 金日	延边大学出版社	2009
韩汉翻译教程	李龙海, 李承梅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9
韩中·中韩翻译	蔡铁军, 黄蕾, 金晶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10
中韩互译翻译教程	张敏, 张娜	北京大学出版社	2013
韩中翻译教程	张强, 朱会敏	大连理工大学出版社	2014
韩中, 中韩翻译教程	金宣希	北京大学出版社	2014
韩中翻译教程	金香兰, 周晓波	世界图书出版社	2015
汉韩翻译教程	吴玉梅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16

위에서 제시한 18가지 교재 중에서 북경대학교출판사에서 출판한 『한중번역 교정(韩中翻译教程)』(산둥대학교 · 산둥사범대학교 · 청도대학교 · 청도농업대

학교), 중국해양대학교출판사에서 출판한 『중한번역교정(中韩翻译教程)』(청도대학교 · 중국해양대학교 · 연태대학교), 그리고 후룽강조선민족출판사에서 출판한 『중한중번역(中韩韩中翻译)』(산둥대학교) 등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기본 교재를 분석한 결과, 현재 중국의 산둥지역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역교재는 대부분 오류분석 중심의 통합형 교재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 시사성이 높은 번역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내용으로 볼 때 학습할 분야가 지나치게 많거나 난이도가 높다는 문제점도 있고, 이는 학습자는 물론 교수자에게도 큰 부담이 되어 교실활동 전개에도 불리하다.

북경대학교출판사에서 출판한 『한중번역교정(韩中翻译教程)』의 경우, 이 교재는 주제의 다양성이나 내용 면에서 교수자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호평을 많이 받았으며, 이는 또한 많은 대학교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는 이유기도 하다. 재 판 · 3판이 될 정도로 중국내 많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책 한 권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부 학생들의 번역교재로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내용보다 시사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힘들다. 그리고 책이 내용이 번역이론과 번역지식에 집중되기 때문에 학생 중심 교수법이나 21세기 대학생 특성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번역 교육의 현실과도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의 번역 교육이 실용성에 주안점을 둔 것과 관계있으며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번역교육 교재와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학생요구 분석

전통적인 교육방식은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학습 흥미 유발에도 부족하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현행 교육은 학생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 학생들의 실제 한국어번역수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 산둥성 소재 대학교 중 3개 학교(S, H, Q 대학)의 한국어학과 3학년 재학생 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한국어번역

수업에 대한 인지 및 기대·교재평가·수업요구·응용상황·학습태도 등 5가지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5 한국어번역 수업 학생 요구 조사]

인지 및 기대내용	번역수업은 무엇을 학습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번역수업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교재 평가	현재 번역수업의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번역수업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사용하는 번역교재는 어떻습니까?
과목 요구	번역수업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번역수업은 일주일에 몇 번이 적당합니까?
	번역수업은 언제 개설하는 게 좋습니까?
	2학년부터 번역 기초이론 및 일상 쉬운 번역 연습 과목이 필요합니까?
	종합번역수업이나 주제별(과학기술번역, 문학번역 등) 번역수업을 개설하기를 원합니까?
활용상황	현재 배우는 번역수업은 자신의 번역수준 높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번역시 수업이나 교과서 외에 내용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학습태도	번역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업 후에 번역 과목 학습에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번역 수업을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인지 및 기대내용’라는 항목에서는 순서대로 ①한중번역의 번역 방법 및 기교 (62%) ②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번역 지식 (12%) ③한국어 주제별 관용표현 파악 (8.2%) ④전문용어의 번역 (6%) ⑤번역능력의 향상 (4.8%) ⑥원어민 정도의 번역 수준 (5%) ⑦일자리와 관련된 번역 주제 학습 (2%)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번역수업을 수강하면서 자유롭게 제대로 된 한중언어전환 능력을 기대했으며, 번역수업에서 한중번역의 방법 및 기교를 배우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주제면에서 볼 때, 학생들은 주제별 관용적 표현 및 취업과 관련된 번역 학습을 원하며 실용성 있는 번역수업을 바라고 있다.

이어서 ‘교재 평가’라는 항목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

재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는 첫째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교재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출판된 지 너무 오래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려운 단어가 많기 때문에 학습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120명 학생 중에서 단 8% 학생만 교재 내용이 풍부하고 상세하며 학습 요구에 충분히 맞는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은 '수업 요구'에 대한 조사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42%의 학생들은 수업 내용은 일상생활 등 실용성 주제를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25%의 학생들은 동영상·오락프로그램·한국드라마·인터넷 유행어 등 흥미성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 흥미 유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13% 학생은 우선 자유롭게 번역을 한 다음에 교사가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수시로 다루어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 이외에 11%의 학생들은 교과서 내용 및 연습 문제를 미리 예습하고 수업시간에 강의 듣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7%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모범 번역 예문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우수 번역 작품부터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의 학생들만 수업시간에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강의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실제로 학생들은 내용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하며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실용성 수업을 원하며, 수업 방식에서는 강사와 학생 협조하여 수시로 피드백(문제점 지적 및 오류 분석을 주는 수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 설정에 있어서 98%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2~3번 수업을 하는 게 좋다고 하며, 개설시기로 볼 때 2학년부터 번역 해당 이론 및 간단한 일상 번역 연습 관련 수업을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수업 종류에 관해서는 47.8%의 학생들은 지금처럼 다양한 장르와 표현양식을 다룰 수 있어 자신의 종합번역 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종합번역 수업을 찬성하는 반면에, 50.6%의 학생들은 주제별 번역수업을 진행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제에 따른 번역 학습은 자신이 관심 분야나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6%의 학

생들은 먼저 주제별 번역 수업을 배운 후 종합 번역 수업을 배우기 원하고 있다.

그리고 ‘활용상황’에 대한 조사를 보면, 대부분(75%)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자신 번역 수준에 일정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번역할 때 수업에서 배웠던 번역 지식 및 기교를 활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11%의 학생들은 수업 외에 실제적인 연습 및 번역 지식과 기교를 활용하는 기회가 없다고 하면서 번역과 관련 활동의 참가를 통해 배운 내용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한국과 관련된 각종 회의, 전시회 및 봉사 활동 등) 이외에 14%의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은 너무나 어렵고 번역과 관련된 기본 사항에 숙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도 비교적으로 너무나 적은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태도’인데, 62%의 학생들은 수업 외 번역과목을 위한 학습 시간은 일주일에 2~3시간 밖에 안 되며, 27%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1시간만 공부한다고 했다. 그리고 11%의 학생들은 수업시간만 번역 과목을 공부한다고 했다. 비록 번역에 대한 열정도 있고 번역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3학년이 되면 많은 전공 수업과 각종 시험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 외에 번역과목 예습 및 복습시간이 거의 없으며, 이는 수업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보다 더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교수자, 사회 수요도와 관련하여 2차 설문조사도 진행하였다.

5) 교수자 조사

교과과정 개선에 있어 교수진은 교과과정 개선의 실시자이며 연구자 및 개발자이기도 한다. 앞에서 한국어과 학생들이 번역 수업에 대해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여기서 산동성 대표적인 10개 대학교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번역 수업의 문제점 및 앞으로 개선 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교재 평가, 교수법, 학생 수용도, 과목 개설 시수 및 기간’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교재 평가에 있어서 지금 사용하는 교재가 내용면에서 풍부하고 과목 유형도 다양하지만, ‘시대성과 떨어진다’, ‘중국식 한국어표현이 다소 있다’, ‘분

류별 교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이상 차지하였다. 보다 더 체계적이고 분야별 교재의 편찬이 시급하다고들 한다.

그 다음은 교수법에 있어서 젊은 교수자들은 적극적으로 현대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이 든 교수자들은 역시 전통적인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수용도에 있어, 72%이상 교수자들은 번역 수업에서 강의 내용은 학생들이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학습 진도를 나갈 때 사실 학생들의 파악 상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교수자들은 번역 수업 시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에 일치를 보였다. 한편, 과목 개설 기간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비해야 개설하는 것보다 조기개설이 학생들의 번역 수준이나 취직에 필요한 품격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사회 수요도 조사

지금 중국 취직 현황을 보면, 현 단계에서는 인재 과잉과 인재 부족이 병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 자체의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수요와 고등인력 양성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재 육성은 대학교의 기본 목표이지만 최종목표는 사회 인재 배출이다. 보다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번역 수업 개선 방안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중국 대표적인 취업사이트 즈렌자오판(智联招聘)에 있는 280개 모집공고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주로 산동지역 한국어 인재 수요 유형, 한국어 번역 인재의 사회 수요도, 한국어 번역 인재의 요구 사항 등 3가지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효과적인 한국어 번역 인재 육성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산동지역 한국어 인재 수요 유형으로 보면 주로 번역, 교육, 무역, 행정, 시장마케팅, 사이트 운영, 관리, 재무, 연구개발 등 13가지에 집중돼 있고, 그 외에 언어 능력이 아닌 '행정', '재무', '연구개발', '사이트 운영' 등 업무에서도 한국어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한국어 인재에 대하여 '용

용형'에서 '복합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둘째, 한국어 인재 사회 수요도로 볼 때는 역시 '번역'은 67%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교육(14.7%), 무역(13.6%), 행정(9.8%), 시장마케팅(8.7%), 사이트 운영(6.5%) 등의 순위이다.

셋째, 한국어 번역 인재의 요구 사항이다. 280개 조사된 채용정보를 분석해보면, 채용 부서에서는 주로 ①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능력(学以致用能力) ②표현 및 소통 능력(表达和沟通能力) ③국제협력능력(团队合作能力) ④조직협력능력(组织协调力) ⑤창의정신(创新意识) 등을 중요시하며 인재 채용의 기준이기도 하다.

4. 한-중 번역수업 개선 방안

본고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어학과 가장 많이 개설된 산동성을 중심으로 번역 수업의 교과과정, 교수진, 교재 사용 및 학생 요구 등 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정리한 각 부분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향후 중국대학교 한국어번역 수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대학 및 지역 특색 인재 육성할 수 있도록 '기초번역능력+다영역 적용'

전문적인 필수과목은 학생들의 번역 능력을 육성할 수 있으면, 풍부하고 폭 넓은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자극할 수가 있다. 향후 지식과 능력을 넓힐 수 있도록 중국에서의 한국어 번역 수업 교과과정은 '기초번역능력+다영역 적용'의 종합적인 인재 육성 교과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복합형 인재 육성 목표를 이루는 데에도 유리하다. 중국은 2018년 8월부터 '新文科' 및 '新文科建设'⁸⁾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文科전공의 교육은 더욱 인문적 배려를

8) 新文科란 개념은 2017년 미국 Hiram College에서 최초로 제기하였으며, 중국 교육부는 2018년 8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新文科는 현대정보기술은 철학, 문학, 언어 등 과목에 융합시켜, 학생들에게 종합적이고 학문 간 융합의 학습을 제공하며, 지식 확충 및 창신 사고 방식의 육성하는 것은 목적이다. 그 이후, 2018년 12월 20일 제1회 교육부경제 및 관리분야 지도위회의는 중국 소주(苏州)에서 개최하며, 新文科建设가 본격적으로

가지게 되어, ‘포스트 인터넷+’의 시대에 ‘人本(사람을 근본으로 하여)’, ‘生本(학생을 근본으로 하여)’의 교육 이념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기초번역능력+학과 간의 융합형’ 소양을 가진 복합적인 新文科 인재 육성 모델은 번역능력과 전공 소양의 깊은 융합에 중요시할 것이며, 번역으로 전공을 배우고, 전공으로 번역 능력을 향상시켜, 인재육성에 있어 ‘언어 능력+전공소양’의 win-win 목표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하여 중국 대학교 번역 수업의 교과과정 설정에 있어 대학교, 지역경제 발전의 특징과 결합하여 지역 특색, 학교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중국에서 한국어과 설치된 대학교의 유형을 보면 종합대학교도 있지만, 각각의 특성을 살린 대학교도 많이 설치되고 있다. 본고에서 조사된 10개 대학교만 해도 이공대학교, 해양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 농업대학교 등이 두루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번역 교과과정 설정에 있어 이공대학교에서 ‘토목공정학’, ‘건축학’, 해양대학교에서 ‘식물생물학’, ‘유전학’, ‘해양생물학’, ‘세포생물학’,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응용화학’, ‘컴퓨터과학 및 기술’, 농업대학교에서 ‘농업기계화’, ‘식품과학 및 공정’, ‘농학’ 등 학교 특색 전공과 융합할 수가 있으며 해당 기초 이론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농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방, 더 나아가 나라의 농업발전에 유용한 한국어 번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농(农)’ 특색을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교 농업학과 교수진을 초청하여 한국어 학과학생들은 농업 이론, 농업 정책 등 수업을 개설할 수도 있고 다른 학과와 서로 학점인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농업과 관련 지식을 학습시켜, 국제농업박람회, 국제농업학회 등 번역인재를 육성할 수도 있다. 또한 농업대학교 번역 수업 같은 경우에는 ‘농(农)’자를 중심으로 농업속담, 농업인물, 농업저서, 농업과학기술, 농업역사 등 농업과 관련된 말뭉치를 도입하여, ‘기초번역능력+농업’복합형 인재를 육성하여 한중번역 실천을 진행할 수 있다.

시작되었다. 新文科建设는 신시대 철학사회과학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철학사회과학을 과학기술혁명과 산업 변혁의 융합을 추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인공 번역기술과 관련된 과목 개설

시대 발전에 따라 사회에서 번역인재에 대해 요구가 단순히 ‘언어인재’에서 ‘복합형, 기술형’인재로 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술형인재란 학생들이 최신 과학지식을 익혀야 하며 첨단 기술을 사용해 보조하고 번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배운 지식을 업무 중에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인재를 말하는 것이다. 현대과학기술은 번역자들이 새로운 컴퓨터보조번역기술(CAT)을 익혀 대량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보조번역 (Computer Aided Translation, CAT)은 기계자동번역시스템(Machine Translation, MT)과 달리 주로 번역기억과 ‘人机交互 (사람과 기계를 교대하면서 번역)’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체계적인 컴퓨터보조번역 솔루션이다. CAT시스템을 이용하면 번역자의 번역 속도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컴퓨터 보조번역시스템에 있는 번역기억기술과 풍부한 말뭉치로 번역자의 번역품질도 강화되고 번역과정의 교정, 조판도 컴퓨터 보조시스템으로 최적화된다. 이 때문에 컴퓨터보조번역도구는 번역업계에 널리 쓰이며 번역자에게 꼭 필요한 번역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컴퓨터보조번역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이미 모든 번역 작업자가 반드시 습득해야 할 기능이 되었다. 따라서 번역 인재 육성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어 번역 수업에서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춰 학생들에게 컴퓨터보조번역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내용을 추가해 볼 수가 있다.

첫째, 컴퓨터보조번역과 정보기술 지원의 기초 원리, 컴퓨터 보조번역 조작 플랫폼 및 대표 말뭉치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기계번역(MT), 번역기억(TM), 말뭉치(corpus), 말뭉치 색인 소프트웨어(concordancer), 스마트 에디터(intelligent authoring) 등의 개념이다. 이와 동시에, 가장 통용된 컴퓨터보조번역시작 플랫폼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SDLX, Systran, 华建 등이다. 그리고 COCA영어말뭉치, BCN영국국가 말뭉치, 북경외국어대학교 통용 한영대조말뭉치 등 자주 사용되는 말뭉치도 파악해야 하다.

둘째, 컴퓨터보조번역 운영체제의 번역 다루는 과정. 컴퓨터 번역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먼저 원문에 대해 미리 처리하고 편집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존 번역 메모리 저장소를 인공지능(AI)으로 검색·분석해 CAM기술을 적용해 해당 번역문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人机交互 기술을 통해 번역문을 최적화하여, 원문과 한 구씩 대조한 번역문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번역 메모리 저장소를 활용해 새로운 저장고를 생성하는 것이다. 한국어 번역인재는 위와 해당 절차를 파악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번역업계 기준, CAT 컴퓨터보조통합번역 및 관리 플랫폼, 그리고 합동 번역 모델 등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번역시장의 활황으로 번역업계화와 시장화가 필수가 되었다. 번역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업계 표준과 업계 규칙을 이해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기준화 운영 모델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은 나중에 해당 업계에 진출하는 데 핵심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컴퓨터보조번역 편집 및 시스템 구체화 능력을 키우고 유형별 텍스트 번역 표준 및 처리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전문용어 말뭉치를 관리하고 독립적으로 말뭉치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3) 번역 수업의 조기 개설

중국대학교 한국어번역 수업은 대부분 고학년(3학년)에 개설돼 있고, 이는 3학년 학생들은 이미 일정한 한국어능력을 갖추서 난이도가 높은 번역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 강의할 때 번역과 관련되어 충분한 배경지식 없이 바로 교재 내용을 학습할 때, 학습효과가 낮을 수도 있다.

외국어를 배우면 나중에 번역과 관련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학생들은 번역 수업에 대한 기대는 크고 학습태도도 역시 적극적이다. 하지만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번역이 너무 어렵다→더 이상 못하겠다→대충 배우자’라는 심리변화가 생기게 된다.

한편, 앞에서 사회 수요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인재에서 번역 인재는

역시 시장 수요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학교에서 육성한 번역인재는 실제 직장 요구된 번역 인재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결과도 부인할 수가 없다. 1년에 고작 72시수의 번역 수업 시간은 한-중 번역실력은 물론 취직 업무처리에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 수요도 및 학생 수용도를 종합해서 고려할 때 2학년부터 번역 수업의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 2학년부터 번역이론, 번역기교 등 비교적으로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면 학생들의 번역 흥미를 유발에도 도움이 되고 3학년의 번역 수업 학습을 위한 이론 기초도 쌓을 수 있다. 일상생활 번역 및 짧은 문장 번역부터 시작하여 2학년 2학기에는 번역이론, 어휘번역, 문장번역 연습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고, 정독(精讀)수업에서도 의식적으로 학생들의 번역능력을 훈련시켜야 한다. 번역이론과 번역기능과정 수업을 부각하는 동시에 실용문번역과 현대번역기술 응용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해 ‘번역이론+번역기능+번역자격+보조도구 활용’이라는 전문과정 체계를 구축한다면 학생들의 번역능력뿐만 아니라 취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교수진 수준 높임

크로크스마크(Kroksmark)에서는 교수자의 전문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교육을 하는 분야에 대한 주제지식(subject knowledge)이고, 둘째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분야에 대해 배우고 싶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수법(pedagogical or didactic skill)이며, 셋째 교육하는 내용 또는 전문분야에 대한 나름의 통찰력(insights into the context or practice)이다.⁹⁾ 교수자의 교과교육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교수자의 전문성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번역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자들은 교수법은 물론이고 전공 관련 이론적 통역 실무도 구비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표2]와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어학과 교수들의

9) 이미경, 「교수의 교과교육학 지식과 전문번역 수업에 대한 소고」, 『통번역교육연구』 가을 제16권2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8, p.111

전공은 주로 한국문학, 한국어교육 및 중한비교 등이며 한국어번역과 관련된 전공을 한 인원이 너무나 적다. 게다가 중국내에서 한국어 관련 박사과정이 개설된 대학은 6개 밖에 없으며, 주로 한국문학, 한국언어학 그리고 대조언어학 등 전공만 있고 전문적인 번역전공은 없다. 이는 한국어번역을 담당하는 교사가 번역 수업 및 전문적인 번역 인재 육성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된다.

이 점은 한국의 선진적인 교육성과를 흡수하여 번역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한국 전문 번역대학으로 보내 연수시켜 중국내 번역 담당교사의 전공 지식수준 및 수업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주제별 번역교재 및 번역 수업 개발

현재 중국내 번역교재의 종류는 비교적으로 단일화이며, 내용도 비슷비슷하다. 북경대학교 출판한 『중한번역교정(中韩翻译教程)』을 예로 들면, 이 책은 2005년에 출판되었고 이미 출판된 지 16년이나 되었다. 두 번 수정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거리감도 있고, 학습한 후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앞에서 제시한 번역 교과과정에 대한 조사를 보면, 산둥과학기술대학교와 산둥대학교 두 학교만 주제별 한국어번역수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요구나 흥미유발 측면에서 볼 때 주제별 번역 교재 및 번역 수업의 개발은 시급한 문제이고 중국내 한국어번역수업 교과과정 개선 방향이기도 한다. 박은숙(2018)은 중국내 한국어 번역 교육의 특성은 세분화, 구체화되는 추세라고 정리하였으며 ‘중한미디어번역’, ‘문학번역’, ‘한국고전과 명작번역’, ‘정치시사번역’, ‘외사번역’, ‘경제무역번역’, ‘과학기술번역’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라는 전망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이와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자들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고 주제별 번역교재의 편찬이 한국어 교수자들에게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6) ‘플립드러닝’을 활용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육목표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만큼이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중요하다. 아무리 교육내용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교수자의 교수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수업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⁰⁾ 전통적인 수업에서 학생들은 번역 연습을 할 때 교수자가 제시하는 모범답안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

기존 번역수업은 교수자가 자신의 경험과 직관(intuition)에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Transmissionist approach)으로 교육했다면, 이에 반해 중국대학교 교육교학 개혁의 배경에서, 현재는 학생이 교육현장의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스스로가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발견적 학습, 즉, 학생 중심 번역교육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번역 수업 교수방법도 시대에 따라 교수자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현대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국어를 교육하는 것은 이미 추세가 되며 ‘플립드러닝’은 그의 산물이다. 플립드러닝은 전통적인 교학방식을 깨고 ‘교육’과 ‘학습’의 주제를 뒤집어서 최대한 학생들의 적극성을 유발시켜 강사의 지도 작용을 이용하는 교육개혁이다. 따라서 한국어번역수업 교수방법에 있어서도 플립드러닝을 도입하면, 전통적인 한국어교육방식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수업에서 교수자만 강의하는 현실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 한국어 교육용 APP활용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학습 방식이 갖는 한계로 인해, 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을 챙기기가 어려우며 학생들의 양극으로 분화시키기가 쉽다. 진도가 빠른 학생은 교과서의 내용을 학습할 기회가 없으며 진도가 느린 학생들은 제대로 학습할 수도 없다. 또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향 차이로 인해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의

10) 신지선, 「번역교육 관련 연구동향 및 연구과제 고찰-교육내용, 수업방법, 평가방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제15집, 한국통역번역학회, 2013, p.139

견을 말하지 못해, 의문점이 있어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어 학생들 중 일부는 수업에 대해 관심을 잃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교실 학습 외에 학생들은 일정한 예습 및 체계적인 복습이 필요하며, 이는 교사만으로 효과적으로 이끌기가 힘들고 정보화 도구를 이용해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지능정보기술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으면 한국어학습내용과 결합하여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수시로 공부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들은 개인언어 학습진도 및 취향에 따라 자기와 적합한 학습 내용을 선택해 유통성 있는 특성화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무선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 이동 설비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한국어 학습 자료를 파악할 수 있으면서, 비슷한 내용을 학습하는 학습자끼리 공부동아리 만들기를 통해 여러 측면의 학습 교류를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전통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의 흥미를 유발시켜서 한국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더구나 학습 대상 및 학습 목표에 따라 정확하고 합리적인 학습체계 및 내용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이런 교육용 APP들의 장점을 살려서 한국어번역수업에서 학습하지 못한 내용들을 보충할 수가 있으며, 개인적으로 관심분야의 번역관련 내용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개인 수준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결론

세계정세의 변화와 중국 정치, 사회 및 대외관계의 변화 등 원인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의 외국어 교육과 외국문제 연구에 대해 새로운 요구와 과제를 제기했다. 중국 교육부에서는 2018년 4월에 「朝鲜语专业本科教学质量国家标准(草案)」 공포하였으며, 2020년 4월에 「普通高等学校本科非通用语种类专业教学指南」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새로운 국가표준(新国标)에서 외국어 전공 학과들은 대상국의 언어, 문학은 물론 그 나라의 정치, 사회, 종교, 전통문화 등 지역학을 잘 알고 이해하는 인재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지침(指南)」은 ‘立德树

人'를 근본으로 삼아 높은 인문소양, 국제시야 및 중국정서를 갖추는 국제화, 다원화 외국어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 두 가지 규정은 모두 학생들 능력 육성 및 중국 특색 외국어 교육 체계의 구축을 중점으로 삼고 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에서 한국어학과가 가장 많이 개설된 산둥성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산둥성 내 대표적인 10대 대학교의 번역 수업 현황을 조사하였다. 교실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교과과정, 교재, 교수진, 그리고 학생 요구 등 4가지 측면에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중국에서의 번역 교육은 대부분 한중, 중한의 큰 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별로 개설된 번역 교육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리고 교재로 볼 때 대부분 오류분석과 이론을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는데,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시대성에 떨어지는 단점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다. 교수진의 경우는 비록 대부분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번역과 관련된 전공을 가진 교수자가 드물고 심지어 문학도 아닌 정치학 전공자가 번역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은 그 나라 언어만 알거나 경험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 과목이 아니라 체계적인 번역교육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더 적합하고 수준이 높은 번역 수업을 개설하기 위해 교육의 대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요구까지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중국내 한국어번역교육에 있어 교육과정, 교수진, 교재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정리된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중국대학교 한국어 번역 수업의 개선 방안을 7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대학에서의 한국어번역 수업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사회적 수요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는 인재를 많이 육성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중국 산둥성만 연구범위로 진행되는 것은 본고의 한계점이며 더 많은 지역, 더 체계적인 분석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수정, 「학부 중국어번역수업에서 일반번역이론의 적용」, 『중국어교육과 연구』 제17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3, pp.1-20.
- 강수정, 「학부번역교육에서 번역능력 적용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제19권3호, 통번역학회, 2015, pp.87-113.
- 김종태, 「중한 번역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국(조선)어 교육연구』 제4권, 한국(조선)어교육학회, 2006, pp.551-524.
- 권부경, 「한중 번역 오류에 대한 화용론적 분석」, 『동아인문학』 제37집, 동아인문학회, 2016, pp.451-467.
- 금지아, 「한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제16권3호, 한국번역학회, 2015, pp.7-26.
- 김국화, 「한중/중한 통역교재 설계방안-중국대학 강의용 교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42집, 한중인문학회, 2014, pp.7-24.
- 김선아, 「학부 중국어 통역 교육에 관한 제언」, 『아시아문화연구』 제4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pp.39-65.
- 김월휘, 「중국 대학 한국어 관련 학과의 통번역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어문논춘』 제35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9, pp.175-204.
- 김혜림, 「BBC코퍼스를 활용한 한중번역 교육사례 연구-학부수업 활용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제87권,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 pp.449-479.
- 박미옥, 「한중 영화제목 번역을 통한 한국문화교육방안」,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2016, pp.100-124.
- 박선희, 「한중번역에 나타난 번역의 보편적인 특징에 대한 분석」, 『중국조선어문』 제211집, 2017, pp.59-65.
- 박에양(2016),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번역인재 양성 방안 연구」, 『언어와 문화』 제12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9, pp.103-130.
- 박은숙, 「중국내 대학교 한국어과 번역 관련 교과목 및 교재에 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58집, 한중인문학회, 2018, pp.111-130.
- 서준, 「한중 번역 중에 어휘 오역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중국학연구』, 중국학연구회 58집, 2011, pp.203-214.
- 신지선, 「번역교육 관련 연구동향 및 연구과제 고찰-교육내용, 수업방법, 평가방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5집, 한국통역번역학회, 2013, pp.131-150.
- _____, 「번역교육에서 ‘독자반응이론’의 효율성 고찰」, 『번역학연구』 17집, 한국번역학회, 2016, pp.153-173.
- 이미경, 「교수의 교과교육학 지식과 전문번역 수업에 대한 소고」, 『통번역교육연구』 가을 제16권2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8, pp.109-131.
- 전영근, 차금용, 「한중번역에 나타나는 한국식중국어표현의 원인과 해결대책」, 『중국조

선어문』193집, 2014, pp.60-67.

崔建强, 季娇阳, 「国内翻译硕士课程设置现状及其对应策略研究」, 『教师』, 第5期, 2021, pp.120-121

刘丽泽, 「高校韩国语翻译课程教学现状研究」, 『现代交际』, 第8期, 2019, pp.8-10

刘博杰, 「韩语翻译课程教学改革调查研究」, 『湖北函授大学学报』, 第27卷第21期, 2014, pp.118-119.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7월 30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8월 22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9월 23일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Status and Improvement of Korean-Chinese
Translation Class

—Focused on Shandong Province University in China

Zou, Yuy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an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translation classes in China and present improvements to make the Korean translation curriculum more practical and specialized in China.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based on the 10 most representative universities in Shandong Province, which has the largest number of Korean language majors in China, we organized and analyzed basic contents related to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such as the curriculum, faculty, and the use of textbooks. And then we surveyed students' expectations and requirements for translation classes. In addi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more diverse and objective current status, a second survey was also conducted on instructors and social demand. According to the problems in the current situation analysis and the requirements of students, this paper puts forward seven ways to improve Korean translation courses in Chinese universities

Keyword Chinese University, Korean translation class, Current status, Problem, Improvement plan

중국에서의 한국 근대초기문학 연구

허련화*

국문요약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대한 연구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중국에서의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대한 연구는 1999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0년 이후 눈에 띄게 늘었다. 크게 비교문학적 연구와 일반적인 한국문학연구로 나뉘는데, 그중 비교문학연구가 특히 많다. 대부분은 중한문학비교이고 일부 중한일문학비교, 한국과 서구문학 비교가 있다.

중한 두 나라 근대초기문학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그 당시 두 나라의 시대상황, 문학사조 등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관계로 영향관계의 비교문학논문, 평행적인 비교문학논문이 모두 많으며, 일부는 한 논문에서 두 가지 연구방법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 영향관계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내용은 양계초의 사상이 한국근대문학과 한국근대사회에 준 영향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가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준 영향을 들 수 있다. 평행비교연구로는 중한 두 나라 근대문학사조, 근대문학사상의 비교 및 작가 작품 비교가 있는데, 가장 많이 비교된 것은 한국 이광수의 <무정>과 중국 노신의 <광인일기>이다. 일반적인 한국 근대초기문학연구에서도 이광수와 그의 소설 <무정>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로부터 중국학계의 이광수에 대한 중시도를 알 수 있다.

주제어 한국 근대초기문학, 이광수, 양계초, 노신, 비교문학

〈목차〉

1. 중국에서의 한국 근대초기문학 전파와 연구 개황
2.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대한 타자 문화의 영향 연구
3. 격변기의 중한 근대초기문학 평행 비교 연구
4. 한국 근대초기 작가, 작품에 대한 일반 연구
5. 결론

* 중국 서남민족대학교 외국언어문학대학 한국어학과 부교수

1. 중국에서의 한국 근대초기문학 전파와 연구 개황

한국근대문학의 시기 구분은 아직 정론이 없는 상황이며, 본 논문에서는 1894년부터 1919년까지의 시기를 한국 근대초기(내지는 근대 전반기)로 설정하고, 이 시기 한국문학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초기에 대한 이런 시기 구분은 1894년부터 1945년까지를 한국근대로 보는 견해를 기초로 한 것이다.¹⁾

비록 근대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한국문학이 중국에 번역 소개 되었으나²⁾ 아쉽게도 한국 근대초기문학 작품에 대한 소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 논문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2007년 료녕민족출판사의 <무정>에 대한 번역소개가 유일하다.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은 석박사 학위제도를 회복하였으며 학술자유의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남한 근현대문학을 비롯하여 한국문학을 접촉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³⁾ 특히 1992년 중한 수교 이후, 중국의 한국

-
- 1) 1894년은 동학혁명과 갑오경장 등 사회전반에 걸친 일련의 개혁과 운동으로 근대화의 첫 걸음을 디뎠으며, 1919년에는 전민이 떨쳐 일어나 민족의 독립을 외침으로써 민족적 자각과 해방의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1894년-1919년을 근대초기(내지는 전반기)로 설정하였다.
 - 2) 한국 소설이 중국에 처음으로 전파된 것은 1910년, 당시 중국에 체류하던 한국의 김택영은 중국 상해의 商务印书馆에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출판하였다. 또한 1925년 『语丝』 잡지 11기(1월 26일)에는 开明的 <朝鲜의传说 (조선의 전설)>이 실렸다. 그러나 그후 중국과 한국이 반식민지, 식민지 국가로 전락하는 사회정치적 형세로 말미암아 한국문학의 중국 내 전파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영희의 평론이 중국의 잡지에 번역되어 실리고, 한국항일투사 김산(장지락)의 항일투쟁을 그린 소설 <奇妙的武器 (기묘한 무기)>가 북경 『东方』지에 발표되고, 『만선일보』와 『민성보』 등 신문에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실렸다. 1941년 新时代社에서 『조선단편소설선』을 출판하였다. 남북한 정부 수립 이후,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하여 중국에서는 1970년대까지 남한현대문학에 대한 소개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49년 『小说』 잡지 제2권 3기에 浦剑의 <北朝鲜의人民文艺 (북조선의 인민문예)>가 실린 것을 시작으로, 1950년대 잡지들에는 매년 2-3편의 북한문학에 대한 소개 혹은 평론이 실렸다.
 - 3) 金长善, 「20世纪后半期韩国文学译介在中国」, 『世界文学评论』2006年 第2期, pp.283-284.
1979년 12월에 『世界文学』(1979년 제6기)에 김지하의 시 15수가 번역소개된 것을 시작

문학연구는 고전문학에만 집중하던 데로부터 점차적으로 근현대문학으로 그 연구범위를 넓혀갔으며 연구 성과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牛林杰, 张懿田⁴⁾에 의하면 2012년 6월까지, 전반 한국 근현대문학에 대한 중국 학계의 연구 성과는 학술저서 7부, 연구논문 180편, 그중 143편의 학술일반논문과 석박사 학위논문 37편이 있다.

2004년 이후에는 중국학자들이 쓴 한국 근현대문학사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관련된 저서들로는 李海山の『조선-한국당대문학개론』(민족출판사, 2002), 김병민, 허휘훈, 최응권, 채미화 공저『조선-한국당대문학사』(곤륜출판사, 2004), 최응권의『조선-한국당대문학사』(곤륜출판사, 2004), 윤운진, 지수용, 정봉희, 권혁를 공저『한국문학사』(상해교통대학출판사, 2008), 김영금의『한국문학간사』(천진남개대학출판사, 2009), 『조선-한국문학사(상하)』(북경외어교학과 연구출판사, 2010), 김명숙의『조선근현대문학사』(료녕민족출판사, 2010), 『조선현대순수문학사조사』, 『다각도해독현대문학』(한국역락출판사, 2010), 리암의『조선문학통사(상중하)』(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0) 등이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문학사 이외에도 한국 근현대문학에 관한 연구저서들이 출판되었다. 그중 근대문학 관련 연구 저서로는 김병민의『조선-한국문학의 근대전형 및 비교문학』(연변대학출판사, 2005년), 조양의『중한근대신소설비교연구』(료녕민족출판사, 2010)가 있다. 김병민 등저의『중국현대문학과 한국』계열총서 10권(연변대학출판사, 2014년)은 문학작품편, 번역편, 평론 및 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가, 소설, 수필, 희곡, 번역, 평론, 연구 논문 340편을 수록함으로써 중한 근현대문학 교류 연구를 위한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한국학자들의 저서들이 중국에서 번역 출판되기도 하였다.⁵⁾

으로, 1980년에는『外国文艺』(1980년 제1기, 내부발행)에 김동인의〈배따라기〉를 비롯하여 다섯 편의 단편소설이 번역 소개되었으며, 1983년 2월에는 상해역문출판사에서〈남조선소설집〉을 출판하고, 그 후로는 손창섭, 김성충, 장비석, 최인호, 박경리, 황석영, 조정래, 이청준, 김동리 등 작가의 수십 편의 한국현대문학작품이 번역 출판되었다.

4) 牛林杰, 张懿田, 「中韩建交二十年来中国的韩国现代文学研究综述」, 『当代韩国』, 2012年第3期.

중국의 한국문학 연구성과를 집약한 논문으로는 崔雄权, 金一의 「韩国小说在中国的传播与研究」⁶⁾, 尹允镇, 金顺女의 「建国50年来中国的朝鲜文学研究状况与未来」⁷⁾, 牛林杰, 张懿田의 「中韩建交二十年来中国的韩国现代文学研究综述」⁸⁾, 田月梅의 「新中国60年中国的韩国文学研究」⁹⁾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牛林杰, 张懿田의 논문은 한국 근현대문학 연구 성과만을 요약한 논문이고, 田月梅의 논문 역시 일부 근현대문학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연구성과에 대하여 깊이있게 다룬 연구논문은 없다.

본 논문은 중국 학술논문사이트 中国知网, 超星发现에서 수집한 논문자료를 바탕으로 중국학계의 한국 근대초기문학 연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소개하려 한다.

이번에 수집된 상관 연구 자료로는 단행본 2권, 학위논문 16편, 학술지논문 78편이 있다. 그 중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대학에서 쓴 박사학위논문 4편, 석사학위논문 1편, 학술지 논문 11편이 포함된다. 그중 78편의 학술지 논문의 연도별 분포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연도별 발표된 한국 근대초기문학 관련 학술지 논문 수량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논문	1	0	0	0	0	1	0	2	1	2	3	3	0	2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논문	2	0	2	2	8	2	12	5	4	8	3	5	5	5

〈표 1〉에서 보다시피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대한 연구는 1992년에 첫 논문이

- 5) 김윤식, 김우중 공저, 김향, 장춘식 역, 『한국현대문학사』, 북경: 민족대학출판사, 2000년; 백낙청 저, 김정호, 정인갑 역, 『글로벌시대의 문학과 사람—분단체제하의 한국시각』, 홍콩: 중국문학출판사, 1998년.
- 6) 崔雄权, 金一, 「韩国小说在中国的传播与研究」, 『东疆学刊』, 1999年第4期.
- 7) 尹允镇, 金顺女, 「建国50年来中国的朝鲜文学研究状况与未来」, 『东疆学刊』, 2000年第3期.
- 8) 牛林杰, 张懿田, 앞의 논문.
- 9) 田月梅, 「新中国60年中国的韩国文学研究」, 『教育教学论坛』, 2015年第9期.

발표되어 2009년까지 소량으로 쓰이다가 2010년부터 활발하게 현재까지 꾸준히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연구에 큰 기여를 한 연구자로 연변대학 金柄珉을 들 수 있다. 1992년에 중국에서의 첫 한국 근대초기문학 연구논문을 발표하여¹⁰⁾ 이 분야의 연구를 개척하였으며 2014년에는 『중국현대문학과 한국』 계열총서 10권으로 기초자료를 발굴하였으며, 2016년에는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항목 「중한 근현대문학교류사 문헌정리와 연구」¹¹⁾를 따냄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대한 연구 논문을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문학을 다른 나라의 문학과 비교하여 연구한 비교문학 연구논문 45편과 다른 나라의 문학과 비교하지 않고 순수하게 한국문학만을 연구한 일반적인 연구논문 33편으로 나눌 수 있었다. 비교문학은 서로 다른 나라의 문학을 상호 비교하여 문학 장르나 조류·영향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중국의 한국근대초기문학에 대한 비교문학 연구논문 중에는 한국문학과 다른 나라 문학과와의 실제적인 교류와 영향관계를 연구한 영향관계연구, 비록 실제적인 교류와 영향관계가 없었지만 유사성을 펴므로써 비교연구의 가능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학에 대한 평행비교 연구논문이 있었다. 그중 일부 논문은 한 논문에서 영향연구와 평행연구 두 가지 연구방법을 모두 적용한 논문도 있었다.

본 논문은 중국의 근대초기문학 연구논문을 이들 논문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에 따라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대한 타자 문화의 영향 연구'(비교문학의 영향관계 연구), '격변기의 중한 근대초기문학 평행 비교 연구'(비교문학의 평행비교 연구), '한국 근대초기 작가, 작품에 대한 일반 연구'(비교문학 연구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문학만을 연구한 일반연구)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려 한다.

10) 金柄珉, 吴绍九, 「梁启超与朝鲜近代小说」, 『延边大学学报』, 1992年第4期

11) 金柄珉, 国家社会科学基金重大项目(2016)“中韩近现代文学交流史文献整理与研究”简介, 东疆学刊 2017 第34卷 第2期 pp.2, 113.

2.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대한 타자 문화의 영향 연구

1)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대한 양계초의 영향

양계초는 근대초기 한국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발신자다. 따라서 영향 연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양계초가 한국근대사상, 근대문학, 문인들에게 준 영향을 분석한 논문으로 15편을 차지한다. 그중 양계초의 영향을 받은 수용자로 신채호를 지목한 논문이 가장 많다.

양계초와 한국근대소설의 영향관계를 가장 먼저 논한 것은 金柄珉, 吳紹九의 논문이며¹²⁾, 김병민은 2011년에 다시 동일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양계초와 한국근대소설의 영향관계를 전면적이고 자세하게 분석한다.¹³⁾ 그는 양계초가 조선근대소설의 발전에 영향을 준 것은 소설가의 자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우선은 정치활동가와 계몽사상가의 신분으로 조선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 그의 소설과 소설이론이 조선근대소설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양계초의 『清议报』, 『新民丛报』는 서울과 인천에 代售处가 있을 만큼 한국에 널리 전파되었으며 『饮冰室文集』은 발행된 후 한국에 유입되었고 그 중의 중요한 문장과 소설들은 번역되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으며 그의 사상과 문학관은 한국의 문인과 사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논문은 접수미학의 관점에서 한국문인들이 양계초의 학설을 주동적으로 받아들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중한 양국의 문학혁신의 간절한 요구, 중한문화교류의 전통, 한국 문인들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리, 양계초와 한국사회의 긴밀한 상호관계 등 원인으로 하여 한국문인들은 양계초의 학설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그를 매개로 하여 서양학설과 일본학설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白玉陈은 조선갑오개혁으로부터 일본식민지로 전락하기 이전의 신문잡지에 실린 언론과 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양계초의 조선관 및 그의 사상의 조선에서의 영향범위와 전파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는 조선소설의 근대화과정에 미친 서양,

12) 위의 논문.

13) 金柄珉, 「梁启超与朝鲜近代小说」, 『西华大学学报』第30卷第3期, 2011年6月.

일본, 중국, 양계초의 영향을 비교분석하면서 양계초의 영향이 전면적, 계통적, 심원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양계초 소설이론은 한국전통문학이론의 근대화와정에 빼놓을 수 없는 관건적인 요소라고 하면서, 조선이 양계초의 소설이론을 수용하게 된 심미적 원인을 분석했다.¹⁴⁾

양계초가 한국근대문학에 준 영향에 대하여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은 문대일 (한국인)이다. 그는 한국근대문학 관련 논문을 7편 발표하였는데 그중 5편이 양계초의 詩界革命論, 신민사상, 교육문학, 소설계혁명이 한국에 준 영향을 논술했다.¹⁵⁾ 신채호는 양계초의 『飲冰室文集』의 영향을 받아 『天喜堂詩話』를 썼으며, 양계초의 '詩界革命論'의 영향을 받아 '東國詩界革命論'을 발동했으며 양계초의 '신민설'의 사상을 흡수하여 『대한매일신보』에 〈20세기신국민〉을 연재하여 국권회복, 자주독립을 호소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안국선은 양계초의 정치관련 저서를 번역 소개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의 정치소설 〈금수회의록〉과 양계초의 〈動物談〉을 비교하면 동물제재로 사회를 풍자비판하고 1인칭 서술 방법과 액자형 소설형식을 취한 면에서 모두 지극히 유사하다고 했다.

張乃禹, 湯哲聲¹⁶⁾은 양계초의 『清議報』, 『新民叢刊』, 『新小説』의 한국에서의 전파상황을 열거하고 특히 신채호와 박은식, 이해조 등이 양계초의 '소설계혁명'을 받아들여 한국의 전통소설을 비판하고 신소설을 주창하였으며 양계초의 일본정치소설 번역은 한국에 서양소설 번역열풍을 일으켰다는 점을 밝혔다.

14) 白玉陈, 「朝鮮近代愛國啓蒙運動時期小說理論的革新與梁啟超」,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2010年.

15) 文大一, 「梁啟超的“詩界革命論”對韓國文學的影響」, 『河北廣播電視大學學報』第17卷第3期, 2012年6月;

「梁啟超的“新民”思想對申采浩“新國民”思想的影響」, 『東方論壇』, 2012年第2期;

「梁啟超在“開化期”韓國的影響」, 『青島大學師範學院學報』第28卷第3期, 2011年9月;

「梁啟超的“教育文學”與近代韓國文人的關係—以梁啟超的“小說界革命”對申采浩的影響爲中心」, 『西華大學學報』, 2011年3期;

「初探梁啟超與韓國近代文學的關係—以梁啟超與安國善的影響關係爲例」, 『綏化學院學報』第31卷第2期, 2010年.

16) 張乃禹, 湯哲聲, 「論梁啟超對近代韓國思想啓蒙及其小說革命的影響」, 『晉陽學刊』, 2012年第3期.

그렇다면 한국인은 왜 유독 양계초의 학설에 큰 공명을 했는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양계초가 시종 한국의 국운에 관심을 갖고 동정을 한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 양계초는 1904년에 <朝鮮亡國史略>을 발표하여 기울어가는 한국의 국운에 깊은 동정을 표현하였고, 1910년 한일합방 이후 24수의 5율시 <朝鮮哀辭>를 창작하여 애통함을 표현하고, 안중근 의사를 찬양하고 조선망국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한일합방이후 한국정부는 양계초가 쓴 저서의 번역과 출판을 통제하였고, 1912년 이후에는 양계초의 모든 저서를 없앴다. 그로부터 중한문학의 전통적인 영향관계는 점차 미약해졌고, 중국문화는 조선반도에서 배척, 망각되었다. 그러다가 1937년 중국이 일제침략을 당한 이후 중국문화의 한국문화에 대한 영향관계는 기본상 소실되었다. 이상은 논문에서 밝힌 원인이다.

2)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

한국 근대초기에 기독교는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근대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기독교와 한국 근대초기문학과의 관계 혹은 기독교소설의 한국에서의 전파, 발전과정을 다룬 논문은 5편이 있다.

張乃禹¹⁷⁾는 기독교가 중한 근대문학에 준 부동한 영향을 고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중한 근대문학의 비교문학 논문이기도 하다. 기독교는 한국에 유입된 이래 개화기 한국문학에 평등, 자유, 박애, 민주 등 사상을 주입했으며 『성경』의 한역사업은 한국문학의 언문일치의 실행에 중요한 추동력이 되었다. 한문시는 맹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국문의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언어의 변혁은 소설언어를 구어체, 통속화로 이끈 것과 동시에 문학의 근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문학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체의 체계를 형성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국문번역은 국문 표현의 비유와 풍자를 풍부하게 하고 국문의 문학성을 향상시켰다. 기독교가 중국에 유입된 이래, 중국에서도 중국어번역을 거쳐 1882년 중문판 『성경』이 출판되었으나 그 영향은 한국

17) 張乃禹, 「基督教對近代中韓文學的不同影響及原因探析」, 『蘇州教育學院學報』第30卷6期, 2013年12月.

에서처럼 심원한 것이 아니었다. 논문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중국은 신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 유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수용이 쉽지 않은 반면 한국은 사머니즘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수용이 더 용이할 수 있었다. 또한 서구열강은 중국에서 강박적으로 선교의 권리를 획득하였는바 이는 중국인으로 하여금 기독교 선교에 반감을 품고 배척하게 했다. 한국은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기독교의 전지전능한 신에 더욱 의지하려는 심리를 갖게 된 것이다.

林惠彬¹⁸⁾은 1884년 첫 기독교 선교사 Allen이 한국에 와서부터 1945년 사이에 출판된 기독교 관련 소설 35편(한문과 국문소설 포함)을 조사하고 그들을 세 종류로 나누었다. 한국인들은 번역 또는 번안 소설에 기독교 내용을 첨가하기도 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다. 이 소설은 일본 佐藤藏太郎(Sato Kurataro, 1855-1942)의 정치소설 <금수회의인류공격>을 번역한 것인데, 원저에는 기독교 내용이 없으나 역저에는 작품 속 끝벌의 말을 빌려 기독교를 찬양하는 내용을 첨가한 것이 단적인 예로 된다고 했다.

林惠莹¹⁹⁾은 한국개화기의 선교소설 <고영규전>을 연구대상으로 기독교 사상과 개화사상의 관련성을 일치양상, 갈등양상, 타협양상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개화사상이 고취한 자유, 평등 등 휴머니즘은 기독교사상에 그 뿌리가 있었기에 그들이 제창한 남녀평등, 미신타파, 인권확립 등 사상도 기독교사상과 일치된 부분이 많았으나 인간성을 기본으로 하는 개화사상과 신성을 기본으로 하는 기독교사상 사이에 이질성도 있었음을 밝혔다.

袁华玉²⁰⁾은 한국아동문학의 발생기를 크게 1910년대 태동기와 1920년대 본격발생기로 나누어서 최남선, 이광수, 방정환의 공헌을 고찰했다. 1920년대 전문적 아동문학 작가가 출현하였고 그들 대부분 기독교사상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작품에 배어있다. 기독교는 한국아동문학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외래요

18) 林惠彬, 「基督教小说在近代韩国的历史演进」, 『外国文学研究』, 2015年第2期.

19) 林惠莹, 「论基督教思想在《高永规传》中的表现形态」, 山东大学硕士学位论文, 2010年.

20) 袁华玉, 「韩国儿童文学的产生与基督教的影响关系研究」, 山东大学硕士学位论文, 2010年.

소로 기독교 아동문학은 한국아동문학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

洪艺花²¹⁾는 200여 종의 〈천로역정〉 국문 번역본 중 5종의 번역본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중국 西海의 한역본을 참조하면서 번역언어학, 번역문화학, 번역정치학의 시각으로 〈천로역정〉 한역본의 언어적, 문화적, 정치적 면을 분석하였다.

3) 기타 영향 관계

한국 근대초기문학과 기타 나라나 민족의 영향관계 연구로 중국과의 문학교류에 대한 연구, 톨스토이 사상과 진화론이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준 영향 연구 등이 있다. 우선 赵颖秋²²⁾와 崔雄权, 金一²³⁾은 한국소설(근현대소설 포함)의 중국에서의 전파와 수용 및 연구 상황을 고찰하였으며, 金一²⁴⁾은 중한 리얼리즘문학이론의 기원 및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崔一²⁵⁾은 인적교류와 사상전파, 텍스트 전파와 번역, 탈경계적 서사 등 세 가지 측면으로 중한문학의 상호연관성을 논술했다.

한국 학자 尹弘老와 중국학자 廉松心²⁶⁾은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대한 진화론의 영향을 고찰했다. 진화론은 먼저 일본에 전파되었는데, 일본학자 加藤은 진화론을 사회학에 적용시켜 사회진화론 이론을 만들어 일본의 외국침략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를 삼았다. 한편 한국도 중국의 매개를 통해 진

21) 洪艺花, 「〈天路历程〉의韩译比较研究」,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2007年.

22) 赵颖秋, 「解放前韩国现代文学在中国的传播与接受研究」, 南京大学硕士学位论文, 2014年.

23) 崔雄权, 金一, 「韩国小说在中国的传播与研究」, 『东疆学刊』, 1999年第4期.

24) 金一, 「中韩早期现实主义文学理论的起源及关联: 兼论中国早期现实主义理论对韩国的影响」,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2年第5期.

25) 崔一, 「中韩近现代文学关系研究的历史与现状」,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2017年第12期.

26) 尹弘老, 廉松心, 「韩国开化期进化论的接受与文学思想」, 『北华大学学报』第11卷第1期, 2010年2月.

화론을 받아들였으며, 신채호, 박은식, 안창호, 유길준 등에 수용되어 계몽주의, 민족주의를 위해 이용되었고 홍사단 설립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이광수 역시 사회진화론에 심취했으며 그의 일련의 소설들에는 모두 진화론이 강조된다. 논문은 이광수의 〈그의 자서전〉의 남궁석이 진화론에 심취한 것을 예로 든다. 刘广铭²⁷⁾은 이광수에 대한 톨스토이의 영향을 분석했다. 이광수는 톨스토이를 문학가보다 사상가로 추앙했고 톨스토이의 동양사상, 원교리주의 등에 공명을 느꼈다. 특히 톨스토이의 인도주의를 깊이 수용했는데, 이는 이광수가 동학의 평등사상과 부처항주의를 습득한 사정과도 관계된다. 이광수 작품에 나타나는 반봉건 사상은 톨스토이의 비판정신에서 비롯되며, 이는 이광수의 근대문학사상 지위를 확고하게 했다. 3.1운동 후 그는 인도주의 관점으로 민족개량을 진행하려 했기에 그의 사회비판정신은 신경향파 등의 사회비판정신보다 철저하지 못했고, 문학을 정치의 수단으로 보았기에 김동인의 문학 자주성 주장보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3. 격변기의 중한 근대초기문학 평행 비교 연구

1) 중한 근대초기 문학사상, 사조 및다 문학 장르별 평행 비교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대한 평행비교 연구는 대부분 중한 두 나라 문학의 비교 연구로 되어 있다. 우선 문학사상, 문학사조, 문학장르별 비교 연구 논문이 9편이 있다. 그중 문예사상, 중한소설근대화 비교논문 2편, 중한계몽주의문학 비교논문 3편, 중한정치소설 비교논문 1편, 중한신소설 비교논문이 2 편, 중한신체시 비교논문 1편 있다.

金洪大²⁸⁾는 근대 중한 양국 지식인들의 위기의식과 문학구국 이념 및 이로 하여 형성된 근대문학의 형식과 특징을 밝혔다. 중한 양국의 근대문학과 문예사

27) 刘广铭, 「影响与接受: 朝鲜作家李光洙思想探源」, 『东疆学刊』 第18卷第1期, 2001年3月;

「试论托尔斯泰 对李光洙文学创作的影响」, 『东疆学刊』, 1999年第4期.

28) 金洪大, 「中韩近代文学及文艺思想研究」, 山东大学博士学位论文, 2005年.

상은 창작주체의 변화, 문학언어와 형식의 변화, 서양문학과 문예사상의 영향, 공리주의 문예사상 등 면에서 대단한 유사성을 지닌다. 동시에 발생 시간의 차이, 문자혁명이 보여주는 민족성의 차이, 민중문학과 문예사상 발전의 차이로 하여 큰 상이성을 띤다. 논문은 또한 중국 공자진, 양계초, 왕국유, 노신의 문예사상, 한국 동학문예사상, 최남선과 신채호의 애국계몽문예사상을 비교분석하였다.

张乃禹²⁹⁾는 중한양국 소설변혁의 동일성, 동보성과 차이성을 고찰하고 그 산생원인을 탐구하였다. 우선 양국 소설이 근대화를 이루게 된 사회문화배경에 대하여 정리하였는데, 문호개방, 서학동점(西学东渐), 인쇄기술에 힘입은 현대잡지의 출현, 원고료제도의 확립으로 인한 작가 직업의 출현, 신식교육과 현대도시의 출현으로 인한 독자층형성, 서양의 번안소설이 준 충격 등으로 하여 소설은 문학의 변두리로부터 주류로 바뀌었으며 근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양국 소설 변혁은 차이성도 보이는데 주제의식면에서 중국은 풍자와 견책, 한국은 애국신민의 사상이 주조를 이루며 문학구조면에서 중국은 신문학과 통속문학이 대립비판 관계를 이루며 한국은 공존의 구조를 이룬다. 논문은 양국이 처한 식민지와 반식민지 사이의 차이가 양국소설 근대화의 차이성을 산생시킨 충근원이라고 지적했다.

郑英丹³⁰⁾은 중국 金天翮의 〈女界钟〉(1903)과 한국 이해조의 〈자유종〉(1910)의 여성 의식을 비교분석하여 그 동질성과 이질성을 찾아냄으로서 중한 양국 계몽시기 여권의식의 본질을 파악하려 했다.

赵扬³¹⁾은 중한 신소설의 전통과 현대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했다. 중국의 신소설은 1902년 〈新小说〉잡지 창간으로부터 1919년 5.4운동 소설의 흥기까지이고 한국의 신소설은 1906년 이인식의 〈血之泪〉의 발표로부터 1917년 〈무정〉의 발

29) 张乃禹, 「中韩小说现代化转型比较研究」, 苏州大学博士学位论文, 2012年.

30) 郑英丹, 「中韩启蒙小说中的女权意识比较」, 对外经济贸易大学硕士学位论文, 2007年.

31) 赵扬, 「中韩近代新小说的“新”与“旧”」,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第33卷第2期, 2010年3月.

표까지로 대체로 그 시기가 비슷하다. 이 시기는 소설창작의 분출기로서 한국은 몇 백부의 작품, 중국은 만부에 달하는 소설이 창작되었다. 논문은 양국 신소설은 모두 전통과 현대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며 아래와 같은 공통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신소설과 전통문학의 관계. 신소설은 그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형식상에서는 의연히 중국은 문언문, 한국은 고진감래, 권선징악, 대단원의 구식방식을 사용하였다. 둘째, 신소설의 새로운 점. 이 시기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정치소설, 사회소설이 대량으로 나왔으며 문체상에서도 문언일치를 이루려고 하여 중국은 백화문, 한국은 순국문을 사용하였다. 소설기법 면에서는 서술시간과 서술체제, 서술시각이 변화되었고 경물묘사, 심리묘사 등이 사용되고 문체는 보다 구어체에 가까워졌으며 신화, 전설, 역사이야기의 색채를 버리고 현실에 가까워졌다. 신소설은 현대소설을 위하여 기초를 닦았으며 노신과 이광수 등 문학대가를 산생시키기 위한 준비를 했다.

白亨述³²⁾는 중한 신체시의 산생과 발전과정, 언어, 형식, 주제와 내용, 신체 이론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중한 전통시가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이미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수 없었고 사회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변혁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詩界革命이 발생하였다. 중한양국은 외침의 위협 속에서 구국과 민족부강의 새로운 시대적 정신을 가졌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해 신체시가 발생하였다. 한국의 신체시는 1908년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로 시작되고 중국신체시는 1918년 『新青年』 잡지 4권1호에 발표된 胡适, 刘半农의 9수의 신체시에서 비롯된다. 한국신체시는 창가조의 전통형식으로 계몽작용을 하다가 1918년 『태서문예신보』가 출판되면서부터 시의 근대화를 이루고 계몽주의를 초월한다. 이것이 논문에서 지적한 중한 신체시의 상황이다.

2) 중한 작가 작품의 평행 비교

아래 도표를 보면 근대초기 한국작가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논문 20편 중에

32) 白亨述, 「中韩新诗比较研究」, 『盐城师范学院学报』第21卷第1期, 2001年2月.

신채호의 <꿈하늘>과 단테의 <신곡>을 비교한 논문 한 편 외에는 전부 이광수 관련 논문으로 총 19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중 이광수와 노신을 평행비교한 논문이 15편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한국 근대초기문학 평행 비교 연구 논문

한국 작가	외국 작가	비교 작품/주제	논문 수량
이광수	노신	〈무정〉, 〈광인일기〉	6
이광수	노신	문학관	4
이광수	노신	여성형상	1
이광수	노신	성장소설	1
이광수	노신	근대문학에의 기여	1
이광수	노신, 나쓰메 소세키	문학관	2
이광수	노사	애정서사	1
이광수	육달부	〈무정〉, 〈沉淪〉	1
이광수	양진성	〈무정〉, 〈貞女〉	1
이광수	가와바타 야스나리	여성형상	1
신채호	단테	〈꿈하늘〉, 〈신곡〉	1

노신과 이광수가 이처럼 집중적으로 비교연구의 대상이 된 데는 두 작가의 생활경력, 문학관, 문학사상 지위와 역할 등이 모두 비슷한 점이 그 원인으로 된다. 두 사람 모두 소년시절 가정의 몰락, 부친(부모)의 부재, 빈궁한 생활의 고초를 겪으면서 세상의 염량세태를 느꼈으며, 모두 청년시절 일본유학 생활을 통해 서구사상을 접수하고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려는 민족주의, 애국주의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 계몽의 수단으로 소설을 택했다.

노신과 이광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비교한 것은 노신의 <광인일기>와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비교이다.

洪永春, 洪燕佳³³⁾은 두 작품의 내용과 주제, 예술적 풍격, 인물형상에 대해 비교했다. <광인일기>는 중국의 첫 백화문소설이고 현대소설의 첫 기원을 열어놓은 작품이다. <광인일기>는 노신의 중국전통문화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의 환부를 치료하려는 목적에서 쓰이고 <무정>은 사

33) 洪永春, 洪燕佳, 「启蒙的不同书写—比较鲁迅的〈狂人日记〉和李光洙的〈无情〉比较」, 『通化师范学院学报』, 2008년9월.

량을 입각점으로 해서 청년의 개성해방을 추구하고 나라를 위해 문명세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예술적 풍격 면에서 〈광인일기〉는 리얼리즘과 상징주의를 결합하였고 주제는 심각하고 예술적 기교는 아주 새로워 전통문학과 단절된 느낌을 준다. 〈무정〉은 인물의 심리묘사, 운명의 곡절을 통하여 과도기적 인물성격과 사상을 보여줌으로서 극히 심각한 인상을 준다. 무정하고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암흑한 현실 속에서 노신은 절망하고 반항하고 이광수는 희망을 품고 앞으로 노력하였다. 두 작품은 모두 각성했거나 각성해나가는 지식인 형상을 그려 있으며, 마침 두 작품 발표 뒤, 두 나라는 각각 5.4운동과 3.1운동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했다.

李俐³⁴⁾는 〈광인일기〉는 유교사상 비판과 신문체 창립이라는 두개의 목적을 달성했고 중국현대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이며, 〈무정〉은 한국근대 첫 장편소설이며 민족주의, 자유주의, 계몽주의, 신교육사상, 자유연애, 혼인자유, 기독교 신앙 등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광인일기〉는 전통문학에 없는 일기체 형식과 미치광이 형상으로 봉건제도의 본질을 폭로하고 〈무정〉은 결말에 홍수를 설정하여 개인의 연애 고민을 민족적 사랑으로 상승시켰다고 지적했다.

金雪梅³⁵⁾는 〈광인일기〉는 호적과 진독수의 구어문학이나 문학혁명 주장을 최초로 실천한 작품으로, 구어적 표현을 채택한 이 작품은 피해망상증상을 보이는 노신의 동생을 모델로 쓰였고, 〈무정〉은 연애소설 같지만 과도기 지식인의 전형을 잘 그렸다. 〈광인일기〉의 인물구조는 “광인-지식인, 식인-민중”이고 〈무정〉의 인물구조는 “교사-지식인, 학생-민중”의 구조이다. 이광수 소설의 지식인은 우수한 계몽자이지만 노신 소설의 지식인은 무지한 지식인, 이광수는 정면 인물형상으로 독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밝혀주는 반면, 노신은 노예습성과 자각을 잃은 국민성을 가진 인물을 묘사한다. 〈광인일기〉는 상징주의와 현실주의 수법을 결합했고 〈무정〉은 묘사, 비유, 상징, 서술 등 수법을 사용했다. 이광수

34) 李俐, 「鲁迅의 〈狂人日记〉与李光洙의 〈无情〉의 比较研究」, 『湖北广播电视大学学报』第34卷第11期, 2014年11月.

35) 金雪梅, 「鲁迅〈狂人日记〉与李光洙〈无情〉의 比较研究」, 中央民族大学硕士学位论文, 2011年.

는 종교가, 대학교수, 여론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저널리스트 및 우국지사
의 역할을 작가로서 혼자서 수행했다. 〈무정〉이 끼친 충격적인 영향력이 여기
에 있다. 논문은 〈무정〉의 문학적 의미와 예술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고 극도
로 높이 평가했다.

孙麟淑³⁶⁾의 논문은 중한일 세 나라의 근대문학의 대표적 작가 노신, 이광수,
나쓰메 소세키를 전면적으로 비교한 것이 특색이다. 세 작가는 어려서 받은 한
문교육과 유학시절 받은 외국문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노신과 이광수는 반봉
건 반유교적 사상을 가지게 되었고 소세키는 전통사상을 가지게 되며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국민성개조 의식과 문명비판 태도를 가지게 된다. 논문은 세 사람의
소설 서술방식, 서술시각, 대화서사와 공간상의 서사구조, 인물형상을 비교분석
하고, 본국 근대화에서의 위치와 역할, 사상사, 문학사상의 지위를 밝혔다. 또한
3국 문학사상의 상호영향관계, 세 사람의 예술 면에서의 상호 영향관계를 분석
하고, 본국의 언문일치운동에서의 각자의 공헌도 밝혔다.

韩继镐³⁷⁾ 역시 상기 세 작가를 비교했다. 세 작가는 소년시절 한문교육과 가
정의 몰락, 청년시기 외국유학, 문학을 계몽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등 면에서 유
사성을 가진다. 외침의 무력침공 하에서 중국, 한국, 일본은 각각 부동한 운명을
겪게 되는데 중국은 전통문화에 대해 반성하고 한국은 문화발신자를 바꾸게 되
며 일본은 전통회귀와 전면적 서구화 사이에서 방황하게 된다. 이런 시대적 환
경 속에서 세 사람은 외국유학 과정에 노신은 니체의 철학사상을, 춘원은 톨스
토이의 휴머니즘, 소세키는 쇼펜하우어의 유일의지론의 영향을 받게 되며 민족
각성, 개성해방을 통하여 민족적 결함을 개선할 것을 주장한다. 논문은 노신은
〈아큐정전〉을 통해 민족의 저열한 근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비판의 거울로 삼
으며, 춘원은 〈무정〉을 통해 민족주의 이상적 형상을 보여주었으며 소세키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통해 일본사회의 여러 병폐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
풍자하였다고 했다.

36) 孙麟淑, 「东亚文学의近代化研究」, 辽宁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2013年.

37) 韩继镐, 「东亚启蒙文学的文化语境比较」,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2003年.

4. 한국 근대초기 작가, 작품에 대한 일반 연구

1) 이광수와 〈무정〉에 대한 연구

한국 근대초기 작가 작품에 대한 일반 연구논문 33편 중 31편이 이광수의 작가론과 작품론이고, 나머지 두 편의 논문은 각각 〈혈의 루〉의 ‘꿈’의 역할을 논한 논문³⁸⁾과 신채호가 바라는 여인상에 관한 논문³⁹⁾이다.

우선 작가론을 보면 주로 이광수의 문학사상을 분석하고 있다.王金霞⁴⁰⁾는 이광수의 동학 경력은 그가 민족주의 정신을 가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며 당시 시대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광수의 문학에는 애국주의, 계몽주의, 민주, 평등, 자유, 박애 등 사상으로 충만 되어있는데, 이는 그의 소설이 고전소설과 신소설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했다. 일본유학기간에 그는 다윈의 사회진화론, 톨스토이의 비판주의, 바이런의 악마주의, 니체의 본능주의 등 영향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톨스토이의 비판주의이다. 이광수의 문학론에는 일상생활과 인생의 본질을 반영하는 恒常의 문학론, 공리주의 문학론, 계몽주의 문학론, 정의 문학론이 있는데 恒常의 문학론은 많은 작가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의 순국문 창작 실험은 국문창작 열조를 일으켰으며 계몽주의문학론 역시 당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논문은 이상의 분석을 거쳐, 비록 이광수가 40세 이후의 친일경력으로 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가 근현대문학사에 세운 거대한 공적은 잊혀서는 안 되며 그의 문학은 연구가치가 극히 크다고 평가한다.

金芳实⁴¹⁾은 이광수의 문학에 대한 논의는 정의 문학론, 공리주의적 문학론, 恒常의 문학론이 있는데 정의 문학론은 문학의 원천, 공리주의적 문학론은 문학의 기능에 대한 인식, 향상의 문학론은 문학의 지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광수는 일시적인, 혁명적인, 조류적인 문학이 아닌 인간의 본질을 그린 문학을 지

38) 金明实, 「试论〈血之泪〉中“梦”的作用」, 『产业与科技论坛』第11卷第24期, 2012年.

39) 崔玉山, 「未完成的“女国民”像」, 『东疆学刊』第29卷第3期, 2012年7月.

40) 王金霞, 「韩国近现代著名作家李光洙文学思想探微」, 『延边大学学报』第47卷第4期, 2014年7月.

41) 金芳实, 「李光洙文学的特色」, 『国外社会科学』, 2003年第5期.

향했다고 했다. 이광수의 문학장르론을 보면 소설론에서 그는 주정론과 공리주의 문학관으로 대중소설의 의의를 말했으며 대중성과 예술성의 융합을 강조하고 리얼리즘을 긍정했다. 이광수는 문학비평론에서 문학예술의 평가기준으로 구상의 미, 표현의 미, 내용의 미를 말했으며, 상상력, 감화력, 기교를 말하기도 했다. 논문은 또한 이광수는 순수한 한국어로 문학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그의 민족정신과 애국정신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았다.

金明淑⁴²⁾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방법과 자기심리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광수와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을 분석했다. 이광수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면서 모성애에 대해 갈망하고 작품 속 여성인물에 대하여 모성에 같은 사랑과 정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였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받은 멸시와 상처는 그로 하여금 현실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불안하게 느끼게 했으며 그 탈출의 방편으로 자신을 우상의 위치에 놓이게 노력했으며, 작품 속 남자 주인공 역시 여자들로부터 우상처럼 숭배 받는 뛰어난 인물이 많음을 지적했다.

卢琰, 马金科⁴³⁾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과 쇼펜하우어의 인생철학으로 육망 비극, 생존비극, 비극해탈의 면으로 이광수 초기 소설의 비극의식을 분석했다.

张雪花⁴⁴⁾는 이광수의 여성의식을 고찰했다. 이광수는 〈新女性+诫命〉을 써서 여성의 나아갈 길을 가리켰고 그런 사상은 〈婚姻论〉, 〈早婚的恶习〉, 〈新生活论〉 등 논저와 〈무정〉, 〈토지〉, 〈재생〉, 〈애정〉 등 장편소설에 반영된다. 그의 소설 속 여성인물은 가부장제에 순종하고 근대이념이 없는 여성인 〈무정〉의 선형과 〈애정〉의 옥남, 근대이념을 접수한 신여성인 〈무정〉의 병옥, 〈애정〉의 인애, 현실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여성인 〈무정〉의 영채와 〈애정〉의 순옥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중 두 번째 유형의 여성은 작가 사상의 화신이고, 세 번째 유형의 여성이야말로 작가의 여성의식의 산물로 작가가 주장하는 근대여성의 형상이다. 논문은 이런 여성형상은 현재까지도 사람들에게 공명을 주고 있

42) 金明淑, 「对李光洙情爱小说的精神分析解读」, 『延边大学学报』第42卷第4期, 2009年8月.

43) 卢琰, 马金科, 「论李光洙小说的悲剧意识」, 『长春师范学院学报』, 2013年第9期.

44) 张雪花, 「谈李光洙的女性意识」, 『吉林省教育学院学报』第28卷总310期, 2012年10月.

다고 했다.

车美兰⁴⁵⁾은 〈无情〉의 물의 이미지를 분석했다. 눈물은 수난과 각성의 이미지로 영채는 11번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은 병옥을 만나기 전에 흘리는 수난의 눈물과 만난 이후에 흘리는 각성의 눈물로 나누어진다. 대동강은 죽음과 재생의 이미지로, 기생 월화가 빠져죽은 죽음의 이미지, 함교장의 연설에 나타나는 평양성과 을밀대를 다 헐어내고 새로운 평양성을 쌓는 재생의 이미지이다. 홍수는 파괴와 죽음, 생성과 화합의 이미지이다. 삼랑진의 홍수는 집과 식량을 빼앗아가는 파괴성을 갖고 있지만 또한 모든 사람을 개화의지로 무장시키고 하나로 화합시키는 생성과 화합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작품에서 물은 눈물, 대동강, 삼랑진의 홍수, 태평양의 순서로 점차 확대되는데, 물의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물의 의미도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민족적인 것으로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이광수 관련 논문은 앞장에서 언급한 비교문학 논문 7편까지 합치면 모두 38편이나 된다. 전문 이광수를 연구한 이 38편의 논문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초기문학 기타 여러 연구에서도 이광수는 자주 언급된다. 예를 들면 이광수는 한국 아동문학의 산생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로부터 중국학계의 한국 근대초기문학의 작가론, 작품론이 거의 이광수와 그의 작품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광수의 생애와 사상, 영향력, 문학관, 문학작품 등 모든 면이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광수의 작품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바로 〈무정〉이다.

〈무정〉은 근대초기의 시대적 사상인 민족주의, 자유주의, 자주독립, 계몽교육, 개성해방, 자유연애, 신흥인관, 평등, 박애, 기독교신앙, 봉건예교반대 등 사상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으며 순국문체로 쓰이고 인물의 심리묘사를 대량 사용했으며 이중성격을 가진 근대 과도기적 지식인의 전형을 그렸다. 이러한 면으로부터 〈무정〉은 한국 첫 근대장편소설의 지위를 가지며 중국 노신의 〈광인일기〉와 비교된다. 즉 이광수와 〈무정〉은 근대초기문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비켜 갈래야 비켜갈 수 없는 존재이다. 이광수는 한국근현대사에서 사상, 교육,

45) 车美兰, 「李光洙〈无情〉中水的意象研究」,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2014年.

문학, 언론, 철학, 민족독립운동 등 여러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 개척자이다. 그러나 노신이 중국현대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는 달리, 이광수는 그의 친일경력 때문에 한국에서 추앙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 연구자들은 그의 친일경력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이광수와 그의 <무정>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무정>의 중국어 번역과 소개

중국에서 <무정>은 홍성일(洪成一), 양뢰(杨磊), 안태순(安太顺) 편역에 의해 2007년 4월에 료녕민족출판사에서 중한 대조본으로 출판 발행되었으며, 총서 제목은 중한대조명저명편총서이다. 현재 이 책은 절판이 되었으며 인터넷에서 복사본이 팔리고 있다. 번역본의 편쪽은 원저의 삼분의 일 가량으로 되어있으며 중한 대조본 총 쪽수 305쪽, 글자수는 206,000자이며, 역자에 의해 9개 장절로 나뉘고 각 장마다 소제목이 붙었다. 9개 장절의 소제목은 아래와 같다.

“第一章 初会善馨；第二章 悲惨的命运；第三章 幻灭；第四章 失踪；第五章 订婚；第六章 复活；第七章 邂逅；第八章 三浪津水灾；第九章 奔向未来”

책머리에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실렸는데, 이광수(1892-1950)는 호가 춘원이며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으며,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계몽주의, 민족주의, 인도주의 작가로 평가받으며, 대표작 <무정>은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는데, 이는 작가의 첫 장편소설임과 동시에 한국근대초기의 첫 장편소설이라 소개하였다. <무정>은 민족주의적 이상과 계몽주의적 열정이 완벽하게 결합된 작품으로 발표되면서부터 돌풍적인 인기를 구가했다고 했다.

중국 인터넷 서점 当当网的 <무정>에 대한 독자평가는 11명 중 9명이 호평을 했으며, 또 다른 인터넷 서점 京东에는 20명 중 100%가 호평을 했다. 댓글 내용으로 보건대 대부분 독자가 한국어 학습 목적으로 구독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번역본이 완역본이 아닌 것을 아쉬워하면서 원본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반응

을 보인다.

번역본의 편폭이 원본의 삼분의 일쯤 된다고 했는데, 원본과 대조해본 결과 내용상 아래와 같은 부분이 빠졌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스토리 전개와 무관한 여러 가지 묘사 부분이 많이 삭제되었다. 특히 <무정>에는 인물의 심리묘사가 대량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다 삭제되었다. 예를 들면 이형식이 영채를 구원할 돈 천원을 구하지 못해서 애태우면서 영채의 신변을 걱정하는 심리묘사 같은 부분이다. 둘째, 남녀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물에 대한 내용이 거의 삭제되었다. 예를 들면 이형식의 학생들과 배학감 관련 내용, 이형식의 하숙집 노파의 과거, 기생 월화 관련 내용 등이다. 셋째, 주인공 관련 내용이라 하더라도 삭제해도 기본 스토리 전개에 큰 영향이 없을 부분은 모두 삭제되었다. 예를 들면 영채가 친척집에서 도망하다가 악한에게 욕을 볼 뻔한 내용, 김장로의 집에서 이형식과 선형의 약혼식이 진행되는 장면, 영채가 몸을 더럽힌 뒤 기생집에 돌아와 우는 장면 등이다. 이로부터 역자는 중한대조본의 특성상 편폭을 줄이되, 작품의 흥미성이나 사상성에 치중하지 않고 다만 중국독자들에게 간결하면서도 완전한 스토리를 소개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삭제된 부분으로 말미암아 작품의 풍성함이 많은 손상을 입었음은 자명하다.

5. 결론

중국에서의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199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10년대에 눈에 띄게 늘었다. 크게 한국문학과 다른 나라 문학을 비교한 비교문학적 연구와 한국문학만을 연구한 일반적인 연구로 나뉘는데, 그 중 비교문학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된 논문이 더 많다. 대부분은 중한문학비교이고 일부 중한일, 한국과 서구문학사상 문학비교가 있다.

비교문학연구논문 중 영향관계의 비교문학논문, 평행적인 비교문학논문이 모두 많으며, 일부는 한 논문에서 두 가지 비교문학 방법론을 모두 적용하기도 했다. 영향관계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내용은 양계초의 사상이 한국근대문학과 한국근대사회에 준 영향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가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준 영향을 들 수 있다. 평행비교 연구로는 중한 두 나라 근대문학사조, 근대문학 사상의 비교 및 작가 작품 비교가 있는데, 가장 많이 비교 연구된 작가 작품은 한국 이광수의 〈무정〉과 중국 노신의 〈광인일기〉이다. 일반적인 한국 근대초기 문학 연구에서도 이광수와 그의 소설 〈무정〉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로부터 중국학계의 이광수에 대한 중시도를 알 수 있다. 이광수는 한국 내에서는 그의 친일경력 때문에 문학적 업적에 비해 다소 홀대를 받는 면이 없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노신에 비견되는 작가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중국학계의 한국 근대초기문학연구는 한국 근대초기문학연구의 자장을 넓혔으며 한국 근대초기문학에 대한 타자의 시선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광수의 〈무정〉은 중국어 번역본이 있으나 이미 절판된 상태이며, 완역본이 없어서 아쉬운 상황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金柄珉, 『朝鮮—韓國文學의近代转型与比較文學』,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2005.
金柄珉等, 『中国现代文學与韩国』(全10卷),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2014.
赵杨, 『中韩近代新小説比較研究』, 北京: 世界图书出版公司, 2010.

2. 학위논문

- 金雪梅, 「鲁迅〈狂人日记〉与李光洙〈无情〉的比较研究」, 中央民族大学硕士学位论文, 2011.
白玉陈, 「朝鲜近代爱国启蒙运动时期小説理論の革新与梁启超」, 中央民族大学博士学位论, 2010.
林惠莹, 「论基督教思想在〈高永规传〉中的表现形态」, 山东大学硕士学位论文, 2010.
袁华玉, 「韩国儿童文學的产生与基督教的影响关系研究」, 山东大学硕士学位论文, 2010.
张乃禹, 「中韩小説现代化转型比較研究」, 苏州大学博士学位论文, 2012.
郑英丹, 「中韩启蒙小説中的女权意识比较」, 对外经济贸易大学硕士学位论文, 2007.
赵颖秋, 「解放前韩国现代文學在中国的传播与接受研究」, 南京大学硕士学位论文, 2014.

- 车美兰, 「李光洙〈无情〉中水的意象研究」,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2014.
- 韩继锦, 「东亚启蒙文学的文化语境比较」,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2003.
- 洪艺花, 「〈天路历程〉的韩译比较研究」,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2007.
- [韩]金芳实, 「中韩现代文学史上的双子座」, 复旦大学博士学位论文, 2003.
- [韩]金洪大, 「中韩近代文学及文艺思想研究」, 山东大学博士学位论文, 2005.
- [韩]孙麟淑, 「东亚文学的近代化研究」, 辽宁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2013.
- [韩]李明信, 「鲁迅与李光洙文学观比较」, 东北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2010.

3. 학술지논문

- 金明淑, 「对李光洙情爱小说的精神分析解读」, 『延边大学学报』第4期, 2009, pp.54-61.
- 金明实, 「试论〈血之泪〉中“梦”的作用」, 『产业与科技论坛』第11卷第24期, 2012, pp.188-189.
- 金柄珉, 「梁启超与朝鲜近代小说」, 『西华大学学报』, 第30卷第3期, 2011, pp.56-66.
- 金柄珉·吴绍九, 「梁启超与朝鲜近代小说」, 『延边大学学报』第4期, 1992, pp.31-38.
- 金柄珉·崔一, 「东亚文学的互动与生成」, 『东疆学刊』第29卷第4期, 2012, pp.11-111.
- 金长善, 「20世纪后半期韩国文学译介在中国」, 『世界文学评论』第2期, 2006, pp.283-285.
- 卢琰, 马金科, 「论李光洙小说的悲剧意识」, 『长春师范学院学报』第9期, 2013, pp.121-123.
- 牛林杰, 张懿田, 「中韩建交二十年来中国的韩国现代文学研究综述」, 『当代韩国』第3期, 2012, pp.27-33.
- 刘广铭, 「试论托尔斯泰对李光洙文学创作的影响」, 『东疆学刊』第4期, 1999, pp.49-53.
- 尹允镇·金顺女, 「建国50年来中国的朝鲜文学研究状况与未来」, 『东疆学刊』第3期, 2000, pp.76-80.
- 尹弘老·廉松心, 「韩国开化期进化论的接受与文学思想」, 『北华大学学报』第11卷第1期, 2011, pp.80-87.
- 张乃禹, 「基督教对近代中韩文学的不同影响及原因探析」, 『苏州教育学院学报』第30卷6期, 2013, pp.51-54.
- 张乃禹, 汤哲声, 「论梁启超对近代韩国思想启蒙及其小说革命的影响」, 『晋阳学刊』第3期, 2012, pp.136-141.
- 田月梅, 「新中国60年中国的韩国文学研究」, 『教育教学论坛』第9期, 2015, pp.72-74.
- 赵扬, 「中韩近代新小说的“新”与“旧”」,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第33卷第2期, 2010, pp.117-120.
- 崔玉山, 「未完成的“女国民”像」, 『东疆学刊』第29卷第3期, 2012, pp.19-24.
- 崔雄权, 金一, 「韩国小说在中国的传播与研究」, 『东疆学刊』第4期, 1999, pp.42-48.
- 崔一, 「中韩近现代文学关系研究的历史与现状」,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第12期, 2017,

pp.140-148.

王金霞, 「韩国近现代著名作家李光洙文学思想探微」, 『延边大学学报』 2014, pp.35-40.
洪永春, 洪燕佳, 「启蒙的不同书写—比较鲁迅的〈狂人日记〉和李光洙的〈无情〉」, 『通化师范学院学报』 第29卷第9期, 2008, pp.68-71.

[韩]林惠彬, 「基督教小说在近代韩国的历史演进」, 『外国文学研究』 第2期, 2015, pp.117-123.

[韩]白亨述, 「中韩新诗比较研究」, 『盐城师范学院学报』 第21卷第1期, 2001, pp.43-46.

[韩]文大一, 「梁启超的“诗界革命论”对韩国文学的影响」, 『河北广播电视大学学报』 第17卷第3期, 2012, pp.41-46.

——, 「梁启超的“新民”思想对申采浩“新国民”思想的影响」, 『东方论坛』 第2期, 2012, pp.9-15.

——, 「梁启超在“开化期”韩国的影响」, 『青岛大学师范学院学报』 第28卷第3期, 2011, pp.106-112.

——, 「梁启超的“教育文学”与近代韩国文人的关系—以梁启超的“小说界革命”对申采浩的影响为中心」, 『西华大学学报』 第3期, 2011, pp.58-64.

——, 「初探梁启超与韩国近代文学的关系—以梁启超与安国善的影响关系为例」, 『绥化学院学报』 第31卷第2期, 2010, pp.95-98.

논문접수일	2021년 08월 04일
심사완료일	2021년 09월 03일
게재확정일	2021년 09월 23일

Abstract

Research of Early Modern Korean Literature in China

Xu, Lianhua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quo of the research on early modern Korean literature in China. The research began in 1999 and has been intensified since 2010. Research approaches are largely divided into comparative literary studies and Korean literary studies, with the former figuring dominantly. In comparative literary studies, most are on Chinese and Korean literature, and some are on Chinese,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or on Korean and west European literature. Early modern Chinese and Korean literature influences each other because the two countries share similar social conditions and trends of literary thought. So many papers apply the approach of influence studies or parallel studies. Some papers even adopt the approach of influence studies combined with parallel studies. In influence studies, the most talked about is the influence of Liang Qichao's ideas on early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society, followed by the Christian influence on early modern Korean literature. In parallel studies, the most talked about is comparison between Mutiny by Lee Kwang-soo and A Madman's Diary by Lu Xun. Aside from comparative literary studies, the study on Lee Kwang-soo and his Mutiny is most popular in China, which represents the great importance attached to Lee Kwang-soo by the Chinese academic circle.

Keyword Early modern Korean literature, Lee Kwang-soo, Liang Qichao, Lu Xun, Comparative literature

蕭紅 문학의 새로운 이해*

—蕭紅 중편소설에 나타난 풍자 특징을 중심으로

김 순 금 **

국문요약

蕭紅은 1930년대 중국 현대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여성 작가이다. 그녀는 31살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40여 편의 소설과 3편(〈生死場〉, 〈呼蘭河傳〉, 〈馬伯樂〉)의 중편소설을 창작하였다. 특히 蕭紅의 중편소설을 살펴보면 그녀만이 지니는 독특한 풍자가 스며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蕭紅의 중편소설에 나타난 풍자 특징을 고찰하고자 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자 했다. 첫째, 蕭紅의 중편소설에 나타난 풍자의 특징이 20세기 초의 시대적 상황과 긴밀하게 관련된다고 보며, 그 관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蕭紅의 중편소설에 등장하는 각 계층의 풍자 대상을 살펴 여성과 농민을 노예화로 만든 봉건 제도와 비뚤어진 지식인의 일탈을 분석하였다. 셋째, 蕭紅의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蕭紅의 독특한 풍자기법을 통해 풍자 특징을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蕭紅의 중편소설은 지나치게 서정성을 중심으로 문체와 서술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나름의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蕭紅 중편소설의 전반적인 특성에서 볼 때, 문학의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蕭紅 문학에서 대안적인 풍자의 대상과 이해관계를 찾으려는 하나의 시도이며, 풍자기법이라는 문학적 특수성에서 출발하여 풍자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 과제로 남는다. 이로써 본 연구를 통해 蕭紅이 단지 수필적인 소설로 대표되는 미학적 가치와는 전혀 다른 풍자의 예술을 추구하는 문학이 존재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풍자, 소흥의 풍자, 풍자의 특징, 샤오흥, 샤오흥의 중편소설, 샤오흥의 문학

* 본 논문은 2020년의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 유형)임.

** 청운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목차〉

1. 서론
2. 문학적 시대적 배경
3. 풍자의 대상
4. 蕭紅의 풍자기법
5. 결론

1. 서론

蕭紅¹⁾은 중국 현대 문단에서 천부적 재능을 지닌 여성 작가이다. 특히 그녀의 중편소설은 담담한 이야기 속에서 때로는 냉소적인 감수성으로, 때로는 예리한 시선으로 현실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풍자하여 독자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겼다. 무엇보다 蕭紅은 풍자의 대상을 개인이 아닌 집단적 현상에 주력하여 풍자적 회화화를 시도하였고 아이러니, 유머와 과장, 냉소와 조소로 사회적 적폐의 민낯을 여실 없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蕭紅의 중편소설은 ‘문학적 미’에만 편중되어 연구해왔다. 또한, 蕭紅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풍자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미비하다. 예컨대, 蕭紅의 풍자는 1979년도에 葛浩文에 의해 제기된 바가 있으며, 90년대에 이르러 郭玉斌, 平石淑子 등 학자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필자는 蕭紅의 중편소설을 중심으로 풍자라는 새로운 시각에 입각하여 그의 특징을 연구하고자 한다. 만약 이전의 연구가 蕭紅의 중편소설을 문체적 측면에서 분석했다면 본 논문은 풍자적 측면에서 출발한 다각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이해했던 蕭紅의 중편소설을 미학적 감수성과 가치를 연구했던 분야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蕭紅의 풍자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蕭紅의 중편소설에 나타난 풍자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 현대풍자의 문학적 시대

1) 蕭紅의 본명은 張迺瑩이고 필명이 蕭紅이다. 1911년 6월 1일에 중국 하얼빈시 呼蘭縣에서 태어나 1942년 1월에 홍콩에서 지병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대표작은 〈生死場〉와 〈呼蘭河傳〉이다.

배경을 살펴보고, 그다음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풍자의 대상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풍자기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문학적 시대 배경

20세기 초, 중국 현대문학은 辛亥革命²⁾의 여파로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특히 胡適³⁾을 중심으로 일으킨 문학혁명⁴⁾은 2천 년 동안 사용해 온 중국의 문어체를 타파하고 백화문 시대를 열어놓았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문학 단체인 文學 研究會⁵⁾와 創造社⁶⁾가 발기되면서 중국 문학의 갈래는 더욱 선명해졌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문학단체의 활성화로 左聯(좌익작가연맹)⁷⁾이 성립되었고, 左聯에서 활동했던 魯迅⁸⁾은 〈阿Q正傳〉을 발표하여 중국 문단에서 최초로 거침없이 정곡을 찌르는 잡문을 탄생시켰다. 이처럼 중국 현대문학은 잡문을 통해 참혹한 현실을 여설함으로써 그에 얻는 풍자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잡문의 탄생은 중국 현대문학을 시대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지으며 봉건

-
- 2) 辛亥革命은 1911년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성립시킨 중국의 혁명이다. 이 혁명은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공화국을 수립한 혁명이기도 하다.
 - 3) 胡適(1891~1962)은 중국의 문학혁명을 주도한 정치가이자 문학가이다. 그는 실용주의적 방법론을 통해 중국을 개혁하고자 했다.
 - 4) 중국의 문학혁명은 1919년 5.4운동부터 1920년대 초에 걸쳐 일어난 중국의 문학 혁신 운동이다. 이는 종래에 쓰던 古文의 문체를 버리고 살아 있는 白話文을 창조하자고 胡適이 제창하고, 陳獨秀 등이 추진하였으며, 魯迅이 그의 소설에서 실천했다.
 - 5) 文學研究會는 1921년 1월에 周作人, 茅盾 등이 '인생을 위한 예술'을 표방하고 사실주의적 문학을 제창하면서 문학단체를 결성하였다.
 - 6) 創造社는 1921년 7월에 郭沫若, 郁達夫 등이 '예술을 위한 예술'을 표방하고 낭만주의적 문학을 제창하면서 문학단체를 결성하였다. 후기에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문학의 계급성을 논한 '혁명문학'을 주장했다.
 - 7) 中國左翼作家聯盟은 1930년 3월에 魯迅, 田漢, 郁達夫 등의 문인들이 성립한 문학단체이다. 이들은 진보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당의 문화적 '포위토벌'을 반대하고, 혁명문학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
 - 8) 魯迅(1881~1936)은 중국 현대문학의 개척자이자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사상가이다. 〈阿Q正傳〉, 〈狂人日記〉 등의 대표작을 발표하여 중국 봉건 제도와 유교적 도덕관을 비판했다.

예교와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겨냥하는 흐름으로 발전하였다. 만약 중국의 풍자 문학을 논한다면, 魯迅의 잡문 탄생 이전까지는 관료나 지방 세력을 중심으로 창작하였고, 魯迅 이후에는 농민, 소시민, 및 지식인에게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시기에 蕭紅은 학창시절을 겪으면서 魯迅의 예리한 잡문에 심취하게 된다. 그리고 1934년에 蕭紅은 천신만고 끝에 꿈에 그리던 魯迅을 만났고, 魯迅의 도움으로 〈生死場〉을 발표하면서 중국 현대 문단에 당당하게 올랐다. 蕭紅의 중편소설을 살펴보면, 그녀의 풍자는 魯迅의 날카로운 잡문과 풍자 정신을 계승한 흔적이 묻어나고 있다. 예컨대, 蕭紅의 〈馬伯樂〉은 魯迅의 〈阿Q正傳〉과 닮은 점이 있다. 단 蕭紅의 풍자에는 시대적 비판을 수용하면서 魯迅의 강렬함보다 아이러니와 조소, 유머로 풍자 접근을 시도한 점이 돋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문학적 시대 배경에 주목하여 蕭紅의 중편소설을 풍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와 연관된 풍자 대상과 풍자기법을 분석함으로써 蕭紅 중편소설에 나타난 풍자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3. 풍자의 대상

풍자의 대상은 개인 혹은 보편적 인간, 또는 집단의 세태일 수 있다. 특히 蕭紅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하층민 그리고 사회의 낙오자를 중심으로 풍자하고 있다. 이는 봉건세력의 지배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조명해볼 때, 특정한 인물에서 풍자의 대상을 설정하는 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蕭紅은 자신이 선택한 풍자의 대상을 부정적인 인물에 주력하여 거침없는 조롱과 비판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蕭紅의 풍자는 개개인이 아닌 집단적인 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주목하여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蕭紅의 중편소설에 설정된 풍자의 대상은 단순히 속물적 개인이 아니라 속물들을 양산하는 당시 사회의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봉건 제도와 전통관습에 의해 억압받는 여성들, 그리고 지배계층에 착취당하는 농민들, 도시에 사는 다양한 계층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의 풍자 대상을 통해 궤멸해가는 사회의 부패 세력들을 파헤치고자 한다.

1) 가부장제에 억압받는 여성

蕭紅의 중편소설은 무기력한 여성을 중심으로 당시 유교 사상과 봉건적인 풍속에 뿌리 깊이 사로잡혀 있는 여성의 비극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 특히 〈生死場〉과 〈呼蘭河傳〉에는 중국의 오랜 전통처럼 굳어진 가부장 제도에 억압받는 여성들이 비일비재하다. 무엇보다 蕭紅은 풍자의 대상을 남성의 종속에서 사는 여성을 설정하여 그들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봉건적인 전통과 단절하고 평등한 인격 존재로 사는 여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것이 비단 중국이 요구하는 여성 해방일지라도 많은 사람이 성 평등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가부장 제도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곁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蕭紅의 중편소설에는 남성에게 순종하는 여성, 남편에게 학대받는 여성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다음은 〈呼蘭河傳〉에서 봉건전통에서 내려온 민며느리제에 억압받는 여성을 보기로 한다. 민며느리제는 장차 며느리가 될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워서 성인이 되면 남자 쪽에서 돈이나 물품으로 대가를 치르고 혼례를 올리는 봉건 풍속이다. 호란하 마을에도 이러한 풍속이 유래되고 있었다. 어느 날, 호씨네 집에는 12살짜리 민며느리가 왔다. 키도 크고 눈도 반짝거리는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시어머니는 ‘초장에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매일 그 애를 때렸다. 민며느리가 온 이후, 울안에는 날마다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울음소리는 비명까지 섞여 있었다. 게다가 민며느리에게 잡귀가 붙었다고 밤마다 큰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했다. 그 어린 민며느리는 푸닥거리에 시달리다 못해 병이 났다. 이번에는 잡귀를 물리쳐야 한다고 더욱 강력한 학대가 이어졌다. 바로 뜨거운 물로 몸을 튀겨서 잡귀를 쫓아낸다는 것이다. 어린 민며느리는 그날 저녁 뜨거운 물로 세 번이나 튀겨졌다. 한 번씩 뜨거운 물로 튀겨질 때마다 한 번씩 기절했다. 다음 날, 어린 민며느리는 의식을 잃은 채 온종일 깨어나지 못했다.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2월이 되기 며칠 전, 그 건강하고‘하하’웃던

어린 민며느리는 싸늘한 시신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 이처럼 민며느리는 전통 풍습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러한 비극은 봉건 풍속이 가해한 참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生死場〉에서 풍자의 대상으로 설정된 여성들을 보기로 한다. 작중 인물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한 진즈, 웨잉, 곰보댁은 모두 가부장제에 의해 희생양이 된 여성들이다. 진즈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남편과 결혼했다. 명절 바로 전날, 진즈네 집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남편은 아직 차려지지 않은 밥상을 보고 무섭게 소리를 질러댔다. “에잇, 나 같은 놈은 굶어 죽으라는 건가? ……” 진즈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차렸다. 아기가 옆에서 울어댔다. “울어라! 집안 말아먹는 귀신 같으니, 너를 팔아서 빚이나 갚아야겠다.” 부엌에 있던 진즈는 성냥처럼 타올랐다. “그러는 당신은 어떤데? 집에 와서는 소리 지르고, 때리고, 내가 당신 원수야? 팔 테면 어디 팔아봐!” “팔려면 못 팔 줄 알고! 이 애부터 던져버리겠어! ……” 그렇게 그 작은 생명은 친아빠에게 무참히 살해되었다. 이처럼 젊은 진즈도 가부장제의 그늘에 피해갈 수 없었다.

어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웨잉도 마찬가지였다. 웨잉은 결혼하고 나서 반신불수가 되었다. 치료해도 효과가 없자 남편은 불구가 된 아내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밥도 주지 않고 온종일 벽돌로 그녀를 괴어 놓았다. 날이 밝을 때까지 울부짖어도 남편은 학대를 일삼았다. 웨잉은 엉덩이에 구더기가 생기고, 치아는 녹색으로 변했어도 남편은 마치 귀신을 대하듯 무관심으로 인해 웨잉은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 웨잉의 최후도 역시 가부장제의 남성 우월주의가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녀의 관계는 우월성과 열등감에 있다는 데 있다. 남편은 자신이 단지 남성이라는 특권으로 아내를 지배하고 학대하는 것이다.

葛浩文은 蕭紅의 풍자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蕭紅의 작품에는 가엾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독자들에게 여성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가련하고 비천한 위치를 차근차근 이해하게 했다.”⁹⁾ 이렇듯 葛浩文이

9) 葛浩文, 『蕭紅評傳』, 北方文藝出版社, 1985, p.164.

在蕭紅的作品中，以哀憐的女性爲主角，讓讀者自己一步一步領會到女性們在以男性

제기한 여성의 열악한 위치는 당시 사회의 봉건 제도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즉 봉건 사회에서 남성에게 순종을 강요당하고, 남편에게 학대당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한 장본은 가부장 제도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데 있다. 이처럼 여성의 비극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가부장제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蕭紅은 풍자의 대상을 가부장 제도의 상징인 ‘억압’, ‘학대’, ‘폭력’과 연관 지어 가부장제의 폐해를 고발하고자 했다.

2) 지배계층에 억압된 하층민

蕭紅은 중편소설에서 망가진 농민을 풍자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당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비판하고자 했다. 특히 〈生死場〉과 〈呼蘭河傳〉에 설정된 얼리반, 유씨 둘째 아저씨, 입비뚤이 풍서방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얼리반은 정신 상태가 아주 낮은 소작인이다. 그는 평소에 가족보다 가축에 더 애착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어느 날, 염소가 보이지 안 차 얼리반은 허둥지둥 염소 찾느라 이웃집 배추밭을 망가뜨려 주인에게 호되게 매를 맞았다. 그가 염소를 볼 때마다 눈앞에 매 맞던 아찔한 장면이 떠올라 소름이 끼쳤다. 이때, 얼리반의 모습은 아주 우스꽝스러웠다. 처음은 ‘머리를 떨구고 모욕감에 잠자코 있었고’, 그다음은 ‘담배를 피우면서 염소의 불길함을 절실히 깨달았으며,’ 마지막은 ‘염소가 자신의 체면을 구겨놓을 수도 있구나.’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얼리반은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 아내와 아들을 차례로 잃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처럼 蕭紅은 무능한 얼리반을 풍자 대상으로 설정하여 당시 농촌 사회에서 지배계층에 의해 망가진 농민의 삶을 그려냈다.

유씨 둘째 아저씨도 가난에 찌든 하층민이다. 그는 30여 년 동안 蕭紅네 집에 잡일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다. 거짓말도 곧잘 하고 물건도 자주 훔쳤다. 蕭紅의 아버지가 그를 자주 때렸지만, 가난은 그에게 가칠할 꿈도 주지 않았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욕은 ‘후손이 끊긴 놈’이다. 유씨 둘째 아저씨는 이 욕을 그 어떤 욕보다 화를 내었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누가 아니래, 죽어도 봉

분에 흙 한 줌 없어 줄 사람도 없으니! 한평생 살았어도 헛살았지. 마지막 가는 길에 아무것도 없는 빈 텅텅이라니 ……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죽은 뒤에도 상여 뒤에 조기를 들고 갈 상주도 없으니.”라고 한탄하며 목을 맨 적도 있었고, 우물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결국 자살은 하지 못했다. 가난은 그에게 자살할 용기도 주지 않았다.

입비뿔이 풍서방 역시 하루도 쉴 틈 없이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었지만,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었다. 게다가 그의 아내가 임동설한에 아기를 낳았지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헛간에 아기를 두어야 했다. 산모와 아기가 얼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불행을 지켜보는 구경꾼들이 많았다. 예컨대, 蕭紅 집의 늙은 요리사는 헛간을 탐방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그 건초 헛간은 정말 추워요. 그 아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데 아마 얼어 죽었나 봐요. 어서 구경하러 갑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 번 동태를 살피러 나갔다가 “제기랄! 죽지 않았어! 그 아기는 아직 죽지 않았어!”라고 서운한 표정까지 지었다. 마을 주민들은 입비뿔이 풍서방이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언젠가는 목을 맨 것이라고 예언하였지만 그는 결국 자녀 양육으로 인해 죽지 못했다.

이처럼 열리반, 유씨 둘째 아저씨, 입비뿔이 풍서방은 모두 지배계층의 착취로 인해 망가진 인생을 살았다. 당시 북중국을 관료나 지주가 대량의 농토를 점유하여 소작농에게 높은 토지세를 받으며 지배계층으로 살았다. 이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끊임없이 착취하고, 이로 인해 하층민들을 가난의 연속으로 살아가야 했다. 때문에, 하층민의 빈곤은 당시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봉건 체제 안에서 나누어지는 지배계층과 피지배 계층, 그리고 그에 따른 풍요와 빈곤, 특혜와 억압의 연결고리가 지속하면서 하층민의 삶을 가혹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蕭紅은 가난에 허덕이는 하층민을 풍자 대상으로 설정하여 당시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비판하고, 이로 인해 망가진 하층민의 비참한 생활상을 반영하고자 했다.

3) 퇴폐한 지식인

蕭紅은 馬伯樂을 풍자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문화적 기반을 갖춘 지식인의 비열한 정신 상태를 고발하고자 했다. 馬伯樂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피를 선택했다. 그의 인생철학은 ‘만사는 퇴보의 여지를 남겨두는 법이다.’ 그의 ‘퇴보’는 바로 ‘도피’이다. 그는 일본군이 침략하면 자신은 곧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준비라는 뜻도 역시 도피할 준비이다. 그리고 준비했으면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도 도피하는데 필요한 행동이었다. 馬伯樂은 자신이 일본군의 침략에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든 민족의 위기가 몰아닥치든,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안전과 생명에 열중하는 알박한 인물이다.

蕭紅의 풍자는 단순히 馬伯樂의 개인적인 일탈을 풍자한 것은 아니다. 이는 蕭紅이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야비한 지식인을 겨냥하여 馬伯樂을 풍자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의견은 蕭紅의 문학을 오랫동안 연구한 葛浩文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 葛浩文은 蕭紅의 풍자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馬伯樂은 비록 蕭紅에 의해 예리한 풍자의 핵심 대상이 되고 있지만, 소설 속에 그가 선택된 것은 유일한 대상이 아니다. 이는 대도시에서 사는 우매한 하층민들, 아부 떠는 사람들, 무의식하게 사는食客들,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 종류의 비굴한 자들을 가장 추악한 얼굴로 독자 앞에 하나하나씩 드러내곤 했다.”¹⁰⁾ 蕭紅의 풍자 대상에 대해 季紅眞¹¹⁾의 논의도 찾아볼 수 있다. “蕭紅은 대도시에서 호리명당하게 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 아부와 아침을 일삼는 부류들, 뻔뻔하고 얹치없는食客들, 각종 파렴치한 소인배들의 추악한 모습들을 풍자하였다. 이런 인물들은 모두 궤멸해가는 사회의 부패 세력들을 구현하고 있

10) 葛浩文, 『蕭紅評傳』, 北方出版文藝社, 1985, pp.132-133.

(雖然馬伯樂是蕭紅尖刻諷刺下的主要對象, 但他却不是書中唯一的對象。那些大城市中的芸芸衆生、那些阿諛者、無所事事的食客, 和社會上各種卑鄙的分子, 都會以他們最醜惡的面目一一呈現在讀者面前。)

11) 季紅眞(1955~)은 중국 심양사범대학교 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이다. 고향은 절강성(浙江省)이지만 동북지역에 거주하면서 蕭紅의 작품을 연구해왔다. 대표작은 〈蕭紅傳〉이다.

다.”¹²⁾ 季紅眞과 葛浩文의 주장에서 엿볼 수 있듯이 蕭紅은 시대적으로 불합리한 봉건 제도와 전통관습에 의해 억압받는 여성들과 농민들, 그리고 도시에 사는 다양한 계층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인물들은 모두 궤멸해가는 사회의 부패 세력들을 구현하고 있다.

4. 蕭紅의 풍자기법

풍자는 대상의 약점을 비꼬아 말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부정적인 본질을 비판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따라서 작가들은 풍자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풍자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독자에게 경멸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蕭紅의 중편소설을 살펴보면 비극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풍자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무엇보다 蕭紅은 아이러니, 과장과 유머, 냉소와 조소 등의 풍자기법을 사용하여 절망적인 비극을 승화하여 해학과 유머로써 설파해 나갔다. 예를 들면, 蕭紅은 곰보댁의 비극적인 삶을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패러디하여 독자에게 침체 된 분위기를 환기했다. 따라서 본 장은 蕭紅의 중편소설에 나타난 아이러니, 과장과 유머, 냉소와 조소로 蕭紅의 풍자기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아이러니

일반적으로 아이러니는 옳은 말을 반어로 사용하여 비꼬는 뜻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문학적 측면에서 아이러니의 개념은 비교적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 가운데 풍자문학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말과 실질적인 의미 사이에 생긴 괴리¹³⁾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반어를 사용하여 현실과 표면상에 드러나는 사건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서 풍자의 효과를 더하게 한다는 것이다. 蕭紅의 중편

12) 季紅眞, 『蕭紅傳』, 北京文藝出版社, 2000, p.375.

(蕭紅諷刺了大城市里醉生夢死的諸色人等, 那些阿諛奉承之徒, 無聊且無恥的食客, 各種各樣卑鄙小人的醜惡嘴臉。這些人物都體現着潰敗的社會中的腐朽勢力。)

13) 趙寬熙, 『아이러니와 소설』, 『中國小說論叢』, 第10集, 1999, pp. 18-19.

소설을 살펴보면 아이러니한 기법들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蕭紅은 〈呼蘭河傳〉에서 지복위친¹⁴⁾으로 결혼한 여성들을 아이러니하게 풍자했다.

젊은 여자는 자기가 왜 이런 운명을 가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곧잘 비극이 빚어졌다. 즉 우물에 뛰어드는 이도 있고 목을 매어 죽는 이도 있었다. 옛말에 ‘여자는 싸움터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으나 사실 맞는 말이 아니다. 그 여자가 빠져 죽은 우물은 얼마나 깊은가? 뻔한 일이지만 만약 어떤 남자에게 이 우물로 빠져들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면 그도 역시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개 젊은 여자가 결국 빠져 죽고 만 것이다. 전장에 나간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니다. 돌아와 미관말직이나마 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물로 뛰어들면 죽지 않기가 몹시 어렵다. 뛰어들면 대부분 죽게 된다. 그런데 열녀비에는 왜 여자가 우물에 얼마나 용감하게 뛰어들었는가에 대한 찬사는 쓰여 있지 않을까? 그것은 열녀비를 세운 사람들이 일부터 빼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열녀비를 세운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집에도 역시 여자가 한 사람을 있을 것이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열녀비에 쓰면 앞으로 그가 자기 여자를 때리거나 할 때, 그 여자도 우물로 뛰어들까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자기 여자도 우물로 뛰어내려 아이들을 무더기로 남겨 놓는다면 정말 어찌해야 할까? 그래서 한결같이 쓰지 않은 것이다. 얌전하고 우아했다느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효성스럽고 순종적이었다느니 하는 따위만 썼을 것이다.¹⁵⁾

蕭紅은 지복위친으로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의 학대에 이겨 내지 못하고 스스로 우물에 뛰어든 사례를 통해 지복위친의 불합리한 혼인 관습을 고발하고자 했다. 蕭紅은 자살을 택한 여성들에게 ‘용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용감하지 않고 비굴하게 자살했다. 그리고 비석은 마땅히 전쟁터에서 전사한 군인들에게 세워줘야 하는데, 蕭紅은 자살한 여성들에게 열녀비를 세워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모두 본질과 현상이 불일치하고 또한 앞뒤의 말이 어긋난다. 즉 蕭紅의 서술과 현실이 어긋남으로써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蕭紅은 아이러니를 통해 봉건전통이 미만한 당시

14) 지복위친(指腹爲親)은 중국 전통사회에서 내려온 일종의 혼인 관습으로 본다. 즉 임신한 두 여성의 배를 지목하여 서로 사돈을 맺고 정혼하는 풍습이다.

15) 샤오홍, 원종례 옮김, 『호란하 이야기』, 글누림, 2014, p.88.

사회에서 많은 여성이 혼인 풍습에 의해 자유롭지 못함을 반영하고자 했다. 다 음은 항일전쟁 시기에 아이러니로 풍자한 馬伯樂의 행동을 보기로 한다.

“황푸강의 큰 전쟁을 보았어?” 馬伯樂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張大耳朵가 또 물었다. “마씨,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이런 위대한 시기에 당신은 왜 관심을 두지 않아? 중화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한 페이지를 시작한다고 한 당신은 무슨 느낌이 없는가? 馬伯樂은 여전히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당신 말이야, 마씨,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요? 며칠 전에 내가 거리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은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때 당신은 분명 분노하고 있었어. 당신에게는 민족정신이 있었고, 격분해서 거리로 나왔었어, ……” 馬伯樂은 슬픈 눈빛으로 그를 경멸하게 노려보면서 고통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 張大耳朵가 馬伯樂을 부르면서 “마씨, 요즘 당신은 무슨 상사병에 걸린 건 아니지?” 이런 말을 듣자 馬伯樂은 화가 버럭 나서 “제기랄 중국인 같은 놈이라고!”라고 욕을 했다. 馬伯樂은 “이놈, 정말 바보스럽군, 국가가 어떤 지경에 처했는데 아직 이런 식이야.” 이런 말을 아직 꺼내 기도 전에 張大耳朵는 “나는 정말 이해되지 않아, 중국 청년들이 만약 모두 당신 같 았으면 모두 끝장날 거야.”¹⁶⁾

蕭紅은 張大耳朵의 아이러니한 대화를 통해 馬伯樂의 이중적 성격을 폭로하 고자 했다. 馬伯樂의 친구인 張大耳朵는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어떻게 된 사람이요?’, ‘당신은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때 당신은 분명 분노하 고 있었어.’로 馬伯樂의 언행 불일치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꼬았다. 馬伯樂은 입 으로는 항일투쟁을 외치면서 행동은 비굴하게 도피 생활을 택했다. 여기서 필자 는 馬伯樂의 언행 불일치로 인해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馬伯樂의 언 행에서는 분명히 일본 침략자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행동에서는 그 본질과

16) 蕭紅, 『蕭紅全集』, 哈爾濱出版社, 1991, pp.481-482.

黃浦江上空大戰，你看見了嗎？”馬伯樂一聲沒響。 張大耳朵又說：“老馬，你近來怎 麼消沉了？這樣衛大的時代，你都不關心嗎？對於這中華民族歷史開始的最光榮的一 頁，你都不覺得嗎？馬伯樂仍是一聲沒響。“我說，老馬，你怎麼了？前些日子我在街 上遇見你時，你並不是這個樣子，那時時候你是憤怒的，你是帶着民族的情感很激憤 地在街上走。 ……”馬伯樂輕蔑地用他悲哀的眼睛做出痛苦的微笑來。 張大耳朵招呼着 馬伯樂：“老馬，難道你近來害了相思病嗎？”這一下子反把馬伯樂氣壞了。 他說：“真 他媽的中國人！”馬伯樂想：“這小子真混蛋，國家都到了什麼時候，還來這一套。”不 過他沒有說出來。 張大耳朵說：“我真不能理解，中國的青年若都像你這樣就糟了。

현실이 불일치했다. 그리고 馬伯樂은 자신이 지식인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우수하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그는 도피주의에 불과하다. 그는 盧溝橋¹⁷⁾ 사변이 일어나자 바로 상하이로 도피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차하게 이어갔다. 이러한 행동에서도 그의 이중적인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 馬伯樂은 자신의 약점들을 감추기 위하여 도피에 대한 그럴싸한 변명도 늘어놓았다. 이는 ‘만사는 퇴보의 여지를 남겨두는 법이다’였다. 그가 말한 퇴보는 바로 도피였다. 그는 일본군이 침략하면 자신은 곧 준비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준비라는 뜻도 바로 도피할 준비라는 것이다. 그리고 준비했으면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한 것도 역시 도피하는데 필요한 행동이었다. 이처럼 馬伯樂은 입으로는 항일을 외치면서 행동은 도피를 선택하는 이중적인 모습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했음을 엿볼 수 있다. 蕭紅은 馬伯樂의 아이러니한 행동을 통해 항일전쟁 시기에 일부 지식인들이 전란의 틈을 타서 도피 등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이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추악한 행위를 비판하고자 했다.

이로써 본 절에서는 蕭紅에 의해 사용된 아이러니의 기법을 살펴보았다. 특히 蕭紅은 부정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명백한 사실에서 현실과 불일치한 점들을 찾게 유도했다. 즉 독자들이 이러한 묘사에서 모순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현실에서 진정한 정답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蕭紅의 아이러니는 독자에게 현실적 묘사보다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더 나아가 蕭紅의 진정한 풍자기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2) 과장과 유머

과장과 유머는 풍자기법 중 하나이다. 그의 특징은 왜곡된 사실을 확장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 즉 사회의 부조리나 부정적 인물을 유쾌하게 확장 해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재미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다. 蕭紅의 중편소설을 살펴보면 고통과 죽음이라는 비극성과 현실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들어있

17) 盧溝橋事變은 1937년 7월 7일에 평타이에 주둔하고 있던 500명의 일본군이 중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盧溝橋를 침입하여 사격 훈련을 실행하면서, 중일전쟁이 발발하였다.

다. 이에 蕭紅은 과장과 유머로 비극적 요소들을 희화화시키려고 시도했다. 다음은 곰보 댁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유머 있게 풍자한 사례를 보도록 한다.

곰보 댁의 얼굴에 땀이 구슬처럼, 콩처럼 곰보 자국 하나하나를 적시며 흘러내렸다. 곰보 댁은 나비가 아니므로 날개가 없었고, 곰보 자국만 선명했다. 나비 두 마리가 곰보 댁 앞을 나폴나폴 날아갔다. 그녀가 젖은 손으로 날고 있는 나비를 내려치자, 한 마리가 대야에 빠져 죽어 죽어버렸다! 그녀는 몸을 숙인 채 계속 빨래를 했다. 땀이 입으로 흘러 짭짤한 맛이 났다. 흘러든 땀 때문에 눈이 너무 따가워서 급히 젖은 손으로 닦아냈다. 그러면서도 빨래는 계속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그런 것처럼 때 국물이 번져, 멀리서 보면 연극 무대의 축(丑) 역에 꼭 맞을 성싶었다. 눈은 쇠눈보다도 크고 얼굴에도 얼룩진 무늬가 있었으니 말이다. …… 곰보 댁의 할 일은 끝이 없었다. 필요하면 그녀는 하던 일을 놓아두고 다른 일을 하러 갔다. ……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빨감을 가지러 갔다. 손에 든 짚이 반은 땅바닥에 끌리고, 나머지 반은 앞치마 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렇게 짚단을 끌어안고 어정어정 걸어갔다. 머리카락이 날려 얼굴을 덮자, 곰보 댁은 한 마리 어미 곰이 되었다! 어미 곰이 짚을 안고 굴속으로 들어간다. …… 곰보 댁은 원한을 품지 않는 성격이었다. 불쾌한 일이 있거나, 남편이 욕을 하거나, 이웃과 말다툼이 나거나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성가시게 굴 때도 항상 충농처럼 녹아내렸다. 그녀는 반항하거나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숨 죽은 한 조각 목화솜처럼 영원히 슬픔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훌쩍이면서도 발길 가는 대로 밖으로 나가 마른 옷을 걸어 들였다.¹⁸⁾

蕭紅은 작품 속에 곰보 댁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하여 비극적인 측면을 유머와 과장을 통해 해학적으로 연출해냈다. 이 또한 풍자가 추구하는 효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蕭紅의 풍자가 예사롭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황은 비록 비극이지만, 독자를 유쾌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이 蕭紅 풍자의 특징이다. 독자들은 때 국물로 얼룩진 곰보 댁의 얼굴을 통해 연극배우 중 가장 못생긴 축(丑)의 역할을 떠올렸고, 짚단을 끌어안고 어정어정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한 마리 우둔한 어미 곰 같은 형상을 떠올렸다. 蕭紅은 비록 곰보 댁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풍자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당시 여성들의 비극적인 삶을 엿볼 수 있다. 蕭紅은 자유롭게 나는 나비와 설 틈이 없이 일

18) 샤오홍 지음, 이현정 옮김, 『생사의 장』, 시공사, 2011, pp.15-21.

만 하는 곰보 댁을 재미있게 비교했다. 곰보 댁은 새벽에 일어나면 밥을 지어야 하고 밥을 먹고 나고 나면 산더미 같은 빨래가 그녀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비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우유 재채한 삶을 누린다. 어떻게 보면 곰보 댁은 나비보다도 못한 삶을 산다. 가끔 나비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지만,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곰보 댁보다 나은 삶인 것 같다. 그리고 蕭紅은 곰보 댁의 성격을 원한을 품지 않는 성격이라고 유머 있게 풍자했다.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억압이나 공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원한과 분노를 품는다. 하지만 곰보 댁의 성격은 아무리 억압을 받아도 ‘춧놓처럼 녹아내린다.’ ‘숨 죽은 한 조각 목화솜’과 같았다. 이는 포기하거나 무력감으로 자기의 한계를 숨길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蕭紅은 곰보 댁의 비극적 삶을 유머 있게 풍자하여 당시 여성들이 겪는 험난한 역경을 폭로했다. 다음은 〈生死場〉에서 과장으로 묘사한 청예의 성욕을 보기로 한다.

조용한 물굽이에 습한 기운이 있었다. 남자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5분 뒤, 처녀는 병아리처럼 그 자리에서 야수에게 눌러 있었다. 남자는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의 큰 손이 처녀의 육체를 무섭게 붙잡고 있었다. 그 육체를 삼켜버릴 듯, 그 따뜻한 육신을 부숴버릴 듯, 혈관이 부풀 대로 부풀어 오른 남자는 마치 하얀 시체 위에서 날뛰고 있는 것 같았다. 처녀의 회고 둥근 다리는 남자의 몸을 감아 잡을 수도 없었다. 온갖 소리가 욕망에 사로잡힌 이 두 괴물의 몸에서 만들어졌다. 꽃잎들은 하늘하늘 떨어지고, 뒤쪽의 긴 풀들이 쓰러졌다! …… 긴장한 남자는 사냥개가 잡은 짐승을 물고 가듯 처녀를 데리고 수수밭으로 들어갔다. 걸으면서도 남자의 손은 처녀의 옷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휘파람을 불면서 채찍 소리를 울리면서 남자는 인생이 따뜻하고 즐겁다고 생각했다. 그의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충만해졌다.¹⁹⁾

蕭紅은 청예의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풍자했다. 청예가 진즈를 겁탈할 때, 그의 모습은 마치 야수가 한 마리 연약한 병아리를 덮치듯이 ‘미쳐 날뛰다.’, ‘육체를 삼켜버릴 듯’, ‘욕망에 사로잡힌 괴물’이었다. 그리고 겁탈당한 진즈는 마치 ‘사냥개에 잡힌 짐승’처럼 불쌍하게 묘사했다. 성욕은 비록 인간과 동물에게 있는 본능적인 욕구지만, 사람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사

19) 샤오홍, 이현정 옮김, 앞의 책, 2011, pp.34-35.

회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당시 시대성을 볼 때, 남성의 생물학적 우월성을 강조하였기에 청예의 야수 같은 행동은 가능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성적 도구로 사용해왔기에 진즈의 행동은 나약하고 순종적일 수밖에 없다. 독자들은 蕭紅의 과장된 묘사를 통해 남성은 무조건 강해야 하고 여성은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성 역할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蕭紅은 청예의 성욕을 과장된 표현으로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봉건사회에서 비롯된 성의 지배인식이 남성에게 소유되는 남성 우월성을 비판하고자 했다. 다음은 과장과 유머로 풍자한 호란하 마을의 정경을 보기로 한다.

두부 장수가 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환영 일색이다. 문을 열고 환한 웃음을 얼굴 가득 띠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피차간의 의기투합이라도 한 것 같은 감정이 이목목히 솟았다. 두부 장수의 미소는 마치 “내 두부는 참 좋다고”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두부를 사는 사람들의 미소는 마치 “당신 두부는 과연 훌륭하군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 두부 한 모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날까? 피망을 좀 썰어 넣고 쪽파를 뿌린다면! 그러나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해도 날마다 살 수는 없으니 두부 장수가 오면 이런 사람들은 공연히 한바탕 유흥을 받곤 한다. 유흥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을 떨치지 못하여 고추만 몇 입 더 먹다가 매워서 진땀만 흘리곤 하였다. 그들은 각자 두부 공장을 하나씩 차리면 자유롭게 무제한 두부를 먹을 수 있을 테니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곤 했다. 과연 다섯 살 난 그들의 아들에게 “너 크면 뭐 할래?”하고 물으면 다섯 살배기인데도 불구하고 “두부 공장을 차릴 거야.”라고 냉큼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분명 자기 부친이 이루지 못한 소망을 계승하려는 것이지 뭔가. 두부라는 이 미묘한 음식에 대한 애호가 이보다 더욱 심한 상황도 있다. 두부 때문에 온 집안 재산을 날리는 파산까지 감수하려는 상황도 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두부 한 모를 사 먹으러 가자!”라고 작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러나’의 의미는 옛날 말로 하면 ‘가산(家産)을 모두 털어 국난(國難)을 구제한다.(毀家纾難)’는 뜻이고 현대어로 말하면 바로 ‘나는 망했다.’라는 뜻이다.²⁰⁾

蕭紅은 유머와 과장을 통해 두부 한 모에 벌어지는 괴이한 현상들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하였다. 두부는 자고로 서민적 음식으로 전해졌지만 호란하 마을에

20) 샤오홍, 원종례 옮김, 앞의 책, 2014, pp.53-54.

는 두부 한 모에 목숨을 걸 만큼의 유혹이 벌어진다. 마을 사람들의 환한 웃음과 두부 장수의 미소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가고, 그다음 두부 한 모에 대한 상상의 날개가 펼쳐진다. ‘피망을 넣고 쪽파를 뿌려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이 ‘두부 공장을 차리는 꿈’까지 꾸게 했다. 그리고 두부 한 모를 사 먹기 위해 ‘가산을 털어야 한다.’는 과장된 표현도 서슴없이 나온다. 이는 두부에 목숨 걸 만큼 절실하게 먹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대목이다. 이처럼 蕭紅은 당시 가난에 찌든 마을 사람들이 두부 한모를 먹고 싶은 절박한 심정을 과장과 유머로 묘사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하층민의 각박한 삶을 반영하고자 했다. 이에 대하여 茅盾은 〈呼蘭河傳〉을 극찬하면서 “이 작품은 풍자도 있고, 유머도 들어있다. 처음 읽을 때는 가벼운 느낌이 들었지만 읽을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이 있고, 또한 이 아름다움 속에 약간의 오점도 있었지만, 여전히 당신을 현혹되게 할 수밖에 없다.”²¹⁾고 설명했다.

이러한 유머와 과장은 〈馬伯樂〉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蕭紅은 주인공의 이름부터 유머 있게 지었다. ‘伯樂’의 유래는 중국에서 천리마를 알아주는 사람을 지칭한다. 蕭紅은 중국 속담에 ‘천리마는 많이 있는데, 백락은 별로 없구나.(千里馬常有, 而伯樂不常有)’를 인용하여 주인공에게 伯樂이라는 제법 근사한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馬伯樂은 이름처럼 안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천리마처럼 재주도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일제 강점기 시기에 망가진 삶을 사는 지식인에 불과했다. 다음은 유머와 과장으로 묘사된 馬伯樂의 행동을 보기로 한다.

馬伯樂의 슬픔은 커지면 커졌지 줄지 않았다. 그는 날씨가 흐리면 “회색빛 세계 구나!”라고 하고, 날씨가 맑으면 “해가 나오니, 날씨가 맑아졌네”, “날씨가 맑으면 큰길은 금방 마르겠네.” “큰길이 마르면 마치 비가 오지 않은 것처럼 말이야.” 그는 이런 방식으로 보편적인 생각을 해왔다. “인생은 아무런 재미가 없어. 만약 돈이 없다면.”, “피난 가려면 우선 도피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 “일본군이 청다오에 침략

21) 蕭紅, 『蕭紅全集-〈呼蘭河傳〉茅盾後記』, 哈爾濱出版社, 1991, p.704.

(〈呼蘭河傳〉有諷刺, 也有幽默。 開始讀時有輕鬆之感, 然而愈讀下去心頭就會一點一點沉重起來。 可是, 仍然有美, 即使這美有點病態, 也仍然不能不使你炫惑。)

해온다면 꼭 도망가고 말 거야.” “마누라가 피난 오면 돈은 꼭 챙겨 오겠지.”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이 문제 될 것이 없지.” “만약 일본군이 청다오까지 침략하지 못한다면 마누라는 반드시 상하이에 올 수 없겠지.” “마누라가 오지 못한다면, 집에 또 들어가야겠지.”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그는 입을 뻐죽이며 극 중의 노래 몇 마디를 불렀다. ‘楊延輝²²⁾가 안방 주인으로 되었으니 한숨만 나오네……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비참하구나 ……」 馬伯樂은 드디어 기뻐하는 날이 돌아왔다. 그의 슬픈 감정은 모조리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바로 그가 北四川路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이삿집 차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 馬伯樂은 보자마자 “좋았어. 피난 가구나.” 그가 다가가 묻자 과연 한 여인이 애를 업고 그에게 “끔찍해요. 일본군이 閘北으로 침략해온대요. 모두 다 도망가버렸어요.”라고 말하면서, 그 여성은 북쪽을 가리키며 황급히 뛰어갔다. 馬伯樂은 듣자마자 정확한 사실임을 알고 마음속으로 사뭇 기뻐했다. “이런 것을 잘 보아줘야지?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 오늘 안 보면, 내일은 못 보니까.”²³⁾

馬伯樂은 비록 처자식을 둔 가장이지만, 자립하지 못하고 항상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소지한 돈이 바닥을 드러내자 바로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인생은 아무런 재미가 없다’라고 한탄했다. 그의 이상야릇한 행동은 점점 더 심각해진다. 그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전쟁 나기를 기다렸다. 그에게 전쟁은 일종의 핑계였다. 일본군이 침략해오자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황급하게 피신하는데 그는 오히려 신이 나서 구경했다. 馬伯樂은 평소에 물질에 찌든 아버지가 역겹다고 화를 자주 내었다. 하지만 지

22) 楊延輝는 楊家將 연극에서 나온 북송 장군 楊業의 셋째 아들이다.

23) 蕭紅, 앞의 책, 1991, pp.459-460.

馬伯樂의悲哀是有增無減的, 他看見天陰了, 就說: “是個灰色世界呀!” 他看見太陽出來了, 他就說: “陽出來了, 天就晴了。” “天晴了, 馬路一會兒就幹了。” “馬路一幹, 就像沒有下過雨一樣。他照着這個格式普遍的想了下去。 “人生沒有什麼意思的, 若是沒有錢錢。”, “逃難先逃是最好的方法。” “小日本打來是非逃不可。” “小日本打到青島, 太太是非帶錢不可。” “有了錢, 一切不成問題了。” “太太來不了, 又得回家了。” 一想到回家他就開口唱了句大戲: “楊延輝坐宮院, 自思自嘆 ……」 想起了當當年事, 好不慘然 ……」 馬伯樂終歸有一天高興起來了。他的優傷的情緒完全一掃而空。那就是當他看見了北四川路絡繹不絕地跑着搬家的車子了。馬伯樂一看: “好了, 逃難了。” 他走上去一問, 果然一個女人抱着孩子向他說: “不得了, 日本人要打閘北 ……」 都逃空了。” 那女人往北指着, 跑過去了。 ……」 馬伯樂一聽, 確是真的了。他心裏一高興, 他想: 這還不好好看嗎? 這樣的機會不多呀! 今天不看, 明天就沒有了。

금의 모습은 자신도 아버지와 똑같이 돈에 노예가 되어 있었다. 蕭紅은 馬伯樂의 허위성을 드러내는 행동에서 즐거움을 유발하고 흥미를 고조시키는 효과를 낳게 했다. 이처럼 蕭紅은 馬伯樂의 감정 변화를 유머 있게 과장함으로써 비극과 희극의 충돌을 통하여 사회의 낙오자 모습을 가소롭게 묘사해냈다.

3) 냉소와 조소

‘냉소하다’, ‘조소하다’라는 뜻은 경멸적인 조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냉소와 조소는 인간과 사회의 모순을 쓴웃음으로, 채지 있게 풍자함으로써 모순된 현실을 조롱하는 것이다. 蕭紅의 중편소설을 살펴보면, 등장인물에 대한 냉소와 조소가 혼재되어 있다. 이는 蕭紅의 작품이 대부분 화려하면서도 감성이 풍부한 문체로 창작해 온 배경을 비교해 볼 때, 냉소와 조소는 독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蕭紅의 이러한 생소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蕭紅의 중편소설에는 냉소와 조소로 부정적인 인물이나 사건들을 비틀고 꼬집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生死場〉에서 蕭紅은 냉소와 조소로 왕씨 아주머니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비꼬았다.

왕씨 아주머니는 일하고 남은 시간이면 끝없이 신세타령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이야기하다 종종 이를 갈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한과 억눌린 분노를 표현했다. 별빛 아래 그녀의 주름살이 푸르게 보였다. 눈에서도 푸른빛이 났다. 그녀의 눈은 크고 둥글었다.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면, 그녀는 격격거리면서 오르내림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웃의 아이들은 그녀를 ‘부영이’라고 불렀다. 그럴 때면 그녀는 화를 냈다. 자신이 어떻게 그런 괴물과 같을 수 있는가? 무슨 이물질이라도 뱉어내려는 것처럼, 그녀는 가래를 뱉기 시작했다. …… (중략) 그녀는 또 오르락내리락 리듬을 타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딸아이 하나가 세 살이 되었을 때, 애를 짚더미에 올려놓았더니 떨어졌어. 피가 온통 짚더미로 흘렀고, 조그만 손이 바르르 떨리면서, 김이 솟는 피가 코에서도 흐르고 입에서도 흘러나오더군. 배에서 아직 소리가 나나 들어봤어. 강아지가 수레바퀴에 깔려 죽은 것과 비슷했어. 나도 직접 본 적이 있거든. 하긴 내가 안 겪어본 게 없지. 우리 마을 어느 집에서 임신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 내가 가서 갈고리나 채소 캐는 칼 같은 것으로 태아를 끊

어네 주곤 했지. 아이가 죽는 게 뭐 별일이겠어. 자네들, 내가 미쳐 날뛰며 울었을 것 같지? 통곡하면서? 처음에는 나도 심장이 떨렸어. 하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진 밀밭을 보고 후회하지 않았어. 그해 밀 수확은 아주 좋았어.”²⁴⁾

蕭紅은 왕씨 아주머니의 특이한 생김새부터 시작하여 비뚤어진 성격까지 완벽하게 비꼬았다. ‘이를 간다.’, ‘푸른 눈빛에 눈이 크고 둥글었다.’,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면 꺾꺾거린다.’, ‘부엉이를 닮았다.’에서 독자들은 왕씨 아주머니의 괴물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하지만 왕씨 아주머니는 자신의 험악한 모습을 극구 부인하면서 역겹다는 듯이 가래침을 내뱉는다. 그리고 3살 난 딸이 뱃짚에서 떨어졌을 때, 왕씨 아주머니는 딸의 죽음을 방관하며 ‘강아지가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비유했다. 보통의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통곡할 것이다. 하지만 왕씨 아주머니는 ‘푸른 밀밭을 보고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심지어 마을에 낙태하는 여성이 있으면, 갈고리나 칼로 배속 아기를 긁어내기까지 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인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하층민에게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蕭紅은 왕씨 아주머니의 비뚤어진 행동을 비꼬으로써 당시 사회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다음은 냉소와 조소로 묘사된 민며느리네 시어머니를 보기로 한다.

그녀는 온 정성을 기울여 닭을 길렀다. 고양이가 먹을새라 쥐가 물새라 하며, 병아리가 낮에 조는 걸 보면 파리를 쫓아 주었다. 파리가 병아리를 깨울까 걱정된 것이다. 그녀는 병아리의 수면이 부족할까 걱정되어 조금이라도 더 재우려 했다. 그녀는 병아리가 모기에게 다리를 물리면 그녀는 그것을 보자마자 즉시 쭉뚝을 타 가지고 와서 물린 곳에 발라주었다. 그녀는 일찌감치 발라주지 않으면 수탉은 크게 못 자랄지 모르고 암탉은 알을 자그마하게 낳을지 모른다고 하였다. 작은 달걀 한 개로는 두부 두 모를 살 수 있었다. 큰 달걀 한 개로는 두부 세모를 살 수 있었다.…… 그녀는 “병아리를 키우려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애지중지해야 한다고, 원래부터 구석에 팽개쳐서 혼자 자라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을까. 모기에게 물어뜯기고 빈

24) 샤오홍 지음, 이현정 옮김, 앞의 책, 2011, pp.22-25.

대에게 물어뜯겨도 두려울 게 뭐람. 몸에 흉터나 부스럼이 안 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 흉터나 부스럼이 없는 아이는 모두 제대로 크지를 못한다고. 모두 단명(短命)하니까.” 왕씨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한평생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않았다고 한다. 바로 이 아이 하나뿐이니가 귀하긴 하지만 애지중지해서 키우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그 아이 몸에는 스무 군데도 넘는 흉터가 나 있다.²⁵⁾

蕭紅은 냉소와 조소로 민며느리네 시어머니의 황당한 주장을 치켜세우면서 그녀가 자녀 양육과 병아리 키우는 데 일가견이 있다고 비꼬았다. 즉 민며느리네 시어머니의 주장에는 아이는 ‘모기에게 물리고 빈대에 물려도 두려울 것이 없다.’, ‘몸에 흉터나 부스럼이 안 나는 아이는 없다.’, ‘흉터나 부스럼이 없는 아이는 모두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모두 단명(短命)한다.’ 그래서 본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대하고 그 아이의 몸에 ‘스무 군데 넘는 흉터를 나게 했다.’ 이와 반면, 병아리 양육에는 ‘병아리에게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파리를 쫓아 준다.’, ‘병아리가 모기에 물렸을 때는 바로 쭉물로 정성스레 씻어준다.’, ‘병아리는 아이보다 더 애지중지 키워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게다가 병아리를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이유가 장차 두부 세 모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어떻게 두부 세모가 자식의 생명보다 소중할까?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 이처럼 당시 궁핍한 생활은 민며느리네 시어머니의 모성애를 앗아갔고, 물질적 욕망에만 눈이 멀게 했다. 蕭紅은 냉소와 조소를 통해 민며느리네 시어머니가 물질에만 집착하는 기괴하고, 비인간적인 이미지를 부각해냈다.

이상으로 본 장에서는 蕭紅 중편소설에서 나타난 아이러니, 유머와 과장, 냉소와 조소를 통해 蕭紅의 풍자기법을 고찰하였다. 특히 蕭紅의 중편소설은 부정적 요소를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蕭紅의 풍자의 숨씨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의 기법에는 선과 악의 모순된 갈등에서 우화적으로 풍자한 아이러니, 등장인물의 부정적인 모습을 희화화하여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유머와 과장, 위선과 가식적 행동을 날카롭게 비꼬는 냉소와 조소가 독자들에게

25) 샤오홍, 원종례 옮김, 앞의 책, 2014, pp.221-223.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蕭紅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빌어 당시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는 동시에 자신이 주장하는 여성 해방, 민족 투쟁, 계몽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5. 결론

본 연구는 蕭紅 중편소설에 나타난 풍자 특징을 연구목적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蕭紅의 풍자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당시 성행한 문학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는 당시 문학적 흐름과 시대성을 통해 蕭紅이 가진 풍자적 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다음은 蕭紅의 중편소설에 등장하는 풍자의 대상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풍자 대상을 가부장제의 억압 속에 억압받는 여성, 지배계층으로 착취당하는 하층민, 일제 강점기에 사리사욕을 챙기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여성을 노예화하는 봉건 예교, 지배계층에 의해 몰락해가는 하층민의 삶, 민족해방 시기에 비뚤어진 지식인의 일탈 등의 사회 전반의 현상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蕭紅의 풍자기법을 통해 그녀의 풍자 특징을 살펴보았다. 蕭紅은 아이러니를 통해 현실과의 괴리와 모순을 파헤쳤고, 유머와 과장을 통해 희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조소와 냉소를 통해 부조리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가 현재까지 이해했던 蕭紅의 중편소설을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하고 蕭紅의 중편소설에 대한 통시적 접근을 통해 풍자의 확장된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자료

- 蕭紅, 『蕭紅全集』, 哈爾濱出版社, 1991.
 샤오홍 지음, 이현정 옮김, 『생사의 장』, 시공사, 2011.
 샤오홍, 원종례 옮김, 『호란하 이야기』, 글누림, 2014.

2. 단행본

- 魯迅, 『中國小說史略』, 北京新潮社出版, 1923.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73.
 葛浩文, 『蕭紅評傳』, 東北文藝出版社, 1985.
 季紅真, 『蕭紅傳』,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0.
 郭力, 『二十世纪中国女性文学的生命意识』, 黑龙江教育出版社, 2002.
 郭玉斌, 『蕭紅評傳』, 中國社會出版社, 2009.
 平石淑子, 『蕭紅傳』, 中國人民出版社, 2017.

3. 논문

- 洪慶杓, 「小說에 나타난 人物類形과 諷刺의 機能」, 『대구효정카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제28집, 1983, pp.5-22.
 趙寬熙, 『아이러니와 소설』, 『中國小說論叢』, 第10集, 1999, pp.15-33.
 이병호, 『蕭紅의 〈生死場〉에 나타난 만주사변 전후 북만주 농민들의 의식구조』, 『한국군사학논문집』, 2001, pp.49-72.
 김윤수, 『蕭紅 〈生死場〉의 민족의식 연구: 문제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4, pp.1-91.
 고점복, 「魯迅 雜文의 思惟 樣相 研究: 認識과 表現의 問題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pp.1-307.
 김순금, 「蕭紅 후기소설의 예술적 특징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9, pp.1-130.
 李俊植, 「抗日文藝의 外延 혹은 그에 대한 반향——蕭紅‘馬伯樂’論」, 『중국어연구』 제54집, 2010, pp.279-299.
 유효진, 「許生傳’과 ‘阿Q正傳’의 葛藤構造 比較 研究」,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pp.1-97.
 소미, 「채만식과 루쉰 지식인 소설의 풍자성 비교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제44집, 2013, pp.33-55.
 김순금, 「蕭紅의 농촌소설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9, pp.1-247.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8월 10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8월 25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9월 07일

Abstract

The now interpretation of Xiao Hong's literature
 –Focusing on the satirical features of Xiao Hong's novelette

Kim, Soon gum

Xiao Hong is a female writer who was active in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in the 1930s. During her short life of 31 years, she wrote about 40 long-length novels and 3 medium-length novels (〈On the Site of Life and Death〉, 〈Hulanhezhuān〉, and 〈Mabole〉). In particular, the Xiao Hong's novels has a unique satire. Therefore, this thesis was intended to examine the satirical characteristics of Xiao Hong's novels. In addition, the following three tasks were performed for this study: First, it is consider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atire in Xiao Hong's novel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situation of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so, the subject of the relationship was specifically identified. Second, by examining the satire objects of each class appearing in Xiao Hong's novels, the feudal system that enslaved women and peasants and the crooked intellectual deviation was analyzed. Third, as it is important to explore Xiao Hong's cultural value, the characteristics of satire were considered through Xiao Hong's unique satire technique. By examining the previous studies, Xiao Hong's novels are mainly based on style and narration with an excessively lyrical focus. Although this is a meaningful work in its own right, a new perspective on the diversity of literature is needed in view of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Xiao Hong's novels. Therefore, this study is an attempt to find alternative satirical objects and interests in Xiao Hong literature, and starting from the literary specificity of the method of satire, it remains a priority to examine the features of satire.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understood that there existed a literature that the aesthetic value represented,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Xiao Hong pursued the art of satire.

Keyword Satire, Xiao Hong's Satire, satirical features, Xiao Hong, Xiao Hong's novelette, Xiao Hong's literature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 연구*

류 창**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연변 지역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 양상을 기술하였다. 연변 지역어의 발음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아 아직 보충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변 지역어의 발음 연구에 기초 자료를 보충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변 지역의 현실 발음에 따라 8모음 체계를 기준으로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 실험을 수행하였다. 단모음 발음 실험에서는 소반, 중반, 대반의 유아에서 남녀 각각 5명을 선정하여 단모음의 발음 양상을 고찰하였다. 단계별 유아들의 발음 양상을 논의하기 위하여 연변 지역의 조선족 유아들을 소반, 중반, 대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소반, 중반, 대반의 발음 실태를 기반으로 연변 지역 조선족 유아들의 평균 단모음 포만트 값을 제시하였다.

연변 지역 조선족 유아들의 발음 양상을 보면 단모음 /ㅏ/의 혀의 높낮이가 /ㅓ/의 혀의 높낮이와 비슷한 수평선에 실현되고 있다. 또한 /ㅕ/와 /ㅗ/를 변별하여 발음하지만 두 단모음의 혀의 전후 위치가 비슷한 수직선에 놓여있다. 이러한 발음 현상이 나타난 주요원인은 연변 지역의 조선족 유아들이 이중 언어 환경에서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연변 지역, 유아, 단모음, 포만트 값, 발음

* 본 논문은 제1차 성균 한국어학 국제학술대회(일시:2021년 5월 22일, 온라인 회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목차〉

1. 서론
2. 연구 방법 및 결과
3. 논의 및 토론
4. 결론

1.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언어를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나눈다. 또한 음성언어는 1차적이고 문자언어는 2차적이다. 유아들이 처음 배우는 언어는 흔히 음성언어를 가리킨다. 음성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화자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음이 의사 전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발화자가 자신의 의사를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발음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발음에게 가장 중요하면서 기초적인 단계가 단모음을 습득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단모음 발음은 기초적인 지위에 놓인 만큼 의사소통 전달에서 빠지지 못하는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특히 유아기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올바른 발음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유아들의 성장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유아기는 발음의 변화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익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조선족 자치주로서 중국 내에 조선족이 집거하는 가장 큰 지역이다.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¹⁾에 따르면 소수민족은 자신의 민족어를 해당 민족의 제1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규범에서 소수민족의 민족어를

1) 중국의 少數民族語言文字法則, 憲法, 民族區域自治法, 教育法 등에서 소수민족이 자신의 민족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또한 教育法에서 소수민족이 민족어로 교육 받을 권리와 의무를 재규정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이중 언어의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배우고 사용하는 권리를 해당 민족에 부여하면서 중국어인 한어(漢語)도 동등하게 배우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연변 지역의 조선족 유아들은 태어나서 줄곧 이중 언어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자기 민족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서의 첫 걸음이고 인간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우월한 존재로 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연변 지역의 조선족 유아들은 몇 년 사이에 자기 민족어의 복잡한 구조를 배우고 자유롭게 언어행위를 진행하게 된다.

리영실(2002)에서 단모음의 발음은 /ㅏ/, /ㅓ/와 같은 단모음이 제일 처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ㅏ/, /ㅓ/와 같은 단모음이 첫을 뺀고 삼키는 것과 같은 유아들의 선천적인 행위와 관련된 발음기관의 움직임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아들이 12개월-18개월 사이의 발음에 있어 혼란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모음의 발음에 있어 이중모음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12살까지가 유아들의 언어 형성기이기 때문에 이는 모든 유아들에게 있어서 언어를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그래서 유아기는 언어를 습득하는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음을 익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5세-8세 사이에 있는 연변 지역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실험음성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 양상을 살피고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에 대한 연구는 연변 지역의 발음 연구에 기초 자료로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연변 지역어²⁾의 전체적인 단모음의 발음 체계를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류창(2021)에서 연변 지역어는 조선 함경도에서 처음 이주하였을 때 가져온 조선어의 기본적인 언어상과 연변 지역의 중국어, 만주어 그리고 몽골어 등 언어와 융합한 지역어라고 기술하였다.

2) 선행 연구

지금까지 연변 지역어의 단모음 발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충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인 학습자의 단모음 발음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연변 지역의 조선족 화자 특히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에 대한 연구는 불모지(不毛地)에 불과하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주로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방언사용 지역의 유아들이 중국어 보통화³⁾의 모음 발음과 방언의 모음 발음을 대비하는 논문, 이중 언어 환경과 다문화환경에서 자란 유아들의 보통화 모음 발음에 대한 논문들이었다. 그리고 언어장애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을 논의한 연구들도 많았다.

이행덕(1997)에서 음성, 문법, 의미와 화용 등 방면에 대한 이론을 논술하였고 주로 중국어의 습득문제를 논의하였다. 중국어를 모어로 습득하는 유아들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고 회고하면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밝히는 동시에 각 연구의 결과와 의의를 논술하고 제시하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또한 유아들의 발음을 연구하는 데에는 사회언어 환경의 영향을 홀시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부평(2005)에서는 유아들이 다문화 배경에서 중국어를 배울 때 모어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어의 영향도 받는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제2언어를 학습하고 인식하는 것이 자기의 모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아주 비슷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들이 다문화 배경에서 중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중국어를 모어로 한 유아들이 중국어를 습득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옥영(2006)에서 중국어가 모어인 한 유아의 2세 부터 5세 까지 단모음 발음의 산출을 분석하고 논술하였다. 또한 유아 발음의 전체적인 양상 그리고 중국어를 습득하는 단모음 순서 및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들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2세부터 3세까지 발음 오류가 가장 많았고 3세부터 4세까지

3) 보통화는 중국어의 표준어를 가리키고 주로 북방음을 기초로 한 것이다.

언어 발달이 가장 빨랐으며 4세부터 5세까지 발음이 가장 안정되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아들의 발음이 5세까지 완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의(疑義)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석봉(2009)에서는 중국어 보통화를 사용하는 1세 부터 6세까지의 40명 유아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국어 단모음 포맷트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에 체계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한 연령대의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에 부동한 유형의 오류가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2000년 까지 한국에서 논의한 유아들의 발음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의학, 특수교육학에서 정상적인 유아와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유아를 비교하여 교육이나 치료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들이다. 하지만 2006년 이후 한국의 농촌지역과 도시 번두리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다문화 가정의 급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문화배경에서 자란 유아들의 발음 현황을 밝히는 논문들이 많아지고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배경에서 자란 유아들의 발음 오류를 제시한 논문들이 점점 많아졌다.

김태경, 백경미(2010)에서는 만 3세-6세 유아들의 발음 오류에 나타난 음운 변동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3세-6세까지의 유아들을 연령별로 24명씩 총 96명을 선정하여 자발(自發)화를 수집하고 각 음운 변동 오류를 보인 유아들의 수와 해당 오류의 실현 빈도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3세-6세 유아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음운 변동은 단모음화, 음절 탈락, 종성 자음 삼입 현상이다. 2세 이전에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는 중첩, 음절 도치, 구개음화 등은 3세 이상의 유아들한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종성 자음 삼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음운 변동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김지은(2015)에서 중국인 다문화 유아가 산출한 단모음과 한국인 단일가정 유아가 산출한 단모음의 음향 공간 특성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차이점을 제시하고 차이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논술하였다. 연구 결론에서 /T/모음은 두 집단 간 다양한 음향변수를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러

한 결과가 청지각적인 차이까지 유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다문화 배경에서 자란 유아들의 한국어 수행능력이 거의 일반 한국인 유아들과 같다고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고 주로 다문화 배경에서 자란 유아들의 발음 양상을 고찰하였다.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 양상에 대한 연구는 발음의 시작 단계와 기초 단계에 대한 연구로서 발음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 양상을 고찰하고 기술하여 연변 지역어의 발음 연구에 보충 자료를 남기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결과

1) 조선어 단모음의 체계

중국의 『조선말규범집』은 조선말 표준발음법, 조선말 맞춤법, 조선말 띄어쓰기, 조선말 문장부호법, 조선말 어휘규범 등을 규정하였다. 그래서 연변 지역에서도 『조선말규범집』의 규범에 따라 조선말을 사용하고 있다.

『조선어문법』에 따르면 중국 조선어는 21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졌고 10개의 기본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단모음으로 발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조선말규범집』(2016)의 총칙 제1장 제1항에 따르면 /ㅓ, ㅕ/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선어의 단모음 체계는 <표 1>과 같이 기술하였다.

<표 1> 조선어 단모음 체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ㅏ	ㅑ	ㅓ	ㅕ
중모음	ㅓ	ㅕ	ㅗ	ㅛ
저모음	ㅓ		ㅏ	

조선어의 단모음 체계를 /니, ㄴ/를 포함하여 10모음 체계로 하였을 때 혀의 고저에 따라 고모음 4개(/ㅣ, ㅡ, ㅓ, ㅜ/), 중모음 4개(/ㅐ, ㅓ, ㅗ, ㅛ/), 저모음 2개(/ㅑ, ㅕ/)로 나누고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중설모음 없이 전설모음 5개(/ㅣ, ㅐ, ㅑ, ㅓ, ㅕ/), 후설모음 5개(/ㅡ, ㅗ, ㅛ, ㅓ, ㅛ/)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원순모음은 전설 위치에 2개(/ㅓ, ㅕ/)가 나타나고 후설 위치에 2개(/ㅓ, ㅛ/)가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모두 평순모음이다.

비록 『조선말규범집』에서 조선말의 표준발음법을 규정하였지만 사실 규범보다 중요한 것은 연변 지역의 현실 발음이다. 한국과의 빈번한 교류, 그리고 연변 지역 발음의 내재적 변화 때문에 지금의 연변 지역에서 /니, ㄴ/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국어의 표준발음법에서는 모음을 21개로 규정하고 그 중 10개의 모음 /ㅐ ㅓ ㅑ ㅕ ㅓ ㅛ ㅓ ㅛ ㅡ ㅣ/를 단모음으로 발음한다고 규정한바 있다. 또한 이때 붙임 조항으로 ‘니, ㄴ’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고 허용한다고 하였다. 지금 젊은 세대의 한국인들의 현실 발음에서 이미 /ㅐ/와 /ㅑ/를 변별하지 못하고 있다. 곽충구(2003)에서 40대 이상의 한국인들이 /ㅐ/와 /ㅑ/를 구별할 수 있다고 밝혔고 장혜진 외(2015)에서는 60대 이상의 한국인에서만 /ㅐ/와 /ㅑ/를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바 있다. 선행 연구에 따라 지금 50대 이하의 한국인은 /ㅐ/와 /ㅑ/를 변별하지 못한다.

〈표 2〉 한국어 표준어의 현실적인 단모음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ㅡ	ㅓ
중모음	ㅐ	ㅓ	ㅛ
저모음		ㅕ	

신지영(2017)에 의하면 한국어 표준어의 현실적인 단모음은 7모음 체계라고 제시하였다. 혀의 고저에 따라 고모음 3개(/ㅣ, ㅡ, ㅓ/), 중모음 3개(/ㅐ, ㅓ, ㅛ/), 저모음 1개(/ㅕ/)로 나누고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중설모음 없이 전설모음 2개(/ㅣ, ㅐ/), 후설모음 5개(/ㅡ, ㅓ, ㅛ, ㅓ, ㅛ/)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원순

모음은 후설 위치에서만 2개(/ɯ, ɤ/)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모두 평순모음이다. 한국어 표준어와 한국어 현실 발음의 가장 큰 구별은 /ɥ/와 /ɛ/의 변별 여부이다.

한국어의 현실적인 단모음 체계와 반대로 김철준(2006)에서 연변 지역어는 /ɥ/와 /ɛ/를 변별할 수 있다고 이미 보고한바 있다. 그리고 류창(2021)에서도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이 /ɥ/와 /ɛ/를 변별하여 발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변 지역에서 /ɥ/와 /ɛ/를 변별하는 것은 중국 조선어의 단모음 체계가 10모음⁴⁾ 체계를 유지하고 학교 문법에서 10모음 체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변 지역어의 현실 발음에서 8모음⁵⁾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변 지역의 조선족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을 실험음성학적인 연구 방법과 통계분석의 연구 방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변 지역의 조선족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을 단모음 발음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험자는 연변 지역의 조선족 유아들로 제한하였으며, 나이는 5세(2013년생)~8세(2010년생)까지로 한정(限定)하였다. 피험자는 연변 지역에서 태어나고 부모님들이 모두 조선족이며 부모님들도 연변 지역에서 태어나 연변 지역에서 자랐으며 또한 어릴 때부터 줄곧 연변 지역의 조선족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았다.

유아들의 단모음 발화의 실험은 2018년 8월에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시 제1유치원에서 진행하였다. 화룡시 제1유치원의 소반(5세-6세), 중반(6세-7세), 대반(7세-8세)⁶⁾의 유아들을 학년별로 남녀 각각 5명씩 선정하여 단모음 발음의

4) 『조선어문법』에 따르면 중국 조선어의 단모음은 10모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5) 『조선말규범집』(2016)의 총칙 제1장 제1항에서 /ɯ, ɤ/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는 현실 발음에서 이미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보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6) 유치원의 소반, 중반, 대반에서 나이가 같지만 다른 반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규정에 따르면 유아들이 학교를 다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같은 해에 태어난 유아들이 9월 1일 기준으로 생일이 9월 이전에 태어난 유아는 9월 이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중반(6세-7세), 대반(7세-8세)의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이미 한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실험 단어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소반(5세-6세)⁷⁾의 유아들은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하는 원인으로 따라 읽는 형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유치원은 세 개 학년으로 이루어졌고 매 학년에 10명씩 총 30명이 피험자로 선정되었다. 단모음 발화의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 정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연변 지역 유아들의 피험자 정보

이름	성별	나이	이름	성별	나이
CS01-1	M	5	CS01-6	F	5
CS01-2	M	5	CS01-7	F	5
CS01-3	M	6	CS01-8	F	5
CS01-4	M	5	CS01-9	F	6
CS01-5	M	5	CS01-10	F	5
CS02-1	M	6	CS02-6	F	6
CS02-2	M	7	CS02-7	F	6
CS02-3	M	6	CS02-8	F	6
CS02-4	M	6	CS02-9	F	6
CS02-5	M	7	CS02-10	F	6
CS03-1	M	7	CS03-6	F	8
CS03-2	M	8	CS03-7	F	7
CS03-3	M	7	CS03-8	F	7
CS03-4	M	7	CS03-9	F	7
CS03-5	M	7	CS03-10	F	7

전학석(1996)에 따르면 연변 지역어의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ㅔ/ 8개이고 /ㅜ/([ø])와 /ㅛ/([y])는 단모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ㅜ/는 [e] 혹은 이중모음 [we]로 실현되고 /ㅛ/는 [i] 혹은 이중모음 [wi]로 실현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연변 지역어의 현실 발음인 8모음 체계로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에 태어난 유아보다 1년 빨리 입학할 수 있다

- 7) 소만(5세~6세)의 유아들이 따라 읽는 형식으로 실험에 참여한 것은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을 고찰하는 연구에서 피편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 나이 때문에 한글을 읽지 못하는 이유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제외하였다.

〈표 4〉 실험 단어

이다	우다	오다	아다
으다	애다	에다	어다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 실험은 /니, ㄱ/을 제외한 8개 단모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단모음을“-X다”의 틀에 넣어 실험 녹음을 진행하였다. “-X다”의 틀에 넣어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는 원인은 실험에 참여한 단모음이 어두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단모음 발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X다”는 피험자의 자연스러운 단모음 발음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험자가 실험을 진행할 때“-X”인 단모음에 집중하여서 신빙성(信憑性)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피험자들의 녹음은 사방이 막힌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해당 녹음은 표본화율 44,100Hz, 16bit 양자화 조건에서 녹음을 진행하였다.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녹음을 진행한 것은 단모음 발음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단모음 발음에서 잡음(雜音)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조용한 녹음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실험 결과에 중요한 보장(保障)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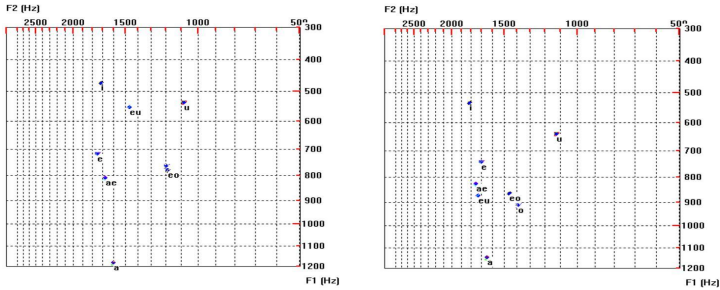
피험자 30명이 8개의 실험 단어를 2회씩 낭독하여 피험자 1인당 16개의 자료를 얻었다. 분석에 사용된 단어는 총 480개이다. 수집한 녹음 자료는 음성분석 프로그램인 Praat(버전 6.1.0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모음의 음향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1포만트(first formant, F1)와 제2포만트(second formant, F2)값을 측정하였다.⁸⁾ 포만트 값은 Praat의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모음의 안정 구간을 표시한 후 그 가운데 지점에서 단모음의 포만트 값을 측정하였다. 모음의 안정 구간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체 모음의 가운데 지점에서 단모음의 포만트 값을 측정하였다. 포만트 값에 이상치(異常値)가 나타나면 연구자가 수동으로 확인하면서 재측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 낭독한 평균 포만트

8) 스펙트로그램에서 음향 에너지가 집중된 주파수 대역이 까만 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포만트(formant)라고 한다(신지영, 1999:158). 포만트 가운데에서 제1포만트(F1)는 모음의 개구도를 나타내는데 고모음은 F1이 낮고 저모음은 F1이 높다. 제2포만트(F2)는 모음의 전후 위치를 나타내는데 F2는 전설 모음일수록 높고 후설 모음일수록 낮다.

값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3) 연구 결과

〈그림1〉 소반 남자 유아(좌)와 여자 유아(우)의 단모음 포먼트 평균(단위: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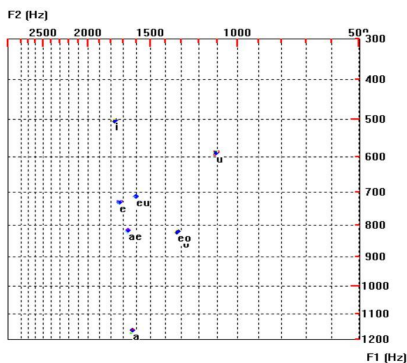


연변 지역의 소반 남자 유아 단모음 포먼트 평균값에서 /ㅡ/와 /ㅗ/보다 /ㅣ/의 혀의 높낮이가 현저하게 높게 놓여있다. 또한 /ㅓ/와 /ㅜ/의 발음 위치가 거의 중첩되게 놓인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연변 지역의 소반 여자 유아 단모음 포먼트 평균값에서 /ㅡ/의 혀의 높낮이가 /ㅗ/와 /ㅣ/의 혀의 높낮이보다 현저하게 낮게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ㅓ/와 /ㅕ/의 혀의 높낮이보다 낮게 놓여있다. 그리고 /ㅡ/와 /ㅓ/의 발음 위치가 가깝게 놓인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ㅓ/의 혀의 높낮이가 /ㅜ/의 혀의 높낮이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가깝게 놓여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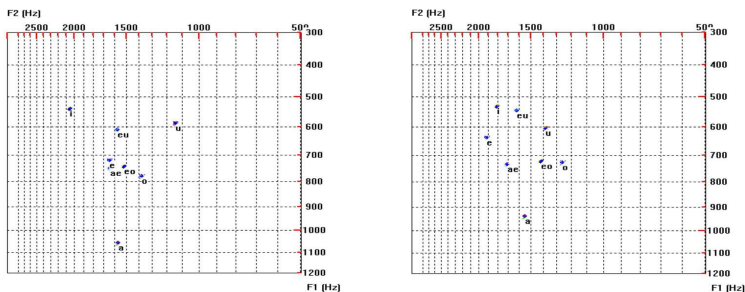
연변 지역 소반 남녀 유아들의 단모음 체계는 대체적으로 이루어졌고 8개 단모음을 변별하여 발음하였지만 개별 단모음의 발음 위치가 가깝게 놓인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소반 남자 유아들의 /ㅓ/와 /ㅜ/의 발음 위치가 거의 중첩되게 놓인 것이 특징적이고 소반 여자 유아들의 /ㅓ/와 /ㅡ/ 그리고 /ㅓ/와 /ㅜ/의 발음 위치가 가깝게 놓인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2〉 소반 유아들의 단모음 포먼트 평균(단위:Hz)



연변 지역 소반 유아들의 단모음 포먼트 평균값에서 /i/와 /ɪ/보다 /ɛ/의 혀의 높낮이가 현저하게 낮아서 /ɛ/의 혀의 높낮이와 비슷한 수평선에 놓인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ɪ/의 혀의 높낮이가 /i/의 혀의 높낮이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ɪ/와 /i/의 발음 위치가 거의 중첩되었다. 또한 /ɛ/와 /e/를 변별하여 발음하였지만 두 단모음의 혀의 전후 위치가 비슷한 수직선에 놓여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ɛ/, /e/, /ɪ/, /i/, /ɔ/ 5 개 단모음의 발음 위치가 뭉쳐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반 유아들이 5 개 단모음의 발음에 혼란을 겪고 아직 안정한 발음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림3〉 중반 남자 유아(좌)와 여자 유아(우)의 단모음 포먼트 평균(단위: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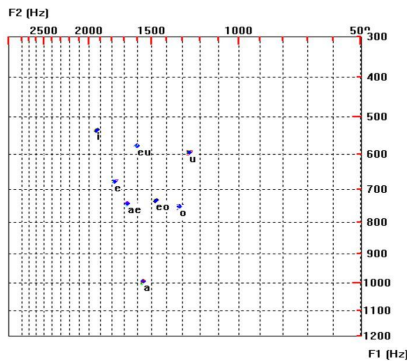


연변 지역의 중반 남자 유아 단모음 포만트 평균값에서 /ㅡ/와 /ㅓ/보다 /ㅣ/의 혀의 높낮이가 현저하게 높게 놓여있다. 그리고 /ㅓ/와 /ㅕ/를 변별하여 발음하였지만 발음 위치가 가깝게 놓여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ㅓ/의 혀의 높낮이가 /ㅣ/의 혀의 높낮이보다 낮게 놓일 뿐만 아니라 가깝게 놓여있다.

연변 지역의 중반 여자 유아 단모음 포만트 평균값에서 /ㅓ/의 혀의 높낮이가 /ㅡ/와 /ㅣ/의 혀의 높낮이보다 현저하게 낮게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ㅓ/의 혀의 높낮이와 비슷한 수평선에 놓여있다. 그리고 /ㅣ/의 혀의 전후 위치가 /ㅓ/의 혀의 전후 위치보다 뒤에 놓여있고 /ㅓ/의 혀의 전후 위치는 /ㅓ/의 혀의 전후 위치보다 앞에 놓여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ㅓ/와 /ㅣ/의 혀의 높낮이가 비슷한 수평선에 놓여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연변 지역 중반 남녀 유아들의 단모음 체계는 대체적으로 이루어졌고 8개 단모음을 변별하여 발음하였지만 개별 단모음의 발음 위치가 가깝게 놓인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중반 남자 유아들의 /ㅓ/, /ㅕ/, /ㅓ/, /ㅣ/의 발음 위치가 뭉쳐있는 것이 특징적이고 중반 여자 유아들의 /ㅓ/와 /ㅣ/의 혀의 높낮이가 비슷한 수평선에 놓인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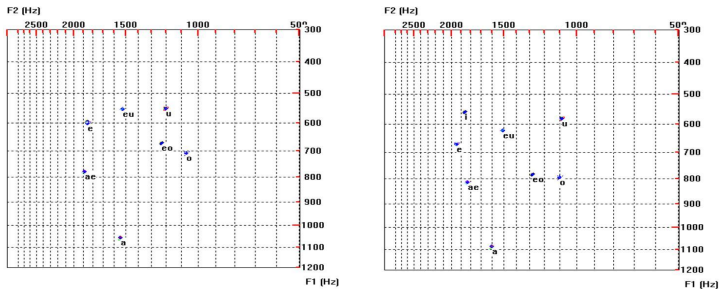
〈그림4〉 중반 유아들의 단모음 포만트 평균(단위:Hz)



연변 지역 중반 유아들의 단모음 포만트 평균값에서 /ㅡ/와 /ㅓ/보다 /ㅣ/의

혀의 높낮이가 현저하게 높게 놓여있다. 그리고 /ㄴ/의 혀의 높낮이가 /ㄷ/의 혀의 높낮이보다 낮게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ㄷ/와 /ㄴ/의 혀의 높낮이와 비슷한 수평선에 실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ㄴ/와 /ㄴ/ /ㄴ/와 /ㄴ/ /ㄴ/와 /ㄴ/의 발음 위치가 아주 가깝게 분포되어 있어 /ㄴ/ /ㄴ/ /ㄴ/ /ㄴ/ 4 개 단모음의 발음 위치가 뭉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반 유아들의 단모음 평균 포만트 값에서 개별 단모음의 발음 위치가 가깝게 놓여있었지만 중첩된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소반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보다 점점 향상(向上)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림5〉 대반 남자 유아(좌)와 여자 유아(우)의 단모음 포만트 평균(단위: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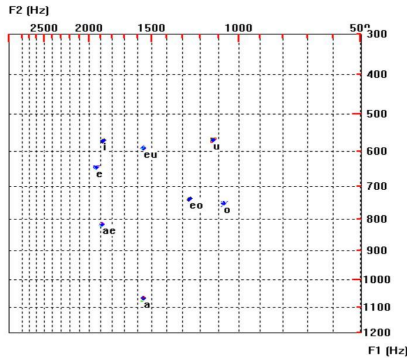
연변 지역의 대반 남자 유아 단모음 포만트 평균값에서 /ㅡ/와 /ㅓ/보다 /ㅣ/의 혀의 높낮이가 현저하게 낮게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ㅓ/의 발음 위치와 중첩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ㅓ/와 /ㅓ/의 혀의 전후 위치와 비슷한 수직선에 놓여있다. 또한 /ㄴ/의 혀의 높낮이가 /ㄷ/의 혀의 높낮이보다 낮게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가깝게 놓여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연변 지역의 대반 여자 유아 단모음 포만트 평균값에서 /ㅡ/의 혀의 높낮이가 /ㅓ/와 /ㅣ/의 혀의 높낮이보다 현저하게 낮게 놓여있다. 그리고 /ㅓ/의 혀의 전후 위치와 /ㄴ/의 혀의 전후 위치가 비슷한 수직선에 놓인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ㄴ/와 /ㄷ/의 혀의 높낮이가 비슷한 수평선에 놓여있다.

연변 지역 대반 남녀 유아들의 단모음 체계는 대체적으로 이루어졌고 8개 단

모음을 구별하여 발음하였다. 하지만 연변 지역의 대반 남녀 유아들의 단모음 /i/, /e/, /æ/의 혀의 전후 위치가 비슷한 수직선에 놓여있는 것과 단모음 /ɔ/와 /ɑ/의 혀의 높낮이가 비슷한 수평선에 놓인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6〉 대반 유아들의 단모음 포먼트 평균(단위: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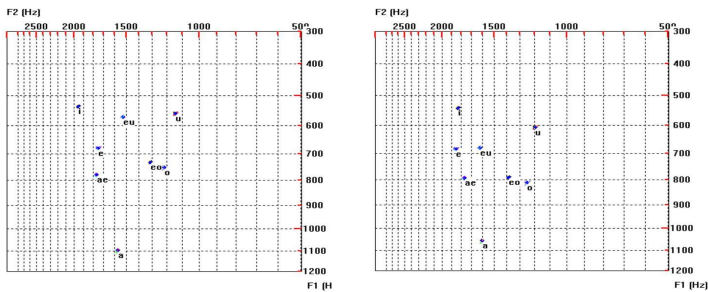
연변 지역 대반 유아들의 단모음 포먼트 평균값에서 /i/, /e/, /æ/의 혀의 높낮이가 비슷한 수평선에 놓여있다. 그리고 /i/, /e/, /æ/의 혀의 전후 위치가 비슷한 수직선에 놓여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ɔ/의 혀의 높낮이가 /ɑ/의 혀의 높낮이보다 낮게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평선에 놓여있다. 대반 유아들의 단모음에서 발음 위치가 중첩된 현상이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깝게 발음하는 경우도 적게 나타났다. 대반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은 소반 유아들과 중반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보다 향상(向上)되었고 8개 단모음을 모두 변별하여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논의 및 토론

지금까지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내에 조선족이 집거하는 가장 큰 지역으로서

중국어인 한어 교육과 민족어인 조선어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단모음의 발음은 유아들이 발화를 시작하는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을 고찰하는 것은 연변 지역어의 발음을 연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연변 지역의 이중 언어 환경에서 자란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 연변 지역어의 단모음 발음 양상과 추세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림7〉 조선족 남자 유아(좌)와 여자 유아(우)의 단모음 포먼트 평균(단위: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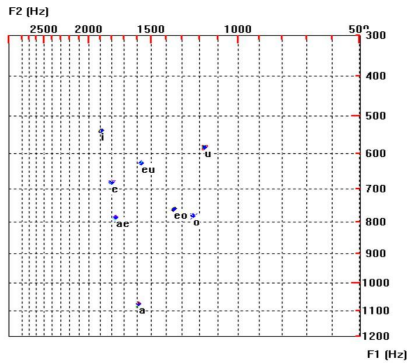
연변 지역의 남자 유아 단모음 포먼트 평균값에서 /i/, /ɨ/, /ɯ/의 혀의 높낮이가 비슷한 수평선에 놓여있다. 그리고 /ɛ/의 혀의 전후 위치가 /ɐ/의 혀의 전후 위치보다 뒤에 놓여있으면서 비슷한 수직선에 실현되었다. 또한 /a/의 혀의 높낮이가 /ɨ/의 혀의 높낮이보다 낮게 놓일 뿐만 아니라 가깝게 놓여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연변 지역의 여자 유아 단모음 포먼트 평균값에서 /ɨ/의 혀의 높낮이가 /ɯ/와 /i/의 혀의 높낮이보다 현저하게 낮게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ɛ/의 혀의 높낮이와 비슷한 수평선에 놓여있다. 그리고 /i/의 혀의 전후 위치가 /ɛ/의 혀의 전후 위치보다 뒤에 놓여있으면서 비슷한 수직선에 실현되었다. 또한 /a/의 혀의 높낮이가 /ɨ/의 혀의 높낮이보다 낮게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평선에 놓여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연변 지역 남녀 유아들의 단모음 체계는 대체적으로 이루어졌고 8개 단모음

을 변별하여 발음하였다. 하지만 연변 지역의 남녀 유아들의 단모음 /ㅣ/, /ㅓ/, /ㅕ/, /ㅗ/, /ㅛ/의 혀의 전후 위치가 비슷한 수직선에 놓여있는 것과 단모음 /ㅜ/와 /ㅛ/의 혀의 높낮이가 비슷한 수평선에 놓인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8〉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포만트 평균(단위:Hz)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포만트 평균값에서 /ㅣ/와 /ㅛ/보다 /ㅓ/의 혀의 높낮이가 현저하게 낮게 놓여있다. 그리고 /ㅕ/의 혀의 전후 위치가 /ㅓ/의 혀의 전후 위치와 비슷한 수직선에 놓인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ㅜ/의 혀의 높낮이가 /ㅛ/의 혀의 높낮이보다 낮게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평선에 놓여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 위치가 비교적 선명하게 실현되었고 단모음 발음 체계가 대체적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 실험을 분석함에 있어서 피험자들이 실험에서 실현된 포만트의 평균값으로 아노바(ANOVA) 일원배치법을 진행하였다. 또한 p값(p-value)을 통해 소반 유아들과 중반 유아들 그리고 대반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에서 나타난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p < 0.05$ 인 경우에 세 집단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반 유아들과 중반 유아들 그리고 대반 유아들의 포만트 값으로 아노바(ANOVA) 일원배치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F1의 p 는 $0.6949 > 0.05$

이다. 그러므로 F1에서 소반 유아들과 중반 유아들 그리고 대반 유아들이 통계학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의 p는 0.9012 > 0.05이다. 그러므로 F2에서 소반 유아들과 중반 유아들 그리고 대반 유아들이 통계학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포먼트 값을 제시하고 단모음 발음의 실현 양상을 기술하고 논의하였다. 즉 연변 조선족 유아들을 소반, 중반, 대반으로 나누어 단모음 발음의 양상을 살폈고 그에 따른 단모음 발음 특징을 고찰하고 논술했다.

〈표 4〉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포먼트 평균값 (괄호 안은 표준편차)

단모음	F1	F2	단모음	F1	F2
이	540(97.62)	1892(421.35)	으	627(207.23)	1568(273.35)
우	585(62.38)	1168(207.2)	애	784(86.19)	1760(280.78)
오	780(84.97)	1231(147.23)	예	682(84.35)	1801(352.21)
아	1077(132.73)	1582(103.49)	어	760(99.04)	1346(152.23)

〈표 4〉에서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포먼트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단모음의 F1은 ‘이<우<으<에<어<오<애<아’ 순으로 실현되었고, F2는 ‘우<오<어<으<아<애<에<이’의 순으로 실현되었다. F1순을 보면 /ɪ/와 /ɯ/의 혀의 높낮이 자리가 뒤바뀐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아직까지 연변 조선족 유아들이 단모음 발음의 혀의 높낮이 실현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2순을 보면 혀의 전후 위치 실현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ɪ/, /ɯ/, /ɪ/의 발음에 있어서 /ɪ/가 비교적 뚜렷하게 실현되었다. /

ㄴ/와 /ㄴ/의 발음에 있어서 소반에서는 거의 중첩되게 나타났지만 중반을 거쳐 대반에서 점점 두 단모음을 분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ㄴ/의 혀의 높낮이는 여전히 /ㄴ/의 혀의 높낮이와 비슷한 수평선에 놓이면서 조금 높게 위치하여 있다. 따라서 연변 조선족 유아들은 /ㄴ/와 /ㄴ/의 발음에서 혼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단모음을 분별함에 있어서 대부분 혀의 전후 위치로 가리고 있다.

2. /ㅣ/, /ㅐ/, /ㅑ/의 발음에 있어서 /ㅣ/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실현되었다. /ㅐ/와 /ㅑ/의 발음에서 두 단모음을 분별하여 발음하였지만 /ㅐ/와 /ㅑ/의 혀의 전후 위치가 비슷한 수직선에 놓여있다. 따라서 연변 조선족 유아들이 /ㅐ/와 /ㅑ/의 발음을 분별하되, 아직 안정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3. /ㅡ/와 /ㅓ/의 발음에 있어서 실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ㅡ/의 발음에서 소반에서는 혀의 높낮이가 600Hz 와 800Hz사이에 놓였지만 중반과 대반에서 /ㅡ/의 혀의 높낮이가 소반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ㅓ/의 혀의 높낮이는 소반, 중반, 대반에서 언제나 1000Hz와 1200Hz사이에 놓여있다.

중국 조선족 학교에서 10개 단모음 체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연변 지역의 현실 발음에서는 8개 단모음 체계로 실현되고 있다. 유창(2020)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단모음 /ㅣ/, /ㄴ/, /ㅡ/를 습득할 때 고급 학습자들까지 모국어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어 습득에서 중국어의 영향뿐만 아니라 영어의 영향도 있다고 제기하였다.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ㅡ/의 발음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반면 /ㅣ/와 /ㄴ/의 발음에서 아직 혼란을 가지고 있다. 특히 /ㅣ/와 /ㄴ/의 혀의 높낮이가 비슷한 수평선에 놓여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유창(2020)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ㅣ/, /ㄴ/, /ㅡ/의 발음 습득에서 중국어 /e/와 유사하기 때문에 /ㅣ/, /ㄴ/, /ㅡ/를 변별하여 발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래서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ㅣ/와 /ㄴ/의 혀의 높낮이가 비슷한 수평선에 놓여있는 것이 이중 언어 환경에서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현기(2009)에서 연변 지역어의 단모음 /ㅣ/가 단모음 /ㄴ/와 합류되고 있

다는 추세를 제시하면서 단모음 /ɪ/가 각종 요인의 영향 때문에 그 음가가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변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에서 합류의 추세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류창(2021)에서 연변 조선족 중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단모음 /ɪ/와 단모음 /ɪ/의 발음에서 혀의 높낮이가 비슷한 수평선에 놓여있지만 연변 조선족 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의 단모음 발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족 유아들이 단모음 /ɪ/와 단모음 /ɪ/의 혀의 높낮이가 비슷한 수평선에 놓인 원인은 이중 언어 환경에서의 중국어의 영향과 이외의 다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은 연변 지역 조선족 유아들의 발음을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연변 지역의 발음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소반(5세-6세)의 유아들이 단모음 발음의 실험에서 한글을 읽지 못하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연변 지역 조선족 유아들의 단모음 발음 양상을 기술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중 언어 환경에서의 중국어의 영향, 영어의 간섭 그리고 이외의 다른 요인에 대하여 다루지 못한 점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후고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진철·김성근·김수길, 『조선어실험음성학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 강진철, 『조선어실험음성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 김광수, 『해방전 중국에서 조선어의 변화 발전 연구』, 역락, 2009.
- 김성근, 『조선음성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 김승곤, 『음성학』, 정음사, 1983.
- 김철준, 『조선어 운률적 특징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북경: 민족출판사, 2006.
- 김철준·김광수, 『조선어문법』,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08.
- 김철준, 『언어학개론』,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11.
- 김철준·지동은·강미화, 『현대조선어』,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11.

- 신지영, 『한국어의 말소리』, 박이정, 2017.
- 전학석, 『조선어방언학』,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96.
-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조선말규범집』,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2016.
- 石鋒, 『語音格局』, 北京: 商務印書館, 2008.
- 石鋒, 『實驗音系學探索』,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9.

2. 논문

- 곽충구,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국어학회, 2003, pp.59-92.
- 권성미, 「한국어 단모음 습득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일본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지은, 「중국인 다문화유아가 산출한 모음의 음향음성학적특성」,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태경 · 백경미, 「학령전 유아들의 발음 오류에 관한 연구 - 음운 변동을 중심으로 -」, 『국제어문』 49, 국제어문학회, 2010, pp.7-34.
- 김현기, 「연변 조선족 방언 음성의 실험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1-1, 한국음성학회, 2009, pp.47-52.
- 리영실, 「모국어습득과정에 대한 몇가지 고찰」, 『조선어문』 1,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02.
- 류창, 「문장 유형별 연변 지역어와 표준 한국어의 낭독체 억양구 비교 연구」, 『국어학』 97, 국어학회, 2021, pp.525-558.
- 류창,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의 단모음 발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53,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21, pp.33-59.
- 양하석, 「타카소 유아들의 우리 말 습득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문제」, 『조선어문』 3,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06.
- 웬신,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발음 양상 연구 - L1 영향으로 인한 단모음 조음 위치 변화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9, pp.211-240.
- 유창,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ㄱ/, /ㄴ/와 /ㅡ/ 습득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중국어 /e/[ɤ]발음의 영향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5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 pp.235-263.
- 장혜진 · 신지영, 「대구 방언 20대 학습자의 단모음 실현 양상에 나타난 표준어 지향성의 성별적 차이」, 『한국어학』36, 한국어학회, 2007, pp.289-314.
- 장혜진, 「숙달도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두 폐쇄음 지각」, 『언어과학연구』68, 언어과학회, 2014, pp.335-358.
- 장혜진 · 신지영 · 남호성, 「서울 방언 단모음의 연령별 실현 양상」, 『음성음운형태론연구

』21-2, 한국음운론학회, 2015, pp.341-358.

허진, 「연변조선어 단모음 / ㄴ / 와 / ㄹ / 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방언학』 30, 한국방언학회, 2019, pp.119-143.

李富萍, 「多語言背景下, 兒童漢語語音獲得的偏誤及其對策」, 碩士畢業論文, 華東師範大學, 2005.

李行德, 「語言發展理論和漢語兒童語言」, 『現代漢語』, 第4期, 1997, pp.58-91.

司玉英, 「普通話兒童語音習得的個案研究」, 『當代語言學』, 第1期, 2006, pp.1-16.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7월 29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8월 24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9월 23일

Abstract

An Experimental Phonetic Study on the Pronunciation of Monophthongs by Yanbian Korean Chinese Children

Liu, Chang

This article describes the pronunciation patterns of Korean-Chinese children in the Yanbian region. The research on the pronunciation of the Yanbian language is still at the supplementary stage.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have significance in complementing literatures.

In this study, an experiment was conducted on the actual pronunciation of monophthongs of Korean-Chinese children in the Yanbian region based on the 8-vowel-system. In the experiment, the pronunciation patterns of monophthongs were investigated for 5 boys and 5 girls for each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grades in a preschool. To discuss the pronunciation patterns of children at each stage, we present the average monophthong formant values based on the pronunciation status of Korean-Chinese children by different preschool grades.

In the pronunciation patterns of Korean-Chinese children in the Yanbian region, the tongue height of the monophthong /ɪ/ is realized close to /ɘ/. In addition, /ɨ/ and /ɪ/ was pronounced distinctly, but the distribution of the two monophthongs appeared close. It is presumed that the cause of this pronunciation phenomenon was that Korean-Chinese children in the Yanbian region were influenced by Chinese in a bilingual environment.

Keyword Yanbian region, Children, Monophthong, Formant value, Pronunciation

『朝鮮王朝實錄』의 ‘百尺竿頭’ 의미 고찰*

嚴美鏡(明俊)**

국문요약

중국 당대(唐代)의 장사 경잠(長沙景岑) 선사의 계송에서 비롯한 선종언어(禪宗言語)로서 중국과 한국에서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발전한 ‘백척간두(百尺竿頭)’는 세간사 다방면에서 종종 비유되어 사용되고 있고, 역사 문헌 속에서도 흔히 비유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최고의 위치’나 ‘최상의 경지’를 뜻하는 의미로 통용되는 중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위태로운 지경’, ‘절체절명의 상황’이나 ‘진퇴양난의 입장’을 떠올리게 되는 연유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용례들의 의미를 구분 지어 고찰하고, 『승정원일기』에서도 그 의미의 분포를 간단히 나누어 보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살펴본 용례 중에서 ‘백척간두에 이르다’라고 비유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백척간두의 높은 곳까지 치달다’는 의미에서 ‘위태로운 상황이 그 높은 곳까지 이르다’는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정조대에서는 ‘백척간두’가 ‘위태로운 형국’에 비유되기도 하였지만, ‘백척간두진일보’가 ‘학문과 덕망이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나 더욱더 분발하고 향상하다’라는 의미로도 비유되었다. 외세의 침입과 안정의 시기를 거듭하며, 같은 어원을 가진 연구가 문화와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변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동일한 사자성어가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변용되기도 하였으므로, 향후 한중 인문학의 교류와 연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백척간두(百尺竿頭),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선종언어(禪宗言語), 사자성어(四字成語), 성어(成語),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본 연구는 2021년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 동국대학교(서울) 한국불교융합학과 불교한문번역학전공 박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목차〉

1. 서론
2. 한국에서의 ‘백척간두’ 의미
3. 『조선왕조실록』의 ‘백척간두’ 의미
4. 한국에서의 ‘백척간두’ 의미 변용
5. 결론

1. 서론

‘백척간두(百尺竿頭)’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갖는 본래의 의미는 ‘최고의 위치’나 ‘최상의 경지’를 뜻하고 그에 대한 비유에 주로 사용되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대로 통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그것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위험천만한 형국인 ‘위태로운 지경’이나 ‘절체절명의 상황’, ‘진퇴양난의 입장’ 등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어 같은 어원의 사자성어가 의미 분화로 각기 통용되고 있다. 당대(唐代) 호남(湖南) 장사(長沙)의 경잠(景岑, ?-868) 선사로 알려진 초현(招賢)¹⁾ 대사의 게송인 ‘백척간두부동인(百尺竿頭不動人) 수연득입미위진(雖然得入未爲眞) 백척간두수진보(百尺竿頭須進步) 시방세계시전신(十方世界是全身)’에서 비롯한 선종언어(禪宗言語) ‘백척간두’는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는 ‘백장간두(百丈竿頭)’로 되어 있고,²⁾ 『오등회원(五燈會元)』과 『조당집(祖堂集)』 등에는 ‘백척간두(百尺竿頭)’로 되어 있으나,³⁾ 점차 ‘백척간두’로 통용되어 중국과 한국에서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발전하였다. 선종 공안집인 『무문관(無門關)』 제46칙⁴⁾에도 ‘간두진보(竿頭進步)’ 공안이 실려 있다. 이렇듯

1) 호가 ‘초현(招賢)’이고 선가(禪家)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사 경잠 선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로 법을 편 지역이 호남의 장사 지방이므로 그 지명이 그대로 별호가 되었다.

2) 『景德傳燈錄』(T51, 0274b06) “師示一偈曰, 百丈竿頭不動人, 雖然得入未爲眞, 百丈竿頭須進步, 十方世界是全身. 僧問, 只如百丈竿頭如何進步. 師云, 朗州山澧州水.”

3) 『祖堂集』권17 (K45), 『五燈會元』권10·20 (X80), “百尺竿頭不動人, 雖然得入未爲眞, 百尺竿頭須進步, 十方世界是全身.”

4) 『無門關』(T48, 0298c11) “竿頭進步; 石霜和尚云, 百尺竿頭如何進步. 又古德云, 百尺

‘백척간두’라는 성어(成語)는 불교의 선 수행 문화로부터 밀접하게 영향을 받아서 사자성어로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자성어의 그 체계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원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⁵⁾

‘백척간두’의 용례는 『홍부전』⁶⁾과 『가곡원류』⁷⁾ 등 한국의 고전문헌의 다방면에서도 절체절명의 상황과 위태로운 형국을 표현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사자성어로서 통용되고 있는 의미가 중국과 한국에서 다르게 분화됨에 따라 조선시대에서 통용되던 의미는 어떠한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고찰의 필요성으로 본 논고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자성어 내지 선종언어 ‘백척간두’의 의미에 대한 연구로는 중국 성어사전에 서 그에 대한 정의와 그것의 연원에 대한 용례들을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의미하는 본연의 뜻과 연원을 밝히고, 중국과 한국에 있어서의 의미 분화에 대한 고찰을 다룬 논문으로서 嚴美鏡(明俊)⁸⁾의 논문이 있으며, 그 밖에는 ‘위태로운 지경’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백척간두’를 제목이나 글 속에 비유한 작품이나 기사문들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한국에서의 ‘백척간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검토한 후에 통용되고 있는 기사문들의 실례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현재 중국과

竿頭坐底人，雖然得入未爲眞。百尺竿頭須進步，十方世界現全身。無門曰，進得步翻得身，更嫌何處不稱尊。然雖如是，且道百尺竿頭如何進步。 ㄱ.”

- 5) 김순진·한용수, 「불교 관련 중국어의 성어분석」, 『동아인문학』 49, 동아인문학회, 2019.12, p.217.
- 6) 작자미상, 『興夫傳』, “방문을 열어 보면 마치 미역감는 냇가같이 아이 어른이 벗고들 있는지라 홍부가 기가 막히어 옷 해 입힐 것을 생각하니 백척간두에 사흘에 한때도 먹여 갈 수가 없거든 의복을 어찌 생각하리오.”
- 7) <언론4. 첩이 좋다하되> 『歌曲源流』, “칠년의 가뭄과 구년의 홍수에도 인심이 순후터니 시화세풍(時和歲豐)하고 국태민안한대 인정은 험척천층랑(險陟千層浪)이오 세사는 위등백척간(危登百尺竿)이로다 고금에 인심이 부동함을 못내 설위하노라”. 『歌曲源流』(1876, 박효관·안민영, 856수의 시조 가집, 1권 1책(총 144면))는 『靑丘永言』(조선후기, 김천택, 580수의 시조 가집), 『海東歌謠』(1754(영조 30), 김수장, 883수의 시조 가집)와 더불어 3대 시조집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8) 嚴美鏡(明俊), 「중국 成語사전의 ‘百尺竿頭’ 용례와 의미 考察」, 『中國語文學論集』 116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19.06.

다르게 비유되고 있는 의미가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고전 전적의 방대한 자료 가운데에서 사료라는 측면과 연구범위의 한정 차원에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본 논고의 연구 자료로 택하여 ‘백척간두’ 용례의 의미를 고찰하고 그것을 구분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백척간두’의 용례 중에서 어떠한 상황에 대한 비유로 인해 그 의미가 ‘최고조의 경지’와 ‘위태로운 형국’으로의 분화와 중의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며, 나아가 ‘위태로운 형국’으로 치우쳐 변용된 시기에 대한 검토의 기대로 본 논고를 진행하고자 한다. 명확한 연유와 시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조선왕조실록』의 사료를 통해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백척간두’의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현대의 의미와는 어떻게 연결되고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에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한국에서의 ‘백척간두’ 의미

‘백척간두’의 의미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통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검토한 후에 실제 사회의 통념을 대변할 수 있는 일반사회적인 기사문을 인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전적 정의

‘백척간두’는 글자대로 해석하면 ‘일백 척 되는 대나무 장대 꼭대기’이다.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최고의 위치’ 혹은 ‘최고의 수준’, ‘최상의 경지’ 혹은 ‘최상의 관계’에 비유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으로서 ‘한 단계 더 성취한다’, ‘더욱더 발전시킨다’ 등의 ‘진일보(進一步)’를 더하여 ‘백척간두진일보’가 되면 ‘백자나 되는 긴 대나무 장대 꼭대기에 올라선 듯한 높은 위치에서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는 뜻이 된다.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여 충분히 향상하였는데도 더욱더 노력하여 보다 나은 경지로 나아가 더욱더 정채롭게 한다는 뜻인 ‘향상보진일보(向上步進一步)’라는 진취적인 의미로서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백척간두진일보’는 또 다른 의미로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을 각오로 더 나아간다’는 투지에 비유되기도 한다. ‘매우 높은 곳’이 ‘매우 높고 아슬아슬한 곳’이라는 의미로 전가하여 ‘위태로운 지경’, ‘절체절명의 상황’, ‘진퇴양난의 입장’ 등으로 비유되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일보’란 죽기를 각오한 ‘사즉생(死卽生)’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백척간두’와 ‘백척간두진일보’에 대한 정의를 현재 한국의 성어사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㉔ 百尺竿頭進一步 : 몸은 백 척의 장대 위에 있으나 또다시 한발을 내어 디딘다는 뜻으로 연구를 쌓은 위에 더한층 연구함을 이룸. 出處: 傳燈錄에 招賢大師示一偈曰, 百丈竿頭不動人, 雖然得入未爲眞, 百丈竿頭須進步, 十方世界是全身. 僧問只如百丈竿頭如何進步. 師云, 郎州山澧州水.⁹⁾

㉕ 백척간두 : 백자나 되는 긴 대. 불교에서 도를 완미하게 닦음을 비유. 백척간두진일보 : 계속 분발노력하다.¹⁰⁾

㉖ 百尺竿頭 : 막다른 위험에 빠지다. 百尺竿頭更進一步 : 이미 충분히 향상하였는데 다시 더욱 분발하여 향상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였는데 다시 정채(精彩)있는 말을 추가하다.¹¹⁾

㉗ 『故事成語辭典』에는 ‘항상일로’의 의미로 ‘백척간두진일보’를 실고 있다. 문맥 밖에서는 ‘진일보’가 덧붙은 ‘백척간두진일보’라야 ‘백척간두’의 의미가 드러난다. ‘백척간두진일보’라는 연구가 흔히 비유되고 통용되는 까닭인지는 알 수 없으나 ㉘에는 ‘백척간두’에 대한 정의는 없다.

㉘ 『漢語成句詞典』에는 ‘불교에서 도를 완미하게 닦음을 비유’라고 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나 불교의 선가에서 쓰고 있는 의미로 정의하였고, ‘백척간두진일보’에 대해서도 ‘백척간두’와 의미가 상통하게 ‘계속 분발노력하다’라고 하였다.

㉙ 『중국어성어집』에는 ‘백척간두’에 대하여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미인 ‘막다른 위험에 빠지다’라고 하면서, ‘백척간두진일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향

9) 故事成語辭典刊行會, 『故事成語辭典』, 明文堂, 1994, p.337.

10) 중국어교재편찬회, 『漢語成句詞典』, 학문사, 2003, p.7.

11) 김기영,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중국어성어집』, 한국학술정보(주), 2008, p.16.

상하였는데 다시 더욱 향상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였는데 다시 정제 있는 말을 추가하다'라고 하는 '향상일로'의 의미로 정의하여, '백척간두'에 대한 정의와는 상반되어 호응하지 못하는 의미를 보여준다.

『국어대사전』¹²⁾에서는 '백척간두진일보'에 대한 정의만을 보여준다. '이미 충분히 향상(向上)하였는데 다시 더욱 분발하여 향상'이라고 해석하여, 한국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다르게 본래의 의미대로 정의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고려대국어대사전』·『우리말샘』¹³⁾의 사전에는 '백척간두'에 대하여 한결같이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정의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진일보'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으로,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해 나아감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백척간두'에 대한 정의와 '진일보'에 대한 정의가 상통하지 않음을 보인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백척간두진일보'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다. '간두(竿頭)'에 대해서는 '장대나 대막대기 따위의 끝'이라고 정의하고는 '백척간두와 같은 말'이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인용하였듯이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하였다. '백척간두'의 정의에 대한 예문에도 한결같이 '백척간두에 선 절박한 시기',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이 원통하고 억울하다', '백척간두의 위기에 봉착했다' 등으로 '위태로운 지경'을 비유하였다.

『두산백과』¹⁴⁾에서는 '백척간두'에 대하여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이라는 의미와 '노력한 위에 한층 더 노력하는 상태 또는 마음가짐'이라는 의미를 함께 정의하였는데, '노력한 위에 한층 더 노력'이라는 의미는 '백척간두'에 '진일보'가 더해졌을 때의 의미로 합당한 것이므로 '백척간두'에 대한 정의로는 잘못된 기술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도 '백척간두'에 대해서는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이라고 정의하였으나, '백척간두진일보'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이나 경지(境地)에 도달하였어도 거기에 멈추어 있지 않고 더욱 노력함'이라고 하여 '향상일로'의

12) 한국어사전편찬회, 『국어대사전』, 삼성문화사, 1991.

13) 인터넷사전: 『표준국어대사전』·『고려대한국어대사전』·『우리말샘』은 네이버사전에 탑재되어 있다.

14) 인터넷사전: 『두산백과』.

의미로 정의하였다. ‘백척간두’의 정의와 ‘백척간두진일보’의 ‘백척간두’에 대한 정의가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 성어의 유래도 ‘자신의 나태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극한상태에 올려놓고 정신의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하여 유래와는 다르게 되어 있다.

‘백척간두’의 의미가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이라면 ‘백척간두진일보’도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딛다’라고 정의하여야 할 것이고, ‘백척간두’의 의미가 ‘최고조의 경지’를 의미할 때는 ‘백척간두진일보’도 ‘가장 높은 경지에서도 한 단계 더 향상시킨다’라는 정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위의 사전들은 같은 사전 내에서도 ‘백척간두’와 ‘백척간두진일보’에 대한 정의가 서로 부합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백척간두진일보’에서 ‘진일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백척간두’의 의미 또한 그에 상응해야 하며, ‘백척간두’의 의미가 달라지면 ‘진일보’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사전적 의미를 떠나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백척간두’와 ‘백척간두진일보’에 대한 의미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 통용되는 의미

일간지를 비롯하여 시사·경제·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여러 저널에 실려 있는 학술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백척간두’에 비유한 것으로는 「백척간두 경제위기’, 예측 가능 ‘가변성’으로 돌파하라」의 ‘각국의 신보수주의 자국 경제보호 정책에 따라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백척간두 하의 소위 퍼펙트 스톰 현실 앞에 위태롭게 내몰려 있다.’,¹⁵⁾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빛난 구국일념 정신: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을 구한 감동스토리」의 ‘6·25 전쟁은 분명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였으나 군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구국일념으로 싸웠기에 조국을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¹⁶⁾ 「백척간두의 현대차, 노조 기득

15) 신용한, 「백척간두 경제위기’, 예측 가능 ‘가변성’으로 돌파하라」, 『세종이코노미Sejong economy』 No.7, 세종경제뉴스, 2016.12.01.

16) 장삼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빛난 구국일념 정신: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을 구한 감동스토리」, 『국방저널National defense journal』 통권 제495호, 국방홍보원, 2015.03.31.

권 내려놓아야 산다」의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린 현대차다.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근로자, 기업,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 아니면 공멸이다.’¹⁷⁾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세 기사문에는 제목과 그 기사문의 내용 모두에 ‘백척간두’라는 연구로서 ‘위태로운 상황’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백척간두 경제위기에 역할 못하는 韓銀… 전망은 틀리고 분석·진단·처방은 한발 늦어 : 한국은행 해부」의 ‘지금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 상황이다.’,¹⁸⁾ 「지금 한반도는 백척간두 : 트럼프 당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직면한 위기… 중국의 북핵 문제 강경 대응, 일본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 커져」의 ‘외침이 있기 전 부패와 혼란으로 안에서부터 무너진다.’,¹⁹⁾ 「백척간두 오른 ‘김정일의 유산’ : 김정은 손에 들어간 북한 핵 향방에 관심 집중… 이전처럼 포기 않고 ‘전가의 보도’로 쓸 듯」의 ‘핵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도 있다.’²⁰⁾에서는 제목에는 ‘백척간두’가 있으나 기사문의 내용에는 ‘백척간두’라는 연구는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내용이나 사용된 용어들에서 ‘위태로운 상황’임을 말해 주고 있다. ‘백척간두’를 포함한 제목에서 보이듯이 한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과 위태로운 지경을 말해 주고 있으며, 기사문 내용 또한 ‘백척간두’라는 연구는 없지만 ‘위기’를 그려내고 있다.

또, ‘위기’라는 연구는 없으나 제목 속의 ‘백척간두’ 앞뒤 문구에서 그 내용이 ‘위기’를 말해 주고 있는 기사문인 「한국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百尺竿頭에 서 있는 韓國經濟」, 「공모형 PF 사업 ‘百尺竿頭’, 안정화 대안은 없다」²¹⁾와 같은 글도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의 ‘백척간두’에 대한 통상적인

17) 조동근, 「백척간두의 현대차, 노조 기득권 내려 놓아야 산다」, 『미래한국』 587호, 미래한국미디어, 2018.12.12.

18) 김종일, 「백척간두 경제위기에 역할 못하는 韓銀… 전망은 틀리고 분석·진단·처방은 한발 늦어 : 한국은행 해부」 『이코노미조선』 vol. 186, 조선경제리, 2017.02.08.

19) 우문태, 「지금 한반도는 백척간두 : 트럼프 당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직면한 위기… 중국의 북핵 문제 강경 대응, 일본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 커져」, 『한겨레21』 통권1140호, 한겨레신문사, 2016.12.12.

20) 홍현익, 「백척간두 오른 ‘김정일의 유산’ : 김정은 손에 들어간 북한 핵 향방에 관심 집중…이전처럼 포기 않고 ‘전가의 보도’로 쓸 듯」, 『시사저널』 통권1158호, 시사저널사, 2011.12.27.

인식은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왕조실록』의 ‘백척간두’ 의미

이전 시대에서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여러 문집이나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다양한 고전 전적에서도 그 용례를 쉽게 찾을 수 있으나, 문집의 경우에는 방대한 자료의 많은 용례들 중에서 필자 임의로 발췌 인용한다면 의미 분석에 적절치 못하고, 『승정원일기』나 『일성록』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시점의 기록이라는 점과 결권이 많은 점 또한 의미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 결권이 없고 연구 범위의 한정 차원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채택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위태로운 형국

『조선왕조실록』에서 ‘백척간두’의 의미가 현대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미와 상통하는 ‘위태로운 지경’에 해당하는 용례들은 15개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보다 더 많은 용례가 있을 수도 있으나, 필자는 ‘백척간두’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한 용례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신은 직임을 지니고서 의리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는 불안할 따름이며 낭패스런 형세가 날로 심하여 마치 **백척간두**에 있는 듯하였습니다.”

② “다만 오늘날 어려움과 위급함이 이미 **백척간두**에 이르렀기에, 엄위의 아래에서도 우러러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③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도 이런 뜻을 굳게 세워 시종 계율리하지 마시고, 마치 **백척간두**에 발을 붙여 기댄 듯이 풍랑 속에서 물이 스며드는 배에 몸을 의탁한 듯이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시며, 눈앞의 안일에 젖어 후일의 근심을 잊지 마시고

21) 서승, 「한국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아시아문화Asia culture』 통권35호, 아시아문화커뮤니티 2017.03.01. ; 이수신, 「百尺竿頭에 서 있는 韓國經濟」, 『時事金融』 32권 12호 통권382호, 시사금융사, 2016.12.10. ; 이승우, 「공모형 PF 사업 ‘百尺竿頭’, 안정화 대안은 없나」, 『CERIK저널』 통권 제173호 소통권10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10.01.

형식적인 세세한 예절을 따르다 원대한 생각을 소홀히 하지 마소서.”

④ “나라의 일이 이미 **백척간두**에 이르러 내를 건너는데 끝이 없고 사나운 파도 속에서 배에 물이 스며드는 것으로도 그 위태로움을 비유하기에 부족하다.”

⑤ “오늘날 백성들의 일은 이미 **백척간두**에 이르러 백만의 목숨들이 아침저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울부짖고 있으니, 부세는 깨끗이 청산하지 않을 수 없고 요역은 쉬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⑥ “나라의 위세와 백성들의 일이 급급한 것이 마치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경이 미쳐 이를 생각지 않는다면 그것을 장차 어찌하겠는가.”

⑦ “나라의 일이 이미 **백척간두**에 이르러 내를 건너는데 끝이 없고 사나운 파도 속에서 배에 물이 스며드는 것으로도 그 위태로움을 비유하기에 부족하다.”

⑧ “대신이 오래도록 한양을 떠남은 나라가 잘 다스려져 태평한 때에도 오히려 불가하다고 할 것인데, 하물며 이 나라의 대계와 백성의 근심이 이미 **백척간두**에 이른 날이겠는가?”

⑨ “가령 **백척간두**에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는 흠을 가지고서 맹진을 막는 것에 불과하므로 마침내는 또 이전과 같이 낭패로울 뿐이오니, 이것이 신이 감히 쉽사리 베풀어 나아갈 생각을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⑩ “지금의 양역에 대한 폐단은 위태롭기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과 똑같으니 이 폐단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백성과 나라가 함께 망할 것입니다.”

⑪ “전하의 지나친 거동은 또한 **백척간두**에 이르렀으니, 신이 어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⑫ “상신(相臣)은 탕평을 주장한 사람이오나 문득 **백척간두**에서 관직이 바뀌어 도리어 탕평을 타파시키려 하였으니, 어찌 소견이 없이 그러하였겠습니까?”

⑬ 참으로 어떠한 때란 말인가. 위태롭고도 험악한 형세와 모양새가 이미 **백척간두**에 이르렀으니, 바둑알을 포개 놓고 달걀을 쌓아 놓는 것도 그 위태로움을 비유함에는 부족하다.”

⑭ “신이 듣자옵건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지금 삼정(參政)이 목마름과 급한 것이 위태롭기가 **백척간두**와 똑같으니, 변통할 계획은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⑮ “**백척간두**의 위태로움에서 한 걸음 나아가듯이 성상의 자질에서 부족한 부분을 깊이 반성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²²⁾

22)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 이하 번역은 필자역으로 한다. ① 『선조실록(宣祖實錄)』 권151, 35년 6월 20일(庚戌), “不獨帶職犯義, 不安於心而已, 狼狽之勢, 日甚一日, 如在百尺竿頭.” ②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중초본] 권58, 13년 9월 15일(癸丑), “但以今日之艱危, 已到百尺竿頭, (不得不仰陳於嚴威之下,) 姑以一二言

①은 선조에게 동지중추부사 정인홍(鄭仁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물러나고자 하여 청하는 내용이고, ②는 광해군에게 장령 박광선(朴光先)이 사직을 청하나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며, ③은 인조에게 부제학 정경세(鄭經世), 교리 김광현(金光炫), 부교리 이윤우(李潤雨)·이성신(李省身), 수찬 권도(權濤) 등이 내정을 바꾸고 외적을 물리칠 방책에 대해 아뢰는 내용이고, ⑤는 현종에게 부수찬 이민적(李敏迪)이 소장을 올려 청대(請對)했을 때의 의견에 대해 거듭 아뢰는 내용이다. 이상은 모두 대신들이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으로서 여기에 비유된 ‘백척간두(百尺竿頭)’는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비유의 용례가 된다.

④와 ⑦은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 두 군데에 같은 내용으로 실린 것으로서 현종이 재해와 기근과 흉년의 참혹함에 대해 하교하는 내용이고, ⑥은 현종이 우부승지 이지무(李枝茂)에게 명하여 허적에게 나라의 사정과 백성의 일을 전유하는 내용이며, ⑧은 숙종이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지완(尹趾完)에

之.”(『光海君日記』[정초본] 권169, 13년 9월 15일(癸丑)). ③ 『인조실록(仁祖實錄)』 권16, 5년 5월 1일(丙寅), “伏願殿下, 堅立此志, 終始靡懈, 如寄足於百尺竿頭, 如托身於風濤漏船之上, 毋狃於目前之小安, 而忘日後之憂; 毋徇於文爲之細節, 而忽遠大之慮.” ④ 『현종실록(顯宗實錄)』 권20, 13년 3월 6일(壬子), “國事已至百尺竿頭, 涉川無涯, 驚濤漏舟, 未足以喻其危.” ⑤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권4, 1년 9월 20일(壬申), “今日民事, 已到百尺竿頭, 百萬生靈, 嗷嗷朝夕, 賦不可不蠲, 役不可不休.” ⑥ 『顯宗改修實錄』 권25, 12년 12월 12일(己丑), “國勢民事之岌岌, 如在百尺竿頭, 卿若不及於此, 其將奈何?” ⑦ 『顯宗改修實錄』 권25, 13년 3월 6일(壬子), “國事已至百尺竿頭, 涉川無涯, 驚濤漏舟, 未足以喻其危.”(④의 『顯宗實錄』 권20, 13년 3월 6일(壬子) 1번째기사와 동일.) ⑧ 『숙종실록보권정오(肅宗實錄補闕正誤)』 권29, 21년 11월 15일(癸酉), “大臣久離京輦, 在治泰, 尙云不可, 矧茲國計民憂, 已到百尺竿頭之日?” ⑨ 『영조실록(英祖實錄)』 권8, 1년 10월 15일(己卯), “借令百尺竿頭, 欲爲進步, 此不過爲捧土而塞孟津, 畢竟又將如前狼狽而已. 此臣所以不敢爲容易進身之計也.” ⑩ 『英祖實錄』 권36, 9년 12월 26일(癸酉), “即今良役之弊, 殆同百尺竿頭, 此弊不救, 則民國俱亡.” ⑪ 『英祖實錄』 권52, 16년 7월 21일(己丑), “殿下過舉, 亦到百尺竿頭, 臣安得不痛哭流涕也?” ⑫ 『英祖實錄』 권68, 24년 10월 12일(癸巳), “相臣以蕩平主人, 忽然轉身於百尺竿頭, 反欲打破蕩平, 是豈無所見而然哉?” ⑬ 『정조실록(正祖實錄)』 권22, 10년 10월 22일(壬戌), “是誠何等時也, 岌岌之勢〔扼掙〕〔杌隉〕之象, 已到了百尺竿頭, 積某果卵, 不足以喻其危也. …” ⑭ 『正祖實錄』 권24, 11년 7월 18일(癸未), “臣聞窮則變, 變則通. 目今蓼政之渴急, 殆若竿頭之百尺. 通變之策, 更待何時?” ⑮ 『正祖實錄』 권33, 15년 10월 9일(庚戌), “竿頭進步, 莫如從聖賢不足處猛省.”

게 어찰(御札)을 내려 조정에 나오라 면유하는 내용이고, ⑩은 영조가 대신들과 양역 변통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에서 형조 판서 이정제(李廷濟)가 말하는 내용이며, ⑬은 정조가 다시 도승지 심풍지(沈豐之)를 영의정 김치인에게 보내어 조정에 나올 것을 거듭 유시하는 내용이다. 이상은 왕이 대신들에게 ‘위태로운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며 하교하는 내용의 용례들이다.

⑨는 영조에게 봉당의 타파에 관한 동부승지(同副承旨) 조문명(趙文命)이 사직(辭職)의 뜻을 올리는 내용의 상소이고, ⑪은 영조에게 탕평을 굳게 할 것을 청하는 부사직 오광운(吳光運)의 상소문의 내용이며, ⑫는 영조에게 부수찬 이세사(李世師)가 탕평책의 폐해에 대해 상소함에 따라 임금의 준절히 나무라자이에 낙향의 뜻을 올리는 내용이다. 모두 탕평책과 관련하여 국가의 흥망과 임금의 위엄과 왕강의 위태로움에 대하여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비유하였다.

⑭는 정조에게 강계부사(江界府使) 이이상(李頤祥)이 강계 백성의 지탱하기 어려운 고통을 상소하는 내용이고, ‘간두지백척(竿頭之百尺)’으로서 ‘백척간두(百尺竿頭)’와는 그 앞뒤를 바꾸어서 ‘위태로운 상황’에 대하여 비유하였으며, ⑮는 정조에게 좌의정 채제공이 임금의 기강이 강인해야 기품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아뢰는 내용의 상소문이다.

⑨의 ‘백척간두욕위진보(百尺竿頭欲爲進步)’와 ⑮의 ‘간두진보(竿頭進步)’는 ‘백척간두진일보’와 같은 의미의 연구로서 ‘위태로운 지경에서 한걸음 더 호전하고자 한다’는 의미가 된다. ⑨ ⑭ ⑮를 제외하고는 ‘백척간두(百尺竿頭)’라는 연구만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백척간두’에 대한 15개의 모든 용례들의 의미는 ‘위태로운 지경’, ‘절체절명의 극단’, ‘진퇴양난의 상황’ 등을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상통하게 된다.

2) 최고조의 경지

『조선왕조실록』에서 ‘최고조의 경지’에 비유한 ‘백척간두’에 대한 용례는 아래와 같이 7개 정도로 찾아볼 수 있는데, 모두 ‘백척간두’ 뒤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라는 연구가 보태져서 ‘최상의 경지’임을 보인다.

⑩ “성상의 덕이 날로 빛나고 세상의 도가 크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백척간두**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성상의 심증이 이와 같다면 여러 신하들이 어찌 감히 어감이 있겠습니까?”

⑪ “성상의 학문이 비록 고명한 경지에 이르렀고, 성상의 옥체도 비록 안정되고 조섭함에 있을지라도 **백척간두**에서 다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의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분발하였던 초심을 돌아보시어 헛된 말로 돌아가게끔 하시지 마시고, 병축을 밝혀 하시던 성상의 공부를 더욱 돈독히 하시어 혹여라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소홀치 마옵소서.”

⑫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시중 생각하기를 배우는 것을 본보기로 하면 덕이 닦아지는 것도 다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삼태기의 공이라도 망각한다면 쉽사리 어그러질 것이니, **백척간두**에서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가 어렵다면 마땅히 소홀히 함을 경계하는 데에 진념하여야 하며, 더욱이 넓은 방도를 힘써 이어서 순수함에 이름으로써, 또한 다하지 못한 지경에 이르러 이겨내지 못한 탄식을 갖는 데에 이르지 말게 하소서.”

⑬ “9인이나 되는 산도 한 삼태기의 흙을 마저 채워야 함에 달렸다는 경계처럼 **백척간두**에서도 한 걸음을 더 전진하기에 힘써야 하는 법입니다.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덕성을 함양해 가시옵소서.”

⑭ “지금 하늘이 전하께 경계할 것을 보이어 기필코 크게 분발시키고 크게 진작시키고자 한 것은 그 뜻을 살펴보건대 전하로 하여금 **백척간두**에서 다시금 진일보하시게 하려는 데에 있지 않겠습니까?”

⑮-1 비답하기를, “어떻게 **백척간두**에서 다시 진일보하라고 말하는가. 하학에도 어두운데 상달이야 업두를 내겠는가.”

⑯ “성상의 학문은 고명하시어 이치를 밝히심이 다하였으니 지금 어찌 감히 다시 의논하여 배움을 용납하겠습니까마는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처럼 오히려 참마음으로 그러함을 극복하는 것으로 생각을 이에 여기에 두시옵소서.”²³⁾

23) ⑩ 『英祖實錄』 권46, 13년 10월 1일(乙酉), “聖德之日光 `世道之丕變? 古有百尺竿頭更進一步之語, 聖心如此, 則群下曷敢有越乎?” ⑪ 『英祖實錄』 권67, 24년 3월 5일(己丑), “聖學雖臻高明, 聖候雖在靜攝, 可不思百尺竿頭更進一步之義耶? … 而惟望殿下回顧奮發之初心, 而毋使歸於空言, 益篤秉燭之聖工, 而毋或忽於自治.” ⑬ 『英祖實錄』 권126, 51년 12월 10일(癸丑), “傳曰: ‘念終始典于學, 厥德修.’ 罔覺一簣之功易虧, 百尺之步難晉, 則當軫微忽之戒, 益懋緝熙之方以至於純, 亦不已之域, 而勿至有鮮克之歎也.” ⑯ 『正祖實錄』 권16, 7년 7월 4일(癸巳), “九仞之山, 戒存一簣; 百尺之竿, 勉進一

위의 ‘최고조의 경지’에 비유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아니지만,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 시기에서는 위의 인용문과 같이 중국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같은 ‘최고조의 경지’로도 비유되었다.

⑩은 영조에게 영상 이광좌가 이병상의 오랜 귀양살이에 대하여 지나치다면서, 자신은 노병으로 정승직을 사임하고자 청하는 상소이다. 임금의 정성으로 가르치고 인도한다면 여러 신하들도 임금의 위엄을 어길 수가 없고 진심으로 억념할 것이라 충언하였다. 또, 언로를 활짝 열고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 근거 없는 일은 너그려이 용서하고, 충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고친다면 임금의 덕이 날로 빛나고 세상의 도가 크게 변함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 하였다. ‘백척간두에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못 신하들도 감히 어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임금의 훌륭한 덕화를 ‘백척간두’에 비유하고, ‘갱진일보’를 부연하여 더욱더 빛나게 한다는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되게 하여 ‘백척간두갱진일보(百尺竿頭更進一步)’라고 하였다.

⑪은 영조에게 정원에서 천재지변을 대비할 것에 대한 간언이다. 영조 24년 3월 5일 하루 상간에 하늘에서는 진눈깨비와 우박이 내리는 천재가 일어나고,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지변이 발생함에 대하여 이를 대비할 것을 간언하였다. 또, 조정에서 군신들의 토론 없이 임금의 뜻을 받들어 따르기만 하는 풍조가 되어 버린 것에 대해 임금으로서 두려워함을 갖고 반성해야 한다고 간언하였다. 정사 또한 말단에 해당하고 그 근본을 궁구함에는 임금이 한마음을 다스리고 이치를 밝혀 스스로 학문을 쉽 없이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올린 상소이다. 임금의 학문이 비록 고명한 경지에 이르렀고 옥체가 조섭하는 중에도 초심으로 분발하여 더욱더 등불을 밝히듯 공부를 독실히 하여 스스로를 다스림에 소홀함이 없기

步, 常存敬畏, 涵養德性.” ⑩『正祖實錄』 권43, 19년 10월 17일(甲午), “今天示警於殿下, 必欲大奮勵大振作者, 其意願不在於使殿下, 百尺竿頭, 更進一步歟? …” ⑩-1 批曰: “何云百尺竿頭, 更進一步乎? 昧於下學, 矧乎上達?” ⑪『正祖實錄』 권49, 22년 8월 26일(丁巳), “聖學高明, 燭理已盡, 今何敢復容議爲, 而百尺竿頭, 更進一步, 尙克是忱, 念茲在茲.”

를 간언하였다. ‘백척간두에서 다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의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훌륭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분발하여 매진할 것을 ‘백척간두갱진일보(百尺竿頭更進一步)’에다 비유하였다.

⑮은 보덕 오재소 등이 사도세자 장조에게 시종 배우기를 힘쓴다면 불현듯 그 덕이 닳아게 된다고 하며 청정을 하례하는 상소이다. 『서경(書經)』의 내용을 인용하여, ‘아홉 길 높이의 산을 쌓는 데에는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도 이루지 못한다’²⁴⁾는 것을 ‘백척간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을 경계하였다. 계속하여 더욱더 전심으로 빛나는 방도에 힘써 순수한 경지에 이르게 하여, 능히 해내지 못함에 대한 탄식에 이르지 않게 할 것을 충언하며, ‘백척지보난진(百尺之步難晉)’²⁵⁾에 비유하여 지금도 훌륭하나 더욱더 분발하여 지극한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⑯는 영의정 정존겸이 인군의 도와 관리의 임명에 대하여 정조에게 올린 상소문으로서, 임금 자신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요(堯)·순(舜)과 문왕(文王)·무왕(武王)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도 모두 임금의 뜻으로 작정된 일이라고 고하였다. 또 임금 스스로는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덕성을 함양해야 하며, 비록 미미한 한 생각이라도 공(公)이라면 확충하고 사(私)라면 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반듯하게 하고, 사물을 수응해 가는 근원을 맑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힘쓸 것을 주청하였다. 9인(仞)을 쌓은 산도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 이루지 못하였다는 경계에 빗대어 잘하는 중에도 더욱더 힘쓸 것을 ‘백척간두면진일보(百尺之竿勉進一步)’에 비유하여 9인(仞)을 쌓은 산인 ‘백척간두’에 ‘향상일로’를 의미하는 ‘면진일보’를 부가하였다.

⑰은 우의정 채제공이 정조에게 왕의 일심과 정승을 가려 두는 일에 관하여 상차하는 것으로서, 왕은 권세를 이용하거나 남몰래 편당의 계책을 꾀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는 자들을 잘 가려야 하고, 정승도 가려 두어야 할 것을 고하면서 자신은 정승으로서 자격이 못 되니 내쳐줄 것을 상소한 내용이다. 또 정조

24) 『書經』〈旅獒篇〉, “爲山九仞 功虧一簣(위산구인 공휴일채)”

25) ‘晉’도 ‘나아가다’라는 ‘進’의 의미가 있다. 원문에 ‘進’이 아닌 ‘晉’으로 되어 있다.

와 관련한 근래의 일들을 계기로 경계할 것을 보여 분발시키고 크게 진작시키려는 것이라 하며 ‘백척간두갱진일보(百尺竿頭更進一步)’에 비유하였다.

㉔-1의 정조의 비답에서는 하학에도 어두운데 상달을 어찌 엄두를 내겠느냐고 하면서 ㉔에서와 같은 언구와 의미로서 ‘백척간두갱진일보(百尺竿頭更進一步)’에 비유하였다. 여기서의 ‘상달’은 위로 더욱더 향상함을 말하는 것으로써 ‘백척간두’는 ‘최고조의 경지’를 의미하며, ‘갱진일보’는 ‘향상일로’의 진취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㉔은 정조에게 헌납 임장원이 국가 인륜 도덕의 형성과 임금이 행해야 할 도리에 대해 상소를 하면서, 학문이 고명하여 이미 극진하게 이치를 밝힌 것에서도 더욱더 매진할 것을 ‘백척간두갱진일보(百尺竿頭更進一步)’에 비유하였다. ‘학문이 고명하고 이치를 밝힘이 극진함’을 ‘백척간두’에 빗대었고, ‘더욱더 매진하여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은 ‘갱진일보’를 사용하였다.

16 17 ㉔ ㉔-1 ㉔에서는 ‘백척간두갱진일보(百尺竿頭更進一步)’라는 어구를 사용하여 ‘높은 경지에서도 한 걸음 더 향상하여 나아간다’는 의미를 보이고 있다. 18의 ‘백척지보난진(百尺之步難晉)’과 19의 ‘백척지간면진일보(百尺之竿勉進一步)’는 ‘백척간두(百尺竿頭)’라는 언구로 똑같이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백척지간(百尺之竿)’은 ‘백척간두(百尺竿頭)’와 같은 의미이며, ‘백척지보(百尺之步)’는 ‘백척간두에서의 걸음’이 되므로, ‘백척지보난진(百尺之步難晉)’은 ‘백척간두난진일보(百尺竿頭難晉一步)’로 바꿀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백척간두’에 대한 일곱 개의 용례들은 모두 ‘갱진일보’와 같은 류의 어구와 합성되어 ‘최고조의 경지에서도 더욱더 분발하여 나아가다’와 ‘최상의 경지에서는 더 나아가기가 힘들다’ 혹은 ‘최고의 경지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됨으로서 ‘최상의 경지’를 대신하여 비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시대에 있어서 같은 어원을 가진 하나의 어구가 그 의미가 분화되어 사용된 분포를 대조해본다는 차원에서 『조선왕조실록』의 용례를 모두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 중·후기 한 세기에 가까운 영·정조시기에 동일한 어구의 ‘백척간두’가 서로 상반되는 의미인 ‘위태로운 지경’과 ‘최고조의 경지’라는 두 부

류의 의미로 분화하여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백척간두’가 ‘최상의 경지’라는 의미가 될 때에는 뒤에 ‘진일보’와 같은 류의 연구를 동반하여 ‘최상의 경지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형성하게 됨을 볼 수 있다.

4. 한국에서의 ‘백척간두’ 의미 변용

조선시대에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분화되어 사용되었던 ‘백척간두’는 선 수행과 깨달음이 지극히 높은 경지에 도달함을 비유하였던 것으로 선종언어에서 연원하였다. 현대 중국의 성어사전에서는 그러한 의미로서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그 연원과 출처에 있어서는 선종의 문헌과 여타의 고전에서 도출된 ‘최고의 경지’에 대한 의미로 정의한다. 지극히 일부 사전에서는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지경’이라는 의미를 함께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²⁶⁾ 중국 성어사전을 통해 보면 중국의 고전에서는 주로 ‘최상의 경지’로 비유되고 있으며, 극히 미미하게 ‘위태로운 형세’에 비유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²⁷⁾ 이러한 의미들이 현대 중국사

26) 上海辭書出版社發行所發行, 『中國成語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7, p.27, “高竿的頂端。唐·吳融〈商人〉詩: ‘百尺竿頭五兩斜, 此生何處不爲家。’ 宋·蕭廷之〈南鄉子〉: ‘百尺竿頭牢把線, 掀援, 從此元神命永存。’ 佛教比喻道行造詣達到極高境界, 但尚需繼續努力。〈五燈會元·長沙景岑禪師〉: ‘百尺竿頭不動人, 雖然得入未爲真, 百尺竿頭須進步, 十方世界是全身。’ 后亦常與 ‘更進一步’ 連用, 汎指不滿足已有成就, 要爭取更大進步。宋·朱熹〈答羣仲至書〉: ‘故聊復言之, 恐可以少助百尺竿頭更進一步之勢也。’ 元·張養浩〈折桂令〉曲: ‘功名百尺竿頭, 自古及今, 有幾個幹休。’ ” 여타의 사전에 대한 검토는 嚴美鏡(明俊), 위의 논문, pp.206-217. 중국 성어사전별 용례 참조.

27) 韓省之, 『中國成語分類大詞典』, 北京: 新世界出版社, 1996; 李行健, 『現代漢語成語規範詞典』, 長春: 長春出版社, 2000; 黎 弋, 『學生成語詞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4; 林頡凱·高 興, 『漢語成語多用辭典』,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6; 劉潔修, 『漢語成語考釋詞典』, 上海: 商務印書館出版, 2000; 劉葉秋·苑育新·許振生, 『成語熟語詞典』, 上海: 商務印書館出版, 2000; 南 人等, 『十用學生詞語辭典』,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89; 倪寶元, 『漢語成語實用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上海辭書出版社發行所發行, 『中國成語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7; 史有爲, 『成語用法大詞典』, 大連: 大連出版社, 1997; 宋永培, 『漢語成語詞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94; 唐 樞, 『中華成語熟語辭海』, 北京: 學苑出版社, 1995; 王 濤, 『中國成語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8; 向光忠·李行健·劉松筠, 『中華成語大辭典』

회에서는 ‘최고조의 경지’ 혹은 ‘최상의 위치’, ‘최상의 관계’ 등 ‘최고’와 ‘최상’이라는 의미로 고착되어 비유되고 있으며, 이러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한다는 의미의 ‘갱상일루(更上一樓)’나 ‘갱상일층루(更上一層樓)’와 같은 류와 합성되어 통용되고 있다.

1) 의미 변용의 요인

같은 어원을 가지는 성어가 한국과 중국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발전되어 온 것은 두 나라의 정치와 문화 혹은 지리적 여건이 그것을 판이하게 달리하였을 것으로 본다. 중국 국민들의 심성과 문화에는 중화사상이 고취되어 ‘백척간두’에 대하여 받는 어감이 매우 높게 처한 ‘고준함’으로 먼저 자리 잡고 발전되어, ‘최고조의 경지’와 ‘최상의 위치’를 의미하는 성어로 고착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최고조의 경지’와 ‘위태로운 지경’이라는 두 가지 의미 가운데에서 ‘최고조의 경지’로 발전한 중국에 비하여 ‘위태로운 지경’이나 ‘절체절명의 상황’, ‘진퇴양난의 입장’ 등으로 극명히 다르게 발전하여 비유되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그 통용에 대한 요인을 살펴보고자 위의 3장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백척간두’의 용례를 발췌하여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구분 지어 보았다. 그 결과, 동일한 시기에 ‘위태로운 지경’과 ‘최고조의 경지’가 함께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2; 叶子雄, 『漢語成語分類詞典』,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2; 朱瑞玟, 『佛教成語』,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6; 朱祖延, 『漢語成語辭海』, 武漢: 武漢出版社, 1999. 이상과 같은 중국 성어사전에서는 ‘백척간두’의 용례가 고전문헌 속의 다음과 같은 작품에서 확인된다. “〈險竿行〉(柳曾, 全唐詩七七六), 〈足球〉, 〈答陳同甫書〉(宋, 朱熹朱子文集三六), 〈答鞏仲至書〉(宋, 朱熹朱子(朱文公)文集 六四), 〈商人〉(吳融, 全唐詩六八四), 〈人治與自治〉(李大釗), 〈第二个太陽〉(劉白羽), 〈致唐繼堯劉顯世等電〉(蔡鐸), 〈團結的推動力〉(鄒韜奮), 〈水龍吟, 再和送吳季申赴省〉(李曾伯, 全宋詞, 二八二二 上欄), 〈葆光集中, 臨江仙〉(元, 尹志平), 〈誠齋集 六, 登烏石寺〉(宋, 楊萬里), 〈和南質張學士啟之見贈七首〉(元, 耶律楚材), 〈漫談文藝創作〉(茅盾), 〈折桂吟〉(元曲, 張養浩), 〈南鄉子〉(宋, 蕭延之), 〈紅樓夢〉” 嚴美鏡(明俊), 위의 논문, pp.206-217. 참조. 이 가운데 〈險竿行〉(柳曾, 全唐詩七七六)과 〈商人〉(吳融, 全唐詩六八四)이 위태로운 지경 정도의 의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선조실록』에서부터 보이는 ‘백척간두’의 용례를 ‘위태로운 지경’과 ‘최고조의 경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본 결과로는, ‘위태로운 지경’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용례들은 『선조실록』 1회, 『광해군일기』 1회, 『인조실록』 1회, 『현종실록』 1회, 『현종개수실록』 3회, 『숙종실록보궐정오』 1회, 『영조실록』 4회, 『정조실록』 3회의 용례로서 15회를 보이고 있다.²⁸⁾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선조실록』에서 『정조실록』까지 고르게 그 용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는 인조대에서 1회, 영조대에서 19회, 고종대에서 7회의 용례를 보이고 있다. 결권이 많은 관계이기도 하겠지만, 세 왕대에서만 그 용례를 보이고 있으며, 재위기간이 길기도 하겠으나 유독 영조대에서 그 용례가 두드러지게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구한말 위기의 고종대였던 만큼 7회에 달하는 용례를 보이고 있는데, 고종대의 용례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에서의 용례는 다만 『정조실록』까지만 보인다. 『고종실록』은 일제강점기때 집필되어 왜곡된 가능성으로 인해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고조의 경지’에 비유된 용례로는 『영조실록』 3회, 『정조실록』 4회의 용례를 보이고 있다. 오직 영조대와 정조대에서만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승정원일기』에서는 영조대에서 5회의 용례를 볼 수 있다.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에서 ‘백척간두’의 용례를 보이는 고전문집들을 살펴본 바로는 대체로 선조대 이후이다. 선조대 이전인 1428년에 간행된 『동문선(東文選)』의 용례는 불교의 선사(禪師)에 관한 내용의 글이며, 그 의미는 수행의 최고의 경지에 해당한다. 선가의 수행 최고의 경지로서의 ‘백척간두’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연구하도록 하고 그 용례로 한 가지 제시토록 하겠다.

신정(神定)은 범상(梵相)이 장대하고, 천기(天機)가 빼어났다. 방외(方外)로 가는 길에서 학류(學流)의 수좌(首座)가 되고, 선불(選佛)하는 과장(科場)에서 심공(心空)의 급제(及第)를 이루었다. 인간의 자취를 매미 껍질 벗듯이 하고, 격외의 놀이를

28) 『현종실록』 1회는 『현종개수실록』에 동일한 내용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14회가 된다.

봉새가 날듯이 하였다. 비록 백 척의 장대 꼭대기에서 능히 걸음을 내디뎠으나, 외로운 산봉우리의 마루턱에서 몸을 편안히 할 겨를이 없었으며, 송광사(松廣寺)를 떠나 죽림방(竹林坊)에서 살았다.²⁹⁾

위의 인용문과 같이 불교의 선종의 가풍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백척간두’의 연원인 선종의 장사 경잠선사의 계승과 그 의미가 상통한다. 그 연원과 의미가 유사한 ‘최고조의 경지’로 비유된 용례는 영조대와 정조대에서 사용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당시는 조선왕조의 부흥시대였던 만큼 ‘백척간두’라는 것이 ‘최고’와 ‘최상’의 어감으로 연상되었을 법도 할 것이다. 그렇다고 영조대와 정조대에서는 ‘최고’와 ‘최상’의 의미로만 통용된 것도 아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위태로운 지경’에도 비슷한 헛수로서 비유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성어 연구가 같은 시대에 전혀 다른 의미로 통용되었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3장에서 인용한 ‘백척간두’의 용례들 중에서 살펴본다면, 그때 당시의 어떠한 상황의 위태롭기가 백척간두와 같이 높은 데에 까지 치닫게 되었음을 두고, 높은 곳은 바로 위태로운 곳으로 인식하면서 위태로움을 백척간두의 높은 곳에 비유하여 중의적인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다.

3-② ‘다만 오늘날 어려움과 위급함이 이미 **백척간두에 이르렀기에**

3-④ ⑦ ‘나라의 일이 이미 **백척간두에 이르러**

3-⑤ ‘오늘날 백성들의 일은 이미 **백척간두에 이르러**

3-⑧ ‘이 나라의 대계와 백성의 근심이 이미 **백척간두에 이른** 날이겠는가?’

3-⑪ ‘전하의 지나친 거동은 또한 **백척간두에 이르렀으니**

3-⑬ ‘위태롭고도 험악한 형세와 모양새가 이미 **백척간두에 이르렀으니**

위의 용례들의 공통점은 바로 ‘백척간두에 이르다’이다. 어떠한 상태가 가장 높은 데에까지 이르렀다는 의미와 같 때까지 다다라서 그 상황이 위태롭고도 아

29)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의 국역, 최자(崔滋), 〈同前神定爲禪師官誥〉, 『東文選』卷 27, 1428, “某梵相魁梧, 天機俊壯, 遊方路上, 爲首座於學流, 選佛場中, 作心空之及第. 蟬蛻人間之迹, 鵬搏格外之遊. 雖能進步於百尺竿頭, 未暇安身於孤峯頂上, 出松廣社, 居竹林坊.”

슬아슬한 형국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교차하는 용례들이면서도 그것이 가리키는 진정한 의미는 ‘위태로운 형세’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비유이다. 3-⑬의 ‘위태롭고도 험악한 형세와 모양새가 이미 백척간두에 이르렀으니’에는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위태로움이 이미 갈 때까지 다다른 상태이고 그 형상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듯 매우 아슬아슬하고도 위태롭기 짝이 없는 형국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당시에 매우 높은 경지를 표현하면서 비유하였던 ‘백척간두’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백척간두’는 똑같이 ‘매우 높은 곳’이라는 뜻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높은 경지’와 ‘높고 아슬아슬하게 위태로운 곳’이라는 의미로 나뉘어 비유된 것이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백척간두’라는 성어를 높다는 뜻으로 사용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로는 ‘최고의 경지’에 비유하였고, 그 높이높은 위치에 이르러 처하게 됨이 상황에 따라서는 ‘위태로운 형세’를 대변하게 되어 같은 시대에 하나의 성어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의미로 통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것이 상징하는 표면적인 의미가 똑같이 ‘높은 곳’이라는 바탕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연유로 의미가 변용되었는지에 대한 계기는 딱히 꼬집어 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조선시대에서는 영조와 정조의 시기를 거치는 한 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동일한 시기 안에서 ‘백척간두’의 의미가 ‘최고조의 경지’와 ‘위태로운 지경’으로써 함께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정조 시기를 지나고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조선 내에서는 당파와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정국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밀려 들어오는 외세에 급변하는 회오리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정치와 사회는 건잡을 수 없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야말로 누란지세의 형국을 방불케 하고 바둑알을 포개놓은 듯하였으므로 ‘백척간두’의 높은 곳은 최고조의 경지보다는 자연스레 위태위태한 형국으로 비유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형세는 위태로운 형국으로서의 ‘백척간두’에 비유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므로 위태로운 지경이라는 의미를 지닌 ‘백척간두’로 고착화가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미 변용과 한·중 교류의 관계

동일 연구가 어느 한 시기에서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의미로 함께 통용되다가 점차로 ‘위태로운 지경’, ‘절체절명의 상황’, ‘진퇴양난의 입장’ 등의 의미로 고착화되어 통용된 한국의 입장과 ‘최고조의 경지’, ‘최고의 위치’, ‘최상의 관계’ 등으로 발전한 중국의 입장에는 그 어떠한 원인이 내재하고 있을 것을 추론케 한다. 고취된 중화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한 중국인에게는 ‘최고의 경지’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외세의 침입과 압력의 역사를 지나온 한국인에게는 ‘위태로운 형국’으로 인식되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³⁰⁾

이와 같은 구체적인 담론을 위해 근대 이후 한국과 중국 간의 인문학에 대한 교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³¹⁾ 인문학의 중요성이 날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의 인문학 연구는 각 나라의 인문학 연구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어휘의 변모에 대한 한중 간의 비교와 대조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³²⁾ 어휘는 단순한 의미전달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철학사상과 역사성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사자성어 하나에 역사의 한 대목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것이 발전하여 또한 철학사상까지도 함축하고 있음을 볼 때 어휘의 변용에 대한 연구는 실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사자성어로 발전된 어휘들 가운데에서 그 의미가 한국과 중국 간에 다소 다르거나 상반되게 변용된 것을 중심으로 그 연원과 변용된 요인을 추적해봄으로써 양국 간의 민족성 내지 문화적 요소의 가미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본다.

의미가 변용되어 분화된 사자성어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하늘을 놀래고 땅을 진동한다는 ‘驚天動地(경천동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땅에

30) 嚴美鏡(明俊), 위의 논문, p. 225. 참조, 중국 성어사전에서 ‘백척간두’의 용례를 분석하여 ‘백척간두’의 연원과 의미를 고찰하고,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차이점을 전개하였다.

31) 최병우, 「〈한중인문학연구〉로 본 한중 인문학 연구사」, 『한중인문학연구』 제54호, 한중인문학회, 2017.03, p.29.

32) 한용수, 「한중간 언어, 문화, 교육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중인문학연구』 제54호, 한중인문학회, 2017.03, p.59.

살면서 별일에도 놀랄 일이 많은 한국인에게는 놀라운 일에 비유하게 되지만, 큰 땅덩어리에서 온갖 가지의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져도 놀라기보다는 예사로 보고 사는 중국인들에게는 단순히 소리나 사건 기세가 매우 큼에 비유되고 있다. 또 ‘難兄難弟(난형난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미로 쓰이는 한국과 어려움을 함께했다는 의미로 쓰이는 중국은 그 뜻이 전혀 다르다. ‘橫說豎說(횡설수설)’ 또한 한국에서는 조리없이 아무렇게나 마구 지껄인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중국에서는 상대방이 쉽게 깨우치도록 여러 방면으로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줌을 의미한다. ‘朝三暮四(조삼모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잔꾀를 부려 남을 속이고 회롱한다는 의미로 통하지만 중국에서는 변덕스럽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민족성이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그 의미가 다소 다르거나 전혀 다른 면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족성과 문화적 차이를 요인으로 하여 같은 어휘로서 서로 다른 의미의 성어로 변용되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소통부재로 인한 단절 또한 문화는 물론이고 언어발달과 변모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백척간두’는 조선 말기와 청대 말기 이후 90년대 이전까지 양국 간의 단절이 초래한 결과로 그 의미에 있어서 각기 한쪽 방향으로만 발전되어 극명하게 달리 변모하였다고 하겠다. 중국과의 단절 시기에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치르고 전후 긴장감과 함께 언제 다시 촉발될지도 모를 전운이 감도는 위기감 속에서 정치와 사회 변혁을 거치는 동안 위험천만하고도 위태로운 상황은 마치 ‘누란지세’를 연상케 하였으므로 ‘백척간두’에 대한 의미도 ‘위태로운 상황’으로 고착화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어떠한 어구를 접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어감이라는 것은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공동체적인 요소를 함축한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무언가로부터 표출된 어감일 수가 있다. 중국인들에게 중화사상이 팽배해 있다는 것은 굳이 그 근거를 내세우지 않아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그에 반해 외세의 침입과 함께 험난한 여정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한민족에게는 위기의식의 고조가 알게 모르게 뿌리박히게 되었을 또한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인식과 감성에 따라 언어의 의미 또한 그 변천사를 겪게 마련이다. 물론 중국의 역사 또한 흘러졌다 멎었다를 반복하는 동안 수많은 전쟁사를 겪어야만 했던 곳이다. 그러

나, 근본적으로 크나큰 땅덩어리를 가졌음과 함께 천하의 중심에 있다는 중화의 식으로 뭉쳐진 그들에게 있어서의 중화우월주의는 새삼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무조건 크고 높은 것을 지향하고 작은 것도 크게 부풀리는 그들의 습성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어구가 두 나라 간에 전혀 상반된 의미로 변모하였음에 대하여 민족성이나 문화적인 특성이 그 한 요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한·중 간에 있어서 문학이나 역사, 철학사상의 교류를 통해 그와 관련한 사자성어의 의미 변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써 상대의 문화와 민족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대한 인문학이 간직한 사상은 그 의미 또한 증폭되므로 더욱더 폭넓은 가치를 지닌 무진장 보고를 얻게 된다고 하겠다. 한국인이 써놓은 글 속의 ‘백척간두’에 대한 의미를 중국인이 볼 때, 중국인이 인식하는 의미로 해석을함과 동시에 한국인의 정서로도 해석한다면 그 의미가 중의적이면서도 풍부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인이 쓴 ‘백척간두’에 대한 의미도 중국인들의 정서와는 다른 한국인의 정서로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면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된다. 만약 상대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를 모른 채 간과한 상태로 남의 글을 접하게 된다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양국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한쪽에서는 최상의 관계라는 의미로 ‘백척간두’를 말하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인 사자성어를 가진 인문학에 대한 교류와 연구를 통해 철학과 사상에 대한 의미 해석도 재고되어야 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한 면에서 한·중 간의 인문학 교류와 연구는 더욱더 증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중국 당대(唐代)의 장사 경잠(長沙景岑) 선사의 계송에서 비롯한 선종언어(禪宗言語)로서 중국과 한국에서 사자성어로 발전한 ‘백척간두’는 세간사 다방면에서 종종 비유되고 있으며, 종래의 고전이나 사료에서도 흔히 비유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최고의 위치’나 ‘최상의 경지’에 비유되는 중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위험천만한 형국인 ‘위태로운 지경’이나 ‘절체절명의 상황’, ‘진퇴양난의 입장’을 떠올리게 된다. 사전적 정의는 대부분이 ‘위태로운 지경’으로서 공통적이며, ‘백척간두진일보’에 대한 의미에 있어서는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딛다’라는 것과 ‘이미 충분히 향상하였는데 다시 더욱 분발하여 향상하다’라는 뜻으로 함께 정의되기도 하였다. 사전적인 정의는 이러하지만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인식은 ‘위험천만한 형국’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 용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백척간두’에 대한 조선시대에서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용례들의 의미를 구분 지어 분석하고 『승정원일기』에서도 그 의미의 분포를 나누어 보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용례들을 살펴본 바로는 ‘어떠한 상황이 백척간두의 높은 곳에까지 이르다’라는 의미에서 ‘높은 곳은 위태로운 곳’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위태로움이 높은 극지점에까지 치달았다’라는 의미로써 ‘백척간두에 이르다’라고 비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떠한 업적이나 수행한 경지가 높음을 비유할 때에 ‘백척간두’의 높은 곳에다 빗대어 ‘최고조의 경지’를 대변하게 된 것이 높은 곳은 위태로운 곳이라는 인식과 함께 당시의 어떠한 실상이 극단지점까지 치달아 그 위험천만한 정도가 ‘백척간두’의 높은 곳에 다다라서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렀음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었다. 영·정조 시기에 있어서 ‘백척간두’는 ‘위태로운 형국’에 비유되기도 하였고, ‘백척간두갱진일보(百尺竿頭更進一步)’라는 연구 등으로서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렀지만 더욱더 분발하고 향상하다’라는 의미로도 비유되었다. 학문과 덕망이 지금도 ‘백척간두’의 높은 곳에 이르러 훌륭하지만 더욱더 노력하고 진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왕에게 간언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사자성어 ‘백척간두’는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의미로 통용되기도 하였다.

중국의 당대(唐代)에서 연원한 사자성어가 조선시대 『동문선』에서 처음 보이고,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선조대 이후에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사자성어로 발전된 ‘백척간두’는 임진왜란을 겪고 난 후의 조선의 입장에서는 글자 그대로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끝은 위험천만한 곳이면서도 위태로운 형국으로 받아들

여졌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영·정조시기에 북학파를 필두로 한 중국과의 외교적 교류나 문물 등의 전래로 당시 중국에서 통용되던 ‘최고조의 경지’라는 의미로 조선시대에서도 일부 통용되기도 하였으나, 거듭된 외침의 역사를 지나면서 ‘위태로운 형국’으로 그 의미가 치우쳐 변용되고 고착되었을 것으로 본다. 동일한 연구가 같은 지역에서 시대나 문화와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변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어원을 갖는 사자성어가 한국과 중국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발전되어 통용된 것은 양국의 정치와 문화 혹은 민족성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달리 변용되고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화사상에 고취된 중국 국민들의 심성과 문화에는 ‘백척간두’에서 ‘최고조의 경지’와 ‘최상의 위치’, ‘최상의 관계’를 연상케 되고, 외세침입의 역사를 지나온 한국에서는 ‘위태로운 지경’이나 ‘절체절명의 상황’, ‘진퇴양난의 입장’ 등으로 비유되고 통용되면서 그러한 어감으로 깊이 고착하였을 것으로 본다. 같은 성어라도 나라마다 그 의미와 인식이 다르므로 인해, 한편에서는 ‘지극히 좋은 최상의 관계에서도 더욱더 발전해 나아가자’는 뜻으로 ‘백척간두갱상일루’ 혹은 ‘백척간두진일보’를 말하는데, 다른 편에서는 상대방의 의중을 곡해하여 ‘백척간두’와 같은 ‘위태로운 관계’가 더욱더 악화된다고 받아들인다면, 오해로 인한 외교적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하나의 연구가 민족성을 포함한 문화적 요소까지 함축함으로써 서로 간의 소통과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종언어에서 연원한 ‘백척간두’는 사자성어로 발전하여 한국과 중국에서 각기 달리 인식하게 되어 발전한 대표적인 성어(成語)라고 하겠다. 향후 이러한 한자어와 관련한 연구로서의 한중 인문학 연구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자료

K: 高麗大藏經, T: 大正新修大藏經, X: 卍新撰續藏經

『祖堂集』 K45, 『無門關』 T48, 『景德傳燈錄』 T51, 『五燈會元』 X80.
 『朝鮮王朝實錄』: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肅宗實錄補闕正誤』 『英祖實錄』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東文選』 『興夫傳』 『歌曲源流』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2. 단행본

김기영,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중국성어집』, 한국학술정보(주), 2008.
 故事成語辭典刊行會, 『故事成語辭典』, 明文堂, 1994.
 중국어교재편찬회, 『漢語成句詞典』, 학문사, 2003.
 한국어사전편찬회, 『국어대사전』, 삼성문화사, 1991.
 인터넷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두산백과』
 韓省之, 『中國成語分類大詞典』, 北京: 新世界出版社, 1996.
 李行健, 『現代漢語成語規範詞典』, 長春: 長春出版社, 2000.
 黎 弋, 『學生成語詞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4.
 林頡凱·高 興, 『漢語成語多用辭典』,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6.
 劉潔修, 『漢語成語考釋詞典』, 上海: 商務印書館出版, 2000.
 劉葉秋·苑育新·許振生, 『成語熟語詞典』, 上海: 商務印書館出版, 2000.
 南 人 等, 『十用學生詞語辭典』,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89.
 倪寶元, 『漢語成語實用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3.
 上海辭書出版社發行所發行, 『中國成語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7.
 史有爲, 『成語用法大詞典』, 大連: 大連出版社, 1997.
 宋永培, 『漢語成語詞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94.
 唐 樞, 『中華成語熟語辭海』, 北京: 學苑出版社, 1995.
 王 濤, 『中國成語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8.
 向光忠·李行健·劉松筠, 『中華成語大辭典』,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2.
 叶子雄, 『漢語成語分類詞典』,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2.
 朱瑞玖, 『佛教成語』,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6.
 朱祖延, 『漢語成語辭海』, 武漢: 武漢出版社, 1999.

3. 논문

김순진·한용수, 「불교 관련 중국어의 성어분석」, 『동아인문학』 제49집, 동아인문학회, 2019, pp.217-240.
 嚴美鏡(明俊), 「중국어 성어사전의 ‘百尺竿頭’ 용례와 의미 考察」, 『中國語文學論集』 제

- 116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9, pp.199-229.
- 최병우, 「〈한중인문학연구〉로 본 한중 인문학 연구사」, 『한중인문학연구』 제54집, 한중인문학회, 2017, pp.29-44.
- 한용수, 「한중간 언어, 문화, 교육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중인문학연구』 제54집, 한중인문학회, 2017, pp.59-75.

4. 기사문(인터넷 자료)

- 김종일, 「백척간두 경제위기에 역할 못하는 韓銀… 전망은 틀리고 분석·진단·처방은 한발 늦어 : 한국은행 해부」 『이코노미조선』 vol. 186, 조선경제, 2017.02.08.
- 서승, 「한국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아시아문화Asia culture』 통권35호, 아시아문화커뮤니티 2017.03.01.
- 신용환, 「백척간두 경제위기」, 예측 가능 ‘가변성’으로 돌파하라」, 『세종이코노미Sejong economy』 No.7, 세종경제뉴스, 2016.12.01.
- 우문태, 「지금 한반도는 백척간두 : 트럼프 당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직면한 위기… 중국의 북핵 문제 강경 대응, 일본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 커져」, 『한겨레 21』 통권1140호, 한겨레신문사, 2016.12.12.
- 이수신, 「百尺竿頭에 서 있는 韓國經濟」, 『時事金融』 32권 12호 통권382호, 시사금융사, 2016.12.10.
- 이승우, 「공모형 PF 사업 ‘百尺竿頭’, 안정화 대안은 없나」, 『CERIK저널』 통권 제173호 소통권10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10.01.
- 장삼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빛난 구국일념 정신 :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을 구한 감동 스토리」, 『국방저널National defense journal』 통권 제495호, 국방홍보원, 2015.03.31.
- 조동근, 「백척간두의 현대차, 노조 기득권 내려 놓아야 산다」, 『미래한국』 587호, 미래한국미디어, 2018.12.12.
- 홍현익, 「백척간두 오른 ‘김정일의 유산’ : 김정은 손에 들어간 북한 핵 향방에 관심 집중…이전처럼 포기 않고 ‘전가의 보도’로 쓸듯」, 『시사저널』 통권1158호, 시사저널사, 2011.12.27.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8월 10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8월 25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9월 23일

Abstract

A Study on meanings of ‘Baekcheokgandu (百尺竿頭)’ through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Um, Mi-Kyoung

‘百尺竿頭(Baekcheokgandu[Chinese: bǎi chǐ gān tóu]; the summit of a bamboo pole of one hundred Cheok[尺]; the best state)’ was based on a Seon language which was developed into four-character idiom in China and Korea from the Seon poetic word of Zhangshajingcen(長沙景岑; ?-868), Seon master of the Tang Dynasty. And it was founded that ‘百尺竿頭’ was often used in various aspects of the world and talked by metaphor in historical literature. Compared to China’s situation that ‘百尺竿頭’ is commonly used to mean “the best level” or “the best location”, it is used to mean “the precarious situation”, “the situation of desperation” or “the position of dilemma” in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reasons, the meaning of the examples was considered into the Joseon Dynasty’s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and briefly divided the distribution of the meanings in the *Seungjeongwon Diary* (承政院日記). When I looked at the example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 could find that the meaning of “arrived at 百尺竿頭” is transferred to “reached a dangerous situation” in the sense of “reached at high place”.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in Joseon Dynasty, “百尺竿頭” was talked metaphor to “the critical situation” and on the other hand the “Baekcheokgandujin-ilbo (百尺竿頭進一步; One step further from the best)” talked metaphor to “the study and virtue have already reached a high level, but it is more eager and improved.” Through the period of foreign invasion and stability, it can be found that the meaning of the phrase with the same etymology has changed according to culture and situation. In addition, since the same four-character idiom between Korea and China was changed due to the lack of communication, I think that more interest in the exchange and research of the humanities between Korea and China should be further heightened in the future.

Keyword

Baekcheokgandujin-ilbo(百尺竿頭進一步), Baekcheokgandu(百尺竿頭), Seon language(禪宗言語, Chan language), four-character idiom(四字成語), idiom(成語),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한용운의 시기별 발표 매체와 매체별 인적 교류*

이 선 이 **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한용운의 시기별 주요 발표 매체를 알아보고 매체별로 주목할 만한 인적 교류 관계를 살피고자 하였다. 발표 매체와 이를 매개로 한 인적 교류에 대한 규명은, 한용운의 삶과 문학 활동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 분석한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공식적으로 글을 발표하기 시작한 1910년대부터 1944년 6월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한용운이 글을 발표한 주요 출판사와 발표 지면을 알아보고, 매체 선택의 기준과 발표한 글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둘째, 주요 발표 매체와 관련된 인적 교류를 살피으로써 한용운의 사회활동과 인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용운은 1910년대부터 문화계 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다는 점, 1930년대에는 대표적인 신문연재소설가로 활약했다는 점, 불교계나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과도 폭넓게 교류하는 개방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점, 가깝게 지낸 인사 가운데도 친일의 길을 걸었던 인물도 있었다는 점을 새롭게 밝혔다.

주제어 한용운, 만해(萬海), 인적 교류, 발표 매체, 신해음사, 매일신보, 유심, 불교,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목차〉

1. 서론
2. 시기별 발표 매체와 매체별 발표 글의 성격
3. 매체별 인적 교류와 그 의미
4. 결론

* 이 논문은 제47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1. 서론

그동안 한용운의 주요 활동과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불교계에 국한시켜 연구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그의 다양한 사회활동이 밝혀지면서 생애 전반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요청되고 있다.¹⁾ 근자에 발굴된 한 자료를 보면, 한용운이 적극적으로 교육 사업에 참여하여 교육기관을 운영했음이 확인된다. 이 기관의 홍보와 관련한 『동아일보』 광고문(1930년 3월 29일자 2면)을 보면, 한용운은 여기서 수신과 한문을, 소설가 이광수는 조선어 작문과 문법을, 해방 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초대학장을 역임한 화가 장발은 도화(圖畵)를 강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 개설한 교과목 안에는 기초 교과인 언어, 역사, 지리뿐만 아니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실업, 체육, 도화 등이 망라되어 있다. 당시 한용운이 머물던 선학원을 주소지로 하는 이 기관에서 그는 관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사업 운영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강사 섭외에도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참여한 강사의 면면을 보면 한용운의 인적 교류 범위가 불교계를 넘어서 있으며 당대 여러 분야의 지식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 이처럼 한용운의 활동과 인적 교류가 불교계를 넘어서 문화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그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인물들과 교류하며 활동을 해나갔는지에 대한 입체적 규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용운의 활동과 인적 교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을 예의

1) 한용운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는 교육 사업 관련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한용운은 1930년에 통신교육의 일종인 ‘조선통신중학관’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30년 3월 16일자 2면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교육사업에 참여한 한용운의 활동 자체도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으며, 이 자료를 통해 세삼스럽게 확인되는 바는 한용운이 당대 많은 지식인들과 교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용운이 관여했던 선학원 소속의 김현남 선생은 한용운의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발굴하여 언론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선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 가능하다.

(http://www.seonhakwon.or.kr/bbs/view.php?id=seon_press&no=185 &category=1 : 2021년 5월 20일자 검색)

2) 한용운, 이광수, 장발 이외에도 이곳에서 강의를 맡은 인사로는 국어학자 장지영, 강매, 이중화와 지리학자 김도태 등이 있다.

주시해야 하는 걸까? 기존 연구 가운데는 한용운과 주변 인물간의 인적 교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지만, 이러한 연구는 주로 불교계 내의 교류에 주안점을 두었고 민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교류 양상을 고찰함에 따라 한용운의 인적 교류를 전반적으로 포착하기에는 충분한 시각 확보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³⁾ 그 결과 한용운의 사회활동과 이를 가능하게 한 인적 교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 확보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한용운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용운의 활동과 인적 교류에 대해 제한적으로 논의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그동안 한용운 연구는 문학·불교·역사(독립운동사)로 구분되어 분야별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이러한 영역 밖의 활동에는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데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강요된 이데올로기적 억압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좇았거나 월북한 인사와의 교류 자체를 연구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도외시하면서 한용운과 교류한 이들 인사들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⁴⁾ 마지막으로, 친일 혐의가 있는 인사들과의 교류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의도적인 억압이나 배제가 있었다. 여기에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올로기가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강제한 망각 혹은 배제에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민족주의적 시각이 한용운의 활동과 인적 교류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방애가 되었다.⁵⁾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한용운의 활동과 인적 교류에 대해서 유연하고

3) 역사학자 김광식은 불교계 내 인사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한용운의 아들인 한보국의 삶과 제자 김용담의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용운의 생애를 추적한 바 있다. 한용운의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김광식의 『우리가 만난 한용운』(참글세상, 2016)과 『만해 한용운 연구』(동국대학교출판부, 2011)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필자가 펴낸 『근대 문화지형과 만해 한용운』(소명, 2020)에서는 문화계 인사들과 한용운의 교류에 대해 부분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문화계 인사들과의 교류에 대한 규명은 미진한 부분이 많다.

4)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홍명희와의 교류를 꼽을 수 있다. 신간회 활동 이후 한용운과 오랫동안 뜻을 같이 했으며 만년에 가장 친밀한 교유관계를 보였던 인물이 홍명희이다. 하지만 그는 월북하여 북한에서 고위 관료를 지냄에 따라 두 사람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도 확대된 시각으로 다양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여기서는 한용운이 글을 발표한 매체들을 중심으로 그의 활동과 인적 교류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그가 남긴 글은 크게 문학작품류, 논설과 인터뷰 등의 논설류, 학술적인 글, 기타 소박한 단상이나 신변과 관련된 잡문류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한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글은 생존 시기에 발표되었다. 따라서 발표 지면과 출판사를 중심으로 한용운의 인적 교류를 들여다보면 그의 삶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⁶⁾ 따라서 여기서는 그가 남긴 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학작품⁷⁾ 중심으로 당대 지성들과의 구체적인 인적 교류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용운이 당대 인사들과 시기별로 어떤 교류를 해나갔으며 이러한 교류가 그의 문학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용운의 활동을 조명해 봄으로써 그의 생애사에 대한 연구 및 이념적 지향성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5) 필자는 일제 말기에 적극적인 친일인사였던 김동환이 주도한 임전대책협의회에 한용운이 참석한 행적과 당시 한용운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선학원 주지 김석음의 일제 협력 행적을 위장 협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해방 직전에 선학원에서 생활한 재일조선인 작가 김석범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제 말기 선학원은 민족독립을 도모하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친일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에 앞서 한용운이 친일인사와 교류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은,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가 이러한 사실 파악을 무의식적으로 제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선이, 「한용운의 만주체험과 그 의미」, 『근대 문화지형과 만해 한용운』, 소명출판, 2020, pp.149-172. 참조)

6) 한용운은 적지 않은 유고(遺稿)도 남겼다. 하지만 이들 유고는 생전에 발표한 작품과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발표 매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그의 활동을 재구성해 보는 데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7) 한용운은 시집 『님의 침묵』과 소설 6편(장편소설 『흑풍』, 『박명』, 중편소설 『죽음』, 연재 중단으로 인한 미완성 소설 『후회』, 『철혈미인』, 역시 연재 중단으로 미완성으로 남은 번역소설 『삼국지』), 176수의 한시와 30여 편의 시조를 남겼다.

2. 시기별 발표 매체와 매체별 발표 글의 성격

1) 시기별 주요 발표 매체

한용운이 발표한 글을 시기별로 대별해 보면 1926년을 분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1926년 이전에는 한시 발표, 잡지 『유심』을 통한 발표, 불교와 수양에 관한 단행본 출간이 있었으며, 이후에는 시집과 개송 주석집을 출간하고 3대 민간지와 다양한 잡지에 시와 소설, 논설문과 수필 등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1926년은 한국근대 시사(詩史)에 있어서 기념비적 시집의 하나로 평가되는 『님의 침묵』이 출간된 해이며, 한용운은 이 시집 발간을 계기로 자유시, 한시, 시조, 소설, 수필 등을 다양한 지면을 통해 발표하였다.

먼저, 1926년 이전 시기에 한용운이 글을 발표한 매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한용운이 가장 먼저 글을 발표한 지면은 1908년에 일본 조동종대학립에서 수학할 때 청년 승려들이 중심이 된 화유회의 기관지인 『화유회지(和融誌)』이다. 여기에 그는 한시 12편을 발표하였다. 그가 한시 창작에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이 발표 이후에 한용운이 국내에서 공식적인 지면에 작품을 발표한 것은 1912년 1월부터 5월 사이이다. 이 시기 그는 『매일신보』와 한시 창작 동인지인 『신해음사』에 작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16년에는 『매일신보』에 5회에 걸쳐 <고서화의 삼일(古書畵의 三日)>을 연재하는데, 이 글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된 정신의 변화 과정을 수필 형식으로 쓴 것이다.

또한 1926년 이전 시기에 한용운은 불교와 수양 관련 주요 저작을 발표하였다. 1913년에 그는 조선불교 근대화운동의 방향과 이념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되는 『조선불교유신론』을 최초의 불교 전문 서점인 ‘불교서관’에서 발간하였다.⁸⁾

8) ‘불교서관’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한국불교 최초 : 67·서점」(『법보신문, 2009년 12월 15일자)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조선불교유신론』의 발행처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현재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회동서관’으로 밝혀져 있지만 ‘불교 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이 책의 전권을 DB화함에 따라 발행처 확인이 용이해졌는데, 동국대 소장본과 대성사 소장본 모두 ‘불교서관’이 발행처로 명시되어 있다.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131> : 2021년 5월 12일자

이듬해인 1914년에 출간한 『불교대전』은 ‘범어사’에서 발간하였다. 한용운이 쓴 불교 관련 주요 텍스트인 『조선불교유신론』과 『불교대전』은 모두 불교계와 관련된 출판 루트를 통해 출간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17년에 출간한 수양서인 『정선강의 채근담』은 최남선이 창설한 ‘신문관’에서 출간되는데, 대중적인 출판사를 선택하여 출간을 진행한 것은 이 글의 성격이 대중적인 수신서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918년에는 한용운이 1인 잡지로 발간한 『유심』에 권두언과 함께 논설류에 속하는 많은 글(대략 16건)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1919년에는 방정환이 주관한 『신청년』에 권두언을 발표했고, 『독립신문』에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대요(朝鮮獨立에 對한 感想의 大要)」가 게재되었다.

3·1운동으로 수감생활을 한 그가 출옥 후 지면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주로 인터뷰나 동정 관련 기사였고 한용운이 글을 발표한 경우는 드물다. 1922년부터 1925년까지는 『개벽』(제27호, 1922년 9월)에 발표한 옥중시 한편을 제외하고는 직접 쓴 글이 발표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즉 1919년에 감옥에서 쓴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대요」⁹⁾를 제외하면 한용운은 1926년까지 간단한 인터뷰나 설문에 응한 것 이외에는 글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많은 글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분기점이 된 1926년 이후를 살펴보면 그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1926년에는 『십현담주해』와 『님의 침묵』 출간이 있었고, 이후에는 3대 민간지와 다종의 잡지에 글을 발표하였다. 불교 관련 글에 해당하는 『십현담주해』는 ‘범보회’에서, 대중적인 시집인 『님의 침묵』은 ‘회동서관’에서 출간되었다.

또한 1926년 후반부터 한용운은 일제강점기 3대 민간지로 불리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¹⁰⁾와 여러 잡지에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신문에

검색)

9) 이 글은 한용운이 직접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수감 중에 외부로 전달되어 상해에서 발간되는 『독립신문』에 수록되었다.

10) 이 신문사는 『중외일보』에서 『중앙일보』로 다시 『조선중앙일보』로 개명했는데, 이 가운데 인터뷰가 아닌 직접 쓴 글을 발표한 것은 『조선중앙일보』였다.

는 장편연재소설과 시문류가 주로 발표되었다면 잡지에는 시와 시조, 한시와 수필 등 시문류와 잡문류의 글이 발표되었다. 그가 글을 발표한 잡지로는 자신이 주관한 『불교』와 대중적인 잡지인 『삼천리』, 『별건곤』이 발표 횟수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회광』, 『찌날리즘』, 『신인문학』, 『신흥조선』, 『조광』, 『중앙』, 『조선농민』, 『농민』, 『선원』, 『혜성』, 『불청운동』, 『실생활』, 『야담』 등에 글을 발표했는데, 그는 불교계에서 발간된 『불교』, 『회광』, 『선원』, 『불청운동』뿐만 아니라 당시 새롭게 창간된 다양한 분야의 잡지에도 글을 발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지속적으로 글을 발표한 지면은 신문에서는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를, 잡지에서는 『불교』, 『삼천리』, 『별건곤』을 꼽을 수 있다.

2) 매체별 발표 글의 성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용운이 글을 발표한 매체는 출판물과 신문 및 잡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매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행본 출간을 살펴보면 불교 관련 글과 일반 대중을 위한 글의 성격에 따라 출판사 선택에 상당한 고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 관련 주요 저작인 『조선불교유신론』, 『불교대전』, 『십현담주해』는 각각 ‘불교서관’, ‘범어사’, ‘범보회’에서 출간하였고, 대중적인 저작인 『정선강의 채근담』과 『님의 침묵』은 신문관¹¹⁾과 회동서관에서 출간함으로써 독자를 고려하여 판매가 용이하도록 했다. 이처럼 출판사 선택의 기준으로 볼 때, 한용운은 불교계 내적인 활동과 교계를 넘어선 사회적 활동을 넘나들며 활동을 전개해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시와 시조, 한시와 수필, 소설 등의 문학적 글쓰기는 주로 대중적인 지명도가 높은 매체를 통해 발표하고, 또 문학작품이라 하더라도 한시는 주로 한시 전문 잡지와 불교계 잡지에, 자유시와 시조는 신문과 대중잡지에 발표

11) 『정선강의 채근담』은 신문관에서 출간된 후 다시 동양서원에서 재출간되었다. 재출간이 왜 이루어졌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양서원이 당시 대표적인 종교서적 출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한용운이 대중서인 이 책의 판매나 보급에 남다른 관심을 쏟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면서 다양한 매체의 성격과 독자를 고려한 작품 발표를 해나간 것과도 일맥상 통한다.

또한, 한용운은 신문에도 상당한 분량의 글을 발표했다. 1910년대에는 『매일신보』에도 글을 발표했지만, 1926년부터는 3대 민간지를 주요 발표 지면으로 삼았다. 『매일신보』에 발표한 글은 한시 2편(1912년)과 5회에 걸쳐 연재한 「고서화의 삼일」(1916년)이다. 이 시기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로서 친일적인 성격을 보인 신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까지 한용운의 항일적 시각은 철두철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발표한 글인 한시에는 개인적 정서가 담겨 있으며 수필에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내고 있어서 국권 피탈 이후 점차 고조되어 가던 문화적 민족주의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1916년에 『매일신보』에 글을 발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신문에 발표한 글은 발견되지 않는다. 민간지 가운데 한용운이 가장 많은 글을 발표한 지면은 『조선일보』이다. 그가 『조선일보』에 글을 발표한 건수는 연재를 하나의 글로 묶었을 때 약 18건이다.¹²⁾ 이 가운데는 〈흑풍〉, 〈박명〉, 〈삼국지〉로 이어진 장편연재소설 3편과 6회에 걸쳐 연재한 〈심우장산시(尋牛莊散詩)〉 연작 등 문학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밖에도 10회에 걸쳐 연재한 〈명사십리행〉과 7회에 걸쳐 연재한 「한적잡고(漢籍雜考)」와 같은 기행문과 잡문류도 포함된다. 그는 1929년에 처음으로 이 신문에 글을 발표한 뒤 1940년 8월에 신문이 폐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글을 발표하였다. 이에 비해 『동아일보』에는 시 5편과 짧은 산문 한 편을 발표했을 뿐이다.¹³⁾ 한편 『조선중앙일보』에는 장편소설 〈후회〉를 연재했는데,

12) ①「조선청년(朝鮮靑年)에게」(1929.1.1.) ②〈명사십리행(明沙十里行)〉(전10회, 1929.8.14.~8.24.) ③「반생의 최대감격(半生의 最大感激) : 평생(平生) 못잊을 상처(傷處)」(1932.1.8.) ④「지난날 잊히지 않는 추억 : 북대륙(北大陸)의 하룻밤」(1935.3.8.~3.13.) ⑤「흑풍(黑風)」(1935.4.9.~1936.2.4.) ⑥「한적잡고(漢籍雜考)」(전7회, 1936.3.6.~1936.3.13.) ⑦「봄(상)」(1936.3.17.) ⑧「봄(하)」(1936.3.18.) ⑨「취직(상)」(1936.3.19.) ⑩「취직(하)」(1936.3.20.) ⑪「인조인(人造人)①~④」(1936.3.21.~3.26.) ⑫〈심우장산시(尋牛莊散詩)①~⑥〉(1936.3.27.~4.5.) ⑬「남녀노소구별과 짚는 남의 것 숭배, 채식하는 우리, 정신도 맑다」(1937.1.4.) ⑭「빙호(氷壺)」(1937.7.20.) ⑮「벽초(碧初)의 손에 재현(再現)되어 지하(地下)에서 웃을 임격정(林巨正)」(1937.12.8.) ⑯「작가의 말: 장편소설 〈박명〉」(1938.5.10.) ⑰〈박명〉(1938.5.18.~1939.3.12.) ⑱〈삼국지〉(1939.11.1.~1940.8.11.)

이렇게 볼 때 한용운이 주로 문학작품을 발표한 신문지면은 『조선일보』이고, 예외적으로 『조선중앙일보』에 연재소설을, 『동아일보』에 시와 수필을, 『매일신보』에 한시와 수필을 발표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신문이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글을 발표한 시기는 일제강점기 전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잡지의 경우를 보면 불교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글을 발표하였다. 한용운이 가장 많은 글을 발표한 잡지는 『불교』지이다. 1931년 7월에 한용운이 불교사 사장을 맡으면서 편집자이자 발행인이 되었고, 이때부터 그는 지속적으로 이 잡지에 글을 발표했다. 짧은 시형에 시정(詩情)이나 선취(禪趣)를 담은 권두언이나 토막글은 제외하고도 이 잡지에 발표한 글은 대략 66건 정도가 된다. 이들 글을 보면 불교나 종교 관련 논설류가 가장 많지만 시와 시조 등 시작품도 종종 발표하였다. 『불교』지 다음으로 한용운이 많은 글을 발표한 잡지는 『삼천리』, 『유심』, 『별건곤』이다. 『삼천리』¹⁴⁾와 『별건곤』¹⁵⁾은 대중의 흥미와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대중지라는 성격으로 인해 개인적인 체험이나 신상 관련 내용의 글이 주를 이룬다. 물론 여러 차례 글을 발표한 『삼천리』에는 한시, 자유시, 시

13) ①「가가날에 대(對)하야」(1926.12.7.) ②〈달남〉 외 4편, (1933.3.26.)

14) ①「문침성(聞砧聲) 외 8수」(제1호, 1929.6.) ②「나는 왜 승(僧)이 되었나?」(제6호, 1930.5.) ③「지는 해」(제15호, 1931.5.) ④「이민족과의 결혼시비(異民族과의 結婚是非)」: 제일 재단 동포문제와 국제주의(在日 在滿 同胞問題와 國際主義)(제3권 제9호, 1931.9.) ⑤「명사십리(明沙十里)」(제4권 제7호, 1932.7.) ⑥「옥중생활(獄中生活) 로－맨스: 월명야에 일수시(月明夜에 一首詩)」(제4권 제10호, 1932.10.) ⑦「조선민족은 남진호, 북진호(朝鮮民族은 南進乎, 北進乎)」: 시베리아의 이농(西伯利亞의 移農)(제4권 제10호, 1932.10.) ⑧「명사십리(明沙十里)」(제5권 제9호, 1933.9.) ⑨「처음 서울 오든 때: 시베리아(西伯利亞)를 거쳐 서울로」(제5권 제9호, 1933.9.) ⑩「반도 신문단 이십년래 명작선집(1), 명작 시편(半島 新文壇 二十年來 名作選集(1), 名作詩篇)): 당신의 편지, 님」(제7권 제1호, 1935.1.1.) ⑪「명산대찰순례(名山大刹巡禮)(1): 국보 잠긴 안심사(國寶 잠긴 安心寺)」(제7권 제6호, 1935.7.) ⑫「우리님」(제7권 제6호, 1935.7.) ⑬「실제(失題)」(제8권 제6호, 1936.6.) ⑭「채근담강의(菜根譚講義)」(제8권 제12호, 1936.12.) ⑮「반종 교운동의 비판(反宗教運動의 批判)」(제10권 제5호, 1938.5.)

15) ①「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익이, 만주산간(滿洲山間)에서 청년(靑年)의 권총(拳銃)에 마져서」(제8호, 1927.8.) ②「새 정월(正月)에 생각나는 사람들: 천하명기 황진이(天下名妓 黃眞伊)」(제18호, 1929.1.) ③「이 때까지 아모에게도 아니한 이익이, 비중비화(秘中秘話): 남모르는 나의 아들」(제25호, 1930.1.) ④「정신부터 수양(精神부터 修養), 민중(民衆)에게 보내는新春(新春) 멧세이지」(제26호, 1930.2.)

조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유심』¹⁶⁾에는 불교적 시각과 수양 담론을 결합한 논설류의 글을 많이 발표했다. 한용운이 매호마다 쓴 권두언을 제외하고 그가 쓴 글을 보면 청년의 수양을 강조하는 내용이 우위를 보인다. 여기에 본격적인 형태의 자유시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자유시형을 모색하는 「심(心)」이나 「권두-일경초의 생명(一莖草의 生命)」과 같은 운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용운이 잡지에 수록한 문학작품을 보면 자유시, 한시, 시조 등 시장르가 중심이 되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는 소설을 신문에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3. 매체별 인적 교류와 그 의미

1) 『매일신보』와 『신해음사』

일본 유학시절을 제외하면 한용운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한시를 발표한 것은 1912년 1월 25일자 『매일신보』의 「문원(文苑)」란이고, 여기에 발표한 한시는 〈관낙매유감(觀落梅有感)〉이다. 또한 그는 같은 신문 3월 12일에 〈춘규원기신해음사(春閨怨寄辛亥吟社)〉를 발표하였는데, 이들 한시를 발표하면서 그는 만해(萬海)라는 아호(雅號)를 사용하였다.¹⁷⁾ 그렇다면 한용운이 『매일신보』에 글을 발표한 것은 어떤 인맥과 관련이 있었을까. 이 작품은 1911년에 결성된 한시 창작 단체인 동명의 잡지명이기도 한 『신해음사(辛亥吟社)』에 수록한 한시이다. 그는 이 한시 잡지에 〈관낙매유감(觀落梅有感)〉(『신해음사(辛亥吟社)』-신

16) ①「조선청년과 수양(朝鮮青年과 修養)」(제1호, 1918.9.) ②「고통과 쾌락(苦痛과 快樂)」(제2호, 1918.10.) ③「고학생(苦學生)」, 제1호, 1918.9.) ④「전로를 택하여 진하라(前路를 擇하여 進하라)」(제1호, 1918.9.) ⑤「생의 실현(生の 實現①) : 인도철학가 타쿠르 원저」(제1호, 1918.9.) ⑥「마는 자조물이라(魔는 自造物이라)」(제2호, 1918.10.) ⑦「생의 실현(生の 實現②) : 인도철학가 타쿠르 원저」(제2호, 1918.10.) ⑧「자아를 해탈하라(自我를 解脫하라)」, 제3호, 1918.12.) ⑨「천연의 해(遷延의 害)」(제3호, 1918.12.) ⑩「전가의 오동(前家の 梧桐)」(제3호, 1918.12.) ⑪「무용의 노심(無用의 勞心)」(제3호, 1918.12.) ⑫「훼예(毀譽)」(제3호, 1918.12.)

17) 만해의 호(號)에 대해서는 필자가 쓴 『근대 문화지형과 만해 한용운』(2020, 소명, pp.221-223.)에서 자세하게 밝혔다.

해집(辛亥集)』 제1호, 1912. 3.15.)과 〈춘규원(春閨怨)〉(『신해음사(辛亥吟社)-임자집(壬子集)』 제2호, 1912.5.18.)과 〈범어사우후술회(梵魚寺雨後述懷)〉(『신해음사(辛亥吟社)-임자집(壬子集)』 제2호, 1912.5.18.)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잡지가 발간되기도 전에 『매일신보』에 먼저 한시가 소개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신해음사에서 함께 활동한 이들 가운데 『매일신보』와 연관되는 인물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제로 1915년 1월 19일자에 수록된 〈신해음사와 안지정〉이라는 『매일신보』의 글을 보면 신해음사의 발기인들이 『매일신보』의 기자들이었고, 이들이 편집 겸 발행인인 지정(之亭) 안왕거(安往居)를 도와 동인지 발간을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¹⁸⁾ 또한 동인지 『신해음사』의 「규칙」(제1장 제8조)에는 시의 체제는 화평을 담은 것으로 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은 수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두고 있는데, 이 단체에는 한일병합에 적극 협조한 친일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시기적으로도 한일병합 이후에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적 제한은 단체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이들 친일인사가 한일병합 이전에는 민족지로서의 성격을 띠었지만 이후 총독부 기관지로 변질된 『매일신보』의 기자였다는 점과도 연관된다. 이인직, 정운복, 이해조, 선우일 등은 『신해음사』의 발기인이면서 매일신보사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과의 인연의 깊이는 알 수 없지만, 한용운의 한시가 『매일신보』에 실린 것으로 볼 때, 이들과 얼마간의 인적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또한 한용운은 1916년 12월 7일부터 15일 사이에 5회에 걸쳐 「고서화의 삼일」이라는 글을 『매일신보』에 연재한다. 이 글은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의 집에서 역대 선조들의 글씨를 모은 『근역서휘(檣域書彙)』와 화가들의 그림을 모은 『근역화휘(檣域畵彙)』를 보고 느낀 바를 적은 글이다. 5회에 걸친 연재라는 사실로 볼 때, 한용운이 이 시기에 매일신문사 기자들과 일정한 친분이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시 학술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는 정운복이었고 편집장을 맡고 있었던 이는 선우일이며, 한시 창작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이는 천풍 심

18) 신상필, 「근대 한문학의 성격과 신해음사」, 『한문학보』 22호, 우리한문학회, 2010, p.115.

우섭(天風 沈友燮)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한용운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용운의 연재를 읽고 그 소식을 밝힌 심우섭의 글을 보면 그들 사이에 일면식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우섭은 한용운의 연재가 끝나는 12월 15일자 2면에 「일단집 : 만해군아(一端集 : 萬海君아)」라는 글에서 한용운을 잘 모른다고 밝히면서 그의 글솜씨를 고평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로 볼 때, 신문사의 기자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확인할 수 없고 교류의 정도 또한 알 수 없지만, 1910년대에 한용운은 매일신보사 기자들과 함께 한시 창작단체인 신해음사에 참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직간접적인 인맥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한용운에 대해 『매일신보』에 기사가 실린 사례는 1910년 12월 17일자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날 신문의 3면에는 「불계명성(佛界明星)」이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로 한용운을 소개하며 학문과 지식이 많은 불교인으로서 승려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그를 소개하고 있다.²⁰⁾ 또한 1912년 6월 5일에는 「한용운사실의 후보」라는 제목으로 조선 임제종 중앙포교당 주무인 한용운의 공금 횡령 관련 기사가, 1913년 1월 7일자 3면에는 「한화상(韓和尚)의 피상(被傷) : 한화상의 전신 중상」이라는 제목으로 한용운의 만주행과 관련한 기사가 실린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어느 정도 입지를 갖기 시작한 한용운에 대한 관심이 이들 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한용운이 『매일신보』 기자들과 일정한 교류를 하고 있었기에 기사화가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그 교류의 실상이 어떠한지 특정하기 어렵지만, 『매일신보』 기자들과 한용운의 인적 교류는 그가 신해음사에 참가하면서부터 돈독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전에 한용운의 명성이 어느 정도 이러한 교류를 촉진하는 데 작용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한용운과 관련한 기사 보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19)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고재석의 『한용운과 그의 시대』(역락, 2010)를 참고할 수 있다.

20)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南來人의 傳說을 聞한즉 江原道 麟蹄郡 百潭寺僧 韓龍雲氏는 學問과 智識이 有餘하야 佛教界에 特色이 有한 人으로 僧侶의 教育이 急務됨을 早已覺知하고 今年夏秋間에 全南各寺에 遊歷하야 教育에 對한 演說을 澈底히 하던 故로 到處에 盛大한 歡迎을 受하고 其 結果로 教育이 一層進就되었는데 明春에는 十三道各寺를 周行하야 教育을 大擴張할 計劃이라더라.”

이들 간의 교류는 3·1운동 참가 이후부터는 민족지가 창간되어 발표 지면이 확보되었고 한용운 역시 민족의식이 투철해지면서 『매일신보』와의 관계는 소원해진 것으로 판단된다.²¹⁾ 또한 이 신문사의 기자들이 민족지 창간을 맞아 대거 민족지로 자리를 옮겼음을 고려할 때, 언론계와 한용운의 인적 교류는 191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유심』

잡지 『유심』은 한용운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약한 1인 잡지였다. 잡지의 성격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근대적인 수양담론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²²⁾ 당시 『매일신보』 광고에는 이 잡지를 수양 잡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일종의 불교적 수양주의로 그 성격을 명명할 수 있겠다. 이 잡지와 관계해서는 잡지 발간을 도운 인물, 잡지의 필진을 통해 한용운과 이들 간의 인적 교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잡지 일을 도운 불교계의 청년인맥을 살필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불교 중앙학림 학생이었던 김법린, 김상헌, 신상완 등

21) 한용운은 1930년에 『매일신보』에 두 차례에 걸쳐 설문과 인터뷰에 응했다. 「조선 삼대종교 신미 전망(朝鮮三大宗敎辛未展望) : 포교법(布敎法)에 있다」(『매일신보』, 1931. 1. 3.)와 「사회의 정론(社會的正論) : 수모(羞侮)를 맞지 안토록 냉정(冷靜)히 하라」(『매일신보』, 1931. 7. 8.)가 그것이다. 전자는 종교지도자로서 후자는 잡지사 대표라는 자격으로 이에 응했다. 이런 정도의 인터뷰는 당시 명망 있는 사회인사로서 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22) 『유심』의 성격에 관해서는 대중적인 불교잡지라는 주장(정주아, 『근대문학 해제집Ⅱ』, 국립중앙도서관, 2016), 불교적인 수양지라는 주장(백순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불교잡지를 넘어서서 종합지이자 교양지라는 주장(박노준·인권환, 『한용운연구』, 통문관, 1965), 발행인과 필진으로 볼 때, 불교잡지로 볼 수 있다는 주장(김근수(金根洙), 『한국잡지사』, 청록출판사, 1980), 불교사상과 문학을 담은 교양 잡지라는 주장(고정일, 『한국출판 100년을 찾아서』, 정음사, 2012) 등으로 대별된다. 대체로 불교와 교양을 결합하거나 불교와 문학을 결합하여 그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 필자는 당대 출판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 학술, 문예를 아우르는 종합지로서 불교의 유심사상과 당시 유행한 사회담론인 수양담론을 결합한 대중적인 잡지라고 본다.(이선이, 『근대 문화지형과 만해 한용운』(소명, 2020. p.215.))

이 잡지사에 드나들며 잡지 일을 도왔다고 한다.²³⁾ 이들과의 인연은 이후로도 이어져 김법린은 상해와 파리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했으며 비밀결사인 ‘만당(卍黨)’ 당원으로 참여했고, 1930년대에는 한용운이 발간한 『불교』지의 주간을 맡으며 뜻을 잇기도 했다. 김상헌과 신상완은 독립자금모집에 기여한 바가 큰 인물로, 특히 신상완은 상해임시정부에서 일하면서 진보적 민족주의자인 여운형과 함께 1919년 11월에 도일하여 여운형의 동경 연설과 대담을 『독립신문』에 연재하기도 했다. 이들 인맥을 통해 한용운의 민족 독립에 대한 의지가 국외 독립운동가들과도 선이 닿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잡지에서는 문예공모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예지로서의 성격도 강화해 나가고자 하였다. 문예공모 제도로 운영한 「현상문예」란에 당시 학생이던 방정환의 소설 「고학생」과 시 「마음」이 당선되었고, 논문 「현대 청년에게 주는 수양론」이 선외가작에 당선되면서 방정환은 한용운과 인연을 맺었다.²⁴⁾ 방정환이 『유심』지에 투고한 것으로 볼 때, 이 잡지가 당대 청년들에게 일정한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인연으로 방정환이 중심이 되어 1919년 1월에 발간된 『신청년』에 한용운이 권두언을 써 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인연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유심』의 필자로는 최린, 최남선, 유근, 이광중, 박한영, 이능우, 김남천, 강도봉, 서광전, 김문연, 임규, 양건식, 백용성, 권상로, 현상윤, 홍남표 등이 참여했는데, 불교 인사가 주를 이루었지만 천도교계의 최린이나 대종교계의 유근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용운이 민족종교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인적 교류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잡지의 인쇄를 신문관에서 한 것으로 볼 때, 최남선과의 관계도 짐작해 볼 수 있다. 1917년에 『정선강의 체근답』을 ‘신문관’에서 발간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1910년대 중반에 한용운은 최남선과 일정한 인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용운은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나 인맥을 형성한 바 있었던 최린과 그의 제자이자 일본 유학생 잡지

23) 임혜봉,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 민족사, 2001, p.359.

24) 전보삼, 「만해 한용운과 소파 방정환의 인연」, 『방정환연구』, 창간호, 방정환연구소, 2019.

『학지광』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약한 현상윤도 필자로 인연을 맺고 있다. 최남선, 최린, 현상윤은 3·1운동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인물들이므로 잡지 『유심』이 이후 한용운의 독립운동 참여와도 상당한 연관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잡지의 창간호에는 출판사 ‘동양서원’에서 1918년에 간행된 이광수의 『무정』 광고문이 전면에 실려 있는데, 이 시기 한용운의 이광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3호에는 한용운 자신이 펴낸 『정선강의 채근담』을 ‘광익서관’의 명의로 광고하고 있는데 광익서관은 한용운이 『님의 침묵』을 출판한 회동서관의 종로지점으로 이름만 달랐지 같은 출판사였다. 따라서 잡지 『유심』을 발행할 시기에 이미 한용운은 당시 조선 출판계를 포함하여 문화계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회동서관

한용운이 시집 『님의 침묵』을 출간한 곳은 ‘회동서관’이다. 근대에 접어들어 설립된 최초의 본격적인 출판사인 회동서관은 식민지 시기의 대표적인 출판사 중 하나이다.²⁵⁾ 아버지 고제홍이 경영하던 ‘고제홍서사’를 아들 고유상이 이어 받아 경영하면서 이름을 회동서관으로 개명하고, 수입서적 판매와 교과서류 출간뿐만 아니라 당시 인기도서인 신소설과 계몽소설 등을 발간하면서 민족계 서적상을 대표하기에 이른다.²⁶⁾ 당시 이곳은 “『월남망국사』 『해왕성(海王星)』 『무정』 등등 새 문화서적을 발행한 것들로 우리 문화인과 가장 친한 조선의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²⁷⁾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큰 출판사의 하나였던 이곳에서 한용운이 시집 『님의 침묵』(1926년)을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은, 1910년대부터 그가 주요 출판사와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한국근대소설사에 있어서 기념비적 작품인 『무정』

25) 이윤석은 「신문 기사로 보는 회동서관」(『근대서지』 20호, 근대서지학회, 2019)에서 해방 이전과 이후에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회동서관 관련 기사와 출판계의 회고 등을 정리하여 「회동서관」의 변모과정과 출판사로서의 위상을 면밀하게 규명하고 있다.

26) 고정일, 『한국출판 100년을 찾아서』, 정음사, 2012, p.91.

27) <一業連綿兩三代：三代四十五年匯東書館>, 『조선일보』, 1936년 1월 5일자, 3면.

(1918)을 펴냈고²⁸⁾ 김억의 번역시집 『오뇌의 무도』(1921)와 『원정(동산지기)』(1924)도 출간했다. 김억이 번역한 타골의 시집을 읽고 한용운은 시 〈타골의 詩 (GARDENISTO)를 읽고〉를 썼으며, 이런 문학적 영향이 이곳에서 시집을 출판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용운이 이 시집을 회동서관에서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시 출판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출판 관련 인사들과도 상당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는 이미 1917년에 최남선이 세운 ‘신문관’에서 『정선강의채근담』을 출간하고 이를 당시 대표적인 출판사의 하나였던 ‘동양서원’에서 재출간하기도 했으며, 잡지 『유심』을 발행하면서 출판계의 흐름을 조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당대 문화계 인사들과 교류는 1910년대에서부터 시작되어 생애의 말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1935년 8월 17일자 『조선일보』 5면 기사에 보면 ‘삼천리사’에서 간행되는 춘원이광수전집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 명단에 그는 이름을 올리고 있고, 1935년에서 1936년 사이에 『조선일보』에 연재한 소설 〈후풍〉을 ‘박문서관’에서 출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삼천리사가 193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 잡지사였고 박문서관 역시 당대 대표적인 출판사였음을 고려한다면 그는 언론계나 출판계와의 교류에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박문서관에서 출간하고자 했던 〈후풍〉이 비록 총독부의 검열에 막혀 출간이 좌절되기도 했지만²⁹⁾ 이러한 일련의 행적으로 볼 때, 한용운은 출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 식민지조선의 출판계와 문화계 인사들과 돈독한 인적 교류를 해나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회동서관에서 시집 『님의 침묵』을 출간한 것은 이런 인적 교류의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8) 『무정』은 광익서관에서 출간되었는데, 광익서관은 회동서관을 운영한 고유상이 동생 고경상에게 맡겨 운영한 서점출판사이다. (고정일, 『한국출판 100년을 찾아서』, 정음사, 2012, p.91)

29) 조선총독부경무국에서 발간하는 『조선출판경찰월보』 제93호에는 1936년 5월에 불허가한 출판물 중 하나로 〈후풍〉을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 불허가 이유로는 계급의식 강조와 혁명의식 고취가 언급되어 있다.

4) 『불교』

잡지 『불교』는 한용운이 직접 편집과 발행을 도맡기도 했던 매체로, 1932년 이후에 한용운은 불교 관련 글과 함께 시와 시조, 수필과 소설을 이 잡지에 발표하였다. 이 잡지는 불교 종단의 기관지로서 1924년 7월에 창간되었으며, 창간호부터 83호까지는 권상로가 편집 겸 발행을 맡았고, 1931년 7월에 발간된 84·85 합호부터 1933년 7월에 발간된 108호까지는 한용운이 편집과 발행을 맡았다. 하지만 재정난과 더불어 편집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휴간이 되었다가 1937년 3월에 다시 속간이 되면서 한용운은 잡지사의 고문을 담당하고 발간 및 편집은 허영호, 김삼도 등이 담당하였다. 한용운은 여기에 1940년 5월 제23집까지만 글을 수록하고 이후에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 『불교』와 관련하여 한용운과 인적 교류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인물은 허영호와 김법린이다.

허영호는 한용운이 발행 및 편집을 책임진 1931년 7월 이후에 가장 많은 글을 발표한 인물이다. 허영호는 본명 이외에도 범명인 경호(鏡湖)와 아호인 현주(玄州) 등 필명을 다양하게 사용하며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한용운의 영향 하에 3·1운동에 참여한 바 있고, 1926년에는 비록 통권 3호로 중단했지만 문예잡지 『평범』을 창간하기도 하는 등 문예에 높은 관심을 보인 인물이었다. 도일(渡日)하여 다이쇼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하면서도 『불교』지뿐만 아니라, 일본의 조선 유학생들이 발간한 잡지인 『금강저』에도 글을 발표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보인 인물이다. 1932년 10월에 『불교』지 제100호를 맞아 진행된 「본지 제백호 기념 좌담회」에 한용운과 함께 불교사측 인사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용운이 잡지를 발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는 폐간 후 속간된 (신) 『불교』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 되어 1집부터 19집까지를 발간했고, 한용운은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글을 발표하면서 잡지사의 고문이자 잡지의 주필로 글을 실었다. 두 사람의 교류가 이처럼 돈독했지만 허영호는 제19집에 ‘황국신민의 서사’를 게재하고 친일적인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잡지 발간의 일선에서 물러난 후 교단의 중심에서 친일행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용운과 상당 기간 뜻을 같이하며 가깝게 지낸 인물 중에는

노골적인 친일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불교』지와 관련하여 긴밀한 인적 교류를 유지한 인물로는 김법린을 꼽을 수 있다. 그는 한용운이 잡지 『유심』을 발행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고, 3·1운동에도 한용운의 지도하에 적극 가담한 인물이다. 3·1운동 후 그는 상해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가담하다가 다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철학을 공부한 후 귀국한다. 『불교』지에 「유식이십론의 연구」를 연재하고 불교계의 장래에 대한 논설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한용운과 정신적인 교감이 깊었던 인물로 볼 수 있다. 특히 김법린은 1927년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민족 대표로 참가한 이력³⁰⁾을 가진 인물로 한용운의 민족인식이 국제적 시야를 갖는 데 영향을 미친 인물로 볼 수 있다. 김법린 또한 앞서 언급한 김상완과 신상현과의 인맥에서 유추해 보았듯이, 한용운이 임시정부 혹은 해외 독립운동가들과의 연결망을 가졌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인물이다.

이 밖에도 『불교』지의 필진을 통해 한용운과 인적 교류를 가졌을 인물들을 살펴보면 만공, 경허, 김일엽, 조종현, 김태흠, 장도환 등 불교계 인사들과 함께 이광수, 염상섭, 이병기 등의 문인들도 있었다. 이 잡지의 필진이 종교계와 문화계를 아우르는 것³¹⁾으로 보아 한용운의 인적 네트워크가 불교계를 넘어서서 문화계 인사들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조선일보』

한용운은 『조선일보』에 세 편의 연재소설을 발표할 정도로 이 신문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였다. 한용운이 이처럼 『조선일보』와 가까울 수 있었던 것은 경영난에 빠진 『조선일보』를 인수한 방응모 사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가인 방응모는 평소 존경하던 홍명희와 한용운을 조만식의 소개로 알게 된 후 가깝게 지냈다. 한용운과 방응모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30) 김법린은 파리 유학 시절인 1927년 2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이극로, 이미륵, 황우일과 함께 민족 대표로 참여하였다.

31) 김성연, 「일제강점기 잡지 『佛敎』의 간행과 그 성격」, 『선문화연구』 제5권,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08, p.79.

사람의 돈독한 교유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와 증언이 남아 있는데, 특히 방응모의 생일에 쓴 한용운의 축하시³²⁾나 한용운의 주변 인물들이 남긴 여러 증언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신문사를 인수한 후 방응모 사장은 이광수를 편집국장으로 영입하면서 공격적인 경영으로 신문사를 성장시켜 나갔는데, 1933년 3월에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뒤 한용운은 회고담³³⁾이나 잡문³⁴⁾뿐만 아니라 <심우장산시(尋牛莊散詩)>라는 제목 하에 1936년 3월 27일부터 6회에 걸쳐 여러 시편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발표한 작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은 <흑풍(黑風)>(1935. 4. 9.~1936. 2. 4./243회 연재)과 <박명(薄命)>(1938. 5. 18.~1939. 3. 12./223회 연재)과 <삼국지(三國志)>(1939. 11. 1.~1940. 8. 11. 281회 연재 중 신문 폐간으로 중단)이다.

한용운이 이처럼 신문연재소설 발표에 열을 올린 시기는 1930년대 중후반이다. 이 시기에 당시 신문사들에서는 연재소설이 독자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문사 경영을 위해 인기 작가를 확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1935년 전후로 문단은 ‘동인지 문단시대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단시대와 작가문단으로 변화’했고³⁵⁾, 신문연재소설은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매개가 되었다. 한용운의 신문연재소설 집필은 단순히 생계고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인식될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용운이 『조선일보』에 <흑풍>을 연재하던 당시에 이광수도 <이차돈의 사>를 연재하고 있었고³⁶⁾, <흑풍>은 독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³⁷⁾ 당시 『조선일보』에는 200회

32) 서녘에서 온 기운 기이도 하여(西來一氣正堪奇)/비와 구름 그 조화 때를 알아라(覆雨翻雲自有時)/큰 붓 잡으면 활살이 자재인데(大筆如椽能殺活)/수레들은 또 얼마나 모인 것이라(英才似竹又參差)/용을 잡고 호랑이 치기쯤 마음대로요(屠龍搏虎固任意)/학이나 갈매기와 벗할 날도 있으리(訪鶴問鷗亦可期)/남산처럼 사소서 축수하는 날(祝壽南山漢水上)/봄 삼월 이 기쁨 퍼기 좋고너(陽春三月足新禧) -한용운, <삼가 계조선생의 생신을 축하하다(謹賀 啓礎先生 晬辰)> 전문

33) 일레가 「지난날 잊히지 않는 추억 : 북대륙(北大陸)의 하룻밤」(『조선일보』, 1935.3.8.~3.13.)이다.

34) 일레가 「한적잡고(漢籍雜考)」(『조선일보』, 1936.3.6.~13.)이다.

35) 한원영, 『한국신문연재소설의 사적 연구』, 푸른사상, 2010, p.315.

36) 조선일보100년사편찬실, 『조선일보 100년사(인물·자료)』, 조선일보사, 2020, p.365.

이상 장기 연재된 작품이 많았는데, 241회 연재된 <흑풍>이나 281회 연재된 <삼국지>는 <흥루몽>(301회), <삼대>(215회), <고향>(252회)과 함께 대표적인 장기 연재소설로 꼽힌다.³⁸⁾ 한용운이 『조선일보』에 신문연재소설을 쓸 당시 편집국장은 김형원인데, 그는 경향과 문학 진영에 가담한 저항성 강한 시인이었다. 김형원에 이어 편집국장을 맡은 이는 함상훈으로 일제 말기에 친일활동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용운은 이들과 직간접적인 관계 속에서 신문연재소설을 발표하였으며, 홍명희도 <임격정>을 여기에 연재하면서 한용운과 교류를 지속하였다. 한용운은 「벽초의 손에 재현되어 지하에서 웃을 임격정」(1937. 12. 8.)이라는 글을 이 신문에 발표하며 두터운 우의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한용운과 홍명희와 방응모의 친분이 그가 이 신문에 소설을 연재하고 시와 산문을 발표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류는 이 신문사와 연관되어 있는 이광수, 염상섭, 김형원 등의 문인들과 교류를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한용운은 1930년대 중후반을 『조선일보』라는 대표적인 민족지에서 활약하며 당대 문화계의 주된 흐름을 감지해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교류가 있었기에 1940년 8월에 『조선일보』가 폐간되자 한용운은 “붓이 꺾이어 모든 일 끝나니/ 이제 재갈 물린 사람들 뿔뿔이 흩어지고/ 아, 쓸쓸기도 쓸쓸한 망국의 서울 가을날/ 한강의 물도 흐느끼느니 울음 삼켜 흐느끼며/ 연지(硯池)를 외면한 채 바다 향해 흐르느니!(한시 「신문이 폐간되다」)”³⁹⁾라고 애통해 한 바 있다.

6) 『조선중앙일보』

한용운은 1936년 6월 27일에 장편소설 <후회(後悔)>를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 9월 4일에 신문의 폐간으로 인해 55회 연재로 중단되었지만, 1930년대 중반에 3대 민간지의 하나이자 비판적인 성향의 민족지였

37) 「만해와 계초 방응모 선생 두터운 교분, 돈독한 우정」, 『조선일보』, 2007년 8월 7일자 23면.

38) 조선일보100년사편찬실, 『조선일보 100년사(인물·자료)』, 조선일보사, 2020, p.365.

39) 한시 원문은 다음과 같다. <筆銜絶墨飛白日休 銜枚人散古城秋 漢江之水亦鳴咽 不入硯池向海流>

던 『조선중앙일보』에 연재소설을 발표한 것은 당시 한용운이 소설가로서 가졌던 입지를 엮고게 하는 대목이다. 일장기말소사건으로 폐간에 이른 『조선중앙일보』는 『시대일보』, 『중외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로 신문사명을 개명하는 수난을 겪었지만 『조선일보』·『동아일보』와 함께 일제강점기의 3대 민간지로 손꼽히는 신문이었다. 경영난으로 인해 휴간과 복간을 반복한 이 신문은 1932년 12월에 최선익과 윤희중이 인수하면서 여운형을 사장으로 영입하였다.⁴⁰⁾ 여운형은 직접적으로 한용운과 교류한 바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한용운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심우장에서 치러진 독립운동가 김동삼의 장례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보아 한용운과는 일정한 정신적 유대감을 가졌던 인물로 볼 수 있다.⁴¹⁾ 여운형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편집진은 독립운동 혹은 사회주의운동에 관여한 진보적인 인사들로 채워졌다. 한용운이 연재를 할 당시에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이관구⁴²⁾, 김복진, 김남천, 인정식, 김태준, 고경흠 등이 재직하고 있었고, 이 신문사는 “정치적 전범자가 직공까지 20명 이상이 되어 적색신문”⁴³⁾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곳은 항일의 성향을 드러내면서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함께 활동했던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사였던 것이다. 적극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활동을 한 바 없는 한용운이 이 신문에 소설을 연재한 것은 신문사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다소 이질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한용운이 이 신문에 장편소설을 연재한 일에 대해서는 맥락적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40) 『조선중앙일보』의 창간과 관련해서는 박용규의 『식민지 시기 언론과 언론인』(소명출판, 2015) 9장 참조.

41) 이선이, 「한용운과 여운형의 민족독립에 대한 인식 비교」, 『만해학보』, 제21호, 2021, 참조.

42) 조맹기에 따르면 이관구는 만 4년 동안 주필과 편집국장 자리를 오가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일찍이 신간회 중앙위원과 『조선일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관구는 한용운이 소설을 연재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조맹기, 「이관구, 좌우를 아우르려 한 언론계의 중추」, 『한국사 시민강좌』 43집, 일조각, 2008, p.364)

43) 이만규, 『여운형투쟁사』, 민주문화사, 1946, p.127.

민촌 이기영(民村 李箕永)씨의 역작 「인간수업」은 기왕에 보지 못한 대호평 가운데 그 결말을 수일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 뒤를 이어 현대 조선의 역사상 커다란 발자취를 뚜렷하게 색이여 누구를 말할 것 없이 선배로서 경모하는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씨가 수년내로 깊히 감추어두었던 재재를 가지고 필생의 노력을 다하여 영원히 이 세상에 끼치고 남을 인간생활의 성서(聖書)가 될 바의 장편소설 「후회(後悔)」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⁴⁴⁾

한용운의 연재를 알리는 『조선중앙일보』의 「사고」를 보면, 한용운은 당시 진보적인 성향의 인사들에게도 “선배로서 경모”를 받는 존재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밝히고 있는 한용운에 대한 경모의 마음은 그가 좌우 진영을 넘어서서 교류하면서 상당히 유연하게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과 교류를 해나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존경의 뜻만으로 연재 소설 작가가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연재 의뢰는 직전에 한용운이 『조선일보』에 연재한 〈흑풍〉(1935. 4. 9. ~ 1936. 2. 4.)의 인기가 그를 신문연재 소설가로서 일정한 입지를 마련해 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신문에 소설을 연재한 것은 한용운이 민족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의 인사들과도 유연하게 교류하면서 1930년대 중반에 신문연재소설 작가로서 입지를 다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3. 맺음말

그동안 한용운의 생애는 주로 민족독립운동가이며 근대불교개혁가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조명되면서, 자유시 시창작은 그의 삶에서 예외적이고 돌출된 행적이고 신문연재소설 창작은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선택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그가 문학작품을 발표한 주요 매체와 이를 매개로 한 인적 교류를 살펴보면, 이러한 평가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그가 문학작품을 발표한 매체를 살펴보면 1926년을 분기점으로 전후로 나누어지는

44) 〈社告 : 신연재장편소설 「후회」 : 노대가의 심혈을 경주한 걸작〉, 『조선중앙일보』, 1936년 6월 21일자 2면.

데, 1926년 이전에는 한시와 시조, 자유시형을 모색한 운문이 중심이 되었다면, 1926년부터는 시와 소설, 한시와 시조, 수필 등 다양한 대중적인 글이 활발하게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글을 발표한 주요 매체로는 출판사를 통한 단행본 출간과 잡지 및 신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출판사로는 ‘회동서관’과 ‘신문관’을 꼽을 수 있고, 잡지로는 한시 동인지 『신해음사』와 불교 중심의 잡지 『유심』과 『불교』, 대중잡지인 『삼천리』와 『별건곤』을 꼽을 수 있다. 신문으로는 『매일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글의 성격에 따라 독자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택하였다.

그가 문학작품을 발표한 매체를 중심으로 그의 인적 교류를 살펴보면 다음 네 가지 면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그는 일찍이 1910년대부터 문화계 인사들과의 만남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류가 회동서관에서 『님의 침묵』을 발간하는 일로 이어졌다. 둘째, 그는 1930년대에 대표적인 신문연재 소설가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중앙일보』에 〈후회〉를 연재한 사실은 신문연재 소설을 쓰는 작가로서 그가 가진 당대의 입지를 입증해 준다. 셋째, 그는 불교계 인사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인사들과도 폭넓게 교류하며 민족독립이라는 이상을 공유하고자 한 개방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와 가깝게 지낸 인사들 중에는 노골적인 친일인사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용운은 민족독립운동가이자 불교근대화운동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식민지 시기 우리 문화계의 중심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적 교류를 전개하며 문화계 인사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가 적지 않은 글을 발표한 잡지 『삼천리』와 『별건곤』과 관련한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1. 자료

한용운, 『(증보)한용운전집·1』, 신구문화사, 1979.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별건곤』, 『불교』, 『유심』,

『삼천리』, 『신해음사』

2. 단행본

- 고재석, 『한용운과 그의 시대』, 역락, 2010.
고정일, 『한국출판 100년을 찾아서』, 정음사, 2012.
김광식, 『우리가 만난 한용운』, 참글세상, 2016.
_____, 『만해 한용운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박용규, 『식민지 시기 언론과 언론인』, 소명출판, 2015.
이만규, 『여운형투쟁사』, 민주문화사, 1946.
이선이, 『근대 문화지형과 만해 한용운』, 소명출판, 2020.
임혜봉,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 민족사, 2001.
조선일보100년사편찬실, 『조선일보 100년사(인물·자료)』, 조선일보사, 2020.
한원영, 『한국신문연재소설의 사적 연구』, 푸른사상, 2010.

3. 논문

- 김성연, 「일제강점기 잡지 『佛敎』의 간행과 그 성격」, 『선문화연구』 제5권,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08, pp.61-106.
신상필, 「근대 한문학의 성격과 신해음사」, 『한문학보』 22호, 우리한문학회, 2010, pp.107-129.
이선이, 「한용운과 여운형의 민족독립에 대한 인식 비교」, 『만해학보』 21호, 2021, pp.185-218.
이윤석, 「신문 기사로 보는 회동서관」, 『근대서지』 20호, 근대서지학회, 2019, pp.59-85.
전보삼, 「만해 한용운과 소파 방정환의 인연」, 『방정환연구』, 창간호, 방정환연구소, 2019, pp.10-12.
조맹기, 「이관구, 좌우를 아우르려 한 언론계의 중추」, 『한국사 시민강좌』 43집, 일조각, 2008, pp.362-375.

4. 참고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dbhttp://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5&prevLimit=&itemId=had&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had_089_0150&position=-1](http://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5&prevLimit=&itemId=had&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had_089_0150&position=-1) : 2021년 4월 10일자 검색
법보신문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131> : 2021

년 5월 12일자 검색

선학원 : http://www.seonhakwon.or.kr/bbs/view.php?id=seon_press&no=185
&category=1 : 2021년 5월 20일자 검색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8월 07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9월 05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9월 07일

Abstract

Han Young-un's medium of publication by period and human interaction per medium

Lee, SunHee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Han Young-un's medium of publication by period, and examine noticeable human interactions he shared in each medium. Studies on medium of publication and the revolving human interaction will be able to provide advanced understanding of the life and the literary career Han Young-un had. Accordingly, the following two points have been analyzed in this study: first, the main publishers and publishing papers Han Young-un used to publish his writings from the 1910s, when Han officially started to publish his writings, until his death in June 1944, in order to examine the Han's standard of choosing medium of publi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 publications per medium; second, the human interaction Han had in regards to his main medium of publication, to explore social activities and relationships Han Young-un had. Through this analysis, the following details have been newly discussed: Han had been actively interacting with prominent cultural figures since the 1910s; he was famous for his serialized novels published on newspapers in the 1930s; Han had wide range of human interaction including not only Buddhist and nationalist figures but also socialist figures; and few of his closest companions were pro-Japanes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eyword Han, Young-un, Manhae, Human interaction, Medium of publication, Shinhaeumsa, MaeilShinbo, YuShim, BulGyo ChosunIlbo, ChosunChoongAngIlbo

1945-1950년 속초·양양지역의 공산체제형성*

—개인 만들기과 배제·포섭을 중심으로

이 세 진 **

국문요약

해방 후 북한지역은 공산체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속초, 양양지역도 공산체제의 이식이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혁명적인 농민조합이 발달해 있었다. 이들은 해방이 되자 적극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활동과 더불어 북한은 말단 지역까지 공산체제를 형성할 수 있었다. 북한이 체제형성을 위해 정조해야 할 것은 공산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 만들기과 주민의 포섭과 배제 즉 주민통제였다. 북한의 개인 만들기 작업은 공산체제의 규율권력을 내면화하는 것이었다. 규율권력에 해당하는 교양사업, 자아비판, 상과벌, 근면성과 모범, 선전활동 등을 통해 북한은 체제에 적합한 개인을 만들고 품행(품성과 행위)을 주도하였다. 공산체제의 형성을 위한 또 하나의 작업은 체제에 대한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적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동지는 포섭하는 것이었다. 배제와 포섭은 지방통치의 핵심이라할 수 있다. 지방통치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곧 체제로부터 배제되었다. 반면 이들의 포섭 대상이 된 사람들은 공산체제의 규율권력으로 내면화된 개인이었다. 이들은 북한 공산체제의 주인공이자 역사변혁의 주역이 되었다.

주제어 공산체제, 규율권력, 개인, 품행, 주민통제

* 이 글은 호서대학교 2021-1학기 교비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입니다. 이 글은 2020년 11월 28일 [한중아세안 from 강원도 춘천, 한중인문학 3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된 한중인문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호서대학교 더:함 교양대학 창의과학부 조교수

〈목차〉

1. 머리말
2. 해방 후 양양농민조합의 공산체제 형성
3. 지역통치 기반인 개인 만들기
4. 주민의 배제와 포섭: 주민통제
5. 맺음말

1. 머리말

강원도 속초, 양양 지역주민은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극단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였다. 지역주민들은 일제강점기 황민화, 해방 이후 소련군정과 공산체제하의 인민화, 전쟁 중 군정, 전후 대한민국의 국민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곳은 이념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공산주의가 발달해 있었고, 공간적으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다.

해방 이후 강원도 영동지역은 구(舊) 3·8선을 중심으로 북강원과 남강원으로 나뉘었다.¹⁾ 북강원 지역은 3·8선 북쪽 지역인 속초, 양양, 인제, 철원 지역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강원 지역은 해방 이후 공산체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해방 후 북강원 지역의 말단 지역 단위까지 공산체제를 정초하는 것은 소군정 및 북한체제의 성공을 가름하는 일이었다. 해방 후 공산체제가 형성되기 위해서 북한은 거시적으로 중앙으로부터의 탑다운(top-down)방식의 조직화 과정 즉 통치체제의 형성이 필요했고, 미시적으로 지역 공산주의의 기초인 개인과 마을이 조직되어야 했다. 공산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작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배제와 포섭이 이루어져야 했다.

당시 북한체제가 이러한 당면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던 세력은 일제강점기 농민조합 활동가들이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탄압을 받아 수세

1) 북강원과 남강원은 연구자들이 논한 상 나눈 것이다. 북강원과 남강원은 당시 행정구역상의 명칭도, 지역민들의 관습적 표현도 아니다. 해방 이후 영동지역을 남강원과 북강원으로 나누는 연구자는 김태우, 김재웅이 있다.

적이었던 지역 공산주의자들로, 해방이 되자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농민조합 활동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초기 지역사회의 공산체제 형성에 중요한 밑그림이 되어주었다.

지역공산체제 형성을 위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체제의 기초 지역행정 단위인 마을, 주민의 통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문제였다. 북한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초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제에 적합한 개인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북한은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을 배제와 포섭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국가행정의 가장 말단 조직인 리(里)도 공산체제가 들어서면서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리의 재편 과정을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될 해방 후 북한의 공산체제형성과 관련하여 농민조합, 개인, 주민통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농민조합, 농민조합원들 가운데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해방 이후 지역 공산체제의 주요 직책, 인민위원회, 세포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초기 북한체제형성의 필요조건인 개인, 주민통제, 리 단위의 재편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개인 만들기, 일제강점기 황민화로 인해 봉건의 낡은 시대성에 묶여 진보의 발을 내딛지 못하는 주민을 인민화하는 것은 북한체제가 해결해야 할 불요불급한 문제였다. 이는 황민화로부터 인민화로의 전환의 문제였다. 원론적 의미에서 인민화는 곧 개별자의 주권이 살아있는 주체성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체제의 근본적 정초는 공산주의화된 개인의 형성이었다. 개인은 공산주의의 규율이 내면화(강제)된 사람이다.

주민의 통제, 북한은 체제형성을 위해 포섭해야 할 주민과 배제해야 할 주민이 있었다. 다시 말해 주민통제는 공산체제의 적과 동지를 나누는 일이었다. 북한체제가 배제해야 할 적은 일본제국주의와 봉건의 잔재였다. 반면 동지는 공산당과 세포조직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었다. 주민통제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공산체제의 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였다.

이 지역이 3.8선의 접경지역이라는 점은 지역적 로컬리티성²⁾을 가지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해방 후 공산체제 형성의 양쪽 날개와 같은 개인 만들기과 주민통제에 착근하여 살피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 글의 이유는 거시적인 중앙단위의 역사에 대한 지역사로서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주민통제를 살펴봄으로써 공산체제형성의 기초 작업에 천착하고자 함이다. 이 글의 의의는 북한의 공산체제형성 초기 단계에서의 미시적인 규율권력 작동 메커니즘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공산주의적인 개인이 만들어가고 주민을 통제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미셸 푸코(Michel Paul Foucault)의 규율권력³⁾을 통해 해방 후 북한체제의 형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

-
- 2) 로컬리티(locality)는 개인의 정체성인 아이덴티티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정체성이다. 지역성으로 번역되는 로컬리티 즉 로컬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형성될까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은 고립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조금씩, 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의 정체성도 조금씩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형성 또는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확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개별성 그 지역 사람만이 지닌 욕구·태도 행동양식 등의 총체성 시간이 경과하여도 변하지 않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계속성을 경험하게 된다. 사람의 정체성 형성이 그러하듯 이 지역의 정체성인 로컬리티 역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고, 송정숙, 「지역 기록을 활용한 로컬리티의 형성과 재구성-일본 지바현 다테야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5, pp. 204-205.
- 3) 규율권력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셸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본격화한 개념이다. 규율권력은 근대형벌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신체의 감금, 노동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권리가 면서 동시에 재산인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규율권력이 나타난 영역은 감옥, 병영, 병원, 보호시설, 구빈원, 학교, 공장 등 엄격한 규율과 감시를 필요로 하는 곳이었다. 군인의 경우 농민의 몸가짐을 추방해 버리고 대신 군인의 몸가짐을 심어준 것이다. 규율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은 사취나 강제 징수 대신 훈육시키는 일을 주 기능으로 삼는다. 권력은 사람들의 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들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묶어 두는 것이다. 권력은 복종하는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고 구분하며, 그 분해 방법은 필요하고 충분한 정도의 개체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추진된다. 즉 규율은 개인을 제조한다. 규율의 수단은 감시, 규범화된 상벌제도, 시험 등이다. 규율제도는 인간행위를 관찰하는 현미경처럼 기능하는 통제장치를 확산시켰다. 규율권력하에서의 감시 장치는 사람들의 활동, 수완, 행동방법, 속도, 열성, 품행을 두루 고려한다. 감시 덕분에 규율 중심적 권력은 규율이 행사되는 장치의 경제성과 목적이 내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통합된' 조직이 된다. 정리해보면, 규율권력은 개인의 행동, 성적, 품행, 능력, 수준, 성장을 양(量)으로 측정하고, 가치로 등급을 매겨 차이의 정도를 규정짓는다. 이를 통해 규율권력체제는 비정상상의 외적인 경계를 규정짓고 구분, 비교, 서열화 등으로 대상을 동질화하고 배제하는 것이다. 규율권력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신체를 겨냥한다. 규율 권력의 최종 목표물은 순종적이면서도 유능한 신체 즉 유순한 신

만 아니라 현대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 글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해방 후 북한체제에 대한 국내 연구는 냉전적 사고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국외에서는 이정식, 서대숙 등이 소군정, 김일성, 북한 등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1980년대 이후부터 소련군정을 비롯하여 북한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의 연구자는 기광서, 김성보, 김재웅, 김태우, 이시형, 이완범, 전현수, 유리 바닌 등이 있다. 이 연구자들은 종래의 제한적 연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분석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속초, 양양지역에 대한 연구자 김귀옥, 김영미와 인제군 연구자 김재웅, 한모니까를 소개하기로 한다.

속초, 양양지역에 대한 연구는 김귀옥과 김영미가 있다. 김귀옥은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에서 강원도 속초 아바이 마을의 월남민을 분석하였다. 그는 월남의 동기를 다른 곳에서 분석하고 있다. 월남인이 가장 많은 해는 북한에서 ‘토지개혁’과 ‘민주개혁’이 있었던 1946년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⁴⁾ 김영미는 「수복지역 양양주민들의 한국전쟁경험—어느 한약방 주인의 생애와 선택」에서 이 지역은 전쟁 전 주민사회는 흰패와 붉은패로 갈려 있었다. 흰패들은 토지개혁 과정에서 토지를 몰수당한 자들로, 성분상으로는 지주, 소시민, 유산자 계층으로 공산체제로부터 유리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⁵⁾

이 두 연구자의 연구성과는 이 글에서 살피고자 했던 체제의 반대자로 몰려 배제의 대상인 사람들의 모습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김귀옥은 1946년 토지개혁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월남의 동기를 찾고 있다. 김영미는 김일성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던 김창순, 토지를 몰수당한 흰패였던 사람들이 북한체제의 배제 대상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연구성과는 필자의 주장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

체이다. 근대 규율권력은 미세한 것에 행사되는 미시물리학이다. 참고, 미셸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2012, pp.213-347 ; 정규영, 「미셸 푸코의 규율권력과 근대교육」, 『교육사학연구』, 교육사학회, 2013, p.174.

4)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5) 김영미, 「수복지역양양주민들의 한국전쟁 경험—어느 한약방 주인의 생애와 선택」, 『역사비평』, 역사비평, 2010.

해주고 있다.

속초, 양양의 인근 지역인 인제군에 관한 연구는 김재웅, 한모니까가 있다. 김재웅은 해방 후 북한의 인제군 지방 통치체계를 분석하였다. 북한통치체계의 핵심은 공산당, 인민위원회, 사회단체이며, 해방 직후 이것이 북한사회경제 변혁의 주체였을 뿐만 아니라 긴밀한 유기적 관계 아래 북한통치체계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갔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⁶⁾ 한모니까는 수복지구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분단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인민 또는 국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⁷⁾

이 두 연구자의 연구성과는 속초, 양양의 인접 지역인 인제군을 분석하였다. 특히 김재웅은 북한통치체계의 핵심을 인민이며 변혁의 주체라고 보았다. 그 인민은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포섭된 사람들이었다. 한모니까는 수복 이후의 인제군 주민들의 정체성에 집중하고 있다. 수복 이후에 월북하지 않고 인제군에 계속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포섭되지 못한 비인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연구 성과는 필자의 주장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해방을 전후한 시기의 공산체제형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전체사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피고 속초 양양과 인접한 인제군 관련 연구를 다음으로 살폈다. 마지막으로 속초, 양양과 직접 관련된 김귀옥, 김영미의 연구를 살폈다. 그 밖에도 이 지역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조동걸의 「강원도민이 전개한 민족운동의 특징」, 김점숙의 「1920-30년대 영동지역사회운동」, 조성운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⁸⁾

6) 김재웅, 「해방 후 북한의 지방 통치체계」, 『역사와 현실』, 역사연구회, 2006.

7) 한모니까, 「수복지구 주민의 정체성형성과정-인민에서 주민으로 주민에서 국민으로」, 『역사비평』, 2010.

8) 속초, 양양지역에 관련한 석사 논문으로 이세진, 「1930-50년대 수복지역마을의 국민화 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이세진, 「해방을 전후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공산주의」, 2019; 이세진, 「일제강점기 양양농민조합의 혁명화와 그 배경」, 2020, 『한중인문학연구』; 이세진, 「해방 후 속초, 양양지역의 사회상황과 소군정 정책」, 『한중인문학연구』, 2020 등이 있다.

2. 해방 후 양양 농민조합의 공산체제 형성

해방 후 영동지방인 속초, 양양지역에 공산주의 체제 조직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거시적인 중앙당 차원의 역할도 있었지만, 미시적으로는 이 지역에 사회주의 사상이 일찍부터 발달해있었다는 점이다. 이곳이 일찍부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게 된 배경은 몇 가지 특수성 때문이었다. 첫째, 속초, 양양지역에는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운동 성격이 강했던 농민조합이 발달해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농민조합이 발달했던 이유는 공산주의 사상의 특구였던 블라디보스톡과 뱃길로 닿아 있었다는 점과 함경도와 인접해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셋째, 이곳은 1937년 동해북부 철도가 연결되면서 교통이 발달했다는 점과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해운이 발달했다는 점이다.⁹⁾ 이 세 가지 요인은 이 지역 공산주의 발달에 독립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얹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농민조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 이후 38선 바로 북쪽에 있는 양양에서는 진주하는 소련 적군(赤軍)이 1930년대 초의 지하 농민운동의 일부였던 적색농민조합의 대표들과 현지의 노동조합 및 어민조합, 현지 인민위원회 구성원들의 영접을 받았다.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은 ‘전격적 행동’을 통하여 모든 일본인과 일본인의 영향을 제거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소련군 고위 장교는 ‘자신은 한인 지도자들의 견해를 따를 것이지만, 일본인이나 일본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후 소련이 함흥 인민위원회의 존재를 발견하자 즉시 일본인들을 축출하고 행정을 위원회에 넘겨주었다고 한다.¹⁰⁾ 인민위원회의 지도자들은 농민조합과 노동조합 및 어민조합원들 가운데에서 사회주의자들로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이 지역의 농민조합의 역사를 살펴 그것의 성격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민

9) 『동아일보』, 1927년 9월 6일, 대포항은 본 군 문호(本 郡 門戶)로 정기항로(定期航路)의 기항지(寄港地)임으로 백물(百物)이 폭주(輻輳) 노동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거년(去年, 1926년) 6월 13일에 이곳에 노동조합이 창립되어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위하여 활동 중이던 바 경찰의 신경(神經)이 그만큼 과민(過敏)이 되어 엄중감시(嚴重監視) [...].

10)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2001, pp.479-480.

조합이 해방 후 이 지역 공산체제형성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지식인들도 국가건설론과 농업 개혁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이와 연계되어 1927년 조선공산당과 고려 공산청년회의 강원도 도(道) 기관이 조직되었고, 이러한 도 기관의 조직으로 철원과 양양에 야체이카¹¹⁾가 구성되었으며, 양양야체이카는 ‘양양군농민조합’을 조직하였다. 즉 국내 공산당조직이 중앙과 지방의 상호 긴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¹²⁾

1920년대 후반 국내 사회주의자들의 현실인식에 있어서 지침이 된 것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이었다. 이는 1928년 12월 테제의 노선인 계급 대 계급 노선이 대두되면서 식민지 혁명론으로 자리 잡은 단계혁명론이었다. 이는 국내 사회주의자 대부분은 민족해방운동의 지도 원리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혁명단계론은 식민지 이식성, 토지문제의 반봉건성(半封建性)을 일차적 특수성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민족적 대립과 일체화되고 있는 계급적 대립의 주요한 성격을 이식자본의 전일적 지배가 아니라 반봉건적 대립으로 상정하는 것이었다.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론에서는 반봉건적 모순관계에 기초한 민족내부의 계급모순이 민족모순과 같은 수준의 문제로 부각되었고, 민족모순과 민족내부의 계급모순은 등치되었다.¹³⁾

미증유의 봉건적 생산관계의 모순에 기초한 민족모순, 일제의 모순적 농정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찾았다. 그 자구책 가운데 하나가 1920-30년대 사회주의 사상과 농민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농민조합운동의 대응력을 고양시킨 것은 사회주의 사상이었다. 농민조합의 형성과 사회주의적 배경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물론 농민조합원들이 모두 사회주의자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단체가 완전히 사회주의운동을 했다는 것도 아니다.

11)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비, 2002, p.353. 지수걸은 야체이카는 ‘준비회의 세포’로 번역하고 있다.

12) 김점숙, 「1920-1930년대 영동지역사회운동」,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1993, pp.283-284.

13)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북한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2000, pp.66-67.

강원도 속초, 양양지역의 농민조합운동¹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점숙에 따르면 영동지방은 지형, 기후조건, 높은 산악, 교통의 미발달 등으로 독특한 생활권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조선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1930년대 자작농은 강원도가 24%, 양양이 25%였고, 자작 겸 소작농은 강원도가 36%, 양양이 54%였으며, 순소작농은 강원도가 32%, 양양이 22%였다.¹⁵⁾ 또한 영동지방은 대부지 경영이 발달하지 않았고 농업경영의 영세성, 낮은 농업생산력, 일본인의 어업진출로 인한 조선인 어업의 몰락 등이 그 특징이다.¹⁶⁾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영동지역 각 군에서도 청년단체가 조직되었다. 그 중 고성과 양양군은 초기부터 그 활동이 활발했다. 양양군에서는 청년운동이 노동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1923년 양양군에서는 1920년 이래 호산청년회와 양양신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중심이 되어 ‘물치노동동맹(沔湍勞農同盟)’이 조직되었다. 오룡영, 김대봉, 김동환, 최우집 등은 이후 청년운동과 노동운동을 병행하였다. 1923년 양양군에는 호산청년회와 양양신청년회가 조직되었다.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의 조인순과 김대봉이 파견되어 1925년 1월 양양신청년동맹이 조직되었다.

【양양(襄陽)】 반도 강산을 뒤흔든 기미운동에 십 수의 인명을 희생하고 [...] 당시에 극도로 팽창되었던 사상(思想)은 일반청년들로 하여금 대동단결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어 전(全)군(郡)을 망라(網羅)한 호산청년회(湖山靑年會)를 조직하였으며 기후(其後) 같은 주의, 같은 보조(步調)하에 신청년동맹(新靑年同盟)과 일척정

14) 참고, 농민조합운동에 앞서 1925년 12월에 영동기자단 모임이 있었다. 『동아일보』, 「嶺東 記者團」, 1926년 10월 12일, 영동 6군(郡, 강릉, 고성, 삼척, 양양, 울진, 통천) 朝鮮文 各 新聞, 雜誌, 기자로 組織된 영동기자단은 [...]양양, 강릉, 삼척, 울진, 등지에서 다수 출석하여 연 2일간(10월 1일~2일) 원만히 제반사를 토의하였는데, 금(今) 피선된 위원과 결의안은 여좌(如左) 하다더라. [...] 대중운동의 관한 건 등; 『시대일보』, 「보통학원」, 1924년 12월 10일; 『중외일보』, 「양양농민조합」, 1930년 4월 20일, 양양군 농민조합에서는 제4회 대회를 보통학원에서 개최한다더라[...]

15)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續篇, 1932, 120-121쪽;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ニ於ケル小作二關ス參考事項摘要》, 1934, pp.48,59.

16) 김점숙, 「1920-1930년대 영도지역 사회운동」,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1993, p.276.

년회(一革青年會)가 병진(並進)하다가 4개 단체 합동 정우회(政友會)가 탄생(誕生)된 직후로 그들도 파벌(派閥)을 일소(一掃)하고 탄성(歎聲)을 외치게 되어 동화청년회(同化青年會)가 탄생되었다. [...] 지난 4월 각 면 별로 조직되어 있던 5개 세포단체(五個細胞團體) 즉 전기(前記) 동화(同化), 도천면 대포리에 있던 흥악(興岳), 강현면 물치리에 있던 설악(雪嶽), 서면 상평리에 있던 현서(峴西), 손양면 금강리에 있던 손양(巽陽) 청년회를 연맹체로 창립시켜 청맹에 가맹하였다가 방항 전화기인 금일에 있어 조직체의 변경이 필요케 되어 지난 8월 18일에 차(此)를 해체시키고 청총 규약에 의하여 동맹체를 창립시켜 적시 청년에 가맹하고 전연맹체의 세포단체를 축차(逐次) 해체시키고 지부를 설립케 되었는데 그 지부로는 도천면지부, 강현면 지부, 서면지부, 손양면지부, 물치차부조합 [...] 대포항은 본군문호(本郡門戶)로 정기항로(定期航路)의 기항지(寄港地)임으로 백물(百物)이 폭주(輻輳)한다함은 [...] 번화(繁華)한이 만큼 노동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으로 거년 6월 13일에 차지(此地)에 노동조합이 창립되야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위하여 활동 중이든바 경찰의 신경(神經)이 그만큼 과민이 되야, 엄중 감시하든 바 예(例)의 불온(不穩)으로 실로 간부를 구속하는 등 강제로 익월(翌月) 중순에 해체를 당하고 오직 거년(1926) 5월에 창립된 물치차부조합이 있어서 노동운동이 보일 뿐이다. 현회원이 28인이 요 사무소를 물치포에 치(置)하였다.¹⁷⁾

물치노동동맹은 농민운동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農同盟) 발(發) 제23호 공문에 의거하여 1926년 3월 5일 명칭을 ‘물치농민조합’으로 변경하였다. 그런 가운데 1927년 3월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 강원도 도(道)기관이 조직되었다. 도 기관이 조직되자 철원과 양양에 야체이카(공산주의 기본단위)가 조직되었는데, 영동지역에 조직된 양양야체이카는 책임 함연호, 김병환, 김동환 등으로 구성되었다. 양양야체이카의 적극적 활동으로 양양청년동맹이 조직되었고 양양군 각 리(里)에 조직되었던 물치리, 조산리, 정손리, 용춘리, 소야리, 서림리 6개의 리 농민조합을 기반으로 양양군(郡)농민조합

17) 『동아일보』, 「순회탐방 양양」, 1927년 9월 6일. 물치차부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지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천면 지부 회원 50인 사무소는 대포리 지부장은 정오근, 강현지부 회원 25인 사무소는 물치리 지부장은 오일영, 서면지부 회원 24인 지부장은 강장주, 손양면 지부 회원 26인 지부장 이양섭, 물치농조 계해년(1923) 1월 26일 농민조합으로 변경하였다. 역사가 유원(悠遠)하고 회원 53인 사무소 물치포, 조산농조 제작년 10월 12일 농우회를 창립 경차당국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선전할 위험성이 보인다고 해체, 다시 거년 8월7일 농민조합으로 변경 현회원 43인 사무소를 양양면 조산리에 치(置)하였다.

이 1927년 12월 30일 조직되었다.¹⁸⁾ 김점숙은 강원도 공산주의 청년운동과 농민운동의 배경을 강원도의 독특한 산곡(山谷)의 지리적 특성에 기반한 생활권 형성에서 찾고 있으며,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와의 긴밀성에서 찾고 있다.

강원도 공산주의의 이러한 배경은 사상의 특구였던 함경도와 인접성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새로이 철도공사도 진전되고 자동차 교통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되었다. 참고로 영동지역 해안을 잇는 동해북부선은 1928년 2월에 시작되어 안변-통천-고성-양양 청곡리까지의 구간을 1937년에 완공하였다. 동해북부선은 계획상으로 포항까지 개통하는 것이었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함경남도(이하 함남) 일대와 인접하고¹⁹⁾, 함남 주민들이 사상의 특구였던 간도, 만주, 연해주 방면 등지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함남 일대는 공산주의 사상에 일찍부터 젖어있었고, 당시 속초, 양양의 주민들이 함남 일대의 도시와 공업지대에서 부두노동, 날품팔이 등 구직활동을 하다 돌아오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²⁰⁾

이러한 사정과 조선공산당의 격려가 겹쳐지면서 양양지역에 적색농민조합이 조직되었다. 당시 신문은 양양농민조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조합원

18) 김점숙, 「1920-1930년대 영동지역사회운동」,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1993, pp.276, 279, 280, 283;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朝鮮思想事件判決 反帝國主義民族獨立支持同盟事件」, 『사상월보』 제4권 제6호, 1934년 9월 15일.

19) 『동아일보』, 「元山을 中心으로 江原道の 區域變更運動」, 1923년 7월 27일. 강원도의 일부 구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운동이 얼마 전부터 각 관계지(關係地)의 일부 관민 측에서 일어나자 [...] 강원도 외 이점 된 함경남도로는 원산부를 중심으로 영흥이남 고원, 문천, 덕원, 안변 등 고을을 떼여오고 평안남도로는 양덕군 황해도로는 곡산군을 강원도의 구역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하는 이유는 대개 지리(地理), 교통(交通)상 여러 가지 이해와 득실이 현수함은 물론 행정상에도 다대한 편리가 있으리라는 데, 이와 같이 되기 만 하면 종래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른 도에 비교하여 손색이 있던 강원도의 장래 발전에는 크나큰 희망이 있다[...]; 『동아일보』, 「도청은 원산으로 의견은 대개 일치」, 1923년 7월 27일, [...]원산에 도청을 두게 되면 방금 25개년 동안을 두고 계획하는 대원산(大元山)(갈마포(葛麻浦)를 중심으로 안변)의 장래에도 적지 않은 새 빛을 더 하리라더라.

20) 『동아일보』, 「울진삼척 적농사건 등-백여 청년을 검거」, 1934년 11월 13일; 이세진, 「일제강점기 양양농민조합의 혁명화와 그 배경」, 『한중인문학연구』, 2020, pp.126-127.

으로 공산주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산의식을 함양하는 입장[···]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 격려하여 양양군 농민계급으로 하여금 그 종국적 목표인 적화(赤化)를 획책하였다는 것이다.”²¹⁾ 다음은 양양군농민조합의 활동과 위축과정을 신문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양양군에서 농민조합이 1928년 4월 6일 모임을 개최하였다. 집행부 위원장 김병환의 사회하에 개회가 되었고 출석인원은 320여 명이나 되었다. 방청석에는 남녀노소 무려 천여 명에 이르는 인원이 참석하였다. 토의 내용은 자체 교양에 관한 건, 미조직 농민 교양에 관한 건, 봉건유물 일체의 배격에 관한 건, 노동운동 지지에 관한 건, 소작제도 개선안 건의 관한 건 등이었다.²²⁾ 4차 조선공산당 사건(1928.7) 이전까지 양양군농민조합은 크게 활성화되었다. 양양에서는 군 단위의 농민조합운동이 발전하고 있었다.

또한 ‘1932년 12월 10일 양양농민조합이 양양 경찰서에 검거되었으며, 김병환 외 3백 66명은 8개월 만에 취조가 끝나고, 1932년 11월 28일 55명만이 기소 의견으로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에 송치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²³⁾ 또 다른 기사에는 ‘강원도 양양의 농민조합조직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병환[···] 등 36명에 대한 연도 공판이 함흥지방법원에서 개정되었는데 연도 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병환(金炳煥), 오룡영(吳龍泳), 최용달(崔龍達) 등이 징역 4년 형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²⁴⁾

1932년 일본의 대대적인 검거로 군 단위의 농민조합활동이 활발했던 양양지역은 큰 타격을 받았다. 다시 말해 정손리의 김병환, 조산리의 최용달을 중심으로 양양농민조합은 군(郡)단위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김병환,

21) 『동아일보』, 「양양농민조합 오용수 등 卅四名 不日 간 공판에 회부 농민계급에 적화교양」, 1934년 4월 1일.

22) 『동아일보』, 「농사개량 등 다수조항 결의」, 1928년 5월 1일.

23) 『동아일보』, 「양양농조사건피의자 90퍼센트 석방 8개월 취조바든 366명중 55명만 예심 회부(원산)」, 1932년 12월 10일.

24) 『동아일보』, 「襄陽劣農事件 最高四年을 判決, 金炳煥 等 卅六名에게 全部體刑」, 1934년 6월 23일.

최용달 등 양양농민조합 엘리트들이 검거되어 징역형을 받게 되면서 군(郡) 단위의 농민조합운동은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²⁵⁾ 농민조합의 지도부가 검거되면서 농민조합운동이 와해되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침체되었을 뿐이었다. 마을 즉 리(里)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인 활동과 조직이 미미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경찰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은 피의농민은 90퍼센트가 석방되었고 10퍼센트 미만이 아직 죄의 유무를 판정하지 못하는 예심에 회부되었다.”²⁶⁾ 일제 당국에 의해 체포된 일반 농민조합회원 농민들은 대부분 석방되었고 이들은 당시 살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농업에 충실하면서 순회강연, 경제투쟁, 사상선전 등의 대외적 공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비공식적으로 분회조직의 확립에 노력하였으며 조합원의 미조직대중조직을 도모하였다. 이를 반증하는 것은 검거 열풍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이 지역 회원들의 검거 상황을 살펴보면, 4차 조선공산당 사건 이후 농민조합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이 계속해서 검거되고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해본다면 리(里)를 중심으로 한 미조직대중조직활동이 내부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1932년 일제의 농민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농민조합의 지도자들이 대거 투옥되면서 양양군농민조합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농민조합은 일반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각 마을, 즉 리(里)의 활동으로 축소되었다. 농민조합운동 자체가 크게 약화되었고, 운동은 비공식적인 활동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리 규모의 농민조합은 비밀리에 유지되고 있었다. 해방 후 농민조합은 건재함을 과시했고, 후일 리(里)는 이 지역 공산체제 형성에 기초적 역할을 했다.

25) 참고, 김점숙, 「1920-1930년대 영동지역사회운동」,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1993, p.288. 김점숙은 “4차 조선공산당 이후 고성, 양양군의 운동이 침체된 반면 강릉, 삼척, 울진군에서는 지역전위조직을 중심으로 적색농민조합, 적색노동조합, 반제동맹을 조직하려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26) 『동아일보』, 「양양농조사건피의자 90퍼센트 석방 8개월 취조바든 366명중 55명만 예심 회부(원산)」 1932년 12월 10일

3. 지역통치의 기반인 개인 만들기

근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²⁷⁾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근대사회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체제를 불문하고 공통점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20년대부터 한반도에 마르크스-레닌 사상이 유입된 이래 해방 이후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번 장에서는 1945년 이후 북한지역에 공산주의가 조직되면서 봉건과 일제의 잔재를 극복하는 과정과 체제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개인 혹은 인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한모니까는 해방 이후 남북한에서는 국가 수립과 더불어 국가 구성의 국민, 인민 만들기가 각각 진행되었고 주장한다. 남한에서는 국민의 형성과정은 인민의 배제를, 북한에서는 인민의 형성과정은 국민의 배제를 의미했다. 국민 또는 인민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억압, 배제, 차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근대의 개인은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신체의 소유를 바탕으로 한 노예제가 아니며 관습적 복종 관계를 의미하는 봉건제도 아니다. 근대의 개인은 엄격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규율권력이 몸에 새겨진 존재이다. 따라서 근대사회는 신체의 소유나 관습적 지배-복종 관계를 거부하고 개인의 신체에 규율권력이 작동되어 훈련된 신체와 순종적 신체를 만들어내며 규율은

27) 개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가 person으로서의 개인이다. 이는 persona 즉 가면(假面)이라는 말로 세상 혹은 공동체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둘째는 individual로서의 개인이다. 이는 분리될 수 없는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는 그 사람 개인의 본래적 특성을 간직한 개인이다. 근대적 의미의 개인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지만 푸코는 근대의 개인이 규율권력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푸코적 의미에서 개인을 살피고자 한다. 덧붙여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한 계급 또는 보편적 계급이 개개인들의 공적 그리고 사적 선택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음과 같은 정치단체(공산당)가 개인들의 선택을 결정한다. 이 정치단체는 자각하고 계몽 되고 적극적인 정치단체이며 개인들은 그 단체가 선봉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받아들여야 한다. 미셸푸코, 오성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2012, p267. 이승은, 「개인의 자유와 공산주의-스프레판디의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에 대한 서평」, 『마르크스주의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9, p.201.

28) 한모니까, 「수복지구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정-인민에서 주민으로 주민에서 국민으로」, 『역사비평』, 2010, 역사비평사, p.128; 2008년 석사 논문으로 이세진의 「1930-1950년대 수복지역 마을의 국민화과정」이 있다.

신체와 힘을 분리시켜 소질과 능력을 증대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위력을 역전시켜 엄한 복종 관계를 만드는 메커니즘이다.²⁹⁾ 이와 같은 미시적인 규율권력은 무엇인가를 억압하기보다는 생산한다. 규율권력은 개인을 억압하고 관리 통제하기보다는 근대 시스템에 적합한 개인을 만들어낸다. 부드럽게 유효적인 권력 메커니즘은 더욱 교묘한 형태로 개인을 순종시킨다.

해방 후 북한체제는 일체의 신체의 소유, 관습적 지배복종을 거부하고 체제에 적합한 개인을 만들고 있었다. 북한은 체제형성의 근간인 개인을 공산주의적 규율이 몸에 베이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산된 개인은 훈련된 몸이자 체제에 순종적인 인민이 되는 것이었다. 개인은 공산체제형성의 주춧돌이자 생산력 증대의 핵심 인자였다. 다음은 북한이 체제에 적합한 개인을 어떻게 형성해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체제에 적합한 개인, 1946년 4월 10일 조선공산당 청진시위원회에서 적합한 개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선공산당은 조선 무산계급의 정당이다. 그의 최후의 목적은 무산계급 혁명을 완성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함에 있다. 그러면 무산자계급이란 무엇이나 무산계급은 노동자계급을 말한다. 공산당은 이러한 노동자계급 중 가장 우수하고 가장 계급의식이 강한 사람들로서 이루어진 정당이다. [...] 노동자 계급에게 두 가지 원수가 있다. 첫째가 일본제국주의이고, 둘째가 봉건세력이다. 이 두 세력을 때려 부수는 것이 조선혁명의 당면 임무이다. 그러므로 조선공산당은 남은 일제국주의 세력과 봉건세력을 철저히 소탕하고 조선에 한 개의 새로운 민주주의국가를 세우기에 노력한다. 조선공산당은 노동자계급의 정당임으로 공장노동자와 농업노동자 중에서 많은 우수한 사람을 흡수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농민(부농 제외) 소수공업자 직원 혁명적인 지식인으로서 진보적 사상을 가지고 의지가 간결하고 용감하여 노동자계급의 이익과 당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받치며 철저히 투쟁하여 이력(履歷)이 깨끗하며 당규에 합치된다면 가히 당에 넣을 수 있다.³⁰⁾

29) 미셸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pp.213-222. 참고.

30)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I, pp.66-67. 북한관계사료집은 강원도 인제군 공산당이 남긴 자료로서 당시 공산체제형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속초 양양지역은 인제군과 같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인제군의 자료를 통해 속초, 양양지역의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위의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체제의 핵심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는지, 그들의 역할, 최종목표까지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공산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적시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1947년 연설에서 ‘북조선의 민주적 성과는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 기업가인 수공업자, 종교가 할 것 없이 조선인 각계각층에 다 관계되는 문제이다’라고 하였다.³¹⁾

청진시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체제는 일제와 봉건 잔재를 거부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체제는 계급 투쟁력이 있는 노동자 중심의 무산자계급이 중심되어야 한다. 김일성의 연설에서 각계각층이 모두 중요하다고 했지만 실제 앞에 언급한 노동자, 농민이 북한체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양사업을 통한 개인 만들기이다. 북한체제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당(공산당)의 주도적 역할하에서 수행된 위대한 민주개혁과 경제의 결과에 북조선이 새 인민적 민주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 당원과 노동자 농민들에게 자신을 가지게 한 그것’이라고 했다. “우리당 일꾼들을 위하여 특별한 행정관리 교양사업들을 전개해야 하며 그들이 사업을 일상적으로 당의 감시하에 둔다. 인민정권들은 상부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그 조직 기능과 활동기능을 민첩하게 하며 상부정권들의 시책과 결정들을 민활케 수행한다. 우리기관과 인민대중의 긴밀한 혈연적 연결을 보자하며 인민정권 기관들의 사업을 인민대중 속 깊이 침투시켜야 하겠다.”³²⁾

학교의 경우 소년단을 지도하는 교양 주임이 따로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당원이었다. 당시 소년단의 인사는 “준비하자”였고, 이는 전쟁을 준비하자는 의미였다. 또한 소년들은 저녁마다 동네에 모여 소년단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동네를 돌며 “남조선 미제국주의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돌아다녔다.³³⁾

31) 김일성, 「김일성 장군의 연설」, 1947, 8월 25일.

32)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I, pp.330-331.

33) 구술자, 김옥봉(당시 인민학교 선생님), 면담자 김영미, 이세진, 속초시 교통 자택, 2008년 9월 7일.

북한당국의 교양사업은 다음과 같은 규율권력이 작동되고 있었다. 첫째, 북한체제는 민주적 개혁과 경제의 결과를 통해 당원과 노동자, 농민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었다. 민주적 개혁은 법이나 제도보다는 남녀평등과 같은 봉건적 잔재의 해체와 관련되어 있다. 새로운 행동양식과 경제의 결과를 통해 노동자와 농민들의 자신감을 생성하고 있다. 둘째, 행정관리와 교양사업을 통해 민민의 체제에 적합한 개인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감시하에 둔다. 즉 교양사업은 규율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양사업은 계급의식, 막스-레닌사상, 미제국주주의에 대한 비판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셋째, 조직의 유기성과 민첩성은 규율권력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넷째, 당시 인민학교에서는 어린 소년들에게 공산주의 교양을 전파하였다. 이들의 교양을 전담하는 선생님은 반드시 당원이어야 했다.

셋째, 자아비판과 회의는 규율권력의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자아비판은 학생들이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자아비판이 있었으며, 동지비판도 있었다. 자아비판은 자신의 잘못을 동료 앞에서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동지비판은 친구의 잘못을 보았거나 들은 사람이 잘못된 친구를 불러내 친구들 앞에 세우고 “동무”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것이다. 동지비판을 당한 친구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해야만 한다. 학급회의 경우에도 회의 안전을 처리하기도 하고 친구의 잘잘못을 지적하였다. 회의 종료 후 학생들은 다시 모여 “남조선 미제국주의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이때 선생님도 따라가야 한다. 선생님이 가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³⁴⁾

어린 학생들 사이의 자아비판, 동지비판은 선생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학급마다 매일 학생들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규율은 생활계획표처럼 시간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으며, 북한체제하에서의 자아비판과 동지비판은 훈육과정이었다. 여성위원장 등 당원의 자식들이 회의 등에서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공격적이었으며, 담임 선생님도 무서움을 느낄 정도였다. 자아비판, 동지비판을 통해 또래 집단 사이에서 규율의 내면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공산체제에 적합한 개인을 만들고 있었다. 후일 체제에 적합하게 규율화된 개인은 지역사회

34) 구술자, 김옥봉, 2008년 9월 7일.

더 나아가 국가전체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 상(賞)과 벌(罰)을 통한 개인 만들기이다. 당시 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조선의 민주주의 자주독립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신을 돌보지 않는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주야분투하고 있는 보안원들의 모범적인 활동은 실로 높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보안원들의 수범적으로 자기의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1947년 하반기 사업을 주야불철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장의 표창과 본 도(道) 내무서장의 표창과 본 군(郡) 내무서장의 표창이 있었던 바이며 영예스러운 표창장을 수여 전달하기 위하여 양양군 내무서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7시 반부터 인민극장에서 내무서장 정웅모 동지의 사회로 인민위원장을 비롯하여 천여명 군중의 참석하에 상장을 수여식을 거행하였다.³⁵⁾

처벌의 모습은 주요 감시대상자와 같은 암묵적 형태가 많았다. “인공 때 자기가 싫어도 싫다는 소리 못해요. 그대로 따라가야지, 저 새끼 손가락질 당하면 자기만 신상에 좋지 않은데 부지런히 따라가야 했지요. 손가락질 받아서 사상범으로 몰리면 아오지 탄광 가야 돼, 아오지 탄광가면 죽어야 돼.”³⁶⁾ 공산체제는 형법상의 처벌이 아닌 주요 감시 대상으로서의 처벌을 통해 공산사회에 적합한 품행(品行)을 개인의 몸에 베이도록 하였다.

거시적으로 북한체제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부터라고 볼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지방의 주민, 즉 개인적 체험의 상벌(賞罰)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말단 지방에서 상과 벌을 통해 공산체제에 적합한 개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섯째, 근면 성실을 통한 모범적 개인 만들기이다. 당시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 『강원로동신문』, 「양양군 모범 보안원 의사에게 내무국장 표창장 전달식 거행」, 1947년 10월 13일.

36) 구술자, 정민화, 김민철, 면담자 김영미, 이세진, 양양자택, 2010년 5월 3일.

빈농 출신으로 인민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 노동자 생활을 하게 된 이 동무는 그때 당시 겨우 일당 3, 4십 전에 불과한 박(薄)한 임금을 받고 죽지 못해 산다는 처참한 일상생활에서 노동자로서 일제를 반대하는 굳건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탄광 지주부(支柱夫)로 취업하였다가 감격적인 해방을 맞이하여 도시 노동자 생활 옹호를 위한 조직운동에 주동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항내(탄광의 항내) 진영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치일꾼으로 활동하며 어려움이 있는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1947년 1월 이후 지주부로서 자기 책임을 완수하고 노동자로서 또한 그는 건설적인 민청의 간부로서 있는 정력을 발휘하였다. 민청원으로서 자기과업을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철벽같이 책임감으로 완수하였다. 탄광 민청위원회 사업 추진에 주동적 역할을 하였다. 항내 지주를 세우는 것도 40-50분이 걸리는 것을 동무는 불과 15분 만에 완료했다. 채탄량도 보통 10톤밖에 못하는 것을 동무는 20-30톤이란 거의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여 임무를 완수하였다. 근로자의 고귀한 정신은 모범이 되었다.³⁷⁾

여섯째, 선전 선동을 통한 개인 만들기이다. 북한 농촌의 선전 선동을 분석한 김태우에 따르면, 선전의 대상이 구분되어 차별화된 선전방법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그 대상에 따라 선전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① 동조자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사회주의 이론 교양의 강조, ② 동조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대상 집단의 이익, 감정, 신념에 의존한 선전의 강조, ③ 체제를 약화시키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인민들의 지나친 폭력을 삼갈 것을 강조’이다.³⁸⁾ 이러한 원칙은 인제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전역을 관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속초, 양양의 인근 지역인 인제군과 관련된 내용이기 는 하지만 말단 지방에서의 개인의 형성은 유사했을 것이다.

군중 선동사업에 반드시 실행해야 할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선전원 강습회를 실행하며 모범 선전원 선정을 계획적으로 실시할 것. 만화와 표어공작을 만세식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계획적으로 공작하며 속보판, 벽보

37) 『강원도동신문』, 「철벽같은 의지로 자기 책임을 완수」, 1947년 11월 10일.

38) 김태우, 「1948-49년 북한 농촌의 선전선동사업-강원도 인제군의 사례」, 『역사와 현실』, 2006, p.99.

판을 각 기관 및 가두 농촌에 4월 5일까지 완료할 것, 각 세포 선전원들이 강습받은 제목을 올케 소화하며 자기가 담당한 인민반 구역에서 계획적으로 선전하며 농업증산을 위한 구체적 선전교양을 실시할 것, 인민반 독보회 3회씩 실시하여 선전원이 직접 지도하여 독보회 자료는 주로 〈신문〉 3면 및 4면을 가지고 실시할 것.³⁹⁾

속초 양양 지역 주민들은 독보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인민 학교 학생들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 올 때 독보회를 해요. 독보회라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교육이었어요. 인민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민청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의 뇌를 아주 세척하는 것이었어요.”⁴⁰⁾ ‘동네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민청하고 여성동맹이었어요. 민청, 민주청년동맹 다 대단하고, 여성동맹 대단했어요.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여기(남한)처럼 시시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한다면 아주 열성적으로 나서야 돼. 거기에 뒤처지면 반동분자 소리 듣는데, 죽어도 같이 선전 선동에 앞장서야지.”⁴¹⁾ 민청과 관련해서는 당시 강원노동신문에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기사의 제목만 살펴보면 1947년 11월 3일, 「혁명적 전통을 이어 조국건설에 청년들의 힘과 열을 바치자」, 1947년 11월 5일 「민청의 단결조직 농민의 선두에서 열렬히 투쟁」, 1947년 11월 10일, 「민주 조국건설의 초석 모범적인 민청 일꾼들의 활약상」 등이 있다. 북한체제는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과 어린아이들로부터 공산사회의 근간을 찾고있었다.

본 장을 정리하면, 북한체제의 개인 혹은 인민은 제도나 법을 통해 통치되기도 하지만, 좀 더 자발적 성격을 띤 규율을 통해 개인이 만들어지고도 있었다. 법이나 제도화된 권력은 아무리 강력해도 통치권력이 사라지면 파도에 쓸려가는 모래성처럼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미시적인 규율권력은 인간의 몸에 새겨지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성된 개인은 초기 북한체제형성의 중요한 주춧돌이었다. 해방 이후 북한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작동되었던 규율권력인 교양사업, 자아비판, 상벌, 근면성과 모범, 선전선동 등을 통해 북한은 체제에 적합한 개인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품행(품성과 행위)까지도 주도하였다.

39)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Ⅱ, p.154.

40) 구술자, 정민화, 김민철, 면담자 김영미, 이세진, 양양자택, 2010년 5월 3일.

41) 구술자, 정민화, 김민철, 면담자 김영미, 이세진, 양양자택, 2010년 5월 3일.

4. 주민의 포섭과 배제: 주민통제

주민의 배제와 포섭을 언급하기 앞서 리(里)의 재편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주민의 배제와 포섭은 리 혹은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공산체제 이후 토지개혁으로 이 지역의 전통 씨족 가문들의 경제력이 무너지면서 리의 권력체제도 재편된 것이다. 리의 구장에 해당하는 인민위원장은 전통적 씨족 가문이 아닌 빈농출신들이 차지하였다. 리의 의사결정은 리 인민위원장과 인민위원회 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리의 주민과 국가행정은 군, 면 인민위원회-리 인민위원장과 인민위원회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의 만남은 top-down 방식의 생산고, 현물세, 각종 헌납금, 공공사업 등을 통해 연계되고 있었다. 북한체제는 행정기관과 당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군, 면 당위원장이 중심으로 지방통치가 되고 있었다. 지방통치의 핵심은 군당위원회-면당위원회-리의 세포와 당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리의 통치는 리 세포와 당원을 중심으로 조직, 운영되었고, 행정이 세포와 당원을 보조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한은 리의 당원, 세포를 중심으로 정치교양, 민주주의적 혁명정신을 고취해 나갔으며 공산체제형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리의 체제를 재편하면서 동시에 체제의 적과 동지를 구별하기 시작했다. 즉 적은 배제하고 동지는 포섭하는 방법으로 주민통제하였다. 북한은 체제에 포섭시켜야 할 동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공산체제를 형성되면서 무산계급 혁명을 완수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포섭해야 할 대상은 무산자 계급인 노동자였다. 당시 북한에서는 노동자를 공장노동자와 농업노동자로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부농은 제외하지만 소수 공업장 직원, 혁명적인 지식인, 진보적 사상을 견지하고 의지가 굳건하고 용감하며, 노동자의 계급의 이익과 당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력을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이들의 주적(主敵)은 일본제국주의와 봉건세력이다.⁴²⁾

42)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 사료집』 I, pp.66-65.

북한은 체제로부터 배제해야 할 적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와 그에 동조한 세력들이었다. 미소공위가 실패하면서 미국도 적에 포함되었다. 미 제국주의, 김구, 이승만 등 민족반역자들이 또한 북한체제의 적이었다. 이들을 모두 북조선의 민주주의 과업을 파괴하려고 시시각각 준동하는 세력이라고 보았다.⁴³⁾

첫째는 농민조합원은 포섭의 대상이었다. 그 대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농민조합운동을 하던 주요 인물들이었다. 해방 공간에서 이들이 지역의 공산당 조직에서 주요 역할과 활동을 하였다. 해방 이후 북한에 공산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자 곧이어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혁명적 농민조합운동과 해방 이후 인민위원회,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의 지도하에서 전개된 농민조합운동의 상호관련성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일제하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해방 공간에서 전개된 인민위원회운동과 농민조합운동의 주요 역량이 되었다. 혁명적 농민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에서 해방 이후 인민위원회운동도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⁴⁴⁾

둘째는 일반 농민들이 포섭의 대상이었다. 해방 후 이 지역에 공산체제가 되면서 사태와 질서는 완전히 바뀌었다. 리의 구장에 해당하는 리 인민위원장은 투표로 결정하였다. 양양군 손양면은 지역의 유지가였던 윤 씨들이 리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체제가 되면서 평범한 농민이었던 최00 용은 양양군 손양면 밀랑리의 인민위원장(1946.6-1949.8)이 되었다. 최 용을 다수결(투표)로 인민위원장으로 결정했다. 주민행정과 관련된 리의 의사결정 사항은 군 혹은 면 인민위원회에서 내려오는 행정업무 지시사항이었다. 리의 의사결정은 리 인민위원장을 중심으로 동회나 인민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북한은 공산체제를 과업을 수행할 지역의 인물과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다.

43) 『강원로동신문』, 「준동하는 반동모락을 물리치고」, 1947년 11월 1일; 『강원로동신문』, 10월 6일, 미군정의 비호를 받는 김구, 이승만, 정덕수 등 반동과 매국노들은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특히 노동운동에 대한 전대미문의 야만적 탄압과 민주주의 애국자들에 대한 학살과 살육정책을 감하여 중세기적 암흑정치를 강행하고 있다.

44) 지수결,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비, 2002, p.383.

셋째, 빈농이나 머슴이 포섭의 대상이었다. 포섭된 빈농과 머슴은 북한체제 형성의 핵심인 당원이 되었다. 북한은 공산체제에 적합한 인민을 당원과 비당원을 나누었다. 당원들은 비밀경찰 자격까지 있었다. 당원들은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염탐하였다. 당원이면 대부분 세포와 유사한 임무가 주어졌다. 당원은 비당원은 물론이고 당원들끼리 서로 감시하였다. 당원들은 학교, 훈련장 등에서도 자기들끼리 따로 회합하고 정보를 주고받았다.

속초 양양의 당원 구성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인근 인제군의 자료를 검토해봄으로써 속초, 양양지역의 당원구성변화를 미루어 짐작하기로 한다.

〈1947-49년 북로당 강원도 인제군당 당원 성분 구성변화 추이〉⁴⁵⁾ 단위: %

	노동자	빈농	중농	사무원	상인	기타	계
1947년 말 점유율	4.4	77.2	11.3	4	0.24	1.86	100
48년 말 점유율	4.8	78.3	10	4.8	0.2	1.9	100
49년 4월 점유율	4.9	78.4	9.8	4.7	0.2	2	100
49년 10월 점유율	5	80	9	4	0.2	1.8	100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1949년 10월 전체 당원 가운데 빈농이 80%나 차지한다. 빈농은 대부분 당원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제군 자료에 의하면 신입당원은 세포에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아 당원의 여부는 세포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포에서는 입당을 승인하면서 입당보증인 2인을 세웠다.⁴⁶⁾

장00 1919년 3월 5일생, 남자, 인제군 기린면 북리 조선사람, 성분-빈농, 출신-빈농, 국문해독, 인제군 인제면 상담세포, 1947년 12월 29일 입당 보증인(2명) 박00 제528838호(세포번호), 김00 제 528844호(세포번호). (『북한관계 사료집』 II, p. 45.)

세포의 감시는 리의 경계를 넘나들었다고 한다. 서열상으로도 군 인민위원장

45) 김재웅, 『북한체제의 기원-인민위의 계급위의 국가』, 역사비평사, 2018, p.315.

46)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 사료집』 II, p. 45.

보다 군 당위원장이 높았으며, 이는 면, 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즉 리에서는 리 세포위원장이 최고 권력을 가졌다.⁴⁷⁾ 세포는 철저하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다.

정리해보면, 북한체제에 포섭 대상은 북한체제의 핵심세력으로서 시대변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포섭된 사람들은 공산체제의 인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북한은 지역 기초단위 리의 개인 및 주민을 공산당 조직과 세포로 활용하면서 공산체제의 기반을 다졌다.

다음은 적대세력의 배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일제 세력의 제거이다. 1945년 7월 포츠담에서의 토의는 한국에서의 소련 작전을 언급했다. 만주와 한국의 일본군을 공격하는 임무가 소련에 맡겨졌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원자탄 투하와 만주 전투에서의 소련군의 신속한 성공은 일본의 급속한 항복을 초래하였다. 소련은 일본군과의 전투를 통해 군사 및 정치적 이점을 차지했다. 38선 북쪽에 있는 양양에서는 진주하는 적군(赤軍)이 양양적색농민조합의 대표들과 현지 인민위원회 구성원들의 영접을 받았다. 인민위원회의 지도자들은 ‘전격적 행동’을 통해 모든 일본인과 일본인의 영향을 제거시킬 것을 강조했다. 소련군 고위 장교는 상사에게 일본인의 영향을 즉시 제거하는 것이 인민의 원망이라는 것을 통고하겠노라고 했다.⁴⁸⁾

북한은 첫 단계로 주적(主敵) 중에 하나인 일제세력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1945년 8월 10일 소련 제 25군은 나진과 웅기로 들어와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소련군은 일본군을 물리쳤고, 지역인민위원회는 일본인의 영향을 제거하였다.

둘째, 봉건지주의 제거. 1946년 3월 5일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었다.

제1조 북조선 토지개혁은 역사적, 경제적 필요성에서 이루어졌다.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소유 토지 및 대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

47) 구술자 정민화, 김민철, 2010년 5월 3일, 면답자 이세진.

48) 부르스 커밍스, 김자동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2001, pp.477-480.

권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다.

제2조 몰수되어 농민 소유로 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일본국가, 일본인 단체 및 일본인 소유의 토지.

나. 조선 민중의 반역자, 즉 조선민중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일본제국주의자의 정치기관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토지 또는 일본의 압제 아래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지방에서 도주한 자의 소유지.

다.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의 토지.

제3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여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음.

가. 한 농가에서 5정보 이상 소유한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

나. 자경(自耕)하지 않고 전부 소작을 주는 소유자의 토지.

다. 면적의 크기에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는 소유자의 토지.

라.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성당, 사찰, 기타 종교단체 소유지.

제5조 제2,3 조에 의거 몰수한 토지 전부는 농민의 영원한 소유로 무상 양도함.

제9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의 차용 고용자와 농민의 모든 부채는 취소됨.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부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고 소작을 주지 못하며, 또한 저당하지도 못함.

제14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소유자가 소유한 관개시설의 전부는 무상으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함.

제15조 토지개혁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지도 아래 실시됨. 지방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할 책임은 도·군·면 인민위원회가 부담하며, 농촌에서는 고용자, 토지 없는 소작인, 토지 적은 소작인들의 총회에서 선출된 농촌위원회가 부담함.

〈1946년 3월 5일 위원장 김일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서기장 강양욱〉⁴⁹⁾

토지개혁법령의 실시는 친일파와 반역분자들, 즉 봉건적 지주 부농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는 빈농을 포섭하는 계기도 되었다. 당시 양양군 최고의 부자는 손양면 윤귀병 씨였다. 윤 씨는 토지개혁으로 토지를 다 몰수당했고, 그는 가족과 함께 월남했다. 일부 빈농출신들이 당원과 세포로 활동하며 지역의 주요 직책을 맡아 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토지를 몰수당한 사람들의 가족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38선을 몰래 넘거나 선박을 이용해 바다로 탈출하였다. 토지를 분여 받은 사람들

49) 민주주의 민족전선 편집, 『해방조선』Ⅱ, 과학과 사상, 1988, p.566.

은 좋아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당원이 되어 군당, 면당으로 나가기도 했고, 그들 중에는 글을 모르는 문맹이 많았다고 한다. 남의 집 머슴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세포나 당원으로서 직책을 맡기도 했다고 한다.⁵⁰⁾ 북한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주적 중 하나인 봉건세력을 제거하였다.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세력을 제거하고 빈농세력들을 공산체제로 포섭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인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반동세력을 적으로 간주하고 테러를 통해서라도 잡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일부 축출당한 자 및 (토지)몰수된 지주층과 타당 내의 일부 반동들이 악선동하고있는 적들을 묵과하고 있는 엄중한 사실과 부락 내에 일상적으로 불화분자들의 감시조직과 타처에서 이주해온 일부 불손분자들에 대한 당적 경각성이 무딘 결과 [...]군중을 혼란케하며 반동의 적들에 악조건을 주고 있다. [...]군중들이 적들과 투쟁할 수 있는 목전, 석전 등 2, 3명의 테로는 등은 잡아 치우는 전투방법 등 조직 해석함이 미약하다.(북면지대에서 3명의 테러를 잡을 수 있었으나 인민들이 도주한 사실이 있다)”⁵¹⁾

셋째, 남한에 동조하는 세력 제거이다. 북한은 남한을 노골적으로 적대화하였다. 이곳 속초, 양양, 인제지역은 3.8선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동조를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남조선반동들은 국제반동세력과 결탁하여 인민을 억압하며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려고 갖은 음모와 발악을 하고 있다. 그들은 쏘미공위(미소공동위원회)사업을 파탄시켰으며 38선을 기화로 살인방화의 본적인 테러를 북조선의 민주정책을 약화시켜려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월경 침입하는 테러들과 회색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곳 38선 접경지역지대의 민청맹원들은 민주 조국건설의 원천지이다. 북조선의 민주건설을 고수하며 조국을 방위하며 침입하는 반동들의 봉쇄에 강하게 싸우고 있다.⁵²⁾

50) 구술자 최형근, 2010년 1월 28일, 손양면 자택에서, 면담자, 김영미, 이세진.

51)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자료집 I, p.497.

52) 『강원로동신문』, 「38선 접경 자위대원들-반동 테러와 건결히 투쟁」, 1947년 11월 18일.

김일성도 1948년 연설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측화과정과 그들의 주구인 남조선 친일 민족반역자들의 망국정책은 5월 10일 남조선민족선거와 망국적 괴뢰정부수립으로써 일층 노골화되었다.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철거하지 않으려 하며 그들의 친일적 민족반역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말아먹기에 아무 주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⁵³⁾

당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남한은 자유이고 북한은 독재라는 것을 알았다. 남한은 미군이 도와주어서 잘살고, 소련은 가난했기 때문에 북한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속국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남한과 미국에 대한 소식은 곳감, 마른 명태 등을 가지고 3·8선을 넘나들며 남한과 장사하던 사람들이 미제 의약품 특히 페니실린 등을 몰래 가지고 들어왔다.⁵⁴⁾ 이러한 밀거래를 통해 들어온 의약품 등이 퍼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은 자유가 있고, 부자 나라이고, 물자가 풍부한 나라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주민들은 미국이 소련보다 훨씬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토지개혁, 남한에 대한 동경, 북한체제로부터 배제 등의 이유로 속초 양양 주민들 사이에 흰패라 불리는 남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흰패들은 토지개혁 과정에서 대체로 토지를 몰수당했으며, 성분적으로 지주, 소시민, 유산자 계급이 대부분이었다. 흰패는 흰패끼리 서로 소통했으며 붉은패와는 거리를 두고 지냈다. 흰패와 붉은패는 서로 혼인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흰패는 차별이 심해 비국민적 억압을 받았다. 학교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출세가 불가능했던 흰패는 남한에 동조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회를 봐서 월남하거나 이남 방송을 들었다. 같은 흰패들의 월남을 돕기도 하고, 당시 북한사회에서는 흰패와 붉은패가 서로 소통하지 않는 리의 주민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흰패 가운데 남한 방송을 듣다가 세포에게 발각되어 인민재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⁵⁵⁾

53) 「김일성 장군의 연설」, 1948년 8월 25일.

54) 구술자 최형근, 2010년 1월 28일, 손양면 자택에서, 면담자, 김영미, 이세진.

55) 김영미, 「수북지역 양양 주민들의 한국전쟁 경험-어느 한약방 주인의 생애와 선택」,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10, p.365.

지역 주민들 중에는 북한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예로, 북한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모의를 했고, 이것이 탈로 나면서 이들은 38선을 넘어 남으로 도주하였다. 또한 지역의 학교 선생님이 월남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세대학교를 나온 지00 영어 선생님이 38선 근처 속초지역에서 중학교 선생님이로 있다가 월남한 경우이다. 중학생도 월남한 경우가 있었다.⁵⁶⁾

인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당원 처벌로 출당 조치가 많았다. 출당 조치를 받게 되는 사유는 대부분 야간도주와 행방불명이었다. 야간도주자와 행방불명자는 대체로 남한으로 갔을 것으로 보인다. 야간도주자나 행방불명자는 그 지역 세포가 출당을 결정하였다.⁵⁷⁾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체제형성을 위해 포섭해야 할 주민과 배제해야 할 주민이 있었다. 즉 북한체제가 벗겨내야 할 가장 문제가 된 세력은 일본제국 주위와 봉건의 잔재였다. 다음으로 배제 대상은 토지개혁 등 북한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로 남한과 미국에 동조하는 세력이었다. 첫째, 일본은 소련군과 인민위원회의 활동으로 제거되었다. 둘째, 이 지역의 봉건적 지주는 토지개혁으로 와해되었다. 셋째,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남한과 미국에 동조하는 환패는 북한체제에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이탈, 즉 배제의 길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고, 당원과 세포의 적극적 활동으로 철저히 억압받으며 배제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비인민의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북한체제형성 과정에서 지역사회, 좀 더 구체적으로 리(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3. 맺음말

이 글은 지금까지 해방 이후 속초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공산체제형성과 주민 통제를 살펴보았다.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혁명적 농민조합이 발달한 점과 3.8선의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

56) 구술자 김민규, 2008년 5월 3일, 면담자, 김영미, 이세진.

57)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 사료집』 II, p. 154.

으로 속초, 양양지역의 공산체제형성을 살펴보았다. 지역 단위에서 공산체제형성의 실제 내용은 개인의 생성과 주민의 배제와 포섭였다. 공산체제에 적합하도록 규율화된 개인은 북한체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춧돌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의 배제와 포섭은 체제의 안정성을 담보 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1945-1950년 속초 양양지역의 공산체제형성 즉 개인 만들기과 주민통제를 통해 다음과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1932년 일제의 농민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농민조합화해 되기는 했지만 일제강점기 이들의 활동은 리(里)의 활동으로 축소되었다. 리 규모의 농민조합은 비밀리에 유지되고 있었다. 해방 후 농민조합은 이 지역 공산체제 형성에 기초적 역할을 했다.

둘째, 개인을 만들기이다. 북한체제의 개인 혹은 인민은 제도나 법을 통해 통치되기도 하지만, 좀 더 자발적 성격을 띤 규율을 통해 개인이 만들어지고도 있었다. 미시적인 규율권력은 각자의 몸에 새겨져 개인으로 태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생성된 개인은 초기 북한체제형성의 근본 초석이 되었다. 해방 이후 북한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작동되었던 규율 메카니즘은 교양사업, 자아비판, 상벌, 근면성과 모범, 선전선동 등이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체제에 적합한 개인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품행(품성과 행위)까지도 주도하였다.

셋째, 주민의 배제와 포섭이다. 북한체제형성을 위해 포섭해야 할 우선 대상자는 일제강점기 혁명적 농민조합원들이었다. 이들은 양양군 공산당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역량의 발휘하였다. 다음은 김일성도 강조했던 무산자계급이었다. 그러나 속초, 양양지역의 주민들의 대부분은 농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포섭의 주요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리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리인민위원장은 지역의 유지가들이 아니라 일반농민들이 맡았다. 공산체제에 형성에 적합한 농민을 통해 새로운 국가행정 질서를 세웠다. 그밖에도 빈농이나 머슴이 주요 포섭 대상이었다. 이들은 공산당 조직의 당원이 되었다. 당원은 세포가 되어 주민의 동태를 감시하고 행정에까지 개입하였다. 북한체제는 적(敵)을 배제하였다. 배제해야 할 첫째 세력은 일본제국주의자였다. 둘째는 봉건지주세력이었다. 셋째, 토지개혁 등 북한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로 남한

과 미국에 동조하는 세력이었다.

북한은 공산체제의 정초 과정에 동지를 포섭하여 행정과 공산당을 조직하고 새로운 사회의 형성에 나아갔다. 반면 방해가 되는 적대세력은 철저하게 감시와 통제로 행정과 공산당 조직으로부터 배제시켜 나갔다. 심지어 공산주의 체제의 비인민적 대우를 받았다.

북한은 공산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일본제국주의와 봉건의 잔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공산체제의 적합하게 규율화된 개인과 주민의 배제와 포섭을 통해 가장 말단 지역 단위에서부터 공산체제를 형성하였다.

◆ 참고문헌

1. 신문, 잡지, 구술 자료

『강원로동신문』, 1947년 10월 13일.

『강원로동신문』, 1947년 11월 1일.

『강원로동신문』, 1947년 11월 10일

『강원로동신문』, 1947년 11월 18일.

『동아일보』, 1923년 7월 27일.

『동아일보』, 1927년 9월 6일.

『동아일보』, 「1928년, 1월 6일.

『동아일보』, 1928년 5월 1일.

『조선일보』, 1928년 10월 10일.

『동아일보』, 1932년 12월 10일.

『동아일보』, 1934년 4월 1일.

『동아일보』, 1934년 6월 23일.

『동아일보』, 1934년 11월 13일

『중앙일보』, 1932년 2월 18일.

『중외일보』, 1930년 4월 20일.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續篇, 1932.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ニ於ケル小作ニ關ス参考事項摘要》, 1934.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朝鮮思想事件判決 反帝國主義民族獨立支持同盟事件」, 『사상월보』 제4권 제6호, 1934년 9월 15일.

김일성, 「김일성 장군의 연설」, 1947, 8월 25일.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I, II, III, VII, 15, 2004.
 구술자, 김옥봉(당시 인민학교 선생님), 면담자 김영미, 이세진, 속초시 교동 자택, 2008년 9월 7일.
 구술자 박민식, 2010년 5월 3일, 면담자 이세진.
 구술자 이종학, 2008년 9월 6일, 조양동 자택에서, 면담자 김영미, 이세진.
 구술자, 정민화, 김민철, 면담자 김영미, 이세진, 양양자택, 2010년 5월 3일.
 구술자 최형근, 2010년 1월 28일, 손양면 자택에서, 면담자, 김영미, 이세진.

2. 단행본

-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북한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2000.
 김재웅, 『북한체제의 기원-인민위의 계급위의 국가』, 역사비평사, 2018.
 미셀푸코, 오성근 옮김,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 나남, 2003.
 민주주의 민족전선 편집, 『해방조선』 II, 과학과 사상, 1988.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2001.
 이정식, 「인민공화국과 해방정국」, 『한국사시민강좌』, 일조각, 1993.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비, 2002.
 최완규,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1.
 강원사회연구회, 조동걸, 「강원도민이 전개한 민족운동의 특징」, 『강원사회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1997.

3. 논문

- 김영미, 「수북지역양양주민들의 한국전쟁 경험-어느 한약방 주인의 생애와 선택」, 『역사비평』, 역사비평, 2010, pp.354-358.
 김점숙, 「1920-1930년대 영동지역 사회운동」,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1993, pp.283-284.
 김재웅, 「해방 후 북한의 지방 통치체계」, 『역사와 현실』, 역사연구회, 2006, pp.27-49.
 김태우, 「1948-49년 북한 농촌의 선전선동사업-강원도 인제군의 사례」,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2006, pp.98-100.
 송정숙, 「지역 기록을 활용한 로컬리티의 형성과 재구성-일본 지바현 다테야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5, pp.204-205.
 이시형, 「해방후 북한체제 형성과정에서 김일성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당국가체제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2006, pp.251-272.
 이세진, 「해방후 속초, 양양지역의 사회상황과 소군정 정책」, 『한중인문학연구』, 2020,

- pp.320-322.
- 이세진, 「일제강점기 양양농민조합의 혁명화와 그 배경」, 『한중인문학연구』, 2020, pp.319-320.
- 전현수, 「1947년 북조선 먼 리 인민위원회 선거」,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2014, pp.401-402.
- 조성운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영동지방을 중심으로」, 『근현대사연구』, 근현대사학회, 2001, p.134.
- 정규영, 「미셸 푸코의 규율권력과 근대교육」, 『교육사학연구』, 교육사학회, 2013, p.174.
- 한모니까, 「수복지구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정-인민에서 주민으로 주민에서 국민으로」, 『역사비평』, 2010, pp.128-135.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5월 07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5월 25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9월 07일

Abstract

The formation of a communist system in Sokcho and Yangyang
in 1945-1950

—Focusing on individual creation, exclusion, and inclusion

Lee, Sejin

After liberation, the communist regime in North Korea began in earnest. In Sokcho and Yangyang regions, the transplantation of the communist system began. This area has had a revolutionary peasant union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fter liberation, they carried out active communist activities. Together with these activities, North Korea was able to form a communist system even to the very end. What North Korea had to do to form a system was to create individuals who could adapt to the communist system and reorganize the village. North Korea's personal creation was to internalize the communist regime's discipline power. In other words, through liberal arts projects, self-criticism, rewards and punishments, diligence and example, and propaganda activities that fall under the power of discipline, North Korea created individuals suitable for the system and took the lead in behavior (character and behavior). Another task for the formation of a communist system was to distinguish between enemies and comrades to the system. In other words, the enemy was thoroughly excluded and the comrades included. Exclusion and inclusion are closely related to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s where the administration and the party intersect. At the heart of Li's local rule was the formation of a cell-centered communist party. Those excluded from them were excluded from the formation of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people they were included in were individuals who had been internalized by the communist regime's discipline power. They became the protagonists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system and the protagonists of historical change.

Keyword Communist system, discipline, individual, conduct, resident control

광무제 시대 배경의 한국 고소설 <옥환기봉>의 서사적 의의

—중국 TV사극 <수려강산지장가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주수민 ***

국문요약

본고는 후한 광무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18세기 한국 고소설 <옥환기봉>과 21세기 중국에서 제작된 TV사극 <수려강산지장가행>의 서사와 인물형상을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옥환기봉>을 비롯한 조선 후기 중국 역사를 수용한 장편소설 작품들의 사회·문화적 의의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서사 비교 결과, 두 작품은 세계관과 서사구성 그리고 주제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후한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광무제의 한나라 부흥 여정을 서사화하는 가운데 황후 폐립의 과정에서 발생한 광무제와 두 황후의 갈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서사적 유사성을 보였다. 한편, 광무제의 두 황후인 음려화와 광성통은 <옥환기봉>에서는 각각 ‘색·덕을 겸비한 요조숙녀’와 ‘자긍심 강한 조강지처’로 형상화된 데 비해, <장가행>에서는 ‘한나라 재건의 주역’과 ‘정략결혼의 피해자’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인 음려화에게는 창작 당대의 조선과 현대 중국사회에서 선호되는 여성상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었으며, 적대자인 광성통에게는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입체적인 성격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작품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본고는 <옥환기봉>을 비롯한 조선 후기에 창작된 중국 역사를 수용한 장편소설 작품들의 사회·문화적 의의를 현대사회의 사극 열풍의 원인으로 논의된 ‘대중화 코드’와 ‘거대 담론 코드’를 중심으로 살피는 가운데 본 작품이 이룩한 문학적 성취를 강조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주제어 고소설, 옥환기봉, 후한서, 광무제, 황후, 중국 TV사극, 수려강산지장가행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186)

** 이 논문은 제47회 한중인문학회 온라인(ZOOM) 국제학술대회(2021년 08월 02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한 것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목차〉

1. 서론
2. 〈옥환기봉〉과 〈수려강산지장가행〉의 서사 비교
3. 두 작품에 나타난 광무제의 두 황후, 음려화와 광성통
4. 결론을 대신하여; 사극과의 비교를 통한 〈옥환기봉〉의 의의

1. 서론

후한(後漢)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 유수(光武帝 劉秀, BC6~57, 재위 25~57)는 운대 28장과 함께 왕망(王莽, BC45~23)에게 망한 한나라를 재건하였으며,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를 안정시키고 공신들에 대한 의리도 저버리지 않은 유덕한 군주였다. 한편, 광무제에게는 두 명의 황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명제(明帝, 재위 57~75)의 모후로 오랜 시간을 후궁에 머물다 황후가 된 광렬음황후 음려화(光烈陰皇后 陰麗華, 5~64, 재위 41~57)이며, 두 번째는 후한의 초대 황후였으나 폐위된 광무곽황후 광성통(光武郭皇后 郭聖通, ?~52, 재위 26~41)이다. 두 사람은 광무제가 한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맞이한 아내들로 각각 5명의 황자들을 낳았으며 광무제는 두 황후 외에는 특별히 다른 여성들을 총애하지 않았다.

18세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고소설 〈옥환기봉(玉環奇逢)〉은 바로 이들 삼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후한서(後漢書)』에 기록된 ‘광무제의 한나라 재건’과 ‘두 황후의 폐립(廢立)’이라는 역사적 사건들을 담아낸 작품이다. 그러한 까닭에 중국 역사의 서사 수용은 본 작품의 개별연구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¹⁾ 더불어 본 작품에 나타난 광무제와 두 황후의 이야기는 당대 다양한 부

1) 이승복은 본 작품의 서사가 『후한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임치균은 〈동한연의〉와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후 이승복은 광무제의 한실 회복 서사를 중심으로 『후한서』와 〈동한연의〉의 수용 및 변용 양상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승복, 「〈옥환기봉〉과 역사의 소설화」, 『선청어문』 제28-1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pp.157-183; 임치균, 「18세기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일 양상-〈옥환기봉〉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pp.131-162; 이승복, 「〈옥환기봉〉의 역사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학회, 2008, pp.141-182.

부 담론을 형성하며, <옥환기봉> 연작이라 불리는 <도맹행>, <취미삼선록>, <한조삼성기봉>의 창작에도 영향을 미쳤다.²⁾ 이러한 양상은 본 작품이 한국 고소설의 창작방식과 사회적 담론화의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옥환기봉>의 또 다른 서사적 원천으로 알려진 <동한연의>를 통해 알 수 있듯, 광무제의 한나라 재건은 일찍이 중국에서도 대중적 관심을 얻었다. 그러나 본 작품은 광무제의 한나라 부흥 여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을 뿐, 두 황후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아 전체적으로 <옥환기봉>과는 서사적 결이 다르다.³⁾ 세월이 흘러 21세기에 들어서면 동시대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서사물들이 창작된다.⁴⁾ 그런데 이 중 린펑(林峰)과 천취안(陳攄)이 연출하고 중화권 톱스타인 린신루(林心如)가 제작 및 주연을 맡은 TV사극 <수려강산지장가행(秀麗江山之長歌行)>(이하, 장가행)은 서사적 측면에서 <옥환기봉>과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⁵⁾

이에 본고에서는 역사 기록의 재창조라는 관점에서 <옥환기봉>과 <장가행>의 서사와 두 작품에 나타난 음려화와 광성통의 인물형상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와 국적을 초월할 뿐 아니라, 매체를 달리하여 창작된 두 작품의

2) 관련 연구에는 이승복(2001a), 이승복(2001b), 이승복(2002), 임치균(2006) 등이 있다.

3) <동한연의>에서 두 황후에 대한 서술은 광무제가 음씨만을 사랑하자 광황후가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고 이에 대로한 광무제가 광씨를 폐하고 음씨를 황후로 삼았다는 것이 전부이다. 임치균, 앞의 논문, 2002, p.145.

4) 해당 작품에는 <光武帝>(2002), <光武帝劉秀>(2004)와 같은 TV사극과 <秀麗江山>(2007), <皇後紀>(2012), <陰麗華傳奇>(2016), <劉秀陰麗華>(2019)와 같은 웹 소설 작품들이 있다.

5) 웹 소설인 리신(李歆)의 <수려강산(秀麗江山)>(2007)을 원작으로 한 본 작품은 2016년 강소위성 TV를 통해 방영(07.21~08.19)되었는데, 豆瓣網(www.douban.com)에 제시된 시청자 평점은 6.0이며 微博(www.weibo.com)의 卫视这些事에 나타난 첫 회와 마지막 회의 TV 시청률은 각각 '0.514%(시청률 순위 13위)'와 '0.718%(3위)'이다. 더불어 본 작품은 한국에서도 채널 CHING을 통해 '장가행'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바 있다. 본 연구자는 매체의 특성상 웹 소설보다는 TV사극이 보다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본고의 궁극적인 목표가 조선 후기 중국 역사를 수용하고 있는 장편소설 작품들의 의의를 현대 사극에 건주어 도출하는 것인 까닭에 원작 웹 소설이 아닌 본 작품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凌子倩(2016), 姚珏文(2016), 蕭雨林(2016 上·下) 등이 본 작품에 대한 개별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교를 통해 궁극적으로 <옥환기봉>을 비롯한 조선 후기 중국 배경 장편소설 작품들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옥환기봉>과 <수려강산지장가행>의 서사 비교

본고는 두 작품의 서사를 ‘광무제와 두 황후의 결연 및 한나라 부흥’, ‘곽성통의 황후 책립과 폐위’, ‘음려화 황후 책립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⁶⁾

1) 광무제와 두 황후의 결연 및 한나라 부흥

다음은 두 작품에서 광무제 유수와 두 황후의 결연을 비롯하여 유수의 한나라 부흥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다.

옥환기봉(1권~8권)	장가행(1회~37회)
<p>①한무제의 아들 여태자는 공손비를 아내로 맞으나 아이가 없자 양제 사씨에게서 황태손 양을 낳는다. 그러나 간신 강충의 무고로 태자와 그 가족들은 죽고 이후 모든 것이 참소임을 안 무제는 사자궁을 짓고 태자와 태손비를 추모하던 중 여태자와 그 가족들이 환세하여 한실을 부흥할 것을 예언하는 꿈을 꾀다.</p> <p>②신망 시절 유수는 유흠과 번부인의 3자로 태어나 어려서 부친을 잃고 백수촌에서 농업에 힘쓰던 중 18세에 진정 고령 땅에 사는 광창의 딸과 혼인한다.</p> <p>③곽씨의 모친 곽주는 태학에서 공부하고 공업에 도움이 될 사람들도 만나라며 장안 유학을 권하니 유수는 매부 등신과 집을 떠난다.</p> <p>④유수는 등신의 추천으로 등우를 만나 함께 엄자통을 찾아가 천하를 회복할 사람이 자신이라는 깨를 얻는다. 이후 왕폐, 풍이를 만나고 돌아오는</p>	<p>④신망 시절 음려화는 손수 만든 기관연으로 하늘을 날겠다고 등우, 등봉과 소란을 피우다 음식에게 꾸중을 듣는다. 한편, 태학에서 공부하던 유수는 어린 시절 함께 공부한 음려화에게 청혼하고자 귀향하던 중 오한 일당에게 마차를 탈취당한 곽성통 모녀를 구한다.</p> <p>⑤고향에 온 유수는 음가에 청혼하나 거절당하고 친구 등우가 음려화를 신붓감으로 생각하자 그녀에 대한 마음을 가슴에 담기로 한다. 그러나 음려화는 등우의 청혼을 거절하고 상심한 등우는 건문을 넓히고자 유람을 떠난다.</p> <p>⑥이날 사촌언니 등선과 귀가하던 음려화는 몸값을 노린 마부 일당에게 납치되는데 이때 관비들을 데리고 들어닥친 관원들과 시비가 붙자 정유라는 여인과 달아난다. 이후 정유는 풍이에게 구제되고, 유수·유연에게 구출된 음려화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유수가 자신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p>

6) 본고는 규장각본 <옥환기봉>(30권15책)을 대본으로 하였는데, 30권에는 음후를 비롯한 그 주변인들의 傳이 실려 있어 실제 작품의 서사는 29권에서 종결된다. 또한 <장가행>은 본래 56회로 제작되었으나 한국에서는 50회(각 회 약 45분)로 편집·방영되었으며 비교 결과, 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점은 없다. 이에 본고는 50회본을 참고하였다.

길에 물가에서 풍류를 즐기던 중 허미인이 찾아와 구혼하자 훗날 성공하면 찾겠다고 약속한다.

⑤유수는 왕망이 과거를 열어 장안에 모인 왕상, 만수, 경단, 개연, 오환, 잠쟁, 마등을 비롯한 인재들과 지교를 맺는다. 또한 의분에 차 왕망에게 활을 쏘아 쫓기는 신세가 되나 승상 두류의 도움으로 위기를 면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며 유수의 형인 유연·유중도 본가로 돌아와 군사를 모아 앞날을 대비한다.

⑥낙양에는 도적이 들끓는데 이때 신야에 머물던 유수는 곡식을 팔러 간 완성에서 이통의 무리에 게 ‘유씨가 부흥하고 이씨가 우익이라’는 내용이 담긴 비서를 받은 뒤 지황 삼년 기병하니 그의 나이 28세이다.

⑦유수는 유연, 이통, 경감, 요기, 마무를 비롯한 여러 장군들과 함께 왕망의 군사들과 싸우던 중 소장안에서 대패하여 형 유중과 누이 유원을 잃는다. 이때 광씨와 번부인은 간신히 화를 피하여 번거공의 집에 이르고 이후 신야로 시집간 첫째 누이인 유향의 집에 머물게 된다.

⑧유수는 ‘天’자가 쓰인 옥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린 시절 천태산 선녀가 유수가 여태자의 환생임을 알려주며 ‘地’자 옥환을 지닌 공손비의 환생을 만나 천정을 이루라며 준 것이다. 경시 원년, 한군은 비수에서 건부와 싸워 대승하였으며, 동년 3월 유수는 곡양과 정릉을 순행 후 모친을 보기 위해 신야로 가던 중 음려화의 집을 방문하여 문틈으로 음려화를 보고 혼인을 결심한다.

⑨이후 유수는 옥환을 주었던 노고의 도움으로 왕망의 군사인 왕심, 왕읍과 싸워 곤양에서 대승을 거두고 음가에 청혼하니 음식은 유수가 ‘天’자 옥환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혼인을 허락한다. 유수는 그해 6월 음려화와 혼인하는데 광씨는 이때 불쾌함을 숨기지 않는다.

⑩유수 형제의 명망을 꺼린 주유가 이들을 참소하자 경시제는 유연을 죽이고 유수도 해치려하였으나 유수가 곤양전투의 공을 자랑하지 않고 근신하자 부끄러워하며 유수를 파로장군과 무신후에 봉한다. 이후 유수는 조용히 형제들의 장례를

문속오빠임을 깨닫는다.

④지황 3년, 음려화는 음흥, 등봉과 병법을 연마하며 왕망에게 맞설 준비를 하다 유수가 신야 등가(鄧家)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부모 죽음에 대한 금금증을 풀기 위해 남장을 하고 몰래 집을 나선다. 이때 등가에 머물던 유수는 어린 시절 장안에서 음려화의 부친이 왕망을 암살하려던 아내를 찾으러가며 자신에게 음려화를 부탁했던 일을 떠올린다. 이후 음려화의 부모는 위수에서 참변을 당했고 이를 본 음려화는 충격으로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⑤완성으로 곡식을 팔러간 유수는 이통·이일에게 붙잡혀 거사를 종용 당하던 중 갑작스럽게 나타난 음려화와 달아난다. 이후 유가(劉家)와 이가(李家)는 동맹을 맺고 장안 탈취 계획을 세우는 데 음려화는 유수를 설득하여 자신을 ‘음극’이라 속이고 용릉군에 합류한다.

①음려화는 유직을 무예로 꺾고 용릉군의 군사훈련을 맡게 된다. 등우를 짝사랑하던 유백희는 음극의 정체를 알고 내쫓으려 하나 유연은 음극의 용기와 의리를 높이 사 새 갑옷과 ‘장가검(長歌劍)’을 선물한다.

④유백희는 유연이 거사를 지지받고자 모친의 환갑잔치에 초대한 종친들 앞에서 음극의 정체를 밝힌다. 유수는 당황한 음려화의 손을 잡고 자신은 태학 시절부터 음려화를 아내로 삼기로 맹세했으며 평생 그녀만을 사랑할 것이라 말하니 모두 감동한다.

⑤유수는 엄자룡에게 자신들의 기병 계획이 탄로나 남양군수 건부가 이통의 일가를 몰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음려화와 함께 완성으로 달려간다.

①음려화는 완성으로 시집간 만삭의 등선과 신야로 돌아오다 건부의 군사들에게 쫓기는데 이때 등선이 죽자 부모의 죽음이 떠올라 분노하며 왕망 군과 싸운다. 위기의 순간 옛 친구인 유현의 도움으로 유가로 돌아와 장가검을 들고 왕망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맹세한다.

①유연과 용릉군은 장취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신시군 및 평림군과 연합한다. 연합군은 승전하

치르는데 꺾씨는 과도한 슬픔과 소장안에서 낙마한 병증으로 앓아 눕게 된다.

⑪같은 해 9월 왕망이 죽자 경시제는 천도를 위해 유수를 먼저 낙양으로 보내 궁궐을 보수케 한 후 다시 하북으로 보내 한단에서 황제를 참칭한 왕랑을 치게 한다. 이 무렵 음려화는 음취의 죽음으로 모친이 병 들자 간병을 위해 신야 친정에 머물게 된다.

⑫하북에 도착한 유수 일행은 왕랑의 추격으로 온갖 고생을 하다 백의노인의 지시에 따라 신도태수 임광의 도움으로 군을 정비하고 환술을 부리는 왕랑의 부인을 처형한 뒤 마침내 왕랑을 물리친다. 이후 유수는 수만 군을 거느리고 진정 땅 광주의 집에 이르러 군사들을 호궤한 뒤 병 조섭을 위해 친정에 머물던 꺾씨와 함께 본가로 돌아간다.

⑬유수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자 주유는 유수가 하북에서 황제가 되었다고 경시제에게 참소한다. 경시제는 군사를 보내 유수를 치게 하나 유수는 이들을 격퇴하고 제장들의 옹립을 수차례 거절하다 적복부를 받고 경시 3년 마침내 건무라 연호하고 제위에 오른다.

⑭경시제는 측근의 배반으로 궁을 유리하는 신세가 되고 적미군은 유분자를 천자로 옹립하니 광무제는 경시제를 회양왕에 봉하는 한편 등우를 보내 적미군을 진무한다. 이때 주유가 낙양성을 들어 투항하니 광무제는 주유를 평장군 관내후에 봉한다.

던 중 잠궐의 매복에 걸려 소장안에서 대패하는데 이때 유수의 형제들이 죽고 그 충격으로 모친도 숨을 거둔다.

⑮이후 등신, 등봉, 이통 등이 합류하여 왕망의 대군을 격파하니 한군의 세력은 커지고 왕광과 주유는 유연을 천자로 세우자는 여론 속에서 유약한 경시제 유연을 천자로 추대한다.

⑯경시제는 형제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유연과 유수를 각각 완성과 영천으로 보낸다. 이후 유수는 왕망의 대사공 왕읍 및 왕심에 맞서 곤양성을 사수하고 대승을 거두는데 이때 음려화는 생포된 이일을 구하다 화살에 맞는다.

⑰경시제와 주유, 장요 등은 대궐을 세운 유수 형제를 견제하다 유수가 풍이가 있는 부성으로 간사이 유직의 일을 빌미로 유연을 죽인다. 칼에 맞은 유연은 뒤늦게 달려온 음려화에게 유수를 부탁하고 숨을 거둔다.

⑱형의 부고를 들은 유수는 분노하나 풍이의 충고에 따라 몸을 낮추고 가족들에게 발상도 금한다. 경시제가 음려화를 아내로 맞으려 하자 먼저 청혼하여 혼인하니 화가 난 경시제는 하객들 앞에서 유수의 불의함을 조롱한다.

⑲경시 원년 왕망이 죽자 경시제는 천도를 위해 유수와 풍이에게 낙양 궁궐의 보수를 맡긴 후 이들을 하북으로 보내 왕랑을 정벌케 한다.

⑳하북에 도착한 유수 일행은 왕랑의 병사들과 맞서다 음려화가 호타하에서 화살을 맞고 강물에 빠져 아이를 유산하는 등 온갖 고난을 겪다가 백의노인으로 변장한 음가 호위무사 위지준의 지시로 신도로 가 태수 임광의 도움으로 군을 재정비한다. 이때 유수는 진정왕 유양의 조카딸인 광성통과 혼인하고 음려화는 대의를 위해 이혼장을 두고 유수를 떠난다.

㉑유수는 결국 왕랑을 죽이고 '소왕'이 되나 하북의 불안정함을 이유로 낙양으로 귀환하라는 경시제의 명을 거부한다. 경시제는 유수를 압박하고자 음려화를 장락궁으로 납치한다.

㉒유수는 풍이와 함께 음려화를 구하기 위해 장안으로 가나 사궁의 복병을 만나 벼랑에서 떨어져 며칠 만에야 진영으로 돌아온다. 이후 유수는

	후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광성통과 동침하여 ‘유강’을 낳고 경시 3년 제위에 오른다. ⑧장묘의 반란과 적미군의 유분자 응립으로 실의 한 경시제는 적미에 투항하나 목숨을 잃고 주유 는 낙양성을 들어 유수에게 투항한다.
--	---

먼저, 두 작품의 서두와 광무제와 두 황후의 결연 과정을 살펴보자. <옥환기봉>의 서두는 ①을 통해 알 수 있듯, 한나라 무제(武帝, 재위 BC141~BC87) 때를 배경으로 간신인 강충(江充, ?~BC91)의 모함으로 원사한 여태자 유거(戾太子 劉據, BC128~91)와 공손비 부부가 유수와 음려화로 환생하여 ‘천정(天定)’을 이루고 한실을 부흥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더불어 <장가행>은 ②와 같이 모험심 강한 성격의 음려화와 그녀에 대한 유수의 애정을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양상은 두 작품의 서사가 유수와 음려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후한서』에 따르면 광무제는 그 미모를 알고 좋아하던 음려화를 경시 원년 6월에 아내로 맞았으며, 이듬해 봄에는 왕랑(王郎, ?~24)을 공격하던 중 진정 땅에서 광성통과 혼인했다.⁷⁾ 그런데 <옥환기봉>에서 유수는 ②와 같이 농사에 힘쓰던 시절 먼저 광성통과 혼인한다. 그리고 ⑧, ⑨에서 알 수 있듯, 그로부터 약 10년 뒤인 경시 원년 ‘옥환(玉環)’의 연분으로 음려화를 두 번째 아내로 맞고 있어 이들의 혼인 순서는 역사와 배치된다. 한편, <장가행>에서 유수와 음려화는 ③, ④, ⑤, ⑥을 통해 알 수 있듯, 어린 시절 장안 태학에서의 인연과 장성한 후 재회하여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⑦와 같이 경시 원년 부부가 된다. 더불어 광성통과의 혼인은 ⑩에서처럼 유수가 하북에서 왕랑을 진무하던 무렵 성사된 것으로 나타나 역사와 부합하나 둘의 혼인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그려진다.

다음으로 유수의 한나라 중흥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사건들의 서사화 양상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첫째, 유수의 ‘장안 유학’은 “천봉 연간에 장안에 가 『상서(尙書)』를 공부하여 대략 큰 뜻을 통하였다”는 <광무제기>의 짧은 기록을 바탕으로 재창조된 것으로 두 작품의 서사 초반에 주요한 사건으로 수용되어

7) 『후한서』, <광무광황후> 및 <광렬음황후>. 이후 두 황후의 사적은 본 자료들을 참고함.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서사화 양상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먼저 <옥환기봉>에서 유수는 ③과 같이 곽성통의 모친인 곽주(郭主, ?~25)의 권유로 매형 등신(鄧晨, ?~49)과 함께 장안으로 가 ④, ⑤에서처럼 엄자릉(嚴子陵, BC39~41) 및 ‘운대 28장’이라 불리는 등우(鄧禹, 2~58)를 비롯한 후한의 개국 공신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한실 회복의 인적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나 <장가행>에서는 음려화와 유수의 오랜 인연을 보여주는 가운데 ④와 같이 이 당시 음려화의 생모와 부친이 왕망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허구적 사건을 마련 함으로써 이후 음려화의 거사 참여에 개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⁸⁾ 둘째, 역사적으로 유수에게 처음 기병을 권한 ‘이통(李通, ?~42?)과의 만남’과 ‘소장안(小長安) 전투’의 서사화 양상을 살펴보자. <옥환기봉>에서 장안에서 돌아온 유수는 이후 ⑥에서처럼 곡식을 팔러 완성(完城)으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통의 무리를 만나 유씨의 한나라 부흥을 예언하는 참서를 읽고 28세에 용릉(春陵)에서 기병하나 ⑦과 같이 소장안에서 대패하여 차형 유중(劉仲, ?~22)과 누나 유원(劉元, ?~22)을 잃는다.⁹⁾ 이러한 서사는 대체로 역사에 부합하나 이때 곽성통이 시대 식구들과 전란을 함께 함으로써 본 작품에서 소장안 전투는 유씨 집안에 대한 곽성통의 헌신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 한편, <장가행>에서 관련 사건들은 ⑥~⑪에 걸쳐 전개되며 역시 거시적 관점에서 역사에 부합하나 남장을 한 음려화를 유수와 함께 전투에 참가시킴으로써 그녀를 한실 부흥의 주역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셋째, ‘경시제 유현(更始帝 劉玄, 재위 23~25)의 등극’과 유수의 만형인 ‘유연(劉演, ?~23)의 죽음’을 살펴보자. 『후한서』에 따르면 경시제는 여러 호걸들이 유연에게 귀부한 상황에서 몇몇 신시군과 평림군 장수들의 지지로 천자가 된다. 그러나 완현(宛縣)과 곤양(昆陽)에서 유연·유수가 각각 대승을 거두며 명성을 얻자 주유(朱

8) <장가행>에서도 유수는 장안에서 엄자릉, 풍이, 마무 등을 만나나 관련 내용은 간단한 장면이나 대화로 제시되어 있어 장안 유학의 핵심은 유수와 음려화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9) ‘이통과 유연의 만남’ 및 ‘소장안 전투’에 대해서는 각각 『후한서』, <이통전>과 <제무왕 유연전>을 참고하였다.

鮪, ?~?) 등의 권유로 평소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유연의 부장인 유직(劉稷, ?~23)의 일을 빌미삼아 유연을 죽인다. 이때 유수는 분기를 누르고 경시제에게 납작 엎드려 근신하는 모습을 보인다.¹⁰⁾ 이러한 사건은 <옥환기봉> ⑩과 <장가행> ㉑~㉒에서와 같이 두 작품 모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¹¹⁾ 마지막으로, ‘왕랑과의 전투’와 ‘유수의 제위 등극’을 살펴보자. 역사에 따르면, 지황 4년 9월 왕망이 두오(杜吳, ?~?)에게 죽임을 당하자 경시제는 낙양을 점령한 뒤 천도를 위해 유수에게 낙양의 궁궐 보수를 명한다. 더불어 유수가 임무를 마친 후에는 하북으로 보내 한단(邯鄲)에 도읍하고 천자가 된 왕랑을 정벌케 한다. 그리고 유수 일행은 하북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하박성(下博城)에 이르러 백의노인이 지시한 신도(信都)로 가 태수 임광(任光, ?~29)의 도움을 받아 결국 왕랑을 물리친다. 이후 유수는 하북의 불안정을 이유로 환궁하라는 경시제의 명을 어기고 급기야 경시제가 보낸 군사들을 격퇴한 뒤 경시 3년 제위에 오른다.¹²⁾ 이러한 유수의 한나라 부흥 과정은 <옥환기봉> ⑪~⑭과 <장가행> ㉓~㉔과 같이, 두 작품에 충실하게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두 작품은 ⑫와 같이 환술을 쓰는 왕랑의 아내와의 싸움을 삽입하거나, ㉑와 같이 음려화가 전투 중 화살을 맞고 호타하에 추락하여 유산하는 허구적 사건들을 첨가함으로써 나름의 방식으로 서사적 재미를 높이고 있다.

2) 광성통의 황후 책립과 폐위

다음은 광성통의 황후 책립과 폐위를 중심으로 한나라 재건 이후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의 서사화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10) 『후한서』, <광무제기> 및 <유현>, <제무왕 유연전> 참고.

11) 그런데 <옥환기봉>이 ㉑와 같이 ‘유수와 음려화의 혼인’을 ‘유연의 죽음’ 앞에 두었다면 <장가행>은 ㉑과 같이 ‘유연의 죽음’이 앞서는데, 이러한 차이는 두 사건이 경시 원년 6월을 즈음한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후한서』, <광무제기> 참고.

12) 『후한서』, <광무제기> 및 <제무왕 유연전> 참고.

옥환기봉(8권~18권)	장가행(37화~49화)
<p>① 광무제가 광씨와 음씨를 모두 귀인에 봉하자 광귀인은 분노하여 자신의 장복과 인수를 던진다. 광무제는 음귀인을 황후로 세우려다 귀인의 간곡한 사양으로 광씨를 황후로 책립하고 유강을 태자로 봉한다.</p> <p>② 허미인이 황제의 숙부인 광양왕을 찾아오자 광황후는 상계 여인을 천거했다며 왕에게 화를 낸다. 이에 번태후는 왕께 황후의 무례함을 사죄하며 허미인을 '첩여'에 봉한다.</p> <p>③ 광황후는 아들 셋을 낳고도 광무제가 음귀인만을 찾자 황제의 편벽한 애정을 아쉬워하며 음귀인에 대한 오해를 품는다. 그러나 보모 윤씨가 황제와 음귀인 사이를 갈라놓고자 광무제에게 먹이려던 요약을 황후가 먹게 되면서 광황후는 성정이 변하여 음귀인에게 독약을 내릴 정도로 투기가 심해진다.</p> <p>④ 광황후는 회양공주에게 음귀인을 참소하여 태후가 귀인을 후원 복실에 가두게 한다. 그러나 광무제가 상사병으로 늙자 태후는 다섯 달 만에 귀인을 방면하고 쾌차한 광무제가 태후께 음귀인과의 삼생연분을 말하니 태후는 두 사람이 천정임을 인정한다.</p> <p>⑤ 회양공주가 절세미인 왕첩여를 후궁으로 천거하나 광무제가 음귀인만 찾자 음귀인은 태음전 행각에 처하기를 원하니 태후는 귀인의 현숙함을 사랑하여 귀인을 별전으로 옮긴다. 건무 4년 음귀인은 아들 유양을 낳는다.</p> <p>⑥ 건무 8년 귀순한 외효의 장수 마원이 두옹과 함께 외효에게 귀순을 권하나 듣지 않자 광무제는 친정하여 외효가 옹거하는 농우를 궤멸하고 오한에게 도주하는 외효를 쫓게 한다. 이후 외효는 병사하고 아들 외순이 건무 10년 투항함으로써 농우 일대가 평정된다.</p> <p>⑦ 윤보모가 왕첩여와 함께 황후의 명을 참칭하여 음귀인을 죽이려다 실패한다. 이후 음귀인은 황후께 윤보모 등의 처결을 주청하나 황후는 위주충심을 주장하는 보모를 용서한다.</p> <p>⑧ 광무제가 없는 사이 왕첩여는 광황후 소생인</p>	<p>㉑ 건무 원년 광무제는 음려화를 궁으로 데려와 광성통과 같이 귀인에 봉한다. 이후 두 사람은 늘 함께 하니 광성통 모녀는 분노한다.</p> <p>㉒ 광성통의 오빠 광강은 자신을 버렸다는 이유로 음귀인을 원망하던 귀인의 옛 시비 허연지를 궁에 들이는데 연지는 귀인 부재중 방문한 광무제에게 술을 먹여 재운 뒤 자신을 겁탈한 것처럼 꾸며 분노한 음귀인이 궁을 떠나게 한다. 이후 출정을 앞둔 광무제는 하북 장수들의 뜻에 따라 광성통을 황후로 세운다.</p> <p>㉓ 이후 음려화는 남양 등봉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광무제가 동혼의 난을 진압하고자 남양으로 보낸 오한의 병사들이 방화와 살육을 일삼다 등봉의 정혼녀를 죽이자 등봉은 한군을 공격하다 생포되고 음려화의 도움으로 도주하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화가 난 음려화는 유수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나 유수가 빗속에서 용서를 구하자 결국 환궁한다.</p> <p>㉔ 환궁한 음려화는 광성통에게 큰절을 올리는데 광성통은 '허미인'이 된 만삭의 연지를 소개한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는 광강의 아이이다.</p> <p>㉕ 이후 광무제가 음귀인만 찾으니 광황후는 음귀인이 자신과 황제 사이를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무렵 허미인에게 과거 등우와 음려화의 혼담을 들은 광주는 이 일을 궁중에 퍼뜨려 음귀인을 난처하게 하고 이에 등우는 이통의 사촌동생과 혼인하여 소문을 잠재운다.</p> <p>㉖ 광주는 허미인이 아들을 낳자 음귀인이 양육하게 함으로써 허미인의 심기를 건드리고 음귀인이 임신하자 아이를 유산시키려 하니 광무제는 출정시 항상 귀인을 대동한다. 이에 건무 4년 음귀인은 군장에서 유양을 낳는다.</p> <p>㉗ 풍이가 스스로를 '함양왕'이라 칭하며 모반을 꾀한다는 소문이 돌자 음려화는 음극의 차림으로 하북 장수들의 잔치에 참여하여 과거 풍이의 무용담과 충성심을 말하고 이에 감동한 장수들은 더 이상 풍이를 의심하지 않는다.</p> <p>㉘ 낙양에 엄자룡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음귀인은</p>

경왕을 독살하고 음귀인에게 누명을 씌우니 태후는 귀인을 형주로 유배 보내고 음가도 신야로 돌려보낸다. 이때 윤보모가 자객을 보내니 금병과 음홍의 호위로 음귀인 살해는 실패하나 귀인의 동생 음훈이 죽자 광무제는 죽은 음가 사람들을 추봉한다.

㉑건무 11년 풍이가 병사하고 잠팽도 서촉 공손술과 싸우던 중 평망 땅에서 자객에게 죽자 광무제는 친정하여 오한에게 공손술을 정벌케 한다. 심이월 공손술이 죽고 연잠 등이 투항하니 마침내 서촉이 평정된다.

㉒윤보모는 자객 허초를 음귀인의 아들 유양에게 보내니 죽은 경왕이 나타나 허초를 제압하고 이 일을 태후께 알리자 사실을 은폐하고자 광황후를 부추겨 옥감에게 허초를 죽이게 한다. 이 일로 광황후는 대신들의 신망을 잃고 태후는 귀인 소생들을 궁궐히 여겨 음귀인을 신원하니 귀인이 다섯 해만에 환궁한다.

㉓건무 14년 태후가 병 들자 광황후가 자결코자 하니 윤보모는 또다시 귀인이 경왕을 죽였다고 모함하고 대로한 황후는 귀인을 태역지로 부른다. 귀인은 경왕의 죽음이 왕첩여와 윤보모의 짓임을 고한 뒤 물에 뛰어드나 백수노옹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㉔광무제가 휴병을 결정하자 가복을 비롯한 공신들이 인수를 반납하고 유술에 힘쓰니 상이 기뻐하여 공신들을 열후에 봉한다.

㉕광후가 음귀인의 둘째 아들인 동평공 창을 태장한 일을 경첩여가 황제께 고하자 분노한 광후는 윤보모와 왕첩여를 시켜 경첩여를 독살한다. 이 일로 건무 17년 황제는 광황후를 폐위하고 동시월 음귀인을 황후로 책립한다.

부국책을 묻고자 남장으로 궁을 나선다. 이를 오해한 광강과 광황후는 분론 현장을 잡고자 귀인을 쫓다 황제를 보고 부끄러워한다.

㉖광가의 충동으로 오한이 낙양에 인질로 있는 외효의 아들을 죽이자 외효는 공손술과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킨다. 유수는 친정에 나서고 오한, 풍이 등의 활약으로 농서는 평정된다.

㉗광황후는 광무제가 친정에 나선 틈을 타 태아에게 나쁜 탕약을 보내고 어린 황자들을 부추겨 기관연을 시연하게 하는 등 임신한 음귀인을 위협에 빠뜨린다. 위기의 순간 돌아온 광무제는 광황후를 크게 꾸짖는다.

㉘건무 9년 광강은 서궁에 자객들을 보내 음귀인과 그 소생들을 죽이려다 실패하나 같은 날 귀인의 모친과 동생 음훈을 살해한다. 광무제는 죽은 음가 사람들을 추봉한다.

㉙건무 10년에 풍이, 제준, 요기가 군중에서 병사하고 이듬해 내홍과 잠팽이 공손술에게 살해된다. 건무 13년 오한이 공손술을 토벌하여 죽을 수 복하니 비로소 전쟁은 끝나고 등우, 오한을 비롯한 공신들이 인장을 바치니 광무제는 기뻐하며 이들을 열후에 봉한다.

㉚건무 15년 광무제가 중풍으로 쓰러지니 광황후는 음귀인을 내쫓으려 하나 등우, 오한이 황명을 들어 귀인과 황제를 고향으로 보내니 광무제는 곧 회복된다. 이후 광주는 광황후 몰래 광강에게 유양 암살을 지시하나 이 사실을 안 태자로 인해 실패한다.

㉛광강은 음귀인 소생 구황자 유형을 독침으로 죽이고 이를 수사하던 음홍의 정혼녀 호박도 살해한다. 일의 전모를 안 광무제는 건무 17년 광황후를 폐하고 음귀인을 황후로 세운다.

먼저, 광성통의 황후 책립 과정을 살펴보자. 역사에 따르면 광성통은 건무 원년 태자 강(疆)을 낳고 귀인이 되었으며, 음려화를 황후로 세우려는 어심에도 불구하고 음려화의 간곡한 사양으로 건무 2년 황후로 책립된다. <옥환기봉>에서도 광성통은 ㉑과 같이 음려화의 사양으로 황후가 된다. 그러나 <장가행>에서

는 ㉔, ㉕에서처럼 곽주와 곽강이 음려화에게 양심을 품은 허연지를 이용하여 먼저 음려화가 스스로 궁을 떠나게 한 뒤,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하북 세력을 움직여 광성통을 황후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광성통과 음려화의 황후 폐립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한서』에 실린 음려화의 황후 책립 조서에는 광성통을 폐위한 원인이 ‘원한을 품고 교령(敎令)을 자주 위반하였으며, 고조의 여후(呂后)나 선제 때 곽후(霍后)와 같은 풍모가 있었기 때문’이라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두 작품에서 광성통의 폐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오로지 작가의 상상력에 의지한 허구라 할 수 있다. <옥환기봉>에서 관련 사건은 ㉓~㉕ 및 ㉗, ㉘, ㉙, ㉚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요약하면 광성통이 보모 윤씨 및 왕첩여와 함께 음귀인과 그 자녀들을 해치려다 ㉓과 같이 귀인의 둘째 아들인 동평공 창을 태장하고 이 일을 황제께 고한 경첩여를 살해한 일로 폐위된다는 것이다. 한편, <장가행>에서 광성통의 악행은 ㉔에서처럼 음려화에게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곽강의 아이를 임신한 허연지를 후궁에 봉한 것으로 시작되어 ㉖, ㉗, ㉘, ㉙, ㉚, ㉛과 같이 음려화와 그 자식들을 모해하거나 해치려한 사건들로 구체화되는 가운데, 광성통은 ㉜과 같이 곽강이 음귀인의 막내아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폐위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장가행>에서 악행을 주도하는 것이 광성통의 모친 곽주와 오빠 곽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후한서』에 따르면 곽주는 지혜롭고 현숙하였으며 광성통은 광무제가 총애하던 남동생 곽황(郭況, ?~60) 외에는 다른 형제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사건들은 역사와는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허구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양상은 두 황후의 폐립이 <옥환기봉>에서는 황후의 자질이라는 개인적 문제에서 야기되는 데 비해, <장가행>에서는 그 집안으로 확대되며 정치적 문제로 그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밖에도 두 작품에는 건무 연간의 역사적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가령, 건무 9년에는 도적들이 음귀인의 모친 등씨(鄧氏, ?~33)와 동생 음훈(陰訢, ?~33)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때 광무제는 조서를 내려 죽은 음가 사람들을 추봉했다. 이 사건은 <옥환기봉>에서는 ㉘과 같이 곽후의 보모인 윤씨의 소행으로 그려지며, <장가행>에서는 ㉙과 같이 곽강의 일로 나타나고 있

어 두 작품 모두에서 광황후의 측근들로 인한 음귀인의 시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옥환기봉>에는 ⑥, ⑨, ⑫와 같이 광무제의 농우 및 서촉 평정과 공신들의 죽음 및 광무제의 공신 봉작 등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며 관련 사건들은 ①, ①와 같이 <장가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장가행>에는 ㉔와 같이 건무 원년 발생한 ‘등봉(鄧奉, ?~25)의 난’¹³⁾과 ㉔에서처럼 ‘풍이(馮異, ?~34?) 참소 사건’¹⁴⁾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두 사건에 음려화가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장가행>의 사건들이 대체로 음려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음려화 황후 책립 이후

마지막으로, 음려화가 황후로 책립된 이후에서 결말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옥환기봉(18권~29권)	장가행(49회~50회)
<p>①광무제는 광후를 중산태후로 봉해 둘째 아들인 중산왕의 봉국으로 보낸다. 음황후는 광후의 자녀들을 기출같이 사랑하며 광무제는 이후에도 광문을 후하게 대한다.</p> <p>②북파장군 마원은 교지국을 진부하여 신식후가 되는데 이후 고령으로 흉노를 도벌하다 죽자 중랑장 양송이 참소하여 신식후의 인을 거두게 한다. 음황후는 남궁 시절 꿈에서 본 마원의 셋째 딸을 명제의 아내로 정한다.</p> <p>③유강은 모친 폐위 직후 태자의 위를 사양하는 상소를 올린다. 광무제는 유양을 태자로 세우라는 꿈을 꾸고 건무 19년 조서를 내려 유양을 태자로 삼고 유강을 동해왕에 봉한다.</p> <p>④음후의 권유로 동해왕과 제왕은 각각 등우 및 구준의 딸과 혼인한다. 광주의 회갑을 맞아 광무제는 광가를 방문하고 돌아와 광후 소생의 공주</p>	<p>㉔광성통은 폐위 후 귀인으로 강등되어 북궁에 머문다. 광문에는 뜻밖에도 광강을 양안후에 봉한다는 어명이 도착하니 두려운 광주는 광강에게 더 이상 일을 만들지 말라 당부한다.</p> <p>㉔삼 년 후, 가뭄이 들자 광무제는 백성들을 친히 구휼하던 중 쓰러지는데, 이때 광강은 태자에게 독약을 들려 부황계 전하나 수상함을 느낀 음홍이 약을 대신 마신다. 이 사실을 안 태자는 모친에게 달려가 분노하나 곧 후회하고 모친을 안쓰럽게 여겨 모친의 생일날 광무제를 청하여 식사자리를 마련한다.</p> <p>㉔태자가 동생 유양에게 자리를 양보하니 광무제는 교서를 내려 유양을 황태자에 봉한다.</p> <p>㉔광성통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 음황후는 광후 소생의 공주 예류와 함께 북궁을 찾는다. 광황후는 자신의 지난 악행을 말</p>

13) 본 사건은 건무 원년 ‘등훈의 난’ 진압하러 간 오한의 군대가 등봉의 고을을 약탈하자 등봉이 한군을 격파한 사건을 재구한 것이다. 『후한서』, <잡쟁전> 참고.

14) 본 사건은 누군가 관중의 백성들이 풍이를 ‘함양왕(咸陽王)’이라 부르다며 참소한 일을 각색한 것이다. 『후한서』, <풍이전> 참고.

<p>수가 모후를 잊지 말라며 증표로써 서찰을 써달라고 하나 서찰은 동해왕이 고국으로 가져가던 중 燒火된다.</p> <p>⑤음황후는 꿈을 통해 자신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모두 불가 인연으로 얽혀 있음을 알게 되고, 이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태자에게 주니 이후 태자의 불심이 커진다.</p> <p>⑥무양공주, 관도공주를 비롯한 광무제의 딸들이 혼인하나 음후 소생의 날양공주와 부마 두고 외에는 모두 화합하지 못한다. 영평 연간에 부마 음풍은 취중에 아내 여음공주를 난간 밖으로 밀어 죽여 사사된다.</p> <p>⑦건무 27년 변태후가 죽자 곧 상심한 광후도 병세가 심해져 붕어한다. 이후 상은 순행 중 광후를 생각하다 광후에게 만남을 거절당하는 꿈을 꾸고 슬퍼하며 광후를 '사후'로 복위한다.</p> <p>⑧건무 31년 광무제가 태산에 봉선하고 이듬해에 봉하며 영평 7년 음태후가 봉하여 광무제와 원릉에 합장된다. 옥환은 능침에 안장된다.</p>	<p>하며 단 한 번도 음려화를 언니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니 음려화는 모든 것을 천명이라 이르며 광성통을 위로한다.</p> <p>⑥한편, 술에 취한 광강은 자신이 살해한 음흥의 정혼녀인 호박을 닮은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다. 또한 광무제 대신 독약을 먹은 음흥은 음황후에게 호박과 함께 묻어 달라고 유언한 뒤 생을 마감한다.</p> <p>⑦〔내레이션〕 건무 31년 광무제가 음황후 및 태자 등과 태산에 봉선한다. 서기 57년 광무제가 병사하고 태자가 명제로 등극하며 같은 해 등우가 죽고, 영평 7년 광렬황후 음려화가 홍서하여 광무제와 함께 원릉에 안장된다.</p>
---	--

역사에 따르면, 광성통은 폐위 후 중산태후(中山太后)가 되어 둘째 아들인 중산왕 보(輔)에게 의탁한다. 더불어 태자 유강(劉彊, 25~58)은 모친 폐위 후 여러 번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보이다가, 건무 19년 동생인 유양(劉陽)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동해로 물러난다. 그리고 건무 28년 광성통은 죽어 북망산에 묻히고, 건무중원 2년에는 광무제가 붕어하며 영평 7년에는 음려화가 홍서하여 광무제와 원릉에 합장된다.¹⁵⁾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옥환기봉> ①, ③, ⑦, ⑧와 <장가행> ①, ③, ④, ⑤를 통해 알 수 있듯, 대체로 두 작품에 충실하게 수용되어 있다. 한편, <장가행>과 달리 <옥환기봉>에는 ④, ⑥과 같이 광무제의 자녀들에 대한 서사가 비중 있게 전개되는데, ②에서 마원(馬援, BC14~49)과 양송(梁松, ?~61)의 일화가 나타난 것 또한 두 사람이 명제의 장인과 광무제의 부마가 된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¹⁶⁾

15) 『후한서』, <동해공왕 유강전> 참고.

16) 마원과 양송의 이야기는 『후한서』, <마원전>의 내용을 그대로 실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작품의 결말을 살펴보자. <옥환기봉>은 ⑤을 통해 알 수 있듯, 음황후의 꿈을 통해 작중 주요인물들의 관계가 모두 전생 불가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가운데,¹⁷⁾ ⑧과 같이 옥환이 능침에 안장됨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천정이었음을 환기하는 결말을 맺는다. 이에 비해, <장가행>은 ⑥, ⑥에서처럼 광무제에게 독약을 올린 광강과 이를 대신 마신 음홍의 죽음을 보여주는 가운데, ④와 같이 지나간 삶을 원망하는 광성통과 모든 것을 ‘천명(天命)’이라 일컫는 음려화의 초탈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말은 두 황후와 그 가문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결국 황후 음려화의 인물됨을 다시 한 번 부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사 비교 결과, 두 작품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세계관적 측면에서 <옥환기봉>은 주인공들의 관계를 전생 인연이나 천정과 같은 운명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설정하는 가운데 천태산 선녀를 비롯한 초월적 존재들을 등장시키며 초현실적 세계관을 보인다. <장가행>은 애정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인물 관계를 설정하며 철저하게 현실적 세계관을 지향한다. 둘째, 서사 구성의 측면에서 <옥환기봉>이 고소설의 서사적 틀에서 두 황후의 서사를 ‘처첩갈등’으로 형상화하며 광무제 자녀들의 이야기로 서사의 종적 확장을 도모했다면, <장가행>은 두 황후의 갈등을 ‘정치적 갈등’으로 그리며 풍기, 경시제, 이통·유백희 부부, 음식·음홍 형제 등 광무제 주변인들의 개별 서사를 통해 이야기를 횡적으로 확장한다. 셋째, 주제적 측면에서 <옥환기봉>이 광무제와 두 황후의 서사를 통해 ‘남녀 사이의 신의’와 ‘여성의 덕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장가행>은 대부분의 사건을 음려화를 중심으로 전개하며 시종 황후 음려화의 인물됨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국적을 초월하여 산출된 두 작품은 ‘광무제의 한나라 부흥’과 ‘두 황후의 폐립’이라는 역사적 사건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 거시적 관점에서 높은 서사적 유사성을 보인다. 게다가 두 작품은 광무제 시대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다양

17) 본래 광무제, 음려화, 광성통은 천상의 한유진군, 태음성, 낭원선자였으며 명제는 석가의 제자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역시 모두 천상의 인물들이었다. <옥환기봉-23권> 참고.

한 각색과 윤색을 통해 창작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작품의 서사적 재미를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역사’가 대중매체를 통해 ‘재현’되기보다는 대중적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옥환기봉〉은 이미 조선 후기에 역사가 대중적으로 소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 두 작품에 나타난 광무제의 두 황후, 음려화와 광성통

두 황후의 폐립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졌지만 작품 간 적지 않은 유사성을 보였다. 그러나 음려화와 광성통의 인물형상은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광무제와의 관계 및 인물 특성을 중심으로 두 작품에 나타난 두 황후의 인물형상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음려화, ‘색(色)·덕(德)을 겸비한 요조숙녀’ VS ‘한나라 재건의 주역’

〈옥환기봉〉 29권 말미에는 음려화가 덕으로 황후가 되었으나 후세에 그 덕을 이르는 자는 없고 미모로써 광무제의 총을 얻어 적자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하니 가탄하여 작품을 썼다는 작가의 창작의도가 나타난다.¹⁸⁾ 더불어 〈장가행〉은 호타하를 건너던 유수 일행이 왕랑의 병사들에게 추격을 당하자 음려화가 이들과 싸우다 화살을 맞고 차가운 물속으로 추락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어 음려화의 부고를 전하는 내레이션으로 종결된다. 다시 말해, 음려화는 두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광무제와의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음려화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옥환기봉〉에서 음려화는 역사와 달리 광무제의 두 번째 아내로 등장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그녀가 황후가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다음은 음려화의 부친인 음공의 태몽을 인용한 것이다.

(가) 천상으로 좇춘 선녀 내려와 슈중의 혼 꼭 옥지환을 드려와 “이 옥환이 본디

18) 〈옥환기봉-29권〉 참고.

‘天·地’ 두 즈를 삭여시니 타일의 옥환 가진 이를 어더 천연을 어긋오지 마르쇼셔.” 선관이 읊호여 갈오되 “공손공은 셔흔 ㄴ무제 시의 공손승상이오 녀티즈의 악공이라. 반신 강흠이 공을 모함호여 죽이니 … 쏘흔 무고소로 티즈를 모히호니 티즈비 지원극통으로 크게 슬허 천지의 축원호여 … 상데 어엿비 너기스 오날ㄴ이 ㄴ시니 만승천조로 부뵈 되어 빅년을 무흠이 화락할지라.” <옥환기봉-5권>

(가)에서 공손비와 선관은 유수와 음려화가 전한 무제 때 원사(冤死)한 여태자와 공손비 부부의 환생으로 옥환이 징표가 되어 금세에 다시 만나 황제와 황후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더불어 작가는 두 사람의 혼인을 “중흥천지 만승국모를 성친호는 황도길일이자 옥환기봉 숨싱기연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¹⁹⁾ 이러한 양상은 음려화가 결국 황후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다음은 <장가행>에서 처음으로 유수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태학에서 음려화를 위해 글을 쓰고 있던 유수와 이를 본 엄자룡의 대화를 인용한 것이다.

(나) 엄자룡 : (여성의 목소리로) 문숙 오라버니, 벼슬을 하려면 집금오요 아내를 얻으려면 음려화라. 려화가 돌아왔어요.

유수 : 엄자룡! 하나도 안 웃겨.

엄자룡 : 너도 참 학비와 밥값도 못 내면서 이 비싼 비단은 척척 사지. 네 돈은 다 정인한테만 쓰냐? 그 여자를 위해 5년 간 이 많은 글을 썼는데 그 여자가 안 보면 어찌려고?

유수 : 천성은 안 변하지. 쉽게 변할 여자가 아니야.

엄자룡 : 찬물 끼얹는 것 같겠지만 그 여자가 이미 혼인했으면?

유수 : 그럼 이 책을 혼수로 주면 되지. 잘 지내기만 한다면 난 안심이야.

엄자룡 : 참, 마음에도 없는 말을…²⁰⁾ <장가행-1회>

19) <옥환기봉-5권> 인용.

20) 文叔哥哥，仕宦当作执金吾，娶妻当得阴丽华 丽华回来啦！ / 严子陵，你的玩笑不好笑。 / 你说说你，现在学费和饭费你都交不起了，还不忘买这么昂贵的缣帛，你的钱全部孝敬你的心上人了。 / 这五年你为她写了这么多的书，她要是不看，你怎么办？ / 江山易改，本性难移，她的性子岂是说变就變得？ / 你别怪我给你泼冷水啊，你把这些书高高兴兴地带回去了，万一发现她嫁人了怎么办？ / 那我这些书，便当做是送给她的嫁妆 反正，只要她过得好，我也便安心了。 / 切，口是心非的。

(나)를 통해, 유수는 적어도 5년 전 음려화를 만났으며 엄자룡이 ‘정인(情人)’이라 놀려댈 만큼 그녀를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음려화가 다른 사람과 이미 혼인했을 것을 걱정하는 엄자룡에게 유수는 밑줄과 같이 ‘잘 지내기만 하면 안심’이라 말하는데, 여기에는 왕망 시해를 도모하던 부모의 죽음을 목도한 음려화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²¹⁾ 이러한 양상은 작중 두 사람이 어린 시절을 함께 한 동무이자 음려화 부모의 죽음에 대한 슬픈 비밀을 공유한 사이임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후 음려화는 용릉군에 들어가 왕망의 군사들과 싸우던 중 유수가 자신을 집으로 돌려보내려하자 “你生我生 你死我死(당신이 살면 나도 살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라 말한다.²²⁾ 이러한 음려화의 말에서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 전 이미 생사를 함께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인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음려화가 두 작품에서 황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옥환기봉〉의 음려화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발견된다. 첫째, 뛰어난 덕성(德)과 미모(色)를 갖고 있다.

(대) 점々 즈라미 덕성이 크게 일위 언쇼를 적게 하고 성식을 부동하며 성희 출천하고 우이 지극하니 공의 부체 흑이하고 닌이 경탄하더라. 〈옥환기봉-5권〉

(대)에서 음려화는 언소(言笑)가 적고 성색(聲色)을 부동하며 성희와 우애가 지극한 인물로 묘사되는데, 작가를 이를 ‘덕성을 크게 이루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작중 그녀의 덕성은 광무제의 조강지처로 설정된 광성통에 대한 공손함으로 표출된다. 가령, 음려화는 광무제가 자신을 황후로 세우려 하자 광성통이 조강결발이며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진심으로 곤위를 사양한다.²³⁾ 또한 황후가 된 광성통이 자신을 죽이려다 광무제의 분노를 사 폐위의 지경에 이를 때에

21) 본고 2-1)의 서사정리 ㉔ 참고.

22) 〈장가행-14회〉 참고.

23) 〈옥환기봉-8권〉 참고.

는 적극적으로 광성통을 변호한다.²⁴⁾ 게다가 황후가 된 후에는 광성통의 자녀들을 기출같이 사랑하는데,²⁵⁾ 이는 모두 음려화의 높은 덕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음려화는 광무제의 입을 통해 “멀리 보니 달 같고 가까이 보니 꽃 같으며 경성경국지색이나 존중한 기상이 천고 성녀의 풍채”를 지녔다고 묘사된다.²⁶⁾ 또한 음려화를 처음 본 광성통은 광무제가 황홀한 자색 때문에 그녀를 취했다고 오해하여 동렬로 대할 뜻이 없었노라 고백하기도 하는데,²⁷⁾ 이러한 양상은 음려화가 색과 덕을 겸비한 완벽한 인물임을 보여준다. 둘째, 앞날을 예측하는 능력과 지인지감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음려화는 점복(占卜)하여 모친의 위기를 알고 보모 윤씨가 보낸 자객들로부터 모친의 생명을 구했으며, 명제와 훗날 명덕마황후(明德馬皇后, 재위 60~75)가 될 마원의 셋째 딸을 혼인시킨다. 더불어 여읍공주와 부마 음풍의 불화를 예견하며 나아가 광무제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기도 하는데 작중 그녀의 말은 어김없이 적중한다.²⁸⁾ 게다가 후한 재건 초에는 두융(竇融, BC16~62)을 양주목에 봉하여 외효(隗囂, ?~33)와 공손술(公孫述, ?~36)을 견제할 것을 청하기도 하는데, 이는 광무제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음려화는 결코 먼저 정사에 관여하지 않는다.²⁹⁾ 다시 말해, 본 작품에서 음려화는 뛰어난 통찰력과 겸손함을 동시에 지녀 “훌륭한 품성을 다 갖추었기에 의당 황후가 되어야 했다”는 역사 기록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³⁰⁾ 따라서 <옥환기봉>에서 광무제의 두 번째 아내로 설정된 음려화가 황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녀가 뛰어난 성품을 지녔기 때문이다.

한편, <장가행>에서 음려화는 남장을 하고 유연·유수를 각각 ‘大哥(대형)’과

24) <옥환기봉-9권> 참고.

25) <옥환기봉-26권> 참고.

26) <옥환기봉-4권> 참고.

27) <옥환기봉-9권> 참고.

28) <옥환기봉-24, 28권> 참고.

29) <옥환기봉-11권> 참고.

30) 음려화는 재위 중 공순겸소하고 기호나 놀이도 많지 않았고 웃고 즐기지도 않았으며 자애로운 성품을 지녔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옥환기봉>의 음려화와 방불하다.

‘三哥(삼형)’이라 부르며 장가감을 들고 전장을 누빈다. 더불어 사랑하는 유수에 게는 거침없이 애정을 표현하고 그 누구에게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힌다. 이러한 모습들은 『후한서』나 <옥환기봉>의 음려화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 작중 음려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 첫째, 한나라 재건을 위해 평범한 여성의 삶을 거부한다. <옥환기봉>의 음려화가 옥환의 연분을 기다리느라 19세가 되도록 미혼이었다면, <장가행>에서는 평범한 여성의 삶이 싫어 혼인을 거부한다. 더불어 음려화는 집을 나와 남장을 하고 ‘음극(陰戟)’이라는 이름으로 유연의 군대에 합류하는데, 이때 군중에서 자신과 유수의 혼담이 거론되자 자신은 한나라 중흥을 위해 집을 나왔을 뿐 사사로운 연정은 생각하기 싫다며 불편한 심사를 드러낸다.³¹⁾ 이러한 모습은 여성 삶에 대한 거부가 한나라를 재건하겠다는 응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인다. 작중 음려화는 목가(墨家)를 비롯한 여러 학문에 조예가 깊을 뿐 아니라, 남성들을 능가하는 무예실력을 갖추었으며 무기개발과 용병술에도 재주를 보인다. 게다가 뛰어난 지략으로 유수가 천하를 평정하고 중원을 통일하는 데 기여하는데 이러한 음려화의 모습은 고소설에 등장하는 ‘방관주’나 ‘정수정’과 같은 여성영웅들과도 흡사하다. 셋째, 강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다. 가령, 음려화는 왕랑과 싸우던 중 군중에서 유수와 곽성통의 혼인이 거론되자 대의를 위해 사랑하는 유수를 떠난다. 게다가 이후에는 경시제에게 납치되어 장락궁에 머물게 되는데, 경시제가 몰락하여 장안이 위태로워지자 그곳을 빠져나 오라는 측근들의 충고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라) “삼형이 하북에서 우리의 이상을 위해 싸우고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경시는 이미 패색이 짙어졌어. 나는 조희, 유리랑 장안의 백성들을 보호할거야.”³²⁾ <장가행-39회>

31) <장가행-7회> 참고.

32) 三哥为了我们的理想在河北奋战，我也一样，更始败局已定，我要尽力保护赵姬，刘鲤，还有长安的百姓。

(라)에서 음려화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실 부흥을 위해 싸우는 유수와 백성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한실 부흥 후에는 ‘天下兼相爱則治 相交惡則亂(천하는 사랑하면 다스려지고 미워하면 혼란해진다)’는 생각으로 광성통에게 곤위를 양보하며,³³⁾ 이후 후궁의 자리에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조정의 안정을 위해 인내한다. 게다가 나라가 안정된 뒤에는 업자릉을 찾아 부국책을 논하는 등 한실과 백성들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음려화는 여성이지만 유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마침내 황후의 자리에 오른다.

2) 광성통, ‘자금심 강한 조강지처’ VS ‘정락결혼의 피해자’

두 작품에서 광성통은 공통적으로 후한의 초대 황후로 음려화에게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는 인물로 등장하나 광무제와의 관계 설정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옥환기봉>에서 광성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가) 광위 홀노 농업을 힘써호여 가솔을 호괴호더라. 년이 십팔의 진정 고령 싸 광창의 녀를 취호니 지용이 특출호여 일은 바 천향국식이라. <옥환기봉-1권>

(가)에서 알 수 있듯, <옥환기봉>에서 광성통은 광무제가 18세에 맞은 조강지처로 16세에 시집와 손수 농사짓고 김을 짜면서도 시모와 남편을 지성으로 섬긴다. 이러한 광성통을 번부인은 기출보다 사랑했으며, 유수는 그녀에 대한 고마움을 훗날 용상에 앉게 해주겠다는 말로 대신하기도 했다.³⁴⁾ 이러한 양상은 적어도 음려화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이 금실 좋은 부부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서사 초반 광무제에게 옥환을 건네준 노고의 말에서 알 수 있듯, 광성통은 무제 때 여태자의 아들을 낳고도 공손비의 수하가 되어 원한을 품고 죽은 양제 사씨의 환생이다.³⁵⁾ 이러한 설정은 광성통이 황후가 되었으나 종래에는 공

33) <장가행-46회> 참고.

34) <옥환기봉-1권> 참고. 서사 초반 광성통은 시대식구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35) <옥환기봉-2권> 참고. 이러한 양상은 광성통과 광무제의 만남 역시 천정임을 보여준다.

손비의 환생인 음려화에게 그 자리를 넘겨줄 운명을 타고났음을 보여준다.

한편, <장가행> 1회에는 태학에서 공부하던 유수가 귀향하던 중 훗날 28장의 하나가 되는 오한(吳漢, ?~44) 일당에게 마차를 탈취당한 곽성통 모녀를 구하는 사건이 나타난다. 이때 오한의 칼날에 머리카락을 잘린 곽성통은 유수에게 의지하여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도 오한 일당이 관군에게 처벌당할 것을 염려하는데, 이러한 그녀는 분명 착하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후 곽성통은 본 작품의 중반부에 들어서야 다시 모습을 보이는데, (나)는 유수가 하북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곽성통 모녀의 대화를 인용한 것이다.

(나) 곽성통 : (기빠하여 달려오며) 어머니, 어머니!

곽주 : 여긴 네 외숙집이다. 명문가 규수가 체통도 잊은 게냐?

곽성통 : 어머니, 유문숙이 하북에 왔대요.

곽주 : 알고 있다. 가서 만나려고?

곽성통 :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고 싶어요. 어머니, 저 그때보다 더 예뻐졌어요?³⁶⁾ <장가행-26회>

이때 유수는 경시제의 명으로 음려화 및 풍이, 등우 등과 함께 하북에서 왕랑과 맞서던 상황으로 음려화와는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곽성통은 유수의 방문에 어린아이처럼 기빠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후 유수와 하북의 실세인 외삼촌 진정왕 유양(眞定王 劉楊, ?~26)의 동맹으로 유수와 혼인하게 된다. 그러나 미소가 끊이지 않는 곽성통과 달리 유수는 첫날밤부터 곽성통을 멀리하였으며,³⁷⁾ 결국 서사가 종결될 때까지 곽성통은 유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양상은 유수에게 있어 곽성통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맺어진 불편한 두 번째 아내일 뿐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인물 특성과 폐위의 원인을 중심으로 두 작품에 형상화된 곽성통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옥환기봉>의 곽성통에게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격

36) 母亲, 母亲. / 这是在你舅舅家, 难道你忘了大家闺秀 宗室之女的礼仪体统了吗? / 母亲, 刘文叔他到河北来了. / 我早就知道了, 你想去见他. / 我只是想报答的救命之恩, 不知道这么多年过去了, 他还记不记得我? 你看我, 可比当年好看了.

37) <장가행-28, 29회> 참고.

적 특성들이 발견된다. 첫째, 자신의 감정표현에 지리치리만큼 솔직하다. 가령, 광성통은 농사에 힘쓰던 시절 희침을 두지 말라는 자신의 말에 유수가 이미 다른 여자를 돌아본 적이 있다고 말하자 먹던 맥반(麥飯)을 냇물에 던지며 눈물을 흘린다.³⁸⁾ 또한 유수와 혼인한 음려화가 자신에게 예를 올릴 때에는 시모에게 죽어도 음씨에게 답례할 수 없다 말하고, 이후 유수와 음려화가 마주서 있자 음려화를 유수에게 밀친 후 돌이 안고 뒹구는 모양을 보려했다고 비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³⁹⁾ 작가는 이러한 광성통을 ‘편협하고 규모가 작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기실 지나치게 솔직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⁰⁾ 둘째, 정도(正道)를 알고 의리(義理)를 중시한다. 광성통이 황후가 된 후에도 광무제가 음려화만을 편애하자 보모 윤씨는 광성통에게 음려화를 제거할 흉계를 권한다. 그러나 이때 광성통은 “암홀노씨 형세흐른 나의 뜻이 아니라”거나 “장신궁 박명지인이 될 지언정 요음흐른 일은 형치 아니리라”며 윤씨의 뜻을 완강하게 거부한다.⁴¹⁾ 더불어 이후 윤씨는 독단적으로 음려화의 아들 유양에게 자객을 보냈다가 실패하자 비로소 이 일을 광성통에게 고하는데, 광성통은 위주충심(爲主忠心)을 주장하는 윤씨를 내치지 못하고 자객을 죽여 그녀의 죄를 덮는다. 그리고 이후 이 일을 알게 된 번태후는 광성통을 위해 모든 것을 윤씨의 것으로 꾸미자고 제안하는데, 이때에도 광성통은 울며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⁴²⁾ 이러한 모습들은 광성통이 분명 정도와 의리를 아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셋째, 조강지처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태)“너 문숙의 첩이 아니ㄸ 어이 후궁이 되리오. … 너 비록 비야하나 황후 되기를 구흐미 아야 나를 후궁을 삼아 존첩위쳐 흐려흐를 보미 너 스족지녀로 아시의 빅낭

38) <옥환기봉-1권> 참고.

39) <옥환기봉-5권> 참고.

40) 작가는 유연의 입을 통해 광성통이 편협하고 규모가 작아 광무의 짝이 아닐 것이라 의심했다고 서술하였다. <옥환기봉-1권> 참고. 더불어 이승복 역시 광성통이 교활하거나 잔악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승복, 앞의 논문, 2008, p.470.

41) <옥환기봉-13권> 인용.

42) <옥환기봉-9~15권> 참고.

방네로 마즈 십여 년 조강간고와 환난중상을 갖췄 지니고 병잉시석 스이의 관스여잉
으로 … 이제 귀인이 되어 어니 면목으로 천하 스람을 디히리요?” 〈옥환기봉-7권〉

(타)는 광무제가 조강지처인 자신을 후궁에 봉하며 몇 해 전 맞은 음려화를 황후로 책립할 뜻을 보이자 화가 난 광성통이 귀인의 인수와 장복을 내던지며 한 말이다. 여기서 광성통은 황후 자리에 욕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을 후궁으로 봉한 것에 분노한다. 더불어 한나라 재건 후 죽은 유연과 유충의 아내들이 궁에 들어와 번태후를 근시하자 “간초(艱楚) 험난(險難)의는 구가를 아로 쫓쳐더니 부귀 함미 나와 조치물 닝쇼”⁴³⁾ 하는데, 이는 시대과 힘든 시기를 함께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옥환기봉〉에서 광성통은 유수의 조강지처로서 정도와 의리를 아는 인물이나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한다는 점에서 덕성이 낮은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더불어 본 작품에서 광성통 폐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녀의 투기가 아니라, 음려화에 대한 광무제의 편벽한 애정이다.⁴⁴⁾ 게다가 주목할 점은 작중 음려화의 고난이 보모 윤씨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본 작품에서 광성통의 폐위가 음려화에 대한 광무제의 편벽한 애정과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광성통의 성격 그리고 보모 윤씨의 그릇된 충성심이 빚어낸 결과임을 보여준다.

한편, 〈장가행〉에서 광성통은 유수와 혼인 후 죽음도 불사할 만큼 유수를 사랑한다. 일례로, 광성통은 혼인 직후 유수가 왕랑으로 인해 고난에 처하자 몸소 유양을 찾아가 구원병을 청하는데, 유양이 이를 거절하자 “未嫁从父, 出嫁从夫(시집가기 전에는 부친을 따르고 시집 간 후에는 남편을 따른다)”는 말을 남기고 독약을 마신다.⁴⁵⁾ 더불어 (타)는 유수가 왕랑을 물리치고 소왕(蕭王)이 된 후 음려화가 유수의 정실임을 알게 된 광성통과 오빠 광강의 대화를 인용한 것이다.

43) 〈옥환기봉-8권〉 참고.

44) 광후는 한때 미모로써 남편을 미혹했다고 오해했으나 음귀인의 높은 덕에 탄복했다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가운데 “황상의 편벽은 처분이 미양 녀즈의 분을 도스이 심해 귀인에게 연읍함이라”고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을 밝힌 바 있다. 〈옥환기봉-9권〉 참고.

45) 〈장가행-30회〉 참고.

(라) 광성통 : 오빠와 어머니 그리고 외숙이 짜고 날 속였어요.

광강 : 화내지마. 어쨌든 네가 소왕의 정실인데 음려화가 무슨 대수니?

광성통 : 오빠가 뭘 알아요? 난 소왕의 마음을 원해요. 그 사람이 나만 보기를 원한다고요.⁴⁶⁾ <장가행-34회>

위에서 광성통은 ‘정치의 자리’보다는 ‘유수의 마음’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수가 음려화만을 사랑하자 광성통은 점점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가령, 광성통은 한실 부흥 후 광무제에게 먼저 음려화를 궁으로 데려오라 청하며 입궁한 음려화를 “姐姐(언니)”라 부르며 다정하게 대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광무제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으로 광성통은 시종일관 음려화를 적으로 생각한다.⁴⁷⁾ 마지막으로, 황후가 된 후에는 음려화 제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일례로, 광성통은 음려화를 위협할 목적으로 광강의 아이를 임신한 허연지를 광무제의 후궁으로 봉한다.⁴⁸⁾ 또한 음려화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 태아에게 좋지 않은 탕약을 먹이고 어린 황자들을 부추겨 음려화가 높은 지붕 위에서 기관연을 시연케 한다. 게다가 광성통의 모친과 오빠는 끊임없이 가문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음려화 뿐 아니라, 광무제 시해를 도모하는 등 선(線)을 넘는 악행들을 저지른다. 따라서 작중 광성통의 폐위는 음려화에 대한 광성통의 투기와 광가의 발호(跋扈)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한 까닭에 두 작품에서 광성통의 최후는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옥환기봉>의 광성통은 아들의 봉국에서 지난 죄과를 반성하며 살다 변태후의 부고를 듣고 상심하여 병석에 누운 뒤 신의를 저버린 남편을 원망하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다.⁴⁹⁾ 이후 광무제는 순행 중 광성통을 생각하다 잠들어 태후를 만나 광

46) 你和母亲和舅舅一样，联合起来把我蒙在鼓里。/ 妹妹，莫要动怒，反正你已经取而代之。为萧王的正妻，你管她阴丽华杨丽华的。/ 你懂什么？我要的是萧王的心，我要他的眼睛里面只有我一个人。

47) 폐위 후 광성통은 북궁으로 자신을 찾아온 음려화에게 자신은 단 한 번도 음려화를 언니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시종 적으로 여겼다고 말한다. <장가행-50회> 참고.

48) 처음 허연지의 임신소식을 들은 광성통은 태의에게 아이를 죽이라 하나 태아가 광강의 아이임을 알자 음려화를 제거하는데 쓰고자 첩어로 봉한다. <장가행-40회> 참고.

후 보기를 청하였으나 끝내 거절당하는 꿈을 꾸고 일어나 광후를 ‘사후’로 복위하는데, 이는 광성통에 대한 광무제의 회한(悔恨)을 보여준다.⁵⁰⁾ 이에 비해, 〈장가행〉에는 딸의 평생 행복을 걸고 잠깐의 권세를 누리려 했다면 절규하는 광주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귀비로 강등되어 북궁에서 지내던 광성통은 자신의 생일 날 과거 오한에게 잘린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이며 태자에게 광무제를 사랑하게 된 계기를 말한 뒤, 그 사랑의 결과가 “뼈에 사무치는 고통과 끝없는 원망뿐”이었음을 고백하며 머리카락을 손에서 놓는다.⁵¹⁾ 이러한 광성통에게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가혹한 운명에 대한 원망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후 광성통은 차가운 북궁에서 쓸쓸히 죽어간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두 작품에서 두 황후의 인물형상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음려화는 〈옥환기봉〉에서는 색과 덕을 겸비한 요조숙녀(窈窕淑女)로 그려졌다면, 〈장가행〉에서는 한나라 재건의 주역으로 모든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여결(女傑)로 형상화되었다. 그런데 〈옥환기봉〉에서 말하는 덕성이란 대체로 봉건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부덕(婦德)으로 나타나며,⁵²⁾ 〈장가행〉 속 당당한 음려화에게는 기실 배경 당대보다는 21세기 중국사회에서 지향하는 현대적 여성상이 투사되어 있다.⁵³⁾ 한편, 〈옥환기봉〉의

49) “상이 속여 널오시되 부인은 나의 조강정실시오 아시결발이라 … 헉시니 천단헌 심정의 오직 장부일언이 천년불긴 줄 알고 허물을 지오미 괴탄치 아냐 이의 니르니 다 니의 과실 이어나와 군왕의 말슴이 쏘흔 아녀즈를 속이미 심치 아니냐.” 〈옥환기봉-27권〉

50) 역사적으로 광무제는 광성통을 ‘사후’로 복위하지 않았으며, 사후(思侯)란 광무제가 건무 26년에 죽은 광주에게 내린 시호이다.

51) 〈장가행-49회〉 참고.

52) ‘가문소설’이라고도 불리는 조선 후기 장편소설 작품들의 산출에 유교적 이념의 구현이라는 목적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더불어 장편소설의 효시로 알려진 〈소현성록〉의 여성 인물들을 고찰한 임치균은 작중 색은 있으나 덕이 부족한 여성들은 끝내 정치(懲治)되는 데 반해 색과 덕을 구비한 여성들은 시련 속에서도 결국 행복한 종말을 맞는다고 하였으며, 이들은 독자들에게 당대의 이념에 충실한 여성들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상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 임치균, 「〈소현성록〉의 여성 인물 연구-색과 덕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학연구론총』 제18집, 태민국학연구원, 2016, pp.9-37. 이러한 양상은 〈옥환기봉〉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53) 본 작품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한 링쯔첸은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작중 삼종사

곽성통은 자긍심 강한 광무제의 조강지처로 자신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거침없이 표출하였으며, <장가행>에서는 정략결혼의 피해자로 고달픈 짝사랑으로 인해 점점 악인으로 변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두 작품에서 곽성통은 단선적인 악인이 아닌 인간적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주인공들과의 미묘한 역학관계 속에서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양상은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주인공인 음려화에게는 창작 당대에 선호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강하게 투영한 데 비해, 적대자인 곽성통에게는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입체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사극과의 비교를 통한 <옥환기봉>의 의의

본고는 광무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한국 고소설 <옥환기봉>과 중국 TV사극 <수려강산지장가행>의 서사 및 음려화와 곽성통의 인물형상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그 결과, 두 작품은 거시적 관점에서 서사 구성 및 인물형상화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옥환기봉>의 산출과 서사적 의의를 현대 사극과 견주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본고는 현대 사극과의 비교를 통해 <옥환기봉>의 의의를 논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사극(史劇)’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연극이나 희곡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많은 역사 영화가 산출된 이래 20세기 후반부터는 TV사극이 활발하게 제작되었고 그 결과, 현재 사극은 대표적인 서사 양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김기덕은 21세기 초반 한국 사회의 사극 열풍을 ‘대중화 코드’와 ‘거대 담론 코드’를 중심으로 논한 바 있는데,⁵⁴⁾ 이는 <옥환기봉>을 비롯한 조선 후기 중국

덕(三從四德)의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가문의 굴레에서 벗어나 여걸로 우뚝 선 음려화에게는 분명 여성을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며 부권의 권위에 대항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현대적인 여성상이 투영된 것으로 보았다. 凌子倩, 「“女强”剧的女性叙述——以〈秀丽江山之长歌行〉为例」, 『影视美学』, 美与时代(下旬刊), 2016, p.116-117.
54) 논자는 21세기 초에 방영된 <태조왕건>과 <여인천하>를 중심으로 사극 열풍의 원인을

역사를 수용한 장편소설 작품들의 산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먼저, 대중화 코드의 관점에서 <옥환기봉>의 산출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중국 역사에 대한 지식의 대중적 확산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본 작품을 비롯한 <소현성록>, <남계연담>, <범문정충절언행록>, <화산기봉>과 같은 중국 역사가 수용된 수많은 고소설 작품들은 당대 중국 역사의 대중화를 발판으로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⁵⁵⁾ 이러한 양상은 당대 한반도의 역사를 수용한 고소설 작품들이 부재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거대 담론 코드를 중심으로 <옥환기봉>의 서사적 의의를 생각해 보자. <옥환기봉>은 주지 하듯 광무제의 한나라 재건과 두 황후의 폐립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그런데 작중 한나라 재건 과정에서는 좀처럼 갈등 상황이 발견되지 않으나 황후 폐립을 둘러싼 삼인의 갈등은 상당히 첨예하게 그려진다. 더불어 작가는 ‘여성의 덕성’을 중심으로 음려화의 인물됨을 부각하였지만, 광성통을 통해서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리’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⁵⁶⁾ 다시 말해, 본 작품은 봉건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당대 독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부부 담론을 형성하며 <옥환기봉> 연작들의 탄생을 촉발했다. 이러한 양상은 사회·문화 및 서사적 측면에서 <옥환기봉>이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옥환기봉>은 『후한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소설로 규정되거나 혹은

역사 지식의 대중화에 기반한 ‘대중화 코드’와 장편의 사극이 아니고서는 담아낼 수 없는 ‘민족·민족주의’와 같은 커다란 주제의식의 내재라는 ‘거대 담론 코드’를 중심으로 논했다. 김기덕, 「TV 사극(史劇)의 열풍과 사회적 영향-〈태조 왕건〉과 〈여인천하〉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제5집, 문화사학회, 2002, pp.171-179.

55) 일례로, 이성규의 『조선후기 사대부의 『사기』 이해』에 따르면 조선조 유자들은 『사기』를 정독하여 지식과 교훈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한서』와 비교하며 그 문장과 문체를 논하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포괄을 통해 일정한 가치관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승복, 앞의 논문, 2000, p.163.

56) 이러한 광성통의 인물형상은 고소설보다는 현대 사극의 악인의 형상과 유사한데, 안상혁과 강보승은 현대 사극의 적대자는 인간미 있고 매력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대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로 형상화 된다고 하였다. 안상혁·강보승, 「현대 사극에서 악인 형상화의 특징」,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제9-3호, 한국영상학회, 2011, pp.35-36.

<동한연의>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연의소설에 비견되었다.⁵⁷⁾ 그러나 역사소설이나 연의소설은 대체로 자국의 역사를 소재로 하며 무엇보다 배경 당대의 역사를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에 반해, <옥환기봉>에서 광무제 시대에 대한 작가의 역사인식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양상은 본 작품이 자국의 역사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옥환기봉>을 비롯한 중국 배경 장편소설 작품들이 조선 후기에 역사소설이나 연의소설보다는 현대의 사극과 같이 인식 및 향유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옥환기봉>은 처첩갈등과 같은 고소설의 주요 화소를 수용하면서도 광무제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고 역사적 인물들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창작 당대의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⁵⁸⁾ 이는 본 작품이 역사 왜곡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대 사극들의 서사적 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 아닌 ‘상상’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옥환기봉>은 역사를 기반으로 한 허구적 서사에 대한 작가의 충분한 이해와 창작 능력을 보여준 수작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1. 자료

서울대 규장각 소장 <옥환기봉>
<수려강산지장가행> VOD 50회본

2. 단행본

범엽 저·진기환 역주, 『후한서 1~6』, 명문당, 2018.

57) 이승복, 앞의 논문, 2002, pp.157-158; 임치균, 앞의 논문, 2002, pp.154-159.

58) 신안식에 따르면, 20세기 사극은 남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여성은 남성의 내조자나 궁중 암투극에서나 힘을 쓰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다. 신안식, 「21세기 역사 기억 장치, 사극」, 『월간 공공정책』 제117집, 한국자치학회, 2015, pp.102-105. 이점을 상기할 때 <옥환기봉>의 서사는 분명 시대를 앞서있다.

3. 논문

- 김기덕, 「TV 사극(史劇)의 열풍과 사회적 영향-〈태조 왕건〉과 〈여인천하〉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제5집, 문화사학회, 2002, pp.171-196.
- 신안식, 「21세기 역사 기억 장치, 사극」, 『월간 공공정책』 제117집, 한국자치학회, 2015, pp.102-105.
- 안상혁·강보승, 「현대 사극에서 악인 형상화의 특징」,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제9-3호, 한국영상학회, 2011, pp.9-36.
- 이승복, 「〈한조삼성기봉〉의 구조와 성격-전편(前篇)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3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1, pp.204-225.
- _____,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 『국문학연구』 제6집, 국문학회, 2001, pp.159-191.
- _____, 「〈옥환기봉〉과 역사의 소설화」, 『선청어문』 제28-1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pp.157-183.
- _____, 「인물형상을 통해 본 〈도앵행〉의 의미: 〈옥환기봉〉과 관련하여」, 『국어교육』 제107집, 한국어교육학회, 2002, pp.373-400.
- _____, 「〈옥환기봉〉의 역사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학회, 2008, pp.141-182.
- 임치균, 「18세기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일양상-〈옥환기봉〉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pp.131-162.
- _____, 「〈취미삼선록〉 연구: 〈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pp.351-378.
- _____, 「〈소현성록〉의 여성 인물 연구-색과 덕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학연구론총』 제18집, 태민국학연구원, 2016, pp.9-37.
- 凌子倩, 「“女强”剧的女性叙述—以〈秀丽江山之长歌行〉为例」, 『影视美学』, 美与时代(下旬刊), 2016, pp.116-117.
- 姚珺文, 「〈秀丽江山之长歌行〉醞釀三年播出 大漢傳奇展正劇範兒」, 電視指南, 2016, pp.52-53.
- 蕭雨林, 「襄陽如何光大“光武文化”(上)——熱播劇〈秀丽江山之長歌行〉引出的話題」, 襄陽日報, 2016. 08. 15, p.4.
- _____, 「襄陽如何光大“光武文化”(下)——熱播劇〈秀丽江山之長歌行〉引出的話題」, 襄陽日報, 2016. 08. 16, p.4.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8월 10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8월 26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9월 23일

Abstract

The epic significance of “Okhwan Gi-bong,” a Korean old novel set in
the Gwangmuje Period

—Based on the comparison with the Chinese TV historical drama
“秀麗江山之長歌行(Singing All Along)”

Joo, Soomin

This paper compares characters and the narrative of the 18th century Korean old novel “Okhwankibong” set in the era of Emperor Guangwu and the 21st century Chinese TV historical drama “秀麗江山之長歌行(Singing All Along)”. And it was intended to examine the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Okhwankibon”. As a result of the narrative comparison, the two works differed in terms of worldview, narrative composition, and subject. However, based on the records of “Houhansuh,” the two works showed high narrative similarity in that the conflict between Emperor Guangwu and the Empress during the deposition of the Empress was composed of the artist's imagination.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orks, the main character, Um Yeo-hwa, had a strong projection of her preferred female image during her time of creation, and in Kwak Seong-tong 's case, she was recreated as a three-dimensional figure to win public sympathy from the public. Based on the similarity between these two works, this paper concluded the discussion by considering the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Okhwan kibong” and emphasizing the literary achievement of the original work, focusing on the current historical drama.

Keyword Korean old novel, Okhwangibong, Houhanshu, Emperor Guangwu, Empress, Chinese TV historical dram, 秀麗江山之長歌行(Singing All Along)

한국어 대과거 시제 ‘-있었-’과 중국어 완전상 ‘了’, ‘過’의 대응 관계 고찰

쭈즈웨이* · 김기석**

국문요약

지금까지 ‘-있었-’의 의미기능이나 ‘-있었-’에 대응하는 중국어에 관한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고, 주로 동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들 문법 표지가 나타내는 시제와 상의 중의적 해석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달리 동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논항의 의미 변화 및 부가어의 첨가에 의한 문장의 의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과 ‘了’, ‘過’의 의미 및 대응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Smith(1991)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본 상황유형의 [±종결성]에 따라 ‘-있었-’과 ‘了’, ‘過’가 나타내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논항의 의미 변화와 부가어의 첨가로 인해 하나의 기본 상황유형에서 다른 상황유형으로 파생되는 경우에 초점을 두어, 이들 파생 상황유형의 [±종결성]에 따라 ‘-있었-’과 ‘了’, ‘過’의 의미 대조 및 대응 관계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결합되는 상황유형의 [±종결성]이 ‘-있었-’의 의미 및 한·중 문법 표지의 대응 관계에 결정적으로 관여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있었-’의 의미기능을 정확히 인식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중·한 번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주제어 대과거시제 ‘-있었-’, 완전상, 일반적인 완전상, 결과의 완료상, 경험의 완료상, 기본 상황유형, 파생 상황유형

* 주저자: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 교신저자: 상해외국어대학교(중국) 동방어학원 한국어학과 교수

〈목차〉

1. 서론
2. 시제와 상의 관계
3. ‘-었었-’과 ‘了’, ‘過’의 의미
4. ‘-었었-’과 ‘了’, ‘過’의 의미 대조 및 대응 관계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동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논항의 의미 변화 및 부가어의 첨가에 의한 문장의 의미 변화에 초점을 두어, 대과거 시제 표지 ‘-었었-’과 완전상(perfective aspect)¹⁾ 표지 ‘了²⁾’, ‘過³⁾’가 나타내는 의미를 대조하고 그 용법 상의 대응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에서 대과거 시제 표지 ‘-었었-’은 주로 ‘과거의 과거’를 의미하지만, 문맥에 따라 ‘과거 완료’, ‘단절’ 등 상적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중국어에서 완전상 표지 ‘了’, ‘過’는 주로 상황의 ‘시작점, 내적 단계, 끝점’과 같은 시간 구조에 대해 구분 없이 하나의 전체로 서술하는 기능을 하지만 문맥에 따라 ‘상대적인 과거’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과거 시제 표지 ‘-었었-’과 완전상 표지 ‘了’, ‘過’는 문법적인 의미기능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두 시제와 상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으로 ‘-었었-’이 중국어로 옮길 때 흔히 ‘了’나 ‘過’로 번역된다. 한국어에서 ‘-었었-’의 의미기능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한국어의 시제/상 체계 설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었었-’의

-
- 1) Carlota S. Smith,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p.4. 이 글에서는 완전상은 화자가 상황이 지니고 있는 ‘시작점, 내적단계, 끝점’과 같은 시간적 구조에 대해 구분 없이 하나의 전체로 보는 주관적인 관점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 2) 중국어에서 시태조사 ‘了’는 일반적으로 바로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된 ‘了₁’ 및 문장 말에 사용된 ‘了₂’로 나뉜다. 뒤의 3.2절에서 ‘了₁’, ‘了₂’의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 3) ‘過’의 경우 보통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결과보어 ‘過₁’ 및 ‘경험’을 의미하는 시태조사 ‘過₂’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시태조사 ‘過₂’만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뒤의 3.2절에서 ‘過₂’의 의미를 상세하게 논의하겠다.

올바른 의미를 밝히려는 연구가 많은 분량으로 다루어져 왔다. 한동완(1996), 이재성(1999), 조민정(2001) 등 연구에서는 주로 동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었었-’이 시제, 상, 시상, 양태 범주와 관련하는 문법 표지임을 논의하였다. 또한 두 언어 간의 차이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었었-’의 오류율이 다른 문법 표지에 비하여 높은 편이니⁴⁾, 기존 한·중 대조 연구에서는 ‘-었었-’과 ‘了’, ‘過’의 의미, 용법상의 차이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 김종혁(2009), 김나리(2011), 왕기(2018) 등 연구에서는 주로 결합되는 동사의 유형에 따라 ‘-었었-’과 ‘了’, ‘過’의 의미, 그 용법상의 대응 양상을 토론했다.

지금까지 ‘-었었-’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 및 ‘-었었-’에 대응하는 중국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들 문법 표지와 동사의 관련성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ㄱ. 엄마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철수가 밥을 먹었었다.
 ㄱ’ 妈妈回家前, 哲洙吃了飯./ *妈妈回家前, 哲洙吃過飯.
 ㄴ. *인숙이 그 전쟁에서 죽었었다.
 ㄴ’ 仁淑在那場戰爭中死了./ *仁淑在那場戰爭中死過.
 ㄷ. 영화는 미국에 갔었다.
 ㄷ’ 英熙去了美國./ 英熙去過美國.

(1ㄱ, ㄱ’)에서 ‘-었었-’과 ‘了’는 ‘행위의 과정’을 가지는 행위동사(active verbs)와 함께 쓰여서 ‘과거의 과거’를 의미하지만, ‘過’는 쓰일 수 없다. 그러나 (1ㄴ, ㄴ’)에서 ‘-었었-’과 ‘過’는 ‘순간적이고 결과 상태’를 가지는 성취동사(achievement verb)와 함께 쓰여서 비문법적인 반면, ‘了’는 ‘인숙이 전쟁에서 이미 죽었다는 상황’을 하나의 전체 사건으로 기술해서 ‘완전상’, ‘과거’의 의미를 드러낸다. 또한 ‘행위의 과정, 결과 상태’를 내포하는 완성동사(accomplishment

4) 고석주 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2004, pp.343-347. 이 책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오류는 각 언어권에서 두루 많이 나타나지만, 특히 중국어권 학습자의 시제 오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며 그 가운데 대과거 시제 표지 ‘-었었-’의 오류율이 다른 문법 표지에 비하여 비교적 높다고 하였다.

verb)와 결합된 경우, (1ㄷ, ㄷ)에서처럼 ‘-있었-’과 ‘過’는 ‘단절’의 의미를 드러내지만, ‘了’는 ‘영희가 미국에 갔다는 상황’을 하나의 전체 사건으로 기술해서 ‘완전상’, ‘과거’의 의미를 표현한다.

그러나 다음의 예(2)에서처럼 동사와의 결합 관계에만 한정해서는 ‘-있었-’과 ‘了’, ‘過’가 쓰인 문장의 중의적 해석 및 그 문법성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고, 논항의 의미 변화나 부가어의 첨가도 함께 고려하여 고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2) ㄱ. 엄마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철수가 밥 한 그릇을 먹있었다.
 ㄱ' 妈妈回家前, 哲洙吃了一碗飯./ *妈妈回家前, 哲洙吃過一碗飯.
 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있었다.
 ㄴ' 許多人在那場戰爭中死了./ *許多人在那場戰爭中死過.
 ㄷ. 영희는 자주 미국에 갔었다.
 ㄷ' *英熙經常去了美國./ *英熙經常去過美國.

행위동사의 경우, (2ㄱ, ㄱ')에서처럼 목적어 논항에서 한정적인 명사구를 지니게 되면 ‘-있었-’은 ‘과거 완료’를 의미하게 되는데, ‘了’와 ‘過’의 사용은 변화가 없다. 또한 성취동사의 경우, (2ㄴ, ㄴ')에서 보듯이 주어가 복수화면 ‘-있었-’과 결합된 문장은 문법적이지게 되고 ‘과거’의 의미를 표현하게 되지만, ‘了’와 ‘過’의 사용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완성동사의 경우, (2ㄷ, ㄷ')에서처럼 빈도를 나타내는 부가어의 첨가로 ‘-있었-’은 ‘과거의 반복’을 의미하게 되지만, ‘了’와 ‘過’의 사용은 비문법적이지게 된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동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주어, 목적어와 같은 논항의 의미 변화나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어와 같은 부가어의 첨가는 역시 ‘-있었-’과 ‘了’, ‘過’의 의미 및 용법상의 차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런 입장에 입각하여 ‘-있었-’의 의미기능이나 ‘-있었-’에 대응하는 중국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Smith(1991)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본 상황유형에 따라 ‘-있었-’과 ‘了’, ‘過’가 나타내는 중의적 해석을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의미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바탕

으로 목적어 논항의 의미 변화와 부가어의 첨가로 인해 하나의 기본 상황유형에서 다른 상황유형으로 파생되는 경우에 초점을 두어, 이들 파생 상황유형에 따른 ‘-있었-’과 ‘了’, ‘過’의 의미를 대조하고 그들의 대응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시제와 상의 관계

시제(tense)와 상(aspect)은 모두 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지만, 양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해서 별개의 독립된 개념 범주이다. 시제는 어떤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이는 다시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절대 시제’와 발화 시점 이외의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상대 시제’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한 상황이 기준 시점에 대해 가지는 선후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눌 수도 있다.

Smith(1991)에 의하면, 상은 크게 어휘범부로서의 상황유형(situation aspect)과 문법범주로서의 관점상(viewpoint aspect)으로 나뉜다. 상황유형은 동사와 그의 논항(주어, 목적어)으로 구성되는 동사구(VP)⁵⁾에 내재되는 상황이 나타내는 상적특성(aspectual character)⁶⁾을 가리킨다. [상태성(static)], [지속성(durative)], [종결성(telic)]의 범언어적인 상적 특성에 의해, 동사구는 상태상황유형(States type), 순간상황유형(Semelfactive type), 행위상황유형(Activity type), 완성상황유형(Accomplishment type), 성취상황유형(Achievement type)의 5 가지 기본 유형으로 분류된다. 상태상황유형은 [+상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상적 자질, 순간상황유형은 [-상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상적 자질, 행위상황유형은 [-상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상적 자질, 완성상황유형은 [-상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상적 자질, 성취상황유형은 [-상태성, -

5) 본 연구에서 동사구는 ‘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을 따라 주어가 동사구 내부에 설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상적특성은 상황유형을 구별해 낼 수 있는 상적 요소로서 동사를 핵으로 하는 동사구가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적 특성 중에 시간적 양상에 관련하는 특성을 가리킨다.

지속성, +종결성]의 상적 자질을 갖는다. 이런 기본 상황유형에 논항 의미의 변화나 상적 의미를 가지는 부가어의 첨가로 하나의 상황유형이 다른 상황유형으로 파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파생된 상황유형이라고 하였다. 파생된 상황유형은 주로 기본 순간상황유형이나 성취상황유형에서 주어의 복수화에 의해 파생된 행위상황유형, 기본 행위상황유형에서 목적어 논항의 한정화나 ‘끝짐’을 전제하는 부가어의 첨가에 의해 파생된 완성상황유형, ‘빈도’를 나타내는 부가어의 첨가로 파생된 상태상황유형으로 나뉜다.

한편, 관점상은 동사구가 내포되는 상황이 지니고 있는 ‘시작점, 내적단계, 끝짐’과 같은 시간적 구조를 관찰하는 화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가리킨다. 즉, 관점상은 주로 동사구에 내포되는 특정한 상황의 시간적 구조를 가시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크게 화자가 어떤 상황의 내부적인 시간 구조에 대해 구분 없이 하나의 완전한 전체로 관찰하는 ‘완전상(perfective aspect)’ 및 시작점과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어느 한 특정한 국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관찰하는 ‘미완전상(imperfective aspect)’으로 나뉜다. 그 가운데 완전상은 다시 ‘일반적인 완전상(general perfective aspect)’과 ‘완료상(perfect aspect)’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무표적인 완전상으로서 상황의 시작점과 끝점을 모두 포함하고 닫히는 구역만 가시화하며, 후자는 유표적인 완전상으로서 상황의 끝점과 끝점 이후의 결과 단계를 포함하고 닫히는 구역을 가시화한다. 여기에서 상황의 닫히는 구역을 가시화하는 것은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의 끝점과 상관없이 완전상 표지가 등장하면 모두 끝난 폐쇄 상황을 나타냄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일반적인 완전상과 완료상이 [+종결성]을 갖는 상황유형에 쓰이면 그 상황이 자연적으로 완성되는(completed) 것이며, [-종결성]을 갖는 상황유형에 쓰이면 그 상황이 인위적으로 종지되는(terminated) 것이다. 또한 완료상은 선행한 상황이 참조 시점까지 계속 연관되어 오는 것을 표현하므로 주로 두 개의 시점 사이의 관련성을 지시한다. 여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관련성’이란 용어가 ‘연속’과 동일한 뜻이 아니며, 선행한 상황이 참조 시점의 상황과 모종의 관련을 맺음을 의미한다. 이런 연유로 Comrie(1976:56)에서는 완료상을 ‘결과의 완료상(perfect of result)’, ‘경험의 완료상(experiential perfect)’, ‘계속 완료상

(perfect of persistent situation)’, ‘근과거의 완료상(perfect of recent)’의 4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결과의 완료상’은 가장 대표적인 완료상으로서 선행한 상황이 남긴 결과가 참조 시점까지 계속되거나 참조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함의함을 표현한다. 이와 달리, ‘경험의 완료상’은 과거에 한 번 또는 그 이상 발생한 적이 있는 상황의 결과가 참조 시점과 단절된 관계를 기술한다. ‘계속 완료상’은 과거에 시작해서 참조 시점까지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을 묘사하며, ‘근과거의 완료상’은 선행한 상황과 참조 시점와의 관련이 단지 시간적인 근접성을 지니는 것을 표현한다.

위에서 시제와 상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표시하기 때문에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언어마다 시제와 상의 실현 방식이 다르므로 하나의 문법 표지에 두 범주 간의 교차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Comrie(1976:84)에서 언급했듯이 시제 표지가 없는 언어들에서 완전상이 참조 시점에서 이미 끝난 상황을 표현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과거의 의미를 내포한다. 같은 논리대로 논의하자면, 완전상 표지가 없는 언어들에서는 과거 시제와 완전상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즉, 과거 시제로 표현된 상황이 참조 시점에 앞서 일어난 것이니, 화자가 참조 시점에서 이미 발생했다는 상황의 시간적 구조를 하나의 전체로 관찰하기 가능해서 ‘완전상’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시제 표지가 없는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인 완전상과 완료상 표지로 상대적인 과거의 의미를, 완전상 표지가 없는 한국어에서는 과거와 대과거의 시제 표지로 일반적인 완전상이나 완료상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었었-’과 ‘了’, ‘過’의 의미

1) ‘-었었-’의 기본 의미 및 부차적 의미

기존 연구에서는 ‘-었었-’을 단일한 형태소로 볼 것인지, 동일 형태소 ‘-었-’의 중복 형태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별개 형태소 ‘-었-’의 결합 형태소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에 알맞은 의미를 설정하였으며, 다시 그 의미기능에 의해 ‘-었었-’의 문법 범주를 토론하였다. 지금까지 ‘-었었-’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는 크게 시제 범주로 보는 견해(한동완 1996, 문숙영 2005), 상 범주로 보는 견해(남기심 1972, 양정석 2002), 시상 범주로 보는 견해(이재성 1999, 송창선 2003), 양태 범주로 보는 견해(성기철 1974, 고정의 1982)로 다루어졌다. 이 절에서는 다섯 가지 기본 상황유형에 따른 ‘-었었-’의 결합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었었-’이 나타내는 기본 의미와 부차적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었었-’은 [+종결성], 결과단계를 갖는 상황유형과 결합하여 ‘단속상’표지나 ‘과거 완료’ 표지로 간주되어 온 예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3) ㄱ. 그는 흰 옷을 입었었다.

ㄴ. 어제 정원에 노란 꽃이 활짝 피었었다.

남기심(1978:166)은 (3ㄱ)에서 ‘-었었-’이 ‘입다’를 동사구의 핵으로 하는 완성상황유형과 결합하여 흰 옷을 입은 상황의 결과가 발화시와 단절된 상태를 나타내므로 단속상 표지라고 하였다. 그리고 송창선(2003:7)은 (3ㄴ)에서 ‘-었었-’이 ‘피다’를 동사구의 핵으로 하는 성취상황유형과 결합하여 꽃이 핀 상황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던 것이 과거였음을 드러내서 과거 완료상 표지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다음의 예(4)처럼 같은 상황유형에서도 ‘-었었-’이 반드시 ‘단절’이나 ‘과거 완료’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4) ㄱ. 그는 천천히 흰 옷을 입었었다.

ㄴ. 그 때 정원에 노란 꽃이 활짝 피었었다.

완성상황유형의 경우, (4ㄱ)에서는 양태 부사어 ‘천천히’를 첨가하면 ‘흰 옷을 입은 과정이 과거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취상황유형의 경우, (4ㄴ)에서는 시간 부사어 ‘그 때’를 첨가하면, ‘꽃이 핀 시점’이 ‘그 때’보다 이전일 수도 있고 동시적일 수도 있으니 꼭 ‘과거의 완료’라고 한정할 수 없다.

또한, 고정익(1982:6)는 ‘-었었-’의 의미를 ‘단절’이나 ‘과거 완료’로 본 것에 대해 다음의 예(5)로 반박하였고, ‘-었었-’을 ‘과거의 경험’의 의미기능으로 보 이는 양태 표지⁷⁾라고 하였다.

- (5) ㄱ. 그는 부산에 갔었다.
 ㄴ. 그는 부산에 간 일이 있다.
 ㄷ. 그는 부산에 갔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다.

고정익(1982)의 지적대로 (5ㄱ)을 (5ㄴ), (5ㄷ)과 같이 환치시켰을 때 (5ㄴ)은 그는 부산에 간 일이 있었다는 주어의 경험을 표현하고, (5ㄷ)은 과거에 그는 부산에 간 일이 있었지만 지금 부산에 없다는 단절과 완료의 의미를 표현한다. ‘-었었-’이 ‘가다’를 동사구의 핵으로 하는 완성상황유형과 결합하여 나타내는 ‘단절’, ‘완료’의 의미는 ‘과거의 경험’이라는 본질적 의미에서 파생되는 이차적 의미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다음의 예(6)처럼 상태상황유형에 쓰이는 경우 ‘-었었-’이 ‘과거의 경험’의 의미로 해석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6) ㄱ. 철수가 착했었다.
 ㄴ. *철수가 착한 일이 있다.
 ㄷ. 철수가 어렸을 때도 착했었고 지금도 착하다.

(6ㄱ)은 (6ㄴ), (6ㄷ)과 같이 환치시키지 못함을 통해 ‘-었었-’이 ‘착하다’를 동사구의 핵으로 하는 상태상황유형과 결합하여 ‘과거의 경험’이나 ‘단절’의 의미보다는 단순히 ‘과거’의 의미를 표현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찰한 예문들을 통해 ‘-었었-’이 결합되는 문장이 드러내

7) 김현재, 「한국어 선어말어미 ‘-었었-’과 중국어 ‘了/過’ 대조 분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34. 이 글에서 ‘-었었-’이 문맥에 따라 나타내는 ‘과거의 경험’의 의미는 의미 측면에서 ‘단절’, ‘과거 완료’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양태적 의미 범주에서 다루어 왔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뒤의 3.1절에서 ‘-었었-’이 나타내는 ‘과거의 경험’에 대해 경험 완료상(experiential perfect) 의미 범주에서 다루겠다.

는 ‘단절’, ‘과거 완료’, ‘과거의 경험’의 의미는 쉽게 취소될 수 있으니 화용론적 함축에 불과하고 ‘-었었-’과 상관이 없음을 알게 된다. 이들 의미 외에 일반적으로 많이 꼽히는 ‘-었었-’의 의미기능으로는 대과거 시제 표지이다. 문숙영(2005)에서는 ‘-었었-’이 동일 형태소 ‘-었-’의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소로서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더 먼 과거’를 드러내는 ‘절대-상대 시제의 대과거’표지⁸⁾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었었-’의 의미기능에 대해 문숙영(2005)과 같은 견해이며, ‘-었었-’이 과거의 상황을 ‘-었-’이 지시하는 기준시 앞에 위치시키는 기능을 하는 대과거 시제 표지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본 연구는 ‘-었었-’을 동일 형태소 ‘-었-’의 중복형태소로 보기 때문에 상황유형과 ‘-었-’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었었-’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쯔즈웨이(2019)에서 ‘-었-’의 의미기능에 대해 검토했는데, ‘-었-’은 과거 시제 표지이지만,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에서 ‘일반적인 완전상의 의미’를,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에서 ‘결과의 완료상’의 의미를 부차적으로 나타낸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었었-’은 동일 형태소 ‘-었-’의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소로서 ‘-었₁-’과 ‘-었₂-’가 언제나 ‘과거’로 기능하지만, ‘-었₁-’의 부차적 의미가 결합되는 상황유형의 [±종결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었었-’의 부차적 의미도 다르게 나타낸다고 추측한다. 즉, 본 연구에서 ‘-었었-’은 ‘과거의 과거’란 기본 의미를 나타내는 대과거 시제 표지이지만, 결합되는 상황유형의 [±종결성]에 따라 ‘일반적인 완전상’이나 ‘결과의 완료상’의 의미를 부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 한다.

다음으로, 대과거 시제 표지 ‘-었었-’은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과 결합하여 ‘과거의 과거’란 기본 의미 및 ‘일반적인 완전상’이란 부차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도록 한다.

8) 문숙영(2005), 「한국어 시제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120. 이 글에서 ‘절대-상대 시제의 대과거’표지 ‘-었었-’은 과거 시제로 표현된 모든 상황에 대해 앞선 것일 수 없으며, 기준시로 채택된 과거에 비해서만 앞선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 (7) ㄱ. 친구들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이미 밥을 먹었었다.⁹⁾
 ㄴ. 전쟁하기 전에 그는 열심히 공부했었다.

- (8) ㄱ. 그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전등을 한 번 깜박했었다.
 ㄴ. 언니가 나가기 전에 철수를 한 번 때렸었다.

(7), (8)에서 ‘-었었-’은 각 상황유형과 결합하여 ‘-었었-’이 지시하는 상황이 ‘-었-’으로 지시하는 기준시보다 더 이전에 발생했음을 표현해서 ‘과거의 과거’란 기본 의미를 드러낸다. 행위상황유형을 나타내는 (7)에서 ‘-었었-’은 ‘나는 밥을 먹은 상황’과 ‘그는 열심히 공부한 상황’을 ‘시작점, 내적단계, 끝점’을 분석하지 않는 하나의 전체로 서술해서 ‘일반적인 완전상’의 의미를 표현한다. 순간 상황유형과 결합된 경우, (8)에서 ‘-었었-’은 마찬가지로 해당 상황을 하나의 전체 사건으로 기술하니 ‘일반적인 완전상’의 의미를 표현한다.

위의 [-종결성]의 행위상황유형, 순간상황유형과 관련하여 대과거 시제 표지 ‘-었었-’은 ‘일반적인 완전상’의 의미를 표현하는 반면, [+종결성]의 성취상황유형, 완성상황유형에서 ‘결과의 완료상’의 의미를 드러낸다.

- (9) ㄱ. 내 손에 잉크가 많이 묻었었다.
 ㄴ. 그녀는 작년에 결혼했었다.

- (10) ㄱ. 작년에 언니가 중국에 갔었다.
 ㄴ. 그가 어제 우리 집에 왔었다.

- (11) ㄱ. 민용이 집 한 채를 지었었다.
 ㄴ. 은혜가 아기 모자를 만들었었다.

(9-11)에서 대과거 시제 표지 ‘-었었-’은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과 결합하여 ‘과거의 과거’의 의미뿐만 아니라, 각 상황의 결과가 ‘-었-’이 지시하는 기

9) 이영희, 「상적 특성에 따른 한국어와 일본어 동사의 동작류 분류」,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215.

준시와 모종의 관련성을 맺음을 표현해서 ‘완료상’의 의미도 나타낸다. (9), (10)에서 ‘-었었-’은 [+종결성], 결과단계를 갖는 성취상황유형, 완성상황유형에서 상황이 완성된 결과가 ‘-었-’이 지시하는 기준시까지 지속됨을 표현하는 것으로 ‘결과의 완료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종결성]을 갖지만 결과단계를 갖지 않는 완성상황유형과 결합된 경우, (11)에서 ‘-었었-’은 상황이 완성된 결과가 ‘-었-’이 지시되는 기준시에 미치는 영향을 함의하는 것으로 ‘결과의 완료상’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즉, (11)에서 ‘-었었-’은 집을 지은 결과나 모자를 만든 결과가 ‘-었-’이 지시하는 기준시에 새로운 집에 입주할 수 있거나 새 모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함의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미 앞에 논의했듯이 대과거 시제 표지 ‘-었었-’은 과거의 상황을 ‘-었-’이 지시하는 기준시 앞에 위치시키는 기능을 해서 현재와의 접점이 없는 과거를 지시한다. 따라서 ‘-었었-’은 (9), (10)처럼 [+종결성], 결과단계를 갖는 동태상황유형에 쓰이면 결과 상태가 발화시에 유지되지 않는 ‘단절’의 함축적 의미를, (11)처럼 [+종결성]을 갖지만 결과단계를 갖지 않는 동태상황유형에 쓰이면 ‘과거 완료’의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

한편, 아래의 예(12)처럼 ‘-었었-’이 상태상황유형과 결합하여 ‘과거’를 의미하는 경우 ‘-었었-’을 대과거 시제 표지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

- (12) ㄱ. 철수는 그때도 (지금처럼) 많이 늙었었다.¹⁰⁾
 ㄴ. 영희가 많이 예뻐었다.

(12ㄱ)에서 ‘-었었-’은 ‘-었-’이 결합되어 현재의 상태를 드러내는 ‘늙다’류 동사와 결합하면 ‘과거’를 의미한다. 이는 대과거 시제 표지가 현재와의 접점이 없는 과거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었었-’의 기준시가 문맥적 상황에 내재된 경우가 많아서 (12ㄴ)에서 ‘-었었-’은 ‘-었-’으로 교체되어도 시제상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즉, (12ㄴ)에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영희가 예뻐었다’보다 나중에 서술한 상관된 상황이 전제 되어 있다. 완전상이 동태상황의 닫히는 구역에만 적용할 수 있으니, (12)에서처럼 ‘-었었-’이 상태상황유형

10) 염재일, 「-었-의 중의성」, 『언어학』 제58집,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010, p.253.

에 쓰이는 경우 ‘일반적인 완전상’이나 ‘결과의 완료상’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요컨대, ‘-었었-’은 ‘과거의 과거’란 기본 의미뿐만 아니라, 결합되는 상황유형의 [±종결성]에 따라 ‘일반적인 완전상’, ‘결과의 완료상’, ‘과거’란 부차적 의미 및 ‘단절’, ‘과거 완료’란 함축적 의미도 갖는다. 다섯 가지 기본 상황유형에 따른 ‘-었었-’의 결합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기본 상황유형에 따른 ‘-었었-’의 결합 의미

상황유형		‘-었었-’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	행위상황유형	과거의 과거, 일반적인 완전상
	순간상황유형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	완성상황유형	과거의 과거, 결과의 완료상, 단절이나 과거의 완료
	성취상황유형	
상태상황유형		과거

2) ‘了’와 ‘過’의 기본 의미 및 부차적 의미

앞에서 보았듯이 대과거 시제 표지 ‘-었었-’은 시제와 상의 중의적 해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옮길 때 흔히 ‘了’나 ‘過’로 번역된다. 중국어의 전통문법에서 시태조사 ‘了’는 일반적으로 바로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된 ‘了₁’ 및 문장 말에 사용된 ‘了₂’로 나뉜다. ‘過’의 경우 보통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결과보어(resultative verb complement) ‘過₁’과 ‘경험’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태조사 ‘過₂’로 나뉘며, 대다수의 논의에서 시태조사 ‘過₂’만 상 표지로 간주된다. Smith(1991), 이은수(2003), 尙新(2007)을 비롯한 언어유형론에 기반한 연구들에서는 ‘了₁’은 일반적인 완전상 표지로 보았으며, ‘了₂’, ‘過₂’는 완료상 표지로 보았다. 본 연구는 ‘了₁’, ‘了₂’, ‘過₂’(앞으로 논의상의 편의로 ‘過₂’대신에 ‘過’로 표기하겠다.)의 의미기능에 대해 Smith(1991), 이은수(2003) 등의 주장과 같은 견해를 갖는다. 이 절에서는 ‘了₁’, ‘了₂’, ‘過’가 기본 상황유형과 결합하여 드러내는 기본 의미 및 부차적 의미를 분석하고 비교할 것이다.

먼저, ‘了₁’, ‘了₂’, ‘過’가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과 결합하여 해당 상황을 인위적으로 종지시키고 나타내는 상적 의미 및 시제 의미를 살펴보자.

- (13) ㄱ. 我前几天吃了₁紫菜包飯.(며칠 전에 나는 김밥을 먹었다.)
 ㄴ. 我前几天吃紫菜包飯了₂.(며칠 전에 나는 김밥을 먹었다.)
 ㄷ. 我前几天吃過紫菜包飯.(며칠 전에 나는 김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
- (14) ㄱ. 前几天突然爆炸了₁一個煤氣罐.(며칠 전에 가스통 하나가 갑자기 터졌다.)
 ㄴ. 前几天一個煤氣罐突然爆炸了₂.(며칠 전에 가스통 하나가 갑자기 터졌다.)
 ㄷ. 前几天突然爆炸過一個煤氣罐.(며칠 전에 가스통 하나가 갑자기 터진 적이 있었다.)

(13), (14)는 ‘了₁’, ‘了₂’, ‘過’가 ‘前几天(며칠 전)’에 의해 구체적인 과거 시간이 명시되는 단문에서 [-종결성]의 행위상황유형, 순간상황유형과 결합하여 발화시를 기준 시점으로 삼는 예문이다. (13), (14)에서 ‘了₁’은 ‘그는 김밥을 먹은 상황’이나 ‘가스통 하나가 갑자기 터진 상황’을 ‘시작점, 과정, 끝점’과 같은 내부 시간 구조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는 하나의 전체 사건으로 기술해서 ‘일반적인 완전상’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와 달리, ‘了₂’, ‘過’는 종지된 상황의 결과가 기준시와 모종의 관련성을 맺음을 표현해서 ‘완료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了₂’는 해당 상황이 종지된 결과가 발화시에 더 이상 김밥을 먹고 싶지 않거나 조심하게 가스통을 사용해야 함을 함의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결과의 완료상’의 의미를 갖는다. ‘過’는 ‘그는 김밥을 먹은 상황’이나 ‘가스통 하나가 갑자기 터진 상황’이 과거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들 상황이 현행 상황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상황 간의 단절 관계를 표현해서 ‘경험의 완료상’의 의미를 드러낸다. 그리고 (13), (14)처럼 일반적인 완전상 ‘了₁’, 결과의 완료상 ‘了₂’, 경험의 완료상 ‘過’가 모두 참조 시점 전에 이미 발생한 상황을 기술해서 ‘상대적인 과거’란 부차적 의미를 내포한다.

다음으로, ‘了₁’, ‘了₂’, ‘過’가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과 결합하여 해당 상황

이 자연적으로 완성됨을 묘사하고 나타내는 상적 의미 및 시제 의미를 검토하면 다음의 예(15-17)과 같다.

- (15) ㄱ. 哲洙離開了₁自己的家鄉.(철수가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
 ㄴ. 哲洙離開自己的家鄉了₂.(철수가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
 ㄷ. 哲洙離開過自己的家鄉.(철수가 자기의 고향을 떠난 적이 있었다.)
- (16) ㄱ. 他穿了₁牛仔褲.(그는 청바지를 입었다.)
 ㄴ. 他穿牛仔褲了₂.(그는 청바지를 입었다.)
 ㄷ. 他穿過牛仔褲.(그는 청바지를 입은 적이 있었다.)
- (17) ㄱ. 他們蓋好了₁一間房子.(그들이 집 하나를 지었다.)
 ㄴ. 他們把一間房子蓋好了₂.(그들이 집 하나를 지었다.)
 ㄷ. 他們蓋好過一間房子.(그들이 집 하나를 지은 적이 있었다.)

(15-17)은 ‘了₁’, ‘了₂’, ‘過’가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지 않는 단문에서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과 결합하여 발화시를 기준 시점으로 간주하는 예문이다. (15), (16)처럼 [+종결성], 결과단계를 갖는 성취상황유형, 완성상황유형에서 ‘了₁’은 각 완성된 상황을 하나의 전체 사건으로 묘사해서 ‘일반적인 완전상’의 의미를, ‘了₂’는 각 상황이 완성된 결과가 발화시까지 지속됨을 표현하는 것으로 ‘결과의 완료상’의 의미를 갖는다. ‘過’는 각 상황이 과거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들 상황의 결과가 발화시까지 이어지지 않는 단절된 상태를 표현해서 ‘경험의 완료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종결성]을 갖지만 결과단계를 갖지 않는 완성상황유형에 쓰이는 경우, (17)에서 ‘了₁’은 일반적인 완전상의 의미를, ‘過’는 ‘경험의 완료상’의 의미를 표현한다. ‘了₂’는 상황이 완성된 결과가 발화시에 미치는 영향을 함의하여 표현해서 ‘결과의 완료상’의 의미를 드러낸다. ‘了₁’, ‘了₂’, ‘過’가 기술된 상황이 발화시 앞서 일어난 것이니 ‘상대적인 과거’의 의미를 부차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의 예(18)에서는 ‘了₁’, ‘了₂’와 달리 ‘過’는 ‘死(죽다)’류 동사를 동사구의 핵으로 하는 성취상황유형에 쓰이지 못하는 제약을 가짐을 주목하자.

- (18) ㄱ. 仁淑在那場戰爭中死了₁, 眞叫人惋惜.(인숙이 그 전쟁에서 죽었는데 참 애석한 노릇이다.)
 ㄴ. 仁淑在那場戰爭中死了₂.(인숙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
 ㄷ. *仁淑那场戰爭中死過.(인숙이 그 전쟁에서 죽었었다.)

(18ㄱ, ㄴ)에서 ‘₁’은 ‘死(죽다)’류 동사를 핵으로 하는 성취상황유형과 결합하여 ‘일반적인 완전상’의 의미를, ‘₂’는 인숙이 전쟁에서 죽은 결과가 발화시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함의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결과의 완료상’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18ㄷ)처럼 ‘過’가 ‘死(죽다)’류 동사를 핵으로 하는 성취상황유형과 결합된 문장은 비문법적이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인숙이 죽은 상황이 일단 발생하면 언제라도 지속되게 되는 것은 ‘過’가 내포되는 단절의 의미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위의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과 관련하여, ‘₁’, ‘₂’, ‘過’는 과거에 일어난 상황에 모두 쓰일 수 있는 공통점을 보였다면, 다음의 예(19), (20)처럼 현재나 미래의 상황을 나타낼 경우 이들 문법 표지가 다른 사용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 (19) ㄱ. ?你看, 外面下了₁雨.(봐, 바깥에 비가 온다.)
 ㄴ. 你看, 外面下雨了₂.(봐, 바깥에 비가 오네.)
 ㄷ. *你看, 外面下過雨.(?봐, 바깥에 비가 온 적이 있네.)
- (20) ㄱ. 明天下午我離開了₁家鄉就給你打電話.(내일 오후 내가 고향을 떠나고 나서 바로 너한테 전화해 줄 게.)
 ㄴ. 明天下午我已經離開家鄉了₂.(내일 오후 내가 이미 고향을 떠났을 거야.)
 ㄷ. *明天下午我已經離開過家鄉.(내일 오후 내가 이미 고향을 떠난 적이 있을 거야.)

(19)에서 ‘₁’, ‘過’는 현재의 상황에 사용하지 못하는 반면, ‘₂’는 현재의 상황에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ㄴ)에서 ‘₂’는 행위상황유형과

결합하여 발화시 전에 비가 이미 왔지만 발화시 당시에도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을 청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참조시와의 관련성’을 나타내서 ‘완료상’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결과의 완료상인 ‘了₂’가 현재의 상황에 쓰이면 과거에 시작해서 참조 시점까지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을 묘사하기 때문에 잠시 ‘계속 완료상’의 의미를 겸한다고 생각된다.

(19)와 달리 (20)에서 ‘了₁’, ‘了₂’는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過’의 사용은 비문법적임을 보여준다. [+종결성], 결과단계를 갖는 성취상황유형과 결합되는 경우, (20)에서 ‘了₁’은 ‘明天下午(내일 오후)’라는 참조 시점 이전에 발생한 ‘내가 고향을 떠난 상황’을 하나의 전체 사건으로 기술해서 ‘일반적인 완전상’의 의미를 표현한다. ‘了₂’는 해당 상황의 결과가 참조 시점까지 지속됨을 묘사해서 ‘결과의 완료상’의 의미를 갖는다. (19), (20)처럼 ‘了₁’, ‘了₂’가 기술된 상황이 모두 참조 시점 앞서 일어난 것이니 ‘상대적인 과거’의 의미를 부차적으로 표현한다.

한편, 상태상황유형에서 ‘了₁’, ‘了₂’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過’의 사용은 비교적으로 자유롭다. 또는 일부 상태상황유형에 쓰이는 경우로 ‘了₁’, ‘了₂’는 ‘새로운 상황의 시작11)’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過’는 ‘새로운 상황의 종결’을 의미한다.

(21) ㄱ. *她以前也漂亮了₁.(그녀는 이전에도 예뻐었다.)

ㄴ. *她以前也漂亮了₂.(그녀는 이전에도 예뻐었다.)

ㄷ. 她以前也漂亮過.(그녀는 이전에도 예뻐었다.)

(22) ㄱ. 他喜歡了₁英熙很久.(그는 영희를 오래 좋아했다.)

ㄴ. 他喜歡英熙很久了₂.(그는 영희를 오래 좋아했다.)

11) Comrie, Bernard,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p.28-30. 이 책에서는 완전상이 닫힌 구역에만 작용할 수 있으니 보통 시작점과 끝점이 실현되지 않는 상태상황유형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언어에 따라 매개변수가 다르므로 완전상이 일부 잠재적인 시작점을 지니는 상태상황유형에 사용되어 ‘새로운 상황의 시작’의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了₁’, ‘了₂’는 일부 상태상황유형에 쓰이는 경우 ‘새로운 상황의 시작’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기로 한다.

ㄷ. 他喜歡過英熙很久.(그는 영화를 오래 좋아한 적이 있었다.)

(21)처럼 영구적 속성의 상태상황유형¹²⁾에서 ‘了₁’, ‘了₂’의 사용은 허용되지 못하는데, (22)처럼 일시적 속성의 상태상황유형에서 ‘了₁’, ‘了₂’, ‘過’의 사용은 모두 허용된다. (22)에서 ‘了₁’은 ‘그는 영화를 좋아하는 상황’이 발화시 전에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了₂’는 ‘그는 영화를 좋아하는 상황’이 과거에 시작되었고 그런 상태가 발화시까지 지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데 반해, ‘過’는 그런 상태가 발화시와 단절되어 있음을 표현한다. 이은수(2005:49)에서 지적했듯이 완전상에 속하는 ‘了₁’, ‘了₂’, ‘過’는 일시적 속성의 상태상황유형과 결합하면 내부 시간 구조 중의 시작점만 가시화할 수 있으니 모두 참조 시점 이전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었음’을 표현하게 된다. 그런데 ‘過’는 선행된 상황의 결과가 참조 시점과 단절된 관계를 표현해서 ‘새로운 상황이 시작하게 된 후에 다시 종결됨’을 의미하게 된다.

요컨대, 일반적인 완전상 ‘了₁’, 결과의 완료상 ‘了₂’, 경험의 완료상 ‘過’는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에 모두 사용되며, ‘상대적인 과거’란 부차적 의미도 갖는다. 그리고 일부 상태상황유형에서 ‘了₁’, ‘了₂’는 ‘새로운 상황의 시작’이란 의미를, ‘過’는 ‘새로운 상황의 종결’이란 부차적 의미를 갖게 된다. 한편 ‘了₂’가 현재의 상황에 쓰이면 ‘계속 완료상’의 의미를 잠시 겸한다. 다섯 가지 기본 상황유형에 따른 ‘了₁’, ‘了₂’, ‘過’의 결합 의미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12) Smith, 위의 책, pp.32. 홍윤기, 「국어문장의 상적 의미 연구」, 경의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2, p.121-133. 이들 연구에 따르면, 상태상황유형은 잠재적인 시작점과 변화의 가능성을 갖는 ‘일시적 속성의 상태상황유형’, 잠재적인 시작점과 변화의 가능성을 모두 갖지 않는 ‘영구적 속성의 상태상황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표 2〉 기본 상황유형에 따른 ‘了₁’, ‘了₂’, ‘過’의 결합 의미

상황유형		‘了 ₁ ’	‘了 ₂ ’	‘過’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	행위상황유형	일반적인 완전상, 상대적인 과거	결과의 완료상, 상대적인 과거	경험의 완료상, 상대적인 과거
	순간상황유형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	완성상황유형			
	성취상황유형			
상태상황유형		새로운 상황의 시작	새로운 상황의 시작	새로운 상황의 종결

4. ‘-있었-’과 ‘了’, ‘過’의 의미 대조 및 대응 관계

이장에서 주어, 목적어 논항의 의미 변화와 일부 부가어의 첨가로 인해 하나의 기본 상황유형에서 다른 상황유형으로 파생되는 경우에 초점을 두어, 이들 파생 상황유형과의 결합에 따라 ‘-있었-’과 ‘了₁’, ‘了₂’, ‘過’의 의미를 대조하고 그들의 대응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주어 논항의 의미 변화와 관련하여, 양 언어에서 [-상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순간상황유형이나 [-상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성취상황유형에서 주어가 복수화되면 [-상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행위상황유형으로 파생된다. 이런 파생 행위상황유형에서 ‘-있었-’과 ‘了₁’, ‘了₂’, ‘過’가 나타내는 의미 및 대응 관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23) ㄱ. 그가 런던에서 촬영했을 때는 시내에서 폭탄 하나가 터졌었다.

ㄴ. 他在倫敦拍照的時候, 市中心爆炸了₁一個炸彈./他在倫敦拍照的時候, 市中心一個炸彈爆炸了₂.(그가 런던에서 촬영했을 때 시내에서 폭탄 하나가 터졌었다.)

ㄷ. 他在倫敦拍照的時候, 市中心爆炸過一個炸彈.(그가 런던에서 촬영했을 때 시내에서 폭탄 하나가 터진 적이 있었다.)

(24) ㄱ. 그가 런던에서 촬영했을 때는 시내에서 수많은 폭탄들이 터졌었다.

ㄴ. 他在倫敦拍照的時候, 市中心爆炸了₁許多炸彈./他在倫敦拍照的時候, 市中心許多炸彈爆炸了₂.(그가 런던에서 촬영했을 때 시내에서 수많은

폭탄들이 터졌었다.)

- ㄷ. 他在倫敦拍照的時候, 市中心爆炸過許多炸彈.(그가 런던에서 촬영했을 때 시내에서 수많은 폭탄들이 터진 적이 있었다.)

(23)의 순간상황유형에서 주어가 복수화되면 (24)처럼 행위상황유형으로 파생된다. 이처럼 주어의 복수화는 동사구의 [종결성]이 나타내는 자질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었었-’과 ‘了₁’, ‘了₂’, ‘過’의 의미 및 대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었었-’은 (23ㄱ)에서와 마찬가지로 (24ㄱ)에서도 ‘과거의 과거’란 기본 의미 및 ‘일반적인 완전상’이란 부차적 의미를 드러낸다. ‘了₁’, ‘了₂’, ‘過’는 (23ㄴ, ㄷ)과 같이 (24ㄴ, ㄷ)에서도 각각 ‘일반적인 완전상’, ‘결과의 완료상’, ‘경험의 완료상’이란 기본 의미 및 ‘상대적인 과거’란 부차적 의미를 갖는다. 이에 의하면, ‘-었었-’은 (23), (24)처럼 [-종결성]을 갖는 순간상황유형이나 순간상황유형에서 파생된 행위상황유형에 쓰이면 ‘일반적인 완전상’이란 부차적 의미를 나타내서 중국어의 ‘了₁’에 대응된다.

(25) ㄱ. 작년 정원에 꽃 한 송이가 활짝 피었었다.

- ㄴ. 去年院子里綻放了₁一朵花./去年院子里一朵花綻放了₂.(작년 정원에 꽃 한 송이가 피었었다.)

- ㄷ. 去年院子里一朵花綻放過.(작년 정원에 꽃 한 송이가 핀 적이 있었다.)

(26) ㄱ. 작년 정원에 수많은 꽃들이 잇따라 활짝 피었었다.

- ㄴ. 去年院子里陸陸續續地綻放了₁許多花./去年院子里許多花陸陸續續地綻放了₂.(작년 정원에 수많은 꽃들이 잇따라 피었었다.)

- ㄷ. 去年院子里陸陸續續地綻放過許多花.(작년 정원에 수많은 꽃들이 잇따라 핀 적이 있었다.)

(25)의 성취상황유형에서 주어가 복수화되면 (26)처럼 행위상황유형으로 파생된다. 이때 주어의 복수화는 동사구의 [종결성]이 나타내는 자질값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었었-’과 ‘了₁’, ‘了₂’, ‘過’의 의미 및 대응 관계도 달라진다. ‘-었었-’은 (25ㄱ)과 같이 (26ㄱ)에서도 ‘과거의 과거’란 기본 의미를 지니지만, 주어

의 복수화로 ‘결과의 완료상’이란 부차적 의미를 ‘일반적인 완전상’이란 부차적 의미로 바뀌며 ‘단절’이란 함축적 의미도 갖게 된다. 즉, ‘-었었-’은 (25ㄱ)에서 단순히 해당 상황을 하나의 전체 사건으로 ‘-었-’이 지시되는 기준시 전에 발생했음을 표현하는데, (26ㄱ)에서 해당 상황의 결과가 ‘-었-’이 지시되는 기준시 까지 지속됨을 나타낸다. 이와 반면에 ‘了₁’, ‘了₂’, ‘過’는 주어 복수화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의미 변화가 발생하지 않다. 그리하여 (25)에서 ‘-었었-’은 [+종결성]의 성취상황유형과 결합하여 ‘결과의 완료상’이란 부차적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 중국어의 ‘了₂’에 대응되며, ‘단절’이란 함축적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 중국어의 ‘過’에 대응된다. (26)에서 ‘-었었-’은 성취상황유형에서 파생된 [-종결성]의 행위상황유형과 결합하여 ‘일반적인 완전상’이란 상적 의미를 지녀서 중국어의 ‘了₁’에 대응된다.

그런데 ‘죽다(死)’류 동사를 동사구의 핵으로 하는 성취상황유형에서 파생된 행위상황유형과 관련하여, 다음의 예(27), (28)에서처럼 이들 중·한 문법 표지가 나타내는 의미 및 대응 관계를 다른 양상을 보인다.

(27) ㄱ. *인숙이 그 전쟁에서 죽었었다.

ㄴ. 仁淑在那場戰爭中死了₁, 眞叫人惋惜./仁淑在那場戰爭中死了₂. (인숙이 그 전쟁에서 죽었는데, 참 애석한 노릇이다./인숙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

ㄷ. *仁淑那場戰爭中死過. (*인숙이 그 전쟁에서 죽었었다.)

(28) ㄱ.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었다.

ㄴ. 許多人在那場戰爭中死了₁, 眞叫人惋惜./許多人在那場戰爭中死了₂.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는데, 참 애석한 노릇이다./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

ㄷ. *許多人在那場戰爭中死過.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었다.)

‘-었었-’은 (27ㄱ)에서 ‘죽다’류 동사를 동사구의 핵으로 하는 성취상황유형에 쓰이지 못하지만, (28ㄱ)에서 주어의 복수화로 파생된 행위상황유형과 결합하여 ‘과거의 과거’ 및 ‘일반적인 완전상’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了₁’, ‘了₂’는

(27ㄴ, ㄷ)과 마찬가지로 (28ㄴ, ㄷ)에서도 각각 ‘일반적인 완전상’, ‘결과의 완료상’의 기본 의미와 ‘상대적인 과거’의 부차적 의미를 드러낸다. ‘過’는 주어의 복수화와 상관없이 ‘死(죽다)’류 동사를 핵으로 하는 성취상황유형에 쓰이지 못한다. 이에 근거하여 ‘-있었-’은 (27)에서 중국어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으나, (28)에서 중국어의 ‘了₁’에 대응된다.

다음으로 목적어 논항의 의미 변화와 관련해서, 한·중의 행위상황유형에서 목적어 논항이 한정적인 명사구를 지니게 되면, [-상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자질값이 [-상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자질값으로 바뀌게 되고 완성상황유형으로 파생된다. 파생 완성상황유형에 따른 ‘-있었-’과 ‘了₁’, ‘了₂’, ‘過’의 의미 및 대응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29) ㄱ. 며칠 전에 철수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었다.

ㄴ. 几天前哲洙给朋友寫了₁信./几天前哲洙给朋友寫過₂信.(며칠 전에 철수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었다.)

ㄷ. 几天前哲洙给朋友寫過信.(며칠 전에 철수가 친구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었다.)

(30) ㄱ. 며칠 전에 철수가 편지 두 편을 썼었다.

ㄴ. 几天前哲洙给朋友寫了₁两封信./几天前哲洙给朋友寫過₂两封信了₂.
(며칠 전에 철수가 친구에게 편지 두 편을 썼었다.)

ㄷ. 几天前哲洙给朋友寫過两封信.(며칠 전에 철수가 친구에게 편지 두 편을 쓴 적이 있었다.)

(29)의 행위상황유형이 목적어 논항에서 한정적인 명사구를 지니게 되면 (30)에서처럼 완성상황유형으로 파생하게 된다. 이때 목적어의 의미 변화로 동사구의 [종결성]이 나타내는 자질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있었-’과 ‘了₁’, ‘了₂’, ‘過’의 의미 및 대응 관계도 영향을 받는다. ‘-있었-’은 (29ㄱ)과 같이 (30ㄱ)에서도 ‘과거의 과거’란 기본 의미를 지니지만, 목적어의 의미 변화로 ‘일반적인 완전상’이란 부차적 의미를 ‘결과의 완료상’이란 부차적 의미로 바뀌며 ‘과거의 완료’란 함축적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있었-’은 (29ㄱ)에서 해당 상황을 하나의 전체

사건으로 ‘-있-’이 지시되는 기준시 전에 발생했음을 표현하는데, (30ㄱ)에서 해당 상황의 결과가 ‘-있-’이 지시되는 기준시에 친구에게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음을 함의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있었-’은 철수가 친구에게 편지 두 편을 쓴 상황의 결과가 현재와 접점이 없는 과거에 있음을 지시한다. 하지만, ‘了₁’, ‘了₂’, ‘過’가 나타내는 의미는 목적어 논항의 의미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9)처럼 ‘-있었-’은 [-종결성]의 행위상황유형과 결합하면 ‘일반적인 완전상’의 의미를 드러내니 중국어의 ‘了₁’에 대응된다. (30)처럼 ‘-있었-’은 행위상황유형에서 파생된 [+종결성]의 완성상황유형과 결합하여 ‘결과의 완료상’이란 부차적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 중국어의 ‘了₂’에 대응되며, ‘과거의 완료’란 함축적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 중국어의 ‘過’에 대응된다.

한편 부가어의 첨가와 관련해서, 한·중의 행위상황유형에 ‘끝점’을 나타내는 부가어가 첨가되면, [-상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자질값이 [-상태성, +지속성, +종결성]의 자질값으로 바뀌게 되어 완성상황유형으로 파생된다. 다음의 예(31), (32)를 통해 이들 한·중 문법 표지들이 파생 완성상황유형과 결합하여 드러내는 의미 및 대응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31) ㄱ. 민호는 혼자서 산길을 걸었었다.

ㄴ. 民浩一個人走了₁一段山路./民浩一個人走了一段山路了₂.(민호는 혼자서 산길을 걸었었다.)

ㄷ. 民浩一個人走過一段山路.(민호는 혼자서 산길은 걸은 적이 있었다.)

(32) ㄱ. 민호는 혼자서 산길을 30킬로미터를 걸었었다.

ㄴ. 民浩一個人走了₁30公里山路./民浩一個人走了30公里山路了₂.
(민호는 혼자서 산길을 30킬로미터를 걸었었다.)

ㄷ. 民浩一個人走過30公里山路.(민호는 혼자서 산길을 30킬로미터를 걸은 적이 있었다.)

(31)의 행위상황유형에 ‘끝점’을 나타내는 부가어가 첨가되면 (32)처럼 완성상황유형으로 파생된다. (32)처럼 부가어의 첨가로 동사구가 [+종결성]을 갖게 된 것은 역시 이들 한·중 문법 표지의 의미 및 대응 관계에 관여한다. ‘-있었-’은

(31ㄱ)에서 ‘과거의 과거’란 기본 의미와 ‘일반적인 완전상’이란 부차적 의미를 갖는데, (32ㄱ)에서 ‘과거의 과거’란 기본 의미와 ‘결과의 완료상’이란 부차적 의미 및 ‘과거의 완료’란 함축적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了₁’, ‘了₂’, ‘過’의 의미는 ‘끝점’을 나타내는 부가어 첨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있었-’은 (31)에서 행위상황유형과 결합하여 ‘일반적인 완전상’의 의미를 기술하니 중국어의 ‘了₁’에 대응되며, (32)에서 행위상황유형에서 파생된 완성상황유형과 함께 쓰이면 ‘결과의 완료상’, ‘과거의 완료’를 의미해서 중국어의 ‘了₂’나 ‘過’에 대응된다.

그리고 일부 ‘빈도’를 나타내는 부가어의 첨가로 한·중의 동태동사구는 습관적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면, [-상태성]의 자질값이 [+상태성]의 자질값으로 바뀌게 되어 일시적 속성의 상태상황유형으로 파생된다. 파생된 일시적 속성의 상태상황유형과 관련하여, 이들 한·중 문법 표지의 의 의미 및 대응 관계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33) ㄱ. 아버지는 지난달에 술을 마셨었다.

ㄴ. 爸爸上個月喝了₁酒./爸爸上個月喝酒了₂.(아버지는 지난달에 술을 마셨었다.)

ㄷ. 爸爸上個月喝過酒.(아버지는 지난달에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34) ㄱ. 아버지는 지난달에 자주 술을 마셨었다.

ㄴ. *爸爸上個月經常喝了₁酒./*爸爸上個月經常喝酒了₂.(아버지는 지난달에 자주 술을 마셨었다.)

ㄷ. *爸爸上個月經常喝過酒.(아버지는 지난달에 자주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있었-’은 (33ㄱ)처럼 행위상황유형에서 ‘과거의 과거’, ‘일반적인 완전상’의 의미를 갖는데, (34ㄱ)처럼 ‘빈도’를 나타내는 부가어의 첨가로 파생된 일시적 속성의 상태상황유형에서 ‘과거’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了₁’, ‘了₂’, ‘過’는 (33ㄴ, ㄷ)에서 각각 ‘일반적인 완전상’, ‘결과의 완료상’, ‘경험의 완료상’의 기본 의미 및 ‘상대적인 과거’의 부차적 의미를 기술하지만, (34ㄴ, ㄷ)에서 파생된 일시적 속성의 상태상황유형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있었-’은 (33)에서

중국어의 ‘了₁’에 대응되는데, (34)에서 중국어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5. 결론

본 연구는 동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논항의 의미 변화 및 부가어의 첨가에 의한 문장의 의미 변화에 초점을 두어, ‘-었었-’과 ‘了₁’, ‘了₂’, ‘過’의 의미 대조 및 대응 관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황유형에 따른 이들 문법 표지의 의미 대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상황유형에 따른 ‘-었었-’과 ‘了₁’, ‘了₂’, ‘過’의 결합 의미 대조

상황유형		하위 분류		‘-었었-’	‘了 ₁ ’	‘了 ₂ ’	‘過’
[-종결성] 의 동태상황 유형	행위 상황유형	기본 유형		과거의 과거, 일반적인 완전상	일반적인 완전상,	결과의 완료상,	경험의 완료상,
		순간상황유형에서 파생된 것					
		성취상황유형에서 파생된 것					
	순간상황유형						
[+종결성] 의 동태상황 유형	완성 상황유형	기본 유형		과거의 과거, 결과의 완료상, 단절이나 과거의 완료	상대적인 과거	상대적인 과거	상대적인 과거
		행위상황유형에서 파생된 것					
		성취상황유형					
	상태상황유형						
상태상황유형		기본 유형		과거	새로운 상황의 시작	새로운 상황의 시작	새로운 상황의 종결
동태상황유형에서 파생된 것							

위의 <표 3>에서 보였듯이 한국어의 경우, 대과거 시제 표지 ‘-었었-’은 ‘과거의 과거’란 기본 의미를 표현하지만, 결합되는 상황유형의 [±종결성]에 따라 ‘일반적인 완전상’이나 ‘결과의 완료상’이란 부차적 의미를 나타냄을 논의하였다. 즉, ‘-었었-’은 [-종결성]을 갖는 ‘기본 행위상황유형’, ‘기본 순간상황유형’, ‘순간상황유형’이나 ‘성취상황유형’에서 파생된 ‘행위상황유형’에서 ‘일반적인 완전상’이란 부차적 의미를 가진다. 이와 달리 ‘-었었-’은 [+종결성]을 갖는 동태상황 유형에서 모두 ‘결과의 완료상’이란 부차적 의미를 나타내는데, 결과 단계를 갖

느냐에 따라 함축적 의미를 다르게 드러낸다. ‘-었었-’은 결과 단계를 갖는 ‘기본 성취상황유형’, ‘기본 완성상황유형’에서 ‘단절’의 함축적 의미를, 결과 단계를 갖지 않는 ‘기본 완성상황유형’, ‘행위상황유형에서 파생된 완성상황유형’에서 ‘과거 완료’의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중국어의 경우, ‘了₁’, ‘了₂’, ‘過’는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에 모두 사용되며, 각각 ‘일반적인 완전상’, ‘결과의 완료상’, ‘경험의 완료상’의 의미를 기본 의미로 삼고 ‘상대적인 과거’란 부차적 의미를 지님을 밝혔다. 그리고 상태상황유형에서 ‘了₁’, ‘了₂’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過’의 사용은 비교적으로 자유롭지만 파생된 일시적 속성의 상태상황유형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일부 상태상황유형에 쓰이게 되면 ‘了₁’, ‘了₂’는 ‘새로운 상황의 시작’의 의미를, ‘過’는 ‘새로운 상황의 종결’의 의미를 부차적으로 갖게 된다. 또한 ‘了₁’가 현재의 상황에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을 지니며, ‘過’가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을 갖는다. ‘了₂’가 모든 시제에 두루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 쓰이면 ‘계속 완료상’의 의미를 잠시 겸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결합되는 상황유형의 [±종결성] 이 이들 문법 표지의 대응 관계에 결정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상황유형에 따른 ‘-었었-’과 ‘了₁’, ‘了₂’, ‘過’의 대응 관계

상황유형	‘-었었-’	중국어 대응 표현
	부차적 의미/함축적 의미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	일반적인 완전상	‘了 ₁ ’
[+종결성]의 동태상황유형	결과의 완료상	‘了 ₂ ’
	단절이나 과거 완료	‘過’
상태상황유형	과거	없음

위의 <표 4>에서 제시하였듯이, ‘-었었-’은 [-종결성]을 갖는 ‘기본 행위상황유형’, ‘기본 순간상황유형’, ‘순간상황유형이나 성취상황유형에서 파생된 행위상황유형’에서 ‘일반적인 완전상’이란 부차적 의미를 나타내서 중국어의 ‘了₁’에

대응된다. ‘-었었-’은 [+종결성]을 갖는 ‘기본 완성상황유형’, ‘기본 성취상황유형’, ‘행위상황유형에서 파생된 완성상황유형’에서 ‘결과의 완료상’의 의미를 나타내면 중국어의 ‘了₂’에 대응되며, ‘단절’이나 ‘과거 완료’이란 함축적 의미를 지니면 중국어의 ‘過’에 대응된다. 한편, ‘-었었-’은 기본 상태상황유형이나 ‘빈도’를 나타내는 부가어의 첨가로 파생된 일시적 속성의 상태상황유형에 쓰이면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없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었었-’의 문법적인 의미 및 기능을 정확히 인식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중·한 번역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2004.
 김성화, 『국어의 상 연구』, 한신문화사, 1991.
 남기심, 『국어문법의 시제 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1978.
 陈前瑞, 『汉语体貌研究的类型学视野』, 北京:商务印书馆, 20008.
 戴耀晶, 『现代汉语时体系统研究』, 浙江:浙江教育出版社, 1997.
 龔千炎, 『汉语的時制,時相,時态』, 北京:商务印书馆, 1995.
 呂叔湘, 『汉语八百词』, 北京:商务印书馆, 1999.
 尚新, 『英汉体范畴对比研究』, 上海:上海人民出版社, 2007.
 Carlotia S. Smith,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Comrie, Bernard,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Li & Thompson,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Vendler, Z, "Verb and tim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Comell University Press, 1967.

2. 논문

- 강영, 「선행 용언 분류와 시상의 상관성- ‘-었-’과 ‘-었었-’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13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pp.245-265.

- 김종혁, 「중국어와 한국어의 시제/상 표지 대응관계 고찰」, 『중국어학논집』 제27집, 한국중국어문화학회, 2009, pp.23-39.
- 김홍실, 「한국어의 ‘-었-’과 중국어의 ‘了’의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제38집, 이중언어학회, 2008, pp.123-147.
- 문숙영, 「한국어 시제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박소영, 「한국어 시제 형태 ‘-었-’, ‘-었었-’ 새로 보기-클라인의 시제 이론의 관점에서」, 『형태론』 제4집, 2002, pp.11-35.
- 백은희, 「중국어 경험상 표지 ‘過’의 유형학적 특징과 문법화 과정」, 『중어중문학』 제73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8, pp.227-251.
- 송창선, 「‘-었었-’의 형태와 의미」, 『문화와 융합』 제23집, 문학과언어연구회, 2001, pp.103-120.
- 이남순, 「‘-었었-’攷」, 『진단학보』, 진단학회, 1994, pp.377-393.
- 이은수, 「현대 중국어 상 표지 연구: ‘了’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경험상 ‘過’와 ‘-은 적이 있-’, ‘-었었-’ 비교 연구」, 『중국어학논집』, 중국어문연구회, 2019, pp.57-85.
- 이재성, 「‘-었었-’구성에 대해」, 『원우론집』 제30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1999, pp.166-199.
- 왕예량,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 범주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정인진·원육임, 「경험상 표지 ‘過’와 문미 조사 ‘了₂’의 완료 용법 대조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제4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5, pp.155-175.
- 최란·조경순, 「‘-었₂’에서 ‘-었₂-’의 양태 의미에 대한 연구」, 『어문론집』, 중앙어문학, 2017, pp.35-69.
- 쭈즈웨이, 「문장 차원에서의 한국어 ‘-었-’과 중국어 ‘了’의 대조 연구-완전상(perfective)과 완료상(perfect)의 의미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52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2019, pp. 290-314.
- _____, 「문장 차원에서의 한·중 상 체계 대조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한동완, 「국어의 시제 범주와 상 범주의 교차 현상」, 『서강인문논총』 제10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 1999, pp.165-192.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8월 10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9월 04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9월 07일

Abstract

Study of the Correspondenc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Morpheme ‘-eoteot-’ and Chinese Perfective Aspect ‘le’ , ‘guo’

Zhu, Zihui · Jin, Jish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rrespondenc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morpheme ‘-eoteot-’ and Chinese perfective aspect ‘le’, ‘guo’ by reference to the situation type theory. Of the aspectual character inherent in the situation types, ‘telic’ is closely related to a variety of the interpretations of the Korean morpheme ‘-eoteot-’ and Chinese perfective aspect ‘le’, ‘guo’. The Korean morpheme ‘-eoteot-’ can express the meaning of perfective aspect and perfect aspect by the ‘telic’ aspectual character of the different situation types which is attached to. While, Chinese perfective aspect ‘le’ and ‘guo’ can describe an event that has finished before a reference time, thus conveying the past tense conception. The situation type of a sentence is conveyed by the verb and its arguments. However, some adverbs can also trigger situation type shifting and change the aspectual meaning. Those non-verb constituents are also important to analyze the aspectual meanings of sentences. This paper studies aspectual and tense meaning of the Korean morpheme ‘-eoteot-’ and Chinese perfective aspect ‘le’, ‘guo’ by focusing the non-verb constituents of sentences. It is hoped this research could give a favor for the people who study the languag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Keyword Korean morpheme ‘-eoteot-’, Perfective aspect, General perfective aspect, Perfect of result, Experiential perfect, Basic-level situation types, Derived-level situation types

‘나다:나오다’와 ‘出:出來’의 대조 분석 연구

탄 사 오 루 · 권 문 화 · 이 정 희 *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유의어 쌍 ‘나다:나오다’의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나다:나오다’ 그리고 그와 대응되는 중국어 유의어 쌍 ‘出:出來’의 의미 성분 분석 및 의미적 선호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어교육학적인 유의어 개념에 기반해 ‘나다’와 ‘나오다’의 의미 중 ‘출현’의 의미를 가진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의미 성분을 분석한 후 더 명확한 의미 차이를 밝히기 위해 말뭉치를 활용한 의미 선호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대응되는 중국어 유의어 쌍 ‘出:出來’와의 대조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나다:나오다’의 의미 변별 시 겪는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3장의 의미 성분 분석 결과 사전에서는 ‘나오다’는 ‘出來’와 대역되고 있지만 ‘나다’와 의미가 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4장의 의미 선호 분석을 진행한 결과, ‘나다:出’과 ‘나오다:出來’의 대역 관계는 공기 명사의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며 ‘出:出來’는 ‘나다:나오다’만큼 의미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의어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다:나오다’는 제시하는 단계에서부터 유의하여 설명해야 하고 사전을 활용한 의미 분석법 외에 모어인 중국어와의 대조, 말뭉치를 활용한 용례 검색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나다, 나오다, 유의어, 의미적 선호, 한중대조

* 제1저자: 탄사오루(譚笑茹),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제2저자: 권문화, 호남대학교 한국어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이정희,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나다:나오다’, ‘出:出來’의 의미 분석
4. ‘나다:나오다’, ‘出:出來’의 의미 선호 분석
5. 결론

1. 서론

본고는 한중 유의어쌍 ‘나다:나오다’, ‘出:出來’의 의미 구별을 위해 대조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다:나오다’, ‘出:出來’에 대해 의미 성분 분석 및 말뭉치를 활용한 의미적 선호 분석을 진행한다. 아울러, ‘나다:나오다’의 중국어 대응 유의어쌍 ‘出:出來’와의 대조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나다:나오다’의 의미를 구별함에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교육적인 시사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김광해(1995:259-260)에서는 유의 관계가 성립하는 의미적 원칙은 두 개 이상의 단어들에 하나 이상의 의미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한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원어민은 직관을 통해 유의어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어서 한국어 교육에서 유의어의 범주에 대해 더 종합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 의해 제기되었다. 문금현(2004:3)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유의어의 개념은 원어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달리 좀 더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유현경·강현화(2003)에서는 유의어를 의미 관계로만 제한하지 않고 유사 관계로 폭을 넓혀 논의한 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미적, 음운적, 형태적 등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학습자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두 개 이상의 어휘에 대해 연구 범주를 확장하여 진행한 바가 있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언제나 이들의 모어를 제외하고 논의할 수 없다. 김광해(1998:35)에 따르면 우리는 머릿속 사전(mental lexicon)에 일정한 어휘집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단어들을 큰 어려움 없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머릿속 사전은 처음에 모어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목표 언어의 의미 체계가 모어와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학습자가 불지불식간에 모어의 직관을 적용해 잘못 이해하게 된다.¹⁾ 예를 들어 ‘기억:추억’, ‘초대장:청첩장’의 단어 쌍에 대해 원어민들은 유의 관계로 보지 않고, 상하 관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지만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그 차이가 인식되기 어려워 유의어 쌍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문금현, 2004: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기억:추억’을 모두 ‘記憶’으로, ‘초대장:청첩장’을 모두 ‘請柬’으로 이해하여 이상의 어휘 쌍에 대해 그저 형태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 그들 간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 유의어 쌍 ‘나다:나오다’와 대응되는 중국어 유의어 쌍은 ‘出:出來’이다.³⁾ 한국어 ‘나다’, ‘나오다’는 전형적인 다의어로 각 50개, 30개의 의의(sense)를 가지는 반면 중국어 ‘出’와 ‘出來’는 다의어이지만 전자의 의의는 13개, 후자는 3개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어 지식을 바탕으로 ‘나다:나오다’의 많은 의의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⁴⁾

-
- 1) 이정희(2019, 138-139)에서 목표어와 모국어의 구조가 유사한지 다른지에 따라 학습의 난이도가 달라지며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에 차이가 클수록 오류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 이정희(2002: 183)에서는 모국어의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에 전이(transfer)로,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판단될 때는 간섭(interference)으로 간주하였다.
 - 2) ‘記憶’과 ‘請柬’은 하위어가 없는데, 그들의 하위 의미를 나타낼 때 수식어가 사용된다.
 - 3) 『고려대 한한중사전』에 따르면 ‘나다’는 중국어 ‘出’, ‘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한국어 해석에는 ‘표면 위로 나오다’로 ‘나오다’를 사용하여 ‘나다’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어 학습자로 하여금 그들 간의 의미 차이를 소홀하게 하는 여지가 있다. 또 『고려대 한한중사전』에서 ‘나오다’에 대해 ‘來’, ‘出’로 해석하였지만 이러한 해석이 합성 동사 ‘나오다’의 복합적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에듀월드 표준한한중사전을 참조하여 ‘出來’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4) 목표어에 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모국어의 두 개 이상의 형태로 분리되는 경우, 학습자가 항상 전형성이 강한 한 가지의 모국어 형태로 목표어 형태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유의어가 표시된 『연세대한국어사전』에 따르면 ‘나오다’의 의미에서 ‘나다’와 유의 관계가 성립되는 항목은 5개만 있다. 국어학적 연구 방법으로 유의어군 ‘나다:나오다’를 연구하면 『연세대한국어사전』에 제시된 5가지 의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외국어 교육학적 시각에서는 이 범주가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다:나오다’와 그의 대응 표현인 ‘出:出來’의 의미를 1차적으로 분석해보면 공동적으로 ‘출현’과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보고는 [+출현]의 자질을 공유하는 ‘나다’의 의의 41개, ‘나오다’의 의의 28개, ‘出’의 의의 10개, ‘出來’의 의의 2개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되는 말뭉치 자료는 연세 다의어 말뭉치로 의의 표기가 되어 있는 원시 말뭉치 자료인데, ‘나다’는 총 1074개, ‘나오다’는 총 1511개의 용례를 대상으로 공기어를 추출하여 의미적 선호를 분석할 것이다.⁵⁾ 중국어 ‘出:出來’의 분석은 BCC말뭉치에서 각 1000개의 용례를 추출하여 의미적 선호를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한국어 유의어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는 주로 연역적 접근법과 코퍼스언어학적 접근법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연역적 연구 방법에 기반한 김광해(1998)에서 Ogden&Richards의 의미의 기본 삼각형을 원용하여 유의어 의미 비교를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는데 유의어를 분석하기 위해 중심의미, 외연, 적용 범위, 함축, 용법, 짝 등 6가지 측면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추가로 의미·통사적 차이에 의해 유의어의 차이를 찾아내는 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김준기(2000)에서는 반의 검증법, 나열 검증법, 문법 체계 검증법, 치환 검증법, 성분 분석법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또한 손남익(2013)에서는 유의어 분석에 있어서 형태소에 대한 의미 분석, 용례 분석, 언어로서의 선택 제약 분석, 타언어 대역어와의 비교와 같이 네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컴퓨터를 활용하기 전까지 언어에 대한 설명·기술은 언어학자의 직관 또는

5) 연세 다의어 말뭉치는 『연세한국어사전』의 의미 분할 체계에 따라 만든 다의어 주석 말뭉치이고 총어절수는 1,165,224이다.

내성에 의존하였고, 언어 데이터는 언어 연구자들의 직관을 증명해 줄 동시에 새로운 직관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다(김진해, 2006:100; Partington, 1998: 144). 코퍼스를 활용한 유의어 관련 연구로는 최준(2011), 남길임(2014) 등이 있는데 이 연구들 중에 공통적으로 제기한 일련의 개념으로 연어(collocation), 연결범주(colligation), 의미적 선호(semantic preference), 의미적 운율(semantic prosody)이 있다.

연어라는 개념은 (Firth, 1957:194)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즉, 언어는 특정 단어에 대해 관습적인 위치에서 진술해주는 것을 말한다(Firth, 1968:181). Sinclair(1991:170)에 따르면 연어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문장의 어느 제한적인 공간에서 공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Hoey는 연어의 개념에 대해 대체적으로는 언어의 특성상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공통으로 출현하는 횟수가 빈번한 경우라고 하면서 이를 어휘적 공기 관계(lexical co-occurrence)로 지칭하였다. Hoey는 통계학적 측면에서 한 문맥에서 특정 어휘 항목과 동시에 출현하는 어휘의 빈도가 임의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빈도보다 높은 경우에 언어 관계가 존재한다고 제안했던 자신의 앞선 논의(Hoey, 1991)에 대해 방법론과 기술의 목적이 혼재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대해 보완하고자 Hoey(2005)에서는 연어를 코퍼스 언어학 및 통계적 기법으로 규명할 수 있는 심리언어학적인 현상이라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어에 대해 말뭉치에서 최대 네 개의 어절(word)이 공동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그 수의적 분포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고 제시하였다(Hoey, 2005). 해당 연구에서 Hoey는 심리학에서의 점화(priming) 이론에 착안하여 어휘 점화 이론(lexical priming)을 주창하였다. 여기에서의 점화는 한 단어가 목표 단어의 문장 내 출현을 촉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예기하다’라는 동사는 거의 대부분 ‘못하다’와 결합되어 ‘예기치 못함/못하게’로 나타나는데 이때 ‘예기하다’를 부정의 연결범주(colligation)에 점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Hoey, 2005; 남길임, 2014:63).

언어의 공기관계에 대한 개념은 언어와 연결범주 외에도 의미적 운율, 의미적 선호 등 개념이 있으며 코퍼스 언어학적 접근으로 언어 사용의 실제 경향성과 어휘의 결합관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졌다. 먼저, 의미적 선호(Semantic

preference)는 공기관계에 있는 어휘의 의미적 특징에 한정된 개념인데 이는 언어의 통사적(syntagmatic)·계열적(paradigmatic) 관계와 관련된다(Sinclair, 1998:16). Sinclair의 학설을 정리한 Stubbs(2009:125)에서는 의미적 선호에 대해 한 어휘(또는 표현)가 특정 어휘부류(lexical field) 소속 어휘와의 결합을 선호하는 정도라고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반복 출현하는 연어(collocates)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주제에 대해 예측 가능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하였다(예컨대, 문장의 주제 또는 동사의 주어에 대한 예측과 같은 것이다).

다음은 의미적 운율에 대한 개념인데 Sinclair(1991)에서 처음으로 해당 개념을 적용하였다. 한편, Louw(1993:157)는 의미적 운율에 대해 특정 형태가 그와 함께 나타난 연어에 의해 이루어진 일관된 기운(aura)을 의미적 운율이라 정의하며 사람의 직관으로 의미적 운율을 완전히 인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미적 운율에 대하여 ‘화용적 운율(discourse prosod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화용적 운율에 대해 선형 문자열(linear string)에서 하나 이상의 단위(unit)에 걸쳐 확장되는 기능이라고 정의하였다.⁶⁾ 의미적 운율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연어, 의미적 선호, 그리고 협의적인 의미적 운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루었다가 여러 후속 연구에 의해 점차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연구 중, 최준(2011)에서는 의미적 운율을 넓은 의미에서 연어, 연결 범주, 의미적 선호 및 협의의 의미적 운율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았지만 남길임(2014)에서는 의미적 운율과 의미적 선호를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고에서는 의미적 선호와 의미적 운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의미적 선호와 의미적 운율의 차이에 있어서는 stubbs(2001:66)에서 의미에 중심을 두느냐 화용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의미적 선호와 의미적 운율이 구별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다룬 연어, 연결범주, 의미적 선호, 의미적 운율에 대한 기술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언어의

6) 여기에서 단위(unit)는 Sinclair(2004:148)에서 제시된 어휘 항목(lexical item)으로 이해된다.

결합관계와 관련된 이상의 개념들을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한송화·강현화, 2004; 김진희·한송규, 2011; 남길임, 2014; 진령, 2016; Firth, 1957; Louw, 1993; Stubbs, 1996; Sinclair, 2004; Hoey, 2005).

〈표1〉 언어의 결합관계와 관련된 개념

연구자	구분	정의	비고
Firth(1957): 한송화·강현화(2004)	언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문장의 제한적인 공간에서 공기하는 현상으로 통계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함께 나타날 확률이 높은 단어들의 결합	어휘적 접근
Firth(1957): Hoey(2005): 남길임(2014)	연접범주	문법적 차원에서의 단어들 간의 관계로 특정 어휘와 형태 또는 문법 범주와의 관계	문법적 접근
Stubbs(2009): 김진희·한송규(2011): 진령(2016)	의미적 선호	의미 부류의 집합에 주목하는 의미론적 접근으로서 특정 어휘 부류와의 결합을 선호하는 것	의미적 접근
Louw(1993): Stubbs(1996): Sinclair(2004)	의미적 운율	특정 어휘의 감정적 태도 및 의미를 분석하는 화용론적 접근으로서 특정 어휘가 가지는 담화적이고 감정적인 의미	담화·맥락적 접근

대조언어학에서 이상의 개념을 적용한 XIAO&MCENERY(2006)에서 ‘consequence’류 명사, ‘cause’류 동사, 그리고 ‘price/cost’와 중국어 대응 어휘의 의미적 선호 및 의미적 운율을 연구하였는데, 연구의 결과로 중·영 어휘에서의 의미적 운율이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해당 연구를 통해 대조언어학적 연구 방법으로 의미적 선호 및 의미적 운율이 제2언어 어휘 학습에 있어서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일례로, 황은하(2016)에서 한중 동형동의 한자어 ‘이후’, ‘둘연’의 의미적 대조에서 의미적 선호 및 의미적 운율을 적용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앞선 연구를 통해 의미적 선호와 의미적 운율이 대조언어학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론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인 ‘나다:나오다’, ‘出:出來’와 공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해당 단어쌍들의 의미적 선호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3. ‘나다:나오다’, ‘出:出來’의 의미 분석

‘나다’, ‘나오다’의 의미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과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에서 세부적인 의미 기술과 다의 분할, 그리고 순서 배열에 차이가 있지만 큰 체계는 유사하다. 『표준』에서는 ‘나다’와 ‘나오다’의 의의를 각각 31개, 28개를 제시하고 있는 한편, 『연세』에서는 더 세밀하게 ‘나다’, ‘나오다’를 각 50개, 30개의 의의로 제시하고 있다. 다의 분할이 『표준』보다 더 상세한 것은 『연세』가 대규모 말뭉치를 기반으로 편찬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연세』는 다의 분할에 있어서 더 세밀한 장점이 있고 본고에서도 연세 다의어 말뭉치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므로 『연세』에서 제시한 ‘나다’, ‘나오다’의 의미 해석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⁷⁾

두 가지 단어에 대해 『연세』에 제시된 의의들을 분석해보면 공동적으로 [출현]이라는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의의를 추출하고 유의어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나다’, ‘나오다’의 의의 중에 의미자질이 한 가지 이상이 중첩되면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나다’의 IV-12, IV-13, IV-14, IV-16, IV-17, VII, VIII 번째 의의, ‘나오다’의 V 번째 의의를 분석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둘째, 본고는 연구 대상을 본용언으로 한정하고 보조용언에 대한 용법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나다’의 IX, X 번째 의의, ‘나오다’의 VI 번째 의의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이 되는 ‘나다’와 ‘나오다’ 의의는 아래와 같다.⁸⁾

7) 연세 다의어 말뭉치에 사용되는 의미 번호는 <연세한국어사전>과 동일하다.

8) 제외된 ‘나다’의 의의는 “IV-12. [주로 ‘~ 꼴 나다’로 쓰이어] (어떠한 지경이) 되다, IV-14. (사람의 됨됨이나 생김생김이) 뛰어나다, IV-16. (몸에 살이) 찌다, IV-17. (감정이나 심사 등이) 나쁘게 틀어지다, VII. 새로 살림을 차리려고 갈라져 나오다, VIII. 밋보이다, IX. [주로 ‘~고 나다’의 꼴로 쓰이어] (어떠한 동작이나 상태가) 이미 끝난 뒤가 되다, X. [동사의 ‘-아/-어’ 꼴 다음에 쓰이어] (무엇이) 생겨서 드러나다.”가 있다. 제외된 ‘나오다’의 의의는 “V. (어떠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다, VI. [동사의 ‘-아/어’ 꼴 다음에 쓰이어] 밖으로 드러나다.”가 있다.

〈표2〉 ‘나다’와 ‘나오다’의 사전적 의미

	나다 ¹⁾	나오다 ⁹⁾
유사 한 의의	I 1. (폴 따위가 볼 수 있도록) 거죽이나 땅 위로 돌아 나타나다.	Ⅳ5㉠ 안에서 밖으로, 속에서 겉으로 돈다.
	I 4㉠ (몸 속의 액체가 몸 밖으로) 흐르다.	Ⅳ5㉠ (무엇의 속으로부터) 액체가 밖으로 흐르다.
	I 7. (무엇이) 생기어 있게 되다.	Ⅱ3㉠ (어떠한 근원에서) 생기다.
	I 8. (뚜렷한 인물이) 생겨 나타나다.	Ⅳ8 (쓸 만한 어떠한 인물이) 배출되다. 새로 등장하다.
	V (출판물 같은 데에) 발표되다.	I 4㉠ (책, 신문, 잡지 따위에 어떤 글이나 그림이나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다. 실리다.
다른 의의	I 2. (무엇이) 만들어져서 있다.	I 1.㉠ (안에서) 밖이나 앞으로 오다.
	I 3. (무엇이) 생겨나서 있다.	I 1.㉠ (시골이나 변두리에서) 도심지로 오다.
	I 4.㉠ (몸 밖으로 무엇이) 솟거나 생기다.	I 1.㉠ (어떠한 일을 하려고 어떠한 곳에) 오다.
	I 4.㉠ (무엇이 몸 밖으로) 솟아 있다. 돈다.	I 2. (특별한 일을 하는 곳에 그 일을 하러) 오다.
	I 5. (어디에 자국 등이) 생기다.	I 3. (모임 등에 참석하러) 오다.
	I 6. (자리 등이) 생기다.	I 4.㉠ (영화에 모습이) 보이거나 나타나다.
	Ⅱ 1. (연기나 김 등이) 공중으로 솟다. 오르다.	Ⅱ 1. (어떠한 곳을 떠나) 밖으로 움직인다. (어떤 곳을) 떠나다.
	Ⅱ 2. (냄새나 소리 등이) 밖으로 드러나다.	Ⅱ 2. (어떤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 떠나오다.
	Ⅱ 3. (사람이) 태어나다.	Ⅱ 3.㉠ (어떤 원인으로부터) 생겨나다.
	Ⅲ 1. 병이 들다, 생기다.	Ⅱ 4. (어떤 단체나 조직으로부터 거기에 속한 사람이 그 단체에 관한 일로) 오다.
	Ⅲ 2. (기운 등이) 솟다.	Ⅲ 1. (학교의 정한 과정을) 마치다.
	Ⅲ 3.㉠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이) 생겨 일다.	Ⅲ 2. (무슨 일을 하려고 있던 곳에서 떠나) 오다.
	Ⅲ 3.㉠ (어떠한 기분이) 생기다.	Ⅳ 1. 갑자기 나타나다.
	Ⅲ 4. (어떠한 생각 등이) 떠오르다.	Ⅳ 2.㉠ (새 상품)이 세상에 나타나다.
	Ⅲ 5.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다, 생기다.	Ⅳ 2.㉠ (규정, 연구) 결과 따위가 세상에 공개되다.
	Ⅲ 6. (웃음이나 하품 등이) 나오다.	Ⅳ 3. (팔 물건이 시장에) 나타나다.
	Ⅲ 7. (맛이) 생기다.	Ⅳ 4. (천연 자원이) 산출되다.
	Ⅲ 8. 들뜬 마음이 생기다.	Ⅳ 6. 무엇이 나타나거나 발견되다.
	Ⅲ 9. (어떤 빔줄을) 띠다.	
	Ⅲ 10. (정신이) 들다.	
	Ⅲ 11. (사리를 가릴 줄 아는 힘이) 생기다.	
	Ⅳ 1. 어떠한 일이 일어나다.	
	Ⅳ 2. (불거리가) 생기다.	
	Ⅳ 3.㉠ (시간 등이) 생기다.	
	Ⅳ 3㉠ 생기다.	
	Ⅳ 4. (말이나 소문 등이) 세상에 알려지게 드러	

<p>나거나 나타나다. Ⅳ5. (어떤 일의) 결과가 맺어지다. Ⅳ6.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다. Ⅳ7. 끝나는 상태로 되다. Ⅳ8. 어떤 뚜렷한 상태가 되다. Ⅳ9. (어떤 일에 대한 사실이) 드러나다. Ⅳ10. (무엇이) 밖으로 드러나다. Ⅳ11. 어떠한 상태가 생기다. Ⅳ15. (어떠한 자연 현상이) 생기다. Ⅴ1. (어디에서) 산출되다. Ⅴ2. 돈 등이 생기다.</p>	<p>Ⅳ7. (말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되다. (말 소리가 나서 남에게) 들리다. Ⅳ9. (어떤 서류나 증서 따위가) 전달되다. Ⅳ10. (감정이나 생리 작용이) 드러나거나 나타나다. Ⅳ11. 일한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생기다. Ⅳ12. 앞으로 쭉 내밀다. 볼록하게 되다.</p>
---	---

‘나다’는 기본적으로 땅, 거죽 등 표면 위에 돌아 나타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오다’는 ‘안에서 밖으로 오다’라는 기본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본의미의 서술상으로 두 어휘는 [+출현], [+이동]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오다’는 이러한 특징에 의해 의미가 확장되어 ‘Ⅳ5㉠안에서 밖으로, 속에서 겉으로 돈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어 ‘나다-Ⅰ1.’와의 유의 관계를 맺게 된다. 아울러, 앞에 제시된 유의어로 판정되는 ‘나다’와 ‘나오다’의 의의들이 공동적으로 [+출현], [+이동], [+표출], [+배출], [+등재] 등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의미로는, ‘나다’가 물리적인 공간의 [출현]의 뜻으로 사용되며(Ⅰ2, Ⅰ6) 물체 혹은 신체 표면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거나 부착물이 솟아나는 뜻을 가지기도 한다(Ⅰ3, Ⅰ4, Ⅰ5, Ⅰ7). 사물이나 상태의 [생김]의 의미로 사용되며(Ⅳ3, Ⅳ11, Ⅳ15, Ⅴ1, Ⅴ2), [생김]의 의미 특징이 수반되는 [감지]의 특성에서 비롯하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색채나 기운, 미각으로 맛볼 수 있는 맛,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 등의 생겨남을 나타낸다(Ⅱ1, Ⅱ2, Ⅲ7, Ⅲ9, Ⅲ10, Ⅳ8). 감정이나 심리 활동의 생김은 실제로 보일 수 없어서 ‘나다’가 추상적인 의미로도 사용됨을 알 수 있으며(Ⅲ3, Ⅲ4, Ⅲ5, Ⅲ8, Ⅲ11), [출현]의 의미 특징에 의해 ‘드러나다’나 ‘산출되다’의 뜻으로도 쓰인다(Ⅳ9, Ⅳ10, Ⅴ).

9) 해당 사전에서는 ‘나오다’의 앞 다섯 가지 의미에 대해 ‘나다’와 유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어떤 사건의 [발생]의 뜻이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끝남]의 뜻으로도 사용되고(Ⅳ1, Ⅳ2, Ⅳ6, Ⅳ5, Ⅳ7) 사람과 연관을 지었을 때, [태어남]의 뜻을 지니며 ‘웃음’, ‘한숨’ 등 생리 반응의 [출현]을 의미하기도 한다(Ⅱ3, Ⅲ1, Ⅲ2, Ⅲ6).

‘나오다’는 ‘안에서 밖으로’라는 [이동]의 기본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이동이 주기적일 경우, ‘나오다’가 일하러 간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어떤 지점으로 이동할 때 대부분 그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 특징이 Ⅰ1, Ⅰ2, Ⅰ3, Ⅱ4, Ⅲ2에 반영되어 있다. 한편, [이동]이 [이탈]로도 이해될 수 있어서 ‘떠나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며 ‘학교를 떠나다’는 보통 졸업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Ⅱ1, Ⅱ2, Ⅲ1). [출현]의 의미 특징에 의해 ‘나오다’는 나타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 이를 토대로 ‘상품이 출시되다’, ‘발견되다’, ‘출연하다’, ‘산출되다’ 등의 뜻으로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Ⅰ4ㄴ, Ⅳ1, Ⅳ2, Ⅳ3, Ⅳ4, Ⅳ5, Ⅳ6, Ⅳ8, Ⅳ9, Ⅳ12). 또한 일의 마무리를 짓는다는 뜻으로 ‘나오다’가 사용되며(Ⅲ1, Ⅳ11), ‘나다’와 비슷하게 ‘기침’ 등의 생리 현상의 나타남을 표현하는 데에 쓰인다(Ⅳ10).¹⁰⁾¹¹⁾ 마지막으로 ‘나다’와 비슷하게 사물의 [생김]의 의미로 사용되며 [생김]의 의미 특징이 수반되는 [감지]의 특성에서 비롯하여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생겨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Ⅱ3ㄴ, Ⅳ7, Ⅳ10).

두 어휘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나다’는 새 공간의 [출현], 물체나 신체 표면의 [표출], 인간의 생리 반응 현상, 감정 그리고 감각의 [생김], 사건의 [발생], 결과의 [표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나오다’에는 [이동]의 의미가 강조되어 사물의 이동 및 그 이동의 목적, [이동]의 의미를 더 확장하여 [출석],[이

10) ‘나다’의 Ⅲ6번 의의인 ‘(웃음이나 하품 등이) 나오다’는 의미해석에 ‘나오다’가 사용되어 ‘나오다’와 유의어로 볼 수 있으나, ‘나오다’의 Ⅳ10번 의의 ‘(감정이나 생리 작용이) 드러 나거나 나타나다’에는 ‘나다’와의 유의어 관계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나다’의 Ⅳ5번 의의인 ‘(어떤 일의) 결과가 맺어지다.’와 ‘나오다’의 Ⅳ11번 의의인 ‘일한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생기다’가 의미 해석에 의해 비슷한 의의로 판단되지만 역시 비슷한 말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의의를 ‘비슷한 의의로’ 제시하지 않았다.

11) Ⅳ12번 의의는 의미 해석만으로 제대로 이해하기가 부족해 예문이랑 용례를 참조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광대뼈가 나오다’, ‘배가 나오다’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탈],[끝남]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사물이나 인물의 [출현]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며 청각적인 감지 및 일부 감정이 [생김]의 뜻도 가진다.

〈표3〉 ‘出’와 ‘出來’의 사전적 의미

出1	出來
1. 안에서 밖으로 가다(縱裡面到外面: ~來, ~去) 2. 출석하다(來到: ~席, ~場) 3. 넘다, 초과하다(超出: ~軌, ~界) 4. 내놓다, 지출하다(往外拿: ~錢, ~布告) 5. 산출하다(出產: ~煤, ~木材) 6. 발생하다(發生: ~問題) 7. 출판하다(出版) 8. 내뿜다, 털어놓다(發出, 發滯: ~芽, ~汗) 9. 발췌하다(引文, 典故等見于某處) 10. 드러나다(顯露)	1. 안에서 밖으로 가다(縱裡面到外面來) 2. 나타나다(出現)

중국어에서 ‘出’은 총 13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 본용언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앞 10번째까지이며 ‘出來’는 ‘出’에서 파생된 구(phrase)로 제시하고 있는데, 총 3가지의 의미에서 앞 2가지가 본용언으로 사용된다. ‘出’, ‘出來’의 기본의미는 ‘나다’와 ‘나오다’와 비슷하게 [출현], [이동]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出’이 기본 의미에 의해 파생된 전이 의미가 다양한 반면에 ‘出來’는 한 가지의 전이 의미만 가지고 있다. ‘出’이 독자적으로 [초과], [지출], [발췌] 등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나다’보다 의미 확장이 제한되며 이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모여 대역어로 ‘나다’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出來’는 ‘出’에서 파생된 구로 보기 때문에 ‘出’의 의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러한 특징을 ‘나오다’의 이해에 무의식적으로 적용하면 더욱 혼란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나다:나오다’의 의미 구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나다:나오다’, ‘出:出來’의 의미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결과에 의해 ‘나다’는 ‘出’과 대역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차이가 존재한 것을 알 수 있고 ‘나오다’의 대역어는 ‘出來’이지만 의미 성분에 있어서 ‘出’과 더 가까운 유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出來’의 두 가지 의의가 ‘出’의 의의와 대응되지만, ‘나오다’는 오히려 ‘나다’와 차이가 존재하는 의의가 더 많아 중국인 학습자가 모여 지식을 기반으로 ‘나다:나오다’의 의미 관계를 더 혼동하

게 된다.¹²⁾ 이러한 의미 차이에 대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4장에서는 의미 선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표4〉 ‘나다’, ‘나오다’, ‘出’, ‘出來’의 의미 성분 분석 결과

[illegible]

4. ‘나다:나오다’, ‘出:出來’의 의미 선호 분석

이 장에서는 ‘나다’, ‘나오다’, ‘出’, ‘出來’의 유의적 의미 변별을 위해 말뭉치를 활용하여 의미적 선호에 대해 분석한다. 따라서 말뭉치 용례에서 네 가지 어휘 항목과 언어 관계를 이루는 명사를 수집하여 그들의 의미적 특징에 근거해 공기 명사의 의미 부류를 정리하는 데에 최경봉(2015:83-109)에서 제시한 ‘존재론적 인식 틀’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일부 세부 부류는 수요에 따라 추가하였다. 본고에서 적용한 명사 의미 부류는 표5에 제시한 바와 같다.¹³⁾

12) ‘땀이/눈물이 나다’ 등 일부 용례에서 ‘나다’가 ‘나오다’와 교체해도 가능하다. 이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나다:나오다’가 중국어 대응 어휘쌍 ‘出:出來’와 동일하게 교체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기 쉬어 ‘*생각이/병이/난리가 나오다’ 등의 오류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어휘들 간의 어휘적 선호를 연구하여 그 속에 내포되는 공기 규칙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13) 최경봉(2015)에서는 방향을 나타내는 ‘앞’, ‘뒤’ 등 단어, 그리고 인칭 대명사를 따로 분류

〈표5〉 명사 의미 부류

대분류	소분류	하위분류	예시
실체명사	인간명사		사람, 인제, 농민, 인물, 여자, 그녀
	사물명사	공간	집, 방, 학교, 연구실, 공장
		개체	해, 달, 콩, 쌀, 밀, 석탄, 기름, 설탕, 식량
		부분체	신체 부위:배, 입술
비실체명사	상태명사	현상	질병: 배탈, 병 생리 현상: 눈물, 열, 구역질, 땀 감각: 소리, 냄새, 맛
		차원	시간:때
		심리	정서:화, 용기, 겁, 짜증
	사건명사	과정 ¹⁴⁾	주관적: 생각, 기억, 말 객관적: 고장, 난리, 홍수,
		결과	성과, 효익, 성적

‘나다’, ‘나오다’의 공기 명사를 중심으로 의미 부류에 따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뭉치 용례를 분석하였다.

〈표6〉 ‘나다’ 및 ‘나오다’의 공기 명사¹⁵⁾

‘나다’의 공기 명사(상위 50)	‘나오다’의 공기 명사(상위 50)
소리99, 생각68, 것59, 화56, 냄새43, 신43, 겁39, 기억21, 나21, 화가19, 들18, 고장17, 볼17, 병16, 큰일15, 때14, 눈물12, 맛12, 사고12, 일12, 짜증11, 곱10, 뽀10, 표10, 눈9, 데9, 바람9, 용기9, 길8, 끝8, 남8, 땀8, 말8, 배탈8, 소문8, 해8, 홍수8, 구역질7, 기7, 난리7, 남자7, 몸7, 어디7, 열7, 용기7, 우리7, 임금님7, 집7, 쿵7, 그때6	말49, 사람49, 나41, 이야기41, 때38, 집37, 뉘36, 우리26, 수25, 얘기21, 그20, 인물20, 방18, 앞17, 물15, 너14, 들14, 배13, 학교13, 눈물12, 소리12, 어디12, 영화12, 오늘12, 책12, 목소리11, 사진11, 텔레비전11, 연구실10, 웃음10, 차10, 곳9, 공장9, 년9, 대학9, 번9, 어머니9, 여자9, 월요일9, 의견9, 입술9, 장면9, 형9, 거기8, 과8, 광고8, 그녀8, 곱술 머리8, 문제8

하였지만 본고는 이러한 단어들이 용례에서 쓰인 의미적인 기능에 따라 공간명사와 인간명사에 분류하기로 하였다.

- 14) ‘생각’의 의미에는 심리성을 띠므로 상태 동사에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나 최경봉(2015:122)에서는 ‘생각’의 의미적 초점을 그러한 상태를 불러일으킨 ‘시작’에 두어야 하는 관계로 사건 명사에 분류하였다.
- 15) 좌우 양쪽 3어절 내의 공기 명사를 통계한 결과이다.

〈표7〉 의미부류에 따른 ‘나다’의 공기 명사

구분	의미 부류	세부 분류	용례
나다	사물명사	개체	이제는 영월에서 강을 따라 영춘으로 가는 15-16km의 길이 크게 나 있다.
	사건명사	과정	주관적 올썩 엄마 생각이 나서 영구는 소리를 낮춰 울어 버렸다.
			객관적 세찬 파도가 휘감아 버리자, 기관실도 무전도 모두 고장이 났습니다.
	상태명사	현상	생리현상 너무 놀란 나머지 처음에는 눈물도 나지 않았다.
			감각 야 !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질병 호랑이는 숲 속 동물들한테 자기가 큰 배탈이 났으니 문병을 오라고 알렸습니다.
		심리	화가 나서 붉게 상기된 얼굴로 문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
		차원	시간이 나면, 독서도 하고, 음악 감상도 하고... 꽤 여러 가지예요.

〈표8〉 의미 부류에 따른 ‘나오다’의 공기 명사

구분	의미 부류	세부 분류	용례
나오다	인간명사		실내에 들어가고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거나 나오도록 양보한다.
	사물명사	개체	이 책은 한자를 뜻과 음을 달아 읽는 것인데, 뜻과 음을 적어 놓은 책도 나왔다.
		공간	그렇게 밤에 집을 나온 것이 이번이 세 번째였다.
		부분체	뺨슬머리가 나오든가 뺨 입술 두꺼운 입술이 나오든가 그러겠지, 흑인의 특질이 나오겠지만은 ...
	사건명사	과정	주관적 말이 나온 김에 장수 마을 한 번 가 보는 거 어때요?
			객관적 그 위정자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보호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상태명사	현상	생리현상 나는 자신감이 넘쳐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감각 ‘야 , 그만 뒤.’ 횡단보도로 향하는 동호를 뉘아채면서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다.
		차원	실내에 들어가고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거나 나오도록 양보한다.

‘나다’가 사물명사와의 공기 용례에는 개체로 볼 수 있는 ‘길’, ‘해’, ‘콩’, ‘집’이 있다.¹⁶⁾ ‘나다’는 상태 명사와의 공기 용례에서 심리 관련 명사로 ‘화’, ‘신’, ‘용기’, ‘집’ 등과 결합하여 감정이 생겨난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현상 관련 명사에는 질병, 생리 증상, 그리고 감각이 나타나는 ‘병’, ‘배탈’, ‘눈물’, ‘땀’, ‘구역질’, ‘열’, ‘소리’, ‘냄새’, ‘맛’과 선호하여 연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⁷⁾ 사건 명사와의 공기 용례에는 과정 관련 명사와의 결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생각’, ‘기억’, ‘말’ 등 주관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명사와 공기하는가 하면 ‘고장’, ‘불’, ‘소문’, ‘난리’, ‘홍수’, ‘사고’ 등 부정적인 의미 특징을 가진 객관적 사건과 공기하는 용례가 많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나다’는 시간이 나타나는 ‘때’와 자주 공기하며 ‘표’, ‘바람’, ‘끝’ 등 명사와 결합한 후 관용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나오다’의 공기 명사는 네 개의 소분류에 모두 분포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기하는 인간명사에는 ‘사람’, ‘여자’, ‘어머니’ 등 실제적인 인물이 나타나는 명사가 있는가 하면, ‘인물’처럼 추상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 ‘그’, ‘그녀’ 등의 대명사와 공기하는 용례도 나타난다. 상태명사에 있어서 현상과 관련하여 생리 증상이 나타나는 ‘눈물’, ‘웃음’과 결합이 가능하며 감각 특히 청각과 관련된 ‘소리’, ‘목소리’의 공기 용례가 검색되었다. 또한 시간을 나타내는 ‘때’와의 공기 용례에는 수식형으로 ‘나을 때’처럼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건 명사와의 공기 관계에는 주로 ‘말’, ‘이야기’, ‘의견’ 등처럼 주관적인 의도가 포함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명사가 발견되며 객관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문제’와 공기하지만 그 빈도가 낮고 ‘시험 문제’와 같이 실제 명사에 가까운 의미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오다’와 공기하는 사물명사는 공간, 개체, 부분체로 나뉘는데 공간 관련 명사에는 ‘집’, ‘방’, ‘학교’ 등 물리적 장소가 있는가 하면, ‘장면’처럼 추상적인 장소를 표현하는 공기 명사도 있고, ‘학교를 나오다’라고 할 때에 학교라는 물리적인 장소를 이탈한다는 뜻도 있지만 ‘학업을 마치다’라는 관용 표현으로도

16) ‘집이 나다’에서의 집은 ‘사고 팔 집’의 뜻으로 사용되어 개체로 판단되지만 ‘집을 나오다’에서는 ‘집’이 장소로 판정되는 것이 적합하다.

17) 탄야오루·김연희·이정희(2020)에서 ‘나다’와 공기하는 질병 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연구가 있다.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체 사물 명사에는 ‘차’, ‘물’ 등 일반 사물과 공기하는 용례가 있는가 하면 ‘책’, ‘영화’, ‘텔레비전’, ‘사진’, ‘광고’ 등 미디어 관련 명사와 공기하는 용례가 더 많이 검색되어 ‘출판되다’, ‘실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신체 부위 명사와 공기하여 그 부위를 눈에 띄게 내민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표9〉 ‘나다’와 ‘나오다’의 의미적 선호 비교

	나다	나오다
공기 명사의 공통 의미 부류	사물명사-개체, 사건명사-과정, 상태명사-현상-생리 증상, 상태명사-현상-감각, 상태명사-차원,	
공기 명사의 차이 의미 부류	상태명사-심리, 상태명사-현상-질병,	인간명사, 사물명사-공간, 사물명사-부분체,

따라서, ‘나다’와 ‘나오다’의 공기 명사의 공통 의미 부류 및 차이 의미 부류를 〈표9〉와 같이 정리하였다. 두 단어는 모두 개체가 나타나는 사물 명사와 공기하여 해당 사물이 생기어 나타난다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나오다’를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주체의 이동이 강조된다. ‘현상이 나타남’의 의미로서 상태명사와의 공기 용례에서 ‘나다’와 ‘나오다’는 공통적으로 생리 증상, 감각의 일어남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질병의 발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나다’만 사용된다. 사건명사와의 공기 용례에는 두 단어가 모두 ‘말’ 등 주관적인 사건의 일어남이 나타날 때 쓰인 것으로 보이지만 ‘생각’, ‘기억’ 등 심리적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나다’만 사용이 되었다. 또한 ‘나다’, ‘나오다’는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때’와 수식형 언어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한편, ‘나다’는 독자적으로 희노애락과 관련된 심리적 상태명사와 공기하며, ‘홍수’, ‘사고’, ‘불’, ‘소문’, ‘난리’ 등의 부정적인 의미 특징을 띠는 객관적 사건 명사와 공기하는 양상이 보인다. 이에 반해, ‘나오다’는 인간명사, 공간명사와 공기하여 주체가 이동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장소가 학교일 때 [이탈]의 의미가 더 확장되어 학업을 마쳤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신체 부위 명사와도 공기하며 ‘영화’, ‘책’, ‘텔레비전’ 등 미디어 관련 명사와의 공기 용례도 있다.

‘出’의 동사 용법이 포함된 용례만 분석할 때, ‘出’은 문장 성분으로 서술어와 보어(趨向보어)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보어로 사용될 때의 예인 ‘拿出一本書’ 중에서 ‘出’은 추상보어로¹⁹⁾ 판단되어 이러한 경우의 ‘出’은 목적어가 필요한 성분이 아니며 본용언으로서의 ‘나다’와의 용법이 아예 다르기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본용언으로 쓰인 ‘出’과 ‘出來’의 용례 각 1000개를 추출해서 ‘出’의 오른쪽 한 자리, ‘出來’의 왼쪽 한 자리에 나타나는 공기 명사를 통계한 결과 표10과 같다.

〈표10〉 ‘出’과 ‘出來’의 공기 명사

‘出’ 뒤에 이어지는 명사(상위 50개)	‘出來’ 앞에 나타나는 명사(상위 33개) ²⁰⁾
人才60, 書50, 主意45, 煤35, 成果30, 問題29, 鋼28, 村27, 政權22, 事故22, 城19, 縣17, 隊16, 糖15, 省15, 油14, 效益14, 廢品14, 精品13, 汗13, 人13, 產品13, 錢11, 貨10, 社9, 庫9, 肉8, 洞8, 款8, 鄉8, 槍7, 智慧7, 故障7, 國門7, 酒6, 資金6, 糧6, 技術6, 鍋5, 船5, 成績5, 差錯5, 巨資5, 家門5, 牆5, 辦法5, 黑板報4, 糧食4, 牆報4, 財源3	太陽99, 人69, 學校52, 戰俘28, 敵人15, 苗13, 農村11, 貢獻9, 代表9, 門8, 醫院8, 問題7, 車7, 月亮7, 家7, 油6, 同志6, 手5, 幹部5, 號外5, 辦公室5, 農民5, 俱樂部5, 麥子4, 群眾4, 監獄4, 政府4, 家庭4, 國家4, 人民4, 人員4, 產品4, 書4

위 표에 제시된 ‘出’과 ‘出來’의 공기 명사를 중심으로 의미 부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8)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형태에 의해서 품사를 판별하기 어렵다. 중국어 ‘出’은 동사 용법 외에도 수량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명사 등 용법이 있으나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용법은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하기로 하였다.
- 19) 黃伯榮·廖序東(2002:97)에서 추상보어는 동작의 방향이나 사물이 동작에 따라서의 활동 방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 20) ‘出來’에 대해 다른 단어와 동일하게 공기 명사 상위 50개를 추출하려고 하였으나 33위 뒤에 같은 의미 부류의 명사가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빈도가 3이하로 떨어져 제시하지 않았다.

〈표11〉 의미 부류에 따른 ‘出’의 공기 명사

구분	의미 부류	세부 분류		용례
出	인간명사			搞科学研究一是要出成果, 二是要出人才.(과학 연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성과를 내는 것, 두 번째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사물명사	공간		许多村庄群众有了小伤小病, 不出村就能买到药.(시골 민중들은 작은 병이 생겼을 때, 마을 안 나가도 약을 살 수 있다.)
		개체		他们决心按国家要求的品种出钢.(그들은 나라의 요구에 의해 철강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사건명사	과정	주관적	在每周车间的业务会议上, 他还积极地出主意想办法.(매주 현장 업무 회의에서 그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객관적	过去小组在产品质量上经常出问题.(기존 팀에선 제품 품질 문제가 자주 생겼다.)
		결과		从某种意义上说, 落实也是手段, 出成果, 出效益才是目的.(어떻게 보면, 실천이 수단일 뿐, 성과, 효익이야말로 마지막의 목표이다.)
	상태명사	현상	생리 현상	有的孩子因出汗过多身上长了痱子.(어떤 아이들은 땀이 많아 나서 땀띠가 생겼다.)

〈표12〉 의미 부류에 따른 ‘出來’의 공기 명사

구분	의미 부류	세부 분류		용례
出來	인간명사			舅娘出来接见我母亲(외숙모가 어머니를 마중하러 나왔다.)
	사물명사	공간		从家出来支援前线已好几天了(전선을 지원하러 집을 나온 지 며칠이 되었다.)
		개체		太阳出来满地红.(해가 나면 땅이 붉어진다.) 苗出来后再灌水.(싹이 트고 나면 물을 준다.)
	사건명사	과정		社会上的许多新问题出来了.(사회에 많은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

‘出’이 인간명사 ‘人才’, ‘人’과의 공기 용례에는 각각 ‘배출(輩出)되다’, ‘일손을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出人才’라는 언어 표현이 가장 많이 검색되었다. 공간 명사와의 공기 용례에는 ‘村’, ‘城’, ‘縣’, ‘隊’, ‘省’, ‘社’ 등 행정 구획을

나타내는 공기 명사가 있는가 하면 ‘庫’, ‘洞’, ‘國門’, ‘館’, ‘家門’, ‘牆’ 등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공기 명사도 있다. 개체가 나타나는 사물 명사와의 공기 용례에는 원자재가 나타나는 ‘煤’, ‘鋼’, ‘糖’, ‘油’, ‘糧’, 제품을 통틀어 이르는 ‘廢品’, ‘精品’, ‘產品’과 공기하여 산출된다는 뜻으로 쓰인다. ‘금전과 관련된 ‘錢’, ‘款’, ‘資金’, ‘巨資’와 공기하여 돈을 제공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書’, ‘黑板報’와도 많은 공기 용례가 검색되어 출간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리 증상인 ‘汗’과 공기하여 땀이 난다는 뜻으로도 사용되며 과정을 나타내는 사건 명사에 주관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主意’, ‘智慧’, ‘辦法’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 특징을 가진 객관적 사건인 ‘問題’, ‘事故’, ‘故障’, ‘差錯’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成果’, ‘效益’, ‘成績’과 공기하여 성과를 거둔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出來’는 [이동]의 의미로 인간명사와의 공기 용례에는 ‘人’, ‘戰俘’, ‘敵人’, ‘代表’, ‘農民’, ‘群衆’, ‘人民’ 등 다양한 명사와 공기하며 공간명사 ‘學校’, ‘農村’, ‘門’, ‘醫院’, ‘家’, ‘辦公室’ 등 앞에 ‘從’을 부착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이탈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나오다’와 동일하게 ‘學校’와 공기할 때 학업을 마쳤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개체가 나타나는 뜻으로 사물명사 ‘太陽’, ‘月亮’, ‘車’와 공기하는 용례가 있고 ‘苗’, ‘麥子’ 등과 공기하는 용례에서 ‘내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書’, ‘號外’와의 공기 용례에서는 출판된다는 뜻이며, ‘油’, ‘產品’과의 공기 용례에서는 ‘산출되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외, 사건명사 ‘問題’와 공기하여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出來’는 사전에서 ‘出’의 하위 표제어인 보어구로 제시되는 만큼 공기 명사에 있어서 ‘出’의 공기 명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두 어휘의 의미적 연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出來’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용례에서 ‘出’과 ‘出來’의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의미적인 유사도가 높은 유의어 쌍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出’은 독자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다’, ‘성과를 거두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공기 용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出:出來’는 의미적 선호에 있어서 ‘나다:나오다’보다 그리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어의 배경 지식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가 ‘나다:나오다’의

의미를 습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13〉 ‘出’, ‘出來’의 의미적 선호 비교

	出	出來
공기 명사의 공통 의미 부류	인간명사, 사물명사-공간, 사물명사-개체, 사건명사-과정	
공기 명사의 차이 의미 부류	상태명사-현상, 사건명사-결과	없음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공기 명사의 의미 부류에 따라 ‘나다’, ‘나오다’, ‘出’, ‘出來’의 의미적인 선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4〉 ‘나다’, ‘나오다’, ‘出’, ‘出來’의 의미적 선호 대조

의미 부류	나다	나오다	出	出來
인간명사	x	o	o	o
사물명사-개체	o	o	o	o
사물명사-공간	x	o	o	o
사물명사-부분체	x	o	x	x
사건명사-과정-주관적	o	o	o	x
사건명사-과정-객관적	o	o	o	o
사건명사-결과	x	x	o	x
상태명사-차원	o	o	x	x
상태명사-심리	o	x	x	x
상태명사-현상-질병	o	x	x	x
상태명사-현상-생리 현상	o	o	o	x
상태명사-현상-감각	o	o	x	x

의미적 선호에는 네 개의 어휘가 모두 기본 의미인 [출현]의 의미로 개체와 관련된 사물 명사와 공기하는 공통점이 있다. 개체와 관련된 사물명사와의 공기 용례에는 ‘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어휘는 ‘책’, ‘신문’ 등 미디어 관련 동사와 공기하여 출판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出:出來’는 ‘금전을 제공하다’, ‘제조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명사와의 공기 용례에는 ‘나오다’, ‘出’, ‘出來’가 사용되지만 ‘出’의 공기 용례에는 ‘제공하다’, ‘배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반면, ‘나오다’와 ‘出來’에는 주체가 이동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나다’의 사전적 의미 분석에는 ‘배출하다’라는 뜻이 ‘出’과의 용법적인 의미가 동일하지만 이러한 용법이 ‘나다’의 용례에서 흔하지 않았다. 장소를 기점으로 하는 이동을 표현할 때에 ‘나오다’, ‘出’, ‘出來’가 쓰이며 이는 [이동]을 내포하는 ‘나다’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어떠한 현상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상태명사와의 공기 용례에는 ‘나다’, ‘나오다’가 신체를 중심으로 질병 관련 명사, 생리 증상 관련 명사, 감각 관련 명사와 다양하게 공기하는 반면에 ‘出’은 아주 제한적으로 ‘汗’과 공기하여 땀이 난다는 뜻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다’, ‘出’이 객관적인 사건인 ‘사고’, ‘홍수’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 특징을 띠는 명사와 공기하는 용례가 많으며, ‘나오다’와 ‘出來’는 부정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문제’와 제한적으로 공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出’과 공기하는 결과 관련 공기 명사에는 긍정적인 의미 특징을 띠고 ‘나다’와 ‘나오다’는 이러한 의미적 선호성이 없다²¹⁾. 한편 신체 부위 관련 명사, 시간 명사, 심리 관련 명사의 의미적인 선호는 한국어 ‘나다’, ‘나오다’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다:나오다’, ‘出:出來’의 의미적 선호 대조는 표15에 제시하였다.

〈표15〉 ‘나다’, ‘나오다’, ‘出’, ‘出來’의 의미적 선호 대조

	나다:出	나오다:出來	나다:出來	나오다:出
공기 명사의 공통 의미 부류	사물명사-개체, 상태명사-현상-생리 증상, 사건명사-과정	사물명사-개체, 인간명사, 사물명사-공간, 사건명사-과정-객관적	사물명사-개체, 사건명사-과정-객관적	사물명사-개체, 인간명사, 상태명사-현상, 사건명사-과정, 사물명사-공간,
공기 명사의 차이	나다: 상태명사-심리, 상태명사-차원, 상태명사-	나오다: 상태명사-차원, 상태명사-현상, 사물명사-부분체, 사건명	나다: 상태명사-심리, 상태명사-현상, 상태명사-차원, 사건명사-	나오다: 상태명사-차원, 사물명사-부분

21) 사전적 의미 분석에서 ‘나다’, ‘나오다’가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용례에서 사용 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 부류	현상-질병, 상태 명사-현상-감각 出:인간명사, 사 건명사-결과, 사 물명사-공간	사-과정-주관적	과정-주관적 出來:인간명사, 사물 명사-공간,	체, 出: 사건명사- 결과
----------	---	----------	---------------------------------	----------------------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나다:나오다’, ‘出:出來’는 의미적 선호에서 나타나는 공기 명사 의미 부류에 따라 대역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에 의해 규정된 대역어인 ‘나다:出’과 ‘나오다:出來’는 실제 용례에서 항상 대역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교차 대역되는 경우가 있으며 아예 대역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를 한국어 학습의 배경 지식으로 생각해 볼 때, ‘出來’의 의미적인 선호가 ‘出’의 의미적인 선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중국인 학습자가 이러한 모어 지식을 그대로 ‘나다’와 ‘나오다’의 유의 관계 구별에 적용하기 때문에 의미 구분에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상황별로 대역어를 분석해 보면, 개체 사물의 나타남의 뜻으로 ‘나다’, ‘나오다’, ‘出’, ‘出來’가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나다’가 쓰일 때 공기 명사 제한이 다른 단어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확장 의미로 쓰인 ‘책’과 같은 미디어 관련 명사와 공기하는 용례에 ‘나다’가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다’와 ‘出’, ‘出來’가 대역어가 된다. 사람의 출현의 뜻과 장소를 이탈한다는 뜻으로는 ‘나다’를 쓸 수 없어서 공간 명사와의 공기 용례에는 ‘나오다’가 ‘出’, ‘出來’와 모두 대역되는 것이다. 인간명사와의 공기 용례에는 배출된다는 뜻으로 ‘나다’와 ‘出’이 대역이 되고 ‘나오다’와 ‘出來’가 대역이 되는 것도 발견된다²²⁾. 주관적인 사건과 공기하는 용례에는 ‘나다’, ‘나오다’, ‘出’이 부분적으로 대역이 되고, 객관적인 사건과 공기하는 용례에는 ‘나다’와 ‘出’, ‘나오다’와 ‘出來’가 대역된다. 신체를 중심으로 질병, 생리 증상, 감각의 일어남을 표현할 때, ‘나다’, ‘나오다’가 거의 ‘出’, ‘出來’와 대역되지 않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땀’ 등 어휘와의 공기 용례에서 대역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맺어진다는 뜻으로 사전적 의미 분석과

22) ‘나다’는 인간명사와 공기하여 ‘인체가 배출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며 3장 의미 분석에서 제시하였다.

의미적 선호를 종합하면 ‘나다’, ‘나오다’, ‘出’, ‘出來’가 모두 대역이 되지만 ‘出’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성과 관련 명사와 선호하여 공기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체 부위 명사, 심리 명사, 시간 명사와의 공기 용례에서 중국어 ‘出’, ‘出來’와 아예 대역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유의어 쌍 ‘나다:나오다’의 의미를 구별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탐구해 보고자 ‘나다:나오다’ 그리고 그와 대응되는 중국어 유의어 쌍 ‘出:出來’의 의미 성분 분석 및 의미적 선호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전에 의한 의미 성분 분석에서 ‘나다:出’과 ‘나오다:出來’는 대역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차이가 존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나오다’는 의미 성분에 있어서 ‘出’과 더 가까운 유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의 관계에 대해 더 명확히 탐구하기 위해 말뭉치를 활용한 의미적 선호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로 ‘나다’, ‘나오다’, ‘出’, ‘出來’의 대역 관계는 공기 명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한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나다:나오다’의 의미 구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는 점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혔다. 대응되는 중국어 유의어 쌍 ‘出:出來’에서 ‘出來’가 ‘出’과의 의미 성분, 의미적 선호에는 크게 차이 범주가 없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러한 모어 배경지식을 한국어 ‘나다:나오다’의 구별에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모어로부터 생긴 목표어에 대한 간섭(interference)은 학습자가 의도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게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유의어 쌍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비교하는 연습은 언어 교육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학생들이 이들을 서로 비교하게끔 하는 일은 흥미로운 언어 학습 과정이다(김광해, 1998:19). 전통적인 유의어 비교 학습은 사전의 의미 해석과 예문 분석을 위주로 해 왔는데, 이에 본고는 모국어 유의어와의 비교, 말뭉치 검색을 활용한 의미적 선호 대조 분석 등 방법을 보완 방안으로 제안해 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인 교육방안은 후속 연구로 남기도록 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광해, 『어휘연구의 실제와 응용』, 집문당, 1995.
김준기, 『한국어 타동사 유의어 연구』, 한국문화사, 2000.
최경봉, 『어휘의미론』, 한국문화사, 2015.
이정희, 『한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어 습득의 이해』, 하우, 2019.
黃伯榮·廖序東, 現代漢語(下), 高等教育出版社, 2002.
Firth, *Papers in Linguistic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1957.
_____, *Selected papers of J.R Firth 1952-59*, London: Longmans, 1968.
Hoey, *Patterns of Lexis in Text*,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1991.
_____, *Lexical Priming: A New Theory of Words and Language*, New York: Routledge, 2005.
Partington, *Patterns and Meanings*, Amsterdam: Benjamins, 1998.
Sinclair,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1991.
Sinclair, *Trust the text: Language, Corpus and Discourse*, Routledge, 2004.
Stubbs, M., *Words and Phrases*, Oxford: Blackwell, 2001.

2. 논문

- 김광해, 「유의어의 의미 비교를 통한 뜻풀이 정교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선청어문』, 제 26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98, pp.3-40.
김진해, 「코퍼스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 의미학』 제21호, 한국어의 미학회, 2006, pp.75-104.
김진희·한승규, 「사전 메타 용어 선정을 위한 연구: ‘꿀’, ‘파위’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제35호, 한국어의미학회, 2011, pp.45-70.
남길임, 「어휘의 공기 경향성과 의미적 운율」, 『한글』 제298호, 한글학회, 2012, pp.135-164.
문금현, 「한국어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제15권 제3호, 국제한 국어교육학회, 2004, pp.403-431.
손납익, 「국어 유의어의 의미 연구:구분, 구별, 분류, 분별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45집, 우리어문학회, 2013, pp.287-310.

- 유현경·강현화, 「유사관계 어휘 정보를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제27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2, pp.244-246.
- 이정희, 「한국어 오류 판정과 분류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제13권 제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 175-197.
- 진령, 「한국어 어휘 결합관계의 의미적 선호를 통한 유의어 의미 변별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53호, 한국어의미학회, 2016, pp.117-143.
- 최준, 「경험 동사의 의미적 운율 연구」, 『한국사전학』 제18호, 한국사전학회, 2011, pp.209-226.
- 탄샤오루·김연희·이정희, 「대조를 통한 한·중 발명 관련 언어 교육 연구」, 『어문연구』, 제48권 제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pp.361-384.
- 한송화·강현화, 「언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4, pp.293-316.
- 황은하, 「말뭉치에 기반한 한중 한자어의 대조분석 연구: 공기 경향성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64호, 이중언어학회, 2016, pp.327-351.
- Louw, “Irony in the text or insincerity in the writer? the diagnostic potential of semantic prosodies” in M. Baker, G. Francis and E. Tognini-Bonelli (eds.) *Text and Technology: In Honour of John Sinclair*, Amsterdam: John Benjamins, 1993, pp. 157-176..
- Sinclair, “the lexical item”, in E.Weigand(ed.) *Contrastive Lexical Seman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1998, pp.1-25..
- Stubbs, M., “The Search for Units of Meaning: Sinclair on Empirical Semantics”, *Applied Linguistics* 30/1, 2009, pp.115-137.
- Xiao, Z. & McEnery, A. (2006). “Near synonymy, collocation and semantic prosody: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Applied Linguistics*, 27/1, 2006, pp.103-109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8월 10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8월 27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9월 23일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of ‘나다:나오다’, ‘出:出來’

Tan, Xiaoru · Quan, Wenhua · Lee, Junghee

This study argued a method for Chinese Korean learners to distinguish and use the meaning of the Korean synonym pair ‘나다:나오다’. The semantic component analysis and semantic preference analysis of the Chinese synonym pair ‘出:出來’ corresponding to ‘나다:나오다’ was conducted. Based on the concept of synonyms in Korean educational linguistics, items with the meaning of ‘appearance’ were selected among ‘나다’ and ‘나오다’. Then, after analyzing the semantic components, in order to show more clear meaning differences, a comparative analysis of semantic preference is made by using corpus. At the same time, the contrast with the corresponding Chinese synonym pair ‘出:出來’ experienced the difficulties that Chinese Korean learners face in differentiating the meaning of ‘나다:나오다’. As a result of the semantic component analysis in Chapter 3 showed that ‘나오다’ is a substitute for ‘出來’, but the meaning is more similar to ‘나다’. As a result of the four semantic preference analysis to clarify this phenomenon, the corresponding translation relations between ‘나다:出’ and ‘나오다:出來’ depends on the class of meanings of co-occurring nouns and the semantic differences of ‘出:出來’ is not as clear as ‘나다:나오다’. Therefore, in the learning and teaching process of synonyms for Chinese Korean learners, ‘나다:나오다’ should be explained carefully from the stage of presentation, and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using a dictionary, there are other methods such as contrasting with native Chinese and searching for examples using a corpus.

Keyword nada(나다), naoda(나오다), synonym, semantic preference,
Contrastive Study between Korean and Chinese

从认知的视角看‘V起来’的语义扩展隐喻机制

郭沂滨*

국문요약

동사 ‘起来’가 ‘V起来’의 구조에 들어가면 방향동사로 변한다. 그후 은유메카니즘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확장 후의 ‘V起来’는 술어의 위치에서 ‘起始-持续’와 ‘转态-结果’의 두 종류의 상(어스펙트)으로 표현가능 하다. 이후에 ‘起始-持续’ 상(어스펙트)에 의하여, ‘V起来’는 술어 앞의 범시제성담화표기로 허화(虚化) 되고, 인식모달리티로 표현 되어, 디스크스에 호응작용을 발휘하지만, 문장명제의 진위를 완전히 보증하지는 않는다. 이 기초 위에서, ‘V起来’는 더 진화하여 주어 앞의 화제표기가 되고, 삽입화(插入语)로서, 디스크스에 상호작용성과 관점의 일치성을 가지게 하여, 문장명제의 진위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생기지 않도록 한다.

주제어 은유, 소스 도메인, 타겟 도메인, 이니셜-지속, 변환-결과, 이미지 스키마

〈目录〉	
1. 引言	
2. 本文对先行研究分类的不同看法	
3. ‘V起来’在谓语句法位置上的语义扩展	
4. ‘V起来’在谓语前和主语前的语义扩展	
5. 结论	

* 韩国, 水原大学校 国际大学 语言教育学部 助教授

1. 引言

在对外汉语教学语法中, ‘V起来’构式中的‘起来’仅被简单描述为可以作动词的复合趋向补语, 然而, 基于语料库的调查表明, ‘V起来’的派生义非常复杂, 主要分布在下列几种句法位置上:

(一) 谓语位置上的‘V起来’

- (1) a. 她从床边站起来, 从怀里贴身的地方掏出一卷钱, 走到加林面前说:
“加林哥, ……” (路遥《人生》) (自下而上的位移)
- b. 她把头靠在他身上, 立刻哭了起来, 直到端午一个劲儿地向她发誓赌咒, 她才破涕为笑。 (格非《春尽江南》) (表达动作的起始状态)
- c. 为了保证行车安全, 防空哨已经在漫长的公路线上建立起来。
(巍巍《英雄树》) (从无到有的变化)
- d. 他不小心扭伤了脚, 脚脖子象吹了气似地肿起来。
(程东《死心眼儿的机器人》) (从小到大的变化)
- e. 他, 给衙门里送了点礼, 把三个承头争吵的穷哥儿们抓去关起来啦。
(秦兆阳《大地》) (从自由到不自由状态的转变)

(二) 谓语前位置的‘V起来’

- (2) 曾经有一个大预言家讲过一句话: 大家对于我的崇拜, 只是万分之一。
这句话听起来很奇怪, 其实一点都不。 (《李敖对话录》) (评价)

(三) 主语前位置的‘V起来’

- (3) 看起来, 灰色收入使某些意志不坚定的领导干部增加了收入, 实质上却是在腐蚀、吞噬他们, 使他们发黑、变质、烂掉!
(CCL:《人民日报》) (推断)

吕叔湘(1980)对‘V起来’的语义归纳如下¹⁾:

- (4) 1. 动+起来[+名]。名词一般为受事, 间或有施事。
 - a) 表示人或事物随动作由下而上。
 - b) 表示动作完成, 兼有聚拢或达到一定的目的、结果的意思。
 - c) 表示动作开始, 并有继续下去的意思。
 - d) 做插入语或句子前一部分, 有估计或着眼于某一方面的意思。
2. 形+起来。表示一种状态在开始发展, 程度在继续加深。

1) 吕叔湘主编,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1980/1999, pp. 441-442.

吕叔湘的概括奠定了‘V起来’语义的基本格局，其后，吴洁敏（1984）、房玉清（1992）、刘月华（1998）、贺阳（2004）、唐正大（2005）、张谊生（2006）、吴为善（2012）等，均是在此框架下进行调整的，他们对‘V起来’的语义、用法及语法化等方面描述可归纳为三个方面：一是把‘V起来’分为位移义、结果义和状态义三种基本的语义类型（刘月华1998）²⁾；二是认为‘V起来’中‘起来’的意义和功能已经从趋向动词虚化到动态助词，分为‘起来趋向’和‘起来助’两大类（李敏 2005）；三是把‘V起来’分为自由和黏着的，自由的‘V起来’与第一种观点一致，黏着的‘V起来’在句子或语篇是话题标记（唐正大 2005）。

首先，学者们都承认‘V起来’的语法化是从表达物理空间的向上位移逐渐演化到表达体貌义、抽象的心理空间位移、情态义，但是对‘V起来’的语义扩展及其各种语义之间的关联尚未得到较好的解释；其二，学者们都承认表示动作开始，并有继续下去是表达体貌义，称为‘起始体’³⁾，但是对吕叔湘所说的表示动作完成，兼有聚拢或达到一定的目的、结果的意思却认为是词语层面上表达结果义。这类‘V起来’的V均是内部情状有界动词，在时间轴上表达事件⁴⁾在终结点的实现，但却未被理解为表达终结限界实现的体貌义。其三，动词的趋向补语如果入句是否只表达行为的趋向呢？物理世界的任何运动无不在空间和时间中进行，既然具备时间性，就不存在单纯表达趋向的动词，因此我们认为上述分类有待商榷。其四，先行研究大多是在词语层级上对‘V起来’的语义进行分类，在小句层级上考察其功能，而鲜有在语篇层级上进行讨论。

本文将在分析具有代表性的先行研究的基础上，对‘V起来’的语义重新分类，在对话料分析的基础上，基于认知语言学的隐喻理论，考察其不同语法位置上的扩展过程，揭示其在现代汉语共时语法中语义功能的多样性和关联性，为对外汉语教学语法的重新描述提供新的视角。

2) 刘月华,『趋向补语通释』,北京: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1998 pp. 342-380.

3) 戴耀晶,『现代汉语时体系统研究』,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7 pp. 94-100.

4) 根据论述的需要,文中的‘事件’这一术语包含运动、行为、事态等意义。

2. 本文对先行研究分类的不同看法

刘月华(1998)把谓语位置上的‘V起来’分成：趋向、结果及状态三种意义；把谓语前位置和主语前位置的‘V起来’的意义分别归纳为从某方面说明、评论人或事物以及引进说话人的一种看法等两种。之后，学者们无论从何种角度考察，大体都没能跳出这种分类框架。

当然，如果仅从‘V起来’的词语层级上看，刘的分类非常准确，例如表达趋向义的V都是基于人的意志在位置或姿势上变化的动词，像‘站起来’、‘坐起来’等；表达结果义的V都是主体动作/客体变化动词，这类动词的时间特征是内部情状有界，像‘连接起来、集中起来、组装起来’等。由于内部情状有自然终结点，就可以表达动作的结果；而对表达状态义，刘的解释是‘起来’用在动词后表示新的动作开始进行，用在形容词后表示开始取得某种性质或进入某种新的状态，像‘哭起来、说起来、热闹起来’等，这些词类本身属于活动动词，其时间特征是内部无自然终结点，从表面看来就是表达事件的起始义。

本文认为，在叙事体中，说话者讲述事件的发生、发展和结局，必然会与时制(tense)或体(aspect)产生关联。如果把‘V起来’放在语篇中就无法回避时间问题。‘站起来’表达运动的趋向，必然要消耗时间，换言之，由于‘站’本身是一个内部情状有界动词，在时间轴上的体意义是一种终结限界实现性，是运动的结果，由于它表达的是从低向高的移动，也确实表现出趋向义；而表达结果义的‘V起来’的V，内部有自然终结点，例如‘连接起来’，位于时间轴的终点，其体意义也是一种终结限界实现性；而表达‘状态义’‘V起来’的V都是内部无自然终结点的活动动词、情感动词及部分形容词，从体意义来说是起始限界实现性，在时间轴上显示一个事件的开始和持续。综上，我们认为应该对‘V起来’在句子中的意义重新分类。

首先，由于表达趋向义的‘V起来’与结果义的‘V起来’两类动词都是内部有自然终结点，认知主体的视点与事件在时间轴上的终点相交，故而两者都应被视为是表达终结限界实现性体意义的一种构式。在这个范畴之下，包含在词语层级上的狭义趋向义和广义趋向义。这种表达广义趋向的‘V起来’，是在狭义趋向义‘V起

来’的基础上,通过隐喻在心理层级上的扩展而来,例如‘围起来、卷起来、隐藏起来’等表述的现象可以归纳为从离散状态到统合状态的转换,列为广义趋向义。

其二,表示‘状态义’的‘V起来’都是由活动动词、情感动词或形容词来充当,其体意义是起始限界实现性,认知主体的视点在时间轴与事件的起点相交,应被视为是表达起始限界实现性体意义的一种构式。

郭锐(2002b)认为词类的本质是表述功能。而每种类型的表述功能都具有两个层面——内在表述功能和外在表述功能。内在表述功能是词语固有的表述功能,外在表述功能是词语在某个语法位置上最终实现的表述功能。两个层面的表述功能一般情况下一致,……有时不一致⁵⁾。郭锐的看法为我们再分类提供了理论依据,之所以把‘站起来’类的意义看成是表达‘时间轴终点限界的实现’,从其内在表述功能看,它的确表达‘趋向’,但在语篇的外在表述功能却是时间轴上一个动作或事件的完结;而‘隐藏起来’类从词语的内在表述功能上看,表达的是‘结果’,具有把某物从一地转移到另一地的广义趋向义,但在语篇中,它表达的是一个事件的完结,因此刘月华说的“趋向”、“结果”从体意义上可以归为一大类,即都是说话者在事件的外部、时间轴的终点观察到的终结限界实现的体意义。而‘状态义’则是说话者在时间轴的起点观察到的起始限界实现的体意义。因此,本文采用二分法,把‘V起来’在谓语位置上所表达的意义都看成是1)某个事件在时间轴终点限界的实现;2)在时间轴起点限界的实现和持续。

以Hopper (1982)为代表的功能主义体学研究认为,体的概念真正可信的研究应当能显示句子平面与话语结构的相关性。刘月华等学者都曾指出有很多‘V起来’在句子中既能表达趋向,也能表达结果,还能表达起始状态义,均认为有很多歧义现象,但由于受在词语层级上分类的限制,先行研究都未能进一步解释原因,这就极大地阻碍了在话语层面上考察体意义,以及在语篇中的功能是什么。

戴耀晶(1997)把体定义为“体是观察时间进程中的事件构成的方式”。一方面,它强调体是“观察……的方式”,另一方面,传统上对体的定义,关注

5) 郭锐,『现代汉语词类研究』,北京:商务印书馆,2002, pp. 83-88.

的是动作即动词部分，而戴氏则认为事件是体意义的载体，不限于动作⁶⁾。尚新（2004）认为语法体是说话者对处在时间绵延中的情状的内在时间结构进行观察、反映的方式。这一定义体现了两种时间概念，“时间绵延中的情状”说明情状外部时间即“外在时间”，“情状的内在时间结构”则体现了“内在时间”。而“观察、反映方式”则突出了语法体的主观性特征。说话者在流动的外在时间绵延中对情状的内在时间结构进行“观察”，就是视点（V）在参照时间（RT）与情状的内在时间结构的某一阶段“相交”。

既然‘体’意义与时间性密切相关，那么只有在叙事体中才能较为完整地体现出来；论述体、科技体是人类对自然和社会现象的规律进行论证，而不是一个具体事件在时空中的进行，故而不存在过去、现在、未来的外部时间，也就不可能对情状的内部时间进行观察。因此，论述体和科技体只存在句子与句子之间的先后顺序，具体表现为因果关系、并列关系及转折关系等。

本文将以语篇为单位⁷⁾，考察‘V起来’在谓语及非谓语位置上的基于隐喻的扩展机制及过程。本文将把‘V了起来’视为基于语篇构成的需要所产生的‘变体’⁸⁾。与此同时，将把谓语位置上的‘V起来’看成表达两种对立的体意义：1) 表达起始限界实现性的‘起始—持续’体；2) 表达终结限界实现性的‘转态—结果’体⁹⁾。

3. ‘V起来’在谓语句法位置上的语义扩展

本文从北京大学现代汉语语料库以叙事体为对象抽取前3000条，整理出688个含有‘V起来’的合格例句和521个含有‘V了起来’的例句；以论述体和科技

6) 戴耀晶，《现代汉语时体系统研究》，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7，p. 5.

7) 本文所用语料均来自北京大学现代汉语语料库，为了节省篇幅，行文中将不注明出处。

8) 受篇幅的限制，本文未把‘V了起来’列为考察对象。

9) ‘转态—结果体’是本文基于大规模的语料观察归纳出的体意义，‘转态’是指此类‘V起来’是认知主体的视点在时间轴上与事件‘状态的转换’形成新状态后相交。‘V起来’与其它体助词的区别性特征在于‘状态的转换’。词语层级上有两个下位范畴，一种是原型意义上的趋向义，如‘站起来’表达身体在空间位置的趋向；另一种是通过隐喻机制扩展而来的较为抽象的广义趋向义，如‘隐藏起来’表达从可见状态到不可见状态的转换。

体为对象抽取前2000条，整理出1646合格例句。‘V起来’在谓语位置上的句法分布，见〈表1〉、〈表2〉、〈表3〉：

统计显示，分布在谓语位置上的‘V起来’占压倒性多数；在‘V了起来’的分布中，没有分布在谓语前、主语前和定语的位置，分布在谓语中的高达93.47%；而在论述体中不存在从属复句和紧缩复句¹⁰⁾。

〈表 1〉‘V起来’在叙事体中不同句法位置上的比率

句法位置	数量及比率
谓语位置	465/67.59%
从属/紧缩复句	88/12.79%
一般复句	21/3.05%
谓语前	40/5.81%
主语前	33/4.79%
定语位置	41/5.96%
合计	688/100%

〈表 2〉‘V了起来’在叙事体中不同句法位置上的比率

句法位置	数量及比率
谓语位置	487/93.47%
从属/紧缩复句	29/5.57%
一般复句	5/0.96%
合计	521/100%

〈表 3〉‘V起来’在论述体/科技体中不同句法位置上的比率

句法位置	数量及比率
谓语位置	1058/64.28%
复句	128/7.78%
定语位置	197/11.97%
谓语前	162/9.84%
主语前	101/6.14%
合计	1646/100%

10) 由于篇幅限制，本文暂不考察‘V起来’在紧缩复句和作定语时的语义功能。‘V起来’在紧缩复句是泛谓语，即主谓关系已经部分泛指化了的谓语，在语义上则趋向情态化，是‘起始—持续’体意义在语篇中的一种变体；‘V起来’作定语主要出现在复杂主语和谓语中。

1) ‘起来’的原型义与位移动词共现的最初的语义扩展

动词‘起来’本是表示人体在物理空间由下向上的运动，多表达运动主体从坐姿、蹲姿或躺姿向上起身，其原型如例（5）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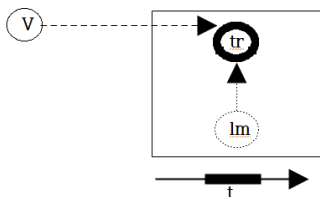
（5）‘起来’的原型：【起点-路径-达到点】意象图式

〈（以脚下立足地为界标的）起点〉，〈（向上方位移的）路径〉

〈（身体的高度所能及的）到达点〉，〈（来自运动主体自身力量的）动力〉

当‘起来’与内部情状有界的向上位移的动词共现时，例如‘站起来、坐起来、立起来’等，实现了最初的扩展，它们沿着单方向的路径从低处的起点向高处的到达点移动，认知主体的观察视点是到达点，即终结限界的实现。‘起来’第一次由动词演化为趋向动词。见〈图1〉：

〈图 1〉‘起来’与向上位移的动词结合的认知图式



〈图1〉中，用虚线表示起点的椭圆形lm是界标，呈现背景化；移动主体tr是射体¹¹⁾，到达点的小圆圈用粗线表示，表示tr得到凸显；移动路径用虚线箭头表示，也呈现背景化，只有到达点前景化¹²⁾。最下方的箭头t是时间轴，粗线部

11) 在认知语法的基本框架中，当某个认知域有复数的存在被显影时，相对凸显的一方为射体（tr=trajector），而未被凸显，即成为背景的一方为界标（lm=landmark）。

12) 图形与背景理论（figure-ground）是总的理论框架或者说前提，核心是‘在背景中凸显图形’。射体与界标（trajector-landmark）和显影与基体（profile-base）由上述理论衍生而来，但这两对概念，并非处于同一维度。本文在描述意象图式时，图形=射体，背景=界标。这些术语由于在不同时期认知语法学在描述不同词语概念时由不同学者所创造，因此在他们的原著中所指示的对象也存在微妙的差异。

分表达‘起来’作为动词在时间轴上的动态性；大正方形表示‘起来’的认知域；左上方的V表示认知主体的观察视点，其右方的虚线箭头表示观察者的视点是到达点；即‘V起来’在表达从起点至到达点的过程中，起点和路径背景化，只有到达点得到凸显。

意象图式是基于具体的经验而形成的一种心理表象。作为认知和言语主体的人类不仅可以通过以某种具体的经验形成的图式来理解客观对象，还能根据不同的情境将具体的图式进行扩展，并通过这种扩展的图式来理解较为抽象的事物。支撑对客观世界进行理解的认知能力的就是这种心理表象。山梨(1995)认为人类创造性的理解至少与下列三种认知过程相关¹³⁾：

- (6) A：对某种具体的事物形成意象图式的过程。
- B：把某个事物的图式向另一种事物扩展的过程。
- C：把某个事物的图式从多个视角进行重新组合的过程。

本章基于反映这种意象图式认知能力的关系，考察‘V起来’的语义扩展与具有创造性过程的一面。

2) ‘起来’向时间域以及抽象空间域的扩展

‘起来’从物理空间域向时间域和社会心理空间域的扩展，主要源于其原型中运动的起点和到达点，具体分为两种：一是某个具体的事件在时间轴上运动的起始限界的实现，具有‘起始—持续’特征；二是某个具体的事件在时间轴终结限界的实现，具有‘转态—结果’特征。

(1) ‘V起来’表达‘起始—持续’体意义

语料调查表明，‘V起来’表达‘起始—持续’体意义只能分布在谓语的位置上，不同类型的文体也呈现出不同的状态，见〈表4〉、〈表5〉和〈表6〉。

〈表4〉显示，‘V起来’在叙事体中表达‘起始—持续’体意义约占40.8%，均由主体动作、内心情感等内部无界动词和形容词担任。其中由主体动作动词与

13) 山梨正明，『認知文法論』，東京：ひつじ書房，1995，p.4.

‘起来’共现多表达事件的持续或反复(7a)，而内心情感动词、形容词与‘起来’共现则表达一种心理状态或自然现象起始后的程度的进展,见（7b）。

- (7) a. 两个女人好像忘记了一切约束，疯了似的笑起来，越笑越笑，最后两个人都笑弯了腰……
- b. 看见那个小姐用一块绿丝帕半掩红唇，悲悲切切诉说衷情，简少芬的眼圈莫名其妙地红起来，眼泪也就挂到了面颊上。

‘红、冷、热、少、多、安静、热闹’等形容词本来表达事物的性质和状态，因此经常与‘起来’共现表达状态的变化，（7b）‘红起来’表达状态变化的起始，基于形容词内部情状具有的持续性所显现的程度的增进是一种附随现象。

〈表 4〉 谓语位置的‘V起来’在叙事体中的分布情况

动词类型 句法位置		内部有界动词		内部无界动词/形容词			句法位置/ 数量/百分比
		主体动作/ 客体变化	主体变化	主体动作	内心情感	形容词	
“V起来”的体意义		转态-结果义		起始-持续义			
“V起来”的词语义		广义趋向	狭义趋向	起始	起始	状态起始	
谓 语 位 置	“把”字句	41	16	3		1	61/13.1%
	“被”字句	6	1	2			9/1.9%
	致使句	2	4	6	1	2	15/3.2%
	“是…的”句	8		2			10/2.2%
	连动句	22	94	12	3	1	132/28.4%
	中动句	2	1				3/0.7%
	介词+V起来	4	9	6	2	3	24/5.2%
	主动句	9	29	71	18	41	168/36.1%
	V得V起来	1		1	3	6	11/2.4%
	句式嵌套	11	9				20/4.3%
	否定句	3	4	3	1	1	12/2.6%
动词数量/百分比		109/23.4%	167/35.9%	106/22.8%	28/6.2%	55/11.8%	合计:465

〈表5〉显示，‘V了起来’在叙事体中表达‘起始-持续’体意义高达55.9%，与‘V起来’大量使用内心情感动词和形容词相比而言，这一形式较少使用情感动词和形容词表达事件的起始与持续。在语境中，‘V了起来’的前方总是需要有一个明示以某个先行的动作作为参照来明示其后动作的起点，多数需要同表达意外或突然性的时间副词共现。

- (8)a.连马也没料到这么敏捷，它似乎怔了一下，立即狂怒地在原地扭圈子，又蹶屁股，又摆腿，一下子把巴特尔掀起老高，巴特尔还在空中，它在下面已经磨旋儿般转了起来。
- b.国丧三年还没有过去，人们怎么就乐了起来？叫刘统勋今晚出去，到各大臣家里看看。
- c.说到这里，吴三桂突然一阵哽咽，两行浊泪，流落下来，再也说不下去了，台下众将骚动起来。

〈表 5〉谓语位置的V了起来在叙事体中的分布情况

动词类型 句法位置		内部有界动词		内部无界动词/形容词			句法位置 数量/百分比
		主体动作/ 客体变化	主体变化	主体动作	内心情感	形容词	
“V起来”的体意义		转态-结果义		起始-持续义			
“V起来”的词语义		广义趋向	狭义趋向	起始	起始	状态起始	
谓 语 位 置	“把”字句	28	10	7			45/9.2%
	“被”字句	6	2	4			12/2.5%
	致使句	2	1	1			4/0.8%
	“是…的”句	1					1/0.2%
	连动句	2	62	51	1		116/23.8%
	中动句	5	1	1		1	8/1.6%
	介词+V起来		7	3			10/2.1%
	主动句	12	67	168	4	17	268/55.1%
	V得V起来		2	9			11/2.3%
	句式嵌套	1	6	5			12/2.5%
数量/百分比		57/11.7%	158/32.4%	249/51.1%	5/1.1%	18/3.7%	合计：487

〈表 6〉谓语位置的V了起来在论述体/科技体中的分布情况

动词类型 句法位置		内部有界动词		内部无界动词/形容词			句法位置 数量/百分比
		主体动作/ 客体变化	主体变化	主体动作	内心情感	形容词	
“V起来”词语义		广义趋向	狭义趋向	起始	起始	起始	
谓 语 位 置	“把”字句	400	7	2	1	2	412/38.9%
	“被”字句	14	1	1			16/1.5%
	致使句	30	5	2	2	6	45/4.3%
	“是…的”句	124	3	2		2	131/12.4%
	连动句	131	3	2	2	1	139/13.2%
	中动句	42	1			1	44/4.2%
	介词+V起来	51	1	2		2	56/5.3%
	主动句	52	9	10		15	86/8.1%
	V得V起来					10	10/0.9%
	句式嵌套	67	1			1	69/0.9%
	否定句	42	4		1	3	50/4.7%
数量/百分比		953/90.1%	35/3.3%	21/1.9%	6/0.6%	43/4.1%	合计：1058

〈表6〉显示, ‘V起来’在论述或科技体中, 表达的不是体意义, 与‘起来’共现的动词中有90.1%都是表达心理层面上的广义趋向义的主体动作/客体变化动词, 高频词有‘结合、团结、组织、集中、概括、隐藏、发展、建立’等。由于论述的是科学原理, 而非某个具体事件在时空中的起始和结果, ‘V起来’多表达句子与句子的先后顺序, 按照事物发展的先后逻辑, 表达因果、转折及并列关系。在语篇中, 表达起始义的不足6.6%, 而且也不是体意义上的起始义, 而是为了论证逻辑上的先后顺序。见例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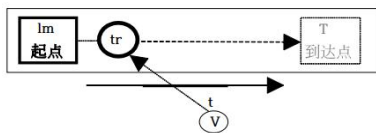
- (9) 为了把技术运用起来并得到充分利用, 就需要有掌握技术的人才, 就需要有能够精通并十分内行地运用这种技术的干部。

在论述或科技文体中, 表达起始义主要以内部无界的动作动词和形容词表达原因为主, 在语篇中表达先行现象, 后起的小句则表达结果, 使表达空间概念的起点和到达点通过隐喻性的扩展过程变成抽象的原因与结果的关系。

上述三种类型的语篇表达‘起始-持续’体意义均由内部情状无界的主体动作、内心情感动词和形容词承担。但同样是叙事体, ‘V了起来’却需要有显性的参照时间, 而且几乎无一例外表达事件的意外性和突然性, 这是‘V起来’不具备的特征。在论述和科技文体中, 上述三种词类不表达体意义上的起始义, 而是扩展为表达原因, 在上下文中构成因果关系。

‘起来’在上述语境中, 其原型意象图式被从空间域基于隐喻的类似性投射到时间域, 凸显事件发生的起点, 将到达点背景化。由于时间的绵延是单向的, 造成‘V起来’的运动方向也由‘自低向高’变为‘从左向右’。见〈图2〉:

〈图 2〉‘V起来’在时间域表达‘起始-持续’体意义的认知图式



〈图2〉中,左侧四方形是界标lm,是事件的起点,相对凸显的是射体tr,代表运动的主体;伸向右方的虚线箭头是移动路径,射体沿着时间轴逐渐离开界标。该图式凸显射体刚离开界标,右侧的四方形是到达点T,到达点及移动过程背景化。认知主体的视线与事件的初始阶段相交。

(2) ‘V起来’表达‘转态-结果’体意义

〈表4〉显示,在叙事体中‘V起来’表达‘转态-结果’体意义占59.3%,其中狭义趋向义¹⁴⁾在词语层面表达行为主体的趋向,在句子层面表达终结限界实现性。广义趋向义主要包括两大类:一是在时空中量域的转换;二是在时空中从离散到统合状态的转换。

① ‘V起来’在时空中量域的扩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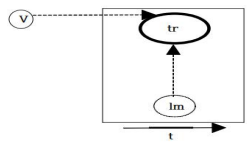
语料调查发现,‘V起来’在量域的扩展大致分为两大类,一是表达从无到有的转换,表达量积累到一定程度之后产生的质变;二是某物在空间所占面积或体积的增大。在此类构式中,常把事件的初始状态无限缩小为零,只凸显质变点。第一类的高频词有‘发展、建立、成立、搭、垒、砌、建构、形成、确立’等。先看第一类:

(10) 教育因社会生产劳动的需要而产生,并在生产劳动过程中发展起来。

‘V起来’在量域的扩展,与源域结构最为近似,(10)中“在生产劳动过程中”是较为抽象的起点,“发展起来”是到达点,认知主体从量的变化的终结限界来观察事件,与到达点相比,起点相对虚化,主要凸显量变后事象状态的转换所形成的结果。见〈图3〉:

14) 此处指在3.1章节中论述的自下而上位移的动词与‘起来’结合表达的趋向义。

〈图 3〉‘V起来’表达在量域的从无到有的认知图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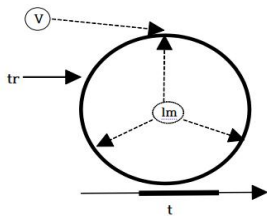
〈图3〉与〈图1〉较为相似，均是终结限界的实现，凸显的是到达点，是认知主体把‘起来’的意象图式通过心理空间的折射后，把具体可见的自下而上的位移创造性地扩展为对社会性事件从无到有的广义性位移，不同的是射体tr随着时间的绵延在量域逐渐增大。

第二类‘V起来’在量域的变化表现在空间所占面积或体积的增大，是某个物体由小变大的结果。高频动词有‘肿、胀、圆’等。

- (11)a. 草地的水是淤黑色的,散发出阵阵腐臭腥浊的气味,里边含有很多毒素,
喝下去肚子立刻发胀,腹泻,就是脚被草根刺破,毒水一泡也会肿起来。
b. 于是盲目怀疑妻子是得了子宫癌,才使肚皮鼓起来的。

(11a)中‘肿起来’表示‘脚’的体积由小变大；(11b)的‘鼓起来’表示‘肚皮’由扁平变成鼓胀的状态。两者都是以‘脚’和‘肚皮’的正常状态为界标，射体tr的运动在空间稍微向上，但主要是向四周扩散，表现为体积的扩展。见〈图4〉：

〈图 4〉‘V起来’表达在量域的由小变大的认知图式



〈图4〉在从源域向目标域投射的过程中，‘起来’的原型基本结构被保留，但是某些结构特征发生了变化，即运动的距离缩短，移动路径从自下而上变为向

四周各方的移动,使体积由小变大,所形成的新状态覆盖在运动起点的表面。其体意义同样表现出终结限界的实现,认知主体的观点是到达点,只是该到达点的边缘是一个由中心呈放射状的圆形。

② ‘V起来’在时空域表达从离散到统合状态转换的扩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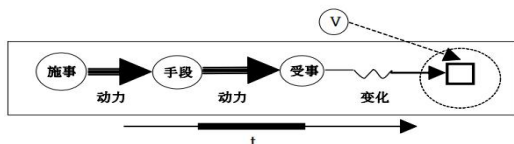
综上,‘V起来’无论是表达‘起始-持续’义还是表达‘转态-结果’义,源域和目标域的概念结构大体相似,只是在细节上稍有差异。以下论述的‘V起来’表达从离散到统合状态的转换是通过隐喻性的心理映射所创造的新的意象图式。它们包含:从自由到不自由状态、从可见到隐蔽状态、从松散到规范状态、从分离到链接状态、从离散到统合状态的转换等五种。

首先考察第一类,即从自由到不自由状态的转换,高频动词有‘捆、封、锁、关、圈、关押、封闭、束缚’等。

(12) 然后咱们用地雷,用民兵,用飞行员,神枪手,把他们的炮楼一个一个封锁起来,再用广泛的地雷战,对付他的“扫荡清剿”。

从表面看,‘起来’的原型是表达自下而上的运动,其引申义,即上述在量域的扩展也是从无到有或从小到大,而这类表达从自由到不自由状态的变化似乎与源域正好是矛盾的。然而,Lakoff & Johnson在论及方向隐喻时认为,拥有控制力或强制力为上,被支配或被控制为下¹⁵⁾。由此我们看到(12)是把字句,这类构式的动词都是最典型的导致客体变化或位移的动词。把字句在汉语中及物性较强,它表达施事拥有控制力和强制力,并通过某种手段对客体实施行为而产生了结果,使客体,即宾语的状态和位置发生变化。见〈图5〉:

15) 原文“Having control or force is up; Being subject or force is down”参照Lakoff &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15.

〈图 5〉‘V起来’表达从自由到不自由状态转换的认知图式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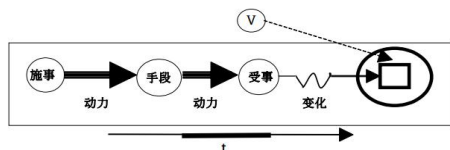
〈图5〉中双线箭头代表动力，不规则曲线箭头表示变化，最右端方框表示变化后的状态，大圆圈表示这种变化状态进入容器，即我们把这种不自由的状态视为一种容器图式¹⁷⁾。该认知模式所形成的意向图式，被视为基于某种原因而引起的事态的变化，即施事对受事施以动力的移动，形成一个‘致使→变化→结果’的因果连锁反应，其起点、路径、方向都相对虚化，只有变化的结果最为凸显，象征容器的部分则虚化为背景；观察视点同样是终结限界的实现性。

第二类是从可见状态到隐蔽状态的转换，高频动词有‘贮藏、隐藏、储藏、收藏、隐瞒、隐蔽、埋’等。

(13) 为什么只讲跟许梦龙的关系，把这张关键性的照片隐瞒起来？

第二类与第一类的图式相似，基于语料库调查发现，也是把字句占绝大多数，所不同的是位于终点的容器与变化结果一样得到凸显。见〈图6〉：

〈图 6〉‘V起来’表达从可见状态到不可见状态转换的认知图式



16) 该图式参考Langcker论及动词范畴的复合动词语义网际对及物动词构式的认知模式，本文根据‘V起来’的特点，在细部做了一些修正。Langacker, Ronald W, *Concept, Image, and Symbol*. Berlin/New York: Waler de Gruyter, 1991, pp.209-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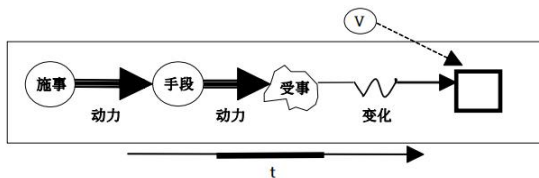
17) 这种进入不自由状态的‘V起来’是路径图式与容器图式的融合，在认知语言学对处所的描写中，往往把其视为一种容器图式。

第三类‘V起来’是从松散到规范状态的转换,高频词有‘串、盘、卷’等。

- (14) 最近,我发现有的女青年,她们对美的追求首先是从头开始的,也不管姑娘和媳妇,那脑袋都烫成卷毛大波浪,不论多大年龄都把头发盘起来。

从松散到规范与从自由到不自由、从可见到不可见有着许多相似点,即以及物动词为中心的把字句、凸显变化的结果、路径的虚化等,所不同的是位于这一图式到达点的变化结果并未与容器图式融合。图中受事用不规则的多角形表示。见〈图7〉:

〈图 7〉‘V起来’表达从松散到规范状态转换的认知图式



从松散到规范同样是施事者基于动力对受事的控制。人类共同的隐喻认知是好的为上,坏的为下¹⁸⁾。松散及不规则的东西是不好的,整齐、规范的东西是好的。这就很容易与‘起来’自上而下的原型义产生关联。

第四类是从分离到链接状态的变化,高频词有‘结合、合并、连、连接、联系’等。

- (15) 们通常用机会均等这句话表达自由与平等之间固有的关系,也就是说,用均等的自由这个构架将这两个观念结合起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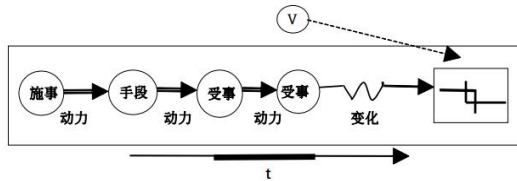
链接图式是‘整体-部分’意象图式¹⁹⁾的一个下位范畴,一般是指两个存在物的

18) “good is up; bad is down.” Lakoff &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16.

19) ‘整体-部分’图式是人类在理解有无统一性、一体性相关的抽象概念时而发挥功能的意象图式。其下位图式还包括链接图式、统一体图式及平衡图式等,参照山梨正明,

结合。表面看来，它与原型的‘起来’类似性较低，但一般来说基于隐喻所形成的概念并非是从源域向目标域的全部投射，而只是其中的一个侧面通过另一种存在使我们对事物进行系统的理解。同时，隐喻也是基于特定社会文化而形成的。在汉语文化中，习惯于认为‘结合’优于‘分离’，从而形成‘结合’是好事，好事为上；‘分离’相较而言是不好的事情，应该为下。于是我们看到表达从分离到链接状态的‘V起来’仅保留了‘V起来’、‘向上’的意义。见〈图8〉：

〈图 8〉.‘V起来’表达从分离状态到链接状态转换的认知图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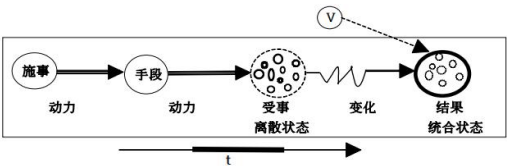
此类‘V起来’也使用及物性强的动词构成把字句，同样将路径压缩并使其背景化，凸显到达点。不同之处是施事者处置的是两个受事，并使用动力手段将其链接，在终结限界所实现的是两个存在物结合成一体，图式中代表一体化的链接得到凸显。

第五类是从离散到统合状态的转换，统合图式同样是‘整体-部分’图式的下位范畴。高频动词有‘团结、组织、概括、统一、归纳、总结’等。

- (16) 灾难的生活把人们团结起来，平常在村里分居度日，为一些小事隔着墙争吵，现在像一个和睦的大家庭。

统合图式与链接图式的隐喻最为接近，同样是典型的终结限界的实现，唯一不同的是多个存在物从离散到统合状态的转换。见〈图9〉：

〈图 9〉‘V起来’表达从离散到统合状态变化的认知图式



4. ‘V起来’在谓语前和主语前的语义扩展

1) ‘V起来’在谓语前位置的扩展

‘V起来’的谓语前构式可概括为‘NP+V起来+AP’。〈表7〉是统计结果：

〈表 7〉谓语前V起来构式在叙事体²⁰⁾中的分布情况

动词类型		内部有界动词		内部无界动词			话语功能 数量/百分比
		主体动作/ 客体变化	主体 变化	主体 动作	内心 情感	形容词	
话者显现	评 价			2			2/5%
	引入比较			2			2/5%
	主观感受			1			1/2.5%
话者隐含	评 价		1	8			9/22.5%
	引入比较			6			6/15%
	主观感受		2	15			17/42.5%
	推 论			1			1/2.5%
	估 量	1	1				2/5%
各种动词数量/百分比		1/5%	4/10%	35/85.5%	0	0	40

统计表明，谓语前的‘V起来’构式中，内部无界的主体动作动词占绝对多数。这类构式内部并不同质，宾语的前移形成各种变体，大致可分成：

- (17) 句式A:NP主 + V起来状 + AP谓
句式B:NP话题 + V起来主 + AP谓
句式C:NP主 + V起来谓 + AP补

20) 为了节省篇幅，这里未把论述体的统计结果列出。

句式A: NP主 + V起来状 + AP谓。该句式的形容词短语AP指向主语NP。

- (18) 今日江南看起来好像很平稳, 实际上到处都潜伏着危机; 如不早日限制富豪大户兼并土地, 赶快解救小民的困苦, 那么秦、晋、豫、楚瓦解崩溃的大祸就会在江南同样出现。

(18) 的“看起来”指向“今日江南”, 该类句式, 即使删去‘V起来’, 仍然可以接受, 这说明它不是句子的必有成分。如果是高频词‘看起来’、‘说起来’、‘算起来’、‘听起来’类, 把‘V起来’移到句首, 句子也可以接受。从语义上推导, ‘V起来’句中的动词V都存在一个隐含的施事。如果补不上这个施事, 句式A不能接受。

句式B: NP话题 + V起来主 + AP谓。该句式的AP指向句中没有语音形式但可以从语义上推导出的动词V的施事。见例 (19) :

- (19) 我去年在开封住时, 常同他作竟夜之谈, 十七史重大战争谈起来如数家珍, 不惟能详述战事经过…… (→十七史重大战争他谈起来如数家珍)

(19) 中的“谈起来”指向前一小句中出现的施事“他”。句式B删去‘V起来’则句子不能接受, 而且也不能移至句首NP话题前。有时为了表达的需要, 施事可以置于‘V起来’之后, 有时施事也能作为话题置于句首。在施事NP出现时, ‘V起来’出现的倾向性是首先选择提升其内部论元, 即宾语作为主话题, 而作为外部论元的施事则移位到次话题的位置, 这符合汉语话题位置多重性的特点。从认知的视角看, 宾语成分最容易被前景化。

句式C: NP主 + V起来谓 + AP补。AP指向动词V。

- (20) 但出乎意料的是, 那里的鸡块大都没有炖烂, 吃起来相当费劲儿。

(20) 的“费劲儿”指向V处理NP的动作所表现的状态。句式C删去‘V起来’则句子不能成立; ‘V起来’同样不能移动到NP前。

谓语前的‘V起来’构式的V多是内部情状无界动词，受事成分NP置于句首的主语或者话题位置，这明显是某种话题化操作的结果。因为该构式凸显受事，施事就隐退为背景信息。曹宏（2004c）将此类‘V起来’定性为状语；王健慈（1997）称为评判动词，看作情态成分；宋红梅（2008）认为是把‘V起来’后面的NP强制性地移动到句首的有形态标记的话题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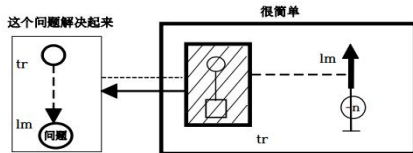
尽管该构式内部有差异，但这种语义指向的差异是认知主体因外部环境的不同，造成对表面看起来相同的现象因认知焦点的差异，使得AP或指向主语NP，或指向隐含的施事，或指向动词本身造成的结果。然而，无论AP的语义指向哪个成分，‘V起来’一旦进入这个构式，就成为指称性次话题（小主语），谓语AP所陈述的是前方的‘V起来’对NP处理的手段所显现的主观评价

据统计，‘V起来’的谓语前构式中的V高达85%以上都是内部无界的主体动作动词，高频词主要集中在表达人类认识、言语活动及一些动作动词，如‘看、听、说、算、读、写、笑、哭、叫、吃、喝、做、用、炒、走、跑’等；表达思考的动词，如‘理解、认识、想’等，这一现象与谓语位置上‘V起来’表达‘起始—持续’体意义的动词类型惊人的相似。在句式A中，构成AP的形容词都是复杂的形容词短语或小句，而句式B，特别是句式C由于指向动词所造成的状态，均是与情态副词共现的简单形式，所用形容词仅限于‘简单、简便、困难、麻烦、繁琐、难、容易、顺利、便利、方便、轻快、轻巧、慢（耗时多）、快（耗时少）’等。这类句式并不表达具体的事件，而是‘NP由于V的实施而凸现出AP’的性质，是说话者的主观评价，属于认识情态范畴。它不定指某一时间，具有泛时性特征。‘V起来’的有无，在句式A中不对命题的真值产生影响，但是句式B、C中，‘V起来’对命题的真值产生影响。该构式的‘V起来’不表达‘起始—持续’的现实意义，仅表达非现实的情态义，本文认为它是由表达‘起始—持续’体意义扩展而来的。

Palmer(2001)指出在语言中一般存在三种与认识情态有关的判断，一是表达不确定性的推测，二是表示以可得到的证据为基础的推断，三是表示以常识为基础的假设²¹⁾。Givon(1984)把时态、体、情态看作同属于一个语法子系统，与时态、体、情态有关的形态变化一般都聚集在动词周围，而且常常是

粘附在动词上²²⁾。可见，体与情态密不可分。‘V起来’的谓语前构式在语篇中表达的都是非现实性。而非现实性的模式之一就是认识论模式，它指说话人对已经存在的某种事件的估价，事件虽然已然存在，然而说话人不把它作为一个事件陈述出来，它只是对事件进行估价，而不对事件的真值作出完全的保证。‘V起来’的谓语前构式所有的例句都显示它是对已经发生的事件从隐含的或显性的说话人的视角，对客体从某一侧面进行评价、推断、推论、假设。这类‘V起来’出现率最高的就是‘看起来’、‘听起来’等感官动词，多呈现转折关系、因果关系；其次是‘吃起来’、‘使用起来’等多出现在并列关系语境中。此处以“这个问题解决起来很简单”为例，其认知图式如〈图10〉所示：

〈图 10〉‘V起来’的谓语前构式表达认识情态义的认知图式



〈图10〉中，内有斜线的长方形表示事态的特定化领域²³⁾，该领域作为射体tr与表达难易度的界标lm产生关系（向上的粗箭头是界标，竖立椭圆形中的-n（norm）代表[难/易]的判断标准）在该领域中‘NP+V起来’所反映的具体事态，即‘（某人）解决这个问题’的行为被特定化。（〈图10〉左侧长方形中上方的圆圈表示‘人’，下方的圆圈代表‘问题’，点线箭头表示“这个问题解决起来的行为”）。该图显示了‘V起来’的谓语前构式的‘话题/V起来/AP’之间的关系。

从语篇的层级来看，谓语前的‘V起来’构式中将宾语移向句首的话题操作也是为了句子前后的照应关系演化而来的。首先，‘NP+V起来+AP’在语篇中产生前后语义照应的衔接形式可以码化为“N，……‘V起来’+AP”，这表明NP所

21) Palmer, F. R.,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24.

22) Talmy, Givón,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1984, pp. 269-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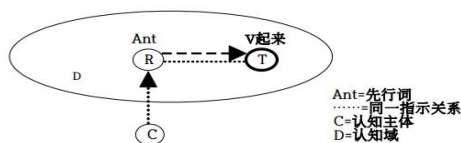
23) 特定化领域是把反映某一现象的一般性认知结构基于具体事例进行认知的领域。

在位置都在‘V起来’所在小句的前面，有时是毗邻小句，有时隔着数个小句。当NP与‘V起来’不出现在同一小句时，‘V起来’小句的NP就会产生语义空位，‘V起来’的使用不仅使所在小句避免重复使用相同的NP，更重要的是激活了表达的推进力。见例（21）：

- （21）这些石头大小不一，高低错落，大者有数十吨之重，小者仅为碎片，上面都是燃烧的痕迹。敲起来，简直跟钢板一般，铛铛作响。

‘V起来’所在小句在没有照应先行NP的代词时，能对前方小句的话题或宾语行使照应功能。在此，把先行词NP看成代词的指示对象，是准备启动的参照点，代词则成为与这个参照点互相照应的目标。‘V起来’在代词缺省的情况下兼具代词的照应功能。见〈图11〉：

〈图 11〉‘V起来’的谓语前构式在语篇中的照应功能认知图式



2) ‘V起来’在主语前位置的扩展

本文认为主语前位置的‘V起来’是从谓语前‘V起来’构式的句式A演化而来，当V是‘说、看、听、算、想’感知动词时，表示认识情态的语义因子被激活，进而演化成句首的‘插说语’。它在语篇中的有无不影响句子命题的真值，它是说话者从事件的外部对事件进行评价。见〈表8〉和〈表9〉：

〈表 8〉主语前‘V起来’构式在叙事体中的分布情况

动词类型 语用功能	内部有界动词		内部无界动词			语用功能 数量/百分比
	主体动作/ 客体变化	主体 变化	主体 动作	内心 情感	形容词	
评价立场			11	4		15/45.45%
认识立场			14	3		17/51.52%
情感立场				1		1/3.03%
动词数量/百分比	0	0	25/75.8%	8/24.2%	0	33/100%

统计显示，主语前的‘V起来’构式在叙事体中以表达评价和认识立场为主，在论述体中，表达认识立场的比例远高于评价立场；两类文体中表达情感立场的例句数量极少。Biber & Finegan(1989)认为“立场是说话人对信息或内容的

〈表 9〉主语前‘V起来’构式在论述体/科技体中的分布情况

动词类型 语用功能	内部有界动词		内部无界动词			语用功能 数量/百分比
	主体动作/ 客体变化	主体 变化	主体 动作	内心 情感	形容词	
评价立场	4	1	20	2	1	28/27.7%
认识立场	51		16			67/66.3%
情感立场		1	3	2		6/5.9%
动词数量/百分比	55/54.5%	2/1.9%	39/38.6%	4/3.9%	1/0.9%	101/100%

态度、评论，立场可以作为一种特定的表达形式，词汇和语法是立场的表达手段”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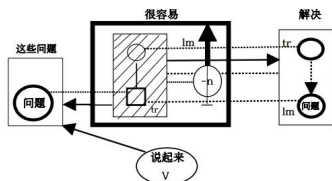
(22) 说起来，《广而告之》是中央电视台广告部办的，可它却绝非广告，丝毫没有广告的商业气息，取而代之的是朴实无华的生活质感，像“浪费粮食可耻”、“酒后行车危险”，这样的青青小草，足以使泛滥的、带有粗劣商业性的言情、武打、凶杀、黑幕片相形见“绌”。

(22)中“说起来”并非指说话，而是对某个已经存在的事态表明说话人的评价立场，认为《广而告之》“绝非广告”、“没有广告的商业气息”、“朴实无华的生活

24) Biber, D., & Finegan, E., “Styles of stance in English: Lexical and grammatical marking of evidentiality and affect”, *Text—interdisciplinary journal for the study of discourse*, 9(1), 1989, pp. 93–124.

质感”。“V起来”的主语前构式则是说话人从已然事态的外部对事态的看法构建主观立场，是对零散的客观现象的归纳，评价则更带有主观特征。此处以“说起来，这些问题很容易解决”为例，见〈图12〉：

〈图 12〉‘V起来’的主语前构式的基本认知图式



〈图12〉用斜线填充的长方形中，粗黑线小正方形（正如伸向左方的实线箭头所示）作为问题的解决对象而被特定化。用斜线填充的长方形（正如伸向右方的实线箭头所示）作为解决行为被特定化，同时，还与这种行为的难易度相关。不过，在这种情况下，这个事态中被凸显的问题（粗黑线小正方形）又作为叙述难易度的述语发挥着功能。在“这些问题很容易解决”这个句子中，“这些问题”作为解决的宾语的同时，也是“很容易”的主语，这个事实说明“这些问题”在上图中既可以作为射体也可以作为界标。

从语篇的层级看，主语前的‘V起来’作为语用标记，具有人际功能中的互动性与构建话语立场的一致性功能，这在叙事体的对话部分或者访谈对话中体现的较为明显。

(23)王栋：自20世纪60年代以来，整个社会发生了巨变，女性的地位和以前完全不同了。……那么，杂志又是如何做出相应调整的？

米歇尔：哦，大话题，说起来话可就长了。女性作为一个群体发生了很大的变化，……从性别角度讲，我们在跟着时代转变，所有的东西都在剧烈变化着。

(23)中，王栋发起的话轮是随着女性地位的提高，杂志社如何做出相应的调整。米歇尔听后用“说起来”作为起始来回答王栋的提问。很明显，在对话体

中，主语前的‘V起来’已经演化成为一个与对方互动来表达评价、认识或情感立场的标记。

5. 结语

本文考察了‘起来’基于隐喻机制的语义扩展，其顺序是：位移义→‘起始-持续’体意义→形成-结果’体意义→认识情态义；与此相对应，‘起来’也由动词演变为：趋向动词→体助词→话题标记-语用标记。如〈表10〉所示，‘起来’扩展的第一个方向是与内部情状有界的主体变化的位移动词共现，从动词进入‘V起来’构式，变成趋向动词，表现出终结限界的实现。

〈表 10〉‘V起来’的语义扩展过程及相应语义特征

语义特征 扩展过程	位移义	起始-持续义	转态-结果义	情态义	情态义
	趋向动词	体助词	体助词	话题标记	语用标记
一. 位移动词+起来	+	-	+	-	-
二. 内部无界动词+起来	-	+	-	-	-
三. 内部有界动词+起来 (1) 事态在时空中量域的增长	-	-	+	-	-
四. 内部有界动词+起来 (2) 事态在时空中离-统状态的转换	-	-	+	-	-
五. ‘V起来’在谓语前	-	-	-	+	-
六. ‘V起来’在主语前	-	-	-	-	+

第二个方向是从物理性空间域向时间域的扩展，这是语义扩展中至为关键的一步。在从源域向目标域的投射中，‘起来’与内部无界动词的结合，保留了其原型义的基本特征，即有起点，从起点开始发力；但由于此类动词无内在终结点，认知主体的视点是起始限界的实现并持续，表达‘起始-持续’体意义。

第三个扩展方向是事件在社会空间的量域的扩展，包括从无到有和从小到大。在量域扩展的意象图式与源域的结构有较多类似点，凸显事件的到达点，起点相对虚化，路径背景化。其构式多是主动句、‘是……的’句、连动句、中动句等，动力来自行为主体的自身，并推动自身沿着时间轴在空间域发生

量变。

第四个扩展方向是从离散到统合状态的转换,包括从自由到不自由状态、从可见到不可见状态、从松散到规范状态、从分离到链接状态、从离散到统合状态的转换等五种。这一扩展通过融入‘容器图式’、‘整体-部分图式’从不同的视角重新组合,创造了新的意象图式,即便如此,仍保留了‘V起来’内部有界的终结限界实现义以及‘起点-路径-到达点图式’的部分特征。从自由到不自由状态、从可见到不可见状态的变化融合了容器图式;从分离到链接、从离散到统合还进一步融入了‘整体-部分’图式。这五类中,把字句、致使句、被动句占压倒性多数,它们的共通点都是凸显到达点,均由及物性极强的动词构成,运动的结果均使客体发生位移和变形,表达‘转态-结果’体意义。

第五个扩展方向是‘V起来’谓语前构式的形成。‘V起来’由发挥概念功能逐渐演化到语篇功能。这类构式由‘起始-持续’体意义的构式逐渐虚化而来,表达的是泛时化的非现实认识情态义,其内部结构并不完全一致,有些变体可以影响句子命题的真值,但有些不能。其意象图式与在时间域扩展的认知结构已有较大差异,从认知主体的视点与事件在时间轴上以指定时点为参照时间的起始状态相交的‘起始-持续’体意义,虚化为“每当‘V起来’的时候”的泛时态,由句子的基谓语变为话语标记,由表达现实体意义变为描写主语NP、隐性施事的状态或动词V所造成的结果状态的情态义。其语篇功能主要是照应先行NP在后续‘V起来’所在小句形成的语义空缺,保持语篇中句子语义衔接的前后一致性。

第六个方向的扩展是‘V起来’主语前构式的出现,这是从‘V起来’谓语前构式中的句式A中进一步虚化而来。‘V起来’的V在叙事体中的高频词只剩下‘看、说、听’等为数不多的动词,这些词早已从表达五官感知义扩展成推断、评价和思考义并虚化成为‘插说语’,它的有无对句子命题的真值没有影响,变成语用标记,在语篇中发挥的是人际功能,主要在对话中表达互动性和构建话语立场的一致性。

‘起来’作动词的复合方向补语只是其在词语层级上的意义,在现代汉语的共时语法中,其核心意义是在句子层级上表达两种体意义,即‘起始-持续体’

和‘转态—结果体’；此外，在语篇层级上它是承担认识情态义的话题标记，在语用层级上它是构建话语立场一致性的语用标记。这一发现表明我们有必要从这一视角重新构建复合方向补语在对外汉语教学语法中的描写规则。

◆ 参考文献

1. 单行本

- 戴耀晶, 『现代汉语时体系统研究』,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7.
- 郭锐, 『现代汉语词类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2002.
- 刘月华, 『趋向补语通释』, 北京: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1998.
- 吕叔湘主编,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1980/1999.
- 山梨正明, 『認知文法論』, 東京: ひつじ書房, 1995.
- 山梨正明, 『認知言語学原理』, 東京: くろしお出版, 2000.
- 唐正大, 「从独立动词到话题标记——“起来”语法化模式的理据性」 『语法化与语法研究(二)』, 北京: 商务印书馆, 2005.
- Comrie, Bernard, *T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Givon, Talmy,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1),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84.
- Hopper, P. J. (Ed.). *Tense-aspect: between semantics & pragmatics: containing the contributions to a Symposium on Tense and Aspect, held at UCLA, May 1979* (Vol. 1).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1982.
- Langacker, Ronald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 Langacker, R. W., *Concept, image, and symbol*. Walter de Gruyter Inc, 2002.
- Lakoff, G., &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 Palmer, F. R.,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2. 论文

- 曹宏, 「论中动句的层次结构和语法关系」, 『语言教学与研究』第5期, 2004, pp.42-52.
- 房玉清, 「起来」的分布和语义特征」, 『世界汉语教学』第1期, 1992, pp. 23-28.

- 贺阳, 「动趋式“V起来”的语义分化及其句法表现」, 『语言研究』第3期, 2004, 23-31.
- 齐沪扬, 曾传祿, 「“V起来”的语义分化及相关问题」, 『汉语学习』第2期, 2009, pp.3-11.
- 李敏, 「“V起来”结构中“起来”的分化」, 『烟台师范学院报』第3期, 2005, pp.74-77.
- 尚新, 「语法体的内部对立与中立化」, 华东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2004.
- 宋红梅, 「“V起来”句作为有形态标记的话题句」, 『外语研究』第5期, 2008, pp. 14-19.
- 吴洁敏, 「谈谈非谓动词“起来”」, 『语言教学与研究』第2期, 1984, pp.27-38.
- 吴为善, 「“V起来”构式的多义性及其话语功能—兼论英语中动句的构式特征」, 『汉语学习』第4期, 2012, pp.3-13.
- 王健慈, 「汉语评判动词的语义类」, 『中国语文』第6期, 1997, pp. 432-438.
- 张谊生, 「“看起来”与“看上去”—兼论动趋式短语词汇化的机制与动因」, 『世界汉语教学』第3期, 2006, pp. 5-16.
- Biber, D., & Finegan, E., “Styles of stance in English: Lexical and grammatical marking of evidentiality and affect”, *Text—interdisciplinary journal for the study of discourse*, 9(1), 1989, pp. 93-124.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8월 08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8월 29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9월 07일

Abstract

On the Metaphorical Mechanism of Semantic Expansion of “V-qilai” from the Cognitive Perspective

Guo, Yibin

The verb “qilai” into the “V-qilai” construction and becomes the directional verb. After that, it begins to expand to the temporal domain and the spatial domain based on the metaphorical mechanism. The expanded “V-qilai” can express two aspectual meanings of “initial-continuance” and “conversion-result” in the predicate position. Afterwards, on the basis of the meaning of “initial-continuance”, “V-qilai” becomes a pan-temporal discourse marker before the predicate, which expresses the epistemic modality, and plays an anaphoric function in the text, and cannot fully guarantee true and false of the sentence proposition. On this basis, “V-qilai” has further evolved into a topic marker before the subject. As a parenthesis, it has the function of interaction and construction of discourse consistency in the text, and does not have any influence on the truth and falsehood of sentence propositions.

Metaphor, Source domain, Target domain, Initial-Continuance Aspect, Conversion-Result Aspect, Image schema

臺灣禁忌文化概析

—以醫院、婚姻、行業、節慶為中心

李憶琦* · 韓容洙**

국문요약

언어와 문화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외국어를 배울 때 현지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 현지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현지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면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틀린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 양쪽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현지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웃어넘기며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용어와 이유를 알려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용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와 금기어 등을 학생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면, 학생들은 많은 어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현지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중국어학습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독특한 문화와 습관도 보여준다.

본문에서는 대만의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 피하고자 하는 용어와 행동을 큰 범주로 나눠 대만 문화와 그와 관련된 금기어를 더욱 기본적이고 전면적으로 살펴보았다. 대만의 많은 언어습관은 대만 민남어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금기어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만 민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많다. 본문에 서술한 병원, 혼인, 직업, 명절 등의 여러 주제와 관련된 금기어와 금기문화를 통해 특수한 대만 금기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현상과 국민들의 심리상태도 알 수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 대만 금기문화와 관련된 논문이 그리 많지 않아 본 문은 한국의 대만 금기문화연구 영역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주제어 대만, 금기어, 금기문화, 언어사용, 타부

* 第一作者：東國大學—首爾，中文系 博士畢業

** 通訊作者：東國大學—首爾，中文系 教授

〈目錄〉

1. 緒論
2. 名詞釋義
3. 臺灣禁忌文化的類別與概析
4. 結論

1. 緒論

不能做或說的‘禁止’及因某些原因不願意做或說的‘忌諱’合稱為‘禁忌’每種語言或每個民族都有其禁止及忌諱的事物、行為，而禁止及忌諱之話語可稱之為‘禁忌語’。‘禁忌’是一種非常古老的文化現象，它代表了原始人類認識世界的方式，同時又是他們形成文化觀念，進而構築起自己的精神世界的形式。如果說現代人類是以法律和道德規範人類行為的話，那麼原始人就是以禁忌來規範他們的行為，禁忌在他們的世界中占有重要的地位。禁忌思維以隱喻為基礎，也就是部分代替全體的思維方式。¹⁾禁忌就科學的角度來看時，能說是一種沒有根據的迷信文化，但有時用科學無法解釋時，就產生了‘寧可信其有，不可信其無’的禁忌文化，加上人們未雨綢繆的心理因素，能不說的、不做的，能先避免的，就不宣之於口，不起而行之，進而產生了約定成俗的習慣。禁忌文化或禁忌語言有影響其社會文化的能力之一，透過禁忌文化及禁忌語也能更有效的幫助我們了解當地傳統習俗。

再者，語言與文化密不可分，當我們在學習一項外語時，常常有不了解當地風俗而說錯話的情況，這不僅會造成對方不悅，自己卻不知其原因，而面臨尷尬的處境。當地人也許會因對方是外國人而一笑置之，告知正確用語及其禁忌等，但有些人因避諱而不告知外國人時，可能會使外國人怕說錯話而再也不敢使用其語言。為了避免類似情形的發生，如能在教學時一併教授於學生，相信就能避免諸多尷尬的情況，學生也能更深入地了解當地文化，探究

1) 王新華，『避諱研究』，齊魯書社，2008。

其文化與語言的影響。通過本文可大致了解在臺灣某些場所盡量不能使用的話語及行為，除了能給華語學習者作為參考外，也能使讀者理解臺灣特有的風俗民情。

邱湘雲(2007)「委婉語在臺灣語言及臺灣文學中的表現」一文中提到了禁忌語及委婉語之關係，委婉語的形成也是由於禁忌語而產生，提到了一般人對死亡、疾病、性事、排泄物等禁忌事物之委婉語，以及臺灣語言中客家話、閩南話、粵語等委婉語的舉例及比較。並透過臺灣的文學作品分析各種委婉語，最後提出了委婉語的語言表現及修辭手段等等。汪詩穎(2006)「臺灣閩南語禁忌語及其語意替代轉換之分析」文中提到了‘禁忌’在中西方的解釋及閩南語在日常生活中的禁忌語，其中提到了忌直接說凶禍、性行為及性器官、排泄、婦女月經及忌說的數字等。另外也提出婚嫁、生育、居家、節令、行業、喪葬等民間習俗在閩南語中的禁忌語，最後是分析禁忌語的語意聯想及語意替代等。

中國大陸也有許多關於禁忌語之文章，曹群英·肖武云(2008)「禁忌語與其文化淵源」首先解釋了什麼是禁忌語，並將禁忌與分類成間候禁忌語、與宗教信仰有關禁忌語、種族歧視禁忌語及猥褻禁忌語等，以及列出了其文化淵源。傅杰(2011)「禁忌語的語用功能」中指出了禁忌語有三種語用功能，第一、以言指事功能，第二、行事致效功能，第三、文化映射功能。另外還有馬偉林(2001)「影響禁忌語發展的社會因素透析」、舒春林(2012)「文化視野下的禁忌語和委婉語」等文章。

在韓國對臺灣的禁忌語及文化之研究不多，因此本文的研究範圍將主要參考臺灣的各先行研究、辭典及臺灣中央研究院平衡語料庫，進而大方面的對臺灣的禁忌語與文化進行分類、統整及概析。分類以日常生活常見之醫院、婚姻、行業、節慶等四個方向為主，因人們十分注重生老病死、婚姻大事、生計、傳統習俗等，因而產生出了許多相關禁忌文化，此四個方面與禁忌文化息息相關，甚至可說是有直接的關係。藉此期望本論文能對韓國各界在理解臺灣的禁忌語及文化方面有所助益。

2. 名詞釋義

許多學者都為禁忌語下了定義，馬偉林(2001)禁忌語是語言的一部分，它因語言的發展而產生。禁忌語的一個重要的特點是禁止使用這些詞彙的原因是由社會因素決定的。²⁾鄭永輝(2007)禁忌語的產生最初可能源於語言靈力崇拜，先民們認為語言就具有靈力，詞語就等同於它們直接指稱的事物，言語所提到的事物能給人帶來禍福，禁忌語是禁忌內，它由對神的禁忌發展到對人的禁忌。³⁾舒春玲(2012)禁忌語指由於某種原因，不能、不願說出某些具有不愉快的聯想色彩的詞語和至高無上而不可以隨便說詞與，淫穢的語言(ob-scene language)、髒話(dirty words)或不便說出口的話。⁴⁾邱湘雲(2012)漢文化中有所謂的‘名實相副’、‘禍從口出’、‘一語成讖’等思想，為了避免提及不吉利的事，及未免於不及語言招致凶險禍患之可能，於是就形成了部分不可提及的‘禁忌語’。⁵⁾禁忌語是根據當地社會風俗習慣而形成的一種語言現象，語言是使人類能夠交際的一種方式，人們相信用於交際的語言會給自身或他人帶來有利或不利的影響，亦或者有時是‘中不中聽’的問題，例如髒話、不雅的話等等，因而產生了禁忌語言。

禁忌語的來源許多學者們的意見幾乎相同，他們認為禁忌一詞源於1777年英國科克船長至中南太平洋‘湯加島’上發現土著們使用的土語‘塔布(Taboo)’而來的，而許多學者也認為中國漢語史上禁忌一詞最早出現於漢代，『漢書·藝文志·陰陽家』記載：“及拘者為之，則牽於禁忌，泥於小數，舍人事而任鬼神”。關於‘禁忌’兩字的解釋，許慎『說文解字』云：“禁，吉凶之忌也，從示林聲。”『廣韻』：“禁，制也、謹也、止也”，所以‘禁’字有‘制止、謹戒’之意。

『說文解字』對‘忌’字的解釋：“憎惡也，從心己聲”；『廣韻』：“忌，諱又畏

2) 馬偉林，「影響禁忌語發展的社會素透析」，『北京第二外國語學院學報』第6期，2001，pp.34-39.

3) 鄭永輝，「禁忌語委婉語性質新探」，『紹興學院學報』第7期，2007，pp.20-23.

4) 舒春玲，「文化視野下的禁忌語和委婉語」，『語文學刊』第23期，2012，pp.54-56.

5) 邱湘雲，「華語人稱委婉語認知隱喻探析」，『臺灣華、客、閩語彙研究論集』，聯合百科出版社，2015.

也、敬也、止也、憎惡也”，此字有‘憎惡、畏懼’之意。由此觀來，‘禁’的作用力來自於外在的因素，如：首領君王、或神靈鬼神，強調的是自然的、社會的或客觀的束縛；‘忌’表現的是人的好惡取向，強調的是人主觀的、內在的、情感的因素。⁶⁾中文的‘塔布’為波利尼西亞方言中的‘神聖’之意，是直接從英文的‘taboo/tabu’音譯而來，指禁忌的意思。在不同的情況下會造成人們心理不適，抑或是害怕發生和不願提起等在社會生活中忌諱或規避之事為禁忌。禁忌語是古今中外共同的習慣之一。⁷⁾由此可知，禁忌語在東西方都已流傳許久，從古至今人類依舊遵守著社會無形中所形成及規範、約定成俗的禁忌語及禁忌文化習慣。

例如在醫院及婚宴中我們不說‘再見’，尤其是探病者對病人，這象徵著一種‘在這裡再相見’的雙關語，而眾所皆知的還有在東亞社會中較忌諱的‘四’字，音與‘死’相近，自然在醫院中的電梯及病房號中不會出現等，在第三、第四節中將再進行整理與分析。

3. 臺灣禁忌文化的類別與概析

臺灣包容著許多族群，客家、閩南、外省以及臺灣本土的原住民，現今還有許多移居至臺灣的新住民等，因此臺灣語言也受到了許多客家或閩南方言等的影響。汪詩穎(2006)臺灣因大部份人的祖籍源自閩粵，承襲中原文化的傳統，又早期來臺移墾的人民在四周圍盡是榛莽、瘴癘、人禍的惡劣環境下求生存，和環境搏鬥而醞釀出來的風土民情，形成了臺灣獨特的民俗文化。因此臺灣民間禁忌的形成原因，有些傳承自閩粵地區的風俗習慣；有些則是因應臺灣本地之地域性及風土民情而醞釀出來的。⁸⁾然而禁忌語也不例外，除了閩

6) 汪詩穎，「臺灣閩南語禁忌語及其語義替代轉換之分析」，2006，<http://ip194097.ntcu.edu.tw/giankiu/GTH/2006/TSIT/lunbun/2-3汪詩穎論文.pdf>，檢索日：2021/06/06。

7) 한용수, 「중국 금기어 소고」, 『비교문화연구』 제34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4, p.307 참고.

8) 汪詩穎，「臺灣閩南語禁忌語及其語義替代轉換之分析」，2006，<http://ip194097.ntcu.edu.tw/giankiu/GTH/2006/TSIT/lunbun/2-3汪詩穎論文.pdf>，檢索日：2021/06/06。

粵方言的影響外，臺灣早期受過許多國家之殖民，日治時期的日語對臺灣的影響尤為深遠，因此許多禁忌語也是由於方言或其他語言影響而形成的。

臺灣的禁忌語及文化特別表現在諧音雙關及聯想中，語言中的雙關或者諧音現象都會使該詞語或該話語形成不同的意思，例如‘一鳴驚人’，原比喻平時默默無聞，潛藏才華，一旦有機會施展時，果真令人驚訝、佩服，但如果是喝茶或賣茶的店，可以改為‘一茗驚人’，一品嘗到就令人感到驚艷。另外還有雙關或諧音後意思不同的，像是‘不知道’一詞的與閩南語(臺語)發音類似‘莫宰羊’，而就有賣羊肉料理的店使用‘莫宰羊’一詞當作店名，不僅有趣，也能讓人一目了然，有吸引顧客之效果。

1) 醫院禁忌語及文化

(1) 每日C：諧音雙關

每日有天天、逐日的意思⁹⁾。每日C是1997年3月在臺灣上市的一種果汁飲品，有柳橙、葡萄等口味，由於果汁裡含有維他命C，每天‘吸’果汁，每天得到維他命C，是一種透過雙關及諧音現象而取名的一種產品，但在醫院中的醫生護士及工作人員，禁止喝每日C，因為帶有‘每天會CPR’的雙關及諧音成分在其中，因此在醫院中不會出現類似的詞語。

(2) 鳳梨：閩南語(臺語)諧音雙關

植物名。鳳梨科鳳梨屬，多年生草木。葉大，邊緣呈鋸齒狀，花小，淡紫色，果實也稱為‘鳳梨’，形如松毬，呈橢圓形，味酸甜芳香。也稱為‘波羅’、‘楓梨’¹⁰⁾。

鳳梨的閩南語(臺語)於臺灣閩南語常用詞辭典中雖標示為‘王梨(ōng-lâi)’，又可稱‘鳳梨’，臺灣於清代康熙末年開始栽培。依照民間習俗，在商家開市

9)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 <http://dict.revised.moe.edu.tw/cgi-bin/cbdic/gswweb.cgi?ccd=WRG6Qu&o=e0&sec=secl&op=v&view=0-1>

10)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 <http://dict.revised.moe.edu.tw/cgi-bin/cbdic/gswweb.cgi>

拜拜或候選人競選時，大家總是拿鳳梨來祈福，因為它除了食用外，還存有閩南語‘旺來’的吉祥含意¹¹⁾。‘旺’有興盛、猛烈的意思¹²⁾，‘旺來’就是源源不絕地來、猛烈的來，因此在醫院中不送鳳梨當作探病的慰問禮物，在醫院中也不吃鳳梨，自然在醫院中也屬於禁忌語及文化。

例句1：醫院有個特別的習俗，在拜拜的蔬果供品中，不能拜鳳梨，以免病人越來越旺。

例句2：醫院在七月普渡拜拜時，和民眾最大的不同就是，不能以鳳梨當供品，以免病人越來越旺，總是出不了院。¹³⁾

(3) 旺旺仙貝：諧音雙關

旺旺仙貝是1979年在臺灣上市的一種米製品餅乾，這裡的旺旺仙貝與鳳梨一樣，由於‘旺’字，在醫院中也是不吃並且不說的一種禁忌文化。

(4) 芒果：諧音雙關

植物名。漆樹科椶果屬，常綠大喬木。葉在小枝上為螺旋排列，嫩時帶暗紫色，老則呈暗綠色，長橢圓形或長披針狀。圓錐花序頂生，花小形，黃色。果實也稱為‘芒果’，長橢圓形，熟時黃色，五月下旬開始成熟。也稱為‘椶果’¹⁴⁾。

‘芒’音同‘忙’，人們都希望健康，少去醫院，使醫院不要這麼‘忙’，或是在醫院期間大家能好好治病，早日痊癒，在醫院裡不要有太多緊急情況發生，因此醫院相關工作人員禁吃芒果，才不會‘忙’。

11) 教育部臺灣閩南語常用詞辭典，<http://dict.revised.moe.edu.tw/cgi-bin/cbdic/gsweb.cgi>

12)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http://dict.revised.moe.edu.tw/cgi-bin/cbdic/gsweb.cgi?ccd=Vlkqxr&o=e0&sec=sec1&op=v&view=1-1>

13) 中央研究院平衡語料庫，<http://asbc.iis.sinica.edu.tw>

14)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http://dict.revised.moe.edu.tw/cgi-bin/cbdic/gsweb.cgi?ccd=Nky3pt&o=e0&sec=sec1&op=v&view=2-1>

(5) 芋圓：臺語諧音雙關

芋圓是在1946年被研發出來的一道著名的臺灣傳統甜點。加上地瓜粉及水拌勻成糰，搓揉成長條形再切成小塊，放入沸水中煮至浮起撈出即成芋圓。煮熟的芋圓可和在冰糖水裡食用，也可熱食。在臺灣，許多甜點如豆花、刨冰，均可加點芋圓和地瓜圓覆蓋其上一起食用。¹⁵⁾

芋圓的臺灣閩南語發音為‘喔銀(ōo-înn)’，音與救護車響時的‘喔咿喔咿’相似，因此醫院，特別是急診室皆避諱此食物。

(6) 紅豆相關製品：聯想

植物名。蝶形花科菜豆屬，一年生草本。葉為複葉，由三枚小葉組成，莢細長，表面光滑無毛，內含七至十粒暗紅色種子。分布於中國、韓國及日本等地。也稱為‘赤豆’、‘赤小豆’¹⁶⁾。紅豆雖然不是正統的大鮮紅色，但在字面上因為有個‘紅’，血也是紅色，因此紅豆相關製品在醫院也是盡量不食用，以免見‘紅(血)’。

(7) 雞腿：聯想

‘雞腿’象徵會如同雞一樣，需要一直跑來跑去，類同‘芒果’的概念，為了希望不要太忙，在醫院中也是禁忌的食物之一。

(8) 印章不能於上班時間添加墨水：聯想

此類主要為禁忌文化，如果於上班時間中往印章裡添加墨水的話，象徵著會越蓋越多，墨水蓋不完。

以上的醫院禁忌語及文化也可適用於殯儀館、警察、消防局等，有關到人民健康、保護人民等的此類行業避免犯以上禁忌的同時，也象徵著希望大

15) 維基百科, <https://zh.wikipedia.org/wiki/芋圓>

16)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 <http://dict.revised.moe.edu.tw/cgi-bin/cbdict/gswweb.cgi>

家能夠平安健康。

2) 婚姻禁忌語及文化

婚姻大事常與禁忌有著直接的關係，古人認為做許多事都必須符合節令，錯了時機也等於錯了人生，婚姻既然為人生大事，也必須要小心謹慎，因此出現了許多與婚姻相關的禁忌語及文化。另外，由於古時不使用國曆(陽曆)，以下分析皆按照農曆月份來計算。婚宴時也與醫院一樣，在告別時也不宜使用‘再見’一詞，有象徵詛咒對方再婚的意思。

(1) 禁忌新郎新娘吃蔥：諧音雙關

吃蔥會沖到，沖有衝突、相忌。如：‘相沖’、‘對沖’。破解厄運。如：‘沖喜’、‘沖運氣’¹⁷⁾。臺灣閩南語常用詞辭典中則是有冒犯鬼神或相剋之意，例：沖犯(tshiong-huān)。另有術數用語，命理學上指厄運的破解，例：沖喜(tshiong-hi)¹⁸⁾。婚喪喜慶中常有與臺灣閩南語相關的用詞及文化。

例句1：八字以火為用，但午火被丑土害，用神無力。濕土主做事欠主見。現正行己丑大運，丑未沖，沖夫宮，人會不開心。

例句2：今年辛巳年天干剋乙木年干，地支三亥沖一巳朋沖。結果是任職機構會被改組收購，流年火旺剋金必不利西方外來員工……。¹⁹⁾

(2) 四月至九月禁結婚：諧音雙關+聯想

此禁忌文化目前已較少人遵守，由於受到西方文化之影響，越來越多人認為在六月結婚的新娘會幸福，而臺灣天氣較炎熱，三月春暖花開，正是結婚

17)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http://dict.revised.moe.edu.tw/cgi-bin/cbdict/gsweb.cgi?ccd=5lGqpw&o=e0&sec=sec1&op=v&view=4-1>

18) 教育部臺灣閩南語常用詞辭典，https://twblg.dict.edu.tw/holodict_new/

19) 中央研究院平衡語料庫，<http://asbc.iis.sinica.edu.tw>

的好時節等。

因民間俗信‘四月死月、五月差誤、六月半年妻、七月娶鬼某(七月即鬼月)、八月娶土地婆、九月狗頭重，死某亦尪。(因二十四節氣之‘霜降’在農曆九月，而‘霜降’的閩南語發音如同‘喪降’，故禁忌結婚)。²⁰⁾

‘五月差誤’是因‘五’與‘誤’同音，五月為惡月，這月嫁娶恐有‘差誤’。民間還有‘五月娶五毒某’的說法，也是基於五月五日端午節，俗稱‘五毒節’的緣故。

‘六月娶半年某’，是因六月等於半年，俗畏‘半年夫妻’之兆，擔心早喪偶或離婚，造成一方或雙方的不幸。

‘七月娶鬼某’，是因為七月俗稱‘鬼月’。這月陰間的一些孤魂野鬼會一齊湧到陽間來討吃。在崇信鬼神的時代，人們害怕觸犯鬼魅，便忌諱在此月內嫁娶。

‘八月娶土地婆’，是因當地八月十五日是祭土地公的日子，八月里嫁娶，恐怕娶著了土地婆。據說土地公懼內，怕老婆。因而在八月里嫁娶恐怕將來也要怕老婆的。‘九月狗頭重，死某亦死尪’，

‘九’與‘狗’諧音，‘狗’是常常用來罵人的咒語。民間有不正當關係的男女為‘狗男女’，所以當地人忌諱‘九’字。九月又是霜降的節氣，‘霜’與‘喪’諧音，故而擔心在這月裡結婚，日後不是死妻就是死夫。²¹⁾

臺灣閩南語裡的‘某(bóo)’為華語的‘妻子、老婆’之意，‘尪(ang)’為‘丈夫、老公’之意，因此以上所述‘七月娶鬼某’即‘七月娶鬼妻’、‘九月狗頭重，死某亦尪’即為‘九月狗頭重，死妻亦夫’。現今有許多人受到西方等其他文化之影響，於以上幾個月份內結婚的人也日益漸增，也可見習俗的規範在日益放寬，由於科技進步，眾多人漸漸採取著相信但不迷信的態度，我們還是必須保持著尊敬的想法來對待傳統習俗。

20) 張金源，「臺灣民間禁忌下的宣教進路」，臺灣神學院數位典藏，2008，pp.13-14，<https://ir.taitheo.org.tw/handle/987654321/515>，檢索日：2021/06/01。

21) 殷登國，『歲節的故事』，雲龍出版社，2004，pp.134-135。

3) 行業禁忌語及文化

上述提到了醫院禁忌文化，此小節為其他行業的禁忌文化。各行各業都有其禁忌，為避免觸犯，如能事先了解即可規避。

(1) 商家忌說‘關門’，而以‘打烊’代替：聯想

‘關門’有‘商業機構倒閉’之意。如：“那家商店因資金週轉不靈，已經關門了”。相關詞語另有‘關門大吉’，指譏諷事業失敗而倒閉，如：“股市崩盤，有不少證券公司都關門大吉了”。²²⁾‘打烊’為‘商店晚上收市’，『文明小史』第19回：“不提防堂倌一聲呼喊，說是打烊，只見吃茶的人，男男女女，一哄而散”。²³⁾韓容洙(2014)指出‘關門’為在事業上破產或倒閉，此詞語源於吳語地區的江南方言‘打烊’²⁴⁾。店家因害怕自己的店關門倒閉，而改用‘打烊’一詞替代。

例句1：建管處今將再複查二十家電影院，不合規定者難逃關門命運。

例句2：我們向老闆道了謝，正想去買些鹽水意麵帶回家，卻發現商家都開始撤退了，關門的關門、收攤的收攤、趕人的趕人……。²⁵⁾

(2) 忌藥店、棺材店向客人說‘再來坐’：聯想

‘再來坐’類同‘再見’，有著希望下次再來的意思，但人類對於健康、死亡這一相關事物是極其敏感的，誰都不願意再次出現在藥店、棺材店裡。

(3) 航運業忌說與‘沉’、‘翻’同音的字，改用‘添飯’來取代‘盛飯’：諧音雙關

22)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 <http://dict.revised.moe.edu.tw/cgi-bin/cbdict/gswweb.cgi>

23)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 <http://dict.revised.moe.edu.tw/cgi-bin/cbdict/gswweb.cgi?ccd=dqhTqJ&o=e0&sec=sec1&op=v&view=7-2>

24) 한용수, 「중국 금기어 소고」, 『비교문화연구』 제34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4, p.319.

25) 中央研究院平衡語料庫, <http://asbc.iis.sinica.edu.tw>

‘沉’有‘沒入水中’之意，『詩經·小雅·菁菁者莪』：“汎汎楊舟，載沉載浮”。²⁶⁾而‘翻’有‘反轉’、‘覆轉’之意。為避免‘沉船’、‘翻船’，因此諧音的‘盛飯’也改用‘添飯’來使用，‘添’有‘增加’之意，把飯加上去的意思。另有在吃魚時，不能將魚‘翻’過來食用。

例句1：我們還準備請您認識南沙的海龜、探究澎湖海底沉船的秘密。

例句2：日月潭翻船事件不久，這是又一次交通陷阱所造成的國際新聞級慘案。²⁷⁾

(4) 戲劇從事者忌說‘豬肺’，因肺的臺灣閩南語音近‘豬戲(ti-hì/tu-hì)’，如同嘲笑自己與豬一樣

：諧音雙關；演藝人員不可說‘蛇’及‘狗’。²⁸⁾：聯想

(5) 飛行員不吃‘醉雞’，因同‘墜機’：諧音雙關

‘醉雞’是中國浙江的一道名菜，將雞肉以紹興酒醃製及烹調而成，通常以

26)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http://dict.revised.moe.edu.tw/cgi-bin/cbdict/gswweb.cgi?ccd=1oJ5qj&o=e0&sec=sec1&op=v&view=8-1>

27) 中央研究院平衡語料庫，<http://asbc.iis.sinica.edu.tw>

28) 傳說為戲神田都元帥曾被蛇所困，因此不可說蛇。藝人也時常於野外演出，俗語說‘說人到人，說鬼到鬼’，‘說曹操曹操到’，為祈求安全免遭不測，因此不可說蛇，以免‘說蛇蛇到’。如必要說蛇則改稱為‘溜’、‘溜公’或‘草索仔’。『白蛇傳』則稱為白‘T I Y’/xiá’傳。假如外人不知情冒犯禁忌，則藝人會立即說，‘蜈蚣咬你的嘴’，因為蜈蚣是蛇的天敵，說‘蜈蚣咬你的嘴’之意是蜈蚣克制蛇的忌諱，嚴禁說蛇是臺灣傳統戲班最普遍的禁忌。臺灣的傳統劇團通常都是供奉王爺或田都元帥為戲神，奉祀西秦王爺的劇團不可說狗，是因為傳說西秦王爺因經唱戲而使聲道受損，幾乎倒嗓，有一次王爺在聽到狗吠聲時，突然得到靈感，因而體驗出發聲的方法。伶人們為感激發靈感，因此將它塑造成人形並供奉在王爺神案之下，稱為‘將軍爺’。其次，據說金雞、玉犬是田都元帥的朋友，在田都元帥得道之後，雞犬也隨之升天，成為陪祀之神，藝人為避免直呼其名諱，對狗將軍不敬，因此改稱為‘細毛’。據說劇團中如有狗跑進來，則象徵有好預兆，藝人稱之為‘細毛進斗’。整理至<https://kknews.cc/culture/x8z98g.html>， 檢索日：2021/06/01。

冷盤的形式享用。²⁹⁾‘墜’有‘掉落’、‘落下’³⁰⁾之意，如食用的話將會有飛機失事的說法。

例句1：他的長子小約瑟夫在二次大戰死於墜機，得年二十九歲。

例句2：自民國八十年以來，臺灣空軍共發生過三十次墜機事件、共有三十一架次軍機報銷……。³¹⁾

4) 節慶禁忌語及文化

春節對中華民族來說為一年之中最重要的節日，也是一年的開始，自然有許多規矩須遵守，也有許多禁忌要避免。而中元節與人們最畏懼的鬼神有最直接的關係，關於鬼神的禁忌當然也能事先了解的話，即能避免惹禍上身。

(1) 春節

春節為農曆的除夕至初五，初一時不能煎‘粿’³²⁾：諧音雙關

怕將年粿煎焦，臺灣閩南語的‘微焦’，諧音同‘赤(tshiah)’，臺語裡的‘散赤(sàn-tshiah)’有貧窮、窮困。缺乏錢財，生活拮据困乏之意。例如：‘因兜真散赤(In tau tsin sàn-tshiah)’即為‘他家很窮’。³³⁾

春節吃餃子時，煮破的餃子不能說‘破’了、‘爛’了、‘壞’了，而要說‘掙’了、‘漲’了：諧音雙關

‘破’有‘毀壞’、‘使碎裂’、‘使完整的東西受到損壞而不完整’、形容‘受到損壞而殘破的東西’、‘差勁’、‘低劣’等意。‘爛’有‘腐敗的’、‘破舊的’、‘紊亂沒頭

29) 維基百科, <https://zh.wikipedia.org/wiki/醉雞>

30)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 <http://dict.revised.moe.edu.tw/cgi-bin/cbdict/gswweb.cgi?cd=lpZtq3&o=e0&sec=secl&op=v&view=9-1>

31) 中央研究院平衡語料庫, <http://asbc.iis.sinica.edu.tw>

32) 臺灣常見的傳統食物，以糯米製成，與年糕類似。

33) 教育部臺灣閩南語常用詞辭典, https://twblg.dict.edu.tw/holodict_new/

緒’、形容‘人不好’、‘差勁’等意。‘壞’有‘毀’³⁴⁾之意。這些對春節來說都是不吉利的詞語，因此會用‘掙’了，‘漲’了來代替。掙為努力獲取；‘漲’為‘上升’、‘提高’、‘擴張’³⁵⁾的意思，就算是不好的事情也能避開，而變成吉利的事。而餃子也稱為元寶，由於形狀與元寶相似，不希望元寶破了、爛了，而變成元寶掙了、元寶漲了，元寶變多的意思，很多人也希望能在年後掙大錢、薪水漲。

例句1：常可見到遇害的犀牛，全身都在，就只是頭上破了個大窟窿，角被盜獵者挖走了。

例句2：而隱藏在不合理房價、供需失調的背後，還有土地稅制、政商勾結、國土失衡等盤根錯節的爛源。

例句3：車壞了，人怎麼會摔下去啊，我才不信呢……。

例句4：黃金。美鈔一年之間，價格漲了十倍。

例句5：我已走過會在乎別人在背後指指點點的階段。我掙了不少錢，這將使我可以供給女兒一切我不曾有過的東西……。³⁶⁾

(2) 中元節

七月為鬼月，中元節為農曆的七月十五日，俗稱‘鬼門開’，在七月的鬼門開到鬼門關以及中元節這一天忌說‘鬼’字，各路鬼魂傾巢而出，無所不在，尤其是喪禮現場‘鬼’滿為患。因此在此時節，會要求人們謹言慎行。

在祭拜時也要避免拿香蕉、李子、梨子：諧音雙關

香蕉的臺灣閩南語音近‘招(tsio)’，李子音近‘你(li)’，梨子音近‘來(lâi)’，三者結合即變成‘招你來’，也就是把好兄弟(鬼)招來的意思。

34)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 <http://dict.revised.moe.edu.tw/cbdic/index.html>

35)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 <http://dict.revised.moe.edu.tw/cgi-bin/cbdic/gsweb.cgi?ccd=WqJPrL&o=e0&sec=secl&op=v&view=0-1>

36) 中央研究院平衡語料庫, <http://asbc.iis.sinica.edu.tw>

4. 結論

從古至今流傳下來的許多禁忌語及文化已不可考，並且隨著現代人們對於禁忌觀念越加開放，越來越多的禁忌逐漸不被人們所信及所用，但這些禁忌語及文化並不會完全的消失，往後也有可能因為更多新詞語的產生而增加，這些禁忌或禁忌語依舊會無形並持續地在我們的社會中運轉，因此想要了解當地文化，禁忌文化也是值得深入了解的特殊文化之一。

臺灣的許多語言習慣都受到臺語(閩南語)的影響，禁忌語也不例外，因此有許多從臺語(閩南語)而衍伸出來的詞彙，並以諧音、雙關、聯想最多。本文大體結合了醫院、婚姻、行業、節慶等禁忌語及文化，醫院的禁忌語及文化整理了八種，婚姻兩種、行業五種、節慶兩種，希望能做一個較大範圍的淺析，使更多人瞭解臺灣內基本的特殊禁忌文化，也能通過禁忌語來了解語言現象，其語言現象又影響著當地文化。由分析可知除了各行各業有自身的禁忌外，在醫院的禁忌尤為多樣，可見人們對生死大事特別注重及忌諱，因此從禁忌語及文化中也能大致了解一個國家人民的心理。

其實關於禁忌之習俗非常多，而本文以研究語言及文化部分為主，研究尚有許多需要補強之部分，希望日後能完善此論文，除了更深入探究醫院及婚姻、行業、節慶禁忌語及文化外，也能延展至其他方面，讓讀者能更全面性地了解臺灣的禁忌語文化。另外，韓國對臺灣的相關研究較少見，因此期望本文能對在韓國的臺灣禁忌語及文化相關研究領域中有所貢獻。

◆ 參考文獻

1. 자료

- 汪詩穎，「臺灣閩南語禁忌語及其語義替代轉換之分析」，2006，
<http://ip194097.ntcu.edu.tw/giankiu/GTH/2006/TSIT/lunbun/2-3汪詩穎論文.pdf>
- 張金源，「臺灣民間禁忌下的宣教進路」，臺灣神學院數位典藏，2008，

<https://ir.taitheo.org.tw/handle/987654321/515>
教育部臺灣閩南語常用詞辭典 https://twblg.dict.edu.tw/holodict_new/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 <http://dict.revised.moe.edu.tw/cbdic/>
中央研究院平衡語料庫 <http://asbc.iis.sinica.edu.tw>
維基百科 <https://zh.wikipedia.org/wiki/Wikipedia:首頁>

2. 단행본

邱湘雲, 『臺灣華、客、閩語彙研究論集』, 聯合百科出版社, 2015.
沈錫倫, 『語言文字的避諱、禁忌與委婉表現』, 臺灣商務印書館, 1996.
王新華, 『避諱研究』, 齊魯書社, 2008.
殷登國, 『歲節的故事』, 雲龍出版社, 2004.

3. 논문

鄭永輝, 「禁忌語、委婉語性質新探」, 『紹興學院學報』 第7期, 2007, pp.20-23.
馬偉林, 「影響禁忌語發展的社會因素透析」, 『北京第二外國語學院學報』 第6期, 2001, pp.34-39.
舒春玲, 「文化視野下的禁忌語和委婉語」, 『語文學刊』 第23期, 2012, pp.54-56.
呂效東, 「語言禁忌現象的社會語言學考察」, 『上海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期, 2004, pp.94-97.
邱湘雲, 「華語人稱委婉語認知隱喻探析」, 『文化語言教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2012, pp.92-102.
한용수, 「중국 금기어 소고」, 『비교문화연구』 제34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4, pp.307-330.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7월 29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8월 25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9월 23일

Abstract

A Analysis of Taiwan's Taboo Word and Culture

Lee, Yichi · Han, Yongsu

Language and culture are inextricably linked. Whe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we often make mistakes when we don't understand the local customs, which not only causes displeasure to other people, but also puts us in an awkward situation without knowing the reason. Some local people may not take it seriously because the other people are foreigners and instead, they tell them the correct terminology and its taboos, etc. However, when some local people avoid telling the foreigners about the correct language and its taboos, the foreigners may be afraid to use the language again for fear of making mistakes. In order to avoid such similar situations, it is believed that if we can let students know such cultural taboos when teaching, many embarrassing situations can be avoided and students can learn more about the local culture and explore the influence of the culture and language.

This paper provides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words and behaviors that are not allowed in certain places in Taiwan, and it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Chinese language learners as well as for readers to understand the unique customs of Taiwan.

Many Taiwanese language habits are influenced by Taiwanese dialect (Hokkien), and taboo words are no exception, therefore there are many words derived from Taiwanese dialect (Hokkien), and most of them are homophonic, puns, and associations. This paper attempts to include taboo words in the situation of hospitals, marriages, industries, and festivals in the hope of providing a broader analysis so that more people can understand the basic taboo language culture in Taiwan, and also learn the linguistic phenomena that influence the local culture through those taboo words. Furthermore, the study shows that we can have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psychology of a country's people from the taboo language culture.

Keyword Taiwan, Taboo, Taboo word, Taboo culture, Language use

『国标』 『指南』 颁布背景下的 中国大学韩国语教育现状与建设方向

丁一*

국문요약

76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오늘날 교육의 질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반 고등교육기관 외국어문학부 교학 질량 국가 표준(普通高等學校外國語文學部教學質量國家標準, 이하 국표)』과 『일반 고등교육기관 학부 비통용언어군 전공 교학 지침(普通高等學校本科非通用語種類專業教學指南, 이하 지침)』은 중국 교육부가 발간한 것으로 새로운 시기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 설계를 지도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 논문은 우선 현재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표』와 『지침』이 현재 중국 내 한국어 전공의 발전을 위해 제시한 요구와 지도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표』와 『지침』의 핵심 이념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표』와 『지침』을 근거로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 상황을 연계하여 인재 양성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한국어 전공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써 양성 방안의 최적화, 합리적인 커리큘럼 구축, 교과 내용의 다양화, 교수 방법의 혁신화, 평가 체계의 보완, 교원 증강 등이 있음을 서술하였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교육의 질, 개선 방향, 『국표』, 『지침』, 해석

〈目录〉

- 1.引言
- 2.中国的大学韩国语教育现状
- 3.对『国标』和『指南』的解读
- 4.『国标』 『指南』指导下的大学韩国语专业建设建议
- 5.结论

* 中国北京大学 朝鲜(韩国)语言文化系 讲师

1.引言

提到中国大学的韩国语教育，不得不提到1942年成立的中国国立东方语文专科学校（以下简称国立东方语专）。1942年中国国民政府教育部为加强同东方独立国家的交往，培养翻译人才，建立了国立东方语专。1942年3月，国立东方语专筹办于云南大理才村，5月滇西告急，辗转月余至呈龙街华侨第一中学，7月在昆明呈贡斗南村正式成立，国立东方语专首开印地语科、越南语科、印尼语科和暹罗语科（泰语）。1945年，国立东方语专从昆明迁至重庆，在时任校长姚楠的主持下，增设了韩国语科，中国的大学韩国语教育就发端于此。1946年国立东方语专随国民政府一起迁至南京，该年2月韩国语科开始招收第一批学生。1949年东方语专韩国语科并入北京大学东方语文学系。此后，1951年对外经济贸易大学，1956年洛阳外国语学院，1972年延边大学和北京第二外国语学院相继建立韩国语系。¹⁾

时至今日，中国韩国语教育已走过76载，取得了令人瞩目的成绩。目前中国共有约280所高校开设韩国语专业²⁾，根据中国教育部“阳光高考”高校招生阳光工程指定平台³⁾发布的信息显示，125所高校开设有本科学历层次的韩国语专业，韩国语已成为中国最主要的外语教学语种之一。但与此同时，韩国语教育也面临着严峻的挑战，正处于从“以规模扩张为特征的外延式发展向以质量提升为核心的内涵式发展”的历史性转变中。在教学点不断增加的同时，确保教学质量，实现韩国语教育的内涵式发展是一项亟待完成的任务。

事实上，中国高等教育整体也正处于大力提倡全面提高教育质量的阶段，中国正处于努力“从教育大国迈向教育强国的转型发展时期⁴⁾”。为此，

1) 楊萍, 韓存璽, 김진식, 「중국 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4년제 본과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25권 제5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p.967.

2) 中国大学的朝鲜语（韩国语）教育包括针对朝鲜族的民族语言文学教育和作为外语的朝鲜语（韩国语）教育。本文中的韩国语教育指作为外语的朝鲜语（韩国语）教育。到目前，中国教育部指定的大学本科朝鲜语（韩国语）专业的官方名称为“朝鲜语”。

3) “阳光高考”高校招生阳光工程指定平台网址：gaokao.chsi.com.cn

4) 孙有中，「贯彻落实《国标》和《指南》，推进一流专业和一流课程建设」，『外语界』

2018年年初, 中国教育部颁布中国首个高等教育教学质量的国家标准——『普通高等学校本科专业类教学质量国家标准』, 其中包含的『外国语言文学类教学质量国家标准』(以下简称『国标』)为中国的外国语人才培养提供了系统权威的宏观标准。为了贯彻落实『国标』各项原则和规定, 中国教育部高等学校外国语言文学类专业教学指导委员会于2020年春出版了又一纲领性文件——『普通高等学校本科外国语言文学类专业教学指南』(试行), 对英、俄、法、阿、日、非通用语⁵⁾的本科教学实践提供更具操作性的具体指导, 推动『国标』落地生根。其中与韩国语本科教育直接相关的就是其非通用语部分, 为高校韩国语专业的建设与发展提供了行动路线。

在中国的韩国语教育全面向内涵式发展转型的新时期, 『国标』和『普通高校本科非通用语教学指南』(以下简称『指南』)的相继出台, 为韩国语教育提供了进行教学改革的有力支撑和探索新发展的有效路径。本文首先将对当前中国高校韩国语专业本科教育状况进行考察, 再结合韩国语专业本科教育的状况对『国标』『指南』的核心理念和主要内容进行分析、解读, 明确『国标』『指南』对中国当下韩国语教学质量发展提出的要求和指导, 最后以此为依据探讨如何更加有效地进行韩国语人才培养, 为推动新时代条件下韩国语教学高质量发展提出建议。

2. 中国的大学韩国语教育现状

1945年, 国立东方语专韩国语科的设立开中国现代大学韩国语教育之先河, 1949年国立东方语专韩国语科并入北京大学东语系。76年来, 中国一代代韩国语教师的坚守使韩国语学科取得了令人瞩目的成长。

第3期(总第198期), 2020, p.2.

5) 中国外语非通用语是指除英、俄、德、法、西班牙、阿拉伯、日语外的其他外语语种。

1) 韩国语专业本科开设情况

根据中国教育部高校招生阳光工程指定平台——“阳光高考”中的信息⁶⁾，截至2021年7月，中国开设韩国语专业本科的院校共125所，分布在23个省、直辖市⁷⁾。各省、直辖市开设韩国语专业本科的院校数量如下：

〈表1〉中国各地的韩国语专业开设情况

北京 7	天津 3	河北 4	辽宁 4	吉林 16	黑龙江 10
上海 6	江苏 10	浙江 4	安徽 2	江西 1	山东 29
河南 2	湖北 3	湖南 4	广东 6	广西 1	海南 1
重庆 2	四川 2	贵州 1	云南 2	陕西 5	

开设韩国语专业本科的院校数量最多的是山东省，全省共有29所。其次是位于东北地区的吉林省和黑龙江省，分别有16所、10所高校开设了韩国语专业本科。此外江苏省也有10所高校开设韩国语专业本科，在开设数量上与黑龙江省相同。

除台湾省之外的中国22个省中，有四个省暂未有开设韩国语专业本科的院校，这四省分别是山西省、福建省、甘肃省、青海省。中国的四个直辖市均有开设韩国语专业本科的院校，其中北京市7所、上海市6所，天津市和重庆市相较略少，分别有3所和2所。五个少数民族自治区中，仅广西壮族自治区有1所高校开设了韩国语专业本科，此外的内蒙古自治区、西藏自治区、宁夏回族自治区、新疆维吾尔自治区内尚未有高校开设韩国语本科专业。

另外，根据“阳光高考”的数据统计⁸⁾，目前中国韩国语专业学生的男女比例为13%：87%，在学生数量的男女比上，女生远超男生。

2) 本科生对韩国语专业的满意度情况

“阳光高考”平台从综合满意度、办学条件满意度、教学质量满意度、就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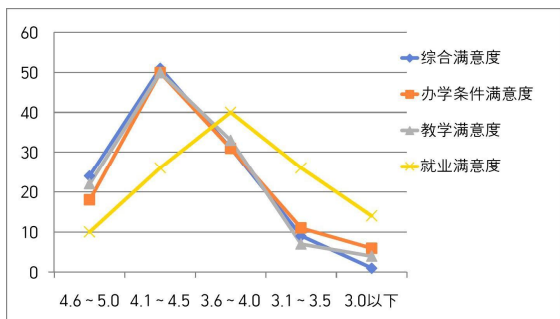
6) 信息来源：https://gaokao.chsi.com.cn/zyk/zybk/ksyxPage?specId=73383515

7) 不包括未与内地（大陆）实行统一高考制度的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省。

8) 信息来源：https://gaokao.chsi.com.cn/zyk/zybk/detail/73383515

满意度四个方面,对韩国语专业学生对本专业的满意度进行了调查,调查以学生实名投票的方式进行。截至2021年7月11日,“综合”和“办学条件”两方面分别有5629名和5650名学生参与了投票,“教学质量”和“就业”各有5521名和5371名学生参与了投票,投票结果代表这些学生对本校韩国语专业的个人意见汇总。⁹⁾

投票中各项满分为5分,根据“阳光高考”平台给出的最终平均得分,中国大学韩国语专业在“综合”和“教学质量”两个方面满意度较高,得分均为4.2分,“办学条件”得分次之,为4.1分,“就业”方面得分较低,为3.7分。¹⁰⁾而对生成有效数据的116所学校的特定数据进行一一统计¹¹⁾,即统计出在“综合”“教学质量”“办学条件”“就业”四个方面得分分别在“4.6~5.0”、“4.1~4.5”、“3.6~4.0”、“3.1~3.5”、“3.0以下”这五个得分区间的学校数量,可以得出如下曲线图。



〈图1〉韩国语专业本科生对专业的满意度情况

从上图可知,代表“综合”“教学质量”“办学条件”的曲线走势相似,这三方面的峰值都出现在“4.1~4.5”区间,也就是说116所学校中有更多的学校得分在

9) 信息来源: <https://gaokao.chsi.com.cn/zyk/zybk/detail/73383515>

10) 该数据统计截止2020年12月31日。数据中只包含了125所高校中的116所学校的数据,另有兴义民族师范学院、上海杉达学院、海口经济学院、广州南方学院、西安外事学院、长江大学文理学院、山东青年政治学院1、山东青年政治学院2、战略支援部队信息工程大学,因本校学生参与投票较少,在“阳光高考”平台中未能形成有效数据。

11) 信息来源: <https://gaokao.chsi.com.cn/zyk/zybk/ksyxPage?specId=73383515>

这一区间内。代表“就业”的曲线的峰值出现在“3.6~4.0”，即更多的学校在“就业”方面得分在此区间内。另外，“3.0以下”区间内“就业”的值要高于“综合”“教学质量”“办学条件”，这都说明有更多学校的学生对本专业的“就业满意度”较低。

再进一步具体来看各校学生对本校韩国语专业满意度的投票情况，如下：在“综合”上，得分在“4.6~5.0”的学校有24所，得分在“4.1~4.5”的学校有51所，得分在“3.6~4.0”的学校有31所，得分在“3.1~3.5”之间的学校有9所，有1所学校得分在“2.6~3.0”之间。在“办学条件”上，得分在“4.6~5.0”的学校有18所，得分在“4.1~4.5”的学校有50所，得分在“3.6~4.0”的学校有31所，得分在“3.1~3.5”之间的学校有11所，有6所学校得分在“3.0以下”。在“教学质量”上，得分在“4.6~5.0”的学校有22所，得分在“4.1~4.5”的学校有50所，得分在“3.6~4.0”的学校有33所，得分在“3.1~3.5”之间的学校有7所，有4所学校得分在“3.0以下”。在“就业”上，得分在“4.6~5.0”的学校有10所，得分在“4.1~4.5”的学校有26所，得分在“3.6~4.0”的学校有40所，得分在“3.1~3.5”之间的学校有26所，有14所学校得分在“3.0以下”。

综上可知，首先当前中国韩国语专业的本科生对本专业在综合情况、办学条件、教学质量方面的满意度较高。116所学校中，“综合”方面有75所，“办学条件”方面有68所，“教学质量”方面有72所得分在4.1分以上，这表明了大部分院校韩国语专业的教育质量得到了本专业学生的认可，韩国语教育取得了非常不错的成绩。但与此同时，仍有部分院校在综合情况、办学条件、教学质量上得分在3.5分以下，仍需加强专业建设。另外，从综合情况、办学条件、教学质量方面在“3.6~4.0”区间的院校数量均多余“4.6~5.0”区间的情况来看，中国的韩国语教育仍有进一步提升的空间。而就业情况是当前学生满意度最低的，学生的就业问题受多方面因素影响，但仍值得各校予以重视，以确保韩国语专业长远健康的发展。

3) 目前受中国教育部支持建设的韩语专业情况

近年来,中国非常重视区域国别研究。据统计,2011年底,中国教育部已资助建立42个区域国别培育基地,分布在28所高校,2017年教育部又对395家高校国别和区域研究中心进行了备案并给予政策、资金、人员等必要支持,这些研究中心大多隶属于高校各个院系,能够结合院系学术优势,开展自主研究。¹²⁾北京大学朝鲜半岛研究中心、北京语言大学朝鲜半岛研究中心、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延边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天津外国语大学朝鲜半岛研究中心、山东大学朝鲜半岛研究中心、大连外国语大学东北亚研究中心、湖南师范大学东北亚研究中心、山东财经大学中日韩研究院等均入选中国教育部国别与区域研究的备案中心,积极开展韩国历史、经济、文化、语言、文学等领域相关研究,同时也为培养相关领域研究人才提供土壤。

在本科专业建设上,2019年4月9日,中国教育部发布通知,决定启动一流本科专业建设“双万计划”,即2019年至2021年建设一万个左右国家级一流本科专业点和一万个左右省级一流本科专业点。“双万计划”在完善对各专业经费保障的同时,还将建立动态调整机制,针对一流本科专业建设中存在的问题,提出改进意见建议,对于建设质量不达标、出现严重质量问题的专业建设点会予以撤销。¹³⁾

中国高等学校共有56000多个专业点,建设一万个国家一流专业大体占有专业点的20%，“双万计划”中的建设一流国家专业,是让这20%的专业经过若干年的建设后,到2022年中国共产党二十大召开之前,中国有20%的专业可以达到世界一流的水平,以保障中国人才培养质量在国际上具有竞争力。鼓励省市各地方建设一万个省级一流专业,是期望通过一万个一流国家专业和一万个省级一流专业,使重点建设的高等学校专业达到总专业点数量的40%,

12) 胡莉、李威,「成果|北京大学『区域国别研究学刊』(第2辑)出版」,“北京大学区域与国别研究院”微信公众号2021年1月4日推送。

13)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网站,「关于实施一流本科专业建设“双万计划”的通知」,http://www.moe.gov.cn/srcsite/A08/s7056/201904/t20190409_377216.html

使中国高等教育实现内涵式发展，将中国建设成为高等教育强国。¹⁴⁾根据统计，国家级一流本科专业待拟建设数量最多的是工商管理类专业，共674个，韩国语专业所属的外国语言文学类专业的拟建设数量共609个，居第二位。¹⁵⁾2019年12月24日，中国教育部办公厅正式发出『关于公布2019年度国家级和省级一流本科专业建设点名单的通知』，2019年首批认定了4054个国家级一流本科专业建设点、6210个省级一流本科专业建设点。2021年2月10日，教育部办公厅正式发出『关于公布2020年度国家级和省级一流本科专业建设点名单的通知』，2020年认定了3977个国家级一流本科专业建设点、4448个省级一流本科专业建设点。¹⁶⁾即，截至当前已经认定8031个国家级一流本科专业建设点。一流本科专业建设点名单，由教育部下发各个高校，不对外集中公示，而是由各个高校单独对外发布。到目前，已有如下院校的韩国语专业被选定为国家一流专业建设点和省级一流专业建设点¹⁷⁾：

-
- 14)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网站，「介绍《普通高等学校本科专业类教学质量国家标准》有关情况」，
http://www.moe.gov.cn/jyb_xwfb/xw_fbh/moe_2069/xwfbh_2018n/xwfb_20180130/201801/t20180130_325928.html
- 15) 信息来源：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网站，「关于实施一流本科专业建设“双万计划”的通知」附件「国家级一流本科专业分专业类建设规划」，
http://www.moe.gov.cn/srcsite/A08/s7056/201904/t20190409_377216.html
- 16) 『关于公布2019年度国家级和省级一流本科专业建设名单的通知』和『关于公布2020年度国家级和省级一流本科专业建设名单的通知』未在教育部网站统一发布，而是直接下发至各校，由各校通过官网对外发布。两“通知”具体内容可在中文搜索引擎“百度”中输入“通知”题目，通过各校官网查看。
- 17) 2019年被选入“双万计划”的韩国语专业信息下载于“原创力文档”网站，下载地址为
<https://max.book118.com/html/2020/0306/7103155006002122.shtm>；2020年被选入“双万计划”的韩国语专业信息来自“软科微信公众号”于2021年3月15日在「136所双一流，618所高校！2020“双万计划”最新统计」一文中发布的数据，“软科”在该文中另指出2020年度评选共认定了3977个国家级一流本科专业建设点和4448个省级一流本科专业建设点，软科已经搜集到3529个国家级一流本科专业建设点的信息，数据完整度达88%。因信息是根据网络公开资料手工整理和不完全统计，如有疏漏，请见谅、指正。

〈表2〉被选为一流专业建设点的韩语专业所在院校

批次	国家级	省级
第一批	大连外国语大学、上海外国语大学、北京外国语大学、延边大学、广东外语外贸大学、天津外国语大学	对外经济贸易大学、中国海洋大学、山东大学、青岛滨海学院、浙江越秀外国语学院、吉林外国语大学
第二批	北京大学、山东大学、复旦大学、湖南师范大学、中国海洋大学、北京第二外国语学院、北京语言大学	吉林大学、西安外国语大学

如上,目前已有多所院校的韩语专业入选了中国的“双万计划”,入选专业数占中国开设韩语本科专业总数的15.2%。在“双万计划”的支持和监督下,入选院校的韩语专业迎来了新的发展机遇,而暂未入选的专业也势必会在这样的影响和带动下取得进一步发展。这里还需要指出,一流专业的申报首先以学院为单位组织报送,再由学校统一组织遴选和推荐,最后参加教育部的评定。因此,综合性大学的韩语专业相较于外国语大学的韩语专业来说,要面对更多来自其他学科专业的竞争,第一批入选国家级一流专业的多为外国语大学的韩语专业的原因或许就在于此。所以入选的批次不代表各校韩语专业之间的排名。

除了国家级和省级一流本科专业的建设之外,2019年10月,中国教育部还发布了『教育部关于一流本科课程建设的实施意见』,全面开展一流本科课程建设。其目的是为了树立课程建设新理念,推进课程改革创新,严格课程管理,提高教师教学能力。2020年11月24日,教育部推出首批国家级一流本科课程,共计5118门,其中由北京外国语大学李丽秋教授带领的“朝鲜语口译4”教学团队、广东外语外贸大学全永根教授带领的“基础韩语”团队入选。¹⁸⁾今后,韩语专业还应继续打造更多的一流课程,建设更多优质“金课”,借此提高韩语教学质量和效果。

18) 信息来源: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网站,「关于公布首批国家级一流本科课程认定结果的通知」附件「首批国家级一流本科课程名单」,
http://www.moe.gov.cn/srcsite/A08/s7056/202011/t20201130_502502.html

4) 高等教育评价机构对韩国语专业进行的排名情况

2021年6月22日, 中国高等教育评价专业机构“软科”发布了“软科中国大学专业排名”, 排名包括509个本科专业, 每个专业榜单发布的是所有开设该专业的高校中排名位列前50%的高校。“软科中国大学专业排名”的排名体系设置学校条件、学科支撑、专业生源、专业就业、专业条件5个指标类别。“学校条件”考察一所大学的经费收入、师资规模、师资结构等;“学科支撑”考察专业关联学科的水平 and 实力;“专业生源”即专业录取新生的高考成绩, 反映了该专业的社会声誉和对学生的吸引力;“专业就业”体现了专业的毕业生被社会认可和接纳的情况;“专业条件”考察本专业的平台、名师、课程、教材等专业层面的培养条件以及本专业获得的各种认证和重点建设情况。

在韩国语专业排名中, 共有63所高校的韩国语专业上榜, A+层次的为北京大学韩国语专业、复旦大学韩国语专业, 另有A层次10所, B+层次13所, B层次38所入榜。韩国语专业的具体软科排名情况如下¹⁹⁾:

〈表3〉软科中国大学韩国语专业排名

层次	排名	学校名称	得分
A+	1	北京大学 学校条件(A+)学科支撑(A+)专业生源(A+)专业就业(A+)专业条件(A)	35.1
	2	复旦大学 学校条件(A+)学科支撑(A)专业生源(A+)专业就业(A+)专业条件(A)	33.2
A	3	上海外国语大学	32.3
	4	北京外国语大学	32.0
	5	山东大学	31.9
	6	广东外语外贸大学	31.6
	7	对外经济贸易大学	30.4
	8	吉林大学	30.0
	9	南京大学	28.6
	10	中山大学	28.6
	11	湖南师范大学	27.9

19) 信息来源:“软科微信公众号”中设有“软科排名”板块, 在其中的“中国大学专业排名”一栏输入“朝鲜语”可获取相关信息。

	12	中国海洋大学	27.7
B +	13	大连外国语学院	27.5
	14	北京语言大学	27.0
	15	北京第二外国语学院	26.9
	16	延边大学	26.5
	17	南京师范大学	25.7
	18	西安外国语学院	24.3
	19	天津外国语学院	24.2
	20	青岛大学	24.0
	21	哈尔滨工业大学	23.2
	22	苏州大学	22.6
	23	华中师范大学	22.4
	23	中央民族大学	22.5
	25	天津师范大学	22.0
B	26	杭州师范大学	21.9
	27	黑龙江大学	21.8
	28	扬州大学	21.0
	29	四川外国语学院	20.8
	30	北京工业大学	18.9
	31	中国传媒大学	18.8
	32	山东师范大学	18.5
	33	哈尔滨师范大学	17.8
	34	河北大学	17.2
	35	辽宁大学	17.1
	36	江西师范大学	16.7
	37	曲阜师范大学	16.6
	38	中南民族大学	16.3
	39	上海海洋大学	15.9
	40	山东科技大学	15.7
	41	广西师范大学	15.4
	42	济南大学	15.3
	42	鲁东大学	15.3
	44	烟台大学	15.0
	44	中南林业科技大学	15.0
	46	长春理工大学	14.2
	47	青岛科技大学	14.1
	48	西南民族大学	13.9
	49	西北政法大学	13.8
	50	吉林财经大学	13.4

51	河北经贸大学	13.1
51	浙江外国语学院	13.1
53	聊城大学	12.9
54	哈尔滨理工大学	12.6
54	吉林师范大学	12.6
54	上海商学院	12.6
57	大连民族大学	12.5
58	长春师范大学	12.4
59	齐齐哈尔大学	12.3
59	青岛理工大学	12.3
61	齐鲁工业大学	12.2
62	山东理工大学	12.0
63	北华大学	11.8

以上是进入软科排名的各校韩国语专业情况，对专业的评分和排名情况虽难以达到完全的客观或准确，但却可以了解韩国语专业发展状况提供颇具意义和价值的参考。

从中国教育部高校招生阳光工程指定平台“阳光高考”面向学生对韩国语专业满意度进行的调查，到中国教育部大力开展的一流专业和一流课程建设，再到权威教育评价机构对韩国语专业展开的评估、排名，一方面可以大致看出当前中国韩国语专业的发展现状，同时也可以窥见当前促进内涵式发展、提高教学质量的中国本科教育大环境和发展趋势。在这样的背景下，中国的韩国语本科教育正迎来一个新的发展阶段，深化韩国语专业教育教学改革，加强韩国语专业建设势在必行。

3. 对『国标』和『指南』的解读

『外国语言文学类教学质量国家标准』和『普通高等学校本科外国语言文学类专业教学指南』（试行）是当下指导中国外国语本科教学的重要文件，中国的韩国语专业建设也必然要在『国标』和『指南』的指导下开展。为此，对『国标』和『指南』的精神和内容进行解读与分析是一项非常重要的课题，这是了解中国韩国语专业建设方向的重要一环，也是开展下一阶段专业

建设的基础性工作。

『国标』由前言、适用专业范围、培养目标、培养规格、课程体系、教师队伍、教学条件、质量管理、术语与释义九部分内容构成，它是适用于高校所有外语类专业的宏观标准，为外语类专业建设提供总体要求和统一指导。

『指南』在理念和内容上紧贴『国标』，在充分考虑非通用语教学的实际情况和专业特色的基础上编写，内容上更加细致详尽、操作性强，其正文除了涵盖『国标』中的各部分，还增加了“教学计划（参考）”部分，以韩国语专业为例，给出供各专业参考的公共基础类、专业核心类、专业方向类课程的开课计划表。此外，『指南』设有附录部分，是以韩国语专业为例对11门专业核心课程进行的课程描述。

『指南』的编写初衷是促进『国标』的理念和各项原则能够切实落地，对各专业进行具有针对性的指导，因此『国标』和『指南』是在理念和内容上并无相悖之处的上下位关系。『国标』是方向与统领，『指南』是方法和实操²⁰⁾。『国标』和『指南』的理念和内容可以从以下五个方面进行较为全面的解读。

1) 牢抓人才培养质量，促进专业内涵发展

『国标』和『指南』实质上都是本科教学质量的国家标准，其研制和颁布的主要背景是中国已成为高等教育大国，高等教育迫切走上质量提升之路，以更好地服务于国家的长远稳定高质发展。早在2010年7月，中国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工作小组办公室在发布的『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中就指出，要“全面提高高等教育质量”“提高人才培养质量”“全面实施‘高等学校本科教学质量与教学改革工程’”。这说明建设高质量的高等教育是中国发展战略部署的一个重要方面。²¹⁾时任

20) 王立非、崔璨，『落实《商务英语专业本科教学指南》，推进商务英语人才培养』，『外语界』第3期(总第198期)，2020年，p.6.

21) 许宗华，『《普通高等学校本科日语专业教学指南》解读』，『外语学刊』第5期(总第216期)，2020，p.8.

中国教育部部长陈宝生先生曾提出“质量为王、标准先行”，以此高度概括了现阶段高等教育发展的重中之重在于“质量”，而“标准”的制定是提升质量的先决条件。因此，在理解『国标』与『指南』时，首先需要明确的便是二者的终极指向是指导高校牢牢抓住全面提高人才培养能力这一核心点。

从内容构成看，『国标』和『指南』从培养目标、培养规格、课程体系等各个方面出发，全面立体地对新时代培养怎样的外语人才、如何培养人才等与提高人才培养质量相关的根本性问题做了明确界定和细致要求，为促进韩国语人才培养实现内涵式发展提供有效抓手。

新时期韩国语教育的发展，不是一味追求教学点的增加或是招生规模的扩大，而是以『国标』『指南』为纲领，强化质量意识，推进韩国语专业的内涵建设。『国标』『指南』的制定与颁布，其目的与意义就在于此。

2) 明确规范刚性要求，柔性预留自主空间

作为顶层设计的『国标』提出了外语类专业培养目标、培养规格、教师队伍、教学条件、质量管理等方面的基本要求，据『指南』可进一步具体化韩国语专业办学的准入门槛，为韩国语专业建设和评价提供依据，厘定了韩国语专业建设的刚性底线和基准达标要求。明确不能变通、不可降低的办学基本保底条件，有效保障了人才培养的基本质量。

同时，『国标』『指南』中给高校预留了充分的办学拓展空间和办学自主权，各地各校可根据自身情况进行调整，体现了专业建设过程中的灵活性。弹性理念主要体现在定量规定方面，『指南』对韩国语本科学制的规定是“一般为4年”，但“允许学生在3~6年内完成学业”，即完成学分并符合培养方案要求时，学生可提前一年或推迟一两年毕业。对于学分、学时的要求呈现在“课程体系”的子版块“总体框架”处：课程总量一般为150~180学分或2400~2900学时，各高校在制定本校培养方案时只要在此范围内，就符合『国标』和『指南』的要求。另外，『指南』在“课程体系”的子版块“课程结构”中将课程分为“公共基础类课程”“专业核心课程”“专业方向课程”三类，并特

别规定其中“专业核心课程的课时应占专业总课时的50%~85%”，这也体现了刚性要求与预留自主空间的结合。

3) 倡导人才复合融通, 鼓励专业特色发展

外语专业隶属人文学科, 外语教育的本质是人文教育。²²⁾『国标』 『指南』强化了韩国语专业的人文社会科学学科属性, 提倡培养复合型高素质人才, 强调知识和能力的融通, 重视对学生人文素养、人文精神的培养, 避免片面将韩国语专业性理解为工具性、技术型。

『国标』的“培养目标”中涉及人才培养的“素质”“知识”“能力”三个方面要求——“具有良好的综合素质”、“扎实的外语基本功和专业知识与能力”、“掌握相关专业知识”, 以及人才培养方向——“适应我国对外交流、国家与地方经济社会发展、各类涉外行业、外语教育与学术研究的需要的各外语语种专业人员和复合型外语人才”。『指南』的“培养目标”中对人才培养的素养要求是“热爱祖国, 具有国际视野、通晓国际规则, 掌握外国语言、文学和文化等相关知识, 具备语言运用能力、跨文化能力”, 人才培养方向为“能够参与国际事务和国际竞争, 能够从事语言服务、外语教育以及涉外工作, 并具有一定研究能力的国际化、多元化外语人才”。由『国标』 『指南』可知当下中国韩国语人才培养的复合型、多元化取向, 这符合新时期中国国家战略和经济社会发展对外语人才的需求。

『国标』 『指南』的“培养规格”中对学生应具备的素质、知识、能力三个方面做了更细化的阐述, 『指南』中对非通用语人才培养基本要求的阐述如下:“素质要求”部分可分为普遍性要求和区别性要求两个层面。“正确的世界观、人生观和价值观, 以及良好的道德品质”是对每一名大学毕业生的普遍要求, “中国情怀和国际视野”是对外语类毕业生的区别性要求, 体现了高等教育人才培养的普遍性和外语类专业人才培养、韩国语人才培养的特殊性。“知识

22) 王丹, 「高校非通用语专业学生综合素质能力培养策略研究——基于《外国语言文学类教学质量国家标准》的思考」, 『语言教育』第8卷第1期(总第28期), 2020, p.4.

要求”部分，包括了韩国语专业学生需掌握的知识类型和需掌握的程度两个方面。知识类型符合专业的学科定位和内涵，掌握程度体现所涉知识在培养过程中要求学生达到的不同程度。“对象国语言知识、文学知识、国情知识”属于韩国语专业的核心内涵，直接关联到韩国语专业学生的核心能力，采用了“掌握”；“中国语言文化知识”与专业核心内涵相互关照，也是外语专业学生需要具备的，采用“熟悉”；“相关专业知识以及人文社会科学与自然科学基础知识”与通识教育、跨学科知识结构搭建有关，需要“了解”。“能力要求”部分，“专业外语运用能力、文学赏析能力、跨文化能力、国际事务参与能力”是韩国语专业人才的本色和核心竞争力，“信息技术应用能力、自主学习能力、思辨能力、实践能力和创新能力、英语等其他语种运用能力”则是人才的加分项和可持续发展的需要。²³⁾

可见，顺应新时代要求、保障韩国语专业健康发展，『国标』『指南』倡导打破“纯语言、纯文学的培养模式”，倡导培养“基础牢”“素质高”“能力强”的复合型人才。

与此同时，『国标』『指南』鼓励坚持办学传统，彰显专业特色。在『国标』『指南』的“课程体系”的子版块“课程结构”的“培养方向课程”部分明确指出“各高校可根据自己的培养目标和培养规格自主设置培养方向课程”，『国标』中该部分例举了具体的可开专业课程——“外国文学、外国语言学、翻译学、外语教育、国别与区域研究、比较文学与跨文化研究、专门用途外语以及相关培养方向等类别”。『指南』则是在“教学计划（参考）”的“专业方向课程”部分例举了各校韩国语专业可开设“语言与翻译方向课程”、“文学与文化方向课程”、“国别与区域方向课程”、“经贸旅游方向课程”四个类别，以及属于各类别的具体课程名称。

鼓励各地各高校根据自身办学定位、地域特点、人才培养需求来特色发展可以有效避免同质化带来的人才过剩。但韩国语专业建设上，如何达到培养效果，如何避免发生“学生专业学科知识不足，培养方向专业学科知识也只

23) 该部分分析思路参考：冯光武，「《国标》与新时期外语类专业定位」，《外语教学与研究》第52卷第6期，2020，p.925-926.

学到皮毛,既没有实现复合型培养的初衷,也未能从根本上提升学生的就业竞争力²⁴⁾”是需要深入思考的问题。

4) 推动教学理念创新,探索多元培养方法

提升教育教学质量离不开教学理念的支撑,同时也需要具体有效的方法途径。『国标』 『指南』 注重以学生为中心,注重全面发展和素质教育,鼓励打破传统的封闭式教育格局,强调教学方式、教学过程、教学资源、教学内容、教学评价的开放性。与此同时,尊重学生的个性,正视个性差异,主张针对不同学生采用不同的教学方法,为每一个学生的个性发展创造条件。

『国标』 『指南』 的“课程结构”的子版块“实践教学环节”给出了“专业实习”“创新创业实践”“社会实践”“国际交流”四类可开展的实践教学活动,“旨在促进学生的全面发展”,子版块“毕业论文”部分规范了这个作为整个本科教育过程中“检验学生综合运用所学理论和知识开展研究和解决问题的能力,培养学生学术素养和创新能力”的环节可采用的多种形式和需遵守的规范。教学中的实践环节可有效避免韩国语专业学生“死读书”,避免了将知识僵化于教室内、考卷上,促使学生在应用中巩固知识,加深对知识的理解,提高知识运用能力,同时也有利于学生综合素养的提高和正确价值观的形成。

『国标』 『指南』 的“质量管理”子版块“教学与评价”部分对教学方式和评价方式提出了要求。“教学方式”方面,强调以学生为中心和能力为导向,强调因材施教,鼓励教师采用灵活多样的教学方法和采用现代教育技术手段组织教学。“评价方式”部分,主张将形成性评价与终结性评价相结合,主张不能将评价单单看作检验学生学习情况的手段,而应科学使用评价结果,以评价结果为教学反馈来改进教学。

在“质量管理”的另一子版块“质量保障体系”部分,『国标』 『指南』 提出了三种教学质量监控机制——“教学过程质量监控机制”“毕业生跟踪反馈机制”

24) 查明建,『英语专业的人文学科属性与人文课程的意义——以〈国标〉人文课程为中心』,『外国语言与文化』第1卷第1期,2017, p.21.

“持续改进机制”，以此对各教学环节和人才培养全过程进行监控，对专业建设进行持续改进、优化。

5) 加强师资队伍建设，重视教学条件保障

教师是提高人才培养能力的关键要素。『国标』『指南』提出教师队伍“应具有合理的年龄结构、学缘结构、职称结构”，并对专任教师的人数、获硕士及以上学历的教师占比做出了明确的底线规定。在“教师素质”方面，『国标』『指南』从素质、知识、能力三方面进行了定性规定。“素质”上，对师德师风、治学态度、人文素养、社会责任感等进行了规范；“知识”上，对教师的专业知识、外语教学理论与方法、教育学、心理学相关知识提出了要求；“能力”上，强调教师应具有语言基本功、教学组织管理能力、现代教育技术和教学手段应用能力、学术能力。而在“教师发展”板块，『国标』『指南』主张在促进教师发展上需要学校和教师的双向努力。一方面，学校需制订教师发展规划和制度，通过提供培训、进修、学术交流等的渠道和机会推动教师更新教学理念，优化知识结构，提高专业理论水平和教学科研能力；另一方面，教师也应树立终身发展观念，具有不断提高教学水平和研究能力的内在动力。

『国标』『指南』中对“教学条件”也进行了规划，主要包括了“教学设施”“信息资源”“实践教学”“教学经费”四个方面。不同的是，『国标』中给出了具体的量化标准，如每百名学生多媒体教室和语音室座位数不低于7个，图书资料生均不低于100册，生均年进书量不低于4册，年生均教学日常运行支出不低于1000元等。但因『指南』面向的是发展情况不一的非通用语种，因此并没有提及量化的标准，暂未做硬性要求，但考虑到中国的韩国语专业在非通用语种中属于发展成熟的，因此可参考『国标』中的要求，为韩国语人才培养提供充足的教学场地、图书、电子资源，以及实践教学基地和教学经费。

4. 『国标』『指南』指导下的大学韩国语专业建设建议

中国教育部高教司吴岩司长在2018年1月30日『国标』发布会上，在时任

教育部部长陈宝生先生所提出的“质量为王、标准先行”基础上，提出“标准为先、使用为要”，并指出“立标准很重要，使用标准，让标准发挥作用，‘以标促建、以标促改、以标促强’更重要……不仅要立标准，而且要让标准使用起来。”

整体提高韩国语专业人才培养质量，切实可行的总体方针规划是基础和前提，各院校韩国语专业的认真贯彻更不容忽视。依据『国标』『指南』，结合中国韩国语专业实际情况，可以主要从以下六个方面进一步开展韩国语专业建设。

1) 优化培养方案

培养方案是一个专业点教育教学活动的根本规范，是实现人才培养目标的路线图，要提高人才培养质量，必须首先优化培养方案。²⁵⁾各院校韩国语专业都有自己的培养方案，培养方案中一般包括专业介绍、培养目标、培养要求、学位学制、学分学时要求、课程设置、毕业要求、课程简介等内容。对照『国标』『指南』的内容，各韩国语专业有必要重新审视现有培养方案，进行必要的优化。

首先，韩国语专业的培养方案整体应体现出韩国语专业属于外国语言文学类专业，属于人文科学的学科定位。韩国语专业知识、语言能力是韩国语专业学生的核心竞争力，在教学中处于十分重要的位置，与此同时，韩国语专业的培养方案中，比如在培养目标、培养要求、课程设置等方面还应凸显对学生综合素质能力、人文素养、思想素质培养的重视。『国标』『指南』在专业概述中都提到了“坚持通识教育与专业教育并重”的原则和“促进学生全面发展”的目标，韩国语专业的发展不能偏离人文学科、人文教育的学科定位，不能使韩国语教育专业的性质沦为技术型和工具性。

其次，韩国语专业的培养方案应在瞄准社会发展需求的同时，符合本专

25) 孙有中，『落实《国标》要求，大力提高外国语言文学类专业人才培养能力』，《中国外语》第16卷第5期(总第91期)，2019，p.36-42.

业自身特点。大学的人才培养,一方面旨在促进学生全面发展、培养学生过硬的专业素养,另一方面则是为社会输送符合社会经济发展需要的人才。在完善培养方案前,应分析国家和地方经济社会发展对韩国语专业毕业生的需求动向,了解本专业毕业生适应人才市场竞争的情况,掌握本专业在校生的毕业生对现行培养方案的体验和意见。培养方案的确定还需充分考虑各校韩国语专业自身的办学条件、办学传统、办学定位、生源层次、优势特点等,既要保证培养方案适合又符合本校本专业的实际情况,确保培养方案能够落到实处、得以执行,又要使培养方案能够彰显本专业的特色,避免内容流于表面和套话,避免与他校毫无差异。

再者,韩国语专业培养方案的制订要确保其各部分内容之间相互呼应、合理衔接。培养方案各部分内容之间在理念和逻辑上不能相互脱节或矛盾,培养方案中确定好培养目标,培养目标的实现就需要落实到人才培养的各个环节,也就是说培养方案的其他部分要与培养目标相互连通,所有要素都要指向确保培养目标的实现。

2) 构建合理的课程体系

大学教育中,人才培养很大程度要通过各门课程去实现,课程设置应直接反映和体现韩国语专业人才培养目标,课程设置要避免随意化、碎片化,更不能因人设课。

根据『国标』『指南』的要求,韩国语专业需构建包括“公共基础类课程”“专业核心课程”“专业方向课程”三类课程,以及“实践教学环节”和“毕业论文”在内的完整课程体系。

“公共基础类课程”包括“公共必修课程”“通识选修课程”²⁶⁾,这些课程无法在韩国语专业内实现,需要通过给予学生选课自由,根据各学校总体安排,利

26) “公共必修课程”是按照中国国家相关要求开设的课程,包括思想政治理论、军事理论与训练、信息技术、非专业外语等;“通识选修课程”是学校可根据自身人才培养实际需求,可自主选择开设的提升学生知识素养、道德品质与身心素质的人文社会科学和自然科学课程。

用校内相关院系的课程资源来实现。“公共基础类课程”的设置,可以促进学生知识体系中韩国语专业知识与其他学科知识的交叉、融合,促进学生综合素质能力均衡全面的发展。“专业核心课程”和“专业方向课程”则要依靠韩国语专业自身条件、师资力量开设,专业课程是培养学生专业素质、专业知识、专业能力的根本依托。其中的“专业核心课程”是核心,『指南』中给出的韩国语专业核心课程由外语技能课程(基础韩国语、韩国语视听说、韩国语阅读、韩国语写作、韩国语语法、韩汉翻译、汉韩翻译)和专业知识课程(朝鲜半岛概况、韩国文学作品选读、韩国文化与跨文化交际、半岛历史、论文写作与基本研究方法)构成,专业核心课程为韩国语专业学生提供最根本的能力和知识,为学生的专业素养奠定坚实基础。“专业方向课程”的设置上,『国标』和『指南』中都给予了各专业自行设置的空间。『指南』中例举了语言与翻译方向课程(韩国语语言学概论、韩汉语言对比、韩国语翻译理论与实践、韩国语口译……)、文学与文化方向课程(韩国文学概论、中韩比较文学、韩国民俗、韩国社会与文化……)、国别与区域方向课程(韩国报刊阅读与讨论、韩国国际关系史、韩国当代政治与社会、半岛国别问题研究专题……)、经贸旅游方向课程(商务韩国语、旅游韩国语、韩国经济、韩国旅游文化、商务韩国语写作、韩国语经贸文章选读……)。“专业方向课程”为学生提供了某一方向比较系统和深入的专业学习机会,也可为学生的就业和进一步深造做准备。韩国语专业会受师资队伍、学生人数等方面因素限制,一个专业无法同时设置多个涵盖多门课程的独立培养方向,这时各校韩国语专业就要在充分考虑自己的办学定位——“是要培养复合型人才还是专业型人才”的基础上,再结合自身师资力量、专业特色,选择开设某一方向的若干课程或选择每个方向均开设一两门课程。

构建课程体系时,除了斟酌开设哪些课程,合理安排各类课程的比例结构之外,还应重视实践教学环节。比如:专业内部开展或多校韩国语专业联合开展口语、写作等韩国语能力竞赛;鼓励和支持学生参加韩国语写作、演讲、翻译、韩国文学读后感等全国性、国际性赛事;鼓励学生创建韩国文化公众号及中韩文化交流协会等社团;鼓励和支持学生参加本科生科研训练项

目；鼓励学生参加学校组织的社会调查、志愿服务、公益活动等；开展短期留学等国际交流活动；等等。实践教学促进学生将课堂所学活化为内在能力，在实践教学环节教师给予的针对性指导，也会加深学生对知识的理解，进一步提升专业素养。实践活动的参与，也利于培养学生的自主学习能力，以及正确价值观的形成。

此外，就毕业论文来说，要科学合理制定本科毕业论文要求，严格全过程管理，严肃处理学术不端，要培养学生基本的学术素养和创新能力。

3) 丰富教学内容

『国标』和『指南』在“培养规格”部分对人才培养从“素质”“知识”“能力”三方面提出了要求，『指南』中的具体阐述如下：

素质要求：应具有正确的世界观、人生观和价值观，良好的道德品质，中国情怀和国际视野，社会责任感，人文与科学素养，合作精神，创新精神，学科基本素养，成为德智体美劳全面发展的高素质人才。

知识要求：应掌握对象国语言知识、文学知识、国情知识，熟悉中国语言文化知识，了解相关专业知识和人文社会科学与自然科学基础知识，形成跨学科知识结构，体现本专业特色。

能力要求：应具备专业外语运用能力、文学赏析能力、跨文化能力、国际事务参与能力、信息技术应用能力、自主学习能力、思辨能力、实践能力和创新能力，积极拓展英语等其他语种运用能力。

通过“培养规格”可以看出『国别』『指南』对本科教学提出的要求及内容的涵盖面更加广博立体。对外语人才培养在知识上的要求更具宽厚性与系统性，在素质上的要求更具全面性和发展性，在能力上的要求更具开放性与时代性。²⁷⁾

全面复合的人才培养要求就要求教学内容不能仅局限于书本上文化知识

27) 王丹，「高校非通用语专业学生综合素质能力培养策略研究——基于《外国语言文学类教学质量国家标准》的思考」，《语言教育》第8卷第1期(总第28期)，2020，p.3.

的传授或外语技能的培训,每一门课程都要为“素质要求”“知识要求”“能力要求”做出实质性贡献。举例来说,在“专业核心课程”中,除了依照教材对学生进行韩国语语言技能综合训练和专业知识的传授之外,还可以通过精选韩国社会文化知识和国情知识相关的补充资料,灵活合理地安插到一些教学环节当中,使学生了解对象韩国的社会文化、历史传统及情感世界等,使学生对语言背后的文化具有敏感度和理解能力,亦可通过中韩对比的内容引导学生理解本国文化与韩国文化的差异,培养学生包容不同文化、尊重对方的文化与价值观的跨文化能力。也可以有意识地选取讲述中国文化、中国国情的文章作为教学内容,在进行韩国语教学的同时,提高学生对本国优秀传统文化的认识,培养学生对本国优秀文化的深厚情感。

诚然每一门课在培养方案中都会有各自明确的教学目标和教学内容,这是这门课最核心的内核,是不可有丝毫疏忽或偏离的底线,但与此同时,教师在课程授课过程中,亦不可固化、僵化地将书本中所涉及的知识看作教学内容的全部。

此外,“师者,传道授业解惑也”,“师者为师亦为范,学高为师,德高为范”,教师对学生的教导往往不会也不该局限于课堂之内。一位优秀的教师对学生树立正确的世界观、人生观、价值观,以及养成良好的道德品质会起到至关重要的作用,有时甚至会使学生受益终生。因此,课堂外教师对学生的指导、生活中教师对学生润物细无声的言传身教都可被看作广义上的教学内容,都应与『指南』培养规格中的内容相契合。

4) 革新教学方法

教学中,“教什么”重要,“怎么教”同样至关重要。教师采取怎样的方式方法组织教学,直接影响到学生对所学内容的吸收、转化、运用,还会对学生的自主学习能力、思辨能力、实践能力和创新能力等产生极大的影响。

传统的教师主导的满堂灌或单纯进行师生问答的满堂问式教学方法,不利于激发学生学习的积极性,亦无益于培养学生的学习能力、思维能力。提高

韩国语专业教学质量和效果, 势必需要课堂教学方式方法的改革与创新, 这首先离不开韩国语专业教师教育教学观念的改变, 及由此带来的日常教学行为的转变。

在教学方法上, 要重视启发式、谈论式、参与式等教学方法的使用, 使学生从知识的被动接受者, 成为课堂的中心, 引导学生主动学习、积极思考。教学中遇合适的课题主题, 可采用任务型教学法, 组织学生分组展开调研, 进行发表, 并组织集体讨论, 在培养学生自主学习能力、科研基本素养和信息技术应用能力的同时, 树立起团结协作意识, 也让学生感受解决问题的乐趣与成就感。另外, 韩国语专业的专业课程多为小班型授课, 无论是课上还是课下都要引导每一名学生积极参与到教学活动中, 教学既要面向全体学生, 又要因材施教, 促进学生的全面发展和个性发展, 也要注重营造团结互助、积极向上的学习氛围。

同时, 要重视当下的时代特色和学生的年龄特点, 注意借助现代化教学手段, 合理运用多媒体和网络辅助教学, 让课堂活跃起来, 使学生感受到学习的乐趣, 激发学生的学习兴趣和求知欲。

5) 完善评价体系

针对教学评价问题, 『国标』『指南』中提出了三个层次的监控机制要求——教学过程质量监控机制要求、毕业生跟踪反馈机制要求、持续改进机制要求, 韩国语专业可依此建立起完善的教学质量保障体系, 在确保人才培养质量的同时依据反馈信息不断调整和改善教学。

“教学过程质量监控机制”针对的是教师教学工作过程和学生表现结果的监测和调控, 对教学过程进行质量监控, 是促进教学质量稳步提高最直接的手段。

其中对于教师教学工作过程的监控, 是指对教师备课、课堂教学、课后作业的布置与辅导、教学质量分析等各教学环节提出质量要求并予以监督把控。但需要指出, 监控只是手段, 提高教学质量才是目的。实施教学质量监

控,要淡化监控者和被监控者之间的界限,树立全员质量监控的观念,使管理者与教师、学生之间消除对立,形成共识。充分发挥师生在监控过程中的主观能动作用,使监控从单纯的检查、评价向激励、改进的方向发展。

对学生表现结果的监控,同时也是对教师教学效果的监控,应完善形成性评价与终结性评价相结合的课程评价方式,结合课程特性,综合应用笔试、口试、非标准答案考试等多种考试形式,科学确定课堂表现、随堂小考、阶段测试、作业测评等形成性评价的比重。避免成绩仅由期末考试分数决定而带来的学生“临时抱佛脚”,应通过形成性评价和终结性评价结合的方式使学生养成良好的学习习惯。通过学生的形成性评价结果,还可密切关注每一名学生的学习状况,实时给予具有针对性的指导。同时要合理利用形成性评价在教学过程中提供的连续反馈,随时调整教学计划、改进教学方法。

“毕业生跟踪反馈机制”可包括应届毕业生反馈、往届校友反馈、实习基地反馈、就业单位反馈、社会媒体评价等,通过全面了解毕业生就业情况、职业发展、工作适应能力、社会适应性、专业能力、综合素养等,全面了解培养方案科学适恰与否,培养目标是否达成,为教育教学提供详实、完备的参考意见,更好地促进人才培养工作的科学化、制度化。

“持续改进机制”是对前两种监控机制的监控,其实施目的是确保前两种监控机制的切实落实,促进韩国语专业建设的持续改进。

6) 加强师资建设

教育大计,教师为本。建设结构合理、师德高尚、业务精湛的优秀教师队伍,是推动韩国语专业内涵式发展的基础和关键。

在师资队伍建设和方面,韩国语专业首先应重视聘任问题,综合考虑本专业教师队伍的年龄结构、学缘结构、职称结构,认真考察应聘教师的水平、背景、能力等各方面情况,聚集优质人才,为韩国语专业发展提供有力的人才支撑。

另外,还要重视促进在职教师的持续发展,在这一问题上,需要韩国语

专业及其所在学校与教师双向发力。在专业及学校层面,『国标』『指南』强调制定教师发展规划,通过提供深造、培训、进修、交流等机会,促进教师更新教学理念,提高教师研究能力和教学水平。而从教师个人层面,教师要树立终身发展的观念。在个人修养、师风师德、治学精神上要严于律己;在专业知识上,要在不断巩固基础的同时,优化知识结构,更新知识体系,拓宽知识视野。此外,作为从事外国语语言文化教育的韩国语专业教师,还应不断提高自身的国际化视野。

5. 结论

走过76载春秋的中国大学韩国语教育取得了一个又一个令人瞩目的成绩,已然成为中国最重要的外语教学语种之一。而当下,不论是从中国大学韩国语自身发展阶段来看,还是从中国高等教育发展的大环境来看,中国的大学韩国语专业都已进入全面提升人才培养质量的新的发展时期。本文考察和分析了中国大学韩国语专业的发展现状,并对作为中国外国语言文学类专业、大学韩国语专业发展指南的中国教育部纲领性文件『国标』和『指南』进行较为全面的解读,在此基础上本文尝试从优化培养方案、构建合理的课程体系、丰富教学内容、革新教学方法、完善评价体系、加强师资建设六个方面提出了新时期韩国语专业建设的举措。望本文对从事韩国语教育的教师和相关工作者了解中国的『国标』『指南』的基本精神和核心内容有所帮助,进而有助于韩国语专业制订符合自身发展的专业建设方案,以培养出更多优秀的、高水平的韩国语专业人才。

◆ 参考文献

1. 资料

教育部高等学校教学指导委员会,普通高等学校本科专业类教学质量国家标准[M].北京:高等教育出版社,2018.

教育部高等学校外国语言文学类专业教学指导委员会, 普通高等学校本科外国语言文学类专业教学指南(下)[M].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20.

2. 论文

- 楊萍, 韓存璽, 김진식, 「중국 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4년제 본과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25권 제5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pp. 967-989.
- 常俊跃, 「深入理解专业指导文件要点 积极开展新一轮改革探索——对贯彻《国标》《指南》推进英语专业教育改革的思考」, 『外国语文』第36卷第5期, 2020, pp.19-26.
- 冯光武, 「《国标》与新时期外语类专业定位」, 『外语教学与研究』第52卷第6期, 2020, pp.919-928.
- 蒋洪新, 「推动构建中国特色英语类本科人才培养体系——英语类专业《教学指南》的研制与思考」, 『外语界』第5期(总第194期), 2019, pp.2-7.
- 孙有中, 「落实《国标》要求, 大力提高外国语言文学类专业人才培养能力」, 『中国外语』第16卷第5期(总第91期), 2019, pp.36-42.
- , 「贯彻落实《国标》和《指南》, 推进一流专业和一流课程建设」, 『外语界』第3期(总第198期), 2020, pp.2-4.
- 王丹, 「高校非通用语专业学生综合素质能力培养策略研究——基于《外国语言文学类教学质量国家标准》的思考」, 『语言教育』第8卷第1期(总第28期), 2020, pp.2-7.
- 王立非, 崔璨, 「落实《商务英语专业本科教学指南》, 推进商务英语人才培养」, 『外语界』第3期(总第198期), 2020年, pp.5-11.
- 许宗华, 「《普通高等学校本科日语专业教学指南》解读」, 『外语学刊』第5期(总第216期), 2020, pp.7-14.
- 查明建, 「英语专业的人文学科属性与人文课程的意义——以《国标》人文课程为中心」, 『外国语言与文化』第1卷第1期, 2017, pp.18-26.

3. 网络资料

- 胡莉, 李威, 「成果|北京大学『区域国别研究学刊』(第2辑)出版」, “北京大学区域与国别研究院”微信公众号2021年1月4日推送.
- 软科微信公众号, 「136所双一流, 618所高校! 2020“双万计划”最新统计」, 2021年3月15日推送.
- 原创力文档网站, 「2019年一流本科专业建设“双万计划”入选专业信息」,
<http://max.book118.com/html/2020/0306/7103155006002122.shtm>
- 中国“阳光高考”高校招生工程指定平台 gaokao.chsi.com.cn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网站 <http://www.moe.gov.cn>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7월 26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8월 20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9월 23일

Abstract

The Pres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of Korean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ies Under the Background of the Promulgation of “the National Standards” and “the Teaching Guide”

Ding, Yi

With a history of 76 years, Korean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ies is now entering a new era of development centered on improving teaching quality. The National Standards of the Teaching Quality for Undergraduate Foreign Language and Literature Maj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ational Standards) and the Teaching Guide for Undergraduate Non-Common Foreign Maj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aching Guide) are the most recent important official documents that guide the education of Korean majors in China in the new era.

This paper first investigat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majors in Chinese universities. This paper also offers the author's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cord ideas and main contents of the National Standards and the Teaching Guide to clarify the requirements and guidance put forward by the National Standards and the Teaching Guid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ajors. At last,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Standards and the Teaching Guide, this paper expounds on the major measures to enhance the education performance for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Korean majors in Chinese universities. These measures include: (1) upgrading the curriculum; (2) solidifying the course system; (3) enriching the content of courses; (4) revolutionizing teaching methods; (5)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6)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qualified teachers.

Keyword Korean education, teaching quality, improvement plan, the National Standards, the Teaching Guide, interpretation

『明镜公案』真实性与法律性研究

赵玉霞 · 李沛婕*

국문요약

『명경공안(明镜公案)』은 전체 명칭이 『신각명공신단명경공안(新刻名公神断明镜公案)』인데 명나라 갈천민(葛天民), 오패천(吴沛泉)이 편찬한 것으로 제사체(诸司体, 공문나 조서와 같은 문체) 명나라 공안소설(公案小说)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제사체 공안소설을 “법가의 서적인 듯 아닌 듯, 소설인 듯 아닌 듯하다(似法家书非法家书, 似小说亦非小说)”고 생각해서 이런 종류의 공안소설을 소설의 말단으로 분류한 학자도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제사체” 공안소설의 여러 사건 중에 당시 사회의 실재적인 인물과 사실에서 따온 이야기가 많다. 『명경공안』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진실성은 『명경공안』 등과 같은 제사체 명나라 공안소설의 아주 특수한 특징이 되었고, 사건 판결에 필요한 고소장과 판결문 등은 소설 서사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됐다. 『명경공안』은 문학·예술 분야에서 출중하지 않지만 명나라 때 공안소설의 중요한 대표작으로 큰 영향력 있었으며 소설의 내용에는 풍부한 명나라 법률 지식과 백성의 생활과 밀접한 민사·형사 사건을 포함해서 법률을 전달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명경공안(明镜公案)』, 사건, 진실성, 법률성

〈目录〉

1. 序论
2. 『明镜公案』中案件故事的真实性
3. 『明镜公案』中案件故事的法律性
4. 结论

* 赵玉霞 延边大学 朝汉文学院 汉语言文学专业 教授
李沛婕 延边大学 朝汉文学院 汉语言文学专业 硕士研究生

1. 序论

『明镜公案』全名『新刻名公神断明镜公案』，全书共七卷，其中卷五、卷六、卷七文佚，案件故事按照犯罪类型分类，主要分为：人命类、索骗类、奸情类、盗贼类、雪冤类、婚姻类、图赖类、理冤类和古案类。每个案件故事取材于诉狱文档，因此判案的状词、诉词和判词仍然处于故事的主要位置并作为一种固定模式而存在。『明镜公案』的案件故事中收录了判案文书材料，使其文学艺术性并不如其他中国传统题材小说，却也因此具有很强的诉讼决狱的实用功能。也正因此，曾有学者认为明代公案小说“似法家书非法家书，似小说亦非小说”，而将其归为小说之末流。但是在语言方面，『明镜公案』使用浅近的文言，即接近白话又不是完全的白话，这使得普通百姓在阅读接受的过程中更加容易理解文本内容，从而也吸收了其中包涵的明代律法知识内容，以达到明代统治者“明刑弼教”的要求。因此，以『明镜公案』为代表的系列明代公案小说在各类题材小说中有着无可替代的特殊地位。

『明镜公案』基本沿袭了『廉明公案』（『皇明诸司廉明奇判公案』）的体例与模式，全书由多位“名公”的公案集合而成，每个案件由不同的判官断案，这种围绕多个判官组成案件故事的公案小说被称为“诸司体”¹⁾。“诸司体”的成书模式区别于『包龙图判百家公案』等一书一判官的“单传体”。明代此类公案小说除『廉明公案』外，还有『诸司公案』（『皇明诸司公案』）等。此类“诸司体”明代公案小说较于其他题材小说的特殊之处主要表现为真实性与法律性，“诸司体”公案小说中每个案件故事涉及的人物不尽相同，并且其中部分案件故事涉及历史上的真人真事。这一真实性特征在『明镜公案』中同样得到体现，也正因由真实的案件改编为公案小说故事，才更能体会出此类“诸司体”明代公案小说所具备的法律性。目前学界暂无关于『明镜公案』的详细研究，故本文着重从“诸司体”明代公案小说蕴含真实性与法律性的特征出发，对『明镜公案』的相关公案小说故事内容进行具体论述。

1) 石昌渝，『明代公案小说：类型与源流』，『文学遗产』，第3期，2006，pp.110.

2. 『明镜公案』中案件故事的真实性

明代公案小说经历了一个由“单传体”向“诸司体”转变的过程，安遇时汇编的『百家公案』（『包龙图判百家公案』）曾风靡一时，引得许多书坊主模仿抄袭。而明代书坊主余象斗却另辟蹊径，其汇编的『廉明公案』和『诸司公案』这两部公案小说的背景时代由宋代转向“皇明”，故事的主人公由“包公”转向“诸司”官员，关注点由历史转向现世，由传说故事转向真实案例，使读者产生身临其境的真实感。²⁾余象斗编刊的公案小说大量畅销，引起了明代公案小说创作与发展的一个高潮，使得其后编刊的『明镜公案』在其内容及体例上基本承袭了『廉明公案』，并且在『明镜公案』现存的25个案件故事中便有5篇引自『廉明公案』，1篇引自『诸司公案』，还有1篇引自『详刑公案』，可见余象斗编刊的公案小说在明代当时的影响之大。『明镜公案』同样也承袭了『廉明公案』与『诸司公案』注重现实性与真实感的特征。苗怀明先生曾统计，『廉明公案』、『诸司公案』的故事多来自明代法家书，前者有62条判词直接从明万历二十三年（1595）编刊的『萧曹遗笔』中采录，后者有32篇故事据明代张景增补的『疑狱集』一书改写。³⁾『明镜公案』不仅同样保留了案件中的判词记载，而且案件涉及的人物经查证许多便是来自于历史社会上的真实人物，这也更能说明『明镜公案』中的案件故事来自于真实案例。关于『明镜公案』中人物的真实性探究，列表如下进行归纳分析（见表1）：

表1 『明镜公案』中人物真实性调查

章目	篇名	案件涉及人物	相关历史真实人物
人命类	1.朱太尊察非火死	判官：夏党	判官原为朱寿隆，字仲山，密州诸城人。吏告民一家七人以火死，寿隆曰：“宁有尽室就焚无一脱者，殆必有奸。”逾月获盗，果杀其人而纵火也。知宿州，宿多剧盗，至白昼被甲剽攻，郡县不能制。寿隆设方略耳日，捕斩千余人。 ⁴⁾

2) 王令，「书坊主余象斗与公案小说」，『河南社会科学』，第11期，2012，pp.81.

3) 苗怀明，『中国古代公案小说史论』，南京：南京大学出版社，2005.

		受害者：戚孔扬一家	无
		罪犯：左之相	无
	2.周按院判僧杀妇	判官：周新	周新，南海人。初名志新，字日新。成祖常独呼“新”，遂为名，因以志新字。洪武中以诸生贡入太学。授大理寺评事，以善决狱称。 ⁵⁾
		受害者：妇人	无
		罪犯：古寺僧人	无
	3.张主簿判谋孀妇	判官：张录	张录，明山东城武人，字宗制。正德六年进士，授太常博士。擢御史。嘉靖初，伏阙争大礼，下狱廷杖。三年，大同兵变，录出按之，劾诸将失事，皆伏罪。张璁擢兵部侍郎，录与诸同官劾，不听。后璁总台事，罢录官，家居二十年卒。 ⁶⁾
		受害者：孀妇汪氏	无
		罪犯：僧人慧明、色空、欲空	无
	4.陈县丞判录大蛇	判官：陈祖	陈祖，字富文。福建长乐人。明洪武四年以明经荐授新繁县丞。
		受害者：老嫗之孙	无
		罪犯：大蛇	无
	5.梅同府判诬人命	判官：梅同府	无
		受害者：张善	张善（生卒年月不详），字性之，明代福建浦城人。明永乐七年进士，累官致监察御史。
		罪犯：刁梗	无
索骗类	6.崔按院搜僧积财	判官：崔黯	崔黯，字直卿，大和二年进士。开成初为青州从事，入为监察御史，迁员外郎。会昌中以谏议大夫出为江西观察使。 ⁷⁾
		受害者：百姓	无
		罪犯：廖志远	无
	7.顾察院判黜赃官	判官：顾佐	顾佐，字礼卿，太康人。建文二年进士。除庄浪知县。宣德三年，都御史刘观以贪被黜，大学士杨士奇、杨荣荐佐公廉有威，历官并著风采，为京尹，政清弊革。 ⁸⁾
		官员：杨士奇	杨士奇，名寓，以字行，泰和人。早孤，随母适罗氏，己而复宗。贫甚。力学，授徒自给。永乐二年选官僚，以士奇为左中允。五年进左谕德。 ⁹⁾
		罪犯：赵高	无

		罪犯：刘观	刘观，雄县人。洪武十八年进士。授太谷县丞，以荐擢监察御史。三十年迁署左金都御史。坐事下狱，寻释。出为嘉兴知府，丁父忧去。 ¹⁰⁾
奸情类	8.陈大巡断奸杀命	判官：陈主道	无
		受害人：邓魁之妻喻氏	无
		罪犯：章八	无
	9.林侯求观音祈雨	判官：林培仁	无
		受害人：管纯之妻柯氏	无
		罪犯：真悟、真醒	无
	10.陆知县判谋儒夫	判官：陆尹	无
		受害人：徐汝梁	无
		罪犯：娄镇	无
	11.李府尹遣覈奸妇	判官：李杰	李杰，本名务光，相州滏阳人。后魏并州刺史宝之后也，其先自陇西徙焉。杰少以孝友著称，举明经，累迁天官员外郎，明敏有吏才，甚得当时之誉。神龙初，累迁卫尉少卿，为河东道巡察黜陟使，奏课为诸使之最。开元初，为河南尹。 ¹¹⁾
受害者：樊见		无	
罪犯：允正、洛氏		无	
盗贼类	12.董巡城捉盗御宝	判官：董成	无
		罪犯：张祐、李辅等十人	无
		判官：汪澄	无
	13.汪太守捕剪辮贼	受害者：毕茂	无
		罪犯：林泰、罗钦、进贵、张善、李良	无
		判官：蒋审	无
	14.蒋兵马捉盗骡贼	受害者：方应举	无
		罪犯：万正富	无
		判官：金府尊	无
	15.金府尊拟告强盗	受害者：包明等百姓	无
		罪犯：余弁、金辽、陈见等	无
		判官：邓县尊	无
	16.邓县尊审决强盗	受害者：安谔一家	无
		罪犯：丁松	无
		17.邹御史德化群盗	判官：邹元标

	18.陈风宪判谋布客	受害人：贵州百姓	无
		判官：陈选	陈选，字士贤，临海人。父员韬，宣德五年进士。为御史，出按四川，黜贪奖廉，雪死囚四十余人。正统末，大军征邓茂七，往抚其民，释被诬为贼者千余家。都指挥蒋贵要所部随，都督范雄病不能治军，皆劾罢之。历广东右参政，福建右布政使。广东值黄萧养乱后，福建亦寇盗甫息，员韬所至，拊循教养，得士民心。 ¹³⁾
		受害人：曾良	无
		罪犯：郑岛	无
	19.陈县尹判盗官帑	判官：陈襄	陈襄，宋庆历二年，调建州浦成主簿。会吕令阙，襄独当县事。邑之封疆逼世族多，前后令莫能制。 ¹⁴⁾
		罪犯：囚徒	无
	20.贾县尹判吏窃库	判官：贾郁	贾郁，字正文。候官人。以文策干忠懿王补仙游簿秩满为令，正身奉法，邑人饷新果，曰杨震畏四知，今群兄弟皆倍於昔人，卒碎不受。 ¹⁵⁾
		罪犯：黄采	无
雪冤类	21.陆尚书判释大逆	判官：陆瑜	陆瑜，字廷玉，号省庵，鄞县城内月湖边人。明宣德八年进士，授刑部山西司主事，升员外郎。
		罪犯：汪禄	无
		受害者：李彬	无
婚姻类	22.王御史判奸成婚	判官：王刚中	赵与择、王刚中以上二人，年任无考。 ¹⁶⁾
		状告者：高从正	无
		被告者：徐守恂	无
	23.詹县令判合幼婚	判官：詹公揆	无
		状告者：苏丽卿	无
		诉告者：林秉谦	无
	24.庞通府判气生子	判官：庞通府	无
		状告者：屠拯	无
		被告者：蒙氏	无
	25.范侯判室女成男	判官：范推府	无
		状告者：和伦	无
		被告者：文英玉	无

4) [元]脱脱等，『宋史』，北京：中华书局，1975，列传第九十二。
5) [清]张廷玉等，『明史』，北京：中华书局，1974，卷一百六十一，列传第四十九。
6) [清]张廷玉等，『明史』，北京：中华书局，1974，卷二百六，列传第九十四。

从上表1可以得知,在『明镜公案』现存25篇公案故事中,有14篇涉及真实历史人物,占了小说故事一半以上的数量,这也在一定程度上说明了『明镜公案』中所记载人事的真实性。根据每篇案件故事关联的具体历史的真实情况不同,案件故事可分为以下几种真实性情况概述。

1) 案件故事的人物与案情在正史中均有详细记载

『明镜公案』中人物与案情在正史中均有记载的案件故事是真实性最高的,其中包括〈朱太尊察非火死〉、〈周按院判僧杀妇〉、〈崔按院搜僧积财〉、〈顾察院判黜赃官〉、〈李府尹遣覘奸妇〉,共5篇。其中〈周按院判僧杀妇〉一篇中记载了周新细心地将自身梦境联系到现实生活,从而破获一起冤案。虽然其中破案主要线索依赖的是周新的梦境,将破案过程带上了一笔浪漫主义色彩,然而这一案件却是在『明史』列传第四十九篇周新的人物列传中作为体现周新“善决狱”的典型案件来记载的:

周新,南海人。初名志新,字日新。……一日,视事,旋风吹叶坠案前,叶异他树。询左右,独一僧寺有之。寺去城远,新意僧杀人。发树,果见妇人尸。鞫实,磔僧。一商暮归,恐遇劫,藏金丛祠石下,归以语其妻。旦往求金不得,诉于新。新召商妻讯之,果商妻有所私。商骤归,所私尚匿妻所,闻商语,夜取之。妻与所私皆论死。其他发奸摘伏,皆此类也。¹⁷⁾

7) [清]董浩等,『全唐文』,北京:中华书局,2001,第八册,卷七百五十七。

8) [清]张廷玉等,『明史』,北京:中华书局,1974,卷一百五十八,列传第四十六。

9) [清]张廷玉等,『明史』,北京:中华书局,1974,卷一百四十八,列传第三十六。

10) [清]张廷玉等,『明史』,北京:中华书局,1974,卷一百五十一,列传第三十九。

11) [后晋]刘昫等,『旧唐书』,北京:中华书局,1975,卷一百,列传第五十。

12) [清]张廷玉等,『明史』,北京:中华书局,1974,卷二百四十三,列传第一百三十一。

13) [清]张廷玉等,『明史』,北京:中华书局,1974,卷一百六十一,列传第四十九。

14) [明]解缙等,『永乐大典残卷』,卷一万四千六百九, <http://www.guoxuedashi.net/>

15) [明]解缙等,『永乐大典残卷』,卷一万四千六百九, <http://www.guoxuedashi.net/>

16) [清]徐景熹,『福州府志』,卷三十一, <http://www.guoxuedashi.net/>

17) [清]张廷玉等,『明史』,北京:中华书局,1974,卷一百六十一,列传第四十九。

可见『明镜公案』是从『明史』中引入了案件主要内容，并加以适当细节润色后收入公案小说集中。但在〈顾察院判黜赃官〉一篇中打破了明代公案小说的编撰通常只涉及律典中户律与刑律中的普通案件，一般不关心“皇家”“官家”等案件的规则，¹⁸⁾真实记载了顾佐罢黜刘观父子贪官的真实事件。案件所涉及的高官人物都在『明史』列传四十六中记载下来：

宣德三年，都御史刘观以贪被黜，大学士杨士奇、杨荣荐佐公廉有威，历官并著风采，为京尹，政清弊革。帝喜，立擢右都御史，赐敕奖勉。¹⁹⁾

顾佐、杨士奇以及刘观都是明代著名官员，〈顾察院判黜赃官〉中对于顾佐形象写道“右都御史顾佐，廉公有威。曾任御史及按察司，皆有风采。亦当为京兆尹，宪度严明，清革宿弊，吏率闻风悚”²⁰⁾，展现出一位廉洁且严明的清官形象。小说中贪官被罢的结局安排，能让百姓更为主动地去了解与接受真实的案情，让百姓相信官府秉持着清正廉洁的宗旨，如此有利于清官明吏的声名传播，营造良好的吏治环境与社会风气。

而在〈朱太尊察非火死〉、〈崔按院搜僧积财〉与〈李府尹遣规奸妇〉这三篇案件故事中涉及的判官并非明代的历史人物，其中〈朱太尊察非火死〉中判官在文中虽名为夏党，但标题上为朱太尊，据考朱太尊为宋代著名官员朱寿隆，其案件情况在『宋史』中也有具体记载，可见判官夏党之名应为葛天民在编写『明镜公案』时的误写或是有意改写，却又并未改写案件故事的标题。而〈崔按院搜僧积财〉与〈李府尹遣规奸妇〉中判官崔黯与李杰是唐代的著名官员。并且两篇的案件情节皆在『疑狱集』与『棠阴比事』中存在相关记载，在『疑狱集』中分别为〈崔黯搜帑〉与〈李杰规妇奸〉，在『棠阴比事』则分别为〈崔黯搜帑〉与〈李杰买棺〉。其中，『疑狱集』为五代后晋和凝、和蒙父子编著的中国现存最早的案例选编，辑录了汉至五代的典型真实案件。而『棠阴比事』作为

18) 李凤鸣，「论明代公案小说的法律观及其影响」，『明清小说研究』，第1期，2018，pp.95.

19) [清]张廷玉等，『明史』，北京：中华书局，1974，卷一百五十八，列传第四十六.

20) [明]葛天民·吴沛泉，『明镜公案』，北京：群众出版社，1999，卷一，〈顾察院判黜赃官〉.

南宋时期桂万荣编著的中国古代法医学著作，涉及法医鉴定的内容，记载了刑法折狱的许多典型案例。由此可见，判官崔黯与李杰的案件具有一定的真实代表性，才会为『疑狱集』与『棠阴比事』所收录。这一编纂特点在余象斗编辑『廉明公案』中同样有所体现，虽然在序文中写道“取近代名公文卷”，但书中所搜集的来源并非只限于明朝，也存在取材于『疑狱集』的案例。²¹⁾因此，葛天民、吴沛泉在汇编『明镜公案』时受其诸多影响，选取的真实案件故事也并不局限于当时的明朝，同样会收录之前朝代的典型案例。

2) 案件故事的人物有正史记载，而无具体案情记载

此类真实性的案件故事据表1内统计共有9篇，包括：〈张主簿判谋孀妇〉、〈陈县丞判录大蛇〉、〈梅同府判诬人命〉、〈邹御史德化群盗〉、〈陈风宪判谋布客〉、〈陈县尹判盗官帑〉、〈贾县尹判吏窃库〉、〈陆尚书判释大逆〉、〈王御史判奸成婚〉。案件故事中涉及的部分人物有具体的史料记载，且史料内容与案件故事中的判官信息有着相应的联系。此类的公案故事同样具有一定真实性，但可能由于案情较小等其他原因导致正史中并未收录具体案情。『明镜公案』记载的此类案件故事，多为地方官吏清正廉明的事迹被百姓们口耳相传后所收录的，其中判官形象与正史中记载的历史人物形象基本吻合。例如，在〈邹御史德化群盗〉一篇中主要描写了邹元标御史平定贵州恶盗之乱的案件故事，其中邹元标在『明史』列传中有具体记载：“邹元标，字尔瞻，吉水人。九岁通『五经』。泰和胡直，嘉靖中进士，官至福建按察使，师欧阳德、罗洪先，得王守仁之传。元标弱冠从直游，即有志为学。举万历五年进士。观政刑部。”²²⁾在『明镜公案』中对邹元标御史的描写如下：

时邹元标为县令，任满回朝复命。吏部议曰：“贵州之乱非邹公不可。”于是擢为贵州道御史。百姓闻知，无不欢悦，皆言：“邹老爷若来，我等即见太平矣。”邹公到任，巡抚各县，吏胥奉法，百姓安堵。²³⁾

21) [日]阿部泰记，『明代公案小说的编纂』，『绥化师专学报』，第4期，1989，pp.22.

22) [清]张廷玉等，『明史』，北京：中华书局，1974，卷二百四十三，列传第一百三十一.

『明鏡公案』中对邹元标县令的人物形象塑造基本上符合『明史』中对邹元标的记载。虽在正史中并无记载邹元标是否平定过贵州贼乱，但是从邹元标博学通儒的情况来看，是符合其作出德化群盗一事的，使其案件故事也具有了一定的真实性。同时，『明鏡公案』中关于判官的基本信息记载与史料记载一致，例如在〈陈风宪判谋布客〉中写道“陈选，字士贤，天台临海人”与『明史』中记载“陈选，字士贤，临海人”相一致，以及在〈王御史判奸成婚〉中关于王刚中判官个人基本信息记载虽少，但从“上告时，探花王刚中出为御史，巡按福建”中可得知案件发生地为福建，而在『福州府志』中可考确有一名王刚中御史出任福州，并且在宋代罗烨所编的『醉翁谈录』的〈宪台王刚中花判〉中记载了判官王刚中审判的此次案件故事，但涉案主人公名字与『明鏡公案』中并不相同，且『醉翁谈录』也仅是一部文言传奇和话本小说集，并非正史，因此也只在一定程度上增强了案件真实的可能性。总而言之，根据『明鏡公案』中的判官相关信息与史料进行比对可知，这9篇中涉及到的部分案件人物皆为真实历史人物，且符合正史记载。『明鏡公案』中〈陆尚书判释大逆〉、〈陈风宪判谋布客〉等一桩桩案件故事都因雷厉风行、刚正不阿的判官运用自身智慧才得以破解。可见在明代当时社会，如同邹元标、陆瑜、陈选等正直清廉的判官事迹在当时民间有着一一定传播力，如此才能收录进公案小说中被广大百姓所接受且进一步流传。

除此之外，『明鏡公案』中还有一类案件故事不论故事涉及判官还是罪犯均无正史可考，共有11篇。在这11篇中有5篇转引自『廉明公案』，包括有〈董巡城捉盗御宝〉、〈汪太守捕剪镣贼〉、〈蒋兵马捉盗骡贼〉、〈金府尊拟告强盗〉与〈邓县尊审决强盗〉，1篇转引自『详刑公案』，即〈陈大巡断奸杀命〉。在这11篇非真实性案件故事中包含了作者对真实案件的改编与编写典型案例为百姓提供参考资料两种基本情况。其中〈董巡城捉盗御宝〉和〈蒋兵马捉盗骡贼〉分别改编自『疑狱集』中〈无名识盗葬〉与〈行成叱盗驴〉的案件。〈董巡城捉盗御宝〉写的是明弘治年间有盗贼窃取了御库宝物，判官董成猜想贼人只有

23) [明]葛天民·吴沛泉，『明鏡公案』，北京：群众出版社，1999，卷三，〈邹御史德化群盗〉。

藏在灵柩中才能混出城外，于是暗中监视城门出入服丧之人，果然发现口称为父丧而行葬仪却又看不出悲痛伤怀的人。问其亡父生死时日，所答也不尽相同，顺势在墓中发现了宝物。而在『疑狱集』中写的是唐朝苏无名受命调查太平公主宝物被盗一案时，看到一群身着丧服的胡人，跟踪胡人来到墓地，发现他们并无悲戚之情，于是从墓中找到了失窃的太平公主宝物。可见此类案件故事多是由小说的编者将之前发生的真实案件润色改编而成的，在历史上可以找到类似的真实案情记载。而在〈邓县尊审决强盗〉一篇中记载的只是一个普通的盗窃杀人案，与大部分的盗窃杀人案类同，都有着先杀人灭口、后偷窃钱财共同的特征，具有一定的代表性，案件结局便是判官直接严惩罪犯，破案过程并未详细记载。以及〈庞通府判气生子〉与〈范侯判室女成男〉两篇案件故事描述的是小姑与行房后的嫂子缠绵戏耍，接触兄长的精液后怀孕得子，被怀疑有奸后查明情况还得清白的故事。可见，此类案件故事的编写与收录应主要是为了安抚百姓，起到排解百姓担忧的祸事、解决困难问题的作用，同时，也是为了向其提供典型案例事例进行参考，『明镜公案』等明代公案小说也从而发挥着百姓的法律知识参考书的作用。

由上可知，『明镜公案』中大部分案件故事皆来自于真实历史人事，这一独特的注重真实性的汇编特点也正是被部分学者诟病其“搜辑古今刑狱事，其理拙无文”的原因。然而，注重真实性的明代公案小说自然而然地具备了针砭时弊的作用，不仅真实记录了特权阶层欺压底层百姓的不公社会状况，还有作为统治阶层的官员徇私枉法的残酷现实。²⁴⁾尤其是到了明朝的中后期，国家政局发生巨大的变化，官场中的贪污腐败、官官相护的风气愈演愈烈。同时，随着明代商品经济的发展，社会上不公平现象的出现，导致大量犯罪的产生，这些都成为普通百姓的困扰，甚至威胁。明代商品经济的繁荣也促使了明代一个特殊群体——书坊主的产生，部分书坊主是文人求仕不成成为谋生计而为，他们贴近百姓群体，了解百姓的法律需求，也为了抒发自身对昏暗吏治的愤懑不平，借助明代印刷业的发达，让许多记载着真实案件的明代公案小说

24) 王权明，『明代公案小说的判词研究』，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16，pp.6.

迅速流传了起来。因此，自余象斗编纂『廉明公案』至葛天民、吴沛泉编纂『明镜公案』等明代公案小说，所注重的并不是跌宕起伏的小说故事情节或是丰满的小说人物形象，而是司法诉讼的实用性。『明镜公案』引录或者改撰真实历史案件，一方面是当时众多的公案小说汇编作者通过这样一个方式来表达对吏治的不满与失望，另一方面引撰历史上的清官明吏来借古讽今，也成为了百姓在苦难生活中的情感寄托。大部分明代公案小说还在案件故事中真实记载了法律诉讼决狱程序，方便百姓在自身遭遇类似情况时，能够知法懂法用法，维护自身的权益。『明镜公案』案件故事的真实性既是『明镜公案』的专业知识性体现，也是明朝社会的缩影。而如今我们去研判明代公案小说的好坏，也不应单从艺术层面来看，其中蕴含的知识层面价值与社会影响力也不容被忽视。

3. 『明镜公案』中案件故事的法律性

明代公案小说兴盛的最重要原因之一是统治者注重律令在民间的传播和普及。洪武朝为律治的开创期，太祖的指向十分明确，乃在“明礼以导民，定律以绳顽”²⁵⁾，统治者想要明代律令达到“小民周知”的程度，公案小说便在律令的普及过程中担当着不可或缺的传播媒介作用。也正是因此，作为明代公案小说代表作之一的『明镜公案』呈现出较为明显的法律性。

1) 法律专业术语

自唐代以来，在诉讼决狱过程中用到的法律专业术语便受到了士人的重视，唐代科举制度中就有明确规定，士子及第后参加的吏部考试内容中必须包含判词的写作。而至明朝时，朱元璋下令强制文武百官必须熟谙法律，在『大明律』中记载道：“百司官吏务要熟读，讲明律意，剖决事务。每遇年终，在内从察院，在外从分巡御史、提刑按察司官，按治去处考校。”²⁶⁾在这样

25) 戴健，『论明代公案小说与律治之关系』，『江海学刊』，第6期，2007，pp.178.

严苛的法律政治环境下，判文几乎成为了除了八股文以外最受士人重视的文体。一方面，明代公案小说在案件故事中引入了许多法律专业术语，适应了士人群体需要，另一方面，明代公案小说还在故事内容中有意地植入与案件故事相关的诉讼程序、搜证方法、文书拟写等法律专业知识，为百姓在法律诉讼方面提供实用范文。

首先，『明镜公案』选择承袭『廉明公案』“以罪统刑”的体例方式，即全部案件故事按照罪案性质分为人命类、索骗类、奸情类、盗贼类、雪冤类、婚姻类、图赖类、理冤类和古案类。这种“以罪统刑”的体例方式从战国时期的法律文书中便开始，后一直沿袭到清代法典，也正是这种编排方式使得『明镜公案』看起来更像法家书，导致了一些学者弊病其“似法家书非法家书，似小说亦非小说”。而明代公案小说本就应是古代案例故事与判牍文书结合的产物，这一方面反映了创作者的法律知识背景，另一方面也表现出彰显专业知识性以及增加说服力的意图。²⁷⁾

其次，在『明镜公案』的故事编写中保留了判案“三词”，即状词、诉词、判词。余象斗在编纂『廉明公案』和『诸司公案』时均采用“先叙事情之由，次及告诘之词，末述判断之公”这种书判体公案小说的新模式。²⁸⁾如此的编写模式在『明镜公案』汇编时得以保留下来。案件的状词、诉词、判词置于故事叙述中，并且成为情节发展的重要组成部分，也使得『明镜公案』此类公案小说在注重法律知识展现的同时，大大增强了文学性和可读性。百姓在阅读时也能清楚地了解到明代律法上的“三词”是如何在案件中阐述以及发挥作用的。例如在『明镜公案』的〈陈大巡断奸杀命〉一篇中便完整了包含了状词、诉词、判词，判案“三词”同样也推动着案情的发展：

魁乃写状告县曰：告状人邓魁，系本县民，年甲在册。告为奸杀事。豪恶张学

26) 怀效峰点校，『大明律』，沈阳：辽沈书社，1990，卷三，〈讲读律令〉。

27) 李凤鸣，「论明代公案小说的法律观及其影响」，『明清小说研究』，第1期，2018，pp.100。

28) 王令，「书坊主余象斗与公案小说」，『河南社会科学』，第11期，2012，pp.81。

礼，漂荡风流，奸淫无比。……恶逆弥天，冤情沉海，乞天相验，法断偿命，以正纲常。含血哀告。

次曰，（学礼）写状诉曰：诉状人张学礼，本县民，诉为飘诬事。身业儒流，家传清白。……悬天查审，详鞫一干，不遭骗陷。上诉。

陈大巡判曰：喻氏被杀，情固可矜；学礼遭刑，苦犹可怜。……填命有条，斩首示众。学礼无干，省发还家之例；邓魁不合诬告，死罪之刑。喻氏贞节，虽死不从，合旌其门，以风天下。²⁹⁾

在〈陈大巡断奸杀命〉一篇中，首先由邓魁状告张学礼，而后张学礼阐述其诉词来表现被冤之苦，最后陈大巡下判词给故事作结，张学礼得以含冤得雪，喻氏被杀之由真相大白。『明镜公案』中共有16篇涉及有判案“三词”，并且将状词、诉词和判词视为不可或缺的案件内容，不厌其烦地一一述及，成为了小说内容的重要构成要素。如此之类的附有判词的公案小说具备诉讼决狱的法律专业性，成为了很多初出书斋的官吏、士子等尝试写作法律文书的参考书籍。同时，『明镜公案』中的案件故事经过文学渲染后，满足了平民百姓读者学习和娱乐的双重需要，其中蕴含的法律知识也成为了平民告状和上诉的参考模板。这也使得『明镜公案』一类的明代公案小说有着其独特的法律性，促进了明代律令的传播，从而达到明太祖所言“小民周知”的程度。

2) 法律教化作用

明朝自立朝初年开始，上层统治者便十分注重法律令条在民间的传播教化，并且为此特意设立了律令讲解制度。『明史』〈刑法一〉中记载：“次年复为『续编』、『三编』，皆颁学宫以课士，里置塾师教之。囚有『大诰』者，罪减等。于时，天下有讲读『大诰』师生来朝者十九万余人，并赐钞遣还。”³⁰⁾从中可知，在明朝不仅设置私塾教授法律，为了达到法律教化的目的，还设立了明确的赏罚制度，其中包含了知晓法律的犯人可减免罪行，熟知法

29) [明]葛天民·吴沛泉，『明镜公案』，北京：群众出版社，1999，卷二，〈陈大巡断奸杀命〉。

30) [清]张廷玉等，『明史』，北京：中华书局，1974，卷九十三，志第六十九。

律的百姓也可获得赏赐，此律令的颁布更是掀起了百姓了解法律的热情。有了如此积极的政策背景环境，具备法律实用性的明代公案小说便应运而生。除了上层统治者的政策支持鼓励以外，公案小说在明代百姓阶层中的兴盛与当时的社会文化风气是分不开的，嘉靖以来盛行的王阳明心学便是明代公案小说滋生的文化土壤。王阳明将目光更多地放在了为百姓所需求的通俗百科类文化上，提出了“亲民论”。如此“亲民”的社会风气导致了万历时期各大书商争相刊行百姓日用百科类书籍，例如：『万用正宗』、『五车拔锦』、『文林聚宝』等等，其中包含了天文、地理、农作、药草、音乐、书画、文学、占卜等等各类百姓日用所需。而其中自然也包含了“律法”类，即为百姓提供诉讼文书的文体格式，以及法律观念与常识，如『博览全书』便设有“珥笔门”。³¹⁾因此，『明镜公案』等明代公案小说在民间的兴盛便不足为奇，公案小说一方面达到用故事娱悦读者的作用，另一方面也因自身具备了法律实用性，在教化百姓律法知识上发挥着不可磨灭的作用。

『明镜公案』等明代公案小说的案件故事取材不同于给统治者和官员贵胄阅读的法典政书，其受众为平民百姓，因此选择案件故事题材也多为财产纠纷、情感伦理、仇怨害人一类，『明镜公案』选择这些贴近百姓生活的案件也更容易引起百姓共鸣。同时，小说的创作者多遵守古代文以载道的道统法则，故在故事情节上要力求通俗猎奇、贴近百姓生活且能让人喜闻乐见。因此，『明镜公案』彰显出明代公案小说所具备的法律教化功能，让百姓在阅读公案小说时，将案件故事中蕴含的不杀人越货、不贪淫情色、不取不义之财等伦理纲常潜移默化地渗透进自身的观念之中。雪冤类案件便是明代公案小说的重头戏，被害人含冤莫白，在经历种种困难之后才得遇贤明判官，又或是判官经过层层推理才使得案情大白，其情节中间多悲苦仇怨与悬疑重重，直到最后一刻才真相大白，使得读者松一口气。这样的情节设计既符合百姓渴望“青天”的心理，又能引起猎奇效果，有强烈的渲染作用和教化意义。先前在宋代的话本公案〈错斩崔宁〉中，主人公崔宁原本无罪，因为审判者的刑讯逼供

31) 石昌渝，『明代公案小说：类型与源流』，『文学遗产』，第3期，2006，pp.117.

迫使他承认罪名后含冤而死。³²⁾而在『明镜公案』中“含冤而死”的情节非常少见，而更为推崇“沉冤得雪”的情节模式。例如在〈陆尚书判释大逆〉一篇中刑部尚书陆瑜发现李彬被汪禄所诬陷，且汪禄预图将李彬株连九族，陆瑜便同圣上激烈辩驳并还得李彬清白。从中可以看出，明代这个时期公案小说的作者始终保持善恶分明的鲜明态度，这与之之前按事件的状况自然发展的公案小说相比，无疑更加符合当时广大百姓的心理需求。百姓也在满足了自身的阅读心理期望的同时，潜移默化地接受了案件洗刷清白的过程中所需求的法律知识。『明镜公案』通过法律叙事，这些报应不爽和行善得福等基本理想、信仰和价值观，以及在案件中涉及到的法律知识，经由阅读或口耳相传，潜移默化地对普通百姓产生法律教化的作用。

『明镜公案』部分案件故事结束后，编者经常还会对故事中的人或事作议论或是评价，这些评点文字前会加上“按”字，故称“按语”。按语在公案小说中的频繁出现，是作者针砭时弊或提醒、警示等道德训诫，百姓通过“按语”的提示，往往对案情能有更深刻的理解，更能在不知不觉中接受其中包含的法律教化观念。例如在〈陆知县判谋懦夫〉一篇中，编者便写有按语描述如下：

按：阮氏初到，即用刑拷勘，彼必供出娄镇。但指奸不为奸，夜杀又无证，难以入罪，故宽纵以待。镇之追随阮氏，然后同缚则彼奸情既无辞，而谋杀亦可问入矣。此悬饵得鱼之计也。³³⁾

编者在按语中解释了陆知县不依法直接对阮氏进行刑罚，反而放走她，实行欲擒故纵、放饵诱鱼的高明计策抓得奸夫。从这段按语中不仅能看到陆知县的英明决断，教化了百姓不贪淫情色的基本伦理纲常，也让百姓看到了偷奸恶行将会受到法律制裁的后果。由此可见，『明镜公案』不仅在故事情节设计上迎合百姓，在按语的设置上也别出心裁，这些都在训诫百姓和法律教化方面起着十分重要的作用。

32) 陈鹏，「明清公案小说兴盛原因分析」，『文山学院学报』，第4期，2018，pp.81.

33) [明]葛天民·吴沛泉，『明镜公案』，北京：群众出版社，1999，卷二，〈陆知县判谋懦夫〉.

3) 礼法交融

中国古代常将“礼”与“法”对举而谈，所谓“礼者，因人之情，缘义之理，而为之节文者也”³⁴⁾，可见“礼”是个体自觉的非成文习惯原则，而也正因“礼”的个体自觉性，常常会随着具体情境而有着各种行为出入。然则“法者，编者之图籍，设之于官府，而布之于百姓者也”，可见“法”与“礼”不同，它具备成文的规范形式，且具备强制执行性。但是，“礼”与“法”并非是相对立的，反而应是相互交融的关系。在汉代《盐铁论》中便提到：“法者，缘人情而制”³⁵⁾以及《隋书》〈刑法志〉中：“礼义以为纲纪，养化以为本，明刑以为助”³⁶⁾，即追求重人伦、重实质、重情感、重社会关系、灵活性很强的伦理立法，这便是所谓的“礼法交融”。³⁷⁾明朝对“礼”与“法”的相辅相成同样十分注重，在明律治的开创期洪武朝，明太祖便明确提出：“朕仿古为治，明礼以导民，定律以绳顽，刊著为令。”³⁸⁾即以礼教教化百姓民众，以刑罚惩治“奸顽之徒”，体现出“礼法，国之纪纲。礼法立，则人志定，上下安”³⁹⁾的作用。可见，“礼”“法”交融不仅是明代律法的特征，也是立法目标，更是国之纲纪与保障。

『明镜公案』中的许多案件故事也将律法结合人情、伦理去审判，体现出一种“礼法交融”的法律观念，所谓“法顺人情”、“理出人心”，便是此理。这正是百姓阅读公案小说所期望满足的心理预期，即法律并非是刻板的条款，而是会因不同的情境而灵活变通的正义一般的存在。『明镜公案』的婚姻类案件故事中对“礼法交融”的法律性特征表现得尤其明显，尤其在〈王御史判奸成婚〉一篇中，小说写到少女高愉妹与少年徐守恂年纪相仿，郎才女貌，吟诗结缘后欢好云雨时被叔父撞破，双双被告公庭，对二人和奸之事供认不讳，又因高徐二人皆词四六为状词，御史王刚中惜其才能，反而成其眷属：

34) [春秋]管仲，《管子》，黑龙江：北方文艺出版社，2013，〈心术上第三十六〉。

35) [汉]桓宽，《盐铁论》，北京：中华书局，2015，〈刑德第五十五〉。

36) [唐]魏征等，《隋书》，北京：中华书局，1973，卷二十五，志第二十，〈刑法〉。

37) 李泽厚，《乙卯五说》，北京：中国电影出版社，1999，pp.86。

38) [清]张廷玉等，《明史》，北京：中华书局，1974，卷九十三，志第六十九。

39) [清]毕沅，《续资治通鉴》，北京：线装书局，2009，卷二百一十七。

王御史曰：“汝两下都认和奸，可先供状，然后拟罪。”徐生、高氏各援笔而成供状，词皆四六，赡博富丽。王御史见其供出成奸之由，起于咏诗句。而所供之状，果有才学。乃曰：“汝能为诗乎？此檐前有蛛网悬蝶，试面赋之。”……王公怜二人之才，见其供称俱未议婚，乃谓之曰：“据律则通奸者该各杖八十，姑念汝天生一对，才貌两全。古云‘君子乐成人之美’，当权正好行方便。吾何惜一屈法，不以成人美乎？可令你结成姻缘，宜室宜家，是亦一大方便也。”⁴⁰⁾

『大明律』〈刑律八〉规定：“凡和奸，杖八十。”⁴¹⁾按律法规定，高徐二人的行为必然受到严峻的法律制裁，但情理上，二人年纪正当，你情我愿，虽有过错，但王御史依旧顺应人情成全了他们。最后，王刚中御史也道出了他如此宣判之理由：“岂不闻卓茂云：‘律设大法，礼顺人情。’又程子云：‘王道之大本乎人情。’则苟顺于情即合礼合道，何奸于律？”⁴²⁾可谓道出了“礼法交融”的核心精神。王刚中的对此案件的审判正体现了“读律尚己，其运用之妙，尤在善体人情”⁴³⁾。『警世通言』名篇〈宿香亭张浩遇莺莺〉中的判词中便非常经典地概括出了其中蕴含的情理，即“在人情既出至诚，论律文亦有所禁”。这“情”与社会关系、秩序、风俗、观念意识等紧密相连，其作用与地位便显得比刻板法律所规定的要求更为重要，这也正是华夏民族千年来受儒学传统影响最深的体现。陈寅恪先生曾说：“二千年来华夏民族所以受儒家学说之影响最深最巨者，实在制度法律公私生活之方面。”直至今日，中国百姓在日常生活中依旧十分注重人际交往与感情，可见“礼法交融”的观念并不仅仅在法律上有着深远的影响，也影响着人们生活的方方面面。

40) [明]葛天民·吴沛泉，『明镜公案』，北京：群众出版社，1999，卷四，〈王御史判奸成婚〉。

41) 怀效峰点校，『大明律』，沈阳：辽沈书社，1990，〈刑律八〉。

42) [明]葛天民·吴沛泉，『明镜公案』，北京：群众出版社，1999，卷四，〈王御史判奸成婚〉。

43) [清]王辉祖，『佐治要言』，乾隆五十一年影印本，<http://www.guoxuedashi.net/>

4. 结论

明朝商品经济繁荣,市民阶层日益壮大,市民百姓的日用需求得到了前所未有的重视。『明镜公案』等明代公案小说顺应了这一时代的发展变化,其主要目的是满足市民百姓的阅读需求,因此得以不断地流传兴盛。然而,也正是由于明朝商品经济的繁荣以及资本主义萌芽发展,社会上形成了纵情声色的颓靡风气,奸淫、盗窃、凶杀等犯罪行为大幅增加。与此同时,统治阶层中也存在黑暗吏治、腐败贪污的风气,冤狱假案也较多,百姓渴求一个“青天”的清官形象。在如此昏暗的社会环境下,『明镜公案』等明代公案小说展现出与其他小说不同的法律性,企图避免更多的社会悲剧发生。书坊主群体作为明代公案小说主要的汇编者及传播者,借助明代发达的印刷业,一方面试图通过公案小说中各类案件来达到针砭时弊、借古讽今的目的,另一方面有意插入法家文书,这既是为了给士子文人学习律法提供便利,也是为了让百姓学会用法律武器维护好自身权益。明朝自建朝以来,统治者对『大明律』法宣传与教化的重视,都成为了『明镜公案』等明代公案小说具备独特的法律实用性的原因。

『明镜公案』等明代公案小说虽常被学界所诟病类同于法家书,但其能将小说叙事与法律文书穿插为一体,显示出与其他类型小说所不具备的法律性,尤其是在让『大明律』达到“小民周知”的层面,有着不可替代的法律功能。且“诸司体”公案小说中包含诸多案件故事涉及当时真实人事,可知大部分明代公案小说编者的目的并不是完成一部精彩的小说,而是希望百姓在阅读小说的同时,深刻体会到知法懂法的重要性,并进一步去了解及遵守大明律法,从而达到维持社会长治久安的目的。『明镜公案』虽然同样未将重心放在高超的小说叙事技巧与小说人物形象上,但相较之下,编者在注重真实性与法律性的同时,已有意识地兼顾文学性(如〈王御史判奸成婚〉),其目的依旧是通过便于阅读的公案小说故事向百姓普及明代社会实用的律法知识。小说中蕴含的知识在小说的艺术世界构建中同样发挥着重要作用,⁴⁴⁾或许我们应从明代公案小说中包含的知识性方面去重新审视其文学地位与作用。

◆ 参考文献

1. 资料

- [明]葛天民·吴沛泉,『明镜公案』,北京:群众出版社,1999.
 [清]张廷玉等,『明史』,北京:中华书局,1974.
 [唐]魏征等,『隋书』,北京:中华书局,1973.
 [后晋]刘昫等,『旧唐书』,北京:中华书局,1975.
 [元]脱脱等,『宋史』,北京:中华书局,1975.
 [春秋]管仲,『管子』,黑龙江:北方文艺出版社,2013.
 [汉]桓宽,『盐铁论』,北京:中华书局,2015.
 [清]董浩等,『全唐文』,北京:中华书局,2001.
 [清]毕沅,『续资治通鉴』,北京:线装书局,2009.
 怀效峰点校,『大明律』,沈阳:辽沈书社,1990.

2. 单行本

- 李泽厚,『乙卯五说』,北京:中国电影出版社,1999.
 苗怀明,『中国古代公案小说史论』,南京:南京大学出版社,2005.
 孙楷第,『日本东京所见小说书目』,北京:人民文学出版社,1958.

3. 论文

- [日]阿部泰记,「明代公案小说的编纂」,『绥化师专学报』,第4期,1989, pp.20-34.
 石昌渝,「明代公案小说:类型与源流」,『文学遗产』,第3期,2006, pp.110-160.
 刘勇强,「小说知识学:古代小说研究的一个维度」,『文艺研究』,第6期,2018, pp.56-67.
 李凤鸣,「论明代公案小说的法律观及其影响」,『明清小说研究』,第1期,2018, pp.92-105.
 王令,「书坊主余象斗与公案小说」,『河南社会科学』,第11期,2012, pp.80-83.
 戴健,「论明代公案小说与律治之关系」,『江海学刊』,第6期,2007, pp.178-183+239.
 陈鹏,「明清公案小说兴盛原因分析」,『文山学院学报』,第4期,2018, pp.76-81.
 王权明,「明代公案小说的判词研究」,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16.

4. 网络资料

- [清]徐景熹,『福州府志』,卷三十一. <http://www.guoxuedashi.net/>
 [清]王辉祖,『佐治要言』,乾隆五十一年影印本. <http://www.guoxuedashi.net/>
 [明]解缙等,『永乐大典残卷』,卷一万四千六百九. <http://www.guoxuedashi.net/>

44) 刘勇强,「小说知识学:古代小说研究的一个维度」,『文艺研究』,第6期,2018, pp.56.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7월 01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9월 05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9월 23일

Abstract

“Mingjing Koan” Social Research

Zhao, Yuxia · Li, Peijie

“Mingjing Goan” full name “Newly engraved MingGong ShenDuan Mingjing Koan”, Compiled by Ge Tianmin and Wu Peiquan , It is one of the masterpieces of ZhuSi style Koan novels in the Ming Dynasty. Some scholars thought that this kind of Koan novel “Like a family book but not a family book, like a novel but not a novel”, It is classified as the last of the novels. Although “Mingjing Koan” is not outstanding in literature and art, it has strong social authenticity and legality. First of all, it has strong authenticity, many stories are taken from real people and things in society at that time, and make adverbs, pleadings, and judgments as the main components of the narrative. This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ZhuSi style novels in the Ming Dynasty. Secondly, it has strong legality, contains a wealth of knowledge of Ming Dynasty laws, the subject matter involves civil and criminal cases closely related to people's lives. It is great significance in transmitting the law. This is also one of the reasons why it became the masterpiece of the Koan novels in the Ming Dynasty and had an important influence.

Keyword

Mingjing Koan, Case story, sociality, authenticity, legality

한중인문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중인문학회(한문표기 : 中韓人文學會, 이하 “학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한국학의 진흥 및 그 성과의 해외 소개
2. 재외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해외 한국학의 활성화
3.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학술문화사상적 교류 및 관계 탐구
4. 기타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 및 정체성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제3조(사업)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2. 학회지 『한중인문학연구』 간행
3. 한중인문학 관련 도서 간행
4.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제4조(연구 윤리)

1. 학회의 제반 활동은 학술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다.
2.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별도의 〈윤리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한중인문학 관련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문화, 언어교육 분야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기타 한중문화 교류에 관여하는 전문가 및 기관

제6조(가입) 학회의 가입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조직)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전공별, 지역별)
3. 분과이사 약간명
4. 감사 2인

제11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분과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2. 행정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의 사업을 기획·조정한다.
3. 분과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와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무사항 일체를 감사하며 매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4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사업 계획의 심의
 - ②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③ 임원 선출 및 인준
 - ④ 회칙 개정
 - ⑤ 기타 중요사항
3. 임시총회는 학회 운영상 특별히 의결이 필요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공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 ③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중요사항

제16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제반 활동 및 회원의 연구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 연구 윤리 규범을 홍보하고 〈윤리 규정〉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의결) 회의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내역)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기금, 입회비, 연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결산) 예산 및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기 타

제22조(내규)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부 칙

- 이 회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중인문학연구』編輯委員會 規定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발행) 본 위원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는 다음 지침에 따라 발행된다.

1. 연4회 발간하되, 3월 30일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게재 심사 대상은 투고된 학술대회 발표문과 수시로 접수한 논문으로 한다.

제3조(연구 윤리)

1. 본 위원회의 활동은 학술연구자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 이행에 바탕을 둔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의 활동은 본 학회의 〈윤리 규정〉에 의한 제반 규약을 준수한다.
2. 이와 관련한 사안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처리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1.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인원) 편집위원은 아래의 분야에 따라 위촉한다.

1. 한국 인문학 : 문학, 어학, 고전, 역사, 문화, 교육 등 6개 분야
2. 한중 비교학 및 중국학 : 중국 문학, 중국 어학, 중국 사상, 비교 문학 등 4개 분야
3. 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로서 연구업적과 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 임명한다.

제6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
2.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자

제7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편집활동의 제고를 위해 약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제9조(투고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이면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0조(논문의 범위)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로 한정한다.(기취득한 학위논문을 요약 및 발췌한 내용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의 접근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1. 한국학의 내적 특성을 심화시키거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
2.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인문학 분야 및 한국학의 정체성 탐구와 관련 있는 내용

제11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 논문 한 편 당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2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심사하여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 점수	5	4	3	2	1
논문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총점					

제4장 심사 절차 및 심사 규정

제13조(접수)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을 통해 수시로 받는다.

제14조(예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예심을 한다.

제15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예심을 거친 논문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의뢰서’와 함께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제16조(심사 절차)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 평가란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데 택일하여 기록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규정)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서 3인 이상이 게재에 동의할 경우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심사결과 2인 이상 ‘수정 후 게재’ 판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2주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확인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5.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대하여 투고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논문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7. 심사결과 2인 이상 ‘게재 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반려한다. 단 1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수정 후 게재’에 준한다.
8. 심사 결과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다.
 - ① 투고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구체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한 가지 중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수의 판정 결과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 ③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 ④ 재심사에 들어갈 경우 이의 신청자는 재심 논문 심사비 등을 포함하여 내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재심은 심사비 납부 이후에 진행한다.
9. 투고자에게는 논문의 게재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명시한 ‘논문심사결과서’를 통지한다.
10. ‘수정 후 게재’ 판정에 대해 투고자는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여 제출하고, 그 수용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정한다. 만약 심사자의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이나 구체적인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게재를 제한한다.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11. 발행 면수 제한 때문에 논문 편수를 더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하위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2. 외국학자의 논문을 학회지에 일정 비율 수록하도록 한다. 수록 비율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13. (재투고 금지) 재투고는 1회에 한하며 1차 심사절차와 똑같이 진행하고, 만약 심사결과에서 ‘게재불가’ 판정인 경우와 1회 반려된 논문은 동일한 제목이나 그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제5장 투고 규정

제18조(투고) 투고는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메뉴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시 학회에서 요구하는 ‘논문투고신청서’ 양식과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공동저자인 경우 저자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저자가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9조(접수 마감) 접수 마감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

다.

제20조(원고 작성) 논문 작성 요령은 제26조의 논문 작성 양식을 따른다.

제21조(투고 제한) 단독 저자 및 공동 저자의 투고 시, 연속 2회 투고 및 게재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을 재투고할 수 없다.

제22조(원고의 제출) 논문의 내용 상 그래프나 표 등이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1 부를 출력하여 그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기, 겉표지와 논문을 첩하여 아래의 학회사무실로 제출하고 인수증을 받는다. 우편 제출 시 논문 겉표지에 ‘『한중인문학연구』 제 00호 투고 논문’이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쓴다.

학회사무실 주소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3호관 121호 인문학부 철학전공
한중인문학회 유성선
E-mail : kochih@hanmail.net

제23조(심사비)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비를 학회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서 접수 후 심사위원들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24조(게재료) 심사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일반 논문과 연구비 수혜 논문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영문초록)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학술논문 영문교정 전문기관에 영문 초록 교정을 의뢰한다. 영문 초록 교정에 드는 비용은 논문

저자가 부담하여, 게재료에 반영한다. 단 저자가 별도 교정을 원할 경우, 저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영문 초록 교정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초록 교정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연구 윤리) 연구 윤리를 심의 감독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회장이 임명한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7조(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방지) 논문 투고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련 보고를 요구받았을 때, 즉시 학회 측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즉시 이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에 돌입한다.

제28조(논문 작성 양식) 논문 작성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논문은 “한글(2005 이상)”으로 작성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편집 후 총면수 24쪽 이내) 내외로 하고, 150매 이상(편집면수 30쪽 이상)은 투고를 제한한다.(출판 편집 후 24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한다.)
3. 논문의 체제는 제목, 성명, 국문개요, 국문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 성명,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으로 한다.
4.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 등은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하고, 공동 저자가 있을 경우 주저자(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또는 제2저자) 등을 빠짐없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성명/대학명/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성명/대학명/학부과정, 석사과정, 석사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명/교사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명/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기관명/직위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성인	성명/전)소속명/종별 학위, 전)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소속/직위가 없는 미성년자	성명/최종소속명/학생, 졸업, 재학연도

5. 모든 논문은 국문개요와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국문 주제어와 영문 주제어를 각각 5개 이상 표기한다.

6. 편집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 종류	용지 여백		용지 방향
사용자 정의 폭 : 153mm 길이 : 225mm	위쪽	19.0mm	좁게
	아래쪽	27.0mm	
	왼쪽	22.0mm	
	오른쪽	22.0mm	
	머리말	13.0mm	
	꼬리말	0	
	제본	0	

7.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

① 본문의 항목구분은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② 표 및 그림은 〈표 1〉 제목, 〈그림 1〉 제목의 순서로 한다.

- ③ 〈 〉 작품, 『 』 작품집, 「 」 논문, 『 』 신문 · 잡지 · 저서,
 ‘ ’ 강조 및 간접인용, “ ” 직접 인용으로 한다.

8. 논문의 스타일 모양은 다음과 같다.

스타일 이름	글자모양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 간격	정렬 방식
바탕글	10	95	-9	신명태명조	0	0	10	170	양쪽
국문개요	8.5	95	-9	휴먼명조	0	0	10	160	
논문제목	13.5	90	-6	휴먼명조	0	0	0	170	중앙
1	12	90	-6	신명태명조	10	0	0	170	양쪽
1)	10.6	90	-7	신명중고딕	10	0	0	170	양쪽
(1)	10	95	-8	신명중명조	10	0	0	150	양쪽
①	10	95	-9	휴먼명조	10	0	0	170	양쪽
인용문	9	95	-9	휴먼명조	10	0	10	150	양쪽
각주	8.6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14	138	양쪽
참고문헌	8.9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30	145	양쪽
영문초록	9	90	-7	신명신명조	10	0	0	150	양쪽
표제목	8.5	95	-7	중고딕	0	0	0	170	중앙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오른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양쪽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9.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수정 2016. 01. 13)

- ① 저자,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인용쪽수는 p 또는 pp로 표기한다.)

- ② 영문 각주일 때 논문은 “ ”로,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0. 참고문헌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참고문헌은 단행본과 논문으로 나누어 완전한 서지정보를 표기한다.

- ② 학술지에 실려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게재 면수(해당 논

문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반드시 표기한다.

- ③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기타 동양권 문헌 다음에 영어, 불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 ④ 국내문헌은 저자의姓을 가나다 순서로, 동양권 문헌은 저자 독음을 가나다순으로, 그리고 서양권 문헌은 저자 姓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⑤ 외국 논문의 경우 자국 언어의 문헌을 국내문헌으로 간주한다.

제6장 논문의 학회 이용권

제29조(학회의 저작권)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저작권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학회의 이용권을 자동 허락한다.

제30조(논문의 이용)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게시된 논문은 회원에 한하여 무료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논문 공개) 한국연구재단(KCI)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술지의 모든 논문은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상업 이용 금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저자와 학회 간에 별도 협약을 맺는다.

부 칙

제33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를 따른다.

제34조(개정)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한중인문학회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제반 활동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약)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 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 규정 준수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의무) 본 학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회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의 윤리 조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해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의 연구 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6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일반적 윤리

제8조(사회책 책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9조(학문의 자유) 연구자는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로서의 자세) 연구자는 자신의 학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연구자들은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본인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삼간다.

제3장 연구 관련 윤리

제12조(저자의 의무)

1.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회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인터넷 및 SNS 등등 게시 자료 포함)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

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6.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 게재 후라도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제13조(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4조(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

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구성과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임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전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전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20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부칙

제21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2조(시행)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彙 報

2021. 08. 13. 한중인문학연구 72집 1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1. 09. 07. 한중인문학연구 72집 2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1. 09. 23. 한중인문학연구 72집 3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1. 09. 27. 한중인문학연구 72집 4차 편집위원회 개최
2021. 09. 30. 한중인문학연구 72집 발간

2021年度 事業計劃

- 1) 한중인문학연구 70집 투고 마감 (2021년 02월 10일)
- 2) 한중인문학연구 70집 발행 (2021년 03월 30일)
- 3) 한중인문학연구 71집 투고 마감 (2021년 05월 10일)
- 4) 한중인문학연구 학술지 평가 서류 제출 (한국연구재단, 2021년 05월 04일)
- 5) 한중인문학연구 71집 발행 (2021년 06월 30일)
- 6) 한중인문학연구 72집 투고 마감 (2020년 08월 10일)
- 7) 제47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21년 08월 02일,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온라인(비대면))
- 8) 한중인문학연구 72집 발행 (2020년 09월 30일)
- 9) 한중인문학연구 73집 투고 마감 (2021년 10월 30일)
- 10) 제48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21년 12월 18일 (토) 온라인(비대면) 진행)
- 11) 한중인문학연구 73집 발행 (2021년 12월 30일)

〈알림〉

1. 『한중인문학연구』 중간 안내

2014년부터 학회지 발간을 4회로 증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투고 마감일 : 01월 30일, 04월 30일, 07월 30일, 10월 30일
- 발행일 : 03월 30일, 06월 30일, 09월 30일, 12월 30일

2. 『한중인문학연구』 73집 원고 모집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회원은 원고 마감 기한을 지켜 학회로 원고를 보내주시시오. 원고 분량은 편집면 기준 30쪽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타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잘 참고하시어 투고하시기 바랍니다.(학회의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만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 논문 투고 :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
- 투고 마감 : 2021년 10월 30일
- 발행 예정 : 2021년 12월 30일

3.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 안내

55집부터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외국학자 논문도 동일 적용)

- 심사료 : 6만원(재투고 논문일 경우에도 동일 적용)
단, 이의제기로 인한 재심사 논문의 경우에는 재심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심사료 6만원과 회의비 4만원(합계 10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 게재료 : 기본 10만원(편집면 24쪽 이내)
추가분량 편집면 1쪽당 2만원씩 추가(편집면 최대 30쪽까지 가능)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교내지원 10만원, 교외지원 20만원 추가
단, 두 곳 이상의 지원을 받는 연구비 수혜논문은 항목별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가 납부한다.(게재료는 연구비 지원이 높은 곳

을 기준으로 청구비는 가장 높은 금액 100%와 나머지는 각각 50%를 합하여 계산한다.)

- 편집면 24쪽 이내 게재료의 예:

교외지원(100%)+교내지원(50%)=40만원

교외지원(100%)+교외지원(50%)+교내지원(50%)=55만원

4. 회비 납부 안내

학회 가입비, 연회비 및 심사료는 다음과 같으며, 논문 심사는 연회비 및 심사료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가입비 : 30,000원

연회비 : 30,000원

투고 논문 심사료 : 60,000원

학술지 해외 배송료 : 20,000원 (중국의 경우, 기타 해외지역은 별도문의)

학회통장 : 신한은행 100-029-987203 한중인문학회

* 연회비를 장기미납하신 회원의 경우 아래의 가, 나, 다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해주시 바랍니다.(국내, 국외 회원 동일하게 적용)

가. 1년 연회비 3만원과 재입회비 3만원, 총 6만원 납부

나. 3년 연회비 9만원 납부

다. 5년내 연회비를 납부실적 있을 경우 재입회비 면제, 연회비 3만원 납부

* 회원 주소록을 정비하오니 소속,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메일로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학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한중인문학회 신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인문학회 도메인 주소 : <http://kochih.kr/>

신규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ID 생성 시 영문 또는 숫자만 허용합니다. 이에 기존 가입자 중 특수기호나 스페이스가 들어간 ID는 교체를 권장해드립니다.

6. 학회지 PDF 발송

2018 가을 학회 총회 의결에 따라 제62집부터 기관 회원 등을 제외한 모든 회원님께 PDF 파일로 된 학회지를 발송합니다.

한중인문학회 제12기 임원진 및 위원진

(2020.1.1~2021.12.31)

명 예 회 장	김상대(아주대 명예)	한계전(서울대 명예)	송현호(아주대 명예)
	최병우(강릉원주대 명예)	박윤우(서경대)	한용수(동국대)
	임경순(한국외대)		
고 문	김공환(아주대 명예)	김종철(서울대)	김호웅(중국 연변대)
	김현숙(이화여대 명예)	류종렬(부산외대)	민현식(서울대)
	박경현(경철대 명예)	박순애(호남대)	박옥걸(아주대 명예)
	박인기(경인교대 명예)	박일룡(홍익대)	서준섭(강원대 명예)
	송하춘(고려대 명예)	우한용(서울대 명예)	유인순(강원대 명예)
	윤석달(항공대 명예)	윤여탁(서울대)	이정숙(한성대 명예)
	전인영(이화여대 명예)	정병현(숙명여대 명예)	조창환(아주대 명예)
	최유찬(연세대 명예)	최학출(울산대 명예)	
회 장	유성선(강원대)		
전공 부회장	구본관(어학:서울대)	정호웅(문학:홍익대)	임치균(고전:한중연)
	문철영(역사:단국대)	김성룡(사상:호서대)	차성만(문화:서경대)
	서 혁(교육:이화여대)	장현숙(여성:가천대)	박현규(한국학:순천향대)
	전영근(교육:광동외어의무대)		
지역 부회장	이명찬(서울:덕성여대)	유문선(인천경기:한신대)	이미립(강원:강릉원주대)
	송기환(대전:대전대)	이후일(충청:선문대)	김하림(광주:조선대)
	공종구(전라:군산대)	박경수(부산:부산외대)	백수진(대구:계명대)
	김주현(경상:경북대)	조성식(제주:제주대)	
행정 부회장	정래필(영남대)		
분 과 이 사	[총무] 이기원(학술:강원대)	황정희(재정:강원대)	민재원(전북대)
	박 진(국민대)	우신영(인천대)	조명숙(아주대)
	구재진(세명대)		홍순애(동덕여대)
	[기획] 김정우(이화여대)	박 강(부산외대)	윤선자(전남대)
	정충권(충북대)	황영미(숙명여대)	남연(북경대)
	김 준(고려대)		정우택(성균관대)
	[연구] 김 현(서울대)	김근호(전남대)	김신정(방송대)
	송윤미(강원대)	조하연(아주대)	김명숙(중앙민족대)
	이난숙(강원대)		최미숙(상명대)
	[편집] 전 궁(국민대)	김성진(대구대)	김 현(서울대)
	여호규(한국외대)	이명아(동국대)	장윤희(인하대)
	김정우(이화여대)	이혜영(중국해양대)	유정은(강원대)
	박 강(부산외대)	박성일(한국체대)	이선이(경희대)
	임대근(한국외대)	정래필(영남대)	김호정(서울대)
			김원중(단국대)
			민재원(전북대)
			임치균(한중연)

	<u>[국제]</u>	박성일(한국채대)	김환기(동국대)	신영택(인니국립대)	임대근(한국외대)
		박준란(서북정법대)	윤경애(대원민족대)	이영남(광서사범대)	
		김영희(조지메이슨대)	김여진(강원대)	선저이꾸마르(네루대)	
		유전전(운남사범대문리학원)			
	<u>[섭외]</u>	조원일(전남대)	김원중(단국대)	김 호(경인교대)	오영미(한국교통대)
		조현일(원광대)	지수용(화중사범대)	유전전(운남사범대문리학원)	
	<u>[홍보]</u>	황혜진(건국대)	김상일(동국대)	김영주(대진대)	김현주(한국외대)
		이태숙(단국대)	최재선(산업기술대)	김경선(북경외대)	여수일(중국육림대)
	<u>[교육]</u>	권순희(이화여대)	김미순(한국외대)	김성진(대구대)	김혜영(조선대)
		류수열(한양대)	송현정(제주대)	허재영(단국대)	전영근(광둥외어외무대)
		하운서(강원대)			
	<u>[정보]</u>	김형규(아주대)	권혁래(용인대)	박종훈(부산교대)	장은영(조선대)
		차희정(명지대)	최인자(가톨릭대)	노금숙(호남사범대)	윤 호(절강공상대학)
		섭우군(절강공상대학)			
	<u>[출판]</u>	윤의섭(대전대)	곽명숙(아주대)	권성우(숙명여대)	김원명(한국외대)
		류보선(군산대)	최일의(강릉원주대)	최호영(경북대)	김두영(강원대)
감	사	: 구재진(세명대), 구문규(강릉원주대)			
간	사	: 행정학술-조기연(강원대), 편집정보-이봉재(강원대)			

* 밑줄은 실무담당 상임이사입니다.

〈편집위원회〉

편집자문위원 : 권용옥(남서울대)	김석희(인하대명예)	류종렬(부산외대)
민현식(서울대)	박인기(경인교대명예)	서준섭(강원대명예)
손희하(전남대)	윤여탁(서울대)	윤정룡(한남대명예)
이영춘(한중문화연구원)	전인영(이화여대명예)	정병현(숙명여대명예)
최유찬(연세대명예)	金基石(上海外國語大)	金虎雄(延邊大)
沈定昌(北京大)	尹允鎮(吉林大)	許世立(吉林大·珠海)

- 총18명

편집위원장 : 이은희(한성대)

편 집 위 원 : 김성진(대구대)	김원중(단국대)	김정우(이화여대)	김 현(서울대)
김호정(서울대)	민재원(전북대)	박 강(부산외대)	박성일(한국채대)
신재홍(가천대)	여호규(한국외대)	유정은(강원대)	윤의섭(대전대)
이선이(경희대)	임치균(한중연)	장윤희(인하대)	전 국(국민대)
정래필(영남대)	이해영(중국해양대)	한용수(동국대)	

- 총20명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 임경순(한국외대)

위 원 : 김성룡(호서대)

박윤우(서경대)

이선이(경희대)

전 공(국민대)

김정우(이화여대)

박일룡(홍익대)

이영호(제주대)

조원일(전남대)

문철영(단국대)

유성선(강원대)

이은희(한성대)

한용수(동국대)

박성일(한국체대)

윤의섭(대전대)

임치균(한중연)

- 총16명

한중인문학연구 제72집

2021年 9月 27日 印刷

2021年 9月 30日 刊行

發行人 : 유 성 선

事務室 :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3호관 121호 인문 학부 철학전공

한중인문학회 회장 유성선

T. 033-250-8230 F. 0303-3440-9676

<http://kochih.kr/>

E-mail : kochih@hanmail.net

製作處 : 도서출판 솔문,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205-803

전화 : 02-306-9588, 팩스 : 02-309-9588

값 15,000원

